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의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10. 12.(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참석위원 : 박은경(위원장), 김규호, 김순희, 김태영,
박은순, 이완우, 이종민, 이한상, 임영애,
최영호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비 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공 개
2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	공 개
3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	공 개
4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공 개
5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공 개
6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 및 복장전적	공 개
7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공 개
8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	공 개
【검토사항】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9	부안 내소사 동종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0	소소승자총통	공 개
11	백자 향아리	공 개
12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	공 개
13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	공 개
14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	공 개
15	홍무31년노비문서	공 개
16	천순3년총마계	공 개
17	복재선생집	공 개
18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공 개

심 의 사 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3-05-001

1.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求禮 華嚴寺 塑造四天王像)

가. 심의사항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5.3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9.7.~'23.10.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求禮 華嚴寺 塑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화엄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5m
-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세기 전반, 1632~1636년 추정)
- 제작자 : 미상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은 5m에 이르는 거대한 규격에 사실적인 조각기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네 구 모두 의자에 앉은 자세에 방형의 큰 얼굴과 당당한 신체, 정면 또는 사선으로 처리된 다양한 시선, 역동적인 동작 등이 특징이다. 부릅뜬 눈과 큼직한 코, 화문과 구름, 봉황, 용 등이 장식된 크고 화려한 보관을 썼으며, 발 밑에는 생령좌가 없는 점도 특징이다.

화엄사 사천왕상은 전체적으로 1628년의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도상 및 형식 등 기본적인 특징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서방광목천왕의 지물이 보당과 몽구스인 점도 동일하다. 그러나 무릎을 벌려 안정적인 자세를 취한 점과 더욱 커진 팔의 동작성과 정교성을 가미해 역동성이고 사실적인 사천왕을 연출한 점에서 조형적인 차별성을 두었다.

사천왕상의 배치는 조선후기 사천왕의 일반적인 구성을 따랐다. 즉, 오른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과 검을 든 동방지국천왕, 향 좌측으로는 용·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과 몽구스와 보당을 든 서방광목천왕으로 배치되어 있다. 즉, 북→동→남→서방의 순서이다.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은 내부 복장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제작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화엄사는 백곡 처능의 『사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행장』을 비롯한 사적기의 내용을 통해 1630~1636년 경 중창불사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은 목심에 흙을 덧바른 소조상으로 1628년의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과 재질 및 지물, 양식적 특징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따라서, 벽암 각성에 의한 화엄사의 중창이 이루어진 17세기전반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은 큰 규모에 사례가 적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조형적 우수성을 갖춘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은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표준작이라 할만큼 정형성을 지니고 있다. 보관의 형태, 갑옷의 형식과 문양, 착의법, 요대와 장신구, 지물 등의 측면에서 네 천왕이 유사하면서도 각각 개성있게 변형을 주고 있어 세부장엄을 동일하게 처리한 다른 사찰 천왕문의 사례들과는 비교가 된다. 또한 거의 동일한 도상과 양식으로 여수 홍국사 사천왕의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유형이 17세기 전반 표준적으로 널리 알려졌던 도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통적인 탑을 든 북방다문천왕의 도상을 서방광목천왕으로 조성하는 대신에 티베트 불교도상에서 영향을 받은 서수(瑞獸)를 데리고 있는 도상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천왕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의 채색이 어느 정도 원형을 계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천왕상의 얼굴색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 피부톤에 변화를 준 것은 다른 사찰에서 같은 피부톤으로 채색한 사례들에 비해 원형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천왕이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 역시 천왕문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의식한 각도로 생각되어 가장 이상적인 형식이 아닌가 추정된다.

현재 사천왕 발 아래의 악귀들이 보이지 않아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여수 홍국사 사천왕상들도 악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래부터 없었을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북방다문천왕의 비파는 실제 비파처럼 내부가 비어있지는 않지만, 비파의 목과 줄감개통이 만나는 원산(너트)이 실제 비파처럼 돌출되어 있어 현이 걸쳐있는 구조이다. 또한 줄감개통도 제대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어떤 경우는 목에 줄이 떠 있을 수 있도록 브릿지 같은 것을 세워놓는 경우도 있지만, 화엄사 북방다문천의 비파의 구조가 가장 사실에 가깝다.

옷주름이나 옷자락의 펄럭이는 부분이 도식적이지 않고 매우 자연스러우며, 끈이나 띠를 묶은 표현도 마치 실제로 매듭지어진 것처럼 사실적이어서 세부 묘사에 세심한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사천왕의 옷자락 등을 천왕문 상부 부재에 걸어두기 위해 연결한 철근 등은 현대적인 와이어로 걸려있는 상태에 비해 원형에 가까워, 추후 와이어로 결구된 다른 천왕문의 경우 복원고증에 참고가 된다.

화엄사 사천왕상은 제작연도, 제작자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특이하게 여수 홍국사상과 동일한 범본이라는 점에서 이 시대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보

관의 세부 장식 등의 남아있는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하다. 발 아래의 악귀들이 없는 것이 원형인지, 혹은 유실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동일한 범본인 흥국사 역시 없는 것으로 보아, 유실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 보존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수 흥국사 천왕상은 악귀가 없는 대신 천왕상이 봉안된 바닥 전면을 소조로 만든 물결문으로 메운 반면, 화엄사 천왕문의 바닥은 마루바닥이 노출되어 있어, 만약 악귀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화엄사 천왕문의 바닥 역시 소조 물결문으로 장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천왕상의 앞부분은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만, 뒷부분은 소조의 표면이 박락되어 내부 흙과 충전재인 새끼줄 등이 노출된 부분도 있어 차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선후기 사천왕 도상의 표준형으로서 화엄사 사천왕상은 더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사천왕상의 조성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에서 보이는 위엄과 기품이 넘치는 표현양상에서 화엄사가 중창불사가 시작되던 1632년부터 1단계 불사가 마무리되는 163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 화엄사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으로는 청현, 영이, 인균, 응원 정도인데, 상에서 보이는 시원하고 위엄 있는 이목구비와 중량감 넘치는 조형미, 그리고 사천왕상의 손의 위치와 시선처리, 갑옷의 표현, 持物을 취한 자세 등은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이나 여수 흥국사 사천왕상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이 사천왕상도 당시 벽암문도의 조각승 중 화엄사 일원에서 활약하던 응원과 인균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은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그 제작사례가 드물고 사천왕상으로 갖춰야 할 기백과 기품, 뛰어난 조형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곳곳에 균열과 안료와 소지층의 탈·박락 등 손상이 확인되므로 정밀진단을 통한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 (지정 가치 있음)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은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28년)과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49년)과 비교할 때 전혀 뒤지지 않는 조각적인 완성도를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다. 더불어 임진왜란 후 전국의 사찰이 중건되던 시기, 가장 많은 불사를 주도했던 벽암각성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교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상이다. 소조불상은 흙이라

는 재료의 특성 상 유래가 많지 않고 훼손이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내 력

구례 화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로서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십찰 중의 한 곳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은 물론 주요 정보유산들이 시대별로 많은 사찰로도 유명하다. 화엄사의 내력과 중창 등을 다룬 사적기도 전한다. 현재는 없어진 중관 해안(中觀 海眼, 1567~?)의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여기에 발문을 붙인 백암 성충(柏庵 性聰, 1631~1700)의 1697년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1697년, 33.7×26cm, 화엄사정보박물관), 1740년 이후의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 필사본』 등이 전한다. 그리고, 백곡 처능(白谷 處能, 1617~1680)이 쓴 『사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행장(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도 중요하다.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는 벽암 각성(1575~1660)이 1626년 인조로부터 받은 시호이다.

이 기록 가운데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화엄사 중창에 대한 내용이 주목하다. 백곡 처능의 『사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행장』에는 ‘壬申年(1632년)에 화엄사를 수리하자 돈을 내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으며 성대하게 총림이 되었다’라고 하였다(<한국불교전서>, 동국대출판부, 2015).

즉, 화엄사는 1632년 벽암각성의 주도하에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다. 현재 남아 있는 대웅전은 1636년, 불단에 봉안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1635년에 제작되어 중창불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구례 화엄사는 벽암 각성의 주도하에 1630년 경부터 1636년까지 대규모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창 시기에 천왕문과 사천왕상도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도1).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은 잘 보전되어 있지만 훼손된 부분도 많은 편이다. 천왕상의 뒷면을 중심으로 소조편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며, 이에 내부 목심과 철못이 표면에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로 앞으로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밑면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묵서도 남아 있다(도2).



<도1. 화엄사 천왕문>



<도2. 뒷면 훼손 부위와 밑면 묵서(남방)>

○ 현상과 특징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은 5m의 대형 크기로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덧붙여 만든 소조상이며, 훼손된 부분을 통해 소조토에 새끼줄을 섞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사천왕의 무게는 천왕문의 천장과 뒷면에 철심으로 상과 서로 고정하여 지탱하였다. 사천왕은 천왕문의 좌우에 2구씩 모두 4구가 의자에 걸터앉은 자세로 안치되어 있다(도3). 의자는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를 나무로 짜 맞춘 튼튼한 구조이며, 의자 밑 부분은 막혀 있다. 사천왕은 얼굴 모습의 볼륨감과 표정 묘사가 뛰어나며, 대형 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각 부의 비례가 잘 맞아 균형잡힌 모습이다. 자세는 정면 또는 사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특징이며, 남

방천왕은 측면을 향해 용을 무섭게 노려보며 제압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사천왕은 모두 낮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의 나무로 만든 화려한 보관을 썼는데, 화문, 용, 봉황, 새, 구름 등의 장식을 만들어 보관과 두꺼운 철사로 고정하였다. 보관의 양 측면에는 위로 올라가는 구불거리는 관대를 두었으며 머리카락은 귀 중간을 감으면서 흘러내려 어깨에 늘어졌는데 두 가닥은 위로 솟아오르게 처리하였다. 얼굴은 방형의 넓직한 형태에 두 눈을 크게 뜨거나 부릅떠서 매우 위협적인 모습이다. 콧망울이 넓은 코, 미간과 이마에는 굵은 주름을 표현하여 인상적인 표정을 연출하였다. 균형 잡힌 당당한 신체에는 평상복 위에 갑옷을 입었으며 가슴과 허리, 팔뚝, 정강이에 흉갑, 상갑, 허리띠 등을 차용하였고,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다. 소매부리를 말아 바래에 생긴 끝단에 묶었는데 소매부리가 위로 솟아 긴장감을 주는 모습이다.

천왕상의 발 밑에 생령좌들이 없는데 이 점은 매우 특이하다. 생령좌가 없는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구례 화엄사와 여수 흥국사가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북방



동방



남방



서방

<도3.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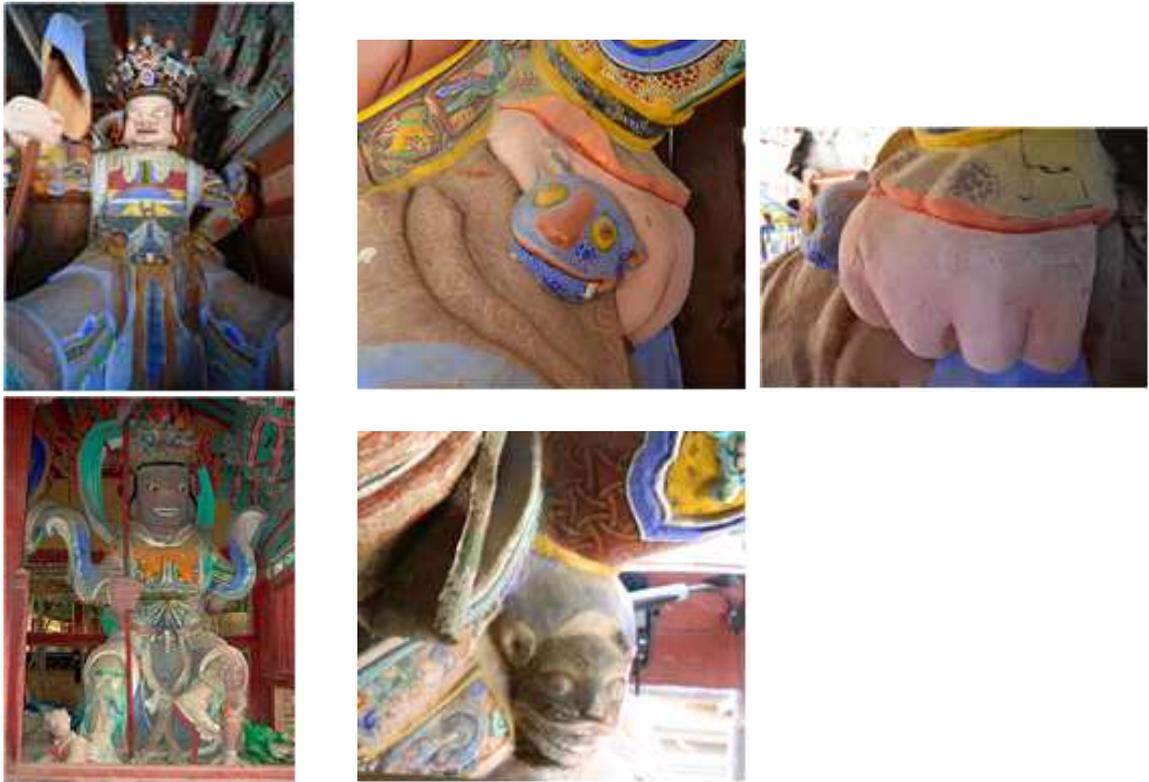
사천왕상의 배치는 오른쪽(향 우측) 부터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과 검을 든 동방지국천왕, 왼쪽(향 좌측)으로는 용·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몽구스와 보당을 든 서방광목천왕이 시계방향으로 북→동→남→서방의 순서로 안치되어 있다. 이는 조선후기 사천왕의 일반적인 배치형식이다.

화엄사 사천왕상은 순천 송광사, 여수 흥국사 사천왕상과 배치는 물론 사천왕의 형식 및 양식적인 특징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과는 재료는 물론 자세와 지물, 방형의 얼굴 형태, 찡그린 표정과 이마의 주름, 콧방울을 넓고 두텁게 표현한 점, 위로 솟은 어깨 위의 머리카락, 목에 두른 스카프까지 유사하다(도4). 또한, 서방천왕의 지물인 몽구스의 목을 허리에서 잡은 자세 및 짧은 귀에 동그랗게 뜬 눈, 밋밋한 머리 형태의 몽구스 형태까지도 같다(도5). 이는 화엄사 사천왕상이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만든 조각승 응원과 연관되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그러나, 화엄사 사천왕상과 송광사 사천왕상의 조형적 차이점도 발견된다. 송광사 사천왕상의 경우 위로 치솟은 소매부리가 크고 과장되었으며 자세는 정면 위주에 소극적 자세가 특징이다. 반면, 화엄사 사천왕상은 전체적으로 유연하고 사실적이며 무릎을 더 넓게 벌리고 팔의 동작성을 크게 하여 자연스러우면서 역동성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사천왕의 자세나 동작성은 1649년에 조성된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과 좀 더 비슷하게 보인다(도 4). 예를 들어,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천왕의 경우 시선을 용을 향해 사선으로 두고 여의주를 든 팔을 쪽 뺀어 용을 제압하는 동작성은 완주 송광사 사천왕과 더 가깝게 느껴진다.

명칭 및 제작시기, 조각승	동방천왕 (칼)	남방천왕 (용, 여의주)	서방천왕 (당, 몽구스 또는 탑)	북방천왕 (비파)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28년, 응원, 보물)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 (1632년 경)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49년, 보물)				

<도4. 17세기 전반 소조사천왕상 비교>



<도5. 구례 화엄사(상)와 순천 송광사(하)의 서방광목천왕 몽구스 비교>

따라서, 화엄사 사천왕상의 제작시기는 순천 송광사와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이 만들어진 1628년에서 1649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화엄사 중창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중창불사가 활발하게 진행된 1632~1636년에 제작되었을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만든 조각승 응원의 제작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 현 상

화엄사 천왕문은 벽암 각성의 주도로 이루어진 1630~1636년의 중건 기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맞배지붕 건축이다.[도 1] 화엄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축선으로 보았을 때 남쪽에서 다소 서쪽으로 치우친 좌향을 하고 있으며, 천왕문 역시 같은 좌향의 축선에 놓여있다. 천왕문으로 진입하면 건물의 동쪽인 우측의 안쪽에 북방, 바깥쪽에 동방천왕이 배치되어 있으며, 서쪽인 좌측의 안쪽에는 광목천왕, 바깥쪽에는 증장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방위로 보면 북방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각 방위의 천왕들을 이동시켜 배치한 조선시대 천왕문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도1. 화엄사 천왕문>

북방천왕은 진입시점에서 보자면 우측 안쪽에 위치하며, 비파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을 따랐다.[도2] 착용한 보관은 화염보주가 상단을 장엄했고, 그 아래로 가운데의 푸른 봉황과 좌우의 흰 학이 날고 있으며, 보관의 정면 중앙에는 황룡의 우측(향좌측·북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측면으로 묘사되었다.[도3] 이 주변으로는 꽃을 위에서 본 모양의 장식이 구름문양과 함께 달려있다. 그중에서 꽃잎이 네모난 모양으로 펼쳐진 장식은 다른데서는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어서 눈에 띈다. 보관 관대의 뒷면 좌우에는 2중의 S자형으로 휘날리는 붉은색 띠가 달려 있는데,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관 좌우에 달려 펼럭이는 띠와 유사한 형태이다. 다만 다른 사찰의 천왕상들은 이 띠가 두껍게 표현된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매우 가느다란 띠로 표현된 것이 다르다. 보관 아래의 타래진 머리카락 표현도 보살상의 보발 표현과 같은 형식이며, 좌우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어깨로 내려와 펼쳐지는 모습도 보살상에서의 표현과 유사한데, 다만 한 가닥만 귀를 덮고 있는 점, 어깨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둥글게 한번 감긴 다음 마치 달팽이 더듬이처럼 두 갈래의 끝이 솟아있는 점이 특이하다. 머리카락의 울도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강인한 모습이며 주름살 등은 없어 비교적 젊은 인상을 주는데, 양쪽 눈썹이 굵고 입체감 있게 도드라져 있는데 끝이 갈고리처럼 말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간에는 힘을 주고 무엇인가를 노려보거나 혹은 찌푸릴 때 나타나는 주름이 U자형으로 도드라지게 표현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 콧등의 뿌리 부분이 한번 주름진 다음 크고 몽툰한 콧등이 이어진다.

얼굴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천왕문의 출구 쪽을 바라보는 듯 고개를 살짝 틀고 있다. 눈꼬리와 입술이 모두 위로 추켜올라가 있는데, 눈은 부릅뜬 모습이고, 입술은 앞니만 드러나게 웃는 모습이어서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친근한 인상을 합쳐놓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도2. 북방다문천왕상>

<도3. 북방다문천 두부 세부>

<도4. 북방다문천 상체 세부>

일반적으로 천왕의 목은 힘줄이 잔뜩 서있는 모습이 강조되지만 여기서는 목둘레에 두른 스카프가 다른 사찰의 천왕들에 비해 폭이 넓은 스카프여서 목과 갑옷의 흉갑을 넓게 가리고 있다.[도4] 흉갑은 가운데에 띠를 두르고 끈으로 묶었는데, 이 띠 윗부분은 소슬금문, 아래는 어린문(魚鱗紋)으로 꾸몄는데, 돈을새김이 아니라 채색으로만 문양을 그려 넣은 것이다. 어깨를 덮는 상박갑 및 허벅지를 가리는 군갑(裙甲)도 모두 어린문으로 꾸몄는데, 어린문의 경우 상박갑만 푸른색이고, 다른 부분은 갈색으로 채색되었다.

상박갑의 상단은 황색의 사자가 입을 벌려 상박갑을 물고 있는 형식이다.[도5] 상박갑 아래로는 옷자락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위로 넓게 솟아있다. 이 소매자락은 붉은 색으로 채색되었고, 더불어 글자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목숨 수(壽)’의 도안을 간략히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함께 펼쳐지는 옷자락은 소조상으로서의 구조적으로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매에 고리를 달아 긴 철근을 이어 천왕문의 상부구조에 걸어두었다.[도6] 다른 천왕문도 이러한 양상을 보이지만, 현대적으로 제작된 와이어를 이용해 매달아 놓은 곳도 있는 반면, 여기서는 전통적인 철근을 이용해 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형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허리에 두른 요대의 버클인 대구(帶鉤)는 정면에서는 지물인 비파에 가려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지만 다른 천왕들과 마찬가지로 요대의 중앙을 물고 있는 사자 혹은 해태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청색으로 채색되었다. 요대의 각 마디는 황색의 사자, 청색에 오방색 깃털을 지닌 봉황 등으로 입체적이면서 화려하게 꾸몄다. 그 아래로는 흰색의 띠 두 가닥이 흘러내리다가 X자형으로 교차되며 바닥에 늘어뜨려지고 있다.[도7]



<도5. 북방다문천 상박갑 세부> <도6. 북방다문천 상체 반측면> <도7. 북방다문천 하체 옷자락>

북방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는데, 다른 사찰의 북방천왕과 비교해보면 비파의 크기가 천왕의 크기에 비해 다소 작은 느낌이다. 이렇게 작은 비파를 들고 있는 것은 북방천왕이 비파를 들고 있는 손이 실제로 그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 손 안에 들릴 수 있는 비파의 크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통 오른손은 비파의 현을 튕기고, 왼손은 비파의 지판 부분을 잡고 있는데, 화엄사 북방천왕은 오른손이 비파의 목 가까이를 잡고 있고, 일부의 손가락이 지판을 짚을 수 있는 위치이다.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마치 우쿨렐레와 같은 작은 악기를 다룰 때의 자세로도 볼 수 있고, 북방천왕의 손의 간격은 원래의 모습인 것 같으므로, 이러한 자세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파의 중간에는 흰 칠이 된 부분에 코끼리 눈 같은 것을 그려 비파의 울림구멍을 표현했는데, 실제 비파처럼 구멍이 뚫려있다. 비파는 목이 굽은 당비파 형식인데, 비파 끝의 줄감개통을 실제로 파고 그 안에 줄감개를 달아 현을 고정하고 있다.[도8] 또한 원산(nut) 부분도 실제 비파와 동일하게 돌출되도록 하여 여기에 현이 걸쳐지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실제 비파의 생김새에 대한 고증이 충실한 비파로 볼 수 있다.



<도8. 북방다문천 비과 줄감개통 세부>



<도9. 북방다문천 하의, 슬갑과 신발 세부>

하체의 허벅지를 덮은 군갑 아래로는 황색에 꽃무늬가 그려진 바지를 입고 있으며, 무릎에서 이 바지를 붉은 끈으로 묶었다.[도9] 아마도 활동의 편의성을 위해 실제 이렇게 갑옷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바지 아래의 종아리 부분에는 정강이를 보호하는 슬갑을 착용하고 있다. 발목에는 양쪽 테두리가 굵은 금색의 돈을새김이 된 발찌를 착용하였으며, 신발은 겉면이 주로 줄무늬로 꾸며진 형태로서 신발끈 매는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는 연속된 물방울 무늬가 길게 이어져 있다. 신발 끝 부분, 즉 정면은 여의두문으로 마감되었다.

북방천왕의 측면으로 흘러내린 옷자락은 섬세하고 자연스럽게 옷주름을 표현했는데, 옷자락 틈에 마치 두 개의 골뱅이 껍질처럼 생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인다.[도10] 이것이 단순히 옷자락이 말린 것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과 연관된 표현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도10. 북방다문천 측면의 옷자락 처리>



<도11. 북방다문천의 앉은 자세와 바닥>

일반적으로 천왕의 발 밑에는 악귀들이 표현되는데, 화엄사 천왕문의 천왕상들에는 이 악귀가 남아있지 않다. 천왕의 자세를 보면 발을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왼발은 살짝 들고 있고 오른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현재는 천왕문의 마루바닥에 발이 닿아있다.[도11] 만약 원래는 악귀가 있었다면 왼발은 공중에 떠 있으므로

그 사이에 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다. 현재는 이렇게 발을 받칠 악귀가 없어 발 아래에 기둥처럼 받침을 달아 발을 들고 있다. 반면 오른발의 경우는 발이 바닥에 닿아있어 그 사이에 악귀가 들어갈 틈이 없다. 지금의 상황으로만 보면 원래부터 악귀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바닥이 지금보다 더 낮았다면 악귀가 바닥과 천왕의 발 사이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천왕의 좌우에서 내려온 옷자락인 피건(被巾)이 다른 경우에는 바닥에 더 길게 늘어뜨려져서 천왕의 전면부까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측면에서 짧게 마무리된 것도 바닥면이 원래보다 높게 마감되면서 바닥에 흘러내린 옷자락 부분을 제거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염사 사천왕상은 여러 면에서 여수 홍국사 사천왕상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홍국사 사천왕상도 천왕 발 아래에 악귀가 없다. 두 사찰의 천왕문이 우연히 동일하게 악귀들이 유실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이 두 계통의 천왕상은 악귀가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원래부터 악귀가 없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고려해볼만 하다.

어깨에 걸친 피건은 등 뒤에서는 바람에 나무끼듯이 위로 솟구쳐 있고 여기에 화염문이 붙으면서 광배의 역할을 하고 있다.[도6] 이 옷자락은 가장 상단부가 천왕문의 측벽 기둥에 달린 가로부재에 고정되어 있다. 이 상이 소조상임을 감안할 때 천왕문과 분리가 매우 어려워 보여 현재로서는 천왕문의 건립과 사천왕 조성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동방지국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은 기본적으로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지만, 지물이나 채색, 표정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동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우선 얼굴표정이 눈을 부릅뜨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며, 천왕문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을 내려다 보고 있는 듯하다.[도12] 지물로는 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마치 당장이라도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듯이 어깨를 높이 들어 칼을 들고 있으며, 반면 왼손은 허벅지 위에 살짝 들고 있는 상태로 양쪽 어깨의 높이차가 크다. 칼은 손잡이 끝이 둥글게 말려 있어 장식적이지만 코등이 부분은 유실되어 없다. 칼날은 푸른색으로 채색된 상태다.

한편 측면에서 보면 흘러내린 옷자락이 북방천왕에 비해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다. 옷주름은 거의 보이지 않고 평면적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북방천왕의 옷주름처럼 되어 있던 것이 수리 과정에서 간략하게 마감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대의 대구는 연두색에 점박이 문양이 있는 사자, 혹은 해태의 얼굴이고, 요대의 마디는 다양한 색채의 용, 푸른색 사자, 그리고 끝단은 봉황으로 장식되어 있다. [도13] 대구의 사자는 아래턱에 흰 끈을 물고 있는데 턱 양쪽으로 흘러내린 끈이 중간에서 X자형으로 매듭지어지며 바닥으로 흘러내린다. 이러한 형식은 북방천왕과

동일한데 다만 북방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는 가려지지 않아 확인이 용이하다.



<도12. 동방지국천> <도13. 동방지국천 상체 세부> <도14. 동방지국천 뒷면 옷자락>

동방천왕의 뒷면이나 혹은 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손바닥 부분은 소조의 표면이 박락되어 있고, 뒤쪽으로 휘날리는 피건 자락의 경우는 표면이 박락된 사이로 진흙을 고착하는 새끼줄 등이 일부 드러나 보인다.[도14] 표면이 박락된 곳은 모기장 같은 철망으로 임시적으로 감싸서 추가적인 박락을 보호하고 있다.

반대편의 남방증장천왕도 장엄요소는 대동소이하며 얼굴표정에 있어 입술의 양끝을 더 아래로 쳐지게 하여 힘을 주어 꼭 다물고 있는 인상을 강조했다.[도15] 현재의 채색이 어느 정도 원형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부색의 경우 맞은편 북방·동방천왕에 비해 남방 및 서방천왕은 더 붉은빛이 도는 살색으로 채색했다. 지물로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는데, 이 자세도 동방천왕과 마찬가지로 양쪽 팔을 넓게 벌려 다소 과장된 자세로 들고 있다. 오른손에 잡고 있는 용은 황룡이며 몸에 주황색 점박이 문양이 시문되었다.[도16] 천왕의 팔뚝을 몸으로 휘감고 있는데, 용의 뿔, 뿔, 귀와 혀 등이 세밀하게 묘사되었다. 더불어 다른 천왕들과 달리 양쪽 다리의 군갑과 군갑 사이에 마치 담요를 덮은 듯 푸른색 천이 걸쳐져 있다.[도17] 이러한 착의법은 화엄사 천왕문에서도 유일한 모습이고, 다른 사찰의 천왕문에서도 드문 사례로 주목된다. 이 천의가 있으므로 해서 요대에서 흘러내린 흰 띠가 매우 복잡한 형태로 꼬이면서 늘어뜨려져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위해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보인다.



<도15. 남방증장천> <도16. 남방증장천의 지물인 용> <도17. 남방증장천 하체 세부>

서방광목천은 마치 맞은편 북방천왕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며, 입을 벌려 고함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도18] 갑옷 착의에서 특징적인 것은 서방천왕은 다른 천왕과 달리 동물가죽 형태의 장식을 매달고 있는데, 이런 동물가죽은 다른 사찰의 천왕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요대에 있는 대구에 달린 고리에 이런 가죽이 매달려 있는 것에 비해, 화엄사 서방광목천은 흉갑을 두른 천을 묶은 흰 끈의 매듭에 고리가 달려있어서 이 고리에 꿰어있는 모습이다.[도19] 또한 동물가죽은 좌우대칭으로 코와 눈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턱 안의 이빨 및 뒷다리까지 표현되어 있다. 마치 너구리과의 동물가죽처럼 보이는데, 이마 부분에 하나의 뿔이 돌아난 흔적이 있어 현실적인 동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방천왕의 지물은 원래 경전에 따라 북방천왕의 도상에 해당하는 보탑과 당을 들고 있지만 여기서도 탑 대신 사자처럼 생긴 푸른 동물을 왼손으로 잡아 허리에 품고 있다.[도20] 이러한 도상은 티베트 불교도상에서 북방다문천이 들고 있는 몽구스를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른손에는 당을 들고 있는데, 그 끝은 삼지창으로 되어 있고 바로 아래에 걸은 푸르고 안은 붉은 천이 마치 술장식처럼 달려 나부끼고 있다.



<도18. 서방광목천>

<도19. 서방광목천 하체 세부>

<도20. 서방광목천 지물인 서수>



○ 조사내용

화엄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하여 지리산 내의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주요 전각들이 모두 소실되었다. 소실된 전각과 예배존상의 중창은 17세기 들어서서 본격화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벽암각성이 있었다.

1592년(선조 25)에 발발한 임진왜란 당시 화엄사에서는 승군을 조직하여 전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당시 주지였던 雪弘은 승군 300여 명을 규합하여 호남 일대로 진격하는 일본군과 맞서 楡谷의 石柱鎭에서 싸우다 전사하였고 1593년 일본군은 화엄사의 전각 500여 칸을 소각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장육전의 화엄석경도 불에 탔다.¹⁾ 임진왜란으로 화엄사의 전각 대부분이 소실된 후 1630년에 가서야 대규모 중창불사가 시작되었다. 이때 화엄사 승려들의 요청에 의해 碧巖覺性(1575~1660)이 공역을 주관하였고 7년만인 1636년에 一次 완공되었다. 즉 中觀海眼(1657~?)이 1636년에 저술한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과 義昌君 李珖(1589~1645)이 쓴 <화엄사 일주문 편역>, <화엄사 대웅전 편역>을 통해 1636년경에 1단계 불사가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관해안은 휴정의 제자로서 임진왜란 때 승장으로 크게 활약한 인물인데 일찍이 화엄사에서 법회를 열고 龍門庵에 머문 적이 있으며 만년에는 大隱庵에 주석하였다.²⁾ 화엄사사적에는 1593년 왜군에 의해 큰

1) 伽山智冠, 「禪教兩宗智異山大華嚴寺事蹟碑銘」, 『華嚴寺와 導光大禪師』, 화엄사 화엄문도회, 2008, p.10.

2) 金龍泰, 「朝鮮後期 佛教의 臨濟法統과 教學傳統」,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병화를 입었다는 사실과 1630년 碧巖覺性이 주석하면서 많은 승려들이 7년에 걸친 노력 끝에 법당, 불상, 불화, 종 등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벽암각성은 그의 고향인 보은 범주사(1626년) 재건을 시작으로, 구례 화엄사(1636년), 하동 쌍계사(1640년) 등 영호남의 중요 사찰을 재건하였다. 벽암각성의 화엄사 재건 불사는 화엄사 사적에는 163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백곡처능이 쓴 벽암 각성의 행장인 「사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행장」에는 1632년에 화엄사를 개수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길을 메우고 큰 총림을 이루었다고 적혀있다. 재건 시점에서 두 기록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대체로 1630년 초반부터 본격적인 재건불사가 시작되어 화엄사 사적기가 완성되는 1636년에 중심구역의 불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사천왕상의 조성도 1636년 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근간에 작성된 『화엄사귀중품대장』에는 1632년에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화엄사 중창시작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이전 「화엄사사적기」에 기록된 가람의 현황을 보면, 대웅상적광전, 장육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건물들이 나열되어 있는 가운데, 天王門 三間의 존재도 확인된다. 재건 불사 시 이러한 전대의 역사적 맥락도 고려가 되었을 것이다.

천왕문은 화엄사 가람을 구성하는 중요 건물로, 일주문에서 금강문, 천왕문, 보제루를 거쳐 중정을 통해 주불전인 대웅보전과 각황전으로 연결된다. 사천왕의 배치는 진입부에서 향 우측에 동방과 북방천왕을 배치하였고, 향 좌측에 남방천왕과 서방천왕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조선 후기 사천왕상 배치의 가장 일반적인 경향이다. 북방과 서방은 정면향을 취했고, 동방과 남방은 입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사천왕상의 시선처리는 불화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표1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 배치도>

사천왕상 4구 모두 유사한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머리에는 용봉문, 구름문, 각종 화문, 화염문 등으로 장엄한 화형보관을 착용하였다. 보관 아래로 가지런히 빛은 보발이 표현되었고, 구레나루를 타고 내려온 머리카락을 어깨에서 등글게 엮은 뒤 다시 두 가닥의 머리카락을 하늘로 뻗치게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양감

이 있는 방형의 얼굴에 이목구비는 위엄과 당당한 기품 서려있다. 목에는 스카프를 매듭지어 묶어 頸甲을 대신하였고, 견갑에는 龍文이 표현되어 있다. 상박갑과 비갑, 흉갑, 슬갑, 脛甲을 모두 착용하였다. 허리에는 요의를 두르고 요대를 착용하였다. 갑옷에는 솟슬문과 비늘문 등으로 시문하였고, 스카프와 전포, 박고 등에는 다양한 문양을 시문하였다. 흉갑 위에는 띠모양의 胸帶를 돌리고 밧줄로 묶어 고정하였다. 천의자락은 머리 뒤로 둥글게 돌아 화염광배를 이루고 있으며, 어깨를 걸치고 흘러내려 바닥면까지 폭넓게 드리웠다. 양 팔꿈치 부근에는 전포가 바가지 모양으로 펼럭이고 있다. 바지로는 縛褲를 입었는데, 정강이 부근에서 품 넓은 박고를 끈으로 묶었다. 복부에는 귀면이 표현되었고, 귀면은 腰帶와 綬環을 물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서방천왕은 귀면 대신 수피가 표현되었는데, 수피의 콧구멍에 고리를 끼워 胸帶를 묶은 밧줄에 매달아 두었다.

북방다문천왕은 두 손을 아래로 내려 차분히 비파를 연주하고 있으며, 동방지국천왕은 오른손으로 칼의 손잡이를 잡았고 칼끝은 허벅지 위에 두었다. 칼날은 연봉형으로 굴곡을 주지 않고 침형으로 처리하였다. 남방증장천왕은 오른손은 내려용의 몸통을 잡았으며, 활시위를 당기듯 치켜든 왼손의 엄지와 중지로 구슬만한 여의주를 잡고 있다. 서방은 오른손으로 삼지창이 달려 있는 당을 움켜쥐었고, 왼손은 허리춤에서 몽구스를 쥐고 있다. 서방광목천왕에서 몽구스 같은 동물형상을 지물로 취하는 도상은 순천 송광사, 여수 흥국사 등인데, 이들은 모두 벽암각성 또는 그의 문도들이 중창한 사찰이다. 이들 사찰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으로는 應元과 印均들 수 있다. 이 두 조각승은 벽암문도로 파악되며, 벽암각성과 함께 중창 불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조각승이다. 따라서 같은 지역권 내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벽암문도에 의해 중창된 사찰이므로, 이들 사찰에 조성된 사천왕상의 도상적 연관성을 갖는 것은 어찌면 당연할 것이다. 네 구 모두 보관을 쓰고 중량감 넘치는 형태미를 보이며 표현력도 뛰어나며, 대체로 1628년에 제작된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천왕상 얼굴(동방)>



<지물(서방, 몽구스)>



<갑옷의 표현(서방)>

□

○ 현 상

- 화엄사 천왕문(天王門) 안에는 좌우 양측으로 각 2구씩, 도합 4구의 천왕상이 안치되어 있다. 천왕문 입구에서 사찰 안쪽을 바라봤을 때, 내부 왼쪽으로는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과 칼을 쥔 동방증장천왕이, 오른쪽으로는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과 그리고 당과 사자를 쥔 서방광목천왕이 안치되어 있다.
- 사적기에 의하면 1630년(인조 8)에서 1636년(인조 14) 사이에 벽암각성(碧巖覺性)의 주도로 대웅전, 금강문, 보제루, 천왕문, 적묵당, 일주문 등의 건물을 대대적으로 중건하였다고 한다. 화엄사 사천왕상과 같은 소조불은 주로 17세기 전반에 만들어졌고, 나무로 만든 사천왕상은 1650년대 이후에 등장하였다. 벽암각성 주도 불사의 양상과 소조라는 재료의 유행 시기, 후술할 사천왕상의 양식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천왕상도 이 무렵에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사천왕문 자체가 흙을 이용해 건립되었고, 역시 소조로 만든 사천왕상이 벽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사천왕상의 복장을 개봉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를 고려할 때, 사천왕상 내부에는 아직 복장이 그대로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내용 및 특징

- 사천왕상은 의자에 걸터앉은 좌상으로 신체의 비례가 조화롭다. 가소성이 뛰어난

난 흙이라는 재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입체감이 잘 살도록 모델링하였다. 대형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이 돋보인다. 천왕들은 갑옷을 입은 무장형으로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다. 보관에는 중앙에 봉황이 있고, 구름, 꽃, 화염보주 등으로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천왕상이 쓰고 있는 보관은 화엄사 대웅전에 모셔진 보살상의 보관과 형식이 거의 동일하다.

- 17세기 전반 내지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과 전체적인 신체의 비례감, 상호의 표현, 제작 방법이 거의 유사하여 동일한 조각승 집단이 조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보관이나 비파의 형식, 상의 조립 방식에서 여수 흥국사와 화엄사 사천왕상 사이에 강한 유사성이 발견된다. 그중 서방광목천왕상의 상호에는 단응유과가 제작한 불상에서 보이는 특징이 보인다.

- 송광사나 직지사 사천왕상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천왕상의 지물 중 비파 뒤에 중수기를 적은 경우가 많은데, 화엄사 사천왕상의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다.

-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1632년 혹은 1636년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첫째, 벽암각성이 1630~1636년 무렵에 걸쳐 화엄사를 중창했으므로, 천왕문을 끝으로 중창 불사를 마쳤을 것이라고 판단해 1636년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둘째, 『大覺登階集』에 실린 백곡처능(白谷處能)의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에 보이는 “壬申年(1632, 인조 10)에 화엄사를 수리하자 돈을 내는 사람들이 거리를 떼웠으며 성대하게 총림이 되었다”는 구절에 의거하여 1632년에 사천왕상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 참고문헌

- 白谷處能, 임재완 옮김,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 『大覺登階集』,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조선 28,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5.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2.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 (麗水 興國寺 塑造四天王像)

가. 심의사항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5.3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9.7.~'23.10.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麗水 興國寺 塑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주시 흥국사길 160, 흥국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4m
-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세기 전반)
- 제작자 : 미상



<여수 홍국사 소조사천왕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고려시대에 창건된 홍국사는 임진왜란 이후인 1624년부터 계특(戒特)대사에 의해 중건이 이루어진 사찰이다. 현재 사찰에 남아 있는 대웅전과 그 안에 봉안된 목조 석가여래삼존상 및 홍교 등의 정보들 역시 17세기 전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폭 넓게 진행된 중창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사천왕상에 대해서는 1805년 도화원(都畫員) 화악 평삼(華岳評三)스님이 개채한 내용이 현판에 남아 있고(<여수 홍국사 천왕중수개채기>), 가장 최근 기록은 1982년의 중수이다.

홍국사 사천왕상은 4m 가까운 크기에 천왕이 들고 있는 지물의 원형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 천왕문의 내부에 오른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그리고 당과 몽구스를 든 서방광목천왕으로 배치는 북-동-남-서의 순서이다. 전체적으로 배치 및 지물 등은 조선후기 보편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적인 특징도 보인다. 발 밑의 생령좌가 없는 점은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과 비슷하며, 사천왕의 형식 및 양식, 주름진 얼굴 모습, 몽구스의 형태 등은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여수 홍국사로 이어지는 지역적인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이는 지역적인 성격과 더불어 조각승과도 연관될 것으로, 순천 송광사의 사천왕상을 만든 조각승 응원, 그 제자인 인균으로 이어지는 조각승의 유파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수 홍국사 소조사천왕상의 제작시기는 1628년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과 17세기 전반기(1630~1636년 경) 구례 화엄사 사천왕상과 비슷한 시기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홍국사의 중창불사와도 부합된다. 따라서 홍국사 소조사천왕상은 17세기 전반기의 작품으로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보편성과 지역적인 특징을 잘 간직한 작품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조

사천왕의 측면과 뒷면을 중심으로 심한 균열로 인한 훼손이 진행 중이므로 시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은 기본적으로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의 도상과 유사한 범분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사천왕상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유사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유형이 1600년대 전반 무렵에 대표성을 지닌 도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화엄사 사천왕 도상과 유사한 틀을 지니고 있지만, 세부적인 장엄 요소에서는 흥국사만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보관에는 용장식이 자주 등장하는데, 흥국사상은 마치 여의주만 남기고 용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특히 남방천왕의 지물인 용과 여의주의 표현에 있어서 여의주는 보통 단순한 구형(球形)을 하고 있는데 반해 흥국사 증장천의 여의주는 보관에 있는 여의주 장식처럼 불꽃 같은 것이 솟아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보관 중앙부에 달린 붉은 구슬이 여의주 모티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은 표현하지 않는 대신 여의주로서 이를 대신한 독특한 표현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네 천왕의 자세는 대체로 화엄사 천왕들과 방위별로 대응하여 모두 동일하지만, 얼굴 묘사에 있어서는 북방과 남방천왕이 서로 가장 닮았으며, 동방천왕은 차이가 많은 편이다. 다만 같은 흥국사 천왕상들 중에서도 동방천왕의 얼굴은 양식적으로 보다 해학적이고 과장된 성격이 보이는 편이다.

북방다문천의 비파는 실제로 공명통을 구멍을 뚫어 표현하고, 줄감개통도 정밀하게 표현하는 등 세심한 부분에 공을 들인 흔적을 읽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엄사 사천왕상의 비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지국천왕의 칼 손잡이 끝 부분이 마치 동물의 허벅지뼈 마디처럼 둥글게 되어 있는 것도 화엄사와 흥국사 사천왕상의 공통점이다.

천왕상의 얼굴표현에 있어서 북방천왕은 앞니 두 개를 드러낸 모습, 남방천왕은 입술 양쪽이 처진 것처럼 처리되면서 입을 굳게 다문 듯한 표정, 서방천왕은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를 듯한 표현 등이 공통적이다. 다만, 화엄사의 동방천왕은 입을 다물고 있는 반면, 흥국사 동방천왕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이어서 차이가 있다.

흥국사 사천왕상도 화엄사 사천왕처럼 천왕들의 발 아래에 악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흥국사 천왕문의 바닥은 일반적인 마루 바닥이 아니라 천왕상과 같은 소조로 물결을 만들어 마감했다. 이런 모습이라면 악귀가 표현되지 않은 것이 유실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바닥을 바다나 큰 연못 등의 개념으로 표현하기 위해 악귀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북방다문천의

발 아래에는 악귀 대신 거북이처럼 생긴 동물이 놓였는데, 이처럼 물과 거북이 바닥을 장엄한 사례는 여수 흥국사가 유일하다. 특히 여수가 바닷가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등장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흥국사 사천왕상은 화엄사 사천왕상과 함께 조선 후기 사천왕 도상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의미가 있으며, 그런 가운데 흥국사만의 개성 있는 표현도 지니고 있다. 특히 천왕문 바닥을 바다와 같은 물로 표현한 것이 주목되며, 화엄사 천왕문의 완전한 복원고증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흥국사 사천왕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흥국사 사천왕상은 왜란 이후 사찰 재건과정에서 제작된 사천왕상으로 파악된다. 흥국사의 본격적인 불사는 1620년대부터이며, 가장 먼저 주불전인 대웅전을 중창하고 이어서 가람을 구성하는 주요 전각이 복구되고, 예배존상들도 차례대로 조성되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천왕문은 사찰 가람을 구성하는 중요 전각으로 재건 불사의 우선 순위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여수 흥국사 사천왕상이 보여주는 중량감 넘치는 조형감과 상호의 표현, 세부 문양과 도상 등은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등 같은 지역 내의 17세기 전반기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정확한 제작 시기는 관련 기록이 부족하여 알 수 없으나 흥국사 정문이 건립되는 1645년 무렵 사천왕상도 제작되었을 것이고 이를 주도한 조각승은 응원·인균으로 추정된다.

흥국사 사천왕상은 임진왜란 때 수군이 주둔한 사찰답게 사천왕상 바닥을 파도문으로 장식하여, 해상을 수호하는 상징성을 사천왕상을 통해 담아내었다. 더불어 야차의 자리에 거북이를 도입하여 해변 사찰의 입지적 특징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작가의 재치가 돋보이는 사천왕상이다.

17세기 전반기 호남지역에서 유행한 사천왕상 도상과 양식, 그리고 흥국사의 성격과 입지적 특징을 사천왕상을 통해 잘 구현한 뛰어난 작품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현재 사천왕상은 오랫동안 개방된 전각에 봉안되어 온 탓으로, 곳곳에 균열과 박락, 그리고 심하게 터진 부분이 있다. 정밀진단과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

○ (지정 가치 있음)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은 비록 명확한 제작연도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천왕문의 대략적인 건립연대나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구례 화엄사나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과의 양식적인 친연성을 고려할 때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상의 비례가 안정적이며 소조의 재질을 십분 활용한 모델링이 훌륭하다. 또한, 천왕상의 각 세부가 조화롭게 잘 표현되어 있어서 조각 작품으로서 매우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조각적 성취도는 당대에 수조각승으로 활약했던 응원이나 인균의 작품에서 엿보이는 그것과 비등하다.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이 보물로 지정된 것을 고려할 때, 그에 비견되는 조각적 완성도를 간직한 흥국사 소조사천왕상도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내 력

흥국사는 제9교구본사 화엄사의 말사로서, 고려시대 1195년 보조국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임진왜란 당시 승군들의 본거지였으며 전쟁 직후 중창불사가 크게 이루어졌다. 흥국사의 창건과 중수에 관한 내용은 1703년의 <흥국사 중수사적비>에 전한다(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12호, 도1). 이에 의하면 1560년 법수(法修)화상이 사찰전각을 중건하였으며, 임진왜란 이후인 1624년에 계특(戒特)대사가 중건하였다고 하였다. 1986년 실제로 법수화상의 부도에서 사리함이 발견된바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흥국사의 정보들도 계특대사의 중건 시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즉, 대웅전을 비롯하여 홍교(虹橋), 崇禎연간(1628~1644)의 대웅전 주존불인 목조석가여래삼존입상(보물 제1550호), 무사전의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을 비롯한 21구의 존상들이(1648년)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1645년에는 팔상전과 불조전이 중건되었다.



<도1. 興國寺重修事蹟碑, 1703년>

천왕문(도2)과 사천왕상은 정확한 제작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1805년 화악 평삼스님이 개채한 기록이 현판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1982년에 작성한 <천왕문 사천왕상 홍교중창기>가 있어 1982년에 법왕문과 사천왕상의 중창 즉 개채 및 보수가 이루어진 기록이 남아 있다(도3).



<도2. 홍국사 천왕문 전경>



<도3. 천왕문 사천왕상 홍교 중창기, 1982년>

○ 현상과 특징

사천왕상은 390~400cm의 크기로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덧 붙여 만든 소조상이다. 현재 소조토가 떨어져 내부가 확인되는 부분을 보면 굽기가 다양한 새끼줄을 섞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균열이 심하고 뒷면에는 소조토의 박락도 진행 중이며, 신체의 측면에 심하게 갈라지는 등 크고 작은 균열들로 위험한 상황이다(도4).



<도4. 측면 관열(동방지국천왕)>

사천왕은 의자에 앉은 자세이며 낮고 화려한 장식이 있는 보관을 쓰고 있다(도 5). 보관 장식은 화문, 구름문, 화염문인데 없어진 부분도 많은 듯 하며 일부 장식은 밑에 떨어져 있다. 보관의 양 측면에는 위로 솟구치는 관대가 있으며 머리카락은 귀 중간을 감고 원을 형성하며 어깨위에 늘어졌는데 두 가닥은 위로 솟아오르게 처리하였다. 얼굴은 방형의 넓적한 형태에 매우 위협적인 모습이다. 두 눈은 튀어 나올 듯 부릅떴으며 크고 넓은 콧망울, 벌리거나 짝 다문 입 등 천왕의 성격에 맞게 각기 다르게 표현하였다. 목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묶었으며 갑옷을 입고 그 위에 천의를 둘렀다. 천의는 천왕의 뒷면에서 마치 광배처럼 둥글게 만 다음 그 가장자리에 화염문을 조각하였다. 가슴과 허리, 팔뚝, 정강이에 흉갑과 상갑, 허리띠 등을 착용하였으며, 소매부리를 말아 아래에 생긴 끝단을 묶었는데 소매부리는 위로 접혀져 날리듯 표현하였다. 그리고 허리띠를 물고 있는 괴수라든지 수피를 달아 장식적이면서도 위협적인 모습의 천왕을 연출하였다.



북방다문천왕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도5.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 조선 17세기 전반기>

사천왕상의 배치는 오른쪽에서부터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과 검을 든 동방지국천왕, 왼쪽으로는 용·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몽구스와 보당을 든 서방광목천왕이 각각 시계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즉, 북→동→남→서방의 순서로 안치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사천왕의 일반적인 배치형식이다.

흥국사 사천왕상의 특징은 발 밑에 생령좌가 없는 점으로 이는 화엄사 사천왕에서도 보이는 형식이다. 화엄사와 흥국사 사천왕상은 조선후기 사천왕 가운데 생

령좌를 조성하지 않은 유일한 작품으로 긴밀한 연관성이 느껴진다. 화엄사 사천왕상과는 이외에도 재질, 사천왕의 배치, 보당과 몽구스를 든 서방천왕의 지물까지도 유사하다. 특히, 허리에 왼손으로 몽구스의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작은 귀를 쪽긋 세우고 둥글고 밋밋한 머리 형태의 몽구스는 구례 화엄사 몽구스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된 사례가 1628년의 순천 송광사 서방천왕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여수 흥국사 사천왕상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이해되며 이는 지역적으로 같은 권역에 해당되는 점에서 중요하다(도6). 즉, 몽구스를 들고 있는 사례는 강원도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에서도 보이는데 몽구스를 오른쪽 허리에서 잡아 손의 위치도 반대이고 몽구스의 형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도7).



순천 송광사(1628년)

구례 화엄사(17세기 전반)

여수 흥국사(17세기 전반)

<도6. 17세기 전반 서방광목천왕의 몽구스 비교>



<도7. 홍천 수타사 서방광목천왕의 몽구스, 1676년>

이외에도 송광사와 화엄사, 홍국사 사천왕상은 형식 및 양식, 방향의 얼굴 형태와 표정, 이마의 주름, 넓고 투박한 코, 위로 솟은 어깨 위의 머리카락, 목에 두른 스카프 등 세부까지 유사하다. 따라서 같은 권역이라는 지역적 동일상을 가진다. 이러한 지역성은 아마도 같은 유파의 조각승들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만든 응원과 특히 홍국사를 중심으로 많은 작품을 남긴 응원의 제자 인균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 현 상

여수 홍국사 사천왕상은 1645년~1646년에 홍국사의 중문 및 봉황루가 건립될 때 함께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천왕문 안에 봉안되어 있다. 중문, 봉황루와 함께 천왕문은 사찰의 진입로에 위치한 건축이기 때문에 이 무렵에 홍국사의 진입공간이 대대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익공식 건축이며, <홍국사천왕중수개채기>에 의하면 천왕문은 벽파·용운 스님에 의해 1805년에 중수 및 단청이 다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홍국사 가람의 좌향은 서향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방향이고 천왕문도 같은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사천왕의 배치는 천왕문의 실질적인 방위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남향 건축에서와 동일한 배치로 봉안되었다. 즉,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천왕문에 진입했을 때 건물 남쪽인 우측 안쪽에 북방, 바깥쪽에 동방천왕, 건물 북쪽인 왼쪽 안쪽에 서방천왕, 바깥쪽에 남방천왕이 봉안되어 있다.



<도1. 여수 홍국사 천왕문>

북방천왕은 진입시점에서 보자면 우측 안쪽에 위치하며, 비파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북방다문천왕의 도상을 따랐다.[도2] 착용한 보관은 상단이 일련의 화염보주문으로 장식되어 있고, 하단은 둥근 색색의 꽃 문양이 열리어 있다.[도3] 관대의 가운데 부분에는 오색의 구름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드물게 꽃 문양이 섞여있다. 이 장식문양에서 특이한 것은 중심부에 붉은 구슬에 화염문이 달린 장식 하나가 달려있는데, 언뜻 여의주처럼 보여서 원래는 가운데에 용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지만, 홍국사 사천왕상이 모두 이 여의주 같은 장식만 있고 용은 없어서 원래 이렇게만 달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괄적으로 누군가 용 장식만 떼어갔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원래부터 용은 생략되었을 수도 있다. 보관 관대의 뒷면 좌우에는 두 가닥의 붉은 띠가 흘러내려 휘날리고 있는데,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관 좌우에 달려 펄럭이는 띠와 유사한 형태이다. 다른 사찰의 사천왕에 비해 여기서 휘날리는 띠는 상의 크기에 비해 다소 작은 편이다. 좌우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어깨로 내려와 펼쳐지는 모습도 보살상에서의 표현과 유사한데, 다만 한 가닥만 귀를 덮고 있는 점, 어깨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어깨에 밀착되어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로 나뉘며 마치 달팽이 더듬이처럼 양측면으로 솟아있는 점이 차이점이다.[도4]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강인한 모습이며 이마에 희미하게 있는 주름살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팽팽한 얼굴이 비교적 젊은 인상을 준다. 눈과 눈썹은 과장되게 치켜 올라갔는데, 양쪽 눈썹이 입체감 있게 도드라져 있으며, 두 눈썹 사이, 즉 미간에는 마치 V자 모양의 주름처럼 도드라진 부분이 보인다. 이것은 미간에 잔뜩 힘을 주고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바라볼 때의 표정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미간 주름은 홍국사의 다른 사천왕에서도 보이는데 다른 사찰의 사천왕상에 보이는 표현에 비해 도식화된 편이다.



<도2. 북방다문천>



<도3. 북방다문천 두부 세부>



<도4. 북방다문천 보발과 상박갑>

북방천왕은 고개를 약간 숙였고, 눈동자도 천왕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응시하듯 아래로 향했다. 코뿌리에 1단의 주름이 보이고, 그 아래로 주먹코라고 할 만큼 크고 둥근 코가 표현되었다. 입술만 보면 살짝 다문 채 입꼬리가 살짝 치켜 올라가고 앞니 두 개만 노출되어 있어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인데, 추켜올라간 무서운 눈과는 묘한 대조를 이룬다.

살짝 노출된 목 주변으로는 흰색의 스카프가 감겨 있고, 그 아래로는 소슬금문이 입체적으로 새겨진 붉은 갑옷을 착용하고 있다. 어깨와 상박을 보호하는 상박갑 역시 소슬금문인데, 상단에는 몸은 푸르고 코는 붉은 사자가 입을 벌려 상박갑을 물고 있는 형식이다. 상박갑 아래로는 소매자락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옆으로 펄럭이고 있다. 소매의 안쪽에도 옷주름을 새겨 정교함을 더했다.[도5] 한편 오른쪽 팔굽에서 휘날리는 옷자락은 천왕문의 벽에 부착되어 있으며, 왼쪽 팔굽에서 나온 옷자락은 가느다란 철봉과 철사를 이어 천왕문 천정 부재에 걸어두었다.



<도5. 북방다문천 좌측면>



<도6. 북방다문천 하체 세부>



<도7. 북방다문천>

가슴과 배 사이에는 옥색 천을 벨트처럼 휘감고 이를 다시 흰색 끈으로 묶었다. 반면 허리에는 관대 형식의 옥대를 착용했는데, 마디마다 옥색으로 채색하고 그 안에 네모난 금빛 장식문양을 넣었다.[도6] 이 요대는 청사자로 보이는 동물의 얼굴이 물고 있는 형상인데, 상박갑의 사자처럼 코는 붉은색으로 채색되었다.[도7] 이 요대와 청사자 얼굴은 정면에서는 비파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요대의 사자 아래로는 흰색의 띠가 양쪽으로 흘러내려 중간에 교차되면서 매듭지어진 다음 다시 두 갈래로 늘어뜨려져 바닥에 닿았다.[도8]



<도8. 북방다문천 하체 정면>



<도9. 북방다문천 비파 세부>

북방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는데, 오른손은 현을 튕기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손가락을 모두 펴고 있고, 왼손은 지판을 뒤쪽에서 감싸고 있어서 지판을 짚고 있는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연주를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은 강조되지 않았다.[도9] 손가락은 다소 두껍고 투박하지만 손톱 등은 세심하게 표현했다. 비파는 단순히 나무색으로 채색만 되어 있을 뿐, 나무결 문양 표현 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몸

통의 봉황눈처럼 보이는 것은 비파의 울림구멍을 표현한 것인데, 보통은 채색으로 그려 넣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구멍이 뚫려있다. 육안으로 보기에 상판이 비파의 아래판과 별도의 나무로 만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파가 실제 내부는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비파 상단의 줄감기 하는 부분도 실제 구멍을 뚫고 감개를 꽂아둔 형식이어서 비파의 정교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비파의 현은 다소 늘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 줄감개 부분이 실제로 현을 당겨 팽팽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된다. 비파는 목이 굵은 당비파인데, 끝부분은 여의두문으로 장식되었다.

어깨에는 피건을 걸치고 있는데, 머리 뒤로 솟아올라 둥글게 휘날리고 있으며, 테두리에 화염무늬를 달아 광배의 역할도 하고 있다.[도5] 겨드랑이를 타고 뒤쪽으로 흘러 크게 굽이치며 펼럭이고 있다. 이 피건은 다른 사찰의 천왕상의 경우는 옆으로 펼쳐지며 펼럭이다 바닥으로 내려와 물결처럼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엉덩이 부분에서 수직으로 흘러내린 다음 바닥에 닿으면서 끝나고 있다. 또한 피건의 가장 상단부와 뒤로 펼럭이는 끝단은 모두 천왕문의 벽체에 고정되어 있다.

하체의 허벅지를 덮은 갑옷인 갑상(甲裳) 표면은 상체의 갑옷과 마찬가지로 소슬금문으로 장엄되어 있으나, 허리의 요대 아래로 흘러내리는 옷자락에 가려 일부만 보인다.[도8] 갑상 아래로는 붉은 색 군의를 입고, 그 안에 흰 바지를 착용했는데 무릎 아래에는 붉은색 띠로 묶었다. 이 흰 바지 아래에는 정강이와 종아리를 보호하는 붉은색 슬갑(膝匣)을 착용했으며, 발에는 여의두문으로 장식된 화려한 신발을 신었다.[도10]



<도10. 북방다문천의 신발·슬갑과 물결모양의 바닥> <도11. 북방다문천 왼발 아래의 거북형 받침>

발은 왼발은 살짝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닥을 밟고 있는데, 이들 발 밑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악귀들은 현재 없다. 살짝 든 왼발의 경우, 보통은 악귀들이 어깨로 받치고 있어서 가능한 자세였는데, 현재는 바닥에 거북이 같은 등껍질 표현이 있는 어떤 물체를 도드라지게 하여 천왕의 발을 받치고 있다.[도12] 원래 악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유실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천왕문의 사천왕이 봉

안된 홍살 너머의 공간은 바닥이 전부 물결무늬처럼 꾸며져 있고, 마치 거북이 물 위로 떠올라 천왕의 발을 받친 것처럼 되어 있어 만약 이 공간이 바다와 같은 물 위에 뜬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라면 악귀들이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천왕은 바다 위에 앉아있다는 암시는 찾아볼 수 없으며, 피건 자락 등이 바닥에 흘러내린 것을 보면 부자연스럽게 단절이 되어, 물결 설정은 악귀가 사라진 다음에 궁여지책으로 새롭게 가미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도 있다. 특히 물결을 표현한 소조의 흠층은 두껍게 깔려 있는데 반해 천왕상들 주변은 이런 다소 낮게 원래의 바닥이 드러나 있는데, 피건 자락 등 바닥에 흘러내린 옷자락이 이 물결 위에 출렁이는 것이라면 원래부터 물결 바닥층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옷자락은 물결이 없는 원바닥층까지 내려와 있다. 이것은 어쩌면 바닥의 물결층이 나중에 덧붙여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순히 제작상의 편의로 흘러내리는 옷자락은 전부 바닥에 닿는 것까지만 표현하고 사천왕을 다 만든 다음 주변에 물결층을 가설한다면 같은 현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결층은 악귀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 만들어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도12. 동방지국천>

<도13. 동방지국천 상체 세부>

<도14. 동방지국천 요대 세부>

동방지국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은 기본적으로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지만, 지물이나 채색, 표정, 악귀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동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우선 보관은 북방천왕과 유사한 구조이나 보관의 양 측면에서 철사를 달아 화염보주문이 매달려 있는데, 정중앙의 화염보주 및 이 양쪽으로 튀어나온 화염보주문이 다른 화염보주문보다 더 크게 강조되었다. 용이나 다른 동물은 없이 여의보주에서 영기(靈氣)가 서려있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다른 흥국사 천왕들과 같다.[도13]

얼굴은 천왕문 입구로 막 들어오려는 사람을 위협하는 듯이 바라보는 시선이며, 윗니를 드러내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눈썹과 수염을 검은색으로

채색했고, 특히 턱수염을 구불구불하고 짧으면서 덩수룩하게 표현하여 젊은 장수로 느껴진다. 갑옷은 북방천왕과 동일하나 채색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목에 두른 스카프는 황색이고, 요대를 물고 있는 대구(帶鉤)도 황사자이다.[도14] 요대는 녹색, 갑옷을 감싼 천은 청색으로 채색했다. 오른손을 치켜들어 든 칼은 단순한 형태이지만 몇 가지 특이한 부분이 보인다. 우선 손잡이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손잡이가 약간 꺾여있는 특수한 용도의 검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뒤틀려 변형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도15] 그리고 손잡이가 마치 동물의 허벅지 뼈처럼 끝이 돌기처럼 마감되고 있으며, 손잡이에는 미세하게 구름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코등이는 화문처럼 테두리의 네 부분이 움푹 들어간 형태이며 테두리만 도드라지게 몰딩을 넣었다. 칼날은 먼지가 많이 쌓여있지만 아래쪽을 보면 청색으로 채색한 듯하다. 지국천왕의 칼날을 청색으로 칠한 예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견된다. 왼손은 엄지와 검지를 펴서 칼날 끝에 대고 있는 모습이며, 칼날 끝은 여의두문으로 마무리했다.



<도15. 동방지국천 지물(칼) 세부>



<도16. 동방지국천 우측면 균열 부위>

동방천왕은 우측면에서 보면 하체의 허벅지에서 종아리를 따라 큰 균열이 발생했는데, 내부의 흠이 드러나 보인다.[도16] 이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발의 자세는 북방천왕과 유사하나, 살짝 들고 있는 왼발은 바닥에 세워진 기둥 같은 형태의 받침으로 받쳐지고 있어 거북이가 받치고 있는 북방천왕과 차이가 있다.

반대편의 남방증장천왕도 북방천왕의 보관과 유사한 보관을 착용하고 있는데, 다만 중앙과 좌우로 크게 강조되는 화염보주문이 모두 사라졌으며, 하단의 꽃장식도 일부 사라진 상태이다.[도18] 홍국사 천왕들의 보관의 특징인 여의주 장식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남방천왕 보관의 다른 장식들처럼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도17. 남방증장천>



<도18. 남방증장천 장엄 세부>



<도19. 남방증장천 지물(용)과 하체>

얼굴은 동방천왕과 마찬가지로 천왕문 입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눈썹과 수염을 흰색으로 처리하여 나이 든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입은 입술 양쪽을 아래로 처지게 하여 굳게 다문 모습이다. 이미 부분에는 다소의 박락이 보인다. 갑옷의 형태 등은 대동소이하나, 흉갑은 붉은색, 상박갑은 황색으로 다르게 채색하고, 상박갑을 어깨에서 물고 있는 사자도 황사자로 채색했다. 흉갑을 감싼 옥색의 천을 묶은 끈은 흰색인데, 끈의 꼬임문양까지 정교하게 새겼다. 요대는 청색을 주조로 하고, 요대를 물고 있는 대구는 청룡이다. 앞서 북방 및 동방천왕의 대구는 뿔 등이 없어 사자로 보았으나, 여기서는 양쪽에 뿔이 있고, 용으로 볼 수 있다. 뿔과 함께 귀도 마치 소 귀처럼 길게 솟아있다. 또한 아래턱의 밑에는 옥색으로 용의 수염이 표현되어 있다. 지물로는 오른손에 황룡을 들고 왼손에는 붉은 여의주를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잡고 있다.[도19] 황룡은 오른팔 팔뚝을 휘감고 있으며 입을 벌려 포효하고 있다. 다만 다른 경우는 용이 어는 정도 남방천왕의 손아귀에서 길게 뻗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곧바로 용머리 아래 목을 움켜쥐고 있어서 용이 다소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남방천왕이 든 여의주는 단순히 보주형인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불꽃문양이 길게 뻗어 나와 있어 주목된다. 특히 흥국사 천왕들의 보관에서는 이처럼 보주와 화염줄기가 있는 장식을 주요 모티프로하기 때문에 같은 모습의 여의주를 천왕이 들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서방광목천의 보관은 북방천왕의 보관과 대동소이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앙에 있던 보다 큰 화염보주장식이 보이지 않는다.[도20] 대신 그 위치에 여의주 장식이 남아있다. 특히 다른 보관에는 보이지 않던 동물장식이 보이는데, 흰색의 이 동물은 긴 꼬리를 가진 쥐처럼 보인다.[도21] 특히 쥐로 보는 이유는 서방광목천의 도상이 원래는 북방다문천의 도상인데, 티베트 불교도상에는 북방다문천이 몽

구스, 혹은 쥐를 지물로 데리고 있기 때문이다. 흥국사 북방다문천은 그러한 예를 따라 탑 대신에 왼손에 사자 같은 동물을 데리고 있는데, 이는 티베트 도상의 몽구스나 쥐와는 다른 동물이다.[도23] 따라서 티베트 도상의 쥐가 대신 보관에 삽입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쥐로 해석해본 것이며, 그렇다면 티베트 불교도상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로 생각된다.



<도20. 서방광목천>



<도21. 서방광목천 보관 세부>

얼굴은 흥국사 사천왕 중에서 가장 험악한 표정인데, 눈을 부릅뜨고 이가 드러나 보이게 고함을 치는 듯한 표정이다. 그러나 다행히 고개를 들고 있어 천왕문을 지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는다. 요대는 황색의 사자가 물고 있으며, 요대의 마디는 청색 바탕에 옥색의 네모난 장식이 채색되어 있다.[도22] 이 요대 아래로는 동물가족 같은 것이 매달려 있는데, 코끼리 눈 같은 눈과 귀, 그리고 외뿔이 달린 동물의 가족이다. 또한 아래에는 척추의 표현과 함께 지느러미 같은 것이 양쪽에 달려있는데, 어떤 경우는 동물의 뒷다리가 표현된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지느러미를 통해 물에 사는 동물의 가족임을 암시하고 있다.



<도22. 서방광목천 장엄 세부>



<도23. 서방광목천 지물(서수) 세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른손에 당을 든 것은 일반적인 북방다문천왕의 도상이지만, 탑 대신 서수(瑞獸)를 데리고 있는 것은 티베트 불교도상의 영향이다.[도 23] 여기서는 청사자를 왼손으로 움켜쥐고 있다. 그러나 요대 등에 표현된 사자와 달리 더 동글동글하고 머리만 크게 표현되어 새끼사자를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은 다른 사례에 비해 당의 굽기가 다소 가는 편이며, 끝에는 삼지창 형태와 깃발이 달려있다.



<도24 .홍국사(좌)와 화엄사(우) 북방다문천왕 비교> <도25. 홍국사(좌)와 화엄사(우) 남방증장천왕 비교>

○ 문헌자료

홍국사 사천왕상 중수개채기 원문. 1805년에 천왕문을 보수하기 위해 벽파(碧波)·용운(龍雲)·영월(詠月) 등이 화주를 하여 보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混沌未開初無天地之象七鑿既率始有方隅之名自比天神地神各司方隅佛界生界亦殊分界令興國大來名藍亦有 四天王司方之像毘嵐劫燧還同昭氏家藏匣之琴 行路傷嗟主愴惻以故寺官使議皆曰此非凡僧 者之可堪實是宗師過之能事物論輿望專推宗師 宗師中碧波龍雲詠月翫海四大師者皆以本山人 文敵有裕空門傑出者也共發肯心互斷金石勸軸 各擔杖屨相忙落日途中幾抱投宿之歎凌晨街 上從懷覓檀之愁是爲樂歟是爲若耶行乞坵青 蓮老碧波一過兼開畦衣事作也龍象□蹴賢凡 棲肩建掛佛庭中秦眼樓上幡邑花飄風 空金聲魚解徹天動岳是日也明光滿□瑞 氣空□賞老□悲感而掛布如雲參觀鵠□心 而擲錢如雨是乃諸大師之法力以有佛菩薩之冥 資余亦貫考此山幸參末席僉以有徵請記余以無 文□再曰爲文者豈皆能文而文□筆者豈盡能 筆而筆俟知後來世雖或有記諺”

□

○ 조사내용

흥국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이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1196년(명종 26)에 창건되어 크게 번창하였다가 임진왜란 때 큰 피해를 입었다. 여수 흥국사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의 휘하의 의승 수군들이 주둔하여 국난극복에 앞장선 호국도량이다.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왜군들에 의해 유린되자 승려들은 국난극복에 팔을 걷어 붙였다. 흥국사는 전라좌수영 부근에 있던 고찰이며, 전라좌수영의 의승수군 조직은 1592년 9월 경에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흥국사는 좌수영의 주진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찰의 본격적인 중창은 1624년 계특대사에 의해서이다. 이때부터 법당을 비롯한 여러 불전들이 차례대로 재건되어 갔고 165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어느 정도 가람의 면모를 회복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이곳에는 벽암각성 문도들이 주석하며 사찰을 경영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사적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연혁은 살필 수 없으나 1691년 간행된 흥국사사적 목판과 <흥국사 사적비>, 그리고 현전하는 불교미술품을 통해 흥국사의 연혁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창건은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 중기 法修스님에 의해 중건되었다. 그러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맞이하여 의승 수군의 근거지가 되어 크게 전공을 세웠으며, 또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임진·정유재란 이후 사찰의 재건불사가 본격화되었다. 사찰의 주불전인 대웅전이 1624년 가을에 계특대사에 의해 중창되었고, 그리고 도반인 회, 익, 언 등과 함께 선방 및 모든 요사들을 일신해서 재건하고 시간에 따라 모든 전각과 당우를 짓고 범종 및 불구를 갖추었다.³⁾ <선당중집기>에는 계특대

사가 흥국사 고법당을 중창한 후 옥청이 법왕문을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흥국사에 남아 있는 명문 암막새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명문 암막새는 흥국사 내 불전의 중창 또는 蓋瓦 과정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후 1639년에 흥교(보물)를 축조하고, 1645년 正門을 건립하였고, 1646년 봉황루가 건립되었다. 이로써 대체로의 사찰의 규모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왕문의 건립과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문이 천왕문을 가리키는 것인지 사찰에서는 천왕문 바로 아래 迎聖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흥국사 「공북루중수기」에는 공북루를 정문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찰의 문을 이루는 일주문, 천왕문, 拱北樓 등을 일괄로 정문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⁴⁾

1805년 <사천왕상중수개채기>에는 천왕각과 조계문이 나란히 등장하는데, 천왕각은 천왕문일 터이고, 조계문은 일주문일 것이다. 적어도 정문과 봉황루가 건립되는 시기에 천왕문도 건립되었고 사천왕문의 건립에 맞춰 사천왕상도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불사와 관련하여 흥국사에는 여러 시기에 제작된 명문기와도 남아 있다. 가장 앞서는 銘文瓦는 天啓元年(1621)銘 귀 목문 암막새이며, 이외 天啓 6년(1626), 崇禎 2년(1629), 崇禎 7년(1634), 崇禎 9년(1636) 등 1621년부터 본격적으로 불사가 진행되었음을 말해주는 자료이다. 대웅전 내에는 승정년간(1628~1644)에 제작된 석가여래삼존상이 봉안되어 있고, 응원·인균과 조각양식을 간직하고 있다. 무사전 지장시왕상(首 印均)은 수조각승 인균이 1648년에 제작되었고, 응진전의 석가여래삼존과 16나한상 역시 1655년에 수조각승 인균이 제작하였다. 이외 1689년에는 불조전 53불(首 印戒)이 제작되었다.

흥국사의 사천왕상이 봉안되어 있는 사천왕문은 일주문-천왕문-봉황루-법왕루-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사찰의 중심축선상에 있는 건물이다. 즉 스님들이 수행하는 요사채를 제외하면 사천왕문은 사찰의 신앙체계를 구현하는 핵심 전각이다. 전란 이후 재건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불사가 진행되었겠지만, 주불전인 대웅전 중창에 이어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적어도 주불전인 대웅전 불상이 조성되는 시기부터 부속전각인 명부전 조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05년에 기록된 「興國寺四天王重修改彩記」에는 사천왕상 개채와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다 허물어진 천왕문을 보수하기 위해 碧波, 龍雲,

3) “……天戒四年甲子秋重建法堂希翼顏之徒踵武興功禪舍諸寮日新月改金鍾玉磬隨時變改出世因緣社樹之餘香未泯靈鷲之佳氣增濃庸非朝鮮刹寺料天乎……”(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纂輯, 『全羅道順天府靈鷲山興國寺事蹟』, 『朝鮮寺刹史料集』 上, 1911, pp.229~230); 明扇 監修·眞玉 編著, 『호국성지 흥국사』, 불지사, 1989, pp.208~212에 원문과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다.

4) 「興國寺拱北樓重修記」(1893년), “營之西靈鷲山興國寺在普照國師之勸建而義僧之駐鎮也余莅營之越明年暮春遊覽是寺寺之正門拱北樓修葺既多歲月傾頽慮柱朝夕諸僧徒告憫曰……” 좌수영의 서쪽 영취산 흥국사는 불일보조국사의 창건으로 의승들의 진주사이다. 내가 영에 부임한 다음해 봄에 이 절에 들렀다가 정문에 위치한 공북루가 보수한지 오래되어 조석시간에 붕괴될까 염려하여 모든 스님들이 고민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기를(明扇 監修·眞玉 編著, 『호국성지흥국사』, 불지사, 1989, pp.235~236).

詠月 등이 화주를 맡아 보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사천왕상 수리를 맡은 도화사는 華岳 評三과 그 외 十六人의 화사가 참여하였다고 간략히 기재하고 있다. 중수 개채를 맡은 평삼은 해천사 삼세불도(1765년, 15위, 首 快濶, 순천 선암사 소장), 남해 용문사 괘불(1769년, 10위, 首 快琬), 영광 불갑사 팔상전 영산회상도(1777년, 6위, 首 快允), 영광 불갑사 대웅전 지장도(1777년, 6위, 首 快允), 하동 쌍계사 삼세불도(1781년, 아미타 首), 하동 쌍계사 국사암 신중도(1781년, 首), 구인사 아미타여래설법도(1786년, 首), 수도사 감로도(1786년, 首, 통도사 소장), 하동 쌍계사 고법당 신중도(1790년, 首),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1808년, 首)에 참여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에 크게 활약한 불화승이다. 이외 중수기록으로는 1982년에 작성한 <천왕문 사천왕상 홍교 중창기>가 있어, 1982년에도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1 여수 흥국사 사천왕상 배치도>

흥국사 사천왕상은 나무로 뼈대로 삼고 흙으로 살을 만들고 표면을 조각한 소조상이다. 사천왕상은 사천왕상의 역할에 부합하게 모두 눈을 크게 뜨거나 강렬한 인상을 쓰고 있는, 이른바 분노형으로 제작되었다. 머리에는 꽃과 구름, 화염 등으로 장식한 花形寶冠을 착용하였다. 보관 장식이 군데군데 빠져있다. 목에는 경갑을 대신하여 스카프로 멧을 내었고, 각 부위마다 그에 걸맞은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팔꿈치에는 전포자락이 날개처럼 펴져있고 있으며, 흉갑 위에는 흉대를 두르고 끈으로 묶었다. 상갑 위에는 요의를 두르고 요대와 끈으로 고정하였다. 북부의 귀면이 요대와 끈으로 만든 수환을 물고 있는 모습이다. 머리 뒤로는 천의 자락이 둥글게 돌려 화염광배를 만들었다. 정강이에는 바지자락을 묶었으며, 문양을 시문한 戰靴를 신고 있다. 발아래에 표현된 야차는 원래부터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천왕의 바닥은 소조로 물결을 만들어 마치 사천왕이 해상을 수호하는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수군이 이곳에 주둔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야차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북이를 등장시켜 해변 사찰이 갖는 입지적 특징을 사천왕상의 모티프로 활용하는 등 작자의 재치가 돋보인다.



<사천왕상 얼굴(남방)>



<서방광목천왕(몽구스)>



<거북이 생령(북방)>

사천왕의 지물로는, 북방다문천왕은 비파를 연주하고 모습이고 동방지국천왕은 어깨를 세워 오른손으로 보검의 손잡이를 잡았고 왼손의 엄지와 검지를 펴 칼을 베풀고 있는 모습이다. 남방증장천왕은 오른손으로 용의 목을 움켜잡았고, 왼손은 치켜들어 여의주를 잡았다. 서방광목천왕은 오른손으로 보당을 잡았고, 왼손으로 허리춤에서 몽구스의 몸통을 움켜쥐고 있다.

특히 서방광목천왕은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와 구례 화엄사와 마찬가지로 당과 몽구스를 지물로 채택하고 있다. 몽구스는 작은 귀와 동그란 코를 가졌으며 윗니를 살짝 드러내고 있다. 사실적인 순천 송광사 몽구스와 구례 화엄사에 비해 다소 이상적인 동물형으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성 시점에 따른 도상과 양식의 변화로 이해된다.

사실 사천왕상의 지물로 등장하는 몽구스는 이른바 寶鼠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티베트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비사문천(다문천)의 지물로 여겨졌다. 티베트 경전에서 북방다문천이 금화가 가득 찬 황색 쥐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財寶神인 비사문천의 지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호탄의 구살단나왕이 적의 침략을 금색과 은색빛 털 쥐의 신령함과 도움으로 승리하여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사당을 건립하고 재를 올렸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호탄 지방에서는 몽구스가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신앙되어 비사문천이 보탑대신 몽구스를 지물로 취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천왕상의 경우 주로 북방다문천왕 보다는 서방광목천왕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사천왕상 도상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왼쪽 허리춤에서 몽구스를 쥐고 있는 도상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1628년의 순천 송광사 서방광목천왕, 1636년경의 구례 화엄사 서방광목천왕에

서만 볼 수 있어 지역적, 유파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여수 흥국사는 벽암 각성 문도와 관련 있는 사찰이며, 중창불사 시 벽암문도의 조각승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응원·인균과 조각승의 활약이 두드러진 사찰이어서 이 사천왕상도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문헌자료

<여수 흥국사 천왕중수개채기> 현판

混沌未開初無天地之象七鑿既卒始有方隅之名自比天」
 神地神各司方隅佛界生界亦殊分界令興國大乘名藍」
 亦有四天王司方之像毘嵐劫燧還同昭氏家藏匣之琴行」
 路傷嗟屢主愴惻以故寺官使議皆曰此非凡僧者之可堪實」
 是宗師過之能事物論輿望專推宗師宗師中碧波龍雲詠」
 月翫海四大師者皆以本山人文獻有裕空門傑出者也共發肯心互」
 斷金石效軸各擔杖屢相忙落日途中幾抱投宿之歎凌晨街上」
 徒懷覓檀之愁是爲樂歟是爲若耶行乞於坵宅猶困於夏畦既」
 倨穀財始作佛事五化主一面共設天王緣化於青蓮老碧波一過兼」
 開畦衣佛事於寂默兩緣化端倪則重天中先後兩始落成則端陽後」
 同時兩終其佛事作也龍象並蹴賢凡接肩建掛佛庭中奏點」
 眼於樓上幡色花色飄風翻空金聲魚解徹天動岳是日也明」
 光滿磬瑞氣蟠空翫賞老嫗悲感而掛布如雲參觀鵠叟歡」
 心而擲錢如雨是乃諸大師之法力以有佛菩薩之冥資余亦」
 貫考此山幸參末席僉以有徵請記余以無文辟辭再曰爲文者」
 豈皆能文而文秉筆者豈盡能筆而籠使知後來世雖或有」
 記諺之文猶足於上古岙不可攷結繩之政願師母辭略述今事」
 闕遺畏生像未壞前人欲修復然則今日重修之記他年更修」
 之資主事諸員盡載板上功之輕重觀者權衡如此則何如」
 也曰可也遂書爾

崇禎紀元後百七十九年乙丑六月日 順庵摯舒 謹識」

상

山中宗師緣化秩」

證師 順庵摯舒」

化士 龍雲樞泓」

化士 碧波桂隱」

化士 詠月壯旻」

孝庵充鑑」
化士 翫海儀俊」
化士 羅仁」
雜物化士嘉善感澄」
都畫員華岳評三」
畫工都數十六員」
都監通政 策密」
別座前住持 美彥」
時住持通政 夢希」
維那前住持 感千」
佛位都監嘉善感澄」
佛有司 曉添」
典庫都監 暹性」
典有司 曉俊」
記室 命喆」
前啣秩」
嘉善 大岑」
前住持 奉活」
嘉善 碧奎」
通政 彥桓」
通政 策密」
前住持 存平」
通政 竺賢」
嘉善 照敏」
前住持 典哲」
前住持 典淳」
前住持 侃一」
嘉善 睿克」
時持殿 睿謙」
眞木都監嘉善侃哲」
중단
施主秩」
山人 斗定」
嘉善 照敏」
通政 壯玉」

嘉善 感澄」

前任持 感千」

李景浩」

丁牛山」

金吾宅」

金漢突」

金漢龜」

鄭大炯」

鄭晋炯」

徐有德」

姜遇文」

丁東赫」

崔不憶」

朴蘭先」

丁處權」

丁千年」

曹允國」

裴萬年壽」

天王曹溪丹獲施主秩」

理事判廳 僉員」

甲子甲 僉員」

甲戌甲 僉員」

甲申甲 僉員」

三宝廳 僉員」

三綱 表文」

命玉」

卓性」

直樓 叙策」

羅憲」

明倫」

하단

東過將祿雲」

西過將如欣」

堂司兼助使 友眞」

西過助使 曉芸」

天王閣曹溪門丹青秩」

畫工 惠文」 5)

教桓」 6)

戒性」 7)

妙喆」

伯文」

刻手秩」

曉旬」

浩文」

供養主秩」

始元」

快宗」

誦呪秩」

性悟」

守仁」

<여수 흥국사 천왕중수개채기> 현판 번역(진옥스님)

천지가 혼돈하여 음과 양이 아직 열리지 않고 달과 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처음에는 천지간에 형상이 없었는데, 7가지 요소가 서로 교차하여 일어남으로써 사방과 四隅가 생겼다. 천신과 지신이 각각 방위를 맡고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또한 환경을 달리 하였다. 이제 대승사찰인 흥국사에 사천왕문이 있고 사천왕이 사방을 맡은 사천왕상이 있는데 풍진에 의해서 하룻밤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빈터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애절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흥국사 스님들도 고민했으며 흥국사와 관계있는 관원들도 서로 걱정하였다. 이 복원불사는 일반 승려로는 힘들며 여망과 덕이 높은 종사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흥국사 스님인 백과·용운·영월·완해스님 등은 덕망과 학식이 높을 뿐 아니라 경험이 풍부하고 관과 민 모두에 유대가 좋다고 하면서 복원불사의 연화주역을 요청하였더니 긍정적으로 수락하였다. 네 분의 스님은 권선책을 각각 휴대하고 죽장망혜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화주하다가 해가 지면 나무 아래와 풀밭에서 몇 밤이고 서로 안고 유숙하기가 예사였다. 별빛이 나는 때면 밤에 일어나 시주들을 찾아서 호별방문을 하고 다니는 이 화주가 즐거움인가 고통인가, 아무튼 돈과 곡물이 준비되어 불사를 시작하였다. 다섯 화주가 한편으로 천왕불사는 청련암에서 설판하고 한편으로

5) 서산 개심사 대웅전 환경변상도, 1767년.

6) 선암사 나한전 삼세불도(1802년), 선암사 나한전 신중도(1802년), 고성 옥천사 괘불(1808) 제작에 참여.

7) 선암사 팔상전 화엄도(1780년), 선암사 나한전 삼세불도(1802년), 선암사 나한전 신중도(1802년), 석남사 지장도(1804년), 동화사 양진암 신중도(1804년), 통도사 보광전 화엄도(1811년) 제작에 참여.

가사불사는 적목당에서 설판하였다. 두 가지 불사의 시작은 선후를 찾고 경중을 논하였지만 낙성은 단오 후 같은 때에 거행하니 용상대덕들이 발걸음을 바빠하고 현사와 대중들이 어깨를 같이 해서 과불을 뜰앞에 모시고 점안을 누각에서 거행하니 이날 깃발의 색과 꽃의 빛같이 바람에 휘날리고 허공에 번쩍이며 종소리와 어산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며 영취산의 골짜기를 뒤흔드는 듯 하늘 외에 특별한 경계요 부처님의 세계가 재현한 듯하였다. 밝은 달은 허공에 가득하고 서기는 사방에 서려 있으므로 참가한 사람들의 희열은 지극하고 모두 환희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경사는 스님들의 법력과 불보살의 가피인양 하여 신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대중스님들이 불사의 기록을 나에게 청하나 나는 글에 대해서 조예가 없으므로 이를 사양하였는데, 재삼 청하면서 글 쓰는 사람이 어찌 모두가 문장에 능하리오 하면서 후세에 전하고 알려주면 글이 불품없고 필이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옛날에 끈을 맺어 후세에 전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족하다 하므로 이제 모자란 것을 보완하여 후인들에게 조심하고 선인들이 손대고자 하는 점은 헐지 않았다. 지금의 중수문이 다음에 다시 역사를 쓸 분에게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불사를 맡아서 하는 분들의 공적사항은 현판에 기록하였으며, 공적의 고하는 보시는 분들의 생각으로 짐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승정기원후 179년 을축 6월일 順庵摯舒가 삼가 짓다.



○ 현 상

- 홍국사 입구의 천왕문 내에 좌우 2구씩, 도합 4구의 천왕이 모셔져 있다. 천왕문이 최초로 건립된 연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나, 1805년에 작성된 「홍국사천왕중수개채기」에 의하면 천왕문의 건축이 오래되고 낡아서 이 때에 벽파와 용운스님 등이 중수하고 단청을 입혔다고 한다. 이로 미뤄볼 때 홍국사에는 1805년 이전부터 천왕문과 사천왕상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645년에 홍국사의 정문이 신축되고, 1646년에 봉황루가 건립된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시기에 천왕문이 건립되고 사천왕상도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 4구의 천왕상은 목심 위에 진흙을 붙여 성형한 소조상으로, 전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장대한 규모에 걸맞은 위엄을 갖추고 있다. 양식적으로 1636년에 조성된 화엄사 사천왕상과 유사점이 많아서 1640년대 중후반 천왕문이 건립될 때 사천왕

상도 함께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7세기 전반에서 중반까지는 소조 사천왕상이 주류를 이뤘다는 점도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 천왕들은 모두 의자 위에 무릎을 구부린 채 양발을 약간 벌리고 앉아 있다. 머리에는 각종 화문으로 장식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보발은 귀 중앙을 감싸면서 돌아내려와 어깨 위에서 좌우로 갈려져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모습이다.

- 천왕들의 얼굴은 방형으로 미간에 힘을 주어 찌푸렸으며, 둥근 눈은 부릅뜨고 있어 험상궂어 보인다. 사천왕 중 동방지국천왕상만이 반개하여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비교적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 코는 모두 주먹코로 콧등에는 잔주름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 남방증장천왕은 용과 여의주, 서방광목천왕은 당과 사자, 북방다문천왕은 비파, 동방지국천왕은 칼을 지물로 들고 있다. 북방다문천왕은 왼 무릎 위에 기댄 비파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줄을 튕기며 연주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표현은 1628년에 조성된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이나 1636년경 조성된 구례 화엄사의 사천왕상 중 다문천왕의 모습과 동일하다.

- 천왕문의 바닥에는 흙으로 마치 구름을 연상시키는 문양을 조각해두어서 이채롭다.

○ 참고문헌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3.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 (報恩 法住寺 塑造四天王像)

가. 심의사항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11.22./'22.11.2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9.7.~'23.10.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報恩 法住寺 塑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법주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5.7m
-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 형 식 : 입상형(立像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세기 중엽)
- 제작자 : 미상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법주사의 소조사천왕상은 절대연대는 없지만, 법주사가 중창되는 17세기 전반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사천왕상은 소조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대 크기에 지물은 물론 발 밑에 있는 생명좌들까지 원 상태를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생명좌는 고통을 당하는 것 보다는 악기를 들고 있거나 정면을 바라보는 특이한 모습에 세밀한 표정과 기법이 특징인데 이는 17세기의 일반적인 사천왕과는 다른 요소들이다.

법주사 소조 사천왕은 6m 가까운 크기에 재료는 소조이며 서 있는 자세인 점에서 조선후기의 다른 사천왕과 크게 차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사천왕은 위협적이고 무서운 과장된 모습보다 잘 생기고 인자한 모습에 자연스러운 자세가 특징적이다. 이는 밑에 깔린 생명좌의 무심하거나 해학적인 표정과도 묘한 대조를 이룬다.

법주사의 주 사찰 배치는 남북축선상으로 금강문-천왕문 - 팔상전 - 대웅보전으로 이어진다. 이 선상에서의 주요 전각은 팔상전과 대웅보전으로, 두 건물 모두 17세기 전반기에 중창불사가 진행되었다. 즉, 팔상전은 1605~1626년에 걸쳐 재건이 진행되었으며, 대웅보전은 그 안에 봉안된 최대 크기의 소조비로자나삼불상과 함께 1624~1626년에 이루어졌다. 이 중창 불사는 사명대사 유정, 벽암 각성 등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이 시기 최고의 승려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법주사에서 가장 큰 중창불사가 이루어진 17세기 전반기에 남북축선상에 놓인 전각과 불상들이 이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때 천왕문과 사천왕상도 함께 재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천왕문과 사천왕상 역시 천왕문 기둥의 최외각 연륜연대가 1619~1620년 경, 사천왕상의 심목과 마루판이 1636~1664년

으로 분석된 결과도 참고된다.

법주사 소조사천왕상은 복장물이나 발원문을 통해 절대연대나 조각승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사찰의 역사와 배경, 나무의 연륜연대 조사 결과에 따라 17세기 전반기, 늦어도 17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최대 크기에 입상 형식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보은 법주사 사천왕상은 현존하는 한국의 사천왕상 중에서 매우 드문 입상 형식에 그 크기가 최대 규모이며, 예술성 또한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이후 서울 봉은사 사천왕상이 입상으로 제작된 사례가 있다. 반면 석굴암 사천왕상, 통일신라 석탑이나 사리기, 석등에 새겨진 사천왕, 청도 운문사 사천왕상 등은 모두 입상이며, 불화에서도 모두 입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입상은 새로운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좌상의 사천왕 도상과 상체의 자세는 동일하나 입상이라는 점이 차이점일 뿐 아니라, 같은 자세일지라도 입상인 만큼 천왕상 각각의 동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북방다문천왕은 마치 음유시인이 비파를 연주하며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며, 서방광목천은 부처님을 향해 꽃을 던지는 공양자처럼 운동감이 느껴진다.

법주사는 팔상전, 대웅전 및 그 안에 봉안된 불상들도 매우 거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천왕문도 그에 맞는 규모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특별한 규모와 유일한 입상 형태의 사천왕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만약 천왕문이 단순히 보조적인 전각에 불과했다면 주불전과 불탑의 규모에 맞춰 함께 크게 조성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심 불전의 규모에 맞춰 천왕문도 규모를 키웠다는 것은 천왕문이 단순한 보조 전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왕문 자체도 사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천왕문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법주사 사천왕상은 입상이라는 특유의 자세 뿐 아니라, 천왕이 쓰고 있는 보관, 발 아래 악귀의 형태 측면에서도 다른 천왕문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왕이 착용하는 보관은 보살상이 착용하는 보관과 유사한 형태이나, 법주사에서는 이외에 깃털 달린 투구형태의 관도 동방 및 서방천왕이 착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깃털 달린 투구는 서양미술에서는 헤르메스가 착용하는 투구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감은사탑 출토 사리기에 부착된 사천왕의 머리 양쪽에 마치 깃털처럼 솟은 것이 보이는데, 다만, 머리모양에 상투와 머리칼이 보이는 것을 보아 투구를 착용한 것은 아니며, 또한 양쪽에 솟은 것이

깃털인지 혹은 불꽃인지 확실치는 않다. 또한 경주 사천왕사지 출토 녹유신장상편의 3종의 도상 중 하나에서 활을 든 신장이 이처럼 깃털 달린 투구를 쓰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법주사 사천왕상의 장엄요소들은 보다 오래된 전통의 반영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 후기에는 이러한 투구는 위태천이 착용하는 것으로 불화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법주사에서 사천왕이 왜 신장이나 위태천이 착용하는 투구를 착용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추후 이러한 계통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법주사에 이어 사천왕이 입상으로 조성된 서울 봉은사의 경우에는 남방증장천왕이 이와 같은 투구를 착용하고 있어 입상과 깃털 달린 투구와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법주사 사천왕상의 발 아래 악귀들 중 특히 북방다문천이 밟고 있는 악귀는 일반적으로 청나라의 황제인 홍타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난모’라고 하는 여진족의 특유의 겨울모자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천왕이 아니라 북방천왕이 밟고 있다는 것은 그 아래 존상들이 북방민족이라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도 보여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실제 홍타이지라는 인물을 특정해서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나 적개심이 이곳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법주사 천왕문의 다른 악귀들도 도상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머리 위에 외뿔이 솟은 것 같은 악귀는 우리나라 도깨비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인 외뿔 이미지가 단지 일본의 ‘오니’의 영향을 받은 근대기적 소산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남방증장천 아래의 두 존상은 마치 풍신과 뇌신의 조합과 같은 인상을 준다. 북채를 든 뇌신의 도상은 비교적 정확하나, 풍신은 뇌신의 또 다른 도상의 하나인 바라 같은 지물을 들고 있어 정확히 풍신·뇌신의 조합은 아니지만, 서로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불화, 특히 감로탱 등에는 풍신·뇌신이 드물게나마 보이지만, 한국미술사에서 조각상으로는 지극히 드문 사례여서 또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풍신·뇌신은 원칙적으로 악귀가 아니고, 다만 모양만 도깨비 모양인데, 왜 악귀들과 함께 천왕의 발 아래에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를 통해 다른 미술에서 잘 묘사되지 않았던 풍신·뇌신에 대한 한국미술사에서의 인식도 연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주사 사천왕상은 정확한 조성기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근래 실시된 과학적 연대 측정에 의해 1654년 무렵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병자호란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북방천왕 아래 청나라 사람이 들어가는 점과도 부합하여 조성연대는 1650년대 정도로 잠정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법주사 사천왕상의 중요한 미술사적·문화사적 의미를 감안하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17세기 작품 중 가장 규모가 큰 초대형의 사천왕상이며, 입상으로 계획된 작품으로는 금산사 미륵전 소조미륵여래오존상(미륵불은 소실로 1938년 새로 제작)에 비견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사천왕상 자세 중 입상으로 계획된 것은 이 법주사 상이 유일하다. 소조기법을 잘 활용하여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력을 보여줘 작품성도 갖추고 있는 사천왕이다.

17세기와 18세기에 제작된 사천왕상은 대부분 보살형의 보관을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법주사 사천왕상의 경우 2구는 보살형 보관을, 2구는 장군형 투구를 쓰고 있어 사천왕상 도상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감로왕도처럼 사천왕상의 생령좌에 청나라 관리와 조선의 관리를 도입하여, 1636년 병자호란의 치욕을 극복하고 조선의 탐관오리들에게 종교적 鑑戒와 교훈을 주고자 했던 점에서 사회사적 의의가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법주사 소조 사천왕상은 건립연대가 알려진 상이자, 현존하는 우리나라 사천왕상 중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는 가장 시대가 이른 사천왕상으로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천왕문 안에 사천왕상이 안치된 시기가 이른 사례로서 중대한 기준이 된다. 비록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지만, 초대형의 입상으로 서 뛰어난 기량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조성한 것은 확실하다. 종합하면, 17세기 전반의 소조 사천왕상의 기준작으로서 미술사적 가치가 있고, 임진왜란 이후 전국의 중창불사를 주도했던 벽암각성이 조성을 주도한 불상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에, 보물로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또한, 현존하는 소조불상의 수량이 많지 않고, 사천왕상의 경우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훼손이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주사 소조 사천왕상은 보물로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내 력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범주사 천왕문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입상의 소조사천왕상이 봉안되어 있다. 크기는 570cm 내외로 6m에 가까우며 입상의 사천왕상은 거의 유일한 사례라는 특이성을 가진다. 범주사 천왕문과 사천왕상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지만 17세기 전반 경에 중창불사가 크게 이루어진 범주사의 연혁과 연관성은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범주사는 삼국시대 신라에서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이 사찰에서 출가한 신미(信眉)대사가 주석한 조선전기부터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신미대사는 1450년 내원당을 궁 안에 짓고 법요를 주관했으며, 복천사를 중수한 불사로 유명하다. 범주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승병의 본거지로 활동하면서 거의 모든 전각이 불탄 이후인 17세기 초부터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다(표1). 팔상전의 재건이 그 시작으로 1605년의 사리장엄구 銅版과 비단 보자기의 명문에서 팔상전 건립 경위가 밝혀졌다. 즉, 동판에는 1597년 9월에 왜군에 의해 불타고 1605년(乙巳年) 3월에 ‘朝鮮國 僧大將 裕淨 比丘’가 팔상전을 건립하였다고 하였다. 팔상전 재건은 청허문중의 대표 인물인 사명유정을 비롯하여 부휴문중 및 벽암 각성의 제자들이 참여한 대불사였다. 뚜껑에 용무늬가 새겨져 있는 은제합의 밑바닥에는 1620년(광해군 12년) 세자의 만수무강을 위해 만들었다는 글귀가 있다. 또한, 1626년 팔상전 서면 내목도리 바닥에서 목서가 발견되었는데, ‘佛像大化主 □實比丘, 盡□ 玄眞比丘, 太眞比丘’라는 기록이다. 玄眞은 1626년 범주사 대웅대광명전의 삼불상을 조성한 조각승으로 이 무렵 팔상전 내부의 불상을 조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팔상전은 1605년부터 1626년까지 오랜 기간 재건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1 범주사의 전각과 중창불사>

연번	전각명	재건연대	주관
1	팔상전	팔상전: 1605~1626년 팔상전 서면 내목도리 목서(1626년)	사명대사(朝鮮國 僧大將 裕淨 比丘)
2	대웅보전	대웅보전: 1618~1624년 소조비로자나삼불상: 1626년	벽암각성(1575~1660)
3	천왕문	17세기 전반~중엽 경(추정)	

대웅보전은 1624년 벽암각성이 중창하면서 건립한 것으로 총 120칸에 건평 170평, 높이 61척의 다포식 중층건물이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1626년(인조4) 3월에 시작하여 7월에 완성된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후, 1630년 『범주

사사적기』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법주사의 중창 불사는 1626년경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팔상전과 대웅보전은 법주사 전각 가운데 금강문-천왕문 - 팔상전 - 대웅보전으로 이어지는 남북축선상의 주요 건물이다. 따라서, 17세기 전반기에 진행된 중창 불사는 남북축선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남북선상에서의 시작인 천왕문 역시 함께 중창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천왕문과 사천왕상 관련 자료는 1926년의 속리산법주사수정암화주비구니태해비명(俗離山法住寺修晶庵化主比丘尼泰害碑銘)에 1897년에 천왕문을 보수하고 1899년에 천왕상 4위(位)를 개채하였다고 기록하였다(丁酉修天王門 己亥改彩四天王四位).

○ 현상 및 특징

사천왕은 수미산 중턱의 네 봉우리에 거주하며 동(승신주), 서(우화주), 남(섬부주), 북(구로주) 사대주를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형상화한 사천왕상은 조선후기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천왕문의 내부에 오른쪽에서 시계방향으로 비파, 칼, 용과 여의주, 보당(산개)과 탑을 든 천왕의 순서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북-동-남-서방으로 방향을 가지는데 법주사 사천왕 역시 조선후기 사천왕의 일반적인 배치와 구성을 따르고 있다. 즉, 천왕문(도1)을 들어서면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 보당과 탑을 든 서방천왕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도1. 보은 법주사 천왕문 전경>

법주사 천왕문의 사천왕은 5~6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로 각기 다른 보관과 지물을 들고 서 있으며, 자세와 크기에서 오는 압도적인 모습이 인상적이다(도2). 전체적으로 얼굴은 크고 옆으로 긴 눈, 허리가 긴 장신의 비례감 그리고 지물의

성격과 방향에 맞춘 자유로운 자세가 두드러진 특징이다. 지물은 두 팔을 벌리거나 비스듬히 사선으로 들어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공간감을 보이며 얼굴은 험악하고 무서운 모습보다는 부드럽고 잘생긴 인상을 풍긴다. 갑옷을 입은 형태라든지 보관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북방다문천왕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도2. 범주사 소조사천왕상>

서방광목천왕은 능형의 낮은 보관을 썼으며 두 손에 각기 보당과 탑을 들었다. 밑에는 두 구의 생명좌를 밟고 있다. 천의자락은 두 발밑으로 바닥까지 흘러 내려 안정감을 주면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방지국천왕은 칼을 비스듬히 들었으며 능형의 낮은 보관에 양측에 새의 날개와 깃털이 달린 보관을 쓰고 있다. 남방증장천왕은 두 팔을 벌린 역동적인 자세에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다. 나무로

추정되는 보관을 쓰고 관대가 양 측면으로 휘날리며 보관에는 화문과 구름, 봉황 등을 별도로 만들어 고정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보관의 가장자리에는 화염문으로 장식하였다.

사천왕들의 발 밑에는 작은 크기에 각각 2구의 생령좌(야차)들이 천왕의 발에 깔리거나 밟혀 있는 상태로 발견된다(도3). 악기를 연주하거나 관리나 양반과 같이 관복을 입고 사모를 쓴 인물도 있는데 표정이 생생하고 찡그린 표정까지 매우 사실적이다. 그리고, 묵중한 크기의 사천왕에 눌린 고통스러운 모습이라기보다는 무심하게 정면을 응시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밝은 모습 등에서 점에서 오히려 풍자와 해학적인 모습도 보인다.



북방다문천왕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도3. 범주사 사천왕상의 생령좌>

천왕문과 사천왕상 등 재료에 대한 과학적인 연륜연대가 조사되었다. 천왕문 기둥의 최외각 연륜연대는 1619~1620년이며 사천왕상의 심목과 마루판은 1636~1664년으로 참고된다.

□

○ 현 상

법주사 사천왕상은 법주사가 임진왜란으로 인해 소실된 후 벽암각성에 의해 1624년 중건될 때 함께 중건된 것으로 보이는 천왕문 안에 봉안되어 있다.[도1] 이 천왕문의 연륜연대 분석에 의하면 1621년으로 편년되어, 이 무렵 벌목된 후 기존의 추정연대인 1624년 무렵에 중건된 것으로 보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천왕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 맞배지붕 주심포 형식의 건축이며 법주사의 전체적인 좌향인 남서향을 따르고 있다. 천왕문은 충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천왕상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도1. 보은 법주사 천왕문>

천왕문 안의 사천왕의 배치는 일반적인 남향 건축에서와 동일한 배치로 봉안되었다. 즉, 남쪽으로부터 진입했을 때 건물 동쪽인 우측의 안쪽에 북방, 바깥쪽에 동방천왕, 서쪽인 좌측의 안쪽에 서방천왕, 바깥쪽에 남방천왕이 봉안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찰의 천왕상은 모두 좌상인 반면에 유일하게 입상으로 조성되었으며, 때문에 천왕상의 높이가 5.7m 가량에 이르러 천왕상 중 최대 규모이며, 이렇게 거대한 천왕상을 봉안하기 위해 천왕문 역시 최대 규모이다. 또한 단지 크기가 클 뿐 아니라 조형성 또한 매우 높다. 앞서 연륜연대분석에 의해 고찰된 바와 같이 사천왕이 천왕문보다 30년가량 늦게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천왕문이 이처럼 거대하게 세워진 것은 이처럼 남다른 규모의 사천왕을 봉안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천왕상을 세우지 못하고 치밀한 준비를 거쳐 결국 최대 규모의 사천왕을 완성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정해볼 수 있다.

북방천왕은 천왕문을 통과해서 나가려는 사람을 인자하게 배웅하는 듯한 모습으로 조성되었다.[도2] 지물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북방천왕의 도상인 비파를 들고 있지만 입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착용한 보관은 상단이 일련의 화염보주문으로 장엄되어 있는데 정중앙과 좌우의 보주는 특별히 더 크고, 특히 중앙의

보주 안에 꽃 장식이 추가적으로 그려져 강조되어 있다.[도3] 그 아래에는 꽃잎 열이 3겹인 둥근 국화문 같은 꽃장식과 구름문양이 장식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화염보주문과 마찬가지로 중앙과 좌우에는 더 큰 국화문을 달았고, 특히 정중앙의 국화문은 좌우에 그보다 작은 국화문이 뒤에 겹쳐있어 더 화려하게 꾸몄다. 보통은 천왕의 보관 중앙에는 용이 위치하는데, 법주사 천왕들은 예외적인 장엄이라 하겠다. 정중앙의 국화문 장식 좌우 상단에는 다시 흰색과 녹색의 학이 날고 있는 모습이 달려있다. 보관 관대의 뒷면 좌우에는 2중의 S자형으로 휘날리는 붉은색 띠가 달려 있는데,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관 좌우에 달려 펄럭이는 띠와 유사한 형태이다. 다만 상이 커서 이 띠의 휘날리면서 접히는 부분이 매우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고, 또 띠 안에는 금색의 원형 장식이 그려져 있어 실제 장식문양이 있는 비단자락이 휘날리는 것 같은 생동감을 준다. 보관 아래의 타래진 머리카락 표현도 보살상의 보발 표현과 같은 형식이며, 다만 입체성이 강조되지 않고, 비교적 평탄한 편이다. 좌우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뒤로 넘어가는 것은 보살상의 보발이나 다른 사찰 사천왕상의 보발 표현과 유사한데, 다만 어깨로 흘러내리지 않고 끝나고 있다. 귀에는 “?”형으로 구부러진 철사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 끝에 붉고 동그란 구슬형 귀걸이가 달려있다. 귀걸이 끝에는 실제 이러한 장식구와 고정하는 철사를 마감할 때처럼 꽃잎 장식이 그려져 있고, 철사의 끝도 금색의 단추 같은 부재로 깔끔하게 마감했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강인한 모습이며 검은 눈썹과 검은 수염이 북방천왕을 젊어보이게 한다. 이마에는 매우 굵은 주름살이 한 줄 가로새겨 있는데, 이 주름은 미간에 있는 세로선으로 새겨진 잔잔한 주름과 함께 노화로 인한 주름이라기 보다는 눈에 힘을 주어 인상을 쓸 때의 주름처럼 보인다. 다른 사찰의 사천왕의 경우 콧구멍이 마치 숨을 거칠게 내쉴 때처럼 크게 표현된 경우도 많으나, 여기서는 매우 작게 흔적만 표현되어서 차분한 인상을 준다. 입은 미세하게 미소짓는 듯한 인상이고, 입을 살짝 벌려 윗니가 그 틈으로 조금 보인다. 북방천왕은 특히 수염이 인상적인데 턱에서 시작된 수염이 수직으로, 또는 아래로 모아지면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펼쳐지듯이 넓어지고 있어 특이하다. 마치 삼국지의 관우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래서 북방다문천왕은 문무를 겸비한 인자한 장수의 분위기를 풍긴다.



<도2. 북방다문천왕> <도3. 북방다문천왕 상체 세부> <도4. 북방다문천왕 요대 수식>

목에는 보라색 스카프를 둘렀고, 갑옷은 전체적으로 소슬금문으로 꾸며졌다. 이 소슬금문은 금색 등 단색으로만 채색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청색, 적색, 연두색의 세 색을 번갈아가며 칠해 단청이 주는 화려한 느낌을 살렸다. 상박을 보호하는 상박갑의 상단에 푸른 사자가 입을 벌려 상박갑을 물고 있는 형식이다. 상박갑 아래로는 푸른 옷자락 같은 것이 흘러나와 팔굽에서부터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위로 넓게 솟아있는데, 그 모습이 흥함꺾질처럼 속이 비어있어 입체감을 살렸다. 특히 소조로 이렇게 나부끼는 옷자락을 만들면 무게를 지탱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마도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이 조개꺾질 안이 비어있는 것처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양쪽 소매의 끝을 모두 천왕문의 기둥에 붙여두었는데, 여기에 고정을 하여 지탱하게끔 한 것으로 보인다. 팔굽 부분에 보이는 속옷은 분홍색으로 그 위에 꽃과 구름문양이 그려졌는데 음영이 들어가 있어 마치 부조로 새긴 듯 입체적으로 보인다.

가슴과 배 사이에는 붉은색 천을 벨트처럼 휘감아 정면에서 묶었는데,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끈으로 묶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휘감은 천 자체로 매듭지어 묶었다. 이 매듭 안쪽으로 보이는 갑옷은 가슴에 보이는 문양과 같은 소슬금문인데 채색을 살구빛 단색으로 칠했다. 허리에는 금빛의 장방형 마디로 이루어진 요대를 착용하고 그 안에 푸른색의 화려한 천으로 허리를 감싼 모습이 보인다. 요대 중앙에는 회색의 용처럼 생긴 동물 가죽이 달려있는데, 몸에 비늘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물고기 같은 몸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죽의 입에서 붉은 띠가 좌우로 흘러나와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는데, 무릎 높이에서 한번 매듭이 지어진 후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바닥까지 늘어져 있다.[도4] 보통 요대 마디 장식은 용이나 봉황 등을 입체적으로 화려하게 새겨넣는데, 범주사의 경우는 매우 단순하게

되어있다.

허벅지는 흥갑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색으로 소슬금문을 채색했고, 그 아래로는 바지 자락이 보이는데 팔굽에서 드러난 옷과 마찬가지로 분홍색조에 붉은 색의 연주원문이 점점이 그려졌다.[도5] 무릎 아래에서 이 옷자락을 붉은 끈으로 묶고, 정강이에는 붉은 색조의 슬갑을 착용했다. 신발은 먼지가 쌓여 세부 문양은 잘 보이지 않지만 상판은 붉은색에 황색의 평행선이 그어진 형태로 보이고, 발등의 가운데에는 국화문으로 꾸몄으며, 신발코는 푸른색의 여의두문으로 마무리되었다.



<도5. 북방다문천왕 좌측면>



<도6. 북방다문천왕 악귀(왼발)>



<도7. 북방다문천왕 악귀(오른발)>

북방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는데, 왼손은 지판 위에 올라가 있지만, 오른손은 비파의 하단을 받치고 있는 자세여서 연주하는 모습은 아니다.[도3] 비파의 공명 구멍은 마치 코끼리의 눈처럼 채색이 되었고 그 주변도 마치 흰 가죽을 입힌 것처럼 채색되었다. 비파의 몸통에는 나뭇결이 정교하게 그려져 사실성을 더했다. 현을 고정하는 줄걸이판이나 지판 끝의 목 부분에도 휘가 들어간 채색장식이 보이는 등 세심하게 장엄한 것이 느껴지며, 비파의 형식은 목이 꺾인 당비파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형식이다. 4개의 현 중에서 하나는 끊어진 상태로 매달려 있다. 양손은 소조상답게 부드러우면서도 손가락 마디마디의 굴곡을 섬세하게 표현하였고, 손톱도 비교적 정교하게 표현되었다. 북방천왕의 어깨에는 피건이 걸쳐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피건이 좌우로 휘날리면서 바닥으로 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깨에서 내려와 겨드랑이를 타고 등쪽으로 넘어가면서 U자형으로 굽이 치며 뒤편 허리춤으로 말려들어갔다 다시 흘러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뒤틀리면서 바닥까지 드리워지고 있다.[도5] 바닥에는 악귀들이 누워있는데 이 악귀들을 바닥에서 감싸듯이 드리워지고 있다.

범주사 천왕은 모두 입상이기 때문에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어서 악귀들은 모두 이들 천왕에 밟힌 모습을 하고 있다. 왼발 아래 밟힌 악귀는 배를 위로 하여 누웠는데, 머리칼을 마치 고깔모자를 쓴 것처럼 쓸어 올린 것처럼도 보이고, 혹은 외뿔이 돌아나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도6] 전체적으로 피부는 붉은색에 근육질의 몸을 지녔고, 얼굴은 옆으로 넓적하며 튀어나올 듯한 눈동자에 들창코, 꼭 다문 기다란 입술에 아래에서 솟아난 송곳니가 전통적인 도깨비 이미지를 보여준다. 짧은 소매의 상의와 짧은 바지를 입었으며 옷자락 일부가 바닥에 늘어져 있다. 바닥을 짚고 있는 손이 매우 굵게 표현된 것도 특이하다.

한편 오른발로 밟고 있는 악귀는 배를 바닥에 깔고 누워 밟혀있는데, 범주사에서는 특히 널리 알려져 있는 조각상이다.[도7] 전해지기로는 병자호란 등을 겪은 뒤이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한 반감으로 청 황제 홍타이지를 북방천왕의 발 아래에 넣은 것이라고도 한다. 이 인물이 홍타이지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착용한 모자가 청나라 겨울 관모인 난모(暖帽)처럼 보여 청나라 사람을 의도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특히 이 인물은 악귀로서의 특징은 전혀 없는 사람의 모습이며 입고 있는 옷도 화려해 보이는 등 고급관료를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다른 악귀들과 마찬가지로 소매와 바지를 걷어 올려 팔뚝과 종아리를 드러내 벌을 받고 있는 중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만약 이 인물이 실제로 홍타이지나 청나라 군사들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것이라면, 청에 의한 정묘호란(1627)이나 병자호란(1636~1637) 이후에 조성되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기존의 1624년 제작설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이 연륜연대측정을 통해 밝혀진 1655년은 북방천왕 악귀의 여진인(청나라)설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한편 천왕상과 악귀들은 모두 천왕문 바닥 위에 설치한 나무 궤짝 같은 받침 위에 조성되었다.



<도8-1. 동방지국천> <도8-2. 동방지국천 상체 세부> <도9. 동방지국천 하체 세부>

동방지국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의 장엄요소는 북방천왕과 대체로 대동소이하나, 지물이나 채색, 표정, 악기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도8] 동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우선 보관은 관대의 가운데 부분이 완만하게 솟은 삼각형 모양인데, 다른 장식은 전혀 부착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이고, 다만 관대의 상단 테두리가 여의두문 형태로 마무리되어 있다.[도8] 이렇게 관대는 단순하지만 대신 양쪽에 깃털이 달려있어 일종의 조우관처럼 보이기도 하며, 측면에는 단청 채색된 날개가 달려있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의 투구, 혹은 위태천의 투구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보관에서 뒤로 두건 같은 것이 뒷통수 부분을 덮고 있는 것도 다른 천왕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다. 보살의 보발 표현도 보이지 않고 단지 보관 아래로 약간의 머리카락이 살짝 보일 뿐이다. 수염, 눈썹은 구불구불 말린 형태로 채색되었고, 전체적으로 매우 젊은 장수의 모습이다. 입은 차분히 다물고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표정이다. 귀에는 꽃모양의 귀걸이가 부착되어 있다.

갑옷의 형태는 대체로 북방천왕과 유사하나 요대를 결박하는 대구 부분이 청룡이 요대를 물고 있는 모습이다.[도9] 용은 두 개의 뿔을 지녔고, 아래턱도 분명히 묘사되었으며, 정수리와 턱아래에 구불구불한 갈기가 있어 사자처럼도 보인다. 상박갑 아래 팔굽에서 드러난 상의의 문양은 여기서는 국화당초문처럼 채색되어 있다. 지물인 보검은 손잡이가 금강저처럼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칼날의 끝 부분이 여의두문처럼 장식적으로 처리된 것도 주목된다.[도8] 마치 칼날의 예리함을 점검하듯이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왼손을 살짝 칼날에 대고 있는 정형적인 동방지국천왕의 자세이다. 보통 칼날은 청색으로 채색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말에서 ‘시퍼렇게 선 날’이라고 할 때의 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금빛으로 채색한 것이 특이하다.

악귀는 왼발의 경우는 북방천왕 왼발의 악귀와 같은 도깨비 모습인데 정수리에 끝이 뾰족한 두건을 쓰고 있다.[도10] 아마도 두건 아래에 뿔이 있기 때문에 두건 끝을 뾰족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배를 땅에 대고 누워 뱃힌 상태이다. 오른 쪽 발에 뱃힌 악귀는 사람의 모습인데 조선의 관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식 자체는 앞서 살펴본 청나라 사람을 모델로 한 인물과 유사한데, 머리에 조선 관리가 쓰는 복두를 쓰고 있어 구분된다. 아마도 무능한 조정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채색으로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그려두었으며, 콧구멍은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어 특이하다.



<도10. 동방지국천 악귀(왼발)>



<도11. 동방지국천 악귀(오른발)>

반대편의 남방증장천왕은 북방천왕의 보관과 유사한 보관을 착용하고 있으나, 관대 뒤쪽에서 펼럭이는 2중의 S자형 띠는 북방천왕의 띠에 비해 평면적이고 휘 날리는 형태도 단순하다.[도12] 이것이 원형인지, 아니면 원래는 북방천왕처럼 정교한 띠 장식인데 후에 보수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흉갑의 표면은 금빛의 소슬 금문으로 채색된 것으로 보이는데, 목에 걸친 스카프 자락이 넓게 펼쳐지고 있어서 거의 가려져 있고 펼럭이는 스카프의 틈새로 조금씩 드러나 보일 뿐이다.[도 13] 상박갑은 녹·청·적색의 소슬금문으로 채색되어 있다.



<도12. 남방증장천>

<도13. 남방증장천 갑옷 세부>

<도14. 남방증장천 좌측면>

요대 부분은 허리에 두른 푸른색 천에 의해 가려져 있고, 대신 복부에 두른 붉은 천의 위쪽 테두리가 마치 요대처럼 마디마디 여의두문으로 채색되어 있다. 복부를 보호하는 갑옷의 표면은 어린문으로 채색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금색의 굵은 고리가 달려있고, 그 고리에 푸른색의 용 가죽 같은 것이 매달려 있다. 가죽에는 청색반점이 있으며, 정수리에는 외뿔이 돋아나있다. 가죽의 아래 부분에는 뒷발이 늘어져 있어 이 가죽장식의 표현을 세심하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허벅지를 가리는 군갑은 커다란 어린문으로 채색되었으며, 군갑 아래로 보이는 하의를 무릎 아래에서 붉은 끈으로 묶은 것은 다른 천왕들과 동일하다.

한편 지물로는 오른손에 황룡, 왼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데, 용은 마치 여의주를 빼앗겨 잔뜩 약이 오른 듯 포효하고 있는 모습이 생동감이 있다. 이 오른팔의 견갑 아래로 흘러나와 옆으로 펼쳐지는 옷자락은 원래 천왕문의 벽면에 연결되어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상당부분 떨어져 나가 소조상의 내부 흙이 드러나 있고, 내부의 목심에 철사가 감겨 천왕문의 공포에 매달려 놓은 구조가 확인된다.



<도15. 남방증장천 악귀>

남방천왕의 악귀는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뇌신의 모습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뇌신은 악귀가 아니지만, 형태는 도깨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악귀처럼 보일 수 있다. 또한 뇌신은 보통 풍신과 함께 짝을 지어 표현 되는데, 남방천왕 아래에는 두 존재 모두 뇌신의 도상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바라를 들고, 하나는 북채를 들고 있는데, 풍신은 보통 바람주머니를 들고 있어 구분된다. 오른발 아래의 뇌신은 발에도 북채를 들고 있어 일반적인 뇌신과는 다르다. 머리에는 머리띠를 땀는데 이마 위에서 묶은 것으로 보이며 그 위에 화염문 같은 것이 세워져 있다. 왼발 아래의 뇌신은 머리 좌우에 상투를 튼 동자의 모습인데, 들고 있는 바라 안에는 구름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어서 혹시 이것이 풍신을 상징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도16. 서방광목천왕>



<도17. 서방광목천 상체 세부>



<도18. 서방광목천 상체>

끝으로 서방광목천은 동방지국천과 같은 보관을 착용하고 있다. 눈썹과 수염은 밝은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입을 벌려 살짝 웃고 있는 듯한 얼굴이다. 흉갑의 문양은 변형된 소슬금문으로 볼 수 있는데, 十자형과 X자형의 짜임이 교차하며

독특한 문양을 만들어낸다. 상박갑은 일반적인 소슬금문으로 채색되었는데, 소슬금문을 이루는 삼각형의 한면 한면이 녹·적·청으로 채색되어 있다. 흉갑을 둘러싼 천이나 허리를 감싼 천은 모두 요대로 고정시킨 것처럼 보여서 마치 요대를 상하로 두 개 착용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실제 허리에 찬 요대는 아랫배로 늘어진 상태로 착용하고 있는데, 서방천왕의 경우는 특히나 이 요대를 고정하는 용 얼굴모양의 버클인 대구(帶鉤)가 없어서 더욱 이렇게 늘어진 형태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른 천왕에서 자주 보이는 요대나 가슴에 매달린 가죽장식도 생략되었고, 대신 커다란 원반 모양의 장식이 갑옷 복부에 매달려 있다.

오른손에는 당을 들고, 왼손에는 오층탑 형식의 보탑을 받들고 있는데, 자세가 마치 공을 던질 때의 자세처럼 당당하다. 바닥에는 푸른색의 피건 자락과 요대에서 흘러내린 붉은 띠가 소용돌이치듯이 감기고 있고, 그 사이 광목천왕의 발 아래에는 동방천왕처럼 복두를 쓴 관리와 악귀가 밟혀있다. 두 존재 모두 바닥에 늘어진 옷자락 사이에서 마치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또한 관리의 경우는 귀에서 귓털이 빠져나온 것까지 채색되어 있어 사실성을 더했다.



<도19. 서방광목천 악귀>



<도20. 서방광목천 악귀(오른발)>

□

○ 조사내용

법주사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시대 義信스님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체로 8세기 후반 眞表가 속리산에 터를 정하고 제자 永深이 법주사를 세움으로서 사찰의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 진표는 신라시대 점찰법회를 주도한 법상종의 승려로, 영심 또한 스승의 종지를 잘 따랐기에 창건 당시 법주사는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법상종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전 국토와 사찰에 큰 피해를 입혔다. 사찰의 재건은 전란이 끝나고 본격화 되었다. 그 중심에는 불교의 중앙행정 체계인 팔도도총섭이 있었고, 스님으로는 벽암 각성이 있었다. 법주사의 중창도 벽암 각성이 주도하였다. 벽암각성은 그의 고향이 보은이었기에 법주사는 각별한 애정이 있었던 사찰이었음이 분명하다. 법주사는 1602년 팔상전 중창을 시작으로, 1618년 대웅보전 중창, 1626년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부좌상 조성 등 전란에 의해 소실된 전각을 차례대로 복구해 나갔다. 사천왕상의 조성과 관련된 자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으나 천왕문의 중건 연대와 연계하여 1624년 경으로 추정해 왔다.⁸⁾ 최근 보존처리 과정에서 실시한 연대측정에서 천왕문은 1621년 경으로, 사천왕상의 목적은 1655년 경으로 파악되었다. 1655년은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상이 조성되던 해와 같아 주목된다.

천왕문은 조선 후기에 그려진 <법주사도>에 일주문-수정교-금강문-천왕문-팔상전-대웅보전이 일직선상으로 그려져 있다. 1926년 세워진 <속리산법주사수정암화주비구니태수비명>에 의하면, 1897년에 천왕문을 보수하고 1899년에 천왕상 4위를 개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⁹⁾ 2019년에는 남방증장천왕의 보관이 떨어져 이에 대한 보존처리가 있었다.



<표1 보은 법주사 사천왕상 배치도>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사천왕상 중 小形의 사천왕상인 서울 봉은사 목조사천왕상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입상형태로 제작되었다. 제작 기법은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흙을 발라 형을 잡고, 채색으로 마무리하였다. 전체 높이가 600cm에 달하는 초대형 상이다. 문의 좌우측에 각각 2위씩 배치하였는데, 조선후기 등장하는 통상의 사천왕상 배치법을 따르고 있다. 즉 향해서 우측에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과 보검을 든 동방지국천왕을, 좌측에 당탑을 든 서방광목천왕과 용과 여의주를 잡은 남방증장천왕이 자리하고 있다. 동방천왕의 보검은 칼끝을 꽃봉우리 모양으로 등

8) 李康根, 『朝鮮中期 佛教建築 內附空間의 莊嚴』, 『불교미술연구』 1, 동국대학교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1994, p.64.

9) 『俗離山法住寺水晶庵化主比丘尼泰守碑銘』(1926), “...丁酉修天王門己亥改彩天王像四位...”.

글린 형태이며,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왼손의 중지과 약지를 구부려 칼등에 올려놓았다. 북방과 남방천왕은 裱같은 천으로 胸帶를 두르고 매듭지어 묶었다.

입상으로 계획된 초대형 사천왕상이지만 사실적인 모델링이 돋보인다. 다른 곳의 사천왕상과 달리 이곳의 사천왕상은 寶冠부터 남다르다. 즉 북방과 남방은 여느 사천왕상과 마찬가지로 보관을 썼지만, 동방과 서방사천왕은 투구를 썼다. 조선후기 투구를 쓴 사천왕상은 법주사 상이 유일하지만, 보살사 영산회괘불탱(1649년), 안심사 영산회괘불탱(1652년)와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같은 불화에서 투구와 보관을 쓴 사천왕상이 동시에 등장한다.



<사천왕상 투구(동)>

<세부표현(북방)>

<사천왕상 야차(청나라 관리)>

눈은 크게 표현하였으나 다른 사찰에서 표현된 사천왕상과 달리 튀어나오듯이 과장되지 않고 인간적이다. 콧날은 삼각형으로 오뚝하게 표현하였다. 목에는 頸甲을 대신하여 스카프를 둘렀고, 머리 뒤를 돌아 양어깨로 걸친 천의는 화염광배를 이루고 있으며, 천의 자락이 울동적으로 佛身을 휘감고 바닥까지 풍성하게 흘러내렸다. 견갑과 흉갑은 소슬금문(산문갑)으로 표현하였고, 슬갑은 동방은 소슬금문, 동방은 비늘모양으로 달리 표현하였다. 전포 위에는 裳甲, 裳甲 위에는 요의를 멋스럽게 걸쳤다. 북부에는 귀면이 요대와 수환을 물고 있거나 獸皮가 胸帶¹⁰⁾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수환은 정강이 부근에서 나비매듭으로 한차례 묶고 장식처럼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렸다. 이곳 사천왕상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표현은, 바로 흉대와 요대에 있다. 북방과 동방천왕은 통상의 사천왕상에 보이는 바와 같이 북부의 귀면이 요대와 긴 끈 형태의 수환을 물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되었으나 남방천왕은 수환으로 요대로 삼고 있는 점이 특색이 있다. 또한 가슴의 흉대 역시

10) 17세기에 조성된 대부분의 사천왕은 가슴부근에 띠를 두르고 밧줄로 묶은 모습이나 법주사 사천왕상은 북부에서 띠를 둘렀다. 기술의 편의상 흉대라고 부르겠다.

띠를 두르고 밧줄로 묶는 통상의 방법과 달리 혁대를 둘러 흉대를 고정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다.

야차의 모습도 가장 활달하고 특색 있게 묘사하였다, 범주사의 야차는 모두 사천왕에게 밟혀 있는 모습이다. 생령의 모습도 인간형 야차와 악귀형 야차가 동시에 등장한다. 남방천왕의 좌측의 야차는 인간형의 야차로 양손에 바라를 들고 연주하는 모습이고, 우측 야차는 악귀형으로 양손에 북채를 들고 있다. 서방광목천왕의 야차 중 오른쪽에는 관리형을, 왼쪽에는 악귀형 야차의 등을 밟고 섰다. 북방다문천왕은 오른발로 청나라 관리형 야차를 밟았고, 왼발로 악귀형 야차를 밟고 있다. 동방지국천왕의 오른발 아래에는 사모관대를 쓴 관리형 야차를, 왼쪽에는 악귀형 야차를 배치하였다. 특히 북방다문천왕의 생령으로 등장하는 청나라 관리형 야차는, 북방 오랑캐인 淸이 병자호란을 일으킨 역사적 사건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왜란 이후 범주사를 중창을 이끈 벽암각성은 병자호란의 격전장이 되었던 남한산성 축성(1624년)을 주도한 인물이고, 병자호란 시 의승군을 모집하여 참전까지 할 정도였으니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던 인물이다. 따라서 그가 중창을 주도한 범주사, 그것도 호법신인 사천왕상 생령좌에 청나라 관리형의 야차를 도입함으로써 남한산성과 삼전도에서 있었던 국가적 치욕을 씻고자 했던 그의 호국적 의지를 드러낸 해학적 장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본다면 청나라 관리의 등장으로 인해, 이 사천왕상은 기존의 1624년 범주사 재건시작 당시, 또는 범주사 대웅전 삼불상이 제작되는 1626년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병자호란(1636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범주사 사천왕상의 제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17세기 전반기의 범주사의 가람배치는 대웅보전-팔상전-사천왕문-일주문으로 이어지는 축으로 중심축이 바뀐다. 따라서 천왕문은 가람을 구성하는 중심축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창불사 시 최우선 고려되었던 건물일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범주사의 재건불사는 1602년 팔상전 공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618년에는 대웅보전이 중창되었으며, 1649년에는 원통보전이 중창되었다. 그리고 대웅보전의 삼불상은 1626년에 대형의 소조상으로 제작되었고, 원통보전의 관음보살상은 1655년 목조로 제작되었다. 최근 사천왕상 보존처리 시 실시한 연대측정에서 천왕문은 1624년 경, 사천왕상은 1655년 경의 제작연대로 추정되었다. 사천왕상은 늦어도 1655년 경에 제작된 상으로 볼 수 있다.

정확한 발원문 없이 제작자를 유추하기 어렵지만, 범주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과 완주 송광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 등 초대형 소조불의 조형감을 계승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룬결절, 날카롭게 늘어진 耳孔을 가진 귀와 삼각형의 다소 낮은 콧날은 원통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혜희가 만든 목조관음보살좌상(1655년)과 양식적으로 통한다. 따라서 사천왕상도 범주사 원통보전 관음보살상을

조성한 혜희 유파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 있다. 혜희는 이미 1641년에 수조각 승 청헌을 도와 초대형 소조불상(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다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천왕상을 제작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적 조사결과에서 제시한 1655년경에 근접하는 시대 편년이 나온다. 일련의 역사적 상황에서 보면 1626년 대웅전 불상 조성과 멀지 않은 시점에 제작되었을 것이고, 벽암각성이 법주사에 머물던 시점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벽암 각성은 1641년 완주 송광사 불사를 마치고 해인사와 보개산을 거쳐 1646년 속리산에서 사형인 孤閑熙彦(1561~1647)과 함께 지냈다. 1647년 희언이 입적하자 장례를 치른 뒤 화엄사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법주사 사천왕상은 1646년 벽암각성이 다시 속리산에 주석할 때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벽암각성은 1641년 자신이 주도한 완주 송광사 대웅전 삼불좌상 제작에 참여했던 청헌·혜희 등의 조각승들을 다시 초청하여 이 사천왕상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현 상

- 보은 법주사 천왕문에는 좌우 2구씩, 도합 4구의 천왕상이 모셔져 있다. 천왕문 입구에서 사찰 안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으로는 칼을 든 천왕과 비파를 든 천왕이 배치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왼손에 여의주를 쥐고 오른손에 용을 쥔 천왕과 오른손에 당을 잡고 왼손으로는 탑을 든 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 법주사는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었으나, 1624년에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에 의해 중창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법주사 천왕문은 벽암각성이 법주사를 중창할 당시에 중건되었다. 대형의 소조상은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며, 천왕문과 연결하여 지지력을 높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천왕상도 천왕문이 초건되었을 당시 조성된 것 추정된다.
- 「속리산법주사수정암화주비구니태해비명(俗離山法住寺水晶庵化主比丘尼泰害碑銘)」에 의하면 1897년에 천왕문을 보수하고, 천왕상 4위를 개채했다고 한다. 천문왕문은 1971년에 해체보수되었으며, 이 때 사천왕상도 보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수의 내용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 내용 및 특징

- 법주사 사천왕상은 높이가 570cm에 이르는 현존하는 한국 최대 크기의 사천왕상으로 입상이다. 천왕상의 천의를 천왕문의 상부구조에 철사로 묶어 고정하여 하중을 분산하였다. 사천왕상은 장방형의 마루판 위에 서 있어 다른 사찰의 천왕문

과 사천왕상의 안치 양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

- 천왕은 살짝 고개를 틀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운동감이 느껴진다. 얼굴은 위아래 길이 보다 양옆 폭이 넓은 방형이다.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은 살짝 눈을 내려뜬 표정이며, 여타의 세 천왕도 다른 사천왕상에 보이는 것 같은 험상궂은 표정은 아니다. 눈은 매우 크고 주먹코에 가까운 형태이다.

- 조선시대 여타의 사천왕상은 통상 네 구 모두 보관을 쓴데 반해 법주사 사천왕상 중 당과 탑을 든 천왕은 고식의 투구를 착용하였다. 법주사 소조사천왕상이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제작된 사천왕상이란 점을 고려할 때, 앞선 시기 사천왕상의 특징을 계승한 결과로 해석된다.

○ 참고문헌

- 노명신,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 1994.
- 『법주사사적(法住寺事蹟)』.
- 심영신, 「양주 회암사지(楊州 檜巖寺址) 4단지 문지 출토소조편(塑造片)을 통해 본 회암사 사천왕상」, 『문화재』 54-3, 2021.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4.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金泉 直指寺 塑造四天王像)

가. 심의사항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9.2.25.) 및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 조사(’22.9.13./’22.9.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9.7.~’23.10.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金泉 直指寺 塑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직지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직지사
- 수 량 : 천왕상 4구, 중창봉안기 1점, 후령통 1점, 묵서편 2점
- 규 격 : 최대 높이 4.7m
-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종이 및 금속 등 ※ 복장유물 목록 참조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1665년(조선 현종 6)
- 제작자 : 단응(端應), 탁밀(卓密), 경원(敬遠), 사원(思遠), 법청(法淸) 등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지정 대상 복장유물 목록>

연번	구분	도판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1	서방광목천왕		중창봉안기	1665년	종이	43.0×56.8	1	
2			후령통	1665년	동, 비단	9.5×6.0	1	*황초폭자에 싸여있음
3			묵서편	조선후기	종이	29.0×7.7	1	*머리부분출토 法華經第六卷 西方天王 贊益 辛巳
4			묵서편	조선후기	종이	34.8×7.1	1	*몸통부분출토 法華經第七卷 北方天王 贊益 辛巳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직지사 목조사천왕상은 1665년(康熙 4)에 제작된 작품으로 2013년 8월 불교문화재 연구소에 의해 조사되면서 알려졌다. 그동안 1660년대의 사천왕상은 나무로 제작된 능가사 사천왕상이 있지만 1649년 송광사 사천왕상, 1676년의 수타사 사천왕상 사이에 소조작품은 없어 공백기로 남아 있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공백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작품의 출현과 능가사 사천왕상과도 공통된 시기적 특징이 확인됨으로서 17세기 사천왕상 연구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1660년대 사천왕상의 도상 및 양식적인 특징이 반영되었으며 장육상에 해당되는 큰 규모인 점도 중요하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사천왕상의 방위 문제도 직지사 사천왕상 네 구 가운데 세 구에서 방위가 적힌 목서가 나와 확실하게 정리되었다. 즉, 비파를 타는 천왕은 북방다문천왕이며, 검을 권 천왕은 동방지국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남방증장천왕, 탑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이 된다. 그리고, 화원들의 활동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목서가 나옴으로써 호남과 영남 조각승들의 불상 제작과 교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은 정확한 제작연대가 확실하고 방위를 비롯한 중요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적 가치 및 시대적 특징이 잘 반영된 작품인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은 조선후기 사천왕으로는 드물게 발원문이 발견되어 1665년에 조각승 단응을 수화승으로 삼아 전주 송광사의 승려들이 조성한 것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작이 될 수 있다.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화엄사, 흥국사 사천왕상의 양식과 도상을 보여주는 계열 외에 직지사 사천왕상처럼 신체가 길게 늘어진 독특한 양식의 사천왕상 계열을 설정해볼 수 있는데,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이 대표적인 예이고, 범주사도 유사한 흐름 속에 있다. 능가사는 목조이기 때문에 다소 경직된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직지사는 소조상이면서도 능가상과 유사한 점에서 이러한 표현이 단지 재료상의 차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체가 전체 비례에서 매우 긴 특징을 지니며, 사천왕 지물에서도 직지사만의 특징이 보인다. 예를 들어 서방광목천의 보탑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탑이다. 화순 운주사의 난형탑(卵形塔)을 연상시킨다. 북방다문천왕의 비파에 청사자가 올라가 있는 것도 매우 특이한 사례로 주목된다.

직지사 사천왕상의 발 아래 있는 악귀들도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승려처럼 변장한 악귀, 노동자처럼 보이는 악귀, 관복을 차려입은 인간 모습의 악귀 등을 통해 당시 다양한 계층의 복식 등 생활상도 추정해볼 수 있다.

사천왕 각각의 갑옷의 표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착의방식은 같지만 각각의 문양이나 색상, 표면장식, 특히 요대 장식은 네 천왕이 뚜렷히 구분되도록 차이를 두었다. 특히 용 얼굴 문양의 대구는 네 천왕이 모두 다르게 표현되었다.

직지사 천왕문은 임란 때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직지사의 오래된 건축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원래 봉안되어 있었던 사천왕상은 비록 단웅이 새로 조성하면서 철거되었겠지만, 목심은 그대로 남기고 흙 작업만 새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직지가 계열을 따르는 사천왕상들의 상체가 길고 경직된 듯한 특징들은 오히려 고려 말~조선 초의 양식적 특징일 수 있어 보다 오래된 기원을 가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기준작이 될 수 있는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함께 출토된 복장문헌과 함께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직지사 사천왕상은 17세기 사천왕상 중에서 원 발원을 통해 1665년이라는 제작시기와 단웅이라는 제작자가 모두 밝혀져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전라도 완주 송광사에 주석하고 있던 조각승들을 초청해 사천왕상을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목서를 통해 밝히고 있어 17세기 후반 사찰과 문중 중심으로 집단화된 僧匠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방위표기가 있는 목서편을 통해 17세기 승려예술가들 사이에서 인식하고 있던 사천왕상 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학술적 가치가 있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살이 없고 야위고 주름진 얼굴, 과장된 눈꺼풀, 세장하고 날씬한 단웅의 조각적 경향을 잘 담고 있다. 단웅은 사천왕상뿐만 아니라 주불전의 주존, 부속 불전의 지장시왕상 등 다양한 도상을 제작한 도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각승이었다. 특히 조각과 불화를 접목하여 만든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통상 목각탱이라 부름)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불교미술 장르를 창안한 다재다능한 조각승이었다. 이 작품은 그가 보조 조각승에서 수조각승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작품이며, 이 작품을 계기로 활동 범위를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보관에서부터 갑옷, 각 사천왕이 밟고 있는 야차(생령)에 이르기까지 크게 수리, 변형되지 않고 원형을 간직하고 있고, 야위고 주름진 얼굴, 세장한 신체비례 등 단웅의 조각적 특징도 잘 담겨있다. 인간의 품가 잘 반영된 야위고 주름진 얼굴은

당시 전란과 기근,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며 피폐해진 중생들의 고달픈 삶을 사천왕의 이미지에 투영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하루 속히 재난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중생들의 염원을 담아 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 후기 사천왕상 중 조각유파의 근거지와 활동양상을 유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의미가 큰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은 복장유물과 발원문, 내부 목서를 통해 1665년에 조성되었다는 사실과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이 밝혀진 유물이다. 이와 같은 귀중한 자료들이 2013년의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알려졌으며, 발견된 복장유물도 직지사성보박물관에서 일괄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다. 현재 알려진 약 17건의 조선 후기 사천왕상 중 1660년대의 작례는 나무로 제작된 능가사 사천왕상에 불과해서, 이 시기 소조 사천왕상은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첫째, 직지사 <사천왕상>은 연대가 확실히 알려진 소조사천왕상으로서 일차적인 가치가 있다. 둘째, 복장 기록을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사천왕상의 방위를 명확히 밝힌 결정적인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셋째, 상의 복장에서 17세기 승려 장인의 활동 반경과 양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목서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17세기에 만들어진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지사 사천왕상 역시 그와 같이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사천왕상과 복장유물을 함께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내력 및 발원문

직지사는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었으며 이후 재건된 사찰이다. 이후 천왕문(도1)도 건립되었다. 직지사 사천왕상에서는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 발원문, 내부의 묵서 등을 통해 1655년에 조성되었다는 사실과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 중수 기록, 그리고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풍부한 기록들이 발견되었다(도2).



<도1. 직지사 천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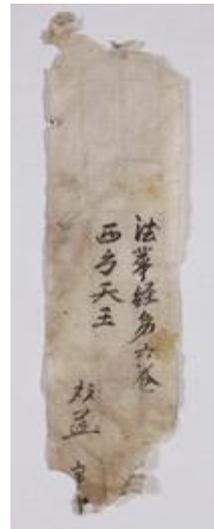
북방천왕



동방천왕



남방천왕



서방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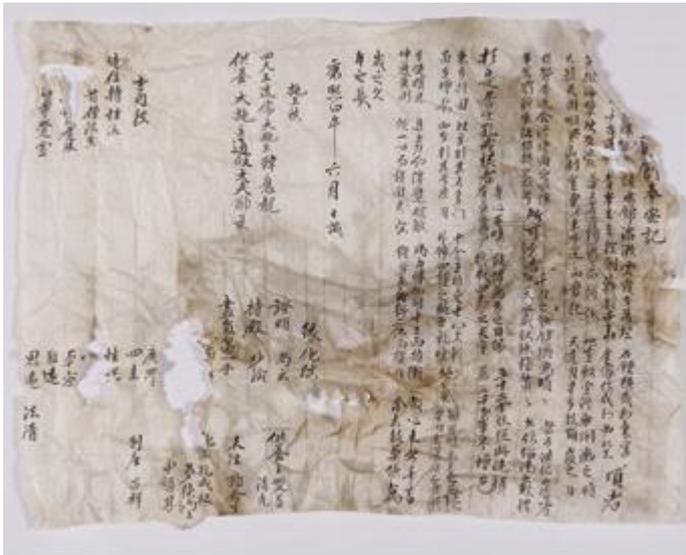
<도2. 방위가 적힌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묵서>

서방천왕의 내부에서 29.0×7.7cm 크기의 종이에 묵서가 발견되었는데 ‘法華經第六卷」西方天王 贊益 辛巳’라고 쓰여 있다. 북방천왕에서도 34.8×7.1cm 크기의 종이에 ‘法華經第七卷北方天王 贊益 辛巳’라고 쓰여 있는 묵서가 발견되었다. 칼을 든 천왕의 몸체 내부와 복장목에서는 ‘東’, ‘東南’의 묵서가 발견되어, 비파를 든 천왕은 북방다문천왕이 되며 탑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임이 확실해졌다. 그리고, 칼을 든 천왕은 동방지국천왕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비파를 타는 천왕은 북방다문천왕(北方多聞天王)이며, 검을 쥐 천왕은 동방지국천왕(北方持國天王),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남방증장천왕(南方增長天王), 탑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西方廣目天王)이 된다. 사천왕상의 존명에 대한 자료는 2004년에 발견된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으로 봉함목에 ‘北方’이라는 목서가 비파를 든 상에서 나왔다. 반면, 직지사 사천왕상은 세 구에서 방위가 명시되었으므로 확실한 자료가 등장한 셈이다.

또한, 서방천왕에서는 일부 파손된 상태로 ‘…重創奉安記’를 시작으로 ‘康熙四年六月日識…’ 등이 적힌 43.0×56.8cm 크기의 종이에 쓰여진 원문(願文)이 발견되었다(도3). 마지막 부분에는 일부 화원들의 이름도 밝혀졌지만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는데 ‘畫員 第一手 端應 ○○ 廣學 四圭 性悅 ○○ 卓密 敬遠 思遠 法清’ 참여 화원은 약 10명 정도가 되며 가장 앞의 수화승은 단응임을 알 수 있다. 화원질의 7번째에는 탁밀, 마지막에는 범청이 있다. 탁밀과 범청은 단응과 함께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제작한 화원들이다.

서방천왕 내부에서는 “全羅道全州府東終南山松廣寺居僧○畫員來造成之也”와 북방천왕에서 “全羅全州松廣寺畫員乙巳年(1665)三月日塗作也”라는 목서도 확인된다(도4). 기록상의 전주 송광사에는 1649년의 소조사천왕상이 남아 있는데 양식적인 공통점은 크게 없다.



<도3. 발원문(북방천왕), 43.0×56.8cm>



<도4. 내부 목서>

願文: …重創奉安記」…三韓福①」…千古道②」綠水錦湍漱雲霞與萬壑」青峯玉立控劍戟於千山」石鍾橫截於東冥」金像作成於西竺」頃者」③掀海鬣映及池魚」火烈民閻烟飛山刹」藥王菩薩獨悵」而何依」金粟如來亦遑」而靡托」地豈○宝○無闡幽之時」天道周星乃致顯微之日」作勞居送合從風雨之攸除」革舊鼎新重○招提之故号」所可欠者」千門之妙鍵猶爲瑣」」四天之威儀殊極蕭」」常爲法侶之咨嗟」久作緇徒

之歎惜」於是居士孔戒根者」專心再煥」有意重修」敢借萬天之因緣」○成四大之天帝」五十三金佛從此洗顏」萬二千玉峯白今增色」東方持國」南方增長」北方則其名多門」西方則其号廣目」中含五行之火八○斬」外飾四種之粧五彩煥」然矣」雖外現天王之威猛」案內含菩薩之慈悲」方便難思」神通莫測」具王力而降魔破敵」傾一心而護國民安」竭力歸依列十王而擁衛」稽首承合科二佛而護○」敬心奉安千百」齊志致奠億萬」歲之久」年之長」康熙四年六月日識」施主秩」四天王造像大施主韓應龍」供養大施主通政大夫鄭象」寺內秩」時住持性沉」首僧法熏」㉔㉔覺林」㉔寺覺虛」緣化秩」證明尙玄」持殿妙演」畫員第一手」端應㉔㉔」……廣學」四圭」性悅」㉔㉔」卓密」敬遠」思遠」法清」供養主 雙益」清允」來往 郭命生」化主 孔戒根」夢德兩主」申福男」別座 呂祥」(불교문화재연구소)

사천왕상 내부묵서

동방지국천왕 東方

남방증장천왕 ○子主西殿普一

서방광목천왕 全羅道全州府東終南山松廣寺」居僧人畫員來造成之也

북방다문천왕 全羅全州松廣寺畫員乙巳年三月日塗作也」良工化主洪戒根○」

別座呂尙比丘」

중수 묵서(비과)

四天王佛事緣化秩」詩住持 ㉔㉔㉔」總務 ㉔㉔現」財務 ㉔㉔○」書記 朴○圓」畫員秩」金魚 退㉔日燮」李忠烈」李承茂」李元七」李明烈」吳鍾㉔」

○ 내용 및 특징

직지사 사천왕상은 천왕문을 들어서면 그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비과를 든 천왕상, 칼을 든 천왕, 그리고 왼쪽으로 용과 여의주, 보당을 든 천왕상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도5). 크기는 450cm 정도의 대형으로 소조사천왕 가운데는 법주사 사천왕(600cm)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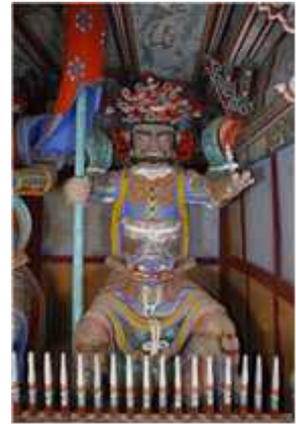
북방천왕



동방천왕



남방천왕



서방천왕

<도5.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네 구의 천왕은 모두 의자에 앉아있으며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에 몸은 가늘고 긴 편인데 전체적으로 다소 경직된 모습이다. 발밑에는 살아 있는 악귀들이 땅바닥에 누워있거나 발을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크기는 작지만 악귀를 상징하는 부릅뜬 눈과 근육 등이 강조되어 있다.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관의 크기가 높고 커서 얼굴이 상체에 비해 크게 보이는 효과를 주며, 보관은 화염문과 꽃을 장식하여 화려한 반면 관대는 작고 소박하다.

사천왕상의 신체는 허리가 길고 앉은 자세가 좁아 밑으로 길쭉한 형상인 반면 얼굴은 옆으로 긴 방형으로 특이한 모습이다. 신체에는 평상복 위에 갑옷을 입고 하체에는 군의를 입었으며 그 위에 천의를 둘렀는데 옷자락이 양 무릎에 흘러 내려져 있다. 가슴과 허리, 팔뚝, 정강이에 흉갑과 상갑, 허리띠 등을 착용하고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다. 소매부리를 말아 아래에 생긴 끝단을 묶었는데 소매부리가 위로 치솟아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제작기법은 나무를 심목으로 그 위에 흙으로 성형한 소조 기법으로, 의자는 4개의 나무로 결구하고 그 위에 통나무를 높게 올려 형태를 잡았다. 통나무 위에 사천왕의 모습을 진흙을 붙여 완성하였으며, 흙만이 아니라 짚과 같은 이물질이 섞인 흙을 반죽하여 사용하였다. 중간 부분에 쇠못으로 결구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사천왕의 허리 부분은 균일한 두께로 길쭉한 점이 특징인데 이는 심목인 통나무의 두께를 최대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천왕상의 의자부분 뒷면에 나무로 마감한 부분을 떼어내면 천왕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의자 내부는 4개의 가장자리 목심을 두고 그 사이를 모두 나무판으로 고정하여 안을 마감하였으며, 앉은 부분에 해당되는 윗 판 위에는 몸통에 해당되는 통나무가 세워져 있다. 통나무는 약 400cm 내외의 길이로 파여 있으며 그 안에 복장물이 채워져 있다. 현재, 사천왕상 가운데 당과 탑을 든 천왕상에서만 완전한 형태의 복장물이 출토되었으며 나머지 천왕상의 복장물은 일부 도난된 상태이다. 사천왕상 가운데 비파를 든 천왕과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의 내부에서는 새로 끼워

놓은 나무들도 확인되어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비파에는 일섭(日燮)스님(1900~1975)이 참여한 사천왕 불사 기록이 적혀 있어 20세기에 사천왕상이 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정면을 바라보는 경직되고 뻣뻣한 자세에 옆으로 긴 얼굴과 가늘고 길쭉한 신체비례가 특징이다. 이는 1620~40년대의 전주와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각기 다른 시점으로 문 쪽을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자세와는 다른 모습이며, 방형의 얼굴에 표현된 양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늘고 길쭉한 신체 비례는 통나무를 심목으로 사용한 제작기법과도 연관되는데, 1666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남도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정면 위주의 직지사 사천왕상의 자세와 시각, 양 무릎에 흘러내린 천의자락의 표현은 1676년의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직지사 목조사천왕상은 17세기 중엽경의 시기적 특징이 반영된 작품이며, 1660년대를 기점으로 형식적인 변화를 보이는 점에서 과도기적 시점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 현 상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이 봉안된 천왕문은 직지사의 건축물들 중에서 임진왜란 때 불타지 않고 살아남은 건축으로 전하고 있다.[도1] 또한 일부 소개(디지털김천문화대전)에는 직지사 사천왕상이 고려 태조 19년(936)에 능여대사가 직지사 중건했을 때 조성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천왕문의 정확한 연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고, 사천왕상의 내부에서는 발원문이 발견되어 1665년에 조각승 단응(端應) 등이 조성했음이 밝혀졌다. 다만 천왕문은 일반적인 조선후기의 천왕문과 달리 높이나 규모가 크고, 기둥 상부에 남아있는 배흘림의 흔적, 귀포의 구성 등을 보면 고려 말~조선 초기 건축으로 추정되는 북한 석왕사 호지문(천왕문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과도 유사한 측면이 보여서 실제 연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또한 만약 천왕문의 연대가 올라간다면, 내부의 사천왕 역시 연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발원문이 발견된 상태에서는 그러한 가정은 일단 의미를 잃게 되었다. 다만, 1665년에 원래부터 내려오던 사천왕상을 철거하고 새로 조성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내부의 목심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사천왕상의 얼굴 표현이나 장엄 등은 조선 후기의 양상을 띠더라도 조각상의 뼈대에 따른 전체적인 비례는 과거의 양식을 유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지사 사천왕상이 지닌 독특한 비례적 특성은 보다 오래된 전통의 반영일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도1. 김천 직지사 천왕문>

직지사 천왕문은 남향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사천왕의 배치는 천왕문으로 들어섰을 때 오른쪽 안쪽에 북방다문천, 바깥쪽에 동방지국천, 왼쪽 안쪽에 서방광목천, 바깥쪽에 남방증장천이 봉안되는 조선후기 일반적인 천왕문의 봉안법식을 따랐다.



<도2-1. 북방다문천왕>

<도2-2. 북방다문천 세부>

<도3. 북방다문천 좌측면>

북방천왕은 비파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일반적인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이다. [도2] 착용한 보관은 화염보주, 오색구름, 꽃, 비천, 청룡 등으로 장엄되어 있는데, 특히 꽃의 종류가 유난히 많은 것이 눈에 띈다. [도3] 보관 정중앙 정상부에는 봉황 장식이 달려있는데, 현재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모든 천왕들이 동일한 상태여서 이 상태가 원형처럼 추정된다. 보관 관대의 뒷면 좌우에는 2중의 S자형으로 휘날리는 붉은색 띠가 달려 있는데,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관 좌우에 달려 펼럭이는 띠와 유사한 형태이다. 또한 보관 좌우 측면으로 긴 철사가 나와 끝에 마치 엽경대처럼 생긴 화염보주가 달려있다. 보관 아래로는 발제선을 따라

머리카락이 촘촘히 표현되어 있고, 좌우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어깨로 내려와 매듭지어진 후 펼쳐지는 모습은 보살상의 보발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다른 사례의 경우 이 어깨에 늘어진 보발은 생략되거나 혹은 달팽이 더듬이처럼 위로 뻗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 부분의 피건 자락이 뒤쪽에서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보발이 어깨를 감싸는 형식으로 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지가 천왕상에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피건이 천왕의 뒤에서 위로 솟구치지 않고 수평에 가깝게 뒤로 펼쳐져서 천왕문 벽면에 고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도4] 대신 이 피건 자락이 위로 솟구치면서 일종의 광배역할을 하게 되는데, 직지사는 솟구치지 않고 누워있는 방식이어서 광배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



<도4. 북방다문천 상체>



<도5. 북방다문천 요대 수식>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윤곽을 보이며 짙은 눈썹이 입체감 있게 도드라져 있다. 이마에는 미세한 주름이 보이며, 미간은 얼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가운데에 W자형의 주름이 생기며 도드라져 있다. 눈 아래와 볼, 입 주변으로도 잔주름을 표현하여 나이가 많은 것을 강조했다.

북방천왕의 눈의 시선은 약간 아래를 내려다보는 인상이며, 입술은 언뜻 미소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릅뜬 눈에 의해 그다지 친근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입술 사이로 앞니 두 개가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에서 자주 보이는 형식이다. 또한 수염이 목 전체를 감싸고 가슴 위로 넓게 퍼지는 독특한 모습인데, 범주사 천왕문의 북방다문천의 수염과 유사한 것이다. 단지 수염 뿐 아니라 길게 늘어진 신체표현 등 전반적인 면에서 범주사 사천왕상과 유사한 점이 보인다. 이 수염은 범주사도 그렇지만 북방다문천왕에서만 보이며, 나머지 세 천왕의 수염은 모두 짧고 곱슬한 형식이다. 귀 끝에는 국화꽃 모양의 귀걸이가 붙어있다.

목둘레에는 꽃문양이 들어간 스카프가 감겨 있고, 그 아래의 흉갑은 주황색 어

린문(魚鱗文)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복부는 붉은색 바탕에 금색 점이 촘촘히 찍힌 형태로 채색되었다. 소조상은 이런 표면처리를 입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서는 평면적으로 다듬고 문양은 채색으로만 표현했다. 다만 흉갑 중앙에 세워진 금색의 금강저 장식만큼은 금박을 입체적으로 시문했다. 흉갑과 복갑 사이에는 당초문과 구름문이 시문된 하늘색 천을 두르고 이를 다시 금색의 끈으로 묶은 것처럼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양감을 두어 입체적으로 처리했고, 끈의 꼬임도 연속된 V자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복갑 중앙에는 커다란 5점의 원판 장식 같은 것이 표현되었다. 이 원판은 각 겹마다 연주문, 고사리문, 연판문 등으로 장식이 된 것이며, 각각의 둥근 윤곽선은 금색으로 채색되었다. 이렇게 복부를 장식한 원반장식은 범주사 천왕상, 특히 서방광목천의 갑옷 착의에서도 유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상박을 보호하는 상박갑은 소슬금문으로 채색되었으며, 상단 어깨쪽에는 푸른사자가 갑옷을 물고 있는 형식이다. 상박갑 아래로는 옷자락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위로 넓게 솟아있다. 이 옷자락은 붉은색 바탕에 보상화문, 구름문 등으로 문양이 그려졌다. 또한 휘날리는 소매 하단은 흰색의 끈으로 묶은 것처럼 매듭이 보인다. 이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굽 부분의 상의는 황색이고 보상화문이 그려져 있다. 팔뚝을 덮은 갑옷은 황색 바탕에 동심연주문이 시문된 형식이고, 좌우에 늑형의 구획을 두어 금색의 단추 같은 것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다.



<도6. 북방다문천 요대 세부>



<도7. 북방다문천 지물(비파)>

허리에도 하늘색의 보상당초문이 시문된 천을 두르고, 이를 관대 형식으로 마디가 있는 요대로 묶었는데 요대의 각 마디 장식은 실제로 부조로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도6] 그 문양은 천도복숭아, 청사자, 모란꽃, 표주박, 비천상 등이다. 이 요대의 중앙부를 푸른 사자가 물고 있는 형상인데, 이 청사자의 머리에는 두 개의 뿔이 돋아나 있다. 윗니가 드러나게 요대를 물고 있는데, 그 아래로 입을 맞댄 동물가족이 매달려 있다. 코 옆에 더듬이가 있고, 머리에는 뿔이 달린 동물의 가족이며 날카로운 이빨도 표현되었다.[도5]

북방천왕의 지물은 비파인데 천왕의 손은 비파를 들고 있는 자세이지만, 현재

비파는 이탈하여 무릎 위에 놓여있다.[도7] 손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북방천왕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데, 특히 왼손이 지판이나 몸체와 지판이 연결되는 부분을 잡고 있는 자세가 나오기에는 다소 어중간한 위치이다. 이 때문에 비파가 제대로 고정되지 못하고 이탈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간 손의 모습을 보아서는 비파의 몸통을 감싸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톱의 색을 희게 칠하여 손과 구분했고, 손가락 마디 등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의 움직임과 각각의 위치 등은 실제 손의 움직임을 잘 포착했다. 비파는 매우 납작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목이 굵은 당비파 형식이다. 별다른 장식은 없이 네 줄의 현만 달려있지만, 특이하게 줄감개통 위에 청색의 사자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이 보인다. 이러한 사자는 서방광목천이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고흥 능가사의 경우 서방광목천 자리에 있는 동방지국천왕 도상의 천왕이 피건 사이에 이러한 사자를 품고 있는 경우가 확인된다. 이처럼 북방천왕의 비파에 사자가 올라가있는 예는 매우 특이한 사례로 주목된다.

하체의 허벅지를 덮은 갑옷인 갑상(甲裳) 표면도 홍갑과 마찬가지로 어린문으로 채색되었으며, 그 아래에는 붉은색의 균의를 입고, 다시 그 안에는 연한 하늘색에 당초문이 시문된 바지를 입었는데 무릎 아래에서 붉은색 끈으로 한번 묶었다.[도8] 정강이 부분에는 슬갑(膝甲)을 착용하였는데, 팔뚝과 마찬가지로 좌우에 늑형의 구획을 두었고, 바탕에는 파란색 바탕에 동심원주문양이 채워졌다. 신발은 발등 부분에 국화문의 장식이 있고, 발등은 전체적으로 청색바탕에 흰색의 동심원주문이 채워졌다.



<도8-1. 북방다문천 하체 및 악귀들>



<도8-2. 북방다문천 악귀(오른발)>

천왕의 발 아래에는 악귀가 들어가 있는데, 오른발로는 악귀를 밟고 있고, 왼발은 악귀가 받들고 있다. 그중 왼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는 동물가죽을 뒤집어 쓴 모습인데, 원래 이런 가죽을 뒤집어 쓴 도상은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도9] 이후 알렉산더대왕이 이러한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인도에서는 금강역사의 모습으로 차용되기도 했다. 직지사 북방다문천 아래의 이 악귀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모습은 사라졌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주로 도깨비 등의 묘사에

사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사자가죽의 모습도 점차 물개가죽처럼 변모했다. 얼굴은 무엇에 놀란 듯한 표정인데, 미간 부분에 주름이 둥글게 패인 것처럼 표현된 것이 보인다. 북방천왕의 발을 어깨에 이고 있는 모습이 매우 역동적이며 실제 일꾼이 무거운 짐을 옮길 때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포착하여 표현했다. 상체는 벗고, 아래는 푸른색 바지를 입고 있는데, 뒤에서 볼 때 뒤집어 쓴 가죽의 꼬리부분에 달린 매듭, 어깨에 걸친 땡은 머리 등을 정성스럽게 조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것이 주목된다. 오른발에 밟힌 악귀는 삭발을 한 상태여서 언뜻 승려처럼 보인다.[도8] 그러나 이빨이 튀어나온 것을 보면 악귀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승려행세를 하며 악행을 저질렀던 악귀가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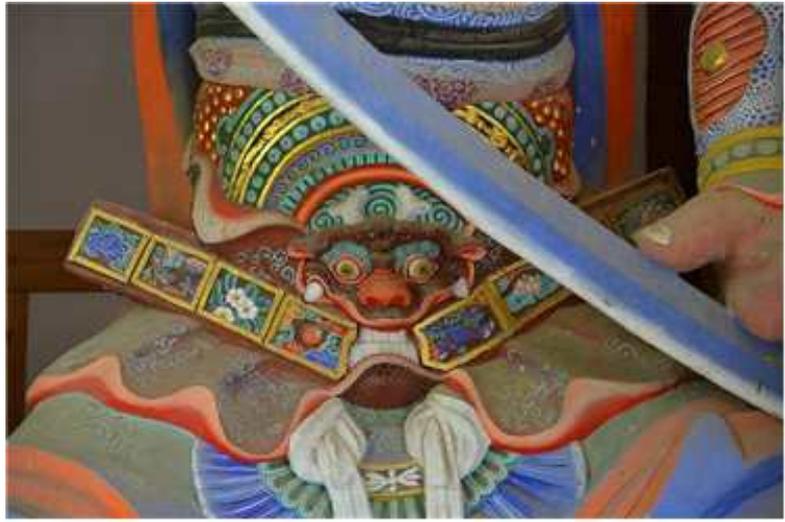


<도9. 북방다문천 악귀(왼발)>

어깨에는 긴 피건(被巾)을 걸치고 있는데 옆구리를 지나 허리 부분에서 한번 휘어 감긴 다음 뒤쪽으로 해서 바닥에 흘러내리는데, 악귀 뒤쪽에서 마무리 된다. 어떤 경우는 악귀들의 앞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비교적 짧게 마무리된 편이다. 다만 허리 쪽에서 마치 매듭지어질 것처럼 휘감기는 표현은 다른데서는 볼 수 없는데, 여기서 이처럼 감겼기 때문에 피건이 바닥에서 짧게 마무리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도10-1. 동방지국천왕>



<도10-2. 동방지국천 요대 세부>

동방지국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은 북방다문천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지만, 지물이나 채색, 표정, 악귀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북방다문천 좌측에 앉은 동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우선 보관이나 얼굴의 근육처리 등은 북방천왕과 같으나, 피부색이 조금 더 갈색이 돌며, 입모양은 윗니를 전체적으로 드러내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는 표정이다.[도10] 수염은 꼬불꼬불하게 말려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갑옷은 상체는 전반적으로 입체감 있는 금색의 돌기들로 채워졌으며, 흉갑 중앙에는 북방천왕처럼 금강저 장식이 금박으로 붙어있는데, 더 여러 개가 촘촘히 이어지고 있다. 칼을 든 오른손은 높이 치켜들고, 왼손은 낮춰 칼날 끝에 손가락을 대고 있다. 동방지국천의 지물인 칼은 일반적으로 휘지 않은 검(劍)인데 반해, 여기서는 날이 휘고 넓은 도(刀)의 형태인 것이 특이하다. 손잡이 끝은 금강저 형태로 마무리 되었다. 요대를 물고 있는 대구장식은 적색의 용이며 머리에 짧고 갈래가 있는 뿔이 돌아 있다.[도10] 또한 아래턱까지 묘사되어 있고, 심지어 윗니와 아랫니를 맞대어 입을 짝 다물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깨물고 있는 모습의 대구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동방천왕은 북방천왕처럼 여기에 동물가죽을 매달고 있는 것은 아닌데, 대신 그 아래로 흰 색의 띠 두 가닥이 늘어뜨려져서 아랫부분에서 길상적인 매듭을 맺고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천왕 발 아래의 악귀는 모두 상체는 벗고 아래에는 푸른색의 기장이 약간 짧은 바지를 입고 있다. 왼발을 받친 악귀는 북방천왕의 경우와 달리 매우 힘겹게 동방천왕의 발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도11] 그러면서도 자신이 쓴 모자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꼭 잡고 있는 것이 현실감 있게 표현되었다. 다른 악귀는 동방천왕의 오른발에 밟혀 배를 땅에 대고 누웠다.[도12] 머리에는 두건 같은 모자를 썼는데, 목덜미 쪽으로 햇빛 가리개 같은 천이 흘러내려 덮고 있다.



<도11. 동방지국천 악귀(왼발)>



<도12. 동방지국천 악귀(오른발)>

그 맞은편의 남방증장천왕도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한 모습이며, 흉갑의 표면이 소슬금문으로 장식되면서 어느 정도 입체감이 있게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도13] 다른 천왕의 경우는 소조는 평면으로 마감하고 채색으로만 문양을 넣은 것과는 다소 차이점이다. 요대를 물고 있는 대구는 황룡이며, 머리에 짧은 외뿔이 돋아나 있다. 요대의 마디는 청룡 등도 있지만, 대부분 화초문으로 장식되었다.



<도13. 남방증장천왕>



<도14. 남방증장천 악귀(왼발)>



<도15. 남방증장천 악귀(오른발)>

지물로는 왼손에 용을 들고 있는데 황룡이며, 팔뚝을 칭칭 감고 꼬리까지 바짝 치켜세운 모습이다. 여의주는 왼손의 엄지와 중지 끝으로 잡고 있는데, 여의주에 화염문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악귀는 왼발 아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천왕을 발을 어깨에 올리고 있는데 건너편의 악귀들이 노동할 때의 복식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붉은색 관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이빨 등 악귀로서의 특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도14] 오른발 아래의 악귀는 배를 땅에 대고 누웠는데 푸른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바지 형식이면서 상하의 구분이 잘 드러나지 않아 마치 점프슈트를 입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도15] 이 악귀도 얼굴 표현에서는 특별히 악귀라는 인상을 풍기지는 않는다.

서방광목천은 당과 탑을 들고 있는 전형적인 도상으로, 입을 벌려 고함을 치는 듯한 모습인데, 입안의 혀, 치아 등의 드러난 부분 묘사가 정밀하다.[도16]

지물로 든 당의 깃대는 대나무형이라 드문 사례에 속하고, 왼손에 들고 있는 보탑도 다른 사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이어서 주목된다.[도17] 마치 화순 운주사에서 볼 수 있는 이형석탑이 연상된다. 가슴에 묶은 흰 띠의 매듭도 정교하게 새긴 것이 특징이다.

요대를 물고 있는 용은 청룡이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아래턱까지 묘사되었는데, 윗입술 주변에는 뿔 같은 것이 돋아 있어 다른 세 천왕과 차이가 있다. 머리에 짧은 외뿔이 돋아나 있다. 이들 대구장식은 각 천왕이 제각각 개성을 지니고 있어서 조각가가 변화를 주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했음을 알 수 있다. 요대 장식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천왕마다 개성이 뚜렷한데, 서방천왕은 요대 오른쪽은 길상문으로, 왼쪽은 용, 청사자 등 신화속의 동물들을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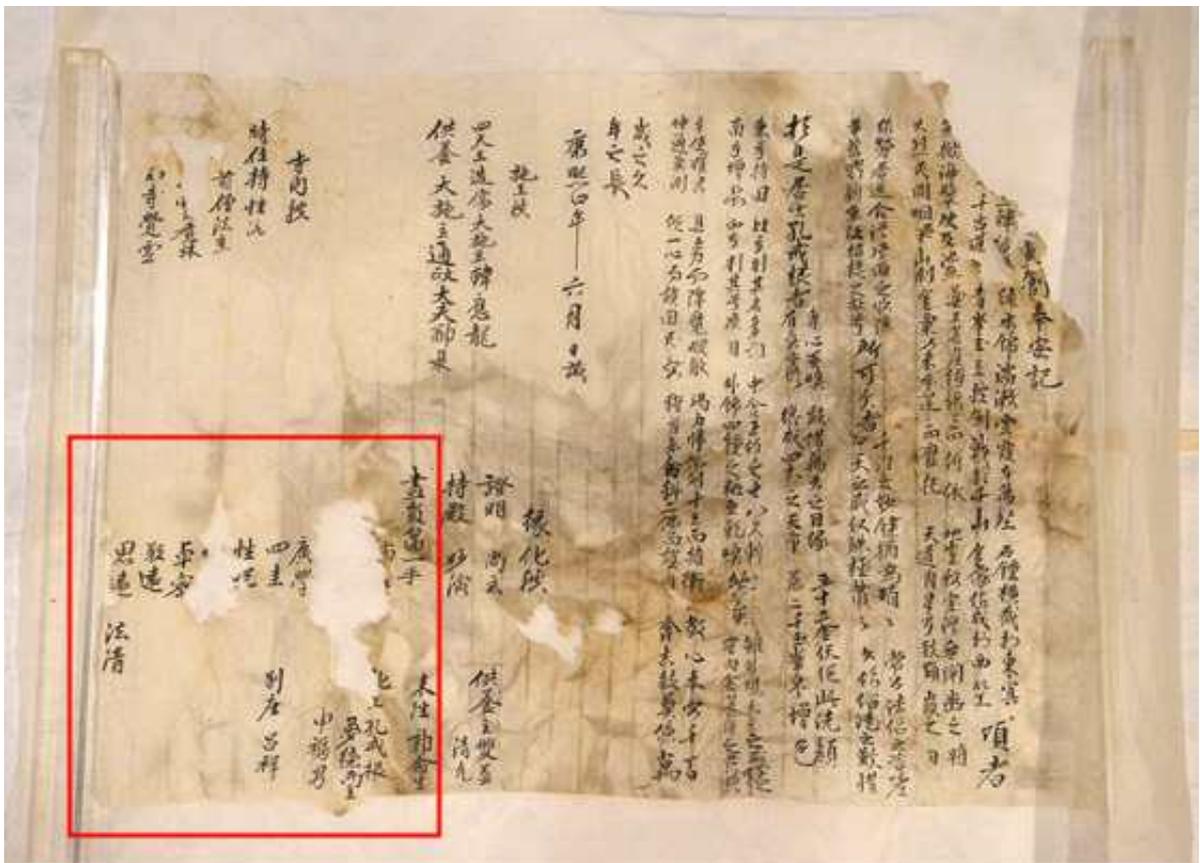
악귀는 왼발 아래에는 복두를 쓴 관리가 어깨에 천왕의 발을 올려놓은 모습인데, 이 역시 돌출된 이빨 등이 없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도18] 왼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조각했다. 오른발 아래에는 등을 땅에 대고 누운 푸른 옷을 입은 인물이 보이는데, 역시 삭발한 것으로 보아 승려행사를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던 악귀를 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도19] 사람이 쓰러져서 발버둥칠 때의 현실적인 모습을 조각으로 잘 포착했다.



<도16. 서방광목천왕> <도17. 서방광목천 보탑> <도18. 서방광목천 악귀> <도19. 서방광목천왕 악귀>

○ 문헌자료

서방광목천 북장에서 발원문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의하면 직지사 사천왕상은 1665년에 ‘畫員 第一手 端應 ○○ 廣學 四圭 性悅 ○○ 卓密 敬遠 思遠 法淸’ 등에 의해 조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다만 수화승의 이름 부분이 다소 박락이 되었지만, 서방천왕과 북방천왕 내부의 ‘全羅道全州府東終南山松廣寺居僧○畫員來造成之也’, ‘全羅全州松廣寺畫員乙巳年三月日塗作也’라는 목서를 단서로 수화승이 단응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단응은 목서의 송광사에 매우 인접한 위봉사 승려로 기록된 바 있으며, 이 무렵 경상도로 건너와 많은 작업을 남긴 점, 나아가 안동 봉황사 대좌에도 유사한 목서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하면 발원문의 남아있는 글자와 비교해 단응으로 추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 조사내용

김천 직지사는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에 소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이다. 직지사의 창건은 신라 눌지왕 때 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645년에는 자장율사가 중수하였으며, 조선 초인 1399년에는 정종의 태를 사찰 북봉에 안치하였다. 임진왜란 때 전각 43동 중 40동이 소실하였으며, 남은 건물은 천불전, 사천왕문, 자하문(일주문)정도였다고 한다. 전란 이후 1649년에 대웅전을 중창하고, 1665년 사천왕상을 흙으로 조성하였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규모가 452~470cm에 이르는 대형 소조상이다. 흙을 굽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소조상은 왜란과 호란 이후 전국 단위로 진행된 재건 불사 과정에서 선호된 재료였다.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다루기 용이하고 구하기 쉽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탁자에 앉은 의좌상으로 우선 통나무를 세워 몸통을 만들고 속을 파 복장을 납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몸통에 팔과 다리 같은 세부 신체는 껍쇠로 연결해 이어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새끼로 감았다. 다시 그 위에 흙을 여러 번 바르고 표면을 조각한 뒤 삼베로 배접하고 채색을 올려 마감하였다.

사천왕상의 바닥이 내려앉고 상 또한 여러 곳에서 균열과 탈락, 개체의 박락 등이 일어나 2014~2015년에 걸쳐 보존처리를 거쳤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사천왕상에 대한 복장조사와 내부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졌다. 복장조사는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 2013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천왕상의 내부에서 제작과 관련된 묵서와 복장 발원문을 비롯한 복장유물들이 수습되었다. 주목할 만한 묵서와 기록으로는 북방다문천왕 내부의 ‘全羅全州松廣寺畫員乙巳年三月日塗作也 良工化主洪溪根○ 別座呂尙比丘’와 백지묵서 ‘法華經第七卷 北方天王 贊益 辛巳’, 서방광목천왕 내부의 ‘全羅道全州府東終南山松廣寺 居僧人畫員來造成之也’와 백지묵서 ‘法華經第六卷 西方天王 贊益 辛巳’, 동방지국천왕의 ‘東方’ 등이다. 이 묵서명을 토대로 정리하면,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은 전라도 전주부 송광사에 거주하던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사천왕상을 제작하였다는 사실과 정확한 사천왕상의 방위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특정 사찰 또는 문중 중심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조각승의 체제를 보여주는 사례로서도 주목된다.

서방광목천왕에서는 사천왕문을 중창하면서 사천왕상을 조성한 중창봉안기가 남아 있다. 중창발원문에 의해 사천왕상은 1665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천왕상 조성에는 尙玄이 증명을 맡고, 조각은 端○, ○○, ○○, 光學, 性悅. 卓密, 敬遠, 思遠, 法淸이 했다. 수조각승 ‘端’字 다음이 결실되어 불분명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조각승들은 수조각승 단응과 주로 활동하던 단응파 조각승들이어서 ‘端’字

다음에 결실된 글자는 ‘應’로 추정된다.

서 당·탑	주불전 방향	북 비파
남 용·여의주	↑	동 보검

<표1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 배치도>

사천왕 4구는 대체로 머리에는 꽃잎형의 원통형 보관을 쓰고, 보관의 표현에는 화염, 구름, 龍鳳, 등의 장식관을 부착하였다. 머리에는 상투를 틀어 올렸으며 보발을 길게 닿아 어깨위로 드리웠다. 두 팔은 울동을 하듯 들거나 내려 지물을 취하고 있다. 목에는 스카프를 묶고, 어깨에는 용머리 장식이 있는 견갑을, 팔뚝에는 비갑을 착용하였다. 가슴에는 비늘로 이루어진 흉갑을, 복부에는 두 세 겹으로 요갑과 요의, 혁대 등으로 무장하였다. 하체에는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슬갑과 각반을 착용하였으며, 장화를 신었다. 복부에서 鬼面이 腰帶를 물고 있는 형상이인데, 북방다문천왕은 요대와 멧돼지모양의 獸皮를 동시에 물고 있다. 요대는 ‘V’자형으로 느슨하게 차고 있다. 요대의 마디마디마다 용, 사자, 말 등 다양한 瑞獸와 寶文을 새겨 넣었다. 신발은 발목부분에 국화꽃 무늬를 새겼고, 신발 코에는 파련문으로 장식했다.



<사천왕상의 얼굴(동방)>



<사천왕상의 세부(남방)>



<사천왕의 야차(남방, 인물형)>

각 천왕별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북방다문천왕의 비파의 현을 조임새 부분

에는 사자모양의 모양의 귀여운 장식을 덧붙였다. 비파의 뒷면에는 1960년대 수리기가 적혀있다. 양 발 아래에는 각각 악귀를 밟고 있거나 악귀가 다리를 받쳐 든 모습이다. 오른쪽 악귀는 밟혀서 머둥거리는 모습이고, 왼쪽 악귀는 동물의 탈을 쓰고 사천왕상을 받쳐 든 모습이다. 동방천왕은 외날의 장도를 지물로 채택하였다. 대부분의 동방지국천왕이 쌍날의 보검을 든 것과 구별된다.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왼손의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두 개를 펴서 칼등을 살포시 대고 있는 형상으로, 불화와 조각 등 동방지국천왕의 일반적인 칼을 잡는 법이다. 남방증장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쥐고 있다. 오른손으로 움켜쥔 용은 남방천왕의 팔뚝을 칭칭 감고 있으며, 왼손의 엄지와 중지로 여의주를 쥐고 있다. 북부의 鬼面이 매듭지어 길게 늘어뜨린 綏環을 물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서방광목천왕은 오른손으로 대나무로 만든 당을, 왼손으로 접시 위에 상륜부를 올려놓은 것 같은 탑을 받쳐 들었다. 오른발로 악귀의 배를 밟았고, 왼쪽에는 관모를 쓴 악귀가 다리를 받치고 있다. 전신을 휘감은 천의가 광배를 이루는 다른 사천왕상과 달리 어깨 뒤쪽에서 벽체와 연결되어 지지대 역할을 하며, 나머지 천의자락은 양어깨를 걸치고 차분히 드리웠다.

2014년 6월 26일부터~2015년 12월 21일까지 천왕문과 사천왕상에 대한 수리와 보존처리를 거쳐, 꺼진 마룻바닥을 바로잡고 손상된 사천왕상도 최대한 원형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사천왕상은 불에 살이 없어 주름지고 야윈 모습이다. 허리가 길고 세장한 전반적으로 깡마른 체형을 가진 세장한 형태미를 보여주는 사천왕이다. 이에 비해 손은 애기 손처럼 짧고 도톰하다. 이러한 신체 비례와 조형 감각은 마곡사 사천왕상이나 예천 용문사 사천왕상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조형감각으로, 端應 조각에서 살필 수 있는 특징이다.

○ 문헌자료

2013년 복장조사 시 4구의 사천왕상에서 모두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복장유물로는 표지를 제거된 상태로 납입한 경전류(『묘법연화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오가해』 하, 『제반문』, 『십지경론』, 『선종영가집』 권 상·하)와 「대불정수능신주다라니」 등이 발견되었다. 그 중 1665년 직지사예 간행한 『묘법연화경』은 사천왕상 제작에 맞춰 인출하여 납입한 것으로 판단된다.¹¹⁾

<중창봉안기>, 1665년, 종이, 43.0×56.8cm, 1매

願文: …重創奉安記」

11) 「묘법연화경」 권1 말미에 ‘康熙四年二月日慶尙道金山郡西黃巖山直指寺開板’이라는 간기를 통해 1665년 직지사예에서 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존상마다 권1의 낱장본만 다수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복장에 납입하기 위해 1권만 의도적으로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三韓福①綠水錦湍漱雲霞與萬壑 石鍾橫截於東冥

頃者」

…千古道①青峯玉立控劍戟於千山 金像作成於西竺

①掀海鬣殃及池魚 藥王菩薩獨悵 ” 而何依 地豈○宝○無闡幽之時」

火烈民閻烟飛山刹 金粟如來亦遑 ” 而靡托 天道周星乃致顯 微之日」

作勞居送合從風雨之攸除

千門之妙鍵猶爲瑣 ” 常爲法侶之咨嗟」

所可欠者

革舊鼎新重○招提之故号

四天之威儀殊極蕭 ” 久作緇徒之歎惜」

專心再煥 敢借萬天之因緣 五十三金佛從此洗顏」

於是居士孔戒根者」

有意重修 ○成四大之天帝 萬二千玉峯白今增色」

東方持國 北方則其名多門 中含五行之火八○斬

雖外現天王之威猛」

然矣

南方增長 西方則其号廣目 外飾四種之粧五彩煥

案內含菩薩之慈悲」

方便難思 具王力而降魔破敵 竭力歸依列十王而擁衛 敬心奉安千百」

神通莫測 傾一心而護國民安 稽首承合科二佛而護○ 齊志致奠億萬」

歲之久」

年之長」

康熙四年六月日識」

施主秩」

四天王造像大施主韓應龍」

供養大施主通政大夫鄭泉」

寺內秩」

時住持性沅」

首僧法熏」

①①覺林」

①寺覺虛」

緣化秩」

證明尙玄」

持殿妙演」

畫員第一手」

端①」

……

廣學」
 四圭」
 性悅」
 ㉠㉠」
 卓密」
 敬遠」
 思遠」 法清」

供養主 雙益」
 清允」
 來往 郭命生」
 化主 孔戒根」
 夢德兩主」
 申福男」
 別座 呂祥」

<사천왕상 내부목서>

동방지국천왕	東方
남방증장천왕	○子主西殿普一
서방광목천왕	全羅道全州府東終南山松廣寺 居僧人畫員來造成之也
북방다문천왕	全羅全州松廣寺畫員乙巳年三月日塗作也 良工化主洪戒根○ 別座呂尙比丘 <비파 중수목서, 1969년 경>, 1969년 사천왕문을 중수하면서 함께 사천왕상도 수리한 것으로 생각됨. 四天王佛事緣化秩」 時住持○○○」 總務○○○」 敎務○○現」 財務李愚明」 書記朴正圓」 畫員秩」 金魚 退○日燮」 李忠烈」 李承茂」 李元七」 李明烈」 吳鍾○」

<황악산직지사사천왕문중수상량문>, 1969년

黃岳山直指寺四天王門重修上樑文
 西紀壹阡九百六拾九年七月參日巳岨重修上樑
 萬代遺傳 香火不絕 大揚禪風
 伏願 上樑之後
 衆生共享 佛日增輝 法輪常傳
 第八教區 大本山 直指寺 山中大眾 秩

總領 住持比丘 吳影虛

總務 金石愚

教務 朴道現

財務 李愚明

書記 朴正圓

2단

朴和潭

禹晚悟

金法燈

李法日

柳法性

3단

金性眞

李樹煥

4단

都片手 李鍾春

石工 李秉在

木手 馬周鳳

木手 李일호

<직지사사천왕보결 및 개채불사>, 1989년

직지사사천왕보결 및 개채불사

서기일구팔십구년십월일

편수 김준웅」 부편수 이기만」 화원 김용진」 화원 김학성」 화공 이경남」 화공 이
찬환」 화공 정영재」 화공 강천수」 화원 김용상」 화원 김수곤」 화원 김종욱」 이
차 인연공덕 발원

○ 참고문헌

- 김천시·전아건설(주)·서진문화유산(주), 『김천 직지사 대응전 주변정비공사 수
리보고서(사천왕문 보수 및 사천왕상 보존처리)』, 2015.



○ 현 상

직지사 천왕문(天王門) 안에는 좌우 양측에 두 구, 도합 네 구의 천왕상이 홍살 내에 모셔져 있다(도1, 2). 이들은 전체 높이가 452~470cm에 이르는 초대형의 상으로 소조사천왕상 중에는 법주사 사천왕상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라 할 수 있다. 천왕문 입구에서 사찰 내부를 바라봤을 때, 향좌측에는 오른손에는 용 왼손에는 여의주를 낀 천왕, 그리고 오른손에는 보당(寶幢)을 쥐고 왼손바닥에는 탑을 든 천왕이 모셔져 있다. 향우측에는 오른손으로 칼을 낀 천왕과 양손에 비파(琵琶)를 든 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2013년 8월에 진행된 복장조사 및 정밀학술조사를 시행한 결과 많은 복장유물이 발견되어 사천왕상의 내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¹²⁾ 구체적으로는 사천왕상 내부에서 발견된 묵서명과 복장물 및 발원문 등을 통해 1665년이라는 제작연대와 조성 주체인 승려 장인, 그리고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방위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때의 복장 조사에서는 비파를 든 천왕과 칼을 든 천왕의 내부에서 새로 끼워 넣은 목재가 확인되어 과거의 보수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비파의 뒷면에는 근현대기에 활약했던 불모 일섭(日燮)스님(1900~1975)이 참여한 사천왕상 불사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서 20세기에도 보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2013년 조사에서는 사천왕상을 지탱하고 있던 마루가 서서히 꺼지면서 흠이 갈라지고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사천왕상을 비롯하여 봉안처인 천왕문의 재목을 교체하는 등의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12월에 천왕문의 보수가 완료되었다. 이때 사천왕상에도 새롭게 마련한 복장을 안치하고 점안식을 봉행하였다.

12)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불교문화재연구소, 『김천 직지사 천왕문 사천왕상 및 복장유물 조사 보고서』, 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참조.

13) “四天王佛事緣化秩/ 時住持 ㉠㉠㉠/ 總務 ㉠㉠㉠/ 教務 ㉠㉠現/ 財務 李㉠○/ 書記 朴○圓/ 書員秩/ 金魚 退㉠日燮/ 李忠烈/ 李承茂/ 李元七/ 李明烈/ 吳鍾煥”; 불교문화재연구소, 『김천 직지사 천왕문 사천왕상 및 복장유물 조사 보고서』(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p.13.



<도1. 직지사 천왕문 정면>



<도2. 직지사 천왕문 배면>



<도3. 직지사 천왕문 내 남방증장천왕과 서방광목천왕 배치 양상>



<도4. 직지사 천왕문 내 동방지국천왕과 북방다문천왕 배치 양상>

○ 내용 및 특징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은 네 구 모두 의자에 앉은 좌상이다. 네 상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몸은 전반적으로 세장한 편으로 다소 경직된 모습이다(도5, 6, 7, 8). 허리가 길고 다리를 좁게 벌리고 앉아 있어서 위아래로 길쭉한데, 이와 같은 신체의 표현은 뒤에 서술할 재료 및 제작기법과 직결된다. 또한, 이와 같은 신체 표현 방식은 1666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남도 고흥 능가사의 목조사천왕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세장한 신체와 대조적으로 얼굴은 가로가 긴 방형이다. 사천왕은 머리에 화염과 꽃으로 장식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관은 높고 큰 데 반해, 관대는 작고 소박하다.



<도5. 직지사 남방증장천왕>



<도6. 직지사 서방광목천왕>



<도7. 직지사 동방지국천왕>



<도8. 직지사 북방다문천왕>

몸에는 평상복을 걸치고 갑옷을 입었으며, 하체에는 군의를 입은 위에 천의를 들렀는데 양 무릎을 따라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있다. 목에는 스카프를 들렀다. 어깨에 걸친 갑옷 아래로는 옷자락이 빠져나왔는데 바람을 받아 부푼 것처럼 위로 치솟은 모습이다. 이 옷자락 부분과 어깨 뒤로 훑날리는 천의 자락은 천왕문의 부재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천왕문 자체가 사천왕상의 지지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도9, 10). 또한, 칼의 권 천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들어 올린 오른팔의 경우 와이어를 통해 천왕문에 연결하여 지지력을 보강하였다(도10). 각 천왕의 발 밑에는 악귀들이 2구씩 배치되어 있다. 악귀들은 천왕의 발밑에 깔려 있거나 천왕의 발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도9. 직지사 북방다문천왕상 우측 팔>



<도10. 직지사 서방광목천왕상 배면>



<도11. 직지사 북방다문천왕상 복장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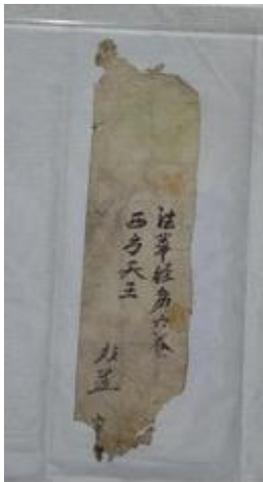


<도12. 직지사 북방다문천왕상 복장공 끝 목구멍과 머리 부분의 연결 부위>

직지사 사천왕상은 나무를 심목으로 삼고 그 위에 흙을 붙여 성형한 소조 불상이다. 중간 부분에는 쇠못으로 결구한 흔적도 여러 찾아볼 수 있다. 사천왕이 앉은 의자는 4개의 나무 기둥으로 열개를 짜고 기둥 각각의 사이는 판재로 마감하였다. 내부에서 보면 기둥 위에 마치 보처럼 목재를 가로로 놓아 사방으로 결구하였다(도11). 의자 상판의 중앙에 통나무를 높게 올려 형태를 잡았다. 의자의 상판 아랫부분은 나무로 마감하였는데, 이 나무를 떼어내면 천왕의 몸 안으로 이어진다. 이 통나무를 심목으로 삼아 짚 등을 섞어 보강한 진흙을 붙여 사천왕의 형상을 만들었다. 심목인 통나무의 두께를 최대한 활용함에 따라 사천왕의 허리 부분이 균일한 두께로 길쭉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심목으로 삼은 통나무는 높이 약 400cm 내외의 깊이로 파여 있으며 그 안에 복장물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도12).

2013년의 조사에서는 네 구의 상 중 탑을 든 천왕상에서만 온전한 형태의 복장물이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천왕상의 복장은 이미 교란된 상태였다. 먼저 탑을 든 천왕에서 발견된 주요 복장물부터 살펴보면, 그 내부에서는 ‘法華經第六卷 西方天王

贊益 辛巳'라고 쓰여 있는 29.0×7.7cm 크기의 한지가 발견되었다(도13). 비파를 든 천왕의 내부에서는 '法華經第七卷 北方天王 贊益 辛巳'라는 목서가 있는 34.8×7.1cm 크기의 종이가 발견되었다(도14). 즉, 이 목서는 비파가 북방천왕의 지물인 것을 알려준다. 이는 2004년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의 해체 보수 시에 발견된 목서명을 잇는 중요한 발견이다. 당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중 비파를 든 천왕의 복장 봉합목에서 '北'이라는 목서가 발견되어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방위 해석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바 있다.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중 칼을 든 천왕의 몸 안쪽에서 '東方'이란 목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선후기 17세기 후반에는 서방, 북방, 동방천왕의 지물이 각각 탑, 비파, 칼로 성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명확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용과 여의주는 자연히 남방증장천왕의 지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도13. 서방광목천왕 복장 발견 목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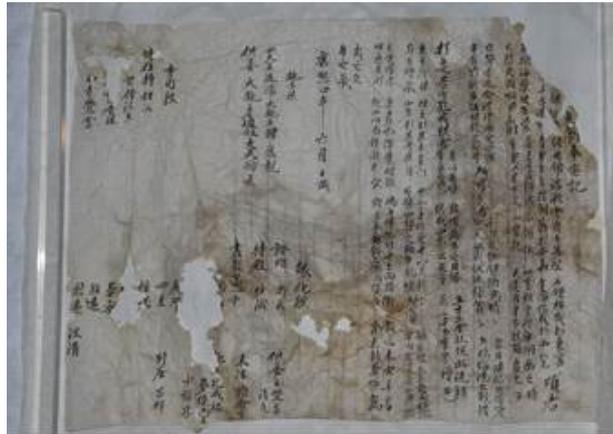
<도14. 북방다문천왕 복장 발견 목서지>

서방광목천상 안에서는 일부 파손되기는 하였지만 '…重創奉安記'로 시작되어 '康熙四年六月日識…' 등의 내용을 43.0×56.8cm 크기의 종이에 적은 원문(願文)이 발견되었다(도15). 원문의 후반부에 '…畫員第一手/ …廣學/ 四圭/ 性悅/ 卓密/ 敬遠/ 思遠/ 法清'이란 화원의 이름이 확인되었다.¹⁴⁾ 비록 손상이 있기는 하나 수화승의 첫 번째 글자의 우변으로 판단해 볼 때 단응(端應)으로 유추되며,¹⁵⁾ 대략

14) “…重創奉安記/ …三韓福○/ …千古道○/ 綠水錦湍漱雲霞與萬壑/ 青峯玉立控劍戟於千山/ 石鍾橫截於東冥/ 金像作成於西竺/ 頃者/ ○掀海鬣映及池魚/ 火烈民閻烟飛山刹/ 藥王菩薩獨悵” 而何依/ 金粟如來亦遑” 而靡托/ 地豈○宝○無闡幽之時/ 天道周星乃致顯微之日/ 作勞居送合從風雨之攸除/ 革舊鼎新重○招提之故号/ 所可欠者/ 千門之妙鍵猶爲瑣” / 四天之感儀殊極蕭” / 常爲法侶之咨嗟/ 久作緇徒之歎惜/ 於是居士孔戒根者/ 專心再煥/ 有意重修/ 敢借萬天之因緣/ ○成四大之天帝/ 五十三金佛從此洗顏/ 萬二千玉峯白今增色/ 東方持國/ 南方增長/ 北方則其名多門/ 西方則其号廣目/ 中含五行之火八○斬/ 外飾四種之粧五彩煥/ 然矣/ 雖外現天王之威猛/ 案內含菩薩之慈悲/ 方便難思/ 神通莫測/ 具王力而降魔破敵/ 傾一心而護國民安/ 竭力歸依列十王而擁衛/ 稽首承合科二佛而護○/ 敬心奉安千百/ 齊志致奠億萬/ 歲之久/ 年之長/ 康熙四年六月日識/ 施主秩/ 四天王造像大施主韓應龍/ 供養大施主通政大夫鄭泉/ 寺內秩/ 時住持性沉/ 首僧法熏/ ○○覺林/ ○寺覺虛/ 緣化秩/ 證明尙玄/ 持殿妙演/ 畫員第一手/ ○○/ ……廣學/ 四圭/ 性悅/ ○○/ 卓密/ 敬遠/ 思遠/ 法清/ 供養主雙益/ 清允/ 來往郭命生/ 化主孔戒根/ 夢德兩主/ 申福男/ 別座呂…祥”(밑줄 필자).

15)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p.136; Youngae Lim, “Four Heavenly Kings of Jikjisa Temple(1665) and Their Significance,” *Korea Journal* 57, no.2 (2017), pp.137~

10명 내지 11명 정도가 참여한 불사로 판단된다. 단응은 고승 소영 신경(昭影 神鏡)의 문인으로 전북 완주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초까지 50여 년에 걸쳐 활약한 조각승이다.¹⁶⁾ 원문의 중간 부분에 등장하는 성열(性悅)은 1628년 응원(應元)과 함께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보물), 1650년에는 혜희와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 대장전 <불상> 제작에 참여한 승려 장인이다. 화원질에 7번째로 기재된 탁밀(卓密)과 마지막에 기재된 법청(法淸)은 1684년에 예천 용문사 목각설법상을 단응과 함께 제작한 조각승들이다.



<도15. 직지사 서방광목천왕상 복장 발견 「중창봉안기」>

당시 불사에 참여한 승장들에 대해서는 서방천왕상과 북방천왕상의 내부에 목서가 있어 더 확인할 수 있다. 서방천왕상 복장공 안에는 ‘전라도 전주부 동쪽 중남산의 송광사에 거주하는 승려 화원들이 와서 이를 만들었다’라는 목서가 있고,¹⁷⁾ 북방천왕상의 복장공 안에서는 ‘전라도 전주의 송광사 화원들이 을사년 3월에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목서가 발견되었다.¹⁸⁾ 이에 의거할 때, 당시 단응은 전라도 완주 송광사에 근거를 두고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종합하면,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은 17세기 후반에 호남의 승려 장인들이 영남지역으로 진출해 불상을 제작한 양상을 알려주고 있어서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

○ 참고문헌

- 불교문화재연구소, 『김천 직지사 천왕문 사천왕상 및 복장유물 조사 보고서』, 2013.
-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138.

16) 단응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조. 이민형, 「17세기 후반의 彫刻僧 端應의 불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8(2013); 허형욱, 「조선 후기 조각승 端應의 造像 活動과 性格에 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32(2022).

17) “全羅道全州府東終南山松廣寺居僧人畫員來造成之也.”

18) “全羅全州松廣寺畫員乙巳年三月日塗作也.”

19)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p.p137~139; Youngae Lim, “Four Heavenly Kings of Jikjisa Temple(1665) and Their Significance,” *Korea Journal* 57, no.2 (2017), pp.138~139.

- 안귀숙·최선일, 『조선후기승장 인명사전-불교조소』, 양사재, 2007.
- 이민형, 「17세기 후반의 彫刻僧 端應의 불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8, 2013.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 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 허형욱, 「조선후기 조각승 端應의 造像 活動과 性格에 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32, 2022.
- Youngae Lim, “Four Heavenly Kings of Jikjisa Temple(1665) and Their Significance,” Korea Journal 57, no.2, 2017.

5.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高興 楞伽寺 木造四天王像)

가. 심의사항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5.30./'23.1.2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9.7.~'23.10.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2000.6.20. 지정)
- 명 칭 :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高興 楞伽寺 木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사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팔봉길 21, 능가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4.4m
- 재 질 : 목조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66년 경)
- 제작자 : 미상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능가사 사천왕상은 정면향의 자세에 길쭉하고 늘씬한 독특한 비율이 특징으로 새로운 조형성을 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꽃는 장식이 없이 문양을 그린 원통형의 보관, 장방형으로 긴 얼굴 형태와 신체 비례는 같은 시기의 다른 사천왕상과 구별되며, 정면을 응시하는 무표정한 얼굴에 큼지막한 메부리 코 등도 독특하다.

사천왕과 관련된 기록은 1995년 천왕문 해체 복원 시 발견된 상량문(1666년, 1824년 중창), 사적비(1690년 비문), 복장발원문 등이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은 1666년 조성된 천왕문과 함께 제작되었고 1824년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만 남아 있어 완전하지는 않으나 상량문에 나오는 승려는 동방지국천왕에서 나온 발원문에 나오는 ‘禪德 信璨’과도 일치하는 점에서 정확성을 보인다. 즉, 1666년 상량문에 있는 ‘大清康熙五年丙午四月吉日初朔都監兼 信讚’의 초창도감 신찬과 같은 승려로 추정된다.

능가사 사천왕상은 대웅전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오른쪽에는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비파를 든 북방천왕이 있으며 그 반대쪽으로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보당과 탑을 든 서방광목천왕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즉, 지물에 따른 도상을 참고해 보면, 오른쪽에 동방과 북방, 왼쪽에는 서방과 남방천왕의 순서로 일반적인 사천왕 배치와는 다르다. 비슷한 유형이 수타사 사천왕상에도 나타나는데 동-남-서-북방의 순서로 능가사 사천왕의 구성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별성과 그 배경에 대한 내용과 의미는 앞으로 의례 및 의식을 포함하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은 소조사천왕에서 목조상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이며 개성적인 비례, 곧은 자세에 정면을 향한 무표정한 얼굴 표정, 단순하고

평면적인 보관이 특징이다. 또한 천왕문 중도리에서 발견된 상량문을 통해 1666년과 1824년의 중수기록이 확인된 점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고흥 능가사 사천왕상은 대형의 조각상이면서도 목조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같은 목조이지만 불갑사 천왕상의 경우는 소조상의 조형감과 큰 차이가 없이 표현되었으나, 능가사 천왕상은 이러한 상들에 비해 다소 투박한 감이 없지 않으나, 목조만의 독특한 조형성을 보이고 있어서 화엄사 계통의 전형적인 소조상 계통과 전혀 다른 사천왕 양식 계보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능가사 사천왕상은 목조의 특성에 맞게 자세가 다소 경직된 모습이며, 신체 특히 상체가 과장되게 긴 비례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비례가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이나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의 비례와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목조상이 소조상에 영향을 준 것인지 혹은 소조상이 목조상에 영향을 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양식이 단지 목조이기 때문에 나타난 양식이 아니라는 점은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천왕의 배치 또한 능가사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왕문의 실제적인 좌향과는 무관하게 천왕상의 배치는 천왕문이 남향하고 있을 때의 상황에 준하여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흥천 수타사와 더불어 고흥 능가사는 실제의 좌향을 의식하여 네 천왕을 배치한 특이한 사례에 속하며, 이에 대해 연구하면 전통문화에서의 방위개념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능가사 사천왕은 배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방위개념에서 보았을 때 동방지국천왕과 서방광목천왕이 위치가 뒤바뀌어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것이 방위를 바꿔 봉안한 것인지, 아니면 도상을 바꿔 봉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현재 남방천왕을 제외하면 모두 1구씩의 악귀만 남아있다. 그러나 원래는 다른 사례에서처럼 양쪽 발 아래에 모두 악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악귀들 중에서 입이 새부리처럼 생기고, 손과 발도 새의 발처럼 생긴 악귀가 주목된다. 이는 드물게 보이는 유형의 악귀로서 한국의 도깨비 도상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악귀 중에 귀 뒤쪽으로 불꽃 같은 것이 깃털처럼 달려있는 도상 역시 시왕도 등의 옥졸 표현에서 보이는 모습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능가사 사천왕상은 소조사천왕상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사 사천왕상 계통의 사천왕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계통의 양식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목조사천왕상 작품이며, 특히 이러한 유형의 소조사천왕상도 현존하고 있어 재료와 양식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또한 천왕 발 아래의 악귀 도상들 중 반인반조의 모습이나 귀 뒤에 별도의 머리카락이 불꽃이나 뿔처럼 자라고 있는 점은 드문 도상으로서 한국의 악귀, 나아가 도깨비 도상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동방지국천왕에서 발견된 복장기와 사천왕문 상량문을 통해 이 사천왕상은 1666년에 제작된 사천왕상으로 판단된다. 복장기에는 아쉽게도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참여자 명단에 경림, 행탄 등 17세기 후반 운혜와 색난의 문하에서 크게 활약했던 조각승들의 이름이 다수 확인된다. 사천왕상에 보이는 전체적인 표현감과 조형감각은 1667년 운혜가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화순 쌍봉사 지장시왕상 등의 명부 장군상과 비교되므로, 이 사천왕상도 운혜 유파의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과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의 17세기 후반기 첫 작품이라는 데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사천왕이며, 이 이후로 전남 지역에서 사천왕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 사천왕상의 차지하는 조각사적 의의가 크다.

17세기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몇 안 되는 사천왕상으로, 17세기 후반기 사천왕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능가사 사천왕상은 제작시기를 비교적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는 상으로서 일차적인 중요성이 있다. 또한, 능가사 사천왕상은 다른 사찰에 봉안된 동시기의 사천왕상의 규모를 뛰어넘는 450cm 장대한 크기여서 주목된다. 천왕문에 사천왕을 배치한 방향, 천왕이 들고 있는 지물, 보관 등에서 같은 시기 제작된 사천왕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조각승의 정체와 도상적 전거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기대되는 상이기도 하다. 천왕문의 건립과 중건연대, 그리고 사천왕상의 조성연대가 밝혀진 상으로서 연대를 알 수 없는 여타의 조선후기 사천왕상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지대하여, 따라서 보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내 력

높이 5.1m에 귀부 위에 서 있는 <능가사사적비(楞伽寺事蹟碑)>(1690년 비문 작성, 1750년 건립)에 의하면, 능가사의 원 이름은 보현사(普賢寺)이며 임진왜란 때 절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이후 벽천 정현대사(碧川 正玄大師)에 의해 1644년(인조 22)에 재건되면서 능가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재건 과정에서 천왕문과 사천왕상이 제작되었다.

사찰 입구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천왕문이 위치해 있다. 사천왕은 소의경전인 <금광명경>, <경륜이상>에 따라 동, 남, 서, 북방에 있는 4구의 천왕이다. 사천왕은 입구 오른쪽에서 시계방향으로 비파(북), 칼(동), 용과 여의주(남), 보당과 탑(서)을 든 사천왕의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사천왕상에서는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이는 1999년 8월 3일 태풍으로 인해 처음 조사되었는데 당시 복장 개봉 후 송광사성보박물관으로 이운하여 현재 송광사성보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대부분의 복장물은 이미 도난되었고 경전 일부와 진언다라니 판본, 후령통 2개, 복장기, 비단 1점 등만 남아 있는 정도이다. 이후 2004년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재 후령통은 북방, 남방, 동방에서 발견되었으며 동방지국천왕에서 발원문(43×10cm, 21×535cm)이 발견되었다.

사천왕상과 관련된 기록은 1995년 천왕문 해체 복원 시 발견된 <고흥 팔령산 능가사 천왕문 상량문>에 창건과 중수기록 2건이 확인된다(도1).

1. 大清康熙五年 丙午 四月吉日初朔都監兼 信讚(1666년)
2. 大清道光四年 甲申重朔都監秋坡當養初(1824년)

이 두 건의 상량문을 통해 1666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초창도감(初朔都監)은 신찬(信讚)인데, 동방지국천왕에서 나온 발원문(복장기)에도 선덕(禪德) 신찬(信璨)이 있어 같은 승려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의거하여 사천왕상도 1666년 경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824년에 중창되었음도 확인된다.

이외에도 <능가사 사적비>에는 ‘天王門化主是閑別座懷益王像化主天一冲印’이라 적혀 있으며, 천왕문 조성 시 참여한 소임비구들의 이름이 확인된다. 마지막 중창은 소화 11년(1936) 병오의 상량문으로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중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大清康熙五年丙午四月吉日初册都監兼 信讚(1666년) 大清道光四年甲申重册都監秋坡當養初(1824년)
<도1. 고흥 능가사 천왕문 중도리 상량문>

○ 현상 및 특징

능가사 천왕문(도2)에는 문 좌우측으로 각 두 구씩의 천왕이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이다. 나무를 접목하여 만든 목조사천왕이다.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신체 비례에 마르고 길쭉한 불신이 특징이다. 측면에서 보면 더욱 가늘고 납작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진다. 얼굴은 정면을 응시한 위로 추켜올라간 큰 눈과 눈매, 뭉툭한 큰 코, 목에 힘을 준 주름, 단순한 원통형의 형태에 꽃과 구름으로 장식한 보관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비파를 직접 연주하는 듯한 손가락 놀림 등 세부적인 표현도 특징이다.



<도2. 능가사 천왕문>

사천왕은 각각 특징 있는 지물을 들고 있다.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보당과 탑을 든 서방광목천왕이다.

그러나 위치는 일반적인 사천왕의 배치와 다르다(도3). 대웅전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오른쪽에는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비파를 든 북방천왕이 있으며 그 반대쪽으로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보당과 탑을 든 서방천왕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크기는 높이 4.5m 정도로 매우 장대한 규격이다.



북방다문천왕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도3.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4구의 사천왕 모두 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있으며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에 머리에는 원통형의 나무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보관을 쓰고 있다. 얼굴은 옆이 좁고 위아래로 긴 길쭉한 장방형이며 평상복 위에 갑옷을 입고 하체에는 군의를 입었으며 그 위에 천의를 둘렀다. 천의는 각 사천왕이 조금씩 다른데 머리 뒤에서

등글게 말아 그 위로 화염문을 조각하여 마치 광배 같은 효과를 냈다. 그리고 양 어깨를 걸쳐 허리에서 한번 묶거나 또는 양 측면으로 길게 늘어뜨려 바닥까지 길게 닿아 있다. 광배와 같은 천의는 뒷면의 벽과 나무로 연결하여 지지대를 만들어 고정하였으며, 앉아 있는 의자와 천왕상 역시 못으로 연결하여 안정감 있게 처리하였다. 가슴과 허리, 팔뚝, 정강이에는 흉갑과 상갑, 허리띠나 벨트를 착용하고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다. 소매부리는 말아 아래에 생긴 끝단을 묶었는데 전체가 위로 치솟거나 말아 올려져 역동감을 자아낸다.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천왕은 허리에 수피를 매달아 무서우면서도 입체적인 모습으로 차별화하였다. 천왕상들은 모두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이며 발 아래에는 각 2구씩의 악귀들이 각기 다른 자세로 발을 받치거나 바닥에 누워 있다. 악귀는 야차 또는 생령좌라고 부르며 한 발은 악귀를 밟고 다른 쪽 발은 반정도 구부려 악귀가 들고 있는 자세가 일반적이다.



○ 현 상

고흥 능가사 사천왕상은 1666년에 세워지고 1824년과 1931년 중건 기록이 있는 천왕문에 봉안되어 있다.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익공식 건축인데, 특이하게도 능가사의 좌향에 따라 북향을 하고 있다.[도1] 이러한 특징 때문인지 능가사 천왕문의 천왕상 배치는 다른 사찰의 천왕문과 배치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남쪽에서 진입하거나 혹은 방향이 다소 틀어지더라도 남쪽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천왕상을 배치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볼 때 오른쪽 가까이에 동방, 안쪽에 북방, 왼쪽 가까이에 남방, 안쪽에 서방천왕이 배치되므로, 북방+동방, 서방+남방천왕이 짝을 지어 좌우에 배치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능가사는 북쪽에서 진입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되, 오른쪽 가까이에 북방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은 조선시대 천왕문 도상의 일반적인 규칙인 비파를 든 천왕을 북방천왕으로 가정했을 때의 상황이다. 여기서 북방천왕의 옆에는 원래 서방천왕, 즉 당과 탑을 든 천왕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는 칼을 든 천왕이 배치되어 있다.[도2] 조선시대 천왕문 도상에서는 칼을 든 천왕은 동방지국천을 의미하기 때문에 능가사에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방천왕의 맞은편은 동방에 해당하여 원래 여기에 칼을 든 천왕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능가사에서는 당·탑을 든 서방광목천 도상의 천왕이 동방천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도3] 대각선 방향은 남방에 해당하며 실제로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천왕 도상에 따른 천왕이 배치되었다. 결국 동방과 서방천왕의

위치가 반대로 자리잡은 상황인 셈이다. 능가사 천왕상의 제작자들이 두 천왕의 도상을 바꿔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에서 동·서의 방위를 뒤집어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혹 사찰이 북향한 것의 풍수지리적 단점을 동서의 방향을 뒤집어 표현하는 것으로 보완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동·서 천왕의 도상이 바뀐 것으로 가정하고 작성하도록 하겠다.



<도1. 고흥 능가사의 북향한 천왕문>



<도2. 능가사 사천왕 배치(서쪽의 서방 및 북방)> <도3. 능가사 사천왕 배치(동쪽의 동방 및 남방)>

우선 북방천왕은 진입시점에서 보자면 우측 가까운 위치에 서있으며, 비파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을 따랐다.[도4] 착용한 보관은 다른 장식은 전혀 붙어있지 않고, 채색으로만 꾸며져 있다.[도5] 보관의 관대는 앞뒤의 가운데 부분이 삼각형으로 솟았는데, 앞부분이 뒤에 비해 더 높고 더 넓은 단순한 형태로서 보살상의 보관의 형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보관의 정면에는 청룡의 얼굴이 정면향으로 그려졌으며, 그 앞의 양옆으로 연꽃줄기가 나와 꽃을 피우고 있다. 또한 마치 용의 귀 부분에서도 연꽃이 솟아나오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용의 앞에서 나온 연꽃은 도식적으로 표현되었지만, 귀에서 나온 연꽃은 비교적 사실적

인 화풍으로 그려졌다. 용의 머리 위에는 연꽃을 위에서 본 연판문이 그려졌고, 용의 좌우에도 연판문이 그려졌으며, 그 사이에 여의두문이 표현되었다. 보관이 원래 이렇게 채색만 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꽃이나 구름 문양 장식이 붙어있었는데 유실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보관의 군데군데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면 원래는 다른 사찰의 천왕상들처럼 입체적인 장엄이 붙어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단은 두 줄의 용기문 띠가 금색으로 둘러지고, 그 사이에는 연주문으로 꾸몄다. 또한 관대의 좌우 뒤편으로는 철심을 달고 그 끝에 주황색으로 채색된 띠가 매듭지워진 후 흘러내리고 있다. 다만 이 띠는 완전히 측면을 향하고 있어서 정면에서는 매듭진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보관 아래로는 타래진 머리카락이 발제선을 따라 표현되었는데, 작고 촘촘하게 표현되었으며, 다른 경우는 보살상처럼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으며 뒤러 넘어갔다가 어깨로 늘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되어 단순한 형태를 보인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보관에서 흘러내린 띠가 측면으로 걸리고, 어깨로 보발이 늘어뜨려지지 않는 이유는 어깨에 걸친 피건이 위로 솟구치면서 광배처럼 천왕의 뒤를 에워싸고 있는데, 보통은 이 피건이 뒤로 충분히 넘어간 다음에 위로 솟아서 어깨의 피건 위에 보발이 늘어뜨려지고, 또 보관의 띠도 피건 앞부분에서 펼쳐지게 되지만, 여기서는 어깨에서 곧바로 피건이 솟아올라있기 때문에 보발이 늘어뜨려질 자리도, 보관의 띠가 옆으로 펼쳐질 자리도 없게 된 것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 왜 이처럼 피건이 어깨에서 바로 위로 솟구치게 되었는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원래는 어깨 뒤로 충분히 넘어간 다음 위로 솟은 방식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예를 들어 천왕문이 축소되면서 피건이 뒤로 넘어갈 공간이 없어지는 등의 변화가 있어서 피건을 앞으로 세우는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천왕의 뒤로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 피건 뒤에는 이를 받치기 위한 소매자락이 굵게 조각되어 있어서 피건의 각도가 변형되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가능성은 원래의 천왕문이 협소해서 어쩔 수 없이 피건을 뒤로 넘길 공간이 없어 어깨에서 곧바로 세웠으나, 추후 천왕문을 수리하면서 규모를 확장하여 지금처럼 천왕 뒤편에 공간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라면 지금의 천왕의 모습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도4. 북방다문천>

<도5. 북방다문천 두부 세부 >

<도6. 북방다문천 상체 및 비파>

천왕의 얼굴은 방형에 가까우며 또한 위아래로 긴 형태이다. 이마에는 두 줄의 주름이 새겨졌고, 미간에는 다른 사찰의 천왕의 경우는 양쪽 눈썹을 이어주는 V자형의 돋을새김의 주름이 표현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서는 한 줄의 세로선만 표현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모습을 간략히 표현했다. 대신 콧등에 3단의 주름을 강조한 것은 다른 천왕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능가사 천왕상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눈 아래를 유독 깊이 파고 눈의 아래 윤곽선을 따라 주름도 새겨서 두 눈이 마치 튀어나올 듯 두드러지게 보인다. 또한 천왕문의 천왕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돌려서 천왕문으로 진입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능가사 천왕문에서는 천왕들이 서로 맞은편 천왕을 바라보는 것처럼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눈썹과 수염은 흰색으로 채색하여 다소 나이든 모습이지만 목의 힘줄이 잔뜩 일어난 모습을 보면 근육질의 탄탄한 몸을 지닌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입술은 약간 벌리고 있어 입안의 치아가 약간 보이는데, 마치 누군가를 위협하는 듯한 표정으로 읽힌다.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으며, 상체 갑옷은 금빛의 소슬금문이 전체적으로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다. 지물로는 비파를 들고 있는데 다른 사찰의 북방다문천에 비해 손을 높이 들어서 비파를 들고 있어서 상체의 가슴부분이 비파에 의해 많이 가려지고 있다.[도6] 다른 시각에서 보면 능가사 천왕들은 대체로 상체가 길고, 그에 비해 팔은 짧은 편이다. 심지어 상박이 짧기 때문인지 어깨를 가리는 견갑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팔이 짧고 상체는 길다보니 마치 비파를 높게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견갑은 걸치지 않았지만 다른 사찰의 천왕들처럼 상박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듯 위로 솟구쳐 있는 모습은

동일하게 표현되었는데, 다른 사찰에서는 양쪽 소매가 모두 휘날리고 있는 것과 달리 능가사 천왕상은 칼을 든 천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쪽 소매만 위로 솟구쳐 있고 반대쪽 팔의 소매는 아래로 쳐져 있는 점이 다르다. 비파에는 공명통이 그려지지 않았고, 단지 상판의 나무결이 강조되어 그려졌으며, 지판 끝의 목이 꺾인 당비파를 들고 있다. 비파를 연주하는 손은 손가락 마디의 주름, 손톱의 세부적인 묘사 등에서 조각가가 세심하게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허리에 두른 요대의 버클인 대구(帶鉤)는 푸른색의 용면(龍眠)이며, 요대의 각 마디는 꽃, 용면, 봉황 등으로 꾸며졌다. 일반적으로 이 용면의 아래턱에 고리 등이 물려있어 동물가족이나 끈 장식이 아래로 늘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런 장식이 생략되었다.

하체의 허벅지를 덮은 군갑은 허리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에 덮여 많이 가려있을 뿐 아니라 흉갑에 새겨진 소슬금문 같은 문양이 없이 단순하게 붉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어 마치 하체에는 갑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도7] 그러나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바지나 군의가 아니라 허벅지 앞부분을 어떤 것이 덮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군갑을 걸친 것을 알 수 있다.[도8] 아마도 개채하면서 이 부분을 단순한 군의로 알고 갑옷장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갑 아래로 흘러내린 군의자락이 반전되면서 군갑의 하단을 덮고 있으며, 측면으로 흘러 바닥까지 늘어져 있다. 군의 아래로는 바지를 착용하였는데, 무릎 아래에서 붉은 색 끈으로 한번 묶여 있다. 그 아래 정강이 부분에는 슬갑을 착용한 것이 보인다. 신발은 발등에 줄기 옆에 잎사귀가 달린 듯한 문양이 표현되고, 신발 전체에는 연꽃의 자방처럼 둥근 점을 중심으로 주변에 5점의 연주문이 둥글게 에워싼 문양이 반복적으로 채워졌는데, 이 연주문 동심원은 바깥으로 갈수록 점의 크기가 작게 표현되었다. 일부는 중첩되면서 아래로 들어간 문양은 가려져 있는 것도 보인다.

어깨에 걸친 피건은 아래로는 들어져 바닥에 펼쳐져 있는데 오른쪽 끝단은 길게 이어져 천왕 아래의 악귀를 뒤에서 감싸듯 길게 늘어지고, 왼쪽으로 늘어진 끝단은 측면으로 군의가 흘러내린 정도까지만 이어지다 끝난다. 이처럼 좌우가 다른 길이로 흘러내린 것도 다소 특이하다. 다만 왼쪽 피건 자락은 바닥에 닿은 다음 균열이 보이고, 여기서 다시 짧게 연장이 되어 있는데, 혹시 중간에 한번 끝자락이 부러져서 이후 짧게나마 다시 연장하여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피건의 상단은 천왕의 머리 위로 높게 휘날리고 있는데, 그 끝 테두리에 불꽃무늬가 붙어서 마치 광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도7. 북방다문천>

<도8. 북방다문천 우측면>

<도9. 북방다문천>

천왕 발 아래의 악귀는 오른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 1구만 보인다.[도9] 다른 천왕들도 모두 1구만 남아있는데, 다만 대각선 맞은편 남방천왕만은 누워있는 악귀가 양발 아래 모두 들어가 있다. 악귀가 1구만 남아있는 천왕상들은 모두 살짝 높이 들고 있는 발을 앉아서 받들고 있는 악귀들인데, 남방천왕은 두 악귀가 모두 바닥에 누워 뱃혀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중 한 구는 다른 천왕의 발 아래에서 잘못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아마도 원래는 모든 천왕상 아래에 각각 2구씩의 악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천왕상의 악귀가 없는 쪽 발도 공중에 떠있어서 그 아래에 악귀가 드러누울 공간은 만들어져 있다.

북방천왕의 오른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는 오른팔은 소매가 짧고 왼팔은 소매가 길어 손이 전혀 안 보이는 상의를 여며 입었는데, 가슴을 풀어헤쳐 근육질의 가슴이 보인다. 목에는 마치 스카프를 두른 것처럼 천이 둘러져 있다. 바지는 짧아서 근육질의 종아리가 드러나 있다. 생김새는 동자처럼 양쪽에 상투를 틀었고, 귀 뒤쪽에 녹색으로 뿔 같은 것이 돋아난 것이 보인다. 이러한 표현은 고려시대 시왕도에서도 지옥의 옥졸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표현이다. 울그락불그락한 양감이 묘사된 얼굴에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는데, 하나는 윗니가, 하나는 아랫니가 비대칭으로 보인다.

북방천왕 옆에 봉안된 서방광목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은 기본적으로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지만, 지물이나 채색, 표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서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위상으로는 서방이 분명하나, 실제 도상은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의 도상이 적용되었다.[도10] 천왕의 얼굴표정은 윗니를 드러내어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는 표정이 독특하다. 또한 숨을 쉴듯하고 있는 것처럼 콧

구멍이 옆으로 추켜올라가 크게 뚫려있는 것도 다른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이다. 목에 두른 스카프, 소슬금문의 흉갑, 용면 문양의 대구와 관대 등은 북방천왕과 같은 유형이나, 북방천왕이 비파를 들고 있어 가슴 부분이 가려진 반면, 상체 전체를 볼 수 있는 서방천왕 등 다른 천왕상을 보면 상체가 얼마나 긴 비율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도11]



<도10. (추정)서방광목천>



<도11. 서방광목천 상체>

천왕이 들고 있는 칼은 다른 사찰의 동방지국천왕이 들고 있는 칼에 비해 매우 정교한 편이다. 칼 손잡이 끝 장식은 마치 용의 발톱이 여의주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며, 코등이도 꽃잎을 모티프로 한 것으로 보이며, 투각형태를 하고 있어 매우 정교하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지국천왕의 검은 날이 양쪽에 있는데, 여기서는 칼 끝을 보면 좌우대칭이 아니라 한쪽에 날이 있어 검이 아니라 도(刀)를 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방천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건의 틈새에 좌우로 사자가 머리를 내밀고 놀고 있는 듯한 형상이 표현된 것이다.[도12·13] 오른쪽의 청사자는 약간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고, 왼쪽의 황사자는 약간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어 마치 두 사자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매우 해학적이다. 원래 이러한 사자는 서방광목천이 보탑 대신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서방광목천 자리에 있는 것이 동방지국천의 도상을 하고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사자를 집어넣어 이 천왕이 서방광목천임을 나타내려고 의도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왼쪽 사자 위쪽으로는 피건에서 갈라져 나온 끝이 날카로운 띠 한 자락이 구불거리며 바깥으로 휘날리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능가사 천왕들의 피건 표현의 특징이다.



<도12. 서방천왕 우측 피건의 청사자> <도13. 서방천왕 좌측 피건의 황사자> <도14. 서방광목천 악귀>

오른발 악귀는 북방천왕의 악귀처럼 무릎을 꿇고 천왕의 발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서있는 모습이다.[도14] 짧은 소매의 상의와 짧은 바지를 입고 있으며, 이마에 단이 져 있는 민머리 형상이다.

북방천왕의 맞은편에 위치한 동방지국천왕 자리에 있는 천왕은 서방광목천의 도상인 당과 탑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도15] 얼굴표정에 있어서는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입 안을 깊이 파내서 현재 그 안에 별집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목조각의 특성상 안면부를 별도의 목재로 만들어 두부(頭部)에 접합하기 때문에, 접합 전에 뒷부분을 파내서 입 안이 비어있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위아래 치아도 정교하게 표현했다. 보관 뒤쪽에서 흘러내리는 매듭장식은 다른 천왕들은 주름진 모습이 섬세하게 표현된 반면 동방천왕의 매듭은 윤곽만 표현되고 주름은 전혀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래의 매듭장식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오른손에는 삼지창에 깃발이 달린 당을 들고 왼팔은 정수리 높이로 높게 들어 금색의 삼층탑을 손에 받치고 있다.

서방천왕과 유사하게 동방천왕의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는 피건의 중간 부분에서 한 띠 자락이 바깥으로 구불거리며 펴져 있고 있다. 또한 이 피건은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두 번에 걸쳐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는데, 이것이 원래부터 이렇게 만든 것인지, 혹은 상을 옮기거나 수리하면서 어색하게 복원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능가사 천왕상들은 위치가 조금씩 조정되거나 혹은 공간상의 변화로 인해 이 피건이 흘러내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도17] 한편 황룡으로 표현된 관대 중앙의 대구(帶鉤) 바로 아래로 헛바닥처럼 길게 늘어지고 그 안에 오색구름문양이 단청된 장식이 보인다.[도18] 보통 다른 사찰의 천왕상에서는 동물가죽형태의 장식이 대구의 용면

아래턱에 걸린 고리에 매달려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맥락의 장식
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구의 고리에 매달리 형식이 아니라 대구 안쪽면에 붙어있
는 듯이 처리된 것은 다른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도15. (추정)동방지국천>

<도16. 동방지국천 상체>

<도17. 동방지국천 좌측면>

발 아래의 악귀는 들고 있는 천왕의 왼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 1구인데 완전한
민머리에 짧은 바지만 입고 있고 한쪽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이다.[도19] 받들고
있는 모습이나 표정이 매우 공손하고 충직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노출된 신체
가 많은 만큼 강인한 근육이나 골격의 표현이 섬세하게 드러난다. 조선시대 미술
에서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각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다.



<도18. 동방지국천 하체>



<도19. 동방지국천 악귀>

이 옆의 남방증장천왕은 일반적인 용과 여의주를 든 도상을 따르고 있다.[도20] 얼굴은 입을 굳게 다물어 목에 힘줄이 선 것 같은 모습이며, 그나마 다른 천왕들에 비해 상체를 틀어 천왕문에 들어선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증장천왕의 특징 중 눈에 띄는 것은 우선 피건이 양쪽 어깨에서 직선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 부분에서 X자형으로 교체된 다음에 각각 반대편 측면으로 흘러내리도록 한 점이다. 또한 피건의 중간 부분에서 깃발처럼 펼쳐지는 띠자락이 다른 천왕들은 한쪽만 있는데 반해 증장천은 좌우 양쪽에서 안쪽으로 휘날리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견갑 아랫부분의 소매가 위로 솟구쳐 있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도 소매만 휘날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휘날리는 소매 부분에 고리를 감아 일부러 세워놓은 것처럼 붉은 색의 굵은 띠 같은 것을 감아놓은 것이 보인다. 이와 함께 다른 사찰의 천왕상 장엄에서는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동물가죽 모양의 영락장식이 증장천에서 보이는데, 차이점은 다른 사찰에서는 이 가죽이 관대의 용면 대구의 아래턱에 고리를 달아 매달아 둔 것에 비해, 능가사 증장천은 흉갑을 감싼 천을 가로로 묶고 있는 끈에 매달아 놓은 점이 특이하다.[도21] 때문에 이 가죽 장식은 허리의 요대에 매달았을 때보다 더 길게 강조된 느낌이다. 더불어 능가사 사천왕의 다른 장엄은 비교적 간단하고 생략적인데 반해 이 동물가죽에는 유난히 신경을 써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가죽의 입 부분에 달린 송곳니도 앞뒤로 두 쌍이 튀어나와 있고 특히 두 귀 사이에 외뿔이 돋아난 것도 정교하게 묘사했다.



<도20. 남방증장천>

<도21. 남방증장천 장엄 세부>

<도22. 남방증장천 지물(용)>

오른손에 잡고 있는 용은 황룡이며 몸의 전면에는 신발에 그려진 문양과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갈수록 점의 크기가 작아지는 5중의 연주문 원이 그려져 있다. [도22] 또한 일반적으로 이 용은 증장천의 팔뚝을 휘감고 있지만, 여기서는 자신을 쥐고 있는 천왕의 손가락을 한번 휘감은 다음 위로 솟구쳐 올라 몸이 허공에 떠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용의 코 아래에서는 긴 수염이 돋아나 있다. 왼손의 여의주는 동방천왕이 탑을 들고 있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팔을 높이 들어 머리 높이로 잡고 있다. 다른 경우에는 용이 여의주를 바라보며 포효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용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점도 다르다.



<도23. 남방증장천 아래의 두 악귀>

한편 증장천은 능가사 천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양쪽 발 아래에 모두 악귀를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악귀는 천왕의 발을 받들고 있는 반면, 여기서는 두 악귀가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다.[도23] 원래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중 하나는 다른 방위의 천왕 아래에 있던 것을 잘못 옮겨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현재의 정황으로 보면 원래는 능가사 천왕들도 각각 무릎 꿇은 악귀와 바닥에 엎드린 악귀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증장천의 오른발 아래의 악귀는 배를 등에 대고 누웠는데 짧은 바지만 입고 있다. 누운 자세는 오른쪽 다리를 뺀고 왼쪽발을 오른쪽 허벅지 앞에 두고 무릎을 세워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어서 마치 천왕의 발 아래에서 응용포복 자세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얼굴은 관람자를 바라보는 듯 올려다보고 있으며, 혀를 내밀고 있어 해학적으로 보인다. 등에는 척추와 그 주변의 근육을 과장되게 표현했다. 왼발 아래의 악귀는 등을 바닥에 깔고 누웠는데, 얼굴은 입의 모양이 마치 새의 부리처럼 앞으로 돌출된 모양이며 손과 발도 새의 발처럼 세 개의 발톱을 오므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악귀의 상체는 근육을 묘사한 것 같은데 양감은 없이

근육의 심줄만 강조되어 있어 마치 고행상을 보는 것 같지만, 팔다리의 근육은 탄탄하게 잘 묘사가 되었다.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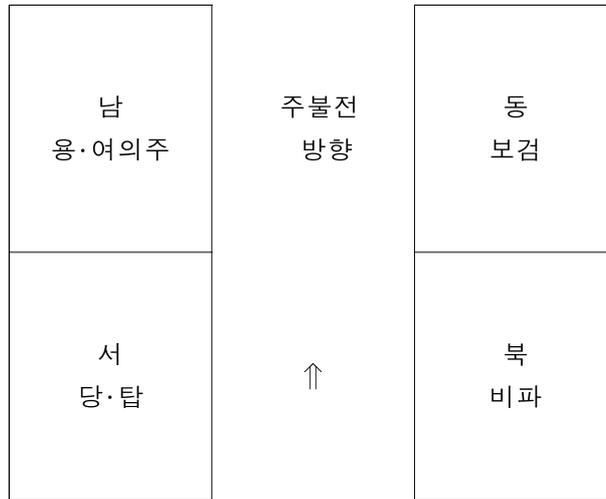
고흥 능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삼국시대 아도화상 창건하여 보현사라고 했다고 전하지만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찰 역시 임진왜란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소실되었으며, 전란 이후인 1644년 벽천정현이 중창하고 능가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능가사 천왕문은 사찰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고, 주불전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건물이다. 천왕문의 건립은 천왕문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해 1666년으로 확인되며, 사천왕도 같은 시기로 보고 있다.

능가사 사천왕상은 최근 동방지국천왕에서 복장기가 발견되었다. 기존에는 천왕문 상량도리 목서 ‘大清康熙五年兵午四月吉日初朔 都監兼化主信讚’이라는 기록을 통해 천왕문과 함께 1666년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는 1690년 세운 <능가사 사적비>에 천왕문과 사천왕상에 대한 시주자 명단이 비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왕문과 사천왕상은 동시에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더해 준다. 천왕문의 상량문에서 1666년에 건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제작시기 부분은 남아 있지 않으나 동방지국천왕의 복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활동시기도 이 시기와 중첩되므로 사천왕상은 1666년에 작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化主 信讚은 제작연대 부분이 결실되어 발견된 동방지국천왕 복장기에도 이름(복장기엔 信瓌)을 올리고 있어 천왕문과 사천왕상은 거의 동시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복장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주목되는 승려는 敬林, 幸坦 등 운혜, 색난과 조각승들의 명단이 보인다. 사실 능가사는 벽암각성의 문도로서 전란 이후 호남일원 불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碧川正玄이 중창한 사찰이고, 그 역시 조각승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또한 이곳에는 17세기 후반기에서 18세기 초반까지 크게 활약한 색난(화엄사 각황전 불상에 팔영산인으로 등장)의 본사로서, 색난과 조각승들이 주석하고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통해 볼 때 능가사 사천왕상은 운혜파 또는 색난파 조각승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능가사 사천왕상의 배치는 조선후기 사천왕상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배치와 다르다. 진입부에서 우측에 북방(비파)·동방(보검)을 배치하였고, 좌측에 서방(당·탑)·남방(용·여의주)를 배치하였다. 주불전이 좌향이 일반사찰과 달리 남쪽에 자리 잡아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사천왕상의 배치가 주불전의 좌향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정확치 않다.



<표1 고흥 능가사 사천왕상 배치도>

네 구의 사천왕상은 모두 탁자모양의 의좌에 앉은 의좌세로, 모두 꽃잎 형태의 보관을 썼으나, 별도의 장식물은 부착하지 않았다. 보관의 표면에는 꽃과 귀면 등을 그림으로 그려 넣었다. 사천왕의 목에는 스카프를 매듭지어 묶었고, 견갑과 비갑, 흉갑, 요갑, 요포, 전포 등을 두루 걸쳤다. 상의는 전포로 타이트 하게 입었으며, 하의는 품이 넓은 박고형으로 정강이 부근에서 띠로 한번 매듭지어 묶었다. 몸을 휘감은 천의가 머리 뒤에서 화염 광배 역할을 하고 있다. 팔꿈치 부근에서 소라처럼 말아 올려 표현한 전포자락(북방)과 아래위에서 옷깃을 각각 한 번씩 접어 그것을 바늘로 묶은 흉대(서방)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전체적으로 17세기 전반기 작품에 비해 중량감이 줄어들고 세장한 형태미를 갖고 있다.



<고흥 능가사 사천왕상 얼굴>

<고흥 능가사 사천왕상 측면>

<회순 쌍봉사 명부전(1667년, 운혜 작)>

북방은 비파, 동방은 보검, 남방은 오른손에 용 왼손에 여의주를 받쳐 들었다. 남방천왕은 오른손으로 보검의 손잡이를 잡았고 왼손바닥으로 칼끝을 받쳐 들었다. 살짝 든 오른 발 측면에는 악귀형 야차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선 모습이다. 원래의 것은 아니고 최근 수리과정에서 새롭게 만든 것이다. 허리춤 천의자락 좌우측에 얼굴을 내민 두 마리 사자가 인상적이다. 서방천왕은 어깨위로 치켜든 왼손에 보탑을 받쳐 들었고, 오른손으로 삼지창모양의 寶幢을 쥐고 있다. 왼쪽 허벅지를 악귀형 야차가 받쳐 들었다. 요의는 상하가 같은 모양으로 주름을 잡고 끈으로 묶었다. 북방천왕과 동방천왕, 서방천왕은 허리춤에서 귀면이 요대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남방천왕은 허리춤에서 요의를 들렀고 멧돼지형상의 獸皮를 고리로 매달았다.

사천왕상은 일반 불상과 달리 과장된 인물표현을 통해 사천왕상이 상징하는 위엄과 역동적인 모습으로 연출된다. 그러므로 숭고한 정신성과 종교적 이상성이 강조된 불상의 상호표현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명부전의 장군상이나 불상 중에서는 귀의 표현 등에서 조각승의 조각 습관 등을 읽어낼 수 있고, 이것을 읽어내면 어느 정도 유파의 조각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고흥 능가사 사천왕상의 장방형의 폭이 좁은 얼굴, 파초모양의 눈썹, 몽툰한 삼각형의 콧날과 鼻柱가 훤히 노출된 들창코, 상·하각 사이를 긴 음각선으로 처리하고 이갑강의 폭이 좁은 귀, 울룩불룩 처리한 목의 힘줄 등 운혜가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1667년에 제작한 화순 쌍봉사 명부전 지장시왕상의 양식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천왕상은 운혜파 조각승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야차는 원래 사천왕의 좌우 다리에 각각 1위씩 모두 8위가 만들어졌을 것이나, 현재는 5위만 보이는데 모두 악귀형 야차이다. 이 악귀들은 최근 중수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북당 다문천왕 악귀는 엉거주춤 앉아 어깨로 사천왕상의 다리를 받치는 모양새다. 위아래의 송곳니가 돌출해 있고, 머리는 쌍계로 묶었다. 남방증장천은 두 마리 악귀형 야차가 바닥에서 뒹굴고 있다.

○ 문헌자료

<高興 八影山 楞伽寺 天王門 上樑文> 1-1

大清康熙五年丙午²⁰)四月吉日初朔都監兼化主信讚

<高興 八影山 楞伽寺 天王門 上樑文> 1-2

大清道光四年甲申²¹)三月吉日重朔都監秋坡堂養初

1995년 8월 4일 墨書銘 上樑도리 2本 송광사성보박물관으로 이운 보관

20) 顯宗 7년(1666).

21) 純祖 24년(1824).

<高興 八影山 楞伽寺 天王門 上樑文> 2

昭和十一年丙子五月吉日三册都監海隱堂裁善

同苦錄

圓華堂 性眞

霽華堂 泰允

海隱堂 裁善

一庵堂 宗仙

滿谷堂 成洙

蓮皓堂 龍甲

春凝堂 夢吉

松潭堂 喆洙

時任秩

住持 海隱堂

監院 滿谷堂

別座 松潭堂

木手

金士鉉

高鳳來

鄭允明

李亨基

宋智浩

權性淑

宋連燮

供司 丁日秀

負木 黃正洙

本山 職員

住持 綺山堂

監務 龍隱堂

法務 藤谷堂

財務 春谷堂

伏願上樑之後寺運通泰

<東方持國天王腹藏記>

(43×10cm; 가로는 현존 크기)

□□□□□□□□□□衆常隨圍繞不離左

□□□□□□□□□□大願力忍□不梵□□□

(이하 유실되었음)

<표2 사천왕상 복장기에 등장하는 승려들의 주요 활동>

승명	소임	활동사항	시기	비고
學俊	老德	곡성 도림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1690	조각승(9위, 충옥)
信璨	禪德	고흥 능가사 사천왕문 상량문	1666	化主 信讚
勝學	禪德	보은 범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655	조각승(12위, 혜회)
懷玉	禪伯	안성 청룡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01	조각승(8위, 광원)
敬琳	禪伯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	시주질(응매)
		곡성 도림사 보광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65	조각승(2위, 운혜)
		화순 쌍봉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일괄	1667	조각승(5위, 운혜)
		고흥 능가사 대웅전 석가여래상	1639	조각승(3위, 운혜)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	1663	비움기
		보은 범주사 벽암대사비	1664	門弟
		목포 달성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78	조각승 首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	1685	右帝釋大施主 嘉善
		고흥 능가사 사적비	1690	解脫門施主 嘉善
		고흥 능가사 동종	1690	嘉善
正元	仙伯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시왕상 일괄	1636	조각승(5위, 수연), 淨元
沖信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	시주질(영규, 忠信)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	1663	通政(忠信)
義湘	禪伯	해남 서동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0	조각승(운혜, 6위), 義尙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	시주질(응매), 義尙
楚雨	禪伯	고흥 능가사 응진당 목조석가여래삼존 및 16나한상	1685	조각승(8위, 색난)
		김해 은하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일괄	1687	조각승(5위, 색난)
順元	老德	구례 화엄사 각황전 석가여래삼불사보살상	1703	조각승(7위, 색난), 順瑗
唯一	本寺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	시주질, 唯日
		서울 지장암 목조지장보살좌상	1664	行者 唯日
釋宗	禪和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시왕상(원 화승 대원사)	1680	조각승(7위, 색난)
淸雨	沙彌	부산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722	조각승(2위, 진열)
淸彦	沙彌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61	조각승(7위, 회장)
印英	沙彌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원 금산사)	1650	시주
		진주 청곡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1657	조각승 首, 印迎
竺閑	禪和	창녕 관룡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1652	조각승(5위, 응혜)
幸坦	禪和	강진 정수사 나한전 목조석가삼존 및 16나한	1684	조각승(3위, 색난) 行坦
		고흥 능가사 응진당 목조석가삼존 및 16나한	1685	조각승(6위, 색난)
		김해 은하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1687	조각승(3위, 색난)
		구례 천은사 응진전 목조석가삼존 및 16나한	1693	조각승(2위, 색난)
		해남 대흥사 나한전 목조석가삼존 및 16나한	1701	조각승(2위, 색난)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석가삼불 및 사보살	1703	조각승(8위, 색난)
太澄	老德	청도 대운암 관음전 목조미륵보살좌상	1654	조각승(3위, 회장)
太浩	禪伯	고흥 능가사 대웅전 불상발원문	1639	조각승(15위, 운혜)



○ 현 상

- 고흥 능가사 입구에 위치한 천왕문 안에는 좌우에 각 2구씩 목조 사천왕상 4구가 목책 뒤에 모셔져 있다. 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로 1995년에 해체 복원 공사 중 발견된 장여의 상량문을 통해 1666년(현종 7년)에 초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1824년과 1931년에 중건되었다고 한다. 현재 장여는 송광사 정보박물관으로 이전되어 관리 중이다.
- 이 사천왕상은 천왕문이 처음 건립될 당시 함께 조성된 것으로, 소나무를 재료로 사용하였고 의자에 걸터앉은 의좌상이다.

○ 내용 및 특징

- 능가사 사천왕상은 높이가 450cm에 달하는 대형 상이다. 신체 비례는 허리가 길고 가늘어서 세장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통나무를 자료로 사용한 것과도 관련된다. 신체 비례 상 천왕들의 얼굴은 별로 크지 않고 하체가 장중한 느낌을 준다. 다만 얼굴이 작다 보니 다소 위엄이 없어 보인다.
- 천왕상 허리의 표현은 단웅의 그것을 연상시키는 데 반해, 귀와 콧날을 비롯한 상호의 표현은 운혜의 개인 양식과 상통한다. 운혜가 1660년대에 전라도를 활동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이 참조가 되긴 하나, 현재 알려진 운혜의 작품 중에는 사천왕상의 작례가 없어서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 점은 능가사 사천왕상에 특이성을 더해준다.
- 천왕상은 의복 위에 갑옷을 입은 무장형으로, 어깨 위에는 천의를 걸쳤다.
- 능가사 목조사천왕상은 조선후기의 다른 사천왕상과는 지물의 구성이 달라서 특이하다. 능가사 목조 사천왕상의 경우, 통상 북방다문천왕이 들고 있는 비파를 동방지국천왕이 들고 있으며, 동방지국천왕이 드는 칼은 남방증창천왕이 들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탑을 드는 것으로 묘사된 서방광목천왕은 용을 쥐고 있으며, 북방다문천왕은 칼과 당을 들고 있다.
- 또한 천왕들이 쓰고 있는 보관도 조선후기 여타의 사천왕상과 달리 원통형이어서 특이하다.
- 1999년 8월에 사천왕상의 복장을 조사했을 때, 후령통 2개와 발원문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현재 모두 송광사정보박물관으로 이관하여 관리 중이다. 발원문에는 연대가 없기는 하나, 보물로 지정된 1698년명 능가사 동종의 명문과 비교분석하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동종의 명문에 보이는 이름 중 10여 명이 복장 발원문과 겹치는 것이다. 복장발원문에는 사미로 적혀 있으나 동종 명문에는 승계가 올라가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복장발원문이 더 먼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천왕상의 생령좌는 모두 도난당했다고 하며, 근래 새로 만든 것으로 명확한 제작년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1991.
- 『능가사 대웅전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3.
- 노명신,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 1994.

6.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 및 복장전적 (靈光 佛甲寺 木造四天王像 및 腹藏典籍)

가. 심의사항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 및 복장전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9.9.18.)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1.8.18.)를 실시하고 2021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21.10.14.)에서 검토하였으나, ‘동종문화재 비교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었음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를 개최하여 비교조사 대상을 선정해 관계전문가 조사(’22.4.21.~’23.2.28.)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 재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9.7.~’23.10.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1987.9.18. 지정) / 보물(2006.4.2. 지정)
- 명 칭 :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 및 복장전적(靈光 佛甲寺 木造四天王像 및 腹藏典籍)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불갑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불갑사
- 수 량 : 천왕상 4구, 복장전적 33종 46책 ※ 세부 목록 참조
- 규 격 : 최대 높이 4.59m
- 재 질 : 목조에 채색, 종이 등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① 사천왕상 : 조선시대(17세기 후반)
② 복장전적 : 고려시대~조선시대
- 제작자 : 미상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

<지정 대상 복장전적 목록>

연번	서명	수량	간행지(처)	간년
1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합철: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1	전라 고산 화암사	1441 1443
2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권상·중·하	1	전라 고산 화암사	1453
3	『청문(請文)』	1	경상 안음 영각사	1535
4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권상·하	1	황해 토산 석두사	1542
5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권1~5	1	황해 토산 석두사	1547
6	『십지경론(十地經論)』, 권9~10	1	황해 서흥 성수사	1557
7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1	전라 강진 무위사	1570
8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1	[전라 능주 쌍봉사]	[1563]
9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尚禪要)』	1	전라 순천 송광사	1590
10	『월인석보(月印釋譜)』, 권21	2	[충청 은진 쌍계사]	[1569]
11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1~3	1	[전라 고산 화암사]	[1477]
12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1~2	1	간행사항미상	[17세기 초]
13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3~4	1	간행사항미상	[17세기 초]
14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2~3/권5~6	2	[전라 고창 문수사]	[1533]
15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4~5	1	간행사항미상	[16세기 초]
16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1/권7	2	전라 순천 송광사	1607
17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1	2	전라 영광 수연사	1628
18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1	1	전라 태인 운주사	1670
19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21~22/권23~24/ 권25~26/권29~30/권45~46/권49~50/권77~78/권93~94/ 권96~98	9	전라 순천 송광사	1635
20	『치문경훈(緇門警訓)』, 권하	1	전라 해남 대흥사	1638
21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	간행사항미상	[1469]
22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	[경상 안음 영각사]	[1536]
23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	[충청 서산 보원사]	[1566]
24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2	전라 순천 송광사	1574

연번	서명	수량	간행지(처)	간년
2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	전라 능주 쌍봉사	1562
26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	충청 서산 보원사	1565
27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	전라 태인 용장사	1635
28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	전라 순천 송광사	1642
29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	[경기 과천 청계사]	[17세기 중엽]
30	『운수단가사(雲水壇謠詞)』	1	전라 순천 송광사	1607
31	『운수단가사(雲水壇謠詞)』	1	전라 진안 반룡사	1627
32	『운수단가사(雲水壇謠詞)』	1	간행사항미상	
33	『작법절차(作法節次)』	1	간행사항미상	
합계	33종	46책		

라. 1차 조사자 검토 의견

○ (보류)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은, 전체높이 4m가 넘는 대형상으로 전체적으로 당당하면서도 세부적인 세밀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은행나무로 만들었으며 머리카락이나 세부장식, 양감이 필요한 부분은 흙으로 제작하여 정교함을 드러낸다. 구성과 배치에서는 가장 이른 보림사 목조 사천왕상을 비롯한 17세기 전반기의 특징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방위 및 이에 따른 사천왕의 지물 역시 가장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즉, 천왕문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그 안쪽으로 보당과 탑을 든 서방광목천왕, 천왕문 입구의 오른쪽으로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그 안쪽에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이 있는 구조이다.

불갑사 사천왕상의 형식 및 구성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작품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정면향의 자세라든지 얼굴이 작고 보관을 높고 크게 하여 정면에서 봤을 때 더욱 장엄하고 위압적으로 표현한 점, 중앙에 용을 배치하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주악천인 등의 장식성 등에서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사천왕상과 구별되는 창의성을 보인다. 또한 17세기 후반기의 경직되면서도 과장된 표현 기법. 긴 신체비례, 평면적인 보관 형식과 경직된 얼굴 표정, 소매자락의 과도한 뻗침 등과도 차별성을 보인다. 따라서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의 조성시기는 17세기 중엽 경, 늦어도 17세기 후반은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7세기 사천왕상의 재질은 나무와 흙이며 후기로 갈수록 점차 목조로 이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17세기 사천왕상 가운데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1515년)과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28년),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49년)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1624년, 높이 600cm), 1632년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1632년, 373cm),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1665년),

443cm),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1666년),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1676년, 295cm), 마곡사 소조사천왕상(1683년, 390cm), 예천 용문사 소조사천왕상(1688년, 450cm) 등이 있다. 이러한 전통은 18세기 초기까지 이어지는데,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1702년),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1705년),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1726년) 등이 남아 있다. 그리고 1726년 안성 칠장사 소조사천왕상을 거의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사천왕상은 사찰 입구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공간인 天王門(또는 天王殿)에 봉안된다. 같은 형식이 중국에서도 제작된다. 즉, 원대 1345년의 북경 거용관과 1499년에 중수된 산서성 쌍림사 천왕전과 같이 사천왕이 문이라는 성격을 띄면서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에 별도의 전각이 들어서고, 그 내부에는 대형의 사천왕상이 부조 또는 원각상으로 제작된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은 중국과는 다른 배치와 도상, 사천왕의 지물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불교미술로 발전되는 독창성을 보인다.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은 정확한 제작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복장유물 중 1670년에 발간된 <수륙의문>을 통해 조선 17세기 중후반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또한, 거대한 크기에 은행나무로 제작된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례가 많지 않은 대형의 목조사천왕인 점과 제작기법, 세부 장식성을 비롯한 전체적인 조형성에서 매우 뛰어난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사천왕상이 가지는 희귀성과 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을 비롯한 조선후기 17~18세기의 사천왕상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거쳐 지정문제가 다시 논의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보류)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은, 전체높이 4m가 넘는 대형상으로 이 정도 크기이면 소조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목조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목조이면서도 섬세함을 더하기 위해 세부 장엄은 소조로 덧붙인 기법을 보이고 있다. 17세기 사천왕상은 소조의 비중이 높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차 목조의 비중이 커지는데, 불갑사 사천왕상은 그런 목조사천왕상의 계보상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폐사지에서 옮겨오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사천왕 각각의 도상과 천왕문 내에서의 방위에 따른 배치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의 가장 이른 사례인 보림사 목조 사천왕상 이후의 일반적인 법식을 따르고 있다. 그와 함께 보살상의 보관과 같이 유독 높은 형태에 일반적인 사천왕 보관의 장엄인 화염보주 외에 비천, 구름, 꽃모양 등의 장엄이 붙은 보관을 착용한 것, 일관적으로 정면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같은 조선후기 사천왕상 중에서도 연대가 다소 올라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현재 17세기 사천왕상 가운데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1515년), 순천 송광사(1628년), 완주 송광사(1649년) 사천왕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외에 높이가 6m에 달하고 입상으로 조성되어 최대 규모로 생각되는 보은 범주사 소조사천왕상(1624년)을 비롯하여 높이 4m 내외인 김천 직지사(소조), 예천 용문사(소조), 하동 쌍계사(목조), 고흥 능가사(목조) 사천왕상과 그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구례 화엄사(소조), 홍천 수타사(소조), 공주 마곡사(소조), 안성 칠장사(소조) 사천왕상 등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 사천왕상들의 조성연대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어, 목조와 소조와의 관계, 순수한 천왕상만의 크기와 제작기법과의 문제 등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비교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갑사 사천왕상이 밟고 있는 악귀들은 일종의 도깨비 형상을 하고 있어 한국형 도깨비 도상의 기원을 밝히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천왕문에는 이러한 악귀 혹은 기타 인물상이 천왕상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바, 그중에서도 도깨비 도상들은 별도로 연구할 가치가 있으나 아직까지 사천왕상에만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다른 천왕문들의 악귀들과 비교하여 불갑사 천왕문 악귀들의 도상도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부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사천왕상 도상 및 배치는 중국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범식을 이루고 있어서 조선불교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단서가 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천왕상들의 종합적인 비교고찰을 통해 불갑사 사천왕상의 정확한 조성연대를 추정해보고 조선후기 사천왕 조성의 역사에서 불갑사 사천왕상이 가지는 의미를 부각하여 그 우수한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갑사 사천왕상의 지정문제는 이러한 전체적인 조사 이후로 보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보류)

불갑사 사천왕상은 아쉽게도 제작시기와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 시기는 판단할 수 없으나, 큰 규모에 균형 잡힌 신체비례, 섬세하게 조각된 세부 표현 등에서 솜씨 좋은 장인의 작품임에 틀림없다. 현재 조선시대 사천왕상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천왕상은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1515년 초창, 1666년과 1772년 중수),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28년, 응원 작),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49년) 등 불과 3건에 불과하다. 사천왕상은 규모도 크고 갑옷이나 지물, 장엄 등 세부 표현에서 상당한 공력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늘 개방되어 있는 사천왕문에 봉안되어 비바람이나 주변 환경에 쉽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불갑사 사천왕상은 후대 몇 번의 수리를 거치긴 했으나 조성 당시의 형상은 잘 유지, 보존하고 있다. 또한 사천왕상에서는 발견된 복장전적은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상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편이다.

다만, 17세기와 18세기 초에 조성된 기년명 또는 무기년명 사천왕상은 보은 범

주사 소조사천왕상(17세기 전반),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17세기 전반),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17세기 전반),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166년),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1666년),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1676년), 청도 적천사 목조사천왕상(1670년),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1683년), 남해 용문사 목조사천왕상(1702년),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상(1705년), 안성 칠장사 사천왕상, 예천 용문사 사천왕상 등 대략 10여점 알려져 있고, 이들 대부분은 규모가 4m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상으로 우리나라 사천왕상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불갑사 사천왕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검토 하기에 앞서 17세기에 조성된 사천왕상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 2차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지정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검토 대상으로 삼은 다른 사천왕상과의 비교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은 전체높이가 459cm에 이르는 대형 상으로 조선후기 사천왕상 도상과 양식을 잘 갖추고 있고, 위엄을 갖춘 사천왕상으로서의 표현력이 우수한 편이다. 원래 이 사천왕상은 전라북도 무장 소요산 연기사에 있던 사천왕상을 연기가 폐사됨에 따라 불갑사의 雪竇禪師(1824~1889)가 1876년에 이안된 것으로, 다른 사천왕상과 다른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이력을 간직하고 있다. 동시기 이와 유사한 불상의 이운 사례는 목포 달성사, 예산 수덕사, 남원 선원사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규모가 큰 사천왕상으로는 유일한 사례이다.

- 불갑사 사천왕상의 조성과 관련된 기록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편년은 어렵지만,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사천왕상 복장전적은 1441년 간행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등 15세기 간본 4종, 1535년 간행된 『청문』 등 16세기 간본 15종과 함께 1607년 간행된 『묘법연화경』 등 17세기 간본 14종이 확인되었다. 복장 전적 중 가장 늦은 시기에 간행된 것은 전라도 태인 운주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 권1(1670년 간행)로 불갑사 사천왕상의 하한연대를 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그렇게 본다면 조선후기 사천왕상 제작기술의 흐름상, 소조에서 목조로 전환되는 시점에 조성된 사천왕상으로서 학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 17세기 전반기는 장중한 형태미를 갖춘 소조사천왕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유행하고, 17세기 후반에는 소조에서 목조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는다. 기 지정된 17세기 전반기 사천왕상은 사찰의 연혁과 사적기를 통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고 난 후, 사찰의 재건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불교의 부흥이라는 범불교적 역사적 소명을 담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불교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불갑사 사천왕상은 양식과 복장에서 발견된 복장전적을 통해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상으로 판단되며, 승려와 지역 주민 등 일반민중의 염원을 담아 제작한 사천왕상으로서의 성격과 의미가 있다.

- 불갑사 사천왕상의 보관과 이목구비, 갑옷과 자세, 양감 등 양식에 있어서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과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은 1539년 제작되어 1668년 明俊에 의해 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 중수의 범위가 개채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순천 송광사 16나한상과 사천왕상의 예를 통해 볼 때 완전히 새롭게 중창하는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을 중수한 조각승과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을 제작한 조각승 간의 조각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명준은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 중수 이외 1676년 고창 선운사 목조지장시왕상을 제작하였는데, 이 무렵 인근 무장 소요산 연기사 사천왕상 제작에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다른 사천왕상과의 비교조사에서 정확한 제작시기를 남기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우나, 조형적인 면에서는 다른 존상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17세기 후반의 양식과 우수한 조각적, 예술적 감각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자칫 연기사의 폐사와 함께 17세기 후반의 귀중한 사천왕상도 소실될 위기에 처했으나, 설두대사 노고로 원형의 손상과 변형 없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다만, 불갑사 사천왕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사천왕상의 복장전적은 다수의 귀중본과 희귀본이 포함되어 일찍부터 관련 학계의 주목과 관심을 받아 왔고, 그 결과 불갑사의 명부전, 응진전 존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들과 일괄로 보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복장전적 일괄은 사천왕상의 조성과 함께 납입된 종교적, 역사적 상징물로서 사천왕상과 일괄로 보존되어야 할 유산이다. 최근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번 기회에 과거 3건의 존상에서 발견되어 일괄로 보물로 지정된 복장유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분리 정리 후 각 유물이 갖는 성격과 의미에 맞게 존상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현 상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 천왕문 내부에 봉안되어있는 사천왕상은 雪竇禪師(1824~1889)가 1876년 전라북도 무장 소요산의 폐사된 烟起寺에서 불갑사로 옮겨온 것이라 한다. 소요산은 원래 전라도 흥덕현에 있는 산이며,²²⁾ 연기사는 흥덕현(현재의 고창군) 소요산에 있었던 절로서 烟起庵으로 불리웠으며, 烟起祖師가 창건한 절이라고 한다.²³⁾ 즉 고창 연기사는 현재의 영광군과 가까운 위치인 점에서 폐사되면서 불갑사로 옮겨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상의 내부에서 1453년 전라도 고산 화암사에서 간행된 「지장보살본원경」을 비롯한 44종 51책의 경전이 발견되었다.

불갑사 사천천왕상은 450cm에 이르는 대형상으로 사천왕 자체의 크기도 326~369cm에 이른다. 재료는 은행나무이며, 대형 크기에 현재까지 잘 남아있는 지물과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은 점 등에서 오랫동안 조선후기 사천왕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언급되어 왔다. 사천왕상에서는 ‘南左天衣’와 화염문의 뒷면에 방위가 표시된 목서가 발견되어 사천왕의 존명 파악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1998년 태풍으로 인해 사천왕상이 파손되면서 사천왕상 일부에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복장유물의 일부는 이미 도난된 상태지만 당시 발견된 전적 33건 46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적 가운데 1670년에 발간된 <수륙의문>은 사천왕상의 조성연대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 내용 및 특징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은 천왕문에 들어서면서 그 오른쪽에 칼을 든 상, 그 왼쪽에 비파를 든 상 그리고 반대편에 해당하는 입구 왼쪽에는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과 그 왼쪽의 보당을 든 천왕 등 모두 네 구로 구성되어 있다. 천왕들은 모두 앉은 자세에 평상복 위에 갑옷을 입었으며, 각각의 상징적인 지물을 들고 있다. 발 밑에는 각 두 구씩의 살아 있는 악귀들이 땅바닥에 누워있거나 혹은 무릎 꿇은 자세에 천왕의 왼발을 받치고 있는데, 표정이나 자세 등은 딱딱하지만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발 밑의 악귀는 누운 자세에 나무토막 같이 경직된 형상이며, 왼발을 받친 악귀는 무릎을 꿇은 자세에 팔에 힘을 주어 근육이 불거진 모습에 고깔모자를 쓰고 있다.

22) 『신증동국여지승람』 34권 흥덕현조 산천조 逍遙山: 현의 서쪽 15리에 있으며, 산내에 水月寺가 있다고 한다.

23) “全羅北道興德(今入高敞郡)逍遙山縣西二十”(권상로, 『한국사찰전서』 下, 이화문화사, 1994).



<도1. 영광 불갑사 천왕문과 사천왕상>

천왕은 모두 보살이 쓰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장식이 화려하고 관의 크기가 높아 양 측면에 늘어진 관대와 더불어 얼굴 부위가 신체에 비해 더욱 크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보관의 재료는 나무인데 이마에 닿는 부분과 보관의 전체 형상을 따로 만들어 붙인 구조에 철재를 이용하여 구름이나, 모란을 비롯한 다양한 꽃과 봉황, 태풍소를 부는 주악비천 등을 만든 다음 구멍을 뚫어 판과 고정하였다. 보관의 윗부분에는 6개의 화염문을 테두리에 꽂아 더욱 장식적인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양 측면에는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U자형의 관대를 달아 고정하였다.

천왕의 얼굴은 방형의 넓적한 형태에 끝이 뭉툭하고 유난히 큰 코, 콧수염과 짧은 턱수염, 옆으로 긴 입술 등에서 공통적인데 무서우면서도 위엄스런 모습이다. 이외에, 각각의 다른 얼굴 모습도 특징이다(도3). 예를 들어, 가는 눈을 위로 치켜 뜬 남방천왕의 눈이나 앞으로 튀어 나오듯이 부릅뜬 눈을 한 비파를 든 북방천왕, 서방천왕에 비해 동그란 눈에 도드라진 눈썹으로 칼을 든 동방천왕과 보당을 든 서방천왕의 표정은 해학적이면서 익살스럽기까지 하다. 콧수염과 턱수염도 얼굴표정에 맞게 표현한 점도 재미있다. 눈동자는 다른 사천왕처럼 유리 등으로 마감한 눈동자 감입은 없이 묵선과 흰색만으로 표현하였으며, 머리카락인 보계는 따로 만들어 붙이고 어깨에 늘어진 보발은 흙으로 제작하였다.

몸에는 화려하면서도 둔중한 전포를 입고 가슴과 허리, 팔뚝, 정강이에 갑옷을 입어 무장한 모습이다. 즉, 가슴에는 흉갑, 배에는 치마처럼 裳甲을 입었으며, 허리띠를 착용하였다. 갑옷을 입은 위로 긴 천의를 어깨 뒤로 돌려 마치 광배처럼

표현하였으며, 그 위로 불꽃모양의 화염문을 조각하였다. 목에는 스카프 같은 장식을 둘렀으며, 흉갑과 배갑을 착용하고 전포의 소매부리를 둘둘 말아 배래 부위에 생긴 너풀거리는 끝단을 묶었는데, 묶은 소매부리가 위로 치솟아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팔뚝에는 꿩갑, 양쪽 정강이에는 脛甲을 두르고 넓적다리에는 腿甲을 찻으며, 戰靴를 신었다.

갑옷의 무늬도 화려하다. 양 어깨에는 귀면 장식이 있고, 목에서부터 가슴을 가린 흉갑에는 소슬무늬로 장식하였는데, 이 부분은 흙으로 만들어 붙여 더욱 정교하다. 가슴에는 폭이 넓은 띠로 두르고 다회끈으로 묶었으며, 肋甲과 이를 묶은 끈이 두 갈래로 나뉘어 밑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그리고, 머리 가운데 하나의 뿔이 달린 일각수(귀면)가 요대를 물고 있는 형상인데, 요대 역시 진흙으로 제작하였으며 실제의 허리띠처럼 방형 장식을 서로 연결한 구조로 만들고 그 장식 안에는 국화, 문자 등 여섯개의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

사천왕상에서는 부분적으로 목서도 발견되었는데, 천의 뒷면에서 ‘南左天衣’라는 명문이 발견되었으며, 다른 천왕에도 비슷한 글씨가 남아 있다. 즉, 본체에 따로 만들어 천의를 이어 붙이면서 방위를 표시하였으며, 당시 장인들도 이를 천의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천왕은 대체로 측면으로 나누어 붙이고 여러 단면을 서로 붙인 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귀 부분이나 머리 부분의 앞 뒷면, 갑옷의 사이사이에 나무나 껍쇠로 결구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머리 윗 부분 역시 여러 개의 나무를 합친 흔적이 보여, 여러 판을 대어 접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계는 특이하게 작고 낮은 두 개의 뿔처럼 조각되었으며 역시 따로 만들어 꽃았다. 전체 재질은 나무지만 보발과 갑옷의 일부, 벨트 장식 등은 진흙으로 마감하여 섬세하게 조각하였으며, 결구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못으로 고정하였다. 즉, 소슬무늬나 머리카락, 허리띠 문양 등 정교하고 세밀함이 필요한 작업은 흙으로 빚어 표현력을 극대화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체를 나무로 만들고 부분적으로 진흙을 이용하여 섬세함을 높였으며 그 위에 채색을 하였는데, 현재의 채색은 원래의 것은 아니며 뒷면은 나무가 그대로 보여 채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이외에, 부분적으로 다리 아래부분에 직사각형의 덮개(28cm×9cm)가 발견되는데 이는 복장물을 별도로 넣은 구조인 점에서 흥미롭다.

사천왕이 앉아 있는 의자는 여러 개의 나무를 잇댄 단순한 구조로서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성이 고려되었으며, 현대에 새로 고친 흔적도 발견된다. 천왕의 발밑에 있는 악귀들 역시 접목조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철못을 이용하여 결구하였다.

조각으로 남아 있는 가장 이른 조선시대의 사천왕상은, 1515년(중종 10)에 제작된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이며(도2), 천왕문 입구에서부터 양쪽으로 용과 여의주를 든 동방지국천왕과 칼을 든 남방증장천왕, 안쪽으로 보당과 탑, 비

파를 든 사천왕의 서방과 북방다문천왕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구조와 배치법은 이후에도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어 17세기 사천왕상들은 거의 모두 이 형식을 따르고 있다.

불갑사 사천왕상의 구조와 배치 역시 조선후기 천왕문에 서 있는 사천왕상의 가장 일반적인 배치이다. 즉, 천왕문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 안쪽에는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 다시 입구에서 왼쪽에는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천왕 그 안쪽에는 탑과 보당을 든 서방지국천왕이 봉안되어 있다. 조선후기 천왕문에 봉안된 사천왕상은 거의 이 방위와 형식을 따르고 있다. 다만,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의 경우, 천왕문의 입구에서 좌우에 탑과 용, 여의주를 든 상이 배치되었고, 그 안쪽으로 비파와 칼을 든 사천왕이 있어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도2.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조선, 1515년>



북방다문천왕(비파)



서방광목천왕(보당과 탑)



남방증장천왕(용과 여의주)



동방지국천왕(칼)

<도3. 천왕문 입구에서 바라본 불갑사 사천왕상>

사천왕의 존명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쓰여진 묵서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628년 순천 송광사의 사천왕상에서 비파를 든 사천왕의 봉함목에서 북방이라는 묵서가 발견되었으며, 직지사 사천왕상에는 북장유물에서 발견된 경전에 ‘西方天王’과 ‘北方天王’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칼을 든 천왕에서는 ‘東’이라는 묵서가 발견되었다(도4). 마곡사 천왕문의 사천왕상에서도 칼을 든 동방천왕 내부에 ‘東’이라는 묵서가 쓰여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비파를 타는 천왕은 북방다문천왕, 검을 쥔 천왕은 동방지국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남방증장천왕, 탑이나 보당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임이 확실하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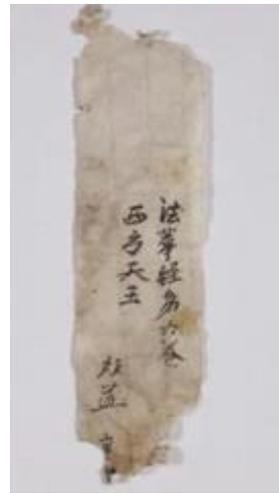
사천왕상의 이러한 구성은 중국의 원과 명, 그리고 조선전기의 사천왕상 도상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 1314년에 번역된 <藥師琉璃光王七佛本願功德經念誦儀軌供養法(약사칠불의괘공양법)>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東’



북방천왕



서방천왕

<도4. 직지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방위 관련 기록>

○ 참고문헌

- 노명신,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 한국미술사학회, 1994.
- 임영애,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방위문제와 조성시기」,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

○ 현 상

불갑사 천왕문에 봉안되어있는 조사대상인 사천왕상은 불갑사를 중창한 설두선사(1824~1889)가 고종 7년인 1870년에 전라북도 무장의 폐사인 연기사(烟起寺)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불갑사 사천왕상은 전체 높이가 450cm에 이르며, 사천왕 자체의 크기도 350cm 내외로 대형에 속한다. 사천왕 중에는 ‘南左天衣’와 화염문의 뒷면에 방위가 표시된 목서가 발견되어 사천왕의 존명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 이는 제작과정에서, 혹은 사천왕을 해체하여 옮겨오는 과정에서 부재들이 섞이지 않도록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998년 태풍으로 인해 사천왕상이 파손되면서 사천왕상 일부에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일부는 도난된 상태였지만, 1453년 전라도 고산 화암사에서 간행된 『지장보살본원경』, 1670년에 발간된 <수륙의문> 등 전적 44종 51책이 발견되었고 이중 33건 46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중 1670년 <수륙의문>이 사천왕상의 조성에 즈음하여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 내용 및 특징

천왕문에 봉안된 불갑사 사천왕상은 진입하면서 볼 때 오른쪽에 칼을 든 상, 그 안쪽에 비파를 든 상 그리고 반대편 바깥쪽에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과 안쪽에 보당을 든 천왕이 배치되어 있다.[도1]



<도1.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좌로부터 북방, 동방, 남방, 서방천왕)>

이러한 배치는 조선시대 사천왕 배치의 일반적인 법식이다. 사천왕은 모두 의자에 앉아 갑옷을 입었으며, 발 아래에는 두 구씩의 악귀들을 배치했는데, 오른발 밑의 악귀는 누운 자세에 팔다리를 쭉 뻗고 누워있는데, 엎어져 있거나 하늘을 바라보며 누운 형상이다. 왼발 쪽 악귀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천왕을 발을 받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악귀들은 현재 일반화된 한국 도깨비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선시대 도깨비 도상의 형성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생각된다.[도2]



<도2. 조선시대 도깨비 도상의 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불갑사 천왕문의 다양한 악귀들>

천왕은 모두 보살이 쓰는 보관과 유사한 형태의 높은 관을 쓰고 있는데, 관대에는 넝쿨문을 그려 넣고 그 위에 철사로 비친, 측면의 꽃장식, 원형 꽃장식, 모란, 구름, 화염보주문 등의 장엄을 부착하였다. 보관 옆에는 3가닥의 U자형의 띠가 서로 교차되며 펠럭이고 있다. 또한 보살처럼 얼굴 양쪽으로 머리카락이 귀를 타고 흘러내려 어깨 위에 몇 가닥이 드리워져 있다.

천왕의 얼굴 윤곽은 방형의 넓적한 형태이며, 짧지만 크고 몽툰한 코, 긴 입술에 윗니 전체, 혹은 앞니를 살짝 드러낸 형태, 부리부리한 눈, 이마의 주름살 등이 특징이다. 이러한 천왕들의 표정은 겁을 주는 듯하면서도 익살스런 분위기를 연출한다.

몸에는 화려한 갑옷을 걸쳤으며, 그 위로 천의 자락이 바람에 펠럭이듯 위로 둥글게 치켜 올라가 있다. 그 위로는 불꽃모양의 화염문을 조각하였다. 갑옷의 양 어깨에는 귀면 장식이 있고, 목에서부터 가슴을 가린 흉갑에는 소슬무늬로 장식하였는데, 이 부분은 정교하게 흙으로 만들어 붙였다. 요대 역시 진흙으로 제작하였는데, 여러 개의 방형판을 연결해 만든 요대를 모델로 만들었으며, 각각의 방형판에는 학, 국화, 문자 등 문양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또한 이 요대를 뿔이 하나 달린 귀면이 버클처럼 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서방과 남방천왕은 이 귀면에 달린 고리에 동물가죽 형태의 술 장식이 달려있다.

별도의 부재로 만들어 붙인 천의의 뒷면에는 ‘南左天衣’ 등의 명문이 발견되었으며, 다른 천왕에도 비슷한 글씨가 남아 있다. 즉, 따로 만든 천의를 천왕에 이어 붙이면서 헛갈리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천왕의 복식도 ‘천의’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조선후기의 사천왕은 목조, 혹은 소조로 조성되었는데, 대체로 측면으로 나누어 여러 단면을 서로 이어붙인 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귀 부분이나 머리 부분의 앞

뒀면, 갑옷의 사이사이로 결구한 흔적이 보인다.

사천왕이 앉아 있는 의자는 여러 개의 나무를 잇댄 단순한 구조로서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성이 고려되었으며, 현대에 새로 고친 흔적도 발견된다. 천왕의 발 밑에 있는 악귀들 역시 접목조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철못을 이용하여 결구하였다.



○ 조사내용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은 여러 편의 나무를 접목해서 조성한 목조사천왕상이며, 제작시기는 17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불갑사 사천왕상은 1876년 雪竇大師(1824~1889)가 전북 무장 소요산의 연기사터에서 배와 육상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불갑사로 이운해온 것으로 전한다. 사천왕상 이운과 관련하여 설두대사와 영광 고을 수령과의 얽힌 관련된 재미있는 연기설화가 전하고 있다. 이 사천왕상은 2013년 전체적인 수리와 개체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동방천왕의 다리 뒤에도 ‘부산시 부산진구 금정동 3통 850번지 화공 김영찬’이라는 기록과 서방광목천왕의 치맛자락 안쪽에도 매직으로 ‘서우’, ‘서좌’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2013년 이전에도 한 차례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전반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 전란으로 황폐해진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국가기반시설 복구에 힘을 쏟았고, 사찰도 승려를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합심하여 재건사업에 온 힘을 기울렸던 시기이다. 당시 동시다발적으로 대단위 건설, 토목 공사와 불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사의 주재료였던 나무는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17세기 전반에는 나무를 대신하여 흙으로 예배 존상을 많이 만들었고, 순천 송광사나 완주 송광사, 구례 화엄사, 여수 흥국사, 보은 범주사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사천왕상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17세기 후반 차츰 나무의 수급이 나아지면서 불상의 재료 역시 흙에서 나무로 옮겨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불갑사 사천왕상은 이러한 일련의 시대적 상황과 사천왕상 재료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기년명 사천왕상으로는 1624년의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과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이 있으며, 이외에도 범주사 소조사천왕상과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이 등이 같은 시대적 양식과 배경을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이들 네 곳의 사찰은 벽암 각성이 중창한 사찰로 그의 문도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사천왕상을 만들었거나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불갑사 사천왕상은 17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원래 봉안된 사찰은 변산반도에 자리 잡은 소요산 연기사이다. 17세기

후반 전라도 일원에서 활약한 조각승 중 크게 두각을 나타낸 조각승은 색난, 금문, 마일, 단응 정도가 눈에 띈다. 이들 조각승 사천왕상을 제작한 조각승은 단응 작품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단응의 작품과 비교해 볼 때 단응의 작품이 세장한 장신형의 경향을 보이는 것과 얼굴묘사에서 차이가 있다.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북)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동)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서)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남)

<도1.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



수리 전 증장천왕



수리 전 광목천왕



수리 전 지국천왕



수리 전 다문천왕

<도2. 영광 불갑사 사천왕상 수리전>

불갑사 사천왕상은 17세기 전반기에 조성된 사천왕상의 주된 소재가 흙이 것에 반해, 여러 조각의 나무를 결구해서 만든 사천왕상이다. 정확한 조성연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나무의 소재가 등장하는 것이 17세기 중엽이후이기 때문에 이 사천왕상도 17세기 중엽 이후에 제작된 상으로 판단된다.

사천왕상의 배치는 대웅전 쪽에서 바라봐서 왼쪽 상단에 비파를 든 사천왕을, 아래쪽에 보검을 든 사천왕이 배치되었고, 오른쪽 상단에 당탑을 든 사천왕을, 아래쪽에 용과 여의주를 쥔 사천왕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조선 후기 통상의 사천왕상의 배치법을 따른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비파를 든 사천왕상의 안쪽 하단부에는 ‘北方’이라는 묵서명이 남아 있고, 보검을 든 천왕의 치마 뒷면에는 ‘東方’이라는 방위명이 적혀있다. 적어도 조선 후기에는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양산 통도사 사천왕상이나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75년)의 사천왕상, 마곡사 석가모니괘불도(1687년)의 사천왕상, 천은사 아미타회상도(1776년) 사천왕상 등 작품에 방위명이 남아 있는 여러 사례에서 모두 비파를 든 사천왕상은 북방다문천, 보검을 든 천왕은 동방지국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남방증장천왕, 보당과 보탑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천왕상은 머리에는 꽃과 화염, 봉황, 비천 등으로 장엄된 관을 쓰고 있다. 보관의 입면은 조선 후기 보살상이 쓰는 보관과 마찬가지로 꽃잎형으로 설계되었고, 두 장의 꽃잎 관을 앞뒤에서 붙여 원통형 보관을 만들었다. 보관의 좌우에는 S자로 나누기는 이중의 관대가 부착되었다.

넓적한 방형의 얼굴에는 눈은 크게 떠 부라렸고 코는 큼직한 주먹코이다. 북방과 서방은 입을 벌려 심상찮은 미소를 표현하였고, 동방과 남방은 입을 양다물어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다.

사천왕은 평상복 위에 갑옷으로 무장하였는데, 상반신은 甲身, 어깨위의 怪獸面, 어깨와 팔을 보호하는 被縛, 팔꿈치 아래를 보호하는 臂甲을 찼고, 하반신은 허리 이하 대퇴부를 보호하기 위한 甲裙과 그 밑으로 앞부분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鵠尾를 착용하였다. 손에는 각 천왕을 상징하는 지물을 들고 있으며, 머리 뒤에는 화염광배가 표현되었다. 특히 남방천왕과 서방천왕의 허리에는 귀면의 코에 건 獸皮形 장식이 드리워져 있다. 이러한 수피형 장식은 불화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북방천왕의 비파와 함께 원대 티베트 불교미술과 관련된 도상으로 이해된다.

각각의 사천왕상은 2구의 악귀를 동반하고 있다. 악귀 중 한 구는 의좌세로 앉은 사천왕상을 왼쪽 발을 받쳐 든 모습이고, 다른 한 구는 드러누운 채 사천왕상의 오른 발에 밟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도3. 동방천왕의 악귀>



<도4. 남방천왕의 악귀>

17세기 후반의 뛰어난 수작임이 분명하나, 아쉬운 것은 조성과 관련된 기록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현재 일괄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복장유물은 대체로 15세기에서 17세기 중엽 경에 간행된 불서들이며 이후의 시기의 것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사천왕상의 제작과 더불어 납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천왕상의 하한연대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여기서 간기가 있는 전적 중 연대가 가장 올라가는 것은 1441년 전라 고산 화암사판 『묘법연화경』이며, 가장 연대가 내려가는 것은 1670년 전라 태인 운주사간 『묘법연화경』 권1과 『수륙의문』이므로, 167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 사천왕상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양식적으로도 17세기 전반기의 중량감 있는 볼륨감에 당당한 체격을 갖춘 사천왕에 비해 몸집이 정제되어 균형 잡힌 장신형으로 조형감각이 변모된 점과 좁고 높은 화형 보관을 쓰고 있는 점은 17세기 후반기 조각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洪川 壽陀寺 塑造四天王像)

가. 심의사항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4.2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9.7.~'23.10.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강원도 유형문화재(1998.9.5. 지정)
- 명 칭 :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洪川 壽陀寺 塑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수타사
-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수타사로 473, 수타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3.2m
-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1676년(조선 숙종 2)
- 제작자 : 여담(汝湛) 등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수타사가 위치한 홍천 공작산은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貞熹王后(1418~1483)의 태를 묻은 곳으로 실제 수타사에는 월인석보를 소장하고 있어 왕실과 관련된 능묘사찰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천왕을 봉안한 전각인 봉황문은 1674년에 조성되었으며 1676년에는 사천왕상이 조성되었음이 1688년에 쓴 <수타사사적>을 통해 확인된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300cm 규모로 17세기에 제작된 다른 사천왕상에 비해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역동성과 정교한 기술을 보인다. 재료는 흙과 나무를 이용한 소조상이며, 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피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부위에 따라 사용하고 특히, 강원도 지역의 특성 있는 나무를 사용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더한다.

사천왕의 형상은 앉은 자세에 두 구의 생령좌를 밟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를 따랐지만 구성과 배치는 이례적이다. 즉, 봉황문의 향우측에는 검을 든 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상, 그리고 반대편으로 비파를 든 천왕, 몽구스와 당을 쥔 천왕상을 배치하였다. 이는 동-남-서-북의 순서로 일반적인 사천왕상(북-동-남-서)과는 다른 배치인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각 사천왕의 방위와 지물은 같지만 위치만 다른 것으로 차별화된 배치 형식은 능가사 사천왕상에도 남아 있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강원도에서 조성된 유일한 사천왕으로 봉황문과 사천왕상의 정확한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외에도 세부적인 정교성, 풍부하고 섬세한 표정, 보당과 허리에 몽구스를 잡고 있는 서방천왕의 지물 등이 특징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은 도상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화엄사 계통의 도상을 따르고 있으나, 정교함의 측면, 다양한 장엄적 요소의 적극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존 가장 화려한 사천왕상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수타사사적기』를 통해 1676년(숙종 2)에 승려 여담(汝湛)이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작품성으로 보아 여담은 매우 뛰어난 조각승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활약상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럼에도 사적기에 의해 1676년이라는 제작연도를 알게 되어 기준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이 봉안된 문은 천왕문이라는 명칭 대신 봉황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서향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 문의 실제 좌향과 무관하게 남향한 천왕문을 염두에 두고 사천왕을 봉안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수타사는 서향한 것에 맞춰 사천왕의 배치를 조정한 특수한 예에 속한다. 고흥 능가사의 경우도 북향한 천왕문의 방위에 맞춰 천왕상의 배치를 조정했지만, 동방과 서방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는 점은 아직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그에 반해 수타사는 서향을 염두에 두고 천왕상의 위치를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린 것에 해당하며, 논리적으로 부합한 배치를 보이고 있다.

수타사 천왕상들은 조선후기 사천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부분의 장엄적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사용되어 매우 화려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갑옷 문양이나 갑옷에 걸친 수식의 세부 묘사가 매우 입체감 있고 정교해서 실제로 끈을 묶고 천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북방다문천왕의 경우는 수염을 얇은 부조로 표현하거나 채색으로만 그려 넣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수염을 실제로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북방다문천이 들고 있는 서수(瑞獸)도 사자를 표현한 듯 풍성한 갈기가 얼굴 주변에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사찰 천왕문에서 확인되는 서수 표현에 비해 입체적이고 풍만하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른 사찰의 천왕문과 차별화되는 수타사 사천왕의 특징들이다.

사천왕 아래의 악귀들도 매우 섬세한 기법으로 조성되었는데, 북방다문천왕처럼 수염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신체가 드러난 경우에는 근육과 골격의 표현을 어느 정도 해부학적 사실성에 근거를 두고 표현했다. 또한 귀 뒤에 뿔처럼 솟은 머리칼의 모습은 고려~조선시대 시왕도의 지옥형벌장면에 등장하는 옥졸들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인데, 사천왕 악귀 도상이 이러한 옥졸과 연관이 있으며, 점차 도깨비 도상의 근간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밖에 사자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악귀는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도상에서 기원한 것이고,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더의 도상으로도 쓰였으며, 불교문화권에서는 금강역사를 표현하는데 쓰였다. 한국에서는 특히 헤라클레스의 도상이 점차 도깨비 도상의 기원이 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한 추정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도상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정형성을 지니면서도 정교함에 있어서는 정형성을 뛰어넘은 수타사 사천왕상은 천왕문의 좌향에 따라 네 천왕의 위치가 변동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등 중요한 공간개념 문제까지도 관련이 있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더 깊이 연구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수타사 사천왕상은 사적기를 통해 1676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이며, 조각승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여담이라는 제작주체를 알 수 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 현전하는 유일한 사천왕상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조각사적 의미가 있다.

4구 모두 흙으로 빚어 만든 塑造像답게 생동감 있는 얼굴 묘사와 자연스러운 동작, 그리고 갑옷에 표현된 문양과 여러 모티프들이 빈틈없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 17세기 후반 사천왕 중 단연 돋보이는 의장성을 보인다. 특히 사천왕과 함께 조성된 생령인 야차 8구가 온전히 전하고 서방광목천왕의 지물인 獅子形 瑞獸는 17세기 전반기 몽구스에서 변천한 것으로 보이는데, 몽구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소멸해 가는 도상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조선 후기 일반적인 사찰의 사천왕상 배치법과 달리 사찰입구에서부터 우측에 남방·동방, 좌측 서방·북방의 사천왕상을 하였는데, 이는 고려시대 이전에 등장하는 古式의 사천왕상의 배치법을 따르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후기 사천왕상은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에 분포하며, 강원 지역에 조성된 사천왕상으로는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이 유일하여 희소성이 있다.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은 문헌자료를 통해 제작연대가 1676년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상이기에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형식과 양식 변천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더불어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은 상의 규모는 작지만 안정감 있고 균형 잡힌 자세를 보여준다. 특히 얼굴은 가소성이 뛰어난 흙이라는 재료의 장점을 잘 살린 모델링이 일품으로 천왕의 생생한 표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은 조각적으로 매우 우수한 작품이며, 조선후기 사천왕상 중에 잘 보이지 않는 형식적, 도상적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어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내 력

홍천 수타사(壽陶寺)는 9세기를 전후하여 창건된 사찰로 추정하고 있다. 원래의 사찰명은 일월사였으며, 선조 연간(1567~1572)이나 혹은 1530년 이전에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수타사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수타사가 위치한 홍천 공작산에 관한 기록은 조선시대에 많이 남아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황비 이씨(貞熹王后 李氏, 1418~1483) 즉 정희왕후의 태를 공작산에 묻었다고 하였으며, 실제 수타사에는 월인석보를 소장하고 있어 왕실과의 관련성을 입증한다(도1).



<도1. 월인석보>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조선전기 세조가 세종의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세조 자신이 지은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합편하여 1459년(세조 5)에 간행한 불교 대장경이다. 수타사 소장의 『월인석보』 권 17·18은 1950년대 수타사 동방지국천왕상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신문 기사에서 밝힌 적도 있다(1957년 5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

수타사 소장의 1688년(숙종 14) 승려 정원(淨源)이 편찬한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이하 『수타사 사적』)에는(도2) 수타사의 창건과 중수 및 중건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사찰의 주요 전각들을 비롯하여 범종 및 소조사천왕상 등을 조성한 사람이나 조성시기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적혀 있다. 즉, 1674년(효종 15) 법륜(法倫) 사문이 봉황문(鳳凰門)을 새로 조영하고

(‘次召法論沙門新建鳳凰門康熙十三年甲寅也’), 2년 뒤인 1676년(숙종 2) 여담(汝澗) 사문이 주도하여 사천왕상을 조성하였다고 기록하였다(‘有沙門汝澗 塑成四天王康熙十五年丙辰也’). 따라서 1688년의 『수타사 사적』을 통해 천왕문인 봉황문과 소조사천왕상이 각각 1674년과 1676년에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다. 현재 수타사 입구에는 봉황문이라는 명칭의 전각이 자리하고 내부에 소조사천왕상을 봉안하고 있다(도3).



수타사 사적 표지



수타사 사적의 천왕문 관련 기록

<도2. 수타사 사적>



<도3. 수타사 봉황문>

○ 내용 및 특징

수타사 사천왕상은 높이 356~380cm로 조선후기 사천왕상 가운데는 작은 편이지만 강원도 지역의 유일한 소조사천왕상이다(도4, 도5). 크기는 작지만 안정감 있는 비례와 역동적인 자세를 갖추었다. 이들 사천왕상은 의자좌에 앉아있고, 발 아래로 악귀형 권속이 천왕상의 발을 받치거나 바닥에 엎드려 제압당하고 있다. 머리에는 나무로 만든 보관과 양 측면으로 관대를 늘어뜨렸으며, 보관의 표면에는 용, 봉황, 구름, 꽃, 화염문 등을 별도로 만들어 꽃아 매우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방형의 큰 얼굴은 유난히 크게 부릅뜬 눈, 벌렁거리는 주먹코, 얇은 입 등으로 무서운 인상이다. 그러나, 사천왕상 마다 벌리거나 짝 다문 앞, 눈이나 수염 등을 달리 조각

하여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칼이나 비파를 든 천왕상의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덩수룩한 수염 표현은 매우 독특하다. 착의법은 갑옷 위에 천의를 둘렀으며 목에는 스카프를 매고 하반신에는 군의를 입었다. 천의는 머리 뒤에서 둥글게 말아 마치 광배와 같은 효과를 주었으며 바닥에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갑옷은 가슴, 어깨, 팔뚝, 허벅지, 정강이에 착용하였고, 짐승얼굴이 허리띠를 물고 있으며 비파를 든 천왕상은 허리띠 아래로 수피장식이 바닥까지 길게 늘어졌다.



<도4. 수타사 봉황문 소조사천왕상>



비파



당과 몽구스



용과 여의주



갈

<도5. 수타사 소조사천왕상과 지물>

사천왕의 구성은 봉황문의 향우측에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상, 검을 든 천왕상, 그리고 향좌측에는 보당과 몽구스를 쥔 천왕상, 비파를 든 천왕상이 위치하여 일반적인 사천왕상 배치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같은 배치는 수타사 사천왕만이 아니라 능가사 사천왕에도 보이는 특징이다. 즉, 각 사천왕의 위치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조선후기의 사천왕과 같이 검을 든 동방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천왕, 보당과 몽구스(또는 보탑)를 쥔 서방천왕 그리고 비파를 치고 있는 북방천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지물은 서방천왕이 왼손에 보당을 잡고 오른손은 허리에서 몽구스의 목을 잡고 있는 점이다(도6). 몽구스가 있는 사례는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28년),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1632년경)에서도 찾을 수 있다. 몽구스는 인도의 북방천인 쿠베라의 지물로 등장하며 원대의 경우 다문천왕이 몽구스를 들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재신(財神)의 의미를 가진다.



보당(산개)



몽구스

<도6. 보당과 몽구스>

제작기법은 목심으로 골격을 구성하고 그 위로 새끼줄을 두른 후 흙을 붙여 성형하였다. 천왕상이 앉아있는 의자부터 튼튼하게 구조를 짠 후 그 위로 접목식 목심으로 골격을 세웠다. 사천왕을 받치는 의자는 4개의 기둥을 세워 의자처럼 구성하고 마룻바닥을 통과하여 지면과 닿아있고, 사천왕의 목심 형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두 다리 사이로 드리운 균의자락은 외가지를 우물 정자 형태로 엮은 골격을 사용하였다. 박락된 흙덩이나 등판에 드러난 소조층을 볼 때 소조층 두께가 매우 두꺼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방천왕상의 의자 목재에 대한 연륜연대 분석을 통해 1675년 전후로 시기가 밝혀졌으며 이는 사적기에 기록된 1676년 제작설과 일치한다. 또한, 천왕상 목심 수종은 주로 소나무이고, 의자 상판의 가로대는 상수리나무, 다리 사이 늘어지는 옷자락은 졸참나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머리 뒤에 솟구치듯 올라온 천의의 가장자리 화염장식은 피나무를 사용하였는데 피나무는 강원도지역에서 주로 자라나는 나무로 주목된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변화와 생동감 있는 얼굴 표정, 수염 표현, 한 손에는 보당과 다른 손에는 몽구스의 목을 잡고 있는 서방천왕의 지물, 매 단 입체적인 수피와 요의의 다양성, 은 낮고 앞면에 초문과 조각된 신발(혜)의 형태 등으로 특징을 정리 할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의 사천왕상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갑옷의 표현이나 생령좌의 악귀 표현 등에서 세부적인 정교성을 보인다. 사천왕의 배치에 있어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사천왕 배치방식과 다르며, 다른 사천왕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발 형태와 지물로 잡고 있는 몽구스 등 도상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요소들이 나타나 있다.

□

○ 현 상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이 봉안된 천왕문은 특이하게 봉황문이라 불리고 있다. 『수타사사적기』에 의하면 이 문은 1674년(강희 13)에 승려 법륜(法倫)이 세웠는데,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축이며, 수타사의 가람의 좌향과 같은 서향으로 세워졌다.[도1] 이어 사천왕상은 1676년(강희 15)에 승려 여담(汝湛)이 조성하였다고 한다. 다른 사찰들과 달리 사천왕의 배치가 진입하는 위치에서 보면 우측 안쪽부터 동방지국천과 남방증장천, 좌측 안쪽부터 북방다문천과 서방광목천이 자리잡고 있다.[도2] 이는 일반적인 조선후기 천왕문에서는 우측에 북방·동방천왕, 좌측에 서방·남방천왕이 배치되는 것에 비해 반시계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배치의 특이점에 대해 수타사가 서향의 좌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향한 가람배치에서의 사천왕 배치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하동 쌍계사의 경우도 서향에 가깝지만 일반적인 사천왕 배치를 보여주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배치는 수타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도1. 홍천 수타사 봉황문>



<도2. 차별화된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의 배치>

북방천왕은 진입시점에서 보자면 좌측 안쪽에 위치하며, 비파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을 따랐다.[도3] 착용한 보관은 상단이 일련의 화염 보주문으로 장엄되어 있는데, 보주가 완전히 둥그런 형태가 아니라 마치 연화화생하는 것처럼 보주를 받치고 있는 잎사귀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절반만 드러나 있는 점이 특징이다.[도4] 정중앙 정상부에는 봉황이 정면향으로 날개와 꼬리를 위로 추켜올린 상태로 올라가 있으며, 그 바로 아래에는 황룡(黃龍)이 S자형으로 구불거리며 우측으로 날아가듯이 표현되었다. 보관 우측에는 또 하나의 흰 봉황이 측면으로 표현되었는데, 아마 좌측에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그 주변으로는 다채로운 채색의 구름과 꽃이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보관 관대의 뒷면 좌우에는 2중의 S자형으로 휘날리는 붉은색 띠가 달려 있는데,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관 좌우에 달려 펼쳐지는 띠와 유사한 형태이다. 보관 아래로는 발제선을 따라 머리카락이 촘촘히 표현되어 있고, 좌우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어깨로 내려와 매듭지어진 후 펼쳐지는 모습은 보살상의 보발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강인한 모습이며 양쪽 눈썹이 입체감 있게 도드라져 있고, 미간은 얼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V자형 주름이 생기며 도드라져 있다. 또한 미간 아래 콧날이 시작되는 부분에도 1단의 주름이 있다. 이런 미간 표현은 수타사의 다른 천왕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코는 매우 뭉툭하고 크며, 콧구멍이 강조되었다.

북방천왕의 얼굴은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는 인상이며, 입술은 약간 벌려 이제 막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이 보인다. 특히 수염이 강조되어 있는데, 턱 주변으로 마치 해바라기처럼 넓고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이러한 수염은 주로 용왕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이기도 하다.



<도3. 북방다문천왕>



<도4. 북방다문천 두부와 상체 세부>



<도5. 북방다문천 허리장식>

목둘레에는 스카프가 감겨 있고, 그 아래의 흉갑은 거의 전면이 입체적인 소슬금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흉갑을 감싸고 있는 붉은색에 푸른 테두리를 지닌 긴 천은 끈으로 묶었는데, 끈의 꼬임까지도 정교하게 새겼다. 상박을 보호하는 상박갑도 입체적인 소슬금문으로 장식되었고, 상단 어깨쪽에는 사자가 갑옷을 물고 있는 형식이다. 상박갑 아래로는 옷자락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위로 넓게 솟아있다.



<도6. 북방다문천 요대 장식>

허리에는 붉은색에 금색 수가 놓인 넓은 천을 두르고 그 위에 정식으로 요대를 두르고 있는데 요대의 마디마다 용, 사자 등의 문양이 입체적으로 새겨졌고 금색의 채색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도5] 장식 부분은 마디별로 따로 만들어 붙인 듯 네 귀퉁이에 못을 박은 듯이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는데, 가장 끝단의 이 장식이 떨어져나간 부분을 보면 실제로 못 자리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보여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실제로 이 장식을 고정하기 위해 못을 박았음을 알 수 있다.[도6] 요대 중앙의 버클(帶鉤)은 용의 얼굴모양을 하고 있으며, 입으로 요대를 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버클 아래로 국화문의 원반 장식이 달려 있는데, 그 중앙에 사슬처럼 고리가 달려있고, 그 끝에 마치 용의 가죽처럼 보이는 동물가죽이 술 장식처럼 매달려 있는데 크기가 매우 커서 바닥에까지 길게 늘어뜨려져 천왕의 발이 위치한 앞쪽까지 나와 있다.[도7]

지물로는 비파를 들고 있는데, 오른손은 중지와 약지를 구부려 비파의 현을 튕기는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비파가 오른손에서 벗어나 양 무릎 사이에 걸쳐 있다.[도8] 현재는 비파가 아래로 매우 처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오른손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 언제부터 이탈된 것이거나 혹은 이 비파는 나중에 다시 만들어 올려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왼손의 중지와 검지만 굽어진 모습도 지관에서 현을 누를 때의 모습처럼 보인다. 손가락 끝부분은 손톱과 단차를 두어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비파에는 중간에 흰 칠이 된 부분에 코끼리 눈처럼 생긴 울림

구멍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비파는 목이 굽은 당비파인데, 줄 감는 부분 등은 단순하게 처리되었다.



<도7. 북방다문천 하체 세부>



<도8. 북방다문천 지물(비파)>

하체의 허벅지를 덮은 갑옷인 갑상(甲裳) 표면도 흉갑과 마찬가지로 소슬금문으로 장엄되어 있으며[도9], 정강이 부분에는 슬갑(膝甲)을 착용하였는데, 안에 착용한 바지로 슬갑의 상단을 덮고 끈으로 묶은 것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었다.[도10] 신발은 연주문으로 둘러싸인 원형장식이 촘촘히 그려져 있으며, 신발의 코끝은 여의두문으로 장식되었다.



<도9. 북방다문천 허벅지 안쪽 갑상>



<도10. 북방다문천의 슬갑과 신발>



<도11. 북방다문천 악귀(원발)>

천왕의 발 아래에는 악귀가 들어가 있는데, 오른발로는 악귀를 밟고 있고, 왼발은 악귀가 받들고 있다. 그중 왼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는 두건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비니 모자를 쓴 것처럼 표현되었다.[도11] 양쪽 귀 위로 머리카락이 뿔처럼 솟아있는 형식이며 미간에 V자형의 굵은 주름이 있는 것은 북방천왕의 얼굴 표현과 같다. 눈은 크고 둥글게 돌출되었으며, 입술은 양끝이 아래로 처진 호를 이루고 주변에 주름진 모습을 보아 꼭 다물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상체는 벗은 상태여서 노출되었는데 가슴 근육 등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팔뚝과 목의 힘줄, 젖꼭지 등이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바지를 입고 있으며, 허리에는 바지의 상단이 접힌 것이거나 혹은 넓은 천으로 묶은 옷자락이 반전되며 허벅지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오른발 아래 밟힌 악귀는 귀 위로 솟구친 머리카락이 없는 대신 정수리에 상투를 족두리를 얹은 모습이다.[도12] 왼발쪽의 악귀와 달리 소매가 긴 옷을 왼쪽이 위로 가게 여며 입고 있다. 얼굴의 표현은 비슷하지만 목 부위의 근육이 없고 얼굴이 더 가름하며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인데,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이 악귀는 여성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깨에는 긴 피건(被巾)을 걸치고 있는데 등 뒤에서는 바람에 나부끼듯이 위로 솟구쳐 있고 여기에 화염문이 붙으면서 광배의 역할을 하고 있다.[도13] 아래로는 바닥으로 흘러내려 둥근 호를 그리며 발 밑으로 흘러나와 악귀들의 아래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북방천왕은 현재 왼쪽 아래로 늘어진 피건 자락만 남아있다. 서방·남방의 천왕들은 좌우 양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북방·동방도 원래는 같은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도14]



<도12. 북방다문천의 악귀(오른발)>



<도13. 북방다문천 우측면>



<도14. 서방광목천>

서방광목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은 북방다문천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지만, 지물이나 채색, 표정, 악귀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북방다문천의 우측에 앉아

있는 서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우선 보관은 북방천왕과 유사한 구조이나 꽃모양 장식
식이 더 많이 남아있고, 봉황은 황색이며, 보관 중앙에 황룡이 있는 것은 북방천
왕과 같다.[도15] 그러나 고개가 정면향이 아니라 목을 비틀어 뒤를 바라보고 있
는 점이 다르고, 봉황도 용이 바라보는 쪽에 위치하여 북방천왕과 반대방향에 달
려있다. 이목구비의 표현도 북방다문천과 유사하지만 입을 더 크게 벌려 고향을
치려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네 천왕 중에서 유일하게 수염이 강조되지 않
은 것도 서방천왕의 특징이다.

흉갑의 문양도 북방천왕과 동일한 소슬금문이고, 금색으로 채색이 되었던 흔적
이 보인다. 그밖의 갑옷의 다른 부분도 북방천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옥대
를 물고 있는 귀면의 표현은 북방다문천이 얼굴표현에만 집중한 것에 반해 여기
서는 얼굴 주변의 갈기, 뿔 등을 더 상세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도16] 아마도
네 천왕 중에서 가장 섬세한 귀면대구가 서방천왕의 대구일 것이다. 특히 서방천
왕의 도상은 원래는 북방천왕의 도상에 기초한 것인데, 북방천왕의 도상 중에서
탑과 당을 든 도상 외에 몽구스와 당을 든 티베트 불교도상 계열이 있으며, 수타
사 서방천왕은 이러한 티베트식 도상 계열에 따라 탑 대신 몽구스의 변형으로 보
이는 사자처럼 보이는 동물을 오른손으로 잡아 허리에 품고 있는데, 이 동물의 얼
굴과 대구의 귀면 얼굴이 유사하여 의도적으로 어미와 새끼처럼 보이게끔 짝을
맞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도17] 또한 이렇게 탑 대신 동물을 잡고 있는 경우,
화엄사 서방광목천처럼 동물을 왼손에 품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서방천왕이 봉안
되는 위치에 따라 지물을 든 손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동물의
표현을 보면 갈기가 풍성하고 입체감이 있으며, 사자의 얼굴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이러한 도상의 사천왕 중에서 아마 가장 정교한 서수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15. 서방광목천 상체>



<도16. 서방광목천 하체>



<도17. 서방광목천 서수 세부>

옥대의 귀면대구 아래턱에는 매듭고리가 걸려있고, 이 고리에는 동물의 가죽 같은 것의 코에 꿰어 있는데, 그 위에 옷자락이 흘러내리면서 얼굴 부분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코 외에는 다른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도16]

한편 악귀의 모습도 북방천왕과 유사하여 왼발은 남성형 악귀가 받치고 있고, 오른발 아래에는 여성형 악귀가 밟혀있는 형식이다. 왼발쪽의 악귀는 상체가 완전히 나신이 아니라 가슴을 가로지르는 푸른색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이 다르다.[도17] 또한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며, 턱에는 수염이 마치 작은 돌기처럼 솟아나 있다. 악귀의 수염까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정교하게 표현한 것을 통해 수타사 사천왕이 얼마나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는지 짐작할 수 있다. 두 눈 사이의 미간에는 양감 있게 주름이 져있는데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마치 또 하나의 눈동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서방천왕의 양쪽에서 흘러내린 피건 자락은 마치 이들 악귀들을 휘어잡듯이 바닥을 감싸고 있다. 악귀들이 이 피건 자락에 휘감겨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도18]

다음으로 북방천왕 맞은편의 동방지국천왕을 살펴보면, 보관은 서방천왕과 유사하나 봉황은 청색이고 하단의 봉황이 중앙의 용에 밀착되도록 근접해 있는 것이 다르다.[도20] 흉갑을 감싼 띠를 묶은 끈은 다른 방위의 천왕의 경우 매듭이 보이지 않는데 동방천왕만 앞에서 매듭을 지은 것이 표현되었다. 다른 천왕들은 이 매듭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떨어져 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아서 동방천왕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도18. 서방광목천 좌측면> <도19. 서방광목천 악귀(왼발)> <도20. 서방광목천 악귀(오른발)>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은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점검하듯이 날 끝에 들고 있다. 칼은 손잡이와 날은 단순한 형태이고 코등이도 테두리에 둘레가 있는

궁글고 단순한 형식이다. 왼손과 칼날은 현재 철사 같은 것으로 이어져 있는데, 손가락에 박혀 있는 못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만, 철사와 칼날에 박힌 나사는 최근 것이어서 원래부터 이러한 고정장치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이 철사 부분이 느슨하게 매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다지 힘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대를 물고 있는 귀면대구는 귀가 유난히 축 처진 것이 눈에 띄며, 아래턱이 옥대 아래를 물고 있는 것이 강조되어 묘사된 것이 특징이다.[도23] 그 아래로는 허리를 감싼 천에서 나온 띠가 흘러내리다가 누운 8자매듭을 한번 지은 후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도21. 동방지국천왕>

<도22. 동방지국천 상체>

<도23. 동방지국천 하체>

동방천왕을 받치고 있는 악귀는 다른 천왕들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밟혀있고, 왼쪽은 천왕의 발을 받들고 있는데, 그 형태는 맞은편의 천왕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왼쪽은 머리에 동물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고, 가죽의 앞발이 양쪽 어깨로 늘어져 있다.[도24] 이러한 형태는 그리스 신화 속 헤라클레스가 사자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도상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사자의 갈기 등은 전혀 표현되지 않았고, 뒤쪽에서 보면 양쪽 귀만 표현된 간단한 형태이다.[도25] 이 악귀의 자세, 착의 등은 다른 천왕의 왼발을 받친 악귀들과 대동소이하다. 오른발 아래의 악귀도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배를 바닥에 붙이고 누워있는 자세 등이 다른 천왕의 악귀와 유사하다. 다만 머리 위에 족두리 같은 것이 없이 단순히 두건을 쓴 것 같은 모습이며, 얼굴도 더 투박한 모습에서 남성적인 인상을 준다.

그 옆의 남방증장천왕도 다른 천왕과 유사한 보관을 착용하고 있는데, 정면의 황룡이 정면향을 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며, 다만 용은 정면을 응시한다기 보다는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는다.[도26] 또한 연꽃과 그

안의 자방을 표현한 듯한 장식문양이 좌우에 보이는데, 이런 점도 남방천왕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얼굴 표정은 입술의 양끝이 아래로 쳐진 호형을 이루며 꼭 다물고 있으며, 입술 주변에는 수염을 묘사한 듯 돈을새김이 보인다.



<도24. 동방지국천 약귀(왼발)> <도25. 도24의 측면 세부> <도26. 남방증장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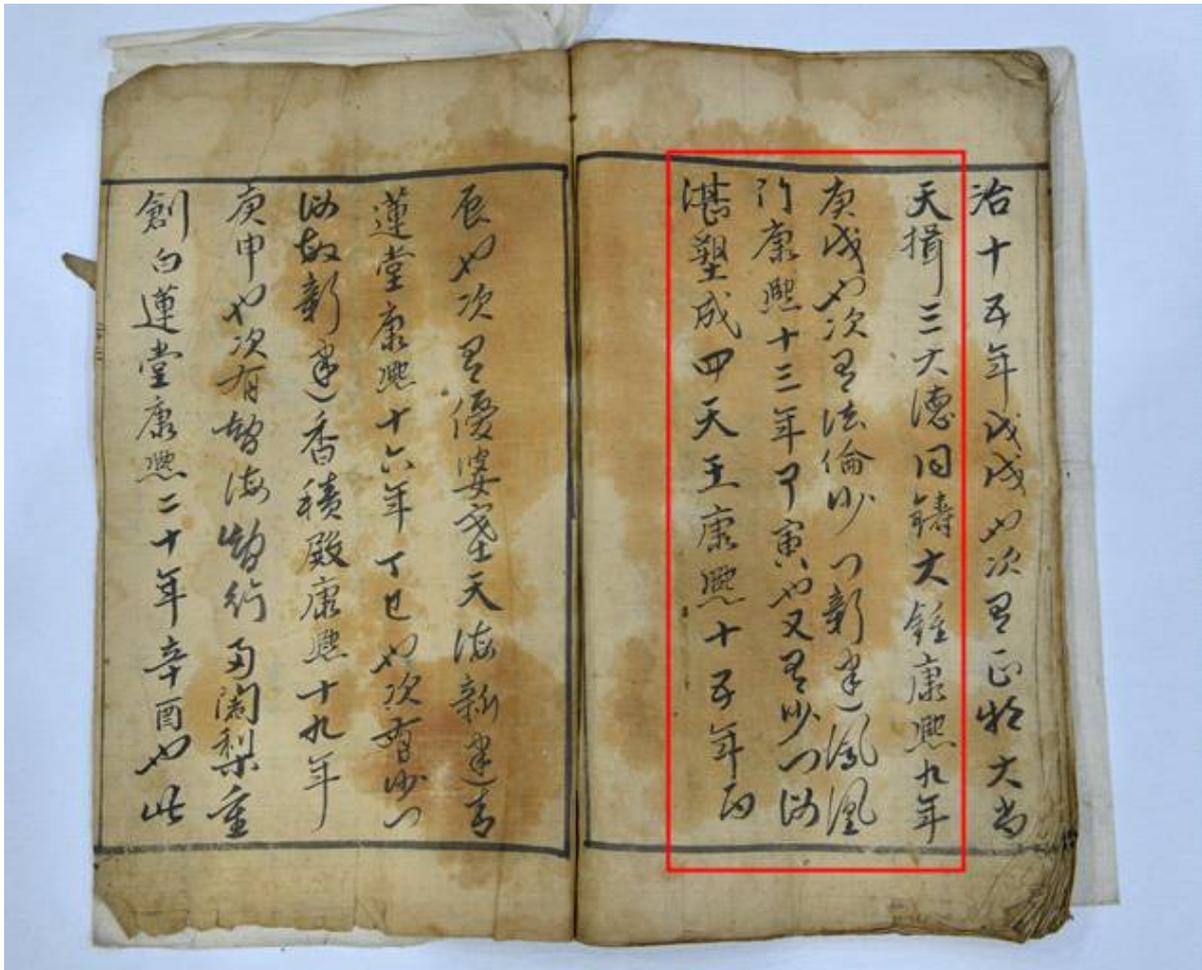
흉갑을 감싼 푸른색의 띠를 묶은 끈은 꼬임이 유독 정교하게 잘 남아있으며, 요대를 물고 있는 귀면대구의 아래턱에는 고리가 매달려 있고 이 고리에도 동물가족이 매달려 있는데, 요대 아래서 흘러내린 매듭자락에 의해 다른 부분은 덮여있어 동물의 코와 코에 꿰인 고리만 보인다.

지물로는 왼손에 용을 들고 오른손에는 여의주를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잡고 있다. 용은 팔뚝을 휘감으며 길게 어깨까지 이어져 있으며, 약이 바짝 오른 듯 포효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적이다. 발 아래의 약귀는 그 형식이나 자세 등이 다른 천왕들의 조합과 대동소이하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사진을 보면 수년전까지만 해도 현대적인 안료로 채색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현재는 거의 벗겨진 상태이다. 아마도 개금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현대적인 안료를 거둬 내고 고증을 위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 문헌자료

『수타사사적기』에는 법륜 스님이 강희 13년(1674)에 봉황문을 세우고, 강희 15년(1676년)에 여담(汝澗) 스님이 사천왕상을 조성하였다고 되어 있어 사천왕상의 조성연대와 조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

○ 조사내용

홍천 수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의 말사이다. 708년(성덕왕 7)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원래 일월사였다가 16세기대 사찰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수타사로 불렸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36년 工峯이 중건하고, 이어서 學俊, 戒哲, 道侗, 僧伽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중건, 중수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강원도의 명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천왕상은 鳳凰門에 봉안되어 있으며 1676년 汝湛 등이 조성하였고 사적기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1957년 사찰 측에서 실시한 해체수리 때 복장에서 1459년(세조 5)에 간행된 『월인석보』 권17·18이 발견되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사천왕상은 봉황문에 안치되어 있다. 현재 보존처리 공사 중에 있다. 최근에 칠해진 표면층의 채색이 제거된 상태이다. 표면에는 과거의 채색층 일부가 확인된다. 사천왕은 흙으로 빚어 만든 소조상이다. 사적기에 사천왕상의 조성과 관련된 기록

이 남아 있다. 즉 “鳳凰門康熙十三年甲寅(1674)也又召沙門汝湛塑成四天王康熙十五年丙辰(1676)也”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674년 봉황문이 건립되고, 2년 뒤에 이곳에 봉안될 사천왕상을 여담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담이 조각승인지 불분명하지만, 조선후기 사적기의 서술체계상 일을 주관했거나 재원을 마련한 화주승일 가능성이 크다. 수타사 사천왕상 외 여담이 조성한 불상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보당을 들고 있는 사천왕상 내부 기둥에서 ‘西方’이라는 묵서명이 확인되므로, 조선후기 등장하는 통상의 사천왕상 도상을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사천왕상의 배치는 입구에서 우측에 동-남, 좌측 서-북으로 배치하여 고려시대 이전의 고식의 사천왕상 배치법을 따르고 있다.

북 비파	주불전 방향	동 보검
서 당·동물	↑	남 용·여의

<표1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 배치도>

4구 모두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분노형으로 묘사되었으며, 불신에는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하지만 머리는 멋스럽게 틀어 올려 상투를 만들고 보살형의 보관을 착용하였다. 보관 아래로 보발이 노출되어 있으며 귀밑으로 두 가닥의 머리카락이 흘러 내려 어깨 위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관형태는 前高後低의 꽃잎형으로, 보관의 바탕에는 용봉문, 연화문, 모란문, 구름문, 화염문 등을 별도로 제작하여 표면을 장엄하였다. 천의는 머리 뒤를 둥글게 돌며 화염 광배를 이루었고, 양어깨를 걸쳐 속도감 있게 바닥까지 흘러내려 무대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수타사 사천왕상 얼굴(서)>

<동물형 지물(서)>

<세부표현>

몸에는 부위마다 그에 걸맞은 갑옷을 착용하였다. 어깨에는 용머리 장식이 있는 견갑을 착용하고, 목에는 경갑을 대신하여 스카프로 멧을 부렸다. 팔뚝에는 臂甲을 착용하였고, 가슴에는 胸甲을 착용하였다. 흉갑은 소슬금문을 넣어 산문갑을 형상화했고, 흉갑 위에는 요의 두르고 밧줄로 묶었다. 요의의 위아래 단을 파도치듯 주름 잡아 멧을 내었다. 팔꿈치 부근에는 토끼 귀 모양으로 솟구쳐 펄럭이는 전포자락이 표현되어 있다. 복부에는 鬼面으로 표현되어 있다. 동방천왕은 귀면이 腰帶와 긴 끈으로 표현된 綬環을 물고 있고, 나머지 천왕은 콧구멍에 고리를 끼운 獸皮를 물고 있다. 裳甲 위에는 요대를 두르고 긴 끈으로 묶어 늘어뜨렸다. 裳甲은 흉갑과 마찬가지로 소슬금문으로 새겨 넣었다. 종아리에는 脛甲을 착용하였고, 발에는 밑창이 낮고 구름 문양이 새겨진 목이 없는 신(鞋)을 신었다. 바지는 박고 형으로 정강이 부근에서 풍성히 흘러내린 바지 단을 끈으로 동여맸다. 각 사천왕은 2구의 야차를 생령좌로 삼고 있다. 1구는 왼쪽 다리 밑에서 사천왕상을 다리를 받쳐 들었고, 다른 1구는 발에 밟혀 버둥대며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야차는 모두 악귀형으로 표현되었으며, 동방지국천왕의 왼발을 받쳐 든 야차는 동물의 탈을 쓴 형상이다.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야차의 모습은 눈이 빨갛고 피는 검으며, 사자·용·당나귀 머리 등 온갖 동물의 머리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도상으로 잘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북방다문천의 눈은 인간적으로 표현되었고, 다른 3구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부라리고 있다. 광대뼈는 도드라져 인간적이며, 이마와 미간에는 등에는 분노의 주름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 코는 몽툰하게 처리하였으며, 코와 턱에는 수염을 호방하게 표현하였다. 손은 손바닥은 두툰하지만 손가락은 이 시기 다른 사천왕상에 비해 긴 편이다. 사천왕상의 손가락이 짧고 굵게 표현했던 것은 아마도 힘세고 거친 사천왕상의 모습에는 적합했을 것이다.

북방은 비파, 동방은 보검, 남방은 용과 여의주, 서방광목천왕은 왼손으로 삼지창이 달려 있는 당을 움켜잡았고, 오른손으로 허리춤에서 곱슬머리를 한 사자형 동물을 움켜쥐었다. 서방광목천왕의 동물형 지물은 일반적으로 몽구스(또는 寶鼠)로 알려져 있는데,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여수 흥국사 사천왕의 몽구스가 시기가 지나면서 변모된 것으로 생각된다. 동방지국천왕은 오른손으로 칼자루를 쥐고 왼손의 엄지와 검지를 집게모양으로 벌려 칼끝을 누르고 있다. 남방증장천왕은 왼손으로 용을 움켜잡았고 오른손으로 여의주를 쥐고 있다. 오른발로 악귀의 등을 밟았고 다른 악귀는 무릎을 꿇고 사천왕의 왼쪽 다리를 받쳐 들고 있다. 서방광목천왕은 오른손을 허리에 대고 몽구스(여기서는 사자로 보임)를 움켜쥐었고, 왼손으로는 당을 잡았다. 당의 정상부에는 2지창으로 마무리 하였다.



○ 내 력

강원도 홍천군 수타사에는 봉황문(鳳凰門) 안에는 1998년에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천왕상 4구가 봉안되어 있다(도1, 2). 봉황문 입구에서 사찰 안쪽으로 바라보았을 때 향좌측에는 왼손에 보당을 들고 오른손에 몽구스를 든 서방광목천왕과 양손으로 비파를 받쳐 든 북방다문천왕이 안치되어 있다(도3). 향우측에는 오른손에 칼을 쥐고 동방지국천왕과 오른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왼손으로는 용을 쥐고 남방증장천왕이 모셔져 있다(도4). 지물(持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조선시대 후기에 세워진 천왕문의 경우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향우측 안쪽부터 비파(북방), 검(동방), 용과 여의주(남방), 당과 탑(서방)을 든 천왕이 시계방향으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수타사의 경우 검, 용과 보주, 당과 몽구스, 비파를 든 천왕상으로 배치되어 있어 일반적인 배치에서 천왕상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씩 이동한 배치여서 특이하다.

봉황문 및 사천왕상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현재 수타사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관리 중인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이하 『수타사사적』)에 실려 있다. 이 책은 1688년 승려 정원(淨源)이 지은 것으로, 1권 1책의 목활자본이다. 여기에는 사찰의 주요 전각, 범종, 사천왕상 등에 조성자와 조성 시기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수타사사적』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타사는 우적산(牛跡山) 자락에 있던 일월사(日月寺)를 계승한 사찰이다.²⁴⁾ 1567년 경 현재의 위치로 이겼다고 전해지나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임진왜란 이후 1630년대부터 1680년대에 걸쳐 본격적으로 재건된 것으로 보인다. 약 50여 년 간 10여 동의 전각이 재건되었는데, 여기에는 봉황문(鳳凰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1674년(康熙 13년, 효종 15) 승려 법륜(法倫)이 봉황문을 새로 건립하였다고 한다. 사천왕상은 봉황문이 건립되고 2년 후인 1676년(康熙 15년 丙辰, 숙종 2) 승려 여담(汝湛)이 흙으로 빚어 조성하였다고 전한다(도5).²⁵⁾

24) 수타사의 창건 시기와 연혁에 관해서는 오세덕, 「조선시대 수타사의 불사 성격과 사찰의 위상」, 『江原史學』 36(2021), pp.171~178 참조.

25) 『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 제23면, “…次召法論沙門新建鳳凰門, 康熙十三年, 子寅也. 又召沙門汝湛塑成四天王, 康熙十五年, 丙辰也…”



<도1. 수타사 봉황문 전면>



<도2. 수타사 봉황문 배면>



<도3. 수타사 봉황문 내 향좌측 천왕상>



<도4. 수타사 봉황문 내 향우측 천왕상>



<도5.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 제23면>

○ 내용 및 특징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은 약 3미터에 달하는 크기로, 조선후기인 17~18세기에 조성된 현존하는 사천왕상 중 규모가 작은 편이다.²⁶⁾ 사천왕상의 크기는 상이 봉안되는 전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타사는 주불전인 대적광적 외에 부수적인 불전이 건립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할 때, 수타사의 가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봉황문의 크기도 그에 걸맞게 설계했고, 이에 따라 소조사천왕상도 전각의 규모에 비례하여 소형으로 제작된 것 같다.²⁷⁾ 현재 사천왕상은 와이어로 봉황문에 고정되어 있다. 제작기법 상 목심에 새끼줄을 감고 흙을 붙여 만든 후 그 위에 채색한 소조상이지만, 보관과 지물 등은 나무로 만든 후 채색한 것이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일반적인 조선후기 사천왕상과 마찬가지로의 형상과 자세를 보여준다. 사천왕상은 의자 위에 앉아 있으며, 양 발 아래에는 각각 1구씩 악귀상이 배치되어 있다. 오른쪽 발 아래에는 제압당한 악귀가 표현되어 있고, 왼 발은 악귀가 받들고 있다. 사천왕상은 원형의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은 상과는 달리 목재로 후 썩은 것이다. 보관의 표면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문양과 용, 봉황 등의 조각이 부착되어 있으며, 가장 위쪽에는 화염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보관의 양 옆으로는 관대가 늘어져 있다.

수타사 사천왕상의 상호는 이목구비가 유달리 크게 표현된 점이 특징적이다(도6). 소조라는 재료와 기법의 장점을 활용하여 모델링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세기 후반부터 많이 만들어진 목조사천왕상의 다소 경직된 얼굴 표정과는 대조적이다. 북방다문천왕은 눈을 반쯤 감은 모습이나, 나머지 세 천왕은 모두 커다란 눈을 부릅뜬 형상이다. 코 역시 매우 큰 주먹코 모양인데, 콧구멍이 잘 보이게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미간에는 주름이 잡혀 있어 찡그린 표정을 나타내었다. 입을 반쯤 벌린 서방광목천왕을 제외하면, 나머지 천왕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입꼬리가 아래쪽으로 처져 있어서 불만을 품은 듯한 모습이다.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에 보이는 크게 부라린 눈과 콧구멍이 보이는 주먹코, 꼭 다문 입은 1628년에 제작된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이나 1649년 조성의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의 표현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동방지국천왕과 북방다문천왕은 목제로 수업을 따로 제작하여 접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방증장천왕과 서방광목천왕은 수업을 덧붙이지 않고 얼굴에 채색을 하여 그려 넣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목과 소매, 종아리에 전포(戰袍)를 갖춰 입었으며, 그 위에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어깨에는 견갑(肩甲), 가슴에는 흉갑(胸甲), 배에는 복갑(腹甲), 허벅지에는 퇴갑(腿甲), 종아리에는 경갑(脛甲)을 착용했고, 팔뚝에는 쥘갑(肱

26) 1746년 제작된 서울 봉은사 목조 사천왕상이 전체 높이 2.3미터로 현존하는 사례 중 가장 규모가 작으며, 수타사의 소조사천왕상은 그 다음으로 크기가 작다.

27) 오세덕, 「조선시대 수타사의 불사 성격과 사찰의 위상」, 『江原史學』 36(2021), pp.181~183; 홍천군·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의 보수 및 단청에 관한 연구』(2022), p.41 참조.

甲)과 용수(龍手)를 착용하였다. 갑옷에는 모두 촘촘하게 짠 산문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산문은 소조나 목조라는 재료와 관계 없이 17세기 중후반에 조성된 사천왕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45년 조성의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이나 1649년 제작의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66년 조성된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1690년 조성의 청도 적천사 목조사천왕상에서 나타난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목 주변에는 포를 두르고 앞에서 가지런히 묶은 형상이다. 양어깨에는 천의를 걸치고 있는데, 이 천의는 머리 뒤쪽에서 뒤집어진 U자형 형태를 이룬다. 가장자리에는 화염 문양이 부착되어 있어 불보살상의 화염광배와 같은 형상이다. 수타사 사천왕상의 복식 중 신발은 조선후기 여타의 사천왕상과는 다르게 앞코가 넓고 납작한 형태의 혜(鞋)여서 특이하다(도6, 7).

수타사 사천왕상의 지물은 조선후기 여타의 사천왕과 유사하다. 그러나 서방광목천왕은 오른손에 몽구스의 목을 틀어쥐고 있어 특이하다. 몽구스를 든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다른 사례로는 1628년 조성의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과 1632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구례 화엄사 소조사천왕상이 있다.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다문천왕

<도5. 수타사 사천왕상의 상호와 보관 표현>



<도6. 동방지국천왕의 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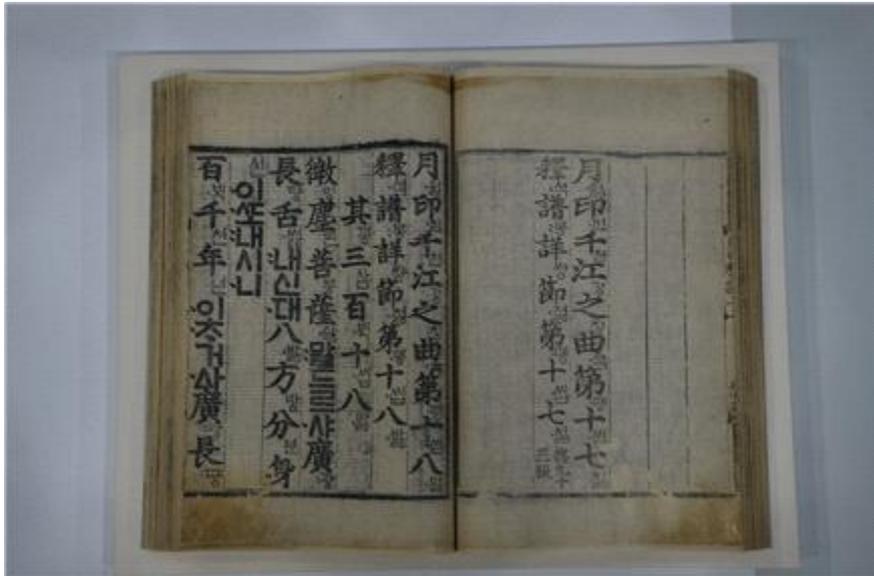
<도7. 서방광목천왕의 신발>

○ 참고문헌

- 노명신, 「조선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 1991.
- 오세덕, 「조선시대 수타사의 불사 성격과 사찰의 위상」, 『江原史學』 36, 2021.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 홍천군·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의 보수 및 단청에 관한 연구』, 2022.

○ 기 타

동방지국천왕 배 부분에서 복장유물로 월인석보 권17, 18이 발견되었으며, 현재 수타사정보박물관에서 관리 중이다(도8).²⁸⁾ 그러나 이 때에 발견된 여타의 복장유물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려져 있지 않다.



<도8. 수타사 동방지국천왕 내부 발견 월인석보 권17, 18>

28) 『동아일보』 1957년 5월 10일. 수타사 소장본은 보물 제745-5호로 지정.

8.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 (公州 麻谷寺 塑造四天王像)

가. 심의사항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22.1.13.)에서 사천왕상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2.10.2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3.9.7.~'23.10.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公州 麻谷寺 塑造四天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마곡사
- 수 량 : 천왕상 4구
- 규 격 : 최대 높이 3.97m
- 재 질 : 소조(나무, 흙)에 채색
- 형 식 : 의좌형(倚坐形) 사천왕상
- 조성연대 : 1683년(조선 숙종 9)
- 제작자 : 미상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1683년 소조기법으로 제작된 사천왕상으로 4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 정면을 바라보는 곧은 자세, 길쭉한 신체비례, 방형의 큰 얼굴과 해학적인 인상 등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마곡사 사천왕상은 조선후기 일반적인 사천왕상의 특징과 함께 마곡사 사천왕만의 독자성을 보인다.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내부에서 발견된 묵서기록을 통해 1683년(康熙二十三年癸亥)에 제작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마곡사의 사적기인 벽암후인월과당인영이 쓴 《마곡사적(麻谷寺蹟)》에는 1681년 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산전과 함께 천왕문이 건립되었으며 ‘裕敏之功開於天王門’라 하여 유민이 천왕문 건립에 공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천왕문에 있는 ‘泰華山麻谷寺天王門重修記’ 현판에는 1910년 금효약효에 의해 중수와 개채 불사가 이루어졌음도 확인된다. 따라서, 내부 묵서, 사적기 기록, 중수 및 개채 기록 등이 모두 확인되는 점에서 17세기 사천왕상 연구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천왕문의 좌우에 2구씩 모두 4구 천왕상이 낮은 의자에 앉은 자세로 안치되어 있다. 배치는 천왕문을 들어서서 전각 내부의 오른쪽에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과 검을 든 동방지국천왕, 왼쪽에 용·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당을 든 서방광목천왕이 있으며, 각 천왕상은 오른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봉안되었다.

4m에 가까운 장대한 크기에 목심을 만들고 흙과 짚, 새끼줄을 이용한 소조토를 사용하였으며 점점 더 정제된 흙을 이용한 세 번의 바름 등 정석적인 소조기술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17세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소조기법의 사천왕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 도판]



康熙二十三年 癸亥 三月 五日

<마곡사 서방광목천왕상의 내부 목서와 세부>



<마곡사 남방증장천왕상의 생령좌>



<‘東方’명 보관 화염장식>

○ (지정 가치 있음)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조선후기 소조로 조성된 사천왕상의 사례 중에서 보존 사례가 양호하고, 사천왕의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또한 조형적으로도 높은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후기 사천왕의 전형적인 지물을 반영하고 있으며, 악귀·도상들도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는 서방광목천왕이 보탑을 들거나 서수를 데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탑을 든 도상의 자세와 같지만, 보탑 대신 과일바구니처럼 보이는 지물을 들고 있어 특이하다. 서방광목천의 도상은 원래는 북방다문천의 도상이었고, 북방다문천은 재물을 관리하는 천왕이기 때문에 북방다문천이 들고 있는 보탑은 사리탑으로서의 탑이 아니라, 북방다문천이 지니고 있는 많은 재물을 담아 부처에게 보시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이 도상이 동아시아에 와서는 불탑이나 사리탑의 모습으로 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곡사 서방광목천왕은 이 보탑의 의미가 사리탑에 대한 공경이 아니라 다문천의 재물보시를 상징한다는 것을 밝히려고 한 듯 옆에 높은 떡거리를 들어 바치는 도상으로 변형되었다. 전형적인 도상에서는 벗어난 것이지만, 부처에 대한 공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천왕의 원래의 의미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옆의 남방증장천이 들고 있는 용의 여의주 역시 사과에 잎사귀가 달린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즉, 북방다문천이 공양하고 있는 물건이 단지 과일이나 채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의 여의주와 같은 진귀한 보물임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천왕의 도상은 다른 사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개념으로 인도에서 크샤트리아 계급(왕족)의 의무인 브라만(종교수행자)에 대한 보시의 의무를 불교에서 사천왕을 통해 널리 권선하고자 했던 개념을 정확히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마곡사에 보이는 인도불교적 특징들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마곡사 오층석탑 상륜부의 티베트식 청동불탑, 영산전의 과거7불의 봉안, 대광명전의 본존불이 부석사 무량수전, 나아가 보드가야 마하보디사당의 본존불처럼 동쪽을 향해 좌정한 점 등은 인도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북방다문천왕의 음식공양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평가될 수 있다.

천왕의 보관은 일반적으로 꽃과 구름, 용 등으로 장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연화화생하는 인물이 표현되어 있어 독특하다. 또한 북방다문천의 왼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가 눈이 세 개인 것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도상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사천왕의 요대를 결구하는 버클인 대구(帶鉤) 장식으로서 사자 혹은 용의 얼굴이 등장하는 것은 사천왕 장엄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나, 마곡사 사천왕, 특히

서방광목천의 경우에는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처럼 내밀고 있고, 동방지국천은 눈동자가 정면이 아니라 약간 비껴서 바라보고 있는 등,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사천왕의 대구장식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그 자체도 신성한 힘을 가진 생명체처럼 표현함으로써 사천왕의 신비로움을 강조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주 마곡사 사천왕상은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보편적인 도상을 계승하면서도 작품성이 뛰어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천왕의 지물 등을 통해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인도불교에서의 사천왕의 원래의 의미인 보시의 주체자로서의 제왕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예술적·사상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천왕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마라난타 스님 등 인도에서 직접 불교를 전수받은 백제불교의 특성과 연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사천왕상이 제작되는 2년 전 천왕문 좌측 편 공간에 자리한 영산전의 과거칠불과 제존상이 조성되는데, 이 불상은 端應 등 20명의 화원들이 함께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북 일원에서 활동하던 단응 유파의 조각승들을 초빙하여 영산전 불상 등 마곡사의 諸像들을 제작하면서 시차를 두고 이 사천왕상도 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7세기 사천왕 도상 및 조각유파의 활동 범위와 동향, 불상의 제작 방식과 제작 순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좋은 학술 연구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구성이 약한 塑造像으로서 제작 이후 노출된 환경에서 오랫동안 보존되어 오는 과정에서 수리보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으나, 원형에서 큰 변형 없이 원래의 모습은 유지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천왕상은 특히 동방지국천왕의 내부 기둥에 제작 당시(1683년)의 묵서명을 남기고 있어, 사천왕상 편년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사천왕상 자체가 보여주는 세장한 신체비례와 야위고 주름진 얼굴은 17세기 중엽 경 완주 송광사(또는 완주 위봉사)를 본거지 삼아 수련기를 거쳤으며, 17세기 후반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 제작을 계기로 경북과 충북일원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던 조각승 단응 유파와 관련이 깊은 조각이다. 17세기 사천왕상 연구 및 조각 유파의 활동범위와 불사 동향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마곡사 사천왕상은 1683년이라는 제작연대가 명확히 알려진 작품이자, 1649년 조성된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과 1665년에 제작된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의 계보를 잇는 소조불상으로서의 중대한 가치가 있다. 비록 복장물이 산일되어 사천왕상을 조성한 조각승의 이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작방식과 전체적인 구조 및 형식적인 특징에서 김천 직지사 소조 사천왕상과 강한 친연성을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수조각승 단응이나 그 계열이 조각승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종합하면 마곡사 사천왕상은 17세기 후반 소조 사천왕상의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기준작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상이기에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또한,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보물로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내력과 기록

공주 마곡사 천왕문(天王門, 도1)에는 높이가 약 390c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의 소조사천왕상(塑造四天王像)이 봉안되어 있다. 천왕문은 개울을 경계로 남쪽 사역에 배치되었는데 마곡사의 산문 역할을 하는 해탈문(解脫門)과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마곡사는 임진왜란 당시 충청도 의병의 결진(結陣) 장소였다.(『宣祖實錄』 卷 48, 宣祖 27年 2月 乙卯.“(전략) 厥後罷兵還來, 以忠淸監司關, 結陣于公州 麻谷寺, 十一月上疏罷兵, 軍糧軍器, 則監司處收入”) 이후 1650년 각순(覺淳) 등에 의한 중창 불사가 이루어졌으며 1675년 이후 남원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천왕문과 사천왕상도 제작되었다.



<도1. 마곡사 천왕문 전경>

마곡사 <사천왕상>은 천왕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비파를 든 천왕과 칼을 든 천왕, 왼쪽에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 오른손에는 보당, 왼손에는 과일을 담은 그릇을 든 천왕상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천왕상 네 구의 의자는 밑면이 뚫린 상태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내부 상단부분에 복장공이 모두 뚫린 채 열려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복장물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도2).



<도2. 사천왕상의 내부 복장 모습>

마곡사 사천왕상과 관련된 명문과 기록은 상의 내부에 적힌 묵서, 17세기 후반 인영의 <마곡사적>, 그리고 천왕문 위에 걸린 현판 등이 있다(표1).

<표1 마곡사 사천왕상 관련 기록>

연번	명칭	시기	내용	위치 및 소장처	사진
1	내부 목서	1683년	康熙二十三年 癸亥三月五日	동방지국천왕 내부 목서	
2	마곡사적 (麻谷寺蹟) 월파당 인영	1670~80년대	裕敏之功開於天 王門	마곡사성보박물관 / 영산전과 더불어 천왕문을 유민이 건립	
3	泰華山麻谷寺 天王門重修記	1910년	天王改彩..隆熙 四年六月日...金 魚比丘」錦湖若 效	천왕문 현판	

첫 번째는, 검을 든 지국천왕의 의자 우측면에는 가느다란 필선으로 ‘康熙二十三年 癸亥 三月 五日’이라는 목서가 쓰여 있다. 따라서, 1684년(강희 23)으로 추정되지만 간지 ‘계해’에 맞추면 1683년이 된다. 그 측면의 안쪽에서는 ‘東’이라는 글씨도 확인되는데 방위를 표시한 것으로 이에 동방지국천왕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도상에 정확하게 부합된다. 이를 토대로 방위를 맞춰보면, 비파를 타는 천왕은 북방다문천왕(北方多聞天王)이며, 검을 쥔 천왕은 동방지국천왕(東方持國天王),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남방증장천왕(南方增長天王), 당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西方廣目天王)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는, 마곡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적기 《마곡사적(麻谷寺蹟)》에는 천왕문이 1670~80년대 영산전과 더불어 건립하였으며 유민이 건립하였음을 밝혔다(도3). 영산전은 1681년 조각승 단응이 조성한 목조과거칠불상이 봉안되어 있으므로, 영산전 건립 이후 곧 바로 사천왕상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도3).



1670~80년대 영산전과 더불어 천왕문 건립

‘裕敏之功開於天王門’

<도3. <마곡사적>의 천왕문 건립 내용>

마지막 기록은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개채기록으로 천왕문의 문 뒷면 위에 걸려 있는 ‘泰華山麻谷寺天王門重修記’ 현판이다. 현판에는 1910년(隆熙 4) 6월 대화주(大化主)이자 금어(金魚)로 약효(若效)가 참여하여 융희 4년(1910) 천왕문을 보수하고 사천왕상을 개채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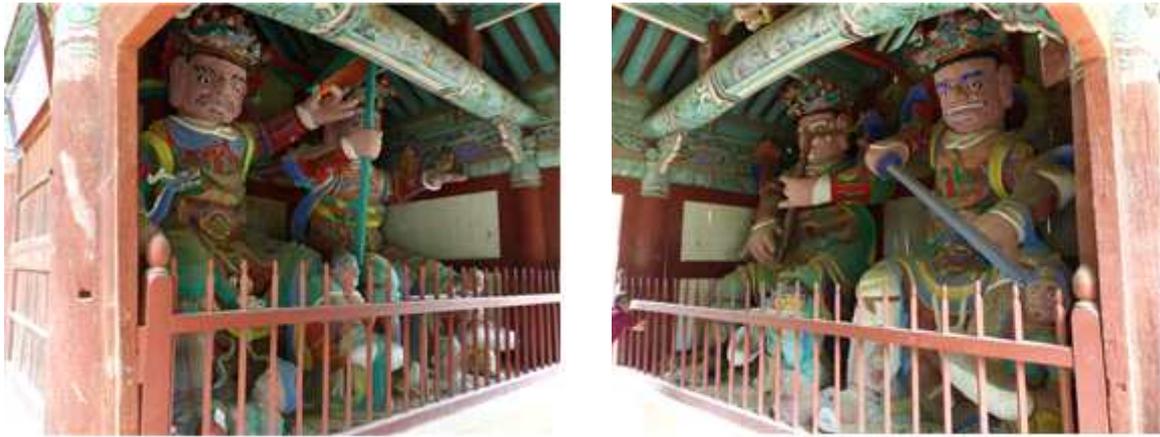
(「泰華山麻谷寺天○門重修○」歲在庚戌仲○之初興寺中○一同志○欲重修」天王改彩而財殫力少猶豫莫○矣幸家朴仁」默氏及本寺錦湖堂之大施主而始加修輯其所」有功難可萬一之酬故列祿於左耳爲永世之不」忘云爾」隆熙四年六月日」大施主秩」乾命己亥生朴仁默」…金魚比丘」錦湖若效」灑波法灑」月庵金池」淸應牧雨」東星定淵」渾應聖周」夢華」奉珠」性擘」泰昊」大興」鐘頭 芝生」商擘」供司 玄鎬」玄機」別座 永浩」普舍」都監 慧月性珠」大化主 錦湖若效」時攝理明星寶榮」三綱首僧 永浩」書記 頓舍」三甫 昌浩」)

금호당 약효는 마곡사의 화승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기에 활약한 근대기의 대표적인 불모이다. 충청도 계룡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100여 점 가량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확인은 어렵지만, 개채 시 사천왕상에도 작은 보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보당을 든 서방광목천왕은 왼손에 과일을 담은 그릇을 받치고 있어 도상적으로 특이한데 원래의 지물보다는 중수 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현상 및 특징

마곡사 천왕문에는 각각 2구씩의 천왕상이 서로 마주하며 서 있다. 오른쪽에는 비파를 든 북방다문천왕상, 칼을 든 동방지국천왕상이 위치하고, 왼쪽에는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증장천왕, 보당과 공양물이 담긴 그릇을 받쳐 든 서방광목천왕상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도4).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동방지국천왕상은 상높이 397.3cm, 최대너비 290.4cm, 서방광목천왕은 상높이 387.6cm, 최대너비 291.4cm이다.

남방증장천왕은 상높이 392.9cm, 최대너비 272.3cm, 북방다문천왕상은 상높이 392.0cm, 최대너비 281.1cm로서 네 구의 천왕상 높이가 거의 4m 정도 된다(도5).



<도4. 마곡사 천왕문 입구에서 바라본 천왕상의 배치와 구도>



동방지국천왕



서방광목천왕



남방중장천왕



북방다문천왕

<도5.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 높이 약 390cm, 1683년>

천왕상 네 구 모두 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있으며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에 머리에는 정면 중심의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발밑에는 살아 있는 악귀들이 땅바닥에 누워있거나 발을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생명좌의 크기는 작지만, 부릅뜬 눈과 근육 등이 강조되어 있다.

사천왕상의 얼굴은 방형이며 신체에는 평상복 위에 갑옷을 입고 하체에는 군의를 입었으며 그 위에 천의를 둘렀다. 가슴과 허리, 팔뚝, 정강이에 흉갑과 상갑, 허리띠 등을 착용하고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다. 소매부리를 말아 아래에 생긴 끝단을 묶었는데 소매부리가 위로 치솟아 전각의 끝에 닿아 있다.

천왕상들은 모두 의자 위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며 발 아래에는 각 2구

씩의 악귀들이 무릎 꿇은 자세로 천왕상의 발을 받치거나 바닥에 누워있다(도5). 이 악귀들은 머리에는 고깔을 쓰고 동그랗게 크게 뜬 눈에 송곳니를 드러내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경직되게 표현하였다. 사천왕상은 상반신이 길쭉한 신체비례를 보이는데 머리에는 꽃, 구름, 화염보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을 썼으며 각각의 지물을 들고 서 있다. 이들의 얼굴은 넓적한 방형에 찌푸린 이맛살, 부릅뜬 눈, 끝이 뭉뚝한 주먹코, 짧은 콧수염과 턱수염 등이 동일하며 천왕상마다 눈과 입 모양을 차별화하여 약간씩 다른 인상을 풍긴다. 앞니를 드러낸 채 웃고 있는 북방천왕상이나 입술을 꼭 깨물어 윗니 전체를 보인 동방천왕상 등의 표정은 위엄보다는 익살스럽고 해학적이다. 정수리에는 짧은 상투머리가 있으며 어깨 위로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생략되었다.

착의법은 갑옷 위로 천의를 둘렀으며 하반신에는 군의를 입었다. 갑옷은 가슴에는 흉갑(胸甲), 팔뚝에는 썩갑, 정강이에는 경갑(脛甲) 등을 착용하였다. 목에는 스카프를 둘러 묶었으며 말아 올려 묶은 소매부리가 위로 치솟아 전각 끝이나 벽면에 닿는 등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가슴에는 넓게 주름진 띠를 두르고 다회끈으로 묶었으며 허리는 요대를 둘렀는데 이는 짐승 얼굴 형상이 물고 있는 모습이다. 갑옷 위로 둘러진 긴 천의는 어깨를 두르고 허벅지 위를 횡으로 가로질러 늘어지기도 하였다. 어깨 뒤로 둘러진 천의는 역U형으로 곡선을 그리며 마치 두광처럼 나타내었는데 그 위로 화염문을 조각하였다. 천왕상의 옷주름들은 소조상의 특성상 굴곡이 깊었으며, 남방증장천왕상이 든 여의주에는 나뭇잎을 표현하여 열매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서방광목천왕상이 받쳐 든 고추, 과일 등이 담긴 그릇 등은 독특한데 후대에 보수된 것으로 보인다.

제작기법은 나무를 심목으로 그 위에 흙으로 성형한 소조 기법이다(도6). 구조는 4개의 방형 나무기둥을 결구하여 의자를 만들고, 그 위로 통나무를 올려 중심 골격을 짚으며 등판에는 별도의 나무를 접합하였다(도7, 도8). 접목한 목심 위로 흙을 입혀 성형하였으며 재료는 흙에 짚을 보강 재료로 사용하여 소조토의 점력을 높여 균열과 박리, 박락을 방지하였다. 또한, 목심의 표면에 칼집을 내어 접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새끼줄을 활용하여 접착력을 높였다(도9, 도10).



<도6. 마곡사 동방지국천왕상의 내부 심목>



<도7. 마곡사 동방지국천왕상의 의자목심구조>



<도8. 마곡사 동방지국천왕상의 내부 통나무 목심구조>



<도9. 마곡사 남방증장천왕상-등 부분의 흠과 새끼줄>



<도10. 마곡사 북방디문천왕상-머리 뒤 천 부분의 흠과 새끼줄>

□

○ 현 상

공주 마곡사 소조사천왕상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익공식 건축인 천왕문 안에 봉안되어 있으며, 이 건축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지만, 1910년에 중수된 기록이 있다.[도1] 천왕문은 조선후기 건축으로만 소개되고 있다. 천왕문의 좌향은 남향이며, 이에 따라 남쪽으로부터 천왕문에 진입했을 때 건물 동쪽인 좌측 안쪽에 북방, 바깥쪽에 동방천왕, 서쪽인 우측 안쪽에 서방천왕, 바깥쪽에 남방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도1. 공주 마곡사 천왕문>

북방천왕은 진입시점에서 보자면 우측 안쪽에 위치하며, 비파를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조선시대 전형적인 북방다문천왕의 도상을 따랐다.[도2] 착용한 보관은 상단 테두리 부분은 일련의 화염보주문으로 장엄되어 있고, 관대는 주로 꽃과 구름 문양의 장식들이 부착되었으며, 하단 좌우에 청룡과 황룡이 부착된 형태이다.[도3] 황룡(향우측)의 위에는 연화화생하는 인물 장식이 꽃혀있는데, 머리에 붉은색 리본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으로 생각되며, 손은 기도하듯이 모아 연꽃을 들고 있다. 보관 관대의 뒷면 좌우에는 위아래 2중의 S자형으로 휘날리는 붉은색 띠가 달려 있는데,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관 좌우에 달려 펄럭이는 띠와 유사한 형태이다. 다만 다른 사찰의 사천왕상은 같은 장엄에 비해 띠가 다소 작은 비례로 달려있다. 이 띠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단의 매듭 부분에는 철사가 길게 솟아나와 별도의 화염문을 끝에 달았다. 보관 아래의 타래진 머리카락 표현은 보살상의 보발 표현과 같은 형식이지만, 보살상의 경우처럼 좌우 구레나룻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어깨로 내려와 펼쳐지는 모습은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귓볼에도 철사가 달려있고, 그 끝에 노란색의 둥근 귀걸이가 달려있다. 철사가 박혀있는 귀 부분에는 꽃잎 장식이 붙어있다.



<도2. 북방다문천>



<도3. 북방다문천 보관 세부>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강인한 모습이지만 이마에는 2줄의 깊은 주름이 있는데 다 눈썹과 수염이 모두 흰색으로 채색되어 노인임을 강조하고 있다.[도4] 눈썹은 양감 있게 돌출되어 있지만 콧수염과 턱수염은 채색으로만 표현되었다. 입은 살짝 벌렸는데, 그 틈으로 앞니 두 개만 튀어나와 보인다. 이런 치아의 표현은 조선후기 북방다문천 도상에서 자주 발견된다.

푸른색 스카프를 매었고, 상체의 갑옷은 전면이 어린문으로 장식되었다. 상박갑의 상단에는 황사자가 입을 벌려 상박갑을 물고 있는 형식이다. 상박갑 아래로는 푸른 소맷자락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위로 넓게 솟았다. 상체의 갑옷은 가슴 높이에서 녹색의 천을 벨트처럼 휘감고 이를 다시 주황색 끈으로 묶었다. 보통 허리에는 관복에 입는 관대처럼 마디마디 이어진 형식의 벨트를 착용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문양이 들어가지 않아 마치 혁대를 맨 것처럼 보인다. 이 요대 중앙에는 황룡이 이를 드러낸 채 요대를 물고 있는 모습이며, 이 황룡의 코에 고리가 달려있어 그 아래로 흰색의 동물가죽처럼 보이는 형태가 매달려있다.[도5] 이 가죽형상은 길게 늘어져 바닥까지 이어지며, 가죽의 중심에는 척추뼈처럼 보이는 돌출새김이 보이고, 중간에는 이 동물의 뒷다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돌출되어 있다.

허벅지 위에는 마치 무릎담요를 덮고 있는 것처럼 녹색의 천이 덮여있어서 허벅지를 보호하는 갑옷인 군갑을 착용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녹색의 천은 어깨에 걸친 피건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건이 천왕의 양쪽 옆으로 휘날리는 형상이지만, 마곡사 천왕은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건이 겨드랑이를 타고 뒤로 넘어가 앉아있는 엉덩이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흘러나오면서 허벅지 쪽으로 넘겨져 반대편으로 흘러 왼편으로 넘어간다.[도6] 두 피건 자락은 발 안쪽으로 늘

어져서 모아져 있는데, 끝이 소라껍질처럼 말리면서 마무리되고 있다. 피건의 위쪽은 천왕상의 머리 뒤로 둥글게 휘날리고 있는데, 그 테두리에 불꽃을 달아 광배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도4. 북방다문천 상체>

<도5. 북방다문천 하체>

<도6. 북방다문천 좌측면>

천왕은 푸른색 군의를 입었고, 그 안에는 밝은 옥색의 바지를 입었으며, 무릎 아래에서 이 바지단을 붉은 끈으로 묶었다. 그 아래로는 슬갑을 착용한 것이 보이는데, 붉은색에 연주원환문이 전면에 시문되어 있다. 신발은 상관은 붉은색에 바닥은 청색 테두리에 흰 깔창으로 채색되었는데, 뒷꿈치 부분에 청색의 국화문 같은 장식이 달려있고, 여기서 신발 밑창 테두리와 같은 푸른색 끈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밑창과 연결되어 있다. 갈색의 상관은 다른 채색장식은 없으며 다만 주름진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방천왕의 지물인 비파는 전체적으로 나뭇결 무늬가 시문되어 있으며, 다른 장식문양은 없다.[도4] 특이한 것은 비파의 공명통이 일반적으로는 채색으로만 표현되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구멍을 뚫어 사실성을 더했다. 비파는 목이 꺾인 당비파 형식이며, 손의 자세를 보면 왼손은 지판을 짚고, 오른손은 지금 막 현을 튕긴 듯한 모습이다. 다만 손가락이 매우 짧고 굵어 노인의 얼굴과는 대조되는 아이의 손 같은 인상을 준다.

천왕은 일반적인 사천왕의 앉는 자세에 따라 오른발은 바닥에 딛고 악귀를 밟고 있으며, 왼발은 살짝 들고 있는데, 악귀가 이 발을 받치고 있는 형식이다. 발을 받치고 있는 악귀는 푸른색에 구름문양이 들어간 테두리를 지닌 고깔모자를 쓰고 있으며, 얼굴은 굴곡이 많고 큰 코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미간에 또 하나의 눈이 달려있어 특이하다.[도7] 마치 치아가 없는 사람처럼 입술이 안으로 말려들어가 있어 전체적으로 노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일반적인 악귀들은 짧은 소매와 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제대로 파스텔톤의 도포를 착용하고 있다. 오른발 아래의 악귀는 언뜻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아래 송곳니가 날카롭게 솟은 모습을 통해 도깨비 같은 존재임을 나타냈다.[도8] 복식으로 보아서는 긴 소매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여성을 나타낸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것이 실제로 저고리와 치마인지, 아니면 채색을 하면서 임의로 상·하의를 구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상·하의가 연결된 한 벌의 옷이라면 모자의 형태를 보아 청나라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마치 목도리를 두른 것처럼 옷깃 부분이 두껍게 표현된 것도 주목된다. 보통 악귀들이 신체를 많이 드러내는데 반해 이처럼 옷을 갖춰 입고 몸을 가린 악귀는 다른 데서는 잘 찾아보기 어렵다.



<도7. 북방다문천 악귀(왼발)>



<도8. 북방다문천 악귀(오른발)>

동방지국천왕을 비롯한 다른 천왕들은 기본적으로 대체로 유사한 모습이지만, 지물이나 채색, 표정, 악귀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동방천왕부터 살펴보면 우선 보관은 북방천왕과 유사한 구조이나 북방천왕 보관에는 청룡·황룡이 쌍으로 달려있는 것에 반해 동방천왕 보관에는 현재 황룡 장식만 남아있고, 연화화생하는 장식도 달려있지 않다.[도9]

얼굴표정은 이를 드러내고 분노하거나 위협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하다. 얼굴에는 굴곡이 역력한데, 이것이 근육표현 같기도 하고, 혹은 주름처럼도 보인다. 미간에 보이는 V자형의 주름은 다른 사찰의 사천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도식화된 주름이지만, 눈두덩을 마치 구름처럼 굴곡지게 표현한 모습, 눈꼬리 옆의 주름살, 입꼬리 주변의 주름 등은 그로테스크한 인상을 준다. 수염은 푸른색으로 채색되었다. 목에는 턱과 연결되는 부분에 마치 목젓을 표현한 것 같은 둥근 돌출부를 중심으로 그 옆으로 보다 작은 돌기가 마치 연주문처럼 이어지면서 목 근육을 표현

했는데 보통 세로로 힘줄을 표현하는 방식과는 달리 도식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콧볼의 표현도 사실적인 편인데, 북방천왕과 같은 귀걸이는 없지만, 귀걸이를 매단 철사가 박히는 자리에 원형 돌기가 보여, 여기에 원래 철사를 달아 귀걸이를 매달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9. 동방지국천>



<도10. 동방지국천의 대구 장식 세부>

혁대처럼 보이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요대를 물고 있는 대구의 용은 청룡이다. 다만 용의 뿔 등은 생략되어 있어 해태 같은 동물일 수도 있다. 또한 눈동자가 정면을 보지 않고 마치 위쪽 무엇을 보는 듯 움직이고 있어 마치 이것이 단지 장식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처럼 보이는 것도 특이하다.[도10] 이러한 눈동자 표현은 개채를 하면서 근대에 새롭게 그려 넣은 방식일 수도 있지만, 완주 송광사 사천왕에서도 보이고 있어, 개채 시 원래의 채색을 의식하고 답습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북방천왕에서는 요대 아래로 흰색 동물가죽이 늘어져 있었지만, 여기서는 좌우로 흰색 띠가 흘러내려 중간에 8자형의 매듭을 짓고 다시 아래로 흘러내린다. 동방천왕의 지물인 칼은 코등이가 원형이 아니라 팔각형인 것이 특이하다. 또한 칼날에 갖다 댄 왼팔의 손가락 모습이 마치 손가락으로 길이를 잴 때의 엄지와 소지를 최대한 넓게 편 것 같은 형태인 점도 특이하다. 일반적으로는 엄지와 검지를 새우는 경우가 많다. 칼의 끝 부분에서는 날을 운두문으로 모양을 내었다.

동방천왕은 상박갑 아래로 휘날리는 옷자락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고 잘 남아 있는데, 이 옷자락은 끝이 모두 천왕문 벽에 붙어 있어 고정되어 있다. 또한 어깨에 걸친 피건은 옆으로 휘날리지 않고 등 뒤로 굽이치고 있는데 이 역시 천왕문 측벽에 붙어 고정되어 있다.[도11]

동방천왕의 악귀는 왼발을 받친 악귀의 경우 모자의 챙을 위로 젖힌 듯한 중국식 투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도12] 그러나 몸에는 갑옷을 두르지 않았고 긴

소매의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있다. 얼굴은 동방천왕과 마찬가지로 굴곡이 심하게 강조되었다. 이에 반해 오른발 아래의 악귀는 병거지(전립) 형태의 모자를 착용한 것 같은데 챙이 짧다.[도13] 상체는 벗고 바지만 착용한 채 등을 땅에 대고 누워 마치 자신을 밟고 있는 천왕을 올려다보는 듯한 자세이다. 양손을 땅에 짚은 자세인데, 몸에는 근육의 표현이 없다. 얼굴은 하회탈처럼 굴곡이 과장되었다.



<도11. 동방지국천 우측면> <도12. 동방지국천 악귀(왼쪽)> <도13. 동방지국천 악귀(오른쪽)>

반대편의 남방증장천왕도 북방천왕의 보관과 유사한 보관을 착용하고 있는데, 중앙 위쪽에 황룡, 하단에는 꽃장식에 가려진 봉황 장식이 중심을 이룬다.[도14] 동방천왕처럼 얼굴의 굴곡이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눈두덩이를 구름처럼 굴곡지게 묘사한 점은 유사하다. 입술은 다문 채로 양끝이 아래로 처져 있고 그 끝에 볼 근육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통해 입을 굳게 다물고 단호한 표정을 표현했다. 요대를 물고 있는 용면은 황룡이며, 여기서 흰 띠가 흘러나와 리본 매듭을 지며 아래로 흘러내린다. 지물은 청룡과 여의주인데, 여의주를 단순한 구슬 모양이 아니라, 마치 과일을 나무에서 막 딴 것처럼 잎사귀와 줄기 일부가 달려있는 것이 특이하다.[도15·16] 이러한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마곡사 증장천왕의 특징이다. 증장천왕은 이 여의주를 얼굴 높이로 높게 들고 있는데 용도 고개를 들어 이 여의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만들어졌다. 발 아래의 악귀의 모습은 북방천왕의 조합과 유사한데, 다만 북방천왕에 보이는 눈이 세 개인 특이한 모습은 아니다.



<도14. 남방증장천>



<도15. 남방증장천 지물(용)>



<도16. 남방증장천 지물(여의주)>

끝으로 서방광목천은 보관에 청룡 장식을 중심으로 그 아래 좌우에 비천이 묘사되어 있으며, 장식이 가득 차 있어 네 천왕 중에서 가장 화려하다.[도17] 입은 입술이 거의 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가 살짝 들어나도록 약간 벌리고 있는데 마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마곡사 천왕문의 사천왕은 대체로 정면을 보고 있어 천왕문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시선이 마주하기 어려운데, 예외적으로 서방광목천은 비록 얼굴은 정면향에 가깝지만 눈동자가 아래를 흘겨보는 것처럼 아래로 향해있어 마치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귀걸이는 달려있지 않다.

요대를 물고 있는 용은 황룡인데, 헛바닥을 길게 내민 모습은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표현이며 특히 그 혀가 마치 코구멍으로 들어갈 듯한 표현은 매우 해학적이다.[도18] 동방천왕의 청룡 대구처럼 이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표현된 점이 주목된다.

서방천왕은 원래 경전에 따르면 북방천왕의 도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왼손에는 보탑, 오른손에는 당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마곡사 서방천왕은 특이하게 보탑 대신에 연잎에 과일이나 채소가 올라간 듯한 지물을 들고 있다.[도19] 북방천왕이 원래 부(富)를 관리하는 천왕이기 때문에 보탑도 원래는 사리탑으로서의 탑이 아니라, 보물이 담긴 탑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자신의 보물을 부처님께 공양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쩌면 마곡사 천왕상은 인도에서 사천왕이 부처님께 발우를 드린 설화에 충실하게 음식을 공양하는 모습을 통해 보탑이 지니는 원래의 의미를 음식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표현으로 주목된다. 옆의 남방천왕이 들고 있는 여의주가 마치 과일처럼 보이는 이유도 이 사방천왕의 음식공양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한편 당의 형태

도 단순한 나무 막대의 모습이 아니라 대나무의 마디가 표현되어 있어 특이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당의 끝에는 삼지창 모양이 달려있는데, 여기서는 노란 보주 같은 것만 올라가 있고, 삼지창 표현은 없다. 육안 관찰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 당이 거의 천왕문 서까래에 닿을 정도로 높아서 삼지창 형태의 장식에 들어갈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인지, 보수하면서 천정이 낮아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부분도 특이한 요소다.



<도17. 서방광목천>



<도18. 서방광목천 요대 대구 세부>



<도19. 서방광목천 지물(공양물)>

서방천왕 발 아래의 악귀들은 다른 천왕들의 악귀와 모습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들만의 특징이 강조되어 있다. 우선 왼발을 받들고 있는 악귀는 형상은 북방천왕의 악귀 등과 비슷하지만, 이처럼 두 팔로 천왕의 종아리 부분을 완전히 감싸 받들고 있는 형상은 보기 드물다.[도20] 팔을 걷어붙이고 짐을 나르는 사람의 자세처럼 적극적으로 천왕을 모시고 있는 인상을 준다. 왼발 아래의 악귀는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웠는데, 팔을 꿰고 머리를 바짝 세우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편안해 보이기 때문에 사천왕 발 아래 밟혀 있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아 해학적인 느낌을 준다.[도21]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하고 별 받는 것조차 즐기는 악귀의 모습 같다. 모자는 청나라 특유의 난모를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도20. 서방광목천 악귀(왼발)>



<도21. 서방광목천 악귀(오른발)>

□

○ 조사내용

마곡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이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곡사의 643년 자장율사 창건설과 840년 보조선사 체징 창건설 두 가지가 전한다. 마곡사 역시 초유의 전란인 왜란과 호란의 병화를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파괴되었다. 마곡사의 중건 불사가 시작된 것은 마곡사에 전하는 여러 사적자료를 통해 볼 때 17세기 중반부터 본격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천왕문은 해탈문-천왕문-대광보전으로 이어지는 사찰의 중심축 선상에 있는 건물이다. 사천왕상은 이 천왕문에 봉안되어 있다. 그에 앞서 만나는 해탈문에는 금강역사 2구와 사자를 탄 문수동자와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가 봉안되어 있다. 이들도 양식상 사천왕상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해탈문(또는 금강문)에 봉안된 騎獅·騎象童子를 통상 문수·보현동자로 이해하고 있으나, 1705년에 조성된 하동 쌍계사의 발원문에서 한산·습득 동자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 해탈문의 두 동자상은 한산·습득 동자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산·습득은 문수와 보현의 화신으로 생각되는 故事 속의 인물이므로 의미상 통한다.

마곡사에 전하는 각종 「사적자료」에 따르면, 마곡사 천왕문은 1682년 영산전과 더불어 裕敏이 건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650년대 사찰의 본구역인 北院 일원의 중창불사가 마무리되고 1670~80년대 영산전이 자리한 南院에 대한 중창불사 과정에서 영산전(1682년 건립)을 비롯한 천왕문, 해탈문, 그리고 이곳 전각에 봉안할 예배존상들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표1 공주 마곡사 사천왕상 배치도>

마곡사의 사천왕상의 배치는 조선 후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천왕상 배치법을 따르고 있다. 즉 입구에서 보면 향 우측에 동-북 천왕이, 향 좌측에 남-서천왕이 자리하고 있다. 사천왕상은 花形으로 능을 준 보관의 표면에 용과 구름, 화염문으로 장식한 보관을 썼다. 머리 뒤로 둥글게 돌아간 천의가 화염광배를 이루고 있다. 머리는 틀어 올려 상투를 형성하고 있으며, 보관 아래의 보발만 간략히 표현하였다. 야윈 얼굴에 주름이 많은 얼굴이며, 깨진 계란처럼 특색 있게 눈과 눈꺼풀을 표현하였으며, 코는 짧고 뭉툭하며 전반적으로 실제 인물을 보는 듯 사실적인 모델링을 하고 있다. 귀는 삼각와가 돌출해 있으며, 하갑장의 耳孔은 고드름처럼 늘어진 형태이다. 콧불에는 구슬을 달아 귀고리로 삼았다. 손은 아기 손같이 작고 도톰하다. 여기에서 표현된 인물 표현은 이보다 앞서 제작한 1665년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의 표현양식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 예천 용문사 소조사천왕상도 이와 같은 표현감각을 따르고 있다.

신체에는 각종 갑옷을 장착하였다. 목에는 전포의 깃이 노출되어 있고, 그 아래로 경갑을 대신하여 스카프로 묶었다. 어깨에 위를 덮은 견갑에는 용문이 자리하고 있다. 상체에는 전포를 하체에는 바지인 박고를 입었고, 그 위에 흉갑, 비갑, 슬갑 경갑 등 여러 갑옷을 갖춰 입었다. 흉갑 위에는 胸帶를 두르고 밧줄로 묶었다. 흉대는 위아래에서 헛바닥처럼 대칭적으로 주름을 잡은 것이 특징이다. 裳甲 위에는 요의를 치마처럼 들렀고 물결치듯 주름을 잡아 울동적이다. 복부에는 뿔이 없는 귀면 장식이 있으며, 귀면은 요대와 수환, 또는 수피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정강이 부근에는 품 넓은 바지 단을 묶은 박고형이며, 발에는 戰靴를 신었다. 서방광목천왕의 귀목은 헛바닥으로 콧구멍을 활고 있어 작자의 돈보이는 해학적 연출을 감상할 수 있다. 갑옷 밖으로 노출된 여러 가지 옷자락들이 상당히 울동적으로 처리하였다.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동방지국천왕 얼굴>

각 천왕별 도상적 특징으로는, 동방천왕은 오른손으로 보검의 손잡이 잡았고, 왼손의 손등으로 보검의 끝부분을 받쳐 든 모양이다. 보검의 끝은 꽃 봉우리 모양으로 처리하였다. 북방천왕은 왼손으로 코드를 맞추고 왼손으로 비파를 연주하고 있다. 비파의 울림통에는 초승달 모양의 코끼리 눈을 투각하였다. 남방천왕은 오른손으로 허리춤에서 용의 몸통을 움켜잡았고, 어깨 위로 높이 치켜든 왼손 엄지와 중지로 여의주를 쥐고 있다. 입은 양다물었다. 서방광목천왕은 오른손을 높이 들어 대나무로 만든 당을 움켜잡았고, 당의 상부에는 삼지창으로 처리하였다. 왼손으로 과일이 담긴 荷葉 접시를 받쳐 들고 있다. 통상 과일은 천동이나 천녀의 지물이나 여기에서는 사천왕상의 지물로 채용되고 있다. 특히 접시에 담겨 있는 과일 중 주목되는 것은 고추이다. 고추는 17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추의 도입 시기를 입증해 주는 실증적인 사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사천왕상에서 볼 수 없는 지물로, 후대 보수과정에서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단웅이 조성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광목천왕의 탑도 하엽 위에 올려놓았고, 단웅 작으로 추정되는 예천 용문사 명부전 무목귀왕의 寶印도 하엽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단웅이 즐겨 사용한 모티프가 아닌가 한다. 이와 더불어 북부의 귀면 역시 혀를 내밀어 콧구멍을 훑고 있는 연출은 다른 사천왕상에서 볼 수 없는 독보적 재치이다.

야차는 각 사천왕 마다 2구씩 마련되었다. 야차는 고깔모자를 썼고 좌측의 야차는 사천왕상의 다리를 받쳐 든 모습이고, 우측의 야차는 등이나 배가 밟혀 버둥거리는 모습이다. 북방다문천왕의 다리를 받쳐 든 야차는 고깔모자에 눈이 세 개인 삼목으로 표현되었다. 야차 역시 사천왕처럼 야위고 주름이 많아 늙고 초췌한 모습이다.

동방지국천왕의 의자 우측면에 ‘康熙二十三年 癸亥 三月 五日’이라고 행초서로

갈겨 쓴 묵서와 제작시기 관련된 묵서와 그 측면에 東이라는 방위와 관련된 묵서가 적혀있다. 강희 23년은 갑자(1684)이고 강희 24년이 癸亥(1683)이다. 연호와 간지가 맞지 않을 경우 통상 일반인에게 익숙했던 干支를 따르므로, 마곡사 사천왕상은 1683년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마곡사 사천왕상은 마곡사의 II단계 중창불사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II단계 사찰의 남쪽에 해당하는 남원구역이다. 이곳에는 영산전과 해탈문, 천왕문이 자리하고 있다. 영산전은 1682년(태화산 마곡사 천불전중수기)에 건립되었으며, 영산전 불상은 영산전 건립에 앞서 1년 전인 1681년에 단웅 유파에 의해 제작되었다.²⁹⁾ 마곡사 사천왕상도 2년 뒤인 1683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영산전 불상을 만든 단웅 유파 조각승이 조성했을 것이다. 이후 1910년 천왕문을 보수하고 약효스님에 의해 사천왕이 개채되었다.

□

○ 현 상

- 공주 마곡사 천왕문 안 좌우 양측에 2구씩 안치된 소조의 사천왕상으로, 현재는 목책이 천왕 앞에 설치되어 있다. 천왕문 입구에서 사찰 안쪽을 바라봤을 때, 우측에는 장검을 든 동방지국천왕과 양손으로 비파를 든 북방문천왕상이 안치되어 있고, 좌측에는 양손에 각각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지국천왕과 오른손에는 보당 원손에는 과일을 담은 그릇을 든 서방광목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 마곡사 천왕문은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이다. 천왕문의 문 뒷면 위쪽에 걸려 있는 현판에 쓰인 「태화산마곡사천왕문중수기」를 통해, 1910년(융희 4) 6월에 대시주 박인묵과 금효당 약효의 주도로 천왕문이 보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사천왕상도 함께 보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후술하겠지만, 동방지국천왕 의자의 묵서를 통해 사천왕상의 조성연대가 1683년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천왕상과 구조적으로 연결된 천왕문 건립의 하한연대를 1683년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전거가 마련되었다.

○ 내용 및 특징

- 마곡사 사천왕상은 전체 높이가 약 390cm에 달하는 중대형의 상이다. 천왕들은 모두 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있다. 천왕의 발밑에는 악귀가 2구씩 배치되어 있어서, 모두 8구의 악귀가 있다. 한 구의 악귀는 천왕의 발밑에 깔린 모습으로 묘

29) 영산전 불상 발원문 “康熙二十年辛酉始役於二月訖功於六月奉安于華山麻谷寺……證師 道元 持殿 震玄 畫員 端應 戒天 性還 卓密 學崙 義修 敬悅 弘胤 戒淨 敬心 義禪 海密 太禪 體元 文信 海旭 旻性 太敏”.

사되고, 다른 한 구는 천왕의 발을 떠받친 자세를 취하였다. 악귀들은 크기가 작은 편이어서 사천왕상의 규모가 더욱 커보이게 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눈을 부릅뜬 표정이며 얼굴의 이목구비는 크고 과장되게 묘사되었다.

- 사천왕상은 위아래는 짧고 양옆이 긴 방형의 얼굴로, 눈을 부릅뜨고 찡그린 분노상이다. 코는 주먹코로 수조각승 단응(端應)이 조영한 상과 표현상 친연성이 있다. 머리에는 나무로 만든 보관을 썼는데, 용, 비천, 구름, 꽃 등의 모티프를 철사로 관에 고정하여 상당히 입체적이고 화려하다. 보관의 가장 위쪽은 구름 위로 솟아오른 화염보주 모티프로 장식되어 있다.

- 네 명의 천왕은 모두 허리가 긴 체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 운동감을 느끼기 힘들고 다소 뻣뻣하다. 이와 같은 신체의 표현은 재료의 특성과도 연결된다. 마곡사 사천왕상은 심목으로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몸에는 먼저 평상복을 입고 그 위에 가슴과 허리, 팔뚝, 정강이에 갑옷을 착용하였다. 하반신에는 입은 균의는 허리띠를 매어 고정하였고, 그 위에 천의를 둘렀으며, 목에는 스카프를 매고 있다. 소매부리가 위로 치솟은 것처럼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 동방지국천왕의 경우 지물로 오른손에 검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는 칼날을 잡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왼손으로 비파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비파를 타는 천왕은 북방다문천왕이며, 오른손에 용을 쥐고 왼손의 엄지와 중지로 여의주를 잡은 천왕은 남방증장천왕이 된다. 오른손에 당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에 해당하는데, 왼손에는 과일을 담은 그릇을 받치고 있다. 이러한 과반은 사천왕의 도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후대에 보수 시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천왕들이 앉아 있는 의자는 4개의 나무로 결구하여 다리로 삼았다. 의자의 밑면은 뚫려 있어서 입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며, 내부의 복장물은 현재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의자의 상판에는 통나무를 올려 목심으로 삼았고, 거기에 흙과 물에 보강제로 짚을 섞은 것을 붙여 형태를 잡았다. 과거 조사에 의하면 새끼줄을 활용하여 접착력을 높이고 접합이 용이하도록 목심 표면에 칼집을 내었다고 한다.

- 동방지국천왕의 의자 우측면에서 ‘康熙二十三年 癸亥 三月 五日’이란 목서가 발견되었다. 강희23년은 1684년에 해당하지만, 계해라는 간지는 1683년이다. 간지가 좀 더 정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주 마곡사 사천왕상은 1683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자 측면 안쪽에서는 방위를 표시하기 위한 ‘東’이란 목서도 확인된다.

○ 참고문헌

- 정은우, 「조선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2016.

검 토 사 항

Ⅲ.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등산 2023-05-09

9. 부안 내소사 동종 (扶安 來蘇寺 銅鍾)

가. 검토사항

‘부안 내소사 동종’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부안 내소사 동종’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6.12.27.)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1963.1.21. 지정)
- 명 칭 : 부안 내소사 동종(扶安 來蘇寺 銅鍾)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내소사
- 수 량 : 1구
- 규 격 : 전체 높이104.8cm, 구경 67.2cm
- 재 질 : 청동
- 형 식 : 단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 조성연대 : 1222년(고려 고종 9)
- 제작자 : 한중서(韓冲敍)



<부안 내소사 동종>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내소사 동종은 명문에 의해 1222년(貞祐 10)에 장인 한중서(韓冲敍)가 전남 부안(邊山)에 제작한 것이 확인되어 제작 시기와 제작 장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13세기 초 고려시대 범종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내소사 동종은 통일신라 범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시대 범종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장식 요소들을 다수 엿볼 수 있다. 첫째 천관 위 건부를 장식하는 입상화문대가 발견된다. 고려시대 범종의 주조 방식의 변화에서 유추되는 것으로 용뉴와 종신을 따로 주조하여 접합하게 되면서 생기는 주물 접합선을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기술적인 성취를 엿볼 수도 있다. 둘째 범종의 상대와 하대 및 유곽에는 모란당초문대가 배치되는데 활짝 핀 모란과 측면의 모란이 당초문과 어우러져 있다. 셋째 부조상은 통일신라 범종의 천인상에서 고려시대 범종의 불보살상으로 이행되었는데 특히 내소사 동종에서는 다른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삼존상을 배치한 점이다. 연화좌와 구름좌 위에 본존상의 좌상에 선정인의 자세를 하고 있고 좌우 협시상은 입상의 보살상을 배치하여 고려불화에서 보이는 아미타내영도와 친연성도 간취된다. 더욱이 삼존상 위로 배치된 천개는 다른 어떠한 범종

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유려한 곡선과 장식적인 유소로 예술적인 기교가 탁월하다. 넷째 당좌에 부조된 연화문은 화형(花形)의 자방(子房)과 중판(重瓣) 연화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방은 중앙에 하나의 연과자(蓮課子)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연과자를 두르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연화문은 1213년부터 1252년까지 활동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장인 한중서가 제작한 금고와 범종의 문양과 동일하여 장인의 개인 양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형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게다가 이러한 내소사 동종에 표현된 장식 요소는 장인 한중서의 개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범종의 조형성에서 전통적인 미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른 범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 범종만의 예술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내소사 동종은 통일신라 범종의 전통 위에 1222년 한중서라는 당대 최고의 주종 장인이 입상화문대를 돌출시키거나 불보살을 부조하거나 상하대에 모란당초문과 같은 장식 요소를 가미하여 제작한 불교 금속공예품으로, 제작년도와 제작자가 확실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고, 같은 시기의 다른 범종들보다 기술적 성취가 우수하며 예술적으로나 조형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현재의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총 높이 104.8cm에 이르는 고려 후기 종 가운데 가장 큰 크기로 현재 내소사의 범종각에 걸려 단절 없이 종 본연의 기능을 이어오고 있는 종이다. 현재 고려시대 동종은 160여 점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년을 정확히 알려주는 종은 많지 않다. 종신에 음각된 주종기를 통해 1222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와 棟梁道人 虛白이라는 주관자, 한중서라는 장인을 알 수 있는 13세기 동종의 기준작으로, 우리나라 범종사에서 귀중한 작품이다. 더불어 처음 청림사에 봉안할 때의 주종기와 1853년 은사 김성규와 완암 정우에 의해 내소사로 이안될 때의 移安記를 동시에 남기고 있어, 종의 역사적 변천사를 더듬는 데도 유익하다.

이 동종을 제작한 한중서는 이 작품 외 동종과 금고 등 다른 작품도 남기고 있어 생애사적 연구가 가능한 고려시대 유일한 장인이기도 하다. 그는 관청수공업에 종사한 관장으로서, 39년간 사원의 종과 금고 등 여러 가지 범음구 제작에 참여한 13세기의 대표적인 예술가였다. 그는 壽寧宮主房의 시위군 말단 군사(고령사 반자)에서 시작하여 무산계 정7품 별정동정까지 승진할 정도로 고려사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장인이었다. 한중서라는 인물의 작품을 통해 고려시대 장인의 사회적 인식과 위치, 관장의 역할과 활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역사적 사료로도 가치가 크다.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범종 가운데 종뉴에서 천판, 입상화문대, 상대와 하대의 문양, 연곽과 연뢰의 조화, 종복의 감각적인 삼존불의 표현

등 종이 갖고 있는 종교적 기능의 표현이나 조형적으로 우수하며, 기술적으로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 후기 제작된 종 중에서는 규모면에서 가장 크다. 고려 전기 종과 달리 이 종은 천판과 종견이 마주대하는 부분에 구름모양의 입상화문대를 둘러 장엄하였고, 종복에는 보관 장식을 한 불삼존이 구름을 타고 중생구제를 위해 내영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매우 종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불삼존은 천개와 여래삼존, 연화대좌와 구름 등이 어우러진 회화성이 짙은 모습에서, 13세기 불화 작품이 전무한 시점에서 고려불화의 복원적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작품이다.

주종기를 통해 제작시기, 제작자, 주관자를 알 수 있고, 移安記를 통해 이안내력까지 파악할 수 있다. 고려 후기 동종 중에서 규모와 조형, 제작기술 면에서 단연 뛰어나므로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주종장 한중서(韓冲叙)가 제작한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범종 가운데 가장 양식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용뉴부터 종신에 표현된 세부 문양의 화려함과 독창적인 삼존불의 표현, 종의 구조상태까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범종으로 손색이 없다. 특히 내소사 동종은 대체로 2구씩 표현되던 합장형의 보살좌상이 본존과 함께 배치되며 보살입상으로 변화한 점과 당좌도 4개로 늘어나는 등 내소사 종의 장식성과 예술성은 이후 고려 범종의 모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조 기술면에서도 상부 천판과 용뉴의 안정적인 결합, 종신으로 말끔히 관통된 음통, 섬세한 문양 표현, 화려하면서도 정제된 조각 수법, 종신 문양의 적절한 구성력 등에서 한중서의 숙련된 기술력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이 범종은 전체적인 형태, 조각, 구조 기술 및 설계 등에서 한국범종사와 제작기술을 연구하는데 학술적, 기술적, 예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주성기에 봉안처와 조성연대, 조성목적, 발원자 및 제작 장인 등 주성 내력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한국 범종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며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지금까지 언급한 가치들을 종합해 볼 때 1963년 이미 보물로 지정된 <내소사 동종>은 신속히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되어 적극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형 식

<내소사 동종>은 고려시대 1222년에 한중서(韓冲敍)라는 장인이 제작한 높이 104.8cm, 입지름 67.2cm의 중형 종으로 한국 종의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 정교한 표현과 사실적인 조각으로 고려 후기 걸작으로 손꼽힌다. 종의 정상부에는 소리의 울림을 돕는 음통에 무늬가 정교하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뉴는 사실적이고 조형적인 용머리를 지닌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다. 종의 어깨 위에는 고려시대 범종의 특징인 입상화문대(立狀花紋帶)가 불룩 솟아올라 있으며, 그 바로 아래쪽 상대(上帶)와 종 아래쪽의 하대(下帶) 부분에는 활짝 핀 모란꽃과 덩굴무늬 띠로 장식되어 있다. 종의 위쪽 네 면에는 사각형의 유곽대에 연주문과 당초문을 각각 배치하고 그 안에 9개의 돌출된 유두는 작은 연꽃봉오리처럼 솟아 있다. 종을 치는 부분인 당좌는 활짝 핀 연꽃으로 부조되어 있고, 종의 몸통 부분에는 구름 위에 삼존상이 새겨져 있다. 삼존상의 가운데 본존불은 활짝 핀 연꽃 위에 선정인의 자세로 앉아 있고, 좌·우 양쪽의 협시불은 입상으로 서 있는 모습이다. 삼존상 위로는 구름의 꼬리가 날아오르고 삼존상 위로 천개가 휘날리는 배치가 인상적이다. 연꽃 당좌와 당좌 사이에 긴 명문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고려 고종 9년(1222)에 한중서(韓冲敍)가 청림사 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부조로 새겨져 있어 제작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철종 원년(1850)에 내소사로 옮겼다.



<한중서, 내소사 동종, 1222>

○ 조성연대와 제작장인

내소사 동종에 부조된 명문에 의하면 이 종에는 ‘청림사’라는 명문이 있고, 청림사는 변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절은 삼한시대부터 오래된 사찰임을 밝히고 있다.³⁰⁾



아울러 동종에 음각되어 있는 명문을 보면 “...貞祐十年六月日社主禪師湛默記 貞祐壬午六月初七日 邊山靑林寺金鍾 鑄成入重七百斤 棟梁道人虛白 道人宗益 匠韓仲敍...”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 내용을 통해 금나라의 연호인 정우(貞祐) 10년(1222) 6월 초7일 변산(邊山)에 위치한 청림사(靑林寺)의 동종[金鐘]을 무게 700근으로 주성하였는데, 동량도인 허백(虛白)과 도인 종익(宗益)이 발원하여 장인 한중서(韓仲敍)가 제작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³¹⁾



<내소사 동종에 새겨져 있는 명문 부분>

30) “靑林寺銘/ 扶寧邊山中有靑林/三韓前寺華古鼎今/...”.

31) <靑林寺鍾銘> 『韓國金石全文』 中世下篇, 아세아문화사, 1984.

이와 같이 고려시대 범종 중에서 정확한 제작시기를 명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종은 총 22점이다. 곧 10세기 1점, 11세기 4점, 12세기 3점, 13세기 11점, 14세기 3점이다. 그런데 내소사 동종처럼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고려 동종 중에서도 발원자나 주종장인까지 병기되어 있는 것은 매우 희소한 사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고려 범종 중에서 명문을 통해 제작양상과 장인에 대한 시기별 분석이 가능하다.³²⁾

한편 고려 범종을 발원한 주체는 명문에 의해 사원, 승려 개인, 향리, 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 내소사 범종과 비슷한 사례로는 <계지사명종(戒持寺銘鍾), 1065년 명), 안수사명종(安水寺銘鍾, 1197년 명)이 있다.



<戒持寺銘鍾, 1065년,
日本福岡縣福岡市承天寺 소장>

<安水寺銘鍾, 1197년,
부산박물관 소장>

<靑林寺銘來蘇寺鍾, 1222년,
내소사 소장>

무엇보다도 내소사 동종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금속 장인이라 할 수 있는 ‘한중서(韓仲敍)’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한중서는 1222년 <청림사명(靑林寺銘) 내소사 동종>과 1238년 <무술년 신훈사명(神龍寺銘)종>을 만든 장인이다. 그가 만든 범종은 두 점이며 그중에서 내소사 동종은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한중서는 고려시대 금속 장인 중에서 범종 뿐 아니라 반자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한 것이 확인된다. 범종 이외에 한중서가 제작한 작품으로는 <崇慶2年高嶺寺銘飯子>(1213년), <戊戌年福泉寺銘飯子>(1238년), <壬子年安養社銘飯子>(1252년) 등이 현존하고 있다. 이러한 명문을 통해 그가 범종이나 반자 등의 금속공예품을 1213년부터 1252년까지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³³⁾

32) 서성호, 「高麗時代 金屬 佛具 造成과 願主」, 『丹豪文化研究』 10, 2006, p.93.

33) 朴敬源, 「高麗 鑄金匠考：韓仲敍와 그의 작품」, 『考古美術』 149, 1981, pp.6~22.

<표1. 韓仲敍가 제작한 각종 불교 유물>

	유물명	제작시기	지위
1	高嶺寺 飯子	康宗 2년(1213)	侍衛軍 仲敍
2	來蘇寺 鍾	高宗 9년(1222)	匠 韓沖敍
3	戊戌銘 神龍寺 小鍾	高宗 25년(1238) 4月	大匠 韓仲敍
4	戊戌銘 福泉寺 飯子	高宗 25년(1238)	別將同正 韓仲敍
5	壬子銘 安養社 飯子	高宗 39년(1252)	別將同正 韓仲敍

이러한 각종 유물에 새겨져 있는 명문에 의해 韓仲敍는 오랜 기간 동안 범종과 금고를 제작한 당대 뛰어난 장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문을 통해 그의 지위가 侍衛軍士→匠→大匠→別將同正으로 승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이른 시기에는 청녕궁주방(壽寧宮主房)의 시위군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가 1222년 내소사 동종을 제작할 때부터 우수한 동종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자로 성장하여 장인이라는 명칭을 새겨 넣을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한중서가 제작한 범종과 금고의 당좌에 표현된 연화문을 보면 같은 장인에 의해 표현된 개인적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른 시기의 고려사명 반자는 당좌구의 중심에 연과자만 원형으로 둘렀고 나머지 6개의 연과자를 둥글게 배치한 뒤 전체를 화형의 테두리로 장식하였고 바깥으로 12중엽의 중판과 간엽을 시문하였다. 고려사 반자는 이후에도 계속 복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222년 내소사 동종의 당좌는 원권으로 싸여 있지 않으며 가늘고 긴 중판의 12엽 연화문으로 중판 내에 엽맥문을 시문하였다. 판단은 날카로운 편이며 삼중으로 둘러진 花形의 자방과 그 안에는 삼중으로 구성된 1+5의 연과자가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한중서가 제작한 금고와 범종의 당좌 문양은 화형의 자방(子房)과 중판(重瓣) 연화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방은 중앙에 하나의 연과자(蓮課子)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연과자를 두르는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한중서가 활동한 13세기는 당시 범종과 금고에서 중판 연화문의 형식이 유행한 시기와 일치하며 그의 작품에는 동일한 당좌의 문양이 계속 사용되었고 기타 부속 문양만을 조금씩 변형시켜 표현하였다. 이처럼 한 장인에 의해 동일 문양이 꾸준히 유존되었다는

사실은 한중서가 수차례에 걸쳐 제작한 금고와 범종들을 통해 독특한 문양의 표현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⁴⁾

뿐만 아니라 그는 1236년부터 1251년까지 제작된 <高麗大藏經> 즉 팔만대장경의 經板에도 글씨를 새겼던 刻手 중에 동일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각수로 한중서가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판은 『放光般若波羅蜜經』 권20, 『摩訶般若波羅蜜經』 권4, 『道行般若經』 권6 등이다. 이 경전들의 많은 경판 중 대략 26판 정도의 경판에 ‘冲敍’ 혹은 ‘中敍’의 이름이 기록된 각수가 확인된다. 이러한 대장경의 판각 연대가 대략 1238년에서 1240년 사이로 한중서의 활동 시기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당시 최대의 국가사업인 대장경 제작에 각수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韓仲敍의 40년이 넘는 활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가 비록 일반인이자 개인 사장(私匠)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에는 ‘별장동정(別將同正)’이라는 관직을 받고 관장(官匠)으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가 제작한 작품들의 명문을 통해 파악되는데 <숭경2년 고령사명 반자(崇慶2年高嶺寺銘飯子)> (1214)에서 그는 시위군(侍衛軍)의 지위로 병역을 지는 동안 공역으로 반자를 제작하는 데 참여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청림사명(靑林寺銘) 내소사종> (1222년)을 제작할 때에는 일반 사장의 의미인 ‘장인(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 시기까진 관장의 직위는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38년에 이르면 한중서는 장인 중의 우두머리로 성장한 것이 확인된다. <무술년 신룡사명 동종(戊戌年神龍寺銘鍾)>(1238)의 명문에 의하면 그는 ‘대장(大匠)’의 명칭을 쓰고 있어, 장인으로 내소사 동종을 만든 이후 16년이 지나 대장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³⁵⁾ 같은 해 제작한 <무술년 복천사명 반자(戊戌年福泉寺銘飯子)>(1238)의 명문에서는 ‘별장동정(別將同正)’이라는 관직명이 확인된다. 이로 미루어 1238년부터 기술적으로 숙련되어 장인의 우두머리인 대장의 지위에 올랐으면서 한편으로는 관에 소속된 관장으로서 관직까지 사여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252년까지 계속 활동하면서 <임자년 안양사명 반자(壬子年安養社銘飯子)>(1252)의 명문에 의하면 이때에도 ‘별장동정(別將同正)’이라는 관직을 쓰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임자년 안양사명 반자(壬子年安養社銘飯子)>(1252)의 명문에 의하면 ‘경사공인지가중주성(京師工人之家中鑄成…)’이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를 통해 개경에 있는 장인 집안에서 반자(飯子)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이 반자를 만든 장인이 바로 ‘별장동정 한중서(別將同正 韓仲敍)’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한중서는 장인가문으로 가업을 이은 것을 알 수 있다.³⁶⁾

34) 고명지, 『高麗 梵鐘의 裝飾 要素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117~118.

35) <神龍寺鍾銘> 『韓國金石全文』 中世下篇, 아세아문화사, 1984. “戊戌四月日 鑄成 橫川地神 龍小鍾 大匠 韓仲敍.”

이처럼 내소사 동종을 만든 한중서는 1214년부터 1252까지 38년간 장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처음 반자를 제작할 당시에는 장인이면서 사장이었으며, 1222년 내소사 동종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그의 금속 제작 기술은 숙련되었으며 1238년에는 장인 중 우두머리인 대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면서 이 때 그는 ‘별장동정’이라는 관직에도 올라 있어 관장으로서 국가의 공역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1252년까지 꾸준히 범종이나 반자의 주물작업 뿐 아니라 대장경의 각수로도 활동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장인이었다. 1222년 내소사 동종은 고려 금속공예 장인을 대표하는 한중서의 초기 작품으로 그의 기술과 명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 현 상

고려 범종은 국내에 100여 점과 국외에 60여 점이 있고 현재 160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 명문이 있는 것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하며, 그중 절대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년명 범종은 26점이고 대체적인 상대연대가 파악 가능한 간지명 범종은 23점이다.³⁷⁾

고려 범종은 1146년을 전후하여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전기는 신라종의 형태와 양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12세기 중엽 이후 고려 후기에는 고려시대 특유의 형태를 갖게 된다. 내소사 동종은 고려(高麗) 고종(高宗) 9년(1222)에 변산에 위치한 청림사(靑林寺)의 종으로 제작되었으나 조선(朝鮮) 철종(哲宗) 원년(元年)(1850) 내소사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지는 전형적인 13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고려 후기 동종이다.

내소사의 범종은 전형적인 신라 범종의 토대 위에 고려적 미의식이 절충된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범종이다.

여의주를 입에 문 사실적인 단룡으로 고리를 만든 종뉴(鐘紐)가 위쪽에 위치하고, 종신(鐘身)의 어깨 위에는 이중여의두문(二重如意頭紋)의 입상화문대(立狀花紋帶)가 볼록 솟아있으며, 범종 몸체의 상대(上帶)와 아래쪽으로 약간 벌어진 하대(下帶)에는 화려한 모란당초문(牡丹唐草紋)의 배치되어 있고, 유려한 당초문대로 구성된 유곽(乳廓) 안에는 4개의 중판연화문(重瓣蓮華紋)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균형 있는 모습이다. 또한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양각으로 천개(天蓋)가 휘날리는 아래에 삼존상(三尊像)이 배치되어 있는데, 두 뺨이 볼록한 선정인(禪定印)의 본존은 연화좌(蓮華座) 위에 앉아 있고, 좌·우협시상(左右脇侍像)은 입상(立像)이면서 각 면에 총 4좌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 위에는 운미(雲尾)가 길게 솟아 있

36) 최응천,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장인」, 『美術史學研究』 241, 2004, pp.174~175 ; 이광배, 「고려시대 범종의 발원계층과 주종장인」, 『東岳美術史學』 13, 2012, pp.132~133.

37) 송민아, 「고려시대 범종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p.30.

고, 그 위에는 장식을 훔날리는 보개(寶蓋)가 있어 한층 장엄한 느낌을 자아낸다. 당좌는 중판연화(重瓣蓮花)로 된 당좌가 4곳에 배치되어 있고, 당좌와 당좌 사이에는 3종류의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처럼 내소사 종은 종신형(鐘身形)은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신라(新羅)의 종형(鐘形)을 따르나 고려 후기 종의 특징인 입상화문대가 볼록하게 튀어 나오게 되어 있다. 표면에 부조된 각종 도상이나 문양의 묘사수법은 정교하고 사실적이어서 고려 후기의 동종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이다.

종신 상하에 유대와 연대를 돌리고 그 안에 유려한 당초문이 긴명하게 양주되어 있으며 유대 위에는 여의두문과 유사한 입화형 장식이 솟아 있어 고려 종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유대 밑에는 4개소의 연주문과 모란당초문으로 구획된 유곽이 있고 그 안에는 각각 돌기된 9개와 연꽃 봉오리형 유두(乳頭)를 배치하고 있다. 정상에는 위에 주형이 달린 음통이 있고 머리가 큰 용뉴가 있는 바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예로부터 한국 범종의 독창성은 통일신라시대 <상원사종(725)>과 <성덕대왕신종(771년)>에서 간취되는 향아리형 종신과 한 마리의 용뉴, 음통, 여백을 강조한 종신의 아름다운 장엄과 함께 은은하고 멀리 울려 퍼지는 깊은 울림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범종의 전형적인 양식인 통일신라의 범종 양식을 충실하게 계승한 고려시대 종은 전승된 바탕 위에 고려 만의 특징이 나난다.

용뉴는 신라범종에서 볼 수 있는 단룡으로 구성되고 용두에서 용의 입술은 삼각형으로 끝이 뾰족하여 옆에서 보면 마치 파도가 치듯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독자적인 표현이 된다.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에 보이는 세련된 장식미가 돋보이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용뉴 및 입상연판문대(立狀蓮板文帶) 등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면서 한국 범종의 장엄 요소는 더욱 다채로워진다.

1) 용뉴(龍鈕)

내소사 동종의 용뉴는 용의 입 안에 표현되었던 보주를 발 위에 잡고 있고 가늘고 길어진 음통 위에는 작은 보주가 여러 개 장식되었다. 이전 시기의 고려 동종보다 훨씬 더 박진감 있고 사실적인 조각수법으로 생동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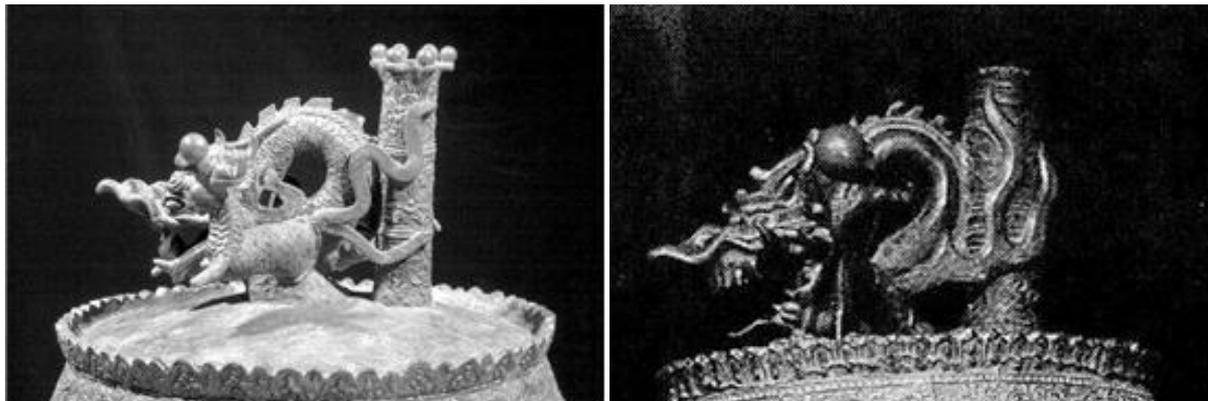
이러한 내소사 동종의 용뉴는 탑산사 동종과 무척 닮아 있어 같은 장인이거나 동일 계열의 장인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용두 앞으로 뻗은 왼발로 여의주를 잡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2개의 불꽃 무늬가 음통을 감싸고 있다. 이러한 용은 머리에 커다란 뿔을 단 용이 뾰족하고 긴 이빨을 드러내 입을 크게 벌려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는 듯한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부릅뜬 두 눈 뒤로 활짝 편 귀가 있고 그 뒤로 잔뜩 치켜 든 허리에는 지느러미가 불끈불끈 솟아있는데 발톱을 세운 다리로 힘차게 발길질을 하고 있어 대단한 역동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용의 입술은 삼각형인데 끝이 뾰족하며 옆에서 보면 마치 파도가 치듯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다. 사실적인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용의 모습을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인 느낌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제작자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용은 평소에는 연못이나 바다 속에 살다가 때가 되면 물을 박차고 나와 하늘로 올라가 지상과 초월적인 하늘을 연결해주는 영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내소사 동종은 탑신사 동종과 마찬가지로 웅혼한 용의 기운을 보는 사람이 인지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한중서, 내소사 동종의 용머리, 1222>



<내소사 동종의 용머리, 1222>

<탑산사 동종의 용머리, 1233>



<내소사 동종의 용과 음통>



<내소사 동종의 음통>



<내소사 동종의 용뉴와 음통>



<내소사 동종의 음통 위 모습>

2) 입상화문대(立狀花紋帶)

입상화문대는 천판의 견대(肩帶) 외연(外緣) 부분에서 연화가 양연처럼 위를 향해 높게 돌출되어 있으며 곧추선 상태로 서로 이어져 천판(天板) 둘레를 싸고 있는 부분이다. 돌출된 각 연판 안에는 꽃술 장식이 첨가되어 있다.

대개 연화형을 하고 있으며 간혹 산형이나 여의두형으로 된 것도 있다. 고려 범종 중에는 1058년 창녕 4년명 범종에서 입상대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총 88점의 고려 동종에서 입상대가 표현되는데, 기년명의 것은 총 24점에서 나타난다.³⁸⁾ 그 중 내소사 동종보다 앞서는 것으로는 1057년 정풍 2년명 동종, 1185년 을사명 동종(국립부여박물관 소장), 1197년 정사 안수사명 동종(부산시립박물관 소장), 1217년 정우 4년명(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등 4점에 불과하고, 1222년 내소사 동종이 고려 후기의 범종 중에서도 입상대가 표현된 이른 시기의 것에 해당된다.

이처럼 고려 범종에 입상화문대가 등장하는 것은 이전 시기와 주조방식의 변화가 유추된다. 용뉴와 종신을 따로 주조하여 접합하면서 생기는 주물 접합선을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의 기능과 함께 장식성이 더해져 하나의 문양대로 정착된 것

38) 최원정, 「高麗 梵鍾 樣式 小考」, 『文化史學』 17, 1999, pp.266~269, <표 1> 입상대가 장식된 고려 범종.

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내소사의 입상대는 이중여의두문(二重如意頭紋)으로 구성된 입상화문대(立狀花紋帶)인 점이 특징이다.



<내소사 동종의 천판 위 입상화문대>

	명칭	시대 ¹⁾	全高 (cm)	특징 및 소장처	銘文 有無
1	淸寧四年銘	1058년(文宗 12)	85.4		銘文
2	正豐二年銘	1157년(毅宗 11)	22.5		
3	乙巳銘	1185년(明宗 15)	62.5	국립부여박물관	
4	丁巳 安水寺銘	1197년(明宗 27)	48.7	부산시립박물관	
5	貞祐四年銘	1217년(高宗 4)	21.6	국립광주박물관	
6	來蘇寺鍾	1222년(高宗 9)	105.3	三尊佛 4位	
7	貞祐十一年銘	1223년(高宗 10)	37.2	飛天像 2位, 국립중앙박물관	
8	癸未 大惠院銘	1223년(高宗 10)	73.5	飛天像 2位	
9	己丑 竹丈寺銘	1229년(高宗 16)	33.1	湖巖美術館	
10	塔山寺鍾	1233년(高宗 20)	77.8	大興寺 유물전시관 소장, 菩薩立像 4位	
11	戊戌銘	1238년(高宗 25)	29.8	菩薩立像 4位, 국립중앙박물관	
12	戊戌銘	1238년(高宗 25)	45.3	국립부여박물관	
13	戊戌銘	1238년(高宗 25)	21.8	菩薩坐像 4位, 부산시립박물관	
14	己亥 頭正寺銘	1239년(高宗 26)	39.0	菩薩坐像 2位, 고려대학교박물관	
15	甲辰銘	1244년(高宗 31)	20.0	菩薩坐像 2位, 飛天像 4위, 金信權	
16	乙酉 水國寺銘	1369년(恭愍王 18)	24.5	僧像 4위, 康津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17	戊寅 修淵院銘	13세기	24.5	菩薩坐像 2位, 湖林博物館	
18	甲申 善法院銘	1284년(忠惠王 5)	58.7	菩薩坐像 4위, 飛揚樂器, 宋成文	
19	五聖寺銘	1309년(忠宣王 1)	16.7	如意頭紋形 입상대, 국립경주박물관	
20	辛亥 正方寺銘	1311년(忠宣王 3)	23.0	如意頭紋形 입상대, 菩薩坐像 2位, 洪性夏	
21	甲寅 天生寺銘	1314년(忠肅王 1)	20.1	菩薩立像 4位, 국립청주박물관	
22	乙丑 寶巖寺銘	1325년(忠肅王 12)	35.7	菩薩坐像 4位, 국립중앙박물관	
23	弘武25년 長興寺銘	1392년(조선太祖 1) ²⁾	60.2	菩薩立像 4位, 서울 奉恩寺	
24	至大四年銘	1311년(忠宣王 3)	31.5	合掌飛天像 4位, 佛 세르느시박물관	

3) 상대와 하대 및 유곽

내소사 동종은 정상에 있는 입상대 아래쪽의 상대(上帶)와 아래쪽의 하대(下帶)에는 모두 화려한 모란당초문을 새기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모란당초가 범종의 문양으로 사용되는 것은 <청녕 4년명 종>(1058년)의 상대와 하대 및 유곽에서 보이는데, 꽃맥과 잎맥까지 확실하게 시문되어 있다.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된 모란당초문은 이후 11세기 보상당초에서도 보이지만 내소사 동종에서 보인다. 특히 내소사 동종의 모란당초문은 활짝 핀 정면과 측면의 모란이 보이고 모란이 피기 전 봉우리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³⁹⁾



<내소사 동종의 상대-모란당초문, 1222>



<내소사 동종의 하대-모란당초문, 1222>



<‘清寧 4年銘 鍾’ 상대의 모란당초문, 1058>



<‘清寧 4年銘 鍾’ 하대의 모란당초문, 1058>



<내소사 동종의 상대>



<내소사 동종의 유곽>



<내소사 동종의 하대>

상대 아래 유곽(乳廓)은 통상적으로 네 곳에 배치되는데, 4개의 중관연화문(重瓣蓮華紋)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균형 있는 모습이다. 외연을 구획하여 인

39) 고명지, 「高麗 梵鍾의 裝飾 要素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94~95.

동문으로 장식하였으며, 9개의 유두(乳頭)는 각기 화문을 돌려 배치하고 있다. 유곽의 사다리꼴은 안정적이며 유두의 배치 역시 잘 정돈되어 있다.

4) 유곽 사이의 부조상

내소사 동종에는 삼존형식의 불상이 부조되어 있다. 이렇게 범종에 불보살상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 범종이 통일신라의 범종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고려시대 범종에는 다양한 종류의 부조상이 등장하는데,⁴⁰⁾ 천인상이나 여래상, 보살상, 장군상, 위패형 등이 나타난다. 이것은 고려 불화와 마찬가지로 아미타삼존이 유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범종의 부조로 표현된 삼존상이 아미타삼존인지, 석가삼존인지 도상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내소사 동종의 삼존상과 천개, 1222>

<波上宮鍾>

<清寧 4年銘 鍾, 1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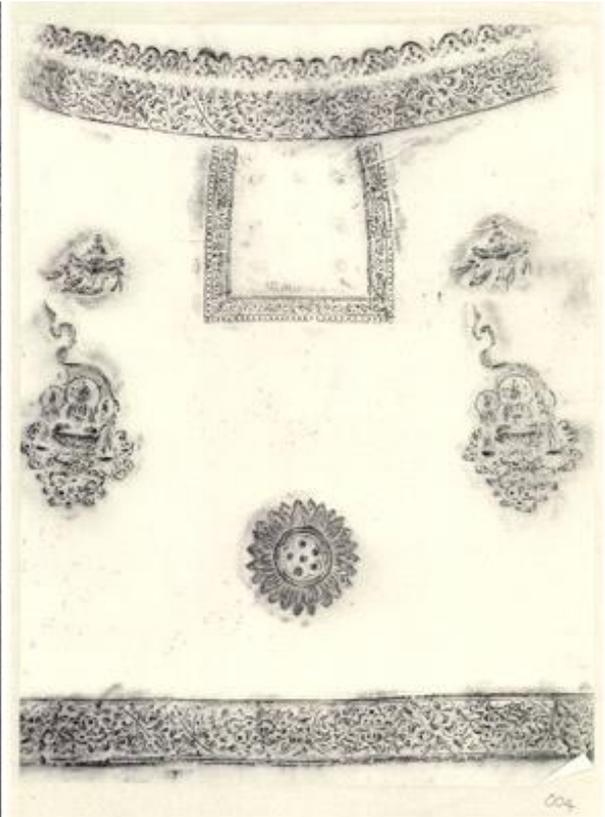
<연복사 동종의 삼존상, 1346>

40) 전경미, 「고려 범종 부조상의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6 ; 이호관, 「韓國 梵鍾에 나타난 飛天과 菩薩, 如來像」, 『古美術』 27, 1990, pp.16~19 ; 황유정, 「고려 범종의 佛像, 菩薩像 出現에 대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내소사 동종의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양각된 삼존불상(三尊佛像)이 구름 위에 앉아 위를 향해 꼬리가 구불구불하게 천의가 휘날리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삼존상이 표현된 것은 고려 범종 중 연복사 종과 함께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아울러 불상과 천개의 표현은 1222년의 내소사 동종의 삼존상이 고려시대 범종 중에서도 가장 유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내소사 동종 - 삼존상과 천개>



<내소사 동종 - 탁본>

중앙의 본존상은 동적인 모습으로 얼굴이 신체에 비하여 매우 크고 둥글며 온화하고 부드러워 고려 불상의 특징적인 인상을 풍긴다. 2條의 두광이 있으며 머리 카락은 나발로 목에는 짧은 삼도가 보이고 통견의 범의는 길게 U자형으로 파여 있다. 가슴에는 ‘卍’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비록 현재 범종에 표현된 삼존상의 부조 자체가 적은 탓도 있겠지만 이러한 예는 범종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불상 위의 천개는 <波上宮 鍾>에서 좌상의 불상은 2구의 天人像과 함께 배치되어 있는데 천인에 비해 작게 부조되어 천인상을 강조한 통일신라시대 범종의 전통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연화좌 위에 선정인의 자세로 앉아 있는 불상 위에는 천개(天蓋)가 있고 두광과 신광을 갖추었으며 통견과 범의를 걸치고 합장인을 걸하며 운좌(雲座)와 연화좌(蓮華座)에 앉아 있다.⁴¹⁾

내소사 동종의 삼존상 중 본존은 연화대좌(蓮華臺座) 위에 앉아 있는데 두 뺨이

41) 고명지, 「高麗 梵鍾의 裝飾 要素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72.

불룩한 상호에 선정인(禪定印)을 하고 있으며, 본존의 좌우에는 입상의 협시상(脇侍像)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내소사 동종 본존상의 가슴에는 ‘卍’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범종에 표현된 삼존상 중에는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고려 불화에는 1286년(지원 23) 아미타내영도를 비롯하여 일본에 소장된 아미타내영도에는 여러 점의 유례가 있다. 이처럼 내소사 동종의 삼존상은 음각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양각된 선 위주의 윤곽이나 표정이 표현되어 있어서 본존의 보관 장식과 두광을 이중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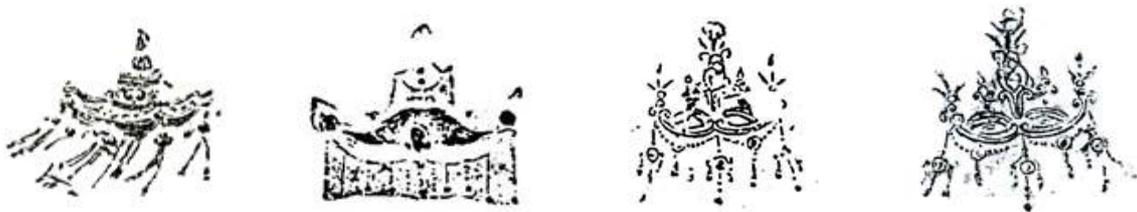
<내소사 동종 - 삼존상의 ‘卍’자>



<내소사 동종 - 천개와 유소>

내소사 동종의 경우 좌우 협시는 입상인데, 용주사 범종의 경우 좌우 협시가 좌상이고 천의가 투명하여 반측면에서 바라보는 구도를 지닌다. 내소사 범종의 경우 천의 대신 삼존상 뒤로 한 가닥의 운문이 마치 피비우스의 띠처럼 표현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내소사 범종의 삼존상 위에는 천개(天蓋)를 배치하고 있는데, 천개는 위쪽이 연봉형에 연꽃잎이 있으며 여덟 면 옆의 가장자리에 매달려 늘어뜨린 유소 장식들이 바람에 흔들리듯 표현되어 동세(動勢)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천개가 나타나는 종은 내소사 동종을 비롯하여 정우사 종(1019년), 승천사 종(1085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환 1800종 등에 천개가 표현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우수한 표현을 보이는 것이 내소사 동종의 천개이다.⁴²⁾



<내소사 종 천개, 1222> <正祐寺 鍾 천개, 1019> <承天寺 鍾 천개, 1065> <동원 1800 鍾, 천개>

42) 고명지, 앞의 논문, p.74.

이러한 천개는 불상 위에 놓여져 보화(寶華) 또는 광명이 변해 개(蓋)가 되어 불상의 위를 덮는다는 것을 말한다. 천개의 모습도 다양하여 사각형이나 원형 등에 운연과 화염 등을 중첩시키고 장식도 네 변에 번을 늘어뜨리거나 영락을 베푸는 등 다양하다. 이렇게 삼존상 위에 천개가 배치된 형식은 신라 범종에서는 볼 수 없는 고려 범종만의 특징으로 매우 중요하다. 불상이 범종 위에 표현된 것은 종소리를 범음(梵音)으로 인식하여 중생의 깨달음과 구제를 염원하기 위함이다.



<내소사 범종 삼존상> <내소사 범종 삼존상> <내소사 범종 삼존상> <내소사 범종 삼존상>



<吾魚寺鍾(1216년)>

<來蘇寺鍾(1222년)>

<乙巳銘鍾(1245년)>

○ 참고문헌

- 고명지, 「高麗 梵鍾의 裝飾 要素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敬源, 「高麗 鑄金匠考: 韓仲敍와 그의 작품」, 『考古美術』 149, 1981.
- 서성호, 「高麗時代 金屬 佛具 造成과 願主」, 『丹豪文化研究』 10, 2006.
- 송민아, 「고려시대 범종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광배, 「고려시대 범종의 발원계층과 주종장인」, 『東岳美術史學』 13, 2012.
- 이호관, 「韓國 梵鍾에 나타난 飛天과 菩薩, 如來像」, 『古美術』 27, 1990.
- 전경미, 「고려 범종 부조상의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최원정, 「高麗 梵鍾 樣式 小考」, 『文化史學』 17, 1999.
- 최응천,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장인」, 『美術史學研究』 241, 2004.
- 황유정, 「고려 범종의 佛像, 菩薩像 出現에 대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조사내용

사찰에서 사용하는 종은 소리를 통해 梵音, 즉 불음을 전파하는 범고, 운판, 목어와 더불어 범구사물 중 가장 대표적인 범음구이다. 동종은 소리를 통해 대중들에게 시간을 알리는 단순한 기능과 지옥이나 현실의 생로병사의 윤회의 굴레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종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내소사 보종각에 걸려 있는 고려시대 동종이다. 보종각은 내소사 대웅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건립되어 있는 봉래루 향좌측 편에 위치한다. 동종은 높이가 104.8cm, 구경이 67.2cm로 고려 후기 제작된 동종 중에서 규모가 크다.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동종 가운데 조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가장 우수한 종으로 평가받고 있는 종이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범종은 크고 작은 종을 모두 합쳐 약 160여 점으로 추정하고 있고, 기년명 종은 약 49구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간지명만 있는 종을 제외하고 시대별 그 수를 헤아려 보면, 10세기 2구, 11세기 10구, 12세기 7구, 13세기 7구, 14세기 3구로 파악되며,⁴³⁾ 그중 국내에 100여 점, 국외에 60여 점이 유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⁴⁾

내소사 동종은 신라시대 동종의 기본형을 계승하고, 여기에 고려 후기의 새로운 양식과 미의식을 가미하였다. 종의 구성은 종뉴와 종신으로 구분된다. 종뉴는 우리나라 동종 중 가장 오래된 상원사 동종과 같이 단룡과 대나무 모양의 음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사 동종과 달리 천판과 종건의 경계부분에 입상화문대를 돌려 천판과 종신을 구획하였고, 종신에는 어깨와 종의 입부분에 문양대를 돌려 상응하게 하였고, 상대에 연해서 연곽대를 네 곳에 배치하였다. 종신에는 불삼존과 주종 관련 명문, 그리고 당좌를 배치하였다.

내소사 동종은 신라 종과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천판과 종건의

43) 宋旻娥, 「고려시대 범종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 p.36.

44) 최원정, 「고려 범종 양식 소고 : 전기 양식 중심으로」, 『문화사학』 17, 한국문화사학회, 2000, p.258.

경계부에 둘러진 입상화문대이고, 다른 하나는 종신에 새겨진 불삼존의 표현이다. 입상화문대는 천판의 주물흔적을 가리고 종을 보다 화려하게 꾸며주는 기능을 맡고 있다. 고려시대 등장하는 입상화문대는 꽃의 형태에 따라 연꽃형, 山形, 여의두형, 복합형 등으로 할 수 있는데, 내소사 동종의 입상화문대는 여의두형에 가까운 구름무늬로 연출하였다. 이와 같은 입상화문대는 고려 전기 종과 후기 종으로 시기를 나누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입상화문대는 1115년 작인 <정풍 2년명 동종>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입상화문대가 등장하지만, 그 시작은 청령 4년명 동종(1058)에서부터 인 것으로 보인다. 청령 4년명 동종에서는 낮은 구름모양의 초보적인 입상화문대가 등장하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모양의 입상화문대가 출현하여, 고려 후기 범종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입상화문대의 출현은 천홍사명 동종(1010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판에 꽃잎을 새겨 넣어 구조결함이나 지지부한 주물 흔적 같은 보기 흉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추정된다.⁴⁵⁾ 이러한 기능이 원래의 기능을 뛰어 넘어 또 다른 매력과 효과를 주는 장엄장치로 발전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입상화문대는 더욱 발전하여 1192년의 <大慈寺 銅鍾>이나 <承安 6년 天井寺 銅鍾>(1201년) 동종에 이르러는 완전히 정착된 모습이며,⁴⁶⁾ 1222년 작인 내소사 동종에 이르러서는 가장 발전된 양상을 띤다.



<내소사 동종 전면>

<종뉴>

<연곽과 연뢰>

<당좌와 하대>

내소사 동종의 특징 중 입상화문대 외 또 다른 특징은 종신에 표현된 불삼존이다. 종신에 표현된 불삼존의 경우, 통일신라 범종의 종신에는 주악천인이 주로 등장하지만, 고려 범종에서는 무용, 비행, 합장 천인 등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다가 천인상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여 불·보살상이 종신의 주요 문양으로 대체된다. 고려 범종에서 佛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종은 <波上宮 銅鍾>(956년)이다. 보살은 11세기 동종에서부터 종신에 부조되기 시작하여 고려 후

45) 최웅천, 『한국 범종의 특징과 변천』, 『하늘 꽃으로 내리는 깨달음의 소리』, 직지사성보박물관, 2003 참조.

46) 최웅천, 『한국의 범종』, 미진사, 2022, pp.240~245; 高明志, 「高麗 梵鍾의 裝飾 要素 研究」,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p.26. 고명지는 논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최웅천 교수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기 동종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며, 급기야 용주사 동종과 내소사 동종의 초기적인 삼존모습이 내소사 동종에 이르러 완전한 불보살 삼존으로 구성되어 신앙적으로 한층 완성된 모습을 보인다.

종뉴는 한 마리 용과 음통으로 구성하였다. 음통은 용의 등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이어 붙였고, 용과는 별도로 틀을 사용하였다. 용은 앞으로 늘어진 입술, 뿔과 갈퀴와 비늘 등 세부 묘사가 사실적으로 모델링되었다. 특히 종의 규모 적당하게 종신과 비례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당당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용은 전신을 표현하지 않고 상반신만 표현하였고, 두 발은 천판에 두지 않고 공중에 떠워 하늘을 비행하는 용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왼발은 하늘 위로 들어 여의주를 받쳐 들었고, 오른발은 천판 위에서 나래 치듯 역동적인 자세를 연출하고 있다. 용의 발꿈치와 입술 주위에는 갈퀴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으며, 등쪽에는 두 줄기 焰翼이 뻗어 나와 s자형의 곡선을 그리며 음통을 스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발을 천판에서 띄운 용의 모습은 1216년 오어사 동종을 비롯한 13세기 동종의 종뉴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적 특징이다. 음통은 세 마디로 구성된 竹節形 음통으로, 마디와 마디 사이는 여백을 두지 않고 상·하대와 같은 모란문 입체감 있게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음통의 상단부는 평면을 六稜形으로 디자인하고 그 위에 6개의 구슬을 올려놓았다. 아마도 육도윤회로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닌가 한다.



<천개>

<불삼존>

<종뉴와 천판>

<음통>

천판은 彎曲을 이루고 있으며, 4~5곳에 장방형 주물구의 흔적이 남아 있다. 종의 어깨부와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입상화문대가 톱니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입상화문대는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천판의 주물 결함이나 거친 주물 흔적을 가리기 위한 미적 장치이다. 입상화문대의 입면은 능을 준 구름무늬에 가까우며, 두 겹으로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꽃 수술을 표현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입상화문대 아래, 즉 종의 어깨부분에 해당하는 곳에는 문양대를 돌렸다. 문양의 구성은 꽃과 넝쿨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란당초문을 베꼈다. 종의 입(口)에 둘러진 하대에도 상대와 같은 모란당초문으로 합을 맞추었다. 모란 당초문은

앞맥까지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상·하대에 시문된 모란당초문은 <청녕 4년명 동종>(1058년)에서 처음 확인되며, 이후 <善慶院 銅鍾>(1201년)의 하대, <北禪院寺銘 鈸子>(1218년) 등에서 내소사 동종의 선례를 찾을 수 있다.⁴⁷⁾

연곽대 상대 문양대에 붙어 동서남북 네 곳에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연곽대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 모양이며, 상대와 맞붙은 상단의 연곽대는 생략하였다. 연곽대는 가는 선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획하고 가장자리에는 연주문을, 안쪽 면에는 연꽃 넝쿨문을 시문하였다. 연곽 내에는 3단3열(3×3)로 연꽃봉우리인 연뢰를 배치하였다. 연뢰는 꽃받침이 봉우리를 받치는 모습이며, 전체적인 모습은 연지에서 연꽃이 피는 형상이다. 이는 곧 극락 九品蓮池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한국 종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鍾腹에는 불삼존이 구름을 타고 하강하는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불삼존의 상단에는 영락장식과 번이 드리워진 화려한 天蓋가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른 시기 불교미술에서부터 등장하는 무대 장치로, 특히 1294년 작 京都 妙滿寺 <彌勒下生經變相圖>의 천개, 14세기 작 京都 淨教寺 <阿彌陀如來 八代菩薩圖> 등 고려 불화와 사경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삼존 모두 원형의 두광을 갖추었다. 본존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 하였다. 연꽃은 당좌의 연꽃과 마찬가지로 끝이 날카롭고 세장한 형태이다. 둥근 얼굴에 이목구비는 단정하며, 이마에는 백호가, 가슴에는 만자가 양각되어 있다. 통견의 대의를 걸쳤으며 두 손은 복부에 두어 선정인을 결한 것으로 보이나 대의로 덮여 확인되지 않는다. 좌우 협시는 입상으로 표현되었다. 원반모양의 대좌위에 서서 본존을 향해 합장하였다. 불삼존 주변으로 뭉게구름이 삼존을 떠받치고 있으며, 불삼존의 등 뒤로는 구름의 꼬리가 꺾적을 그리며 펼쳐져 있다. 내소사 동종의 불삼존의 표현은 고려시대 정서와 미감을 반영한 것이며, 13세기 고려불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13세기 전반 고려 불화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통일신라 동종에서는 종신에 공양 비천상이나 주악비천상이 등장하여 불법을 찬탄하거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천인상은 고려 전기까지 보이다가 점차 불·보살상으로 대체된다. 불보살상으로 대체되는 이유는 정확하지 않으나, 불보살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범음을 듣고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행여 지옥에 떨어져 있는 중생들은 극락정토로 왕생시키기 위한 불교의 근본적인 정신이 적극적으로 표출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불·보살을 표현하여 직접 중생제도의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내소사 동종의 주성기와 이 보다 시대는 떨어지지만 연복사 종의 명문에 종 제작 공덕과 목적이 잘 표출되어 있다. 내소사 동종과 연복사 종(1346년)의 명문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목된다.

47) 고명지, 앞의 글, pp.95~96.

<내소사 동종 명문 중>

백공(白公) 등에게 명하여 종을 만들도록 하였다.[鑄發鯨音]
윤회(輪回)의 고통에서 벗어나 어지럽고 막힌 것을 깨우치게 하리니
무릇 귀가 있는 이들은, (듣고서) 본심(本心)을 열고 깨달으라

<연복사 동종 명문 중>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듣게 하지면 金소리를 울려야 한다. 三軍을 整齊하게 하고
八音を 조화하게 한다.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깊은데 땅 밑에 獄이 있어 얼마나
어두울고, 萬生萬死의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술 취한 듯 꿈꾸는 듯 귀먹고 말 못
하다가 한 번 종소리를 들으면 모두 마음이 깨치게 된다.⁴⁸⁾

위의 두 동종 명문 기록을 통해, 동종을 제작하는 공덕은 현실에 닮은 어려움을
구제하고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소리로써 깨우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을 분명히 알 수 있다.⁴⁹⁾ 이러한 신앙적 목적이 구체화되면서 동종 표면의 의장도
그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내소사 동종은 종의 명문
기록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시각언어로 잘 구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당좌는 네 곳에 마련되었다. 당좌는 연육부와 연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圓圈
의 테두리는 표현하지 않았다. 연육부는 육능 3겹으로 멋내어 처리하였고, 연자는
중양에 1과 그것을 둘러싸고 4과를 배치하였다. 연잎은 2겹의 重瓣으로 처리하였
는데, 잎이 세장하고 잎의 끝을 펜촉모양으로 날카롭게 표현하였다. 연자의 배치
와 구성, 육능형의 연육부, 뾰족한 2중의 연꽃 형태는 대자사 동종의 당좌나 善慶
院(日本 岩手縣 盛岡市 北山 소재, 1201년) 동종의 당좌 유사하며, 1311년 작인 藥
師庵銘 동종(프랑스 파리시 체르누스키박물관 소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내소사 동종에 표현된 여러 가지 조형적 요소, 즉 종뉴에서 종구에 이르는 종의
형태와 용과 음통, 六稜 음통 위의 6개의 구슬, 상·하대의 문양, 연곽과 연뢰, 세
장한 겹잎의 당좌 등 세부표현과 조형 감각은 기본적으로 1192년 작인 大慈寺銘
동종⁵⁰⁾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면서, 13세기 초반의 시대적 분위기와 작자(한중
서)의 예술 감각을 첨가해 전대보다 훨씬 세련되고 뛰어난 조형미를 갖춘 동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복에는 두 군데에 걸쳐 명문이 음각 명문이 남아 있다. 하나는 조성 당시의
명문이며, 다른 하나는 이 종을 청림사에서 내소사로 이운하며 작성한 명문이다.

48) 『演福寺新鐘銘』, 『國譯 東文選』 제49권, p.45.

49) 고명지, 앞의 논문, p.37.

50) 최응천, 앞의 책, pp.240~245쪽 참조.

<명문>51)

靑林寺銘」

扶寧邊山中有靑林」

三韓前寺革古鼎今」

堂宇宏麗禪侶盍簪」

命白公等鑄發鯨音」

停離輪苦警悟昏沉」

凡有耳者開覺本心」

壬午六月日社主禪師湛默誌」

貞祐十年六月日社主禪師湛默記」

貞祐壬午六」

月初七日邊山」

靑林寺金鍾」

鑄成入重七百」

斤 棟梁」

道人 虛白」

道人宗益」

匠 韓冲叙(以上原銘)」

余己酉九月七日卜居」

靑林翌年九月七日鑿」

此金鐘移懸于來蘇寺」

銘曰性保金剛體法轉」

輪聞聲悟心花開實新」

崇禎紀元後四癸丑九月」

二十七日隱士金性圭記」

而施焉 持殿完岩正宇(以上追銘)」

청림사(靑林寺)의 명(銘)

부녕(扶寧)의 변산(邊山)에 청림사(靑林寺)가 있으니

삼한(三韓)의 옛 절은 없어지고 지금 다시 세워졌다

건물[堂宇]는 크고 화려하며, 선승(禪僧)들이 많이 모이니

백공(白公) 등에게 명하여 종을 만들도록 하였다.[鑄發鯨音]

윤회(輪回)의 고통에서 벗어나 어지럽고 막힌 것을 깨우치게 하리니

51) 명문과 해석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음(<https://portal.go.kr>) 재인용.

무릇 귀가 있는 이들은, (듣고서) 본심(本心)을 열고 깨달으라
 임오년(壬午年: 1222년, 고종 9) 6월 일 사주(社主) 선사(禪師) 담묵(湛默)이 짓다.
 정우(貞祐) 10년 6월 일 사주(社主) 선사(禪師) 담묵(湛默)이 쓴다.
 정우(貞祐) 임오년(壬午年) 6월 초7일에 변산의 청림사에서 금종(金鐘)을 주조하
 여 이루니, 무게가 700斤이다.
 동량(棟梁)은 도인(道人) 허백(虛白), 도인 종익(宗益)이며,
 장인(匠人)은 한중서(韓冲叙)이다. (以上 原銘)

(추가 명문)

내가 기유년(己酉年: 1849년, 현종 15) 9월 7일에 청림사에 머물면서 이듬해 9월 7
 일에 이 금종을 뜯어 내소사(來蘇寺)에 옮겨 매달았다. 명(銘)에 이르기를 “본성
 (本性)은 금강(金剛)을 보전하고 몸은 전륜(轉輪)을 본받는다. 소리를 들으면 마음
 을 깨닫고, 꽃이 피면 과실이 맺히리라”라고 하였다.
 숭정 기원후(崇禎紀元後) 네 번째 계축년[四癸丑] 9월 27일에 은사(隱士) 김성규
 (金性圭)가 쓰고 시주하다. 지전완암정우(持殿完岩正宇) (以上 追銘)



<명문 탁본1, 원명문(1222)>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을 제공)



<명문 탁본2, 이안기(1853년)>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을 제공)



<주종기(1222년)>



<이안기(1853년)>

이 종 제작에 참여한 주요 인물은 社主 禪師 湛默과 이 일을 주관한 棟梁道人

虛白과 道人 宗益, 그리고 종을 제작한 장인은 韓冲叙이다. 한중서는 고려 후기 장인 중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금고 3점과 범종 2점이 알려져 있고, 작품에 기록된 명문을 통해 그의 활동 시기는 13세기 전반에서 중엽까지로 확인된다. 그는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1218년 高嶺寺 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펼친다. 이 금고에는 ‘侍衛軍 仲叙’라고 기록되어 있어 시위군에 소속된 하급 군직 신분으로 장인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²⁾ 따라서 그는 시위군에 소속된 관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 4년 뒤에 제작된 1222년에 제작된 청림사명(내소사) 동종에는 아무런 직급이나 직위 없이 장인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한참 뒤에 제작된 1238년에 제작된 神龍寺銘 小鐘에도 청림사 동종처럼 단순히 大匠으로만 기록되어 있다.⁵³⁾ 그런데 신흥사명 소종과 같은 해 만들어진 福泉寺 금고에서는 ‘別將同正’이라는 직위가 기록되어 있다.⁵⁴⁾ 이 무렵에 武散階의 동정직을 제수 받아 관장으로서 그 실력을 입증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⁵⁵⁾ 고려시대 관장은 대장이나 부장 같이 직명을 이름 앞에 일반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별장 동정으로 제수받기 이전부터 그는 관장에 속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⁵⁶⁾ 이후 1252년에 제작된 고성 옥천사명(安養寺銘) 반자까지 직위의 큰 변동 없이 ‘별정동정 한중서’로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된다.⁵⁷⁾ 특히 그의 출신과 관련하여 옥천사 금고에는 중요한 문구가 확인된다. 즉 옥천사 금고에는 ‘京師工人之家’라는 문구가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그가 대를 이어 개경에서 활동한 工人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다. 그는 고려사명 반자에서 옥천사 반자에 이르기까지 약 30여 년 간 공사장으로 활동을 해

52) 고려사 반자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崇慶二年甲戌三月五日壽寧宮主房侍衛軍公節亦 聖壽天長國泰民安兩主各「保千秋兼及亡妻聰明女離苦得樂聞聲悟」道之願 鑄成飯子一隻重三十斤懸於高嶺寺永充功德者同願(同時住持惠成 同房侍衛軍 仲叙). 명문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음에서 인용(<https://portal.nrich.go.kr>).

53) 신흥사명 동종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戊戌四月日鑄成「橫川地神龍小鍾」大匠韓仲叙. 명문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음에서 인용(<https://portal.nrich.go.kr>).

54) 복천사 반자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今上寶位天長晉陽公福壽延長天水相國趙康卿速「離苦海受生淨土留沙寺住持禪師學淵今生無病後」世離三界之愿以茂代四月日鑄成橫川縣地福泉寺「飯子重二十斤 鑄成者別將同正韓 仲叙」명문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음에서 인용(<https://portal.nrich.go.kr>).

55) 여기에 기록된 고려시대의 ‘별장(別將)’은 경군(京軍)이나 주진군(州鎭軍) 및 각 령(領)에 소속된 군관(軍官)의 직명으로 정7품의 하급 장교를 칭한다. 직명 아래 함께 사용된 ‘동정(同正)’은 정직에 준하여 설정된 산직(散職)의 하나로 대체로 한직(閑職) 및 초임 임직의 성격을 띠어 대기하였다가 규정에 따라 실직으로 진출하였고 17~25결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중서는 관장으로서 무산계 정7품인 별장으로 진급하였으나 장인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정직이 아닌 일종의 별정직인 동정직(同正職)을 수여받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웅천, 『한국의 범종』, 미진사, 2022, p.268.

56) 官匠은 官廳手工業에 소속된 장인으로 각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전문 기술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국가가 工匠案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 1년에 300일 이상 복무하는 조건으로 工匠別賜를 지급받는 職役層 工匠이었다. 徐聖鎬, 「高麗前期 支配體制와 工匠」, 『韓國史論』 27, pp.96~106. 대장이나 부장의 직함은 『高麗史』 食貨志의 기록을 통해 관장을 지칭하는 명칭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기사에는 대장, 부장, 잡장 이 세 가지가 官匠의 직급이며, 이들은 武散階 속해 있으면서 국가로부터 田十七結의 녹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홍승기, 「高麗時代의 工匠」, 『震壇學報』 40, 1975, pp.70~75쪽.

57) 고성 옥천사 금고 명문은 다음과 같다. 高麗二十三王環甲之年壬子四月十二日在於京師工人家中鑄成智異山安養社之飯子入重六十餘斤同願施主者「樞密院右副承宣孫挺烈尙書皇甫琦檢校尙書俞承錫華嚴業三重勝壽大選景興知識正之故上將軍奇弼宣之嘉偶珍原郡夫人吳氏 郎將金伯龍之嘉偶樂浪郡夫人崔氏同丈院錄事鄭常之嘉偶海陽郡君金氏學錄朱埴之嘉偶金氏比丘尼清惠等此根幹外錙銖之單甚多故不具錄工人別將同正韓 仲叙 棟梁道人宗一 負擔人上座善心 使用長存. 명문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음에서 인용(<https://portal.nrich.go.kr>).

지속해 온 고려시대 가장 걸출한 장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⁵⁸⁾ 이 내소사 동종은 그가 만든 작품 중에서 최고의 예술적 성과물이다. 한편 1236부터 1251년까지 제작된 <고려대장경>의 刻手 이름에서 그와 동일한 이름이 등장한다. 활동 시기로 보아 동일인물로 추정하고 있다.⁵⁹⁾

한중서 외 고려시대 관장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園城寺 所藏 銅鍾>의 ‘大匠位 金慶則’, <承天寺 銅鍾>(1065년)의 ‘大匠 金水’, 副大匠 保只, 未亭 정도에 불과하며, 한중서 같이 여러 작품을 남기고 있는 官·私匠을 통틀어 한중서가 유일하다.

부기한 기록에는 청림사에서 내소사로 종이 이안된 내력을 적고 있다. 즉 이 종은 원래 변산(邊山)의 청림사(靑林寺) 종으로 1222년에 만들어져 오랜 기간 내려오다가 조선시대 1853년에 지금의 내소사로 그 거처가 옮겨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 현 상

현재 부안 내소사 대웅전 앞 종각 안에 안치되어있는 <내소사 동종>은 1963년 1월 보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 종에는 제작 당시의 원명과 추각 명문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임오년(壬午年: 1222년, 고종 9) 6월 변산(邊山)에 청림사(靑林寺) 종으로 만든 것을 기유년(己酉年: 1850년, 철종 원년) 9월 지금의 내소사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범종 중 가장 완벽한 양식과 정밀한 주조 기술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총높이는 104.8cm로 고려 후기 종 가운데 가장 큰 크기이다.

현재 용뉴 부분은 단용의 용뉴가 음통을 염익(焰翼)으로 감싸고 있다. 용은 크게 입을 벌리고 있으며 혀와 이빨로 여의주를 물고 있다. 턱 아래쪽 송곳니 사이로 혀바닥이 길게 나와 있으나 앞부분은 잘려있다. 음통을 감싸고 있는 염익 부분도 아래쪽 염익은 끝부분 일부가 잘려나간 것으로 보아 동종을 이동하던 중 얇고 길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손상된 것으로 보여진다.

연곽은 용뉴의 얼굴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 연곽 안에 하단 중앙 연뢰가 손실되었으나 다른 방향의 연뢰는 모두 손상된 부분 없이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하대에는 용 얼굴 정면에서 우측 당좌 아래 하대 부분에 문양대의 높낮이가 다르고 문양이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주조할 때 쇳물 주입 시 외형틀이 손상되면서 주물이 덧대어 나오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종신은 전체적으로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종각과 종틀에 칠한 안료가 종신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종을 걸고 있는 현가(縣架)쇠도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58) 최응천, 『한국의 범종』, 미진사, 2022.

59) 이광배, 「高麗時代梵鍾의發願階層과鑄鍾匠人」, 『동악미술사학』 13, 동악미술사학회, 2012, p.132.

용뉴의 오른쪽 발에 쇳녹이 묻어있어 교체가 시급해 보인다.



<현가 쇠 부식으로 인한 용뉴 발 쇳녹자국>



<단청 안료 착색 부분>



<청동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종신 당좌부분>

○ 내용 및 특징

뛰어난 주조 기술이 돋보이는 부안 내소사 동종은 한중서(韓冲叙)라는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다. 한중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청동북 3점과 범종 2점을 토대로 13세기 전반부터 중엽까지 활동한 장인으로 보고 있다. 현존하는 작품 수는 적지만 그의 활동영역으로 보았을 때 더 많은 양의 작품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중서가 제작한 동종은 <靑林寺銘 來蘇寺 銅鐘>(1222년)과 <戊戌年 神龍寺 銘 小鍾>(1238년)이다. 한중서의 활동은 처음 <高嶺寺 靑동북>(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을 만들 당시 수녕궁주방 시위군의 일개 군사로 출발하여, 이후 한동안 관직 없이 匠, 大匠으로 활동하다가, <福泉寺銘 靑동북>에서 ‘別將同正’이라는 官匠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중서는 私匠 출신으로 병역의 의무기간 동안 관에 소속되어 작품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사장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어느 시기 관직을 수여 받고 관장으로 활발히 활동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범종 이외에 한중서가 만든 작품으로는 <高嶺寺 靑동북>(1214년), <福泉寺銘 靑동북>(1238년), <安養寺銘 靑동북>(1252년) 등의 명문에서 장인으로서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범종 가운데 가장 양식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한중서의 작품 활동 시기를 통해 볼 때 그가 내소사 동종을 제작할 때 이미 대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장으로서 활동하던 그의 실력을 관에서 인정하면서 관직을 수여하며 다양한 주종 활동을 펼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이 종은 용뉴부터 종신에 표현된 세부 문양의 화려함과 독창적인 삼존불의 표현, 종의 구조상태까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범종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문양 표현을 살펴보면 용의 입모양은 통일신라 범종의 용뉴와 달리 정면을 향해 있으며 새부리와 같이 윗입술이 돌출되어 있고 아랫입술보다 길게 뻗어 나와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입천장이 다 보일 정도로 크게 입을 벌리고 있어

윗입술이 눈을 가릴 정도이다. 입안에는 여의주를 이빨로 꼭 깨물고 긴 혀로 받치고 있다. 눈썹은 엽전모양처럼 쌍인 동그란 문양이 반복되어 표현되었고 귀로 연결되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동경이나 범종의 용의 모습은 대부분 이렇게 윗입술이 뾰족하게 표현되었다. 용의 오른발은 힘차게 뒤로 뻗어 마치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듯하다. 왼발은 머리 위로 들린 채 4개의 발톱을 활짝 편 상태이며 발바닥 위에 보주가 놓여 있다. S자로 굴곡지게 표현된 목은 비늘과 갈기가 섬세하게 묘사되었고, 염익은 3단으로 나눈 원통형 음통을 감싸며 휘날리고 있다. 음통에는 화려한 연당초문을 조각하였으며 원통 윗부분에 6개의 보주를 크게 장식하였다. 음통 내부는 종신까지 관통되어 있다.



<내소사 동종, 1222년(고종 9)>

고려 후기 범종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천관 외연에 둘러진 입상연판문대는 높게 돌출되고 각 연판 사이에 꽃술 장식이 첨가되며 화려함을 더했다. 고려시대 범종에 표현된 입상연판문대는 아주 낮거나 높게 솟거나 연판문대 간격이 넓은 경우 주조 시 쇠물이 주입되지 않거나 틀 해체 시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중서는 이런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입상연판문대 조각을 적당한 높이와 간격으로 제작할 정도로 주조 기술에 대한 경험이 많았던 장인으로 생각된다.

상대와 하대에는 비슷한 높이로 같은 문양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유려한 연당초문으로 장식하였다. 상대 아래로 4개의 연곽을 상대와 접하여 배치하였다. 폭이 좁아진 연곽대에도 외연에 연주문대를 첨가하고 섬세한 연당초문으로 장식하였다. 각 연곽 안에는 꽃봉우리가 막 피기 시작한 것과 같은 작은 연뢰를 9개씩 표현하였다.

연곽과 연곽 사이에 해당 되는 종신 중단에는 훔날리는 천개 아래로 연화와 구름의 화려한 대좌 위에 표현된 삼존상이 4면에 높게 부조되었다. 삼존상은 중심에 결가부좌한 여래상이 가장 높게 부조되었고 그 뒤로 양옆에 합장한 보살입상이 조금 더 낮게 부조되면서 얼굴 등 세부 표현이 안 나온 부분들이 있다. 여래상 왼쪽 보살입상의 두광 위에서부터 길게 말아 올라간 천의는 삼존상을 감싸듯 표현되었다. 명문은 용뉴의 음통 부분 아래쪽 당좌와 삼존상 사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크게 원명과 추각명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문헌자료

한국 범종에서는 전통적으로 종신을 활용하여 새긴 명문을 통해 범종의 내력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 범종의 경우도 명문의 내용을 통해 범종의 제작 연대와 발원자, 장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내소사 동종>의 명문을 보면 종은 원래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에 있던 청림사(靑林寺)의 범종으로 1222년(고종 9)에 제작되었으나, 청림사가 어떤 사유에선지 폐허가 되고 범종 또한 땅속에 묻힌 것을, 1850년(철종 1) 청림사가 있던 청림리에 머물던 은사(隱士) 김성규(金性圭)가 발견하고 이듬해 내소사에 시주하였다고 한다. 이 종의 명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라진 사찰을 다시 지으면서 범종을 제작하였다는 내용과 당시 범종을 제작한 한중서(韓冲叙)라는 장인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범종의 경우 명문이 소략화 되고 장인에 대한 기록도 흔치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명문부분 原銘 일부>



<명문부분 追銘>

<허흥식 판독문>

靑林寺銘」

扶寧邊山中有靑林」三韓前寺革古鼎今」堂宇宏麗禪侶盍簪」命白公等鑄發鯨音」停離輪苦警悟昏沉」凡有耳者開覺本心」

壬午六月日社主禪師湛默誌」貞祐十年六月日社主禪師湛默記」

貞祐壬午六」月初七日邊山」靑林寺金鍾」鑄成入重七百」斤 棟梁」道人 虛白」道人宗益」匠 韓冲叙(以上原銘)」

余己酉九月七日卜居」靑林翌年九月七日鑿」此金鐘移懸于來蘇寺」

銘曰性保金剛體法轉」輪聞聲悟心花開實新」崇禎紀元後四癸丑九月」

二十七日隱士金性圭記」而施焉持殿完岩正宇(以上追銘)」

<오영선 해석문>

靑林寺(靑林寺)의 명(銘)

부녕(扶寧)의 변산(邊山)에 청림사(靑林寺)가 있으니

삼한(三韓)의 옛 절은 없어지고 지금 다시 세워졌다.

건물[堂宇]는 크고 화려하며, 선승(禪僧)들이 많이 모이니

백공(白公) 등에게 명하여 종을 만들도록 하였다.[鑄發鯨音]

윤회(輪回)의 고통에서 벗어나 어지럽고 막힌 것을 깨우치게 하리니

무릇 귀가 있는 이들은, (듣고서) 본심(本心)을 열고 깨달으라

임오년(壬午年: 1222년, 고종 9) 6월 일 사주(社主) 선사(禪師) 담묵(湛默)이 짓다.

정우(貞祐) 10년 6월 일 사주(社主) 선사(禪師) 담묵(湛默)이 쓴다.

정우(貞祐) 임오년(壬午年) 6월 초7일에 변산의 청림사에서 금종(金鐘)을 주조하여 이루니, 무게가 700斤이다.

동량(棟梁)은 도인(道人) 허백(虛白), 도인 종익(宗益)이며,

장인(匠人)은 한중서(韓冲叙)이다. (以上 原銘)

(추가 명문)

내가 기유년(己酉年: 1849년, 헌종 15) 9월 7일에 청림사에 머물면서 이듬해 9월 7일에 이 금종을 뚫어 내소사(來蘇寺)에 옮겨 매달았다. 명(銘)에 이르기를 “본성(本性)은 금강(金剛)을 보전하고 몸은 전륜(轉輪)을 본받는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을 깨닫고, 꽃이 피면 과실이 맺히리라”라고 하였다.

숭정 기원후(崇禎紀元後) 네 번째 계축년[四癸丑] 9월 27일에 은사(隱士) 김성규(金性圭)가 쓰고 시주하다. 지전완암정우(持殿完岩正宇) (以上 追銘)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최응천, 『한국의 범종』, 미진사, 2022.
- 崔應天, 「高麗時代 金屬工藝의 匠人」, 『미술사학연구』 24, 한국미술사학회, 2004.
- 이광배, 「高麗時代梵鍾의發願階層과鑄鍾匠人」, 『동악미술사학』 13, 동악미술사학회, 2012.
- 국립문화재연구원: <https://portal.nrich.go.kr>

○ 사진자료



<내소사 동종 전체>



<내소사 동종 삼존상과 천개 부분>



<내소사 동종 용뉴>



<내소사 동종 상부>



<내소사 동종 입상연관문대 세부>



<내소사 동종 상대와 입상연판문대>



<내소사 동종 하대>



<내소사 동종 당좌>



<내소사 동종 원명문>



<내소사 동종 삼존상 세부>



<내소사 동종 삼존상 위 천개>

IV.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등산 2023-05-010

10. 소소승자총통 (小小勝字銃筒)

가. 검토사항

‘소소승자총통’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으로부터 ‘소소승자총통’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2.5.)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5.16.) 및 과학조사('23.5.16./'23.7.27.~7.3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수 량 : 3점
- 규 격 : 표 참조
- 재 질 : 금속(청동)
- 형 식 : 지화식(指火式) 유통식(有筒式) 총통(개인용 화기)
- 조성연대 : 1588년(조선 선조 21)
- 제작자 : 윤덕수(尹德水)



<소소승자총통>

<지정 대상 현황>

연번	구분	길이 (cm)	구경 (cm)	무게 (g)	명문(음각)
1	총통1(해유17099)	57.8	내1.3 외2.7	2,020.2	萬曆戊子四月日左營造小 勝字 重三斤九兩匠尹德水
2	총통2(해유17100)	57.5	내1.3 외2.8	1,940.2	萬曆戊子五月日左營造小 勝字 重三斤七兩
3	총통3(해유17101)	57.3	내1.3 외2.8	1,920.1	萬曆戊子三月日左營造小 勝字 重三斤九兩匠尹德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가치>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인양된 소소승자총통 3점은 총통에 음각된 명문을 통하여 1588년 좌영(전라좌수영으로 추정됨)에서 장인 윤덕수(尹德水)가 제조한 총통이다. 유물이 인양된 해역은 1597년 임진왜란 때 통제사 이순신이 벽파진해전을 벌여 일본 수군을 물리쳤던 곳이며, 이어서 명량대첩을 거두어 나라를 구한 유서

깊은 곳이다. 이 총통들은 그 이력이 분명하고, 당시 조선 수군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유물이다.

조선 선조(1568~1608) 초기에 승자총통이 처음 제작된 이후로 승자 계열의 다양한 총통이 꾸준히 개발되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문헌과 발굴 유물에 소소승자총통의 명칭이 나타난 바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소소승자’(小小勝字)의 명문이 밝혀진 총통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 소소승자총통은 조선의 장인들이 승자 계열 총통의 성능 개량을 위한 다양한 시도 결과로 나타난 총통으로, 소승자총통(1587년 처음 제조)을 개량하여 만든 새로운 총통이다. 소승자총통은 가늠자, 가늠쇠, 고정쇠, 총가가 설치된 비교적 진보된 형태의 소형 총통으로, 조선시대에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소형 총통인 조총의 직전 단계에 이른 총통이었다.

소소승자총통은 승자 계열 중에서 구경이 가장 작은 총통이며, 소승자총통과는 달리 가늠자, 가늠쇠, 고정쇠, 총가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당시 장인들이 소승자총통의 성능을 개량하면서 화약 소모량과 총통의 무게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개발한 결과물로, 병사들이 휴대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당시(1588년)는 조총처럼 진보된 점화 방식을 이용한 격발장치가 아직 개발되기 전으로, 소승자총통이나 소소승자총통의 발사 방법은 서로 같았으며, 약선에 손으로 점화하여 발사하는 원시적 발사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소승자총통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만든 소소승자총통에 굳이 소승자총통처럼 가늠자, 가늠쇠, 고정쇠, 총가를 설비할 필요성을 당시 장인들은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 결과 승자류 중에서 가장 작은 구경을 개발하여 가늠자, 가늠쇠, 고정쇠, 총가를 없앤 소소승자총통을 제조하였다.

실로 이 ‘소소승자총통’은 조선의 장인들이 총통의 무게를 줄이고, 화약 소모량을 줄이면서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화기 성능의 개량 과정에서 나타난 매우 특이한 총통이다. 특히 구경을 1.3cm까지 줄이는데 성공한 제조 기술은 상당히 발달된 기술이 아니면 이룩할 수 없는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소승자총통은 조선 중기의 승자총통 계열의 화기발달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유물이다.

이 소소승자총통은 이처럼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이 소소승자총통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며, 임진왜란 때 이순신함대가 벽파진해전(명량해전)에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가치>

이상의 총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소소승자총통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첫째, 소소승자라는 이름의 총통으로는 처음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 총통은 소승자총통을 개량한 화기로 현존하는 소승자총통 유물과 비교할 때 총신길이는 약간 긴 편(575~578mm)이고 구경은 13mm로 약간 작은 특성을 보인다. 이는 화기의 화약 소모량과 사거리 등 화기 성능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소소승자총통의 화기 제조기술이 이전에 비해 발달하였다고 보여지며 무엇보다 총통수의 안전을 위해 총통방사를 재래식으로 했음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으며 세계사적 발전의 화승식 개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당시 지화식 총통 중에는 마지막 끝 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조선 중기의 승자총통 계열의 화기에는 새로운 모델인 소승자총통을 개발하고 사용한 후 다시 재래식 발사방법을 선택한 것과 대량 생산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소소승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유물의 발굴 이력이 확실하다. 제작시기, 발굴지역 등을 고려할 때 임진왜란시기의 치열했던 진도 명량해역에서 발굴되었으며, 좌영에서 제작했다는 명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명문과 총통의 발굴지역 만으로 이 소소승자총통이 전라좌수영에서 제작했다고 보여지며 명량해전의 권역인 울돌목과 가까운 지역으로 보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휘하의 전라좌수영 수군이 사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셋째, 진도 앞 바다 한 곳에서 3점이 발굴되었는데 현장 발굴의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수장된 유물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CT촬영에 의한 내부구조 조사를 통해 총통의 두께가 균일하게 하기 위해 M자형의 형지(型持)를 설치하여 대량 생산해 전쟁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사체가 화살이나 철환이 아닌 납탄환이기에 제작방식이 더욱 과학적이고 정교히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이 소소승자총통은 실명제에 의한 제작을 잘 알려주며 1588년 3월부터 5월에 좌영에 소속된 장인 윤덕수(尹德水)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장인의 이름이 밝혀졌다. 이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총통을 추적할 수 있다.

다섯째 1588년은 남으로는 왜구가 북으로는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했던 시기로 어느 때보다 국방과 무기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시기이다. 1588년 2월, 이순신도 우화열장(右火烈將)으로 시전부락 토벌 작전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기도 했던 것이다.⁶⁰⁾ 따라서 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같은 형태인 소소승자총통의 화기가 군영 좌영에서 대량 생산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소승자총통은 조선

60) 이계관, 「정토 시전부호도」 하단 좌목, 1800년.

중기의 국토방위와 화기 제조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그 역사적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에 따라 이 소소승자총통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형 개인화기 중 가장 후대에 발전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투를 치른 무기이다. 어려운 여건의 발굴인양으로 희귀한 출현,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며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의 명량해전에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보물로 지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가치>

소소승자총통은 네 가지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임진왜란 직전에 만들어진 소소승자총통은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인양한 발굴품이다. 조선 소형총통은 전래품이나 발견품의 비중이 높고 출처가 분명한 발굴품 수량은 비교적 적다. 더구나 총통을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임진왜란 수군 격전지에서 발견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편 본 총통은 명문으로 명칭과 제작 시기, 제작지 등 중요 기록을 전하고 있어 문헌 기록과 연계한 해석도 가능하다.

둘째, 소소승자총통은 내부에서 장전물이 발견되어 소형총통 장전 방식을 밝혀낼 연구 자료이다. 총신에 화약을 넣고, 화살이나 탄환 등의 발사체를 끼워 넣는 과정을 장약 또는 장전이라고 하는데 이는 유통식 화기의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장전물이 발견된 소형총통은 단 3건뿐으로 희소성이 크다. 특히 소소승자총통은 장전된 채로 발견되어 흙→복지(覆紙)→화약의 장약 순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복지의 재질(닥나무 한지)과 목탄, 염초 등의 화약 성분이 확인되었다.

셋째, 소소승자총통은 동시대 총통 중 가장 좁은 총구를 가지고 있어 소형총통 발전의 마지막 단계로 추정한다. 총신과 총구의 변화는 사거리를 늘리고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전 과정이다. 소소승자총통의 외형은 소형총통의 마지막 단계로 알려진 승자총통과 유사하지만 확연히 좁은 총구를 가지고 있고 승자계 9종의 총통 중에서도 가장 좁다. 다시 말해 총신의 전체 길이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총구 내경만을 줄여서 제작한 것이다. 문헌 기록과 현전하는 총통의 내외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구와 총신은 분명한 의도에 따라 구조가 변화한다. 따라서 소형총통의 마지막 단계인 조총이 도입되기 직전까지 기술 발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넷째, 소소승자총통의 과학적 조사를 통해 조선 총통만의 독특한 주조 기법을 확인하였다. 그간 총통은 전래품, 구입품의 비중이 많은 가운데 구조적으로 제작이 쉽고, 명문 등의 중요 기록 등을 새길 수 있다 보니 가품과 진위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소형총통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었고 형태적, 과학적 조사 결과가 진위 여부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 근거가 총통 기벽 안에 들어있는 독특한 형태의 채플릿(형지)이다. 그간 총통 외관에서는 채플릿의 형태를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최근 문화재 분야에 CT가 도입되어 그 형태가 선명히 밝혀졌다. 국내에 전하는 모든 종류(13종)의 소형총통 29점을 대상으로 CT 조사를 진행한 결과 승자계 총통 9종에서 M자형과 L자형 등의 독특한 채플릿이 확인되었다. 이 채플릿은 코어(내틀)를 고정시키는 보조 장치로 고른 총신 기벽을 형성하기 위한 조선시대 주조 기법이다.

본 조사단은 기존 소형총통 연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소소승자총통 세 점에 대한 CT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세 점 모두 비슷한 위치에서 M자형과 L자형 채플릿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소소승자총통의 채플릿은 기존의 소형총통 채플릿의 세부 형태와 배치 순서 면에서도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소형총통은 초기의 화약무기로, 화약무기의 기원과 발달사에서 중요한 주제이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화약무기에 전파와 발전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본 소소승자총통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과학문화재이다. 소소승자총통은 다양한 기록으로 보아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함대가 명량해전에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형태의 특이성과 명확성, 희소성 면에서 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 주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발굴 상황에 대한 내용 보완 및 추가 과학조사 실시

조사보고서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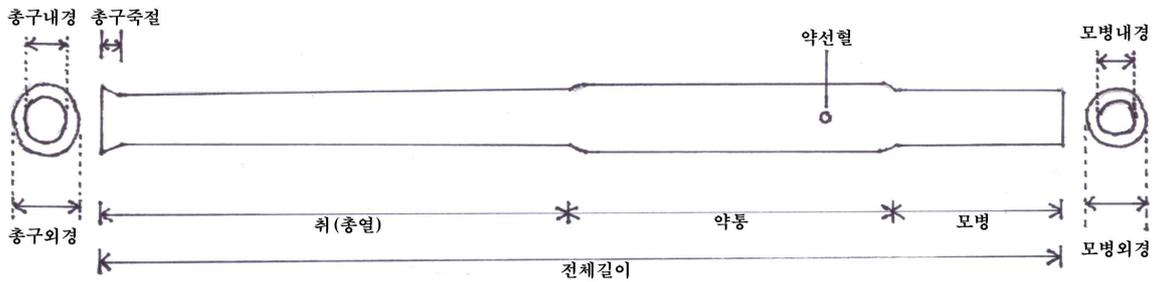
1. 유물의 개요 및 소소승자총통의 구조와 명칭

이 총통은 불씨를 손으로 혈선(穴線)에 점화시켜 발사하는 유통식(有筒式) 휴대용(携帶用) 화기(火器)의 일종이다. 전라남도 진도 벽파진 앞바다의 해저에서 3점이 발굴 인양되었으며, 총통마다 ‘小」勝字’의 명문이 있어 그 명칭을 일단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으로 호칭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승자계 총통 구조의 명칭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병기도설(兵器圖說)」(1474년)과 『용원필비(戎垣必備)』(1813년)의 총통 항목에 따라 대략 <도1>과 같이 도식해 볼 수 있다. <도1>에 따르면, 소소승자총통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는데 취(嘴), 약통(藥筒), 모병(冒柄)이다.

취(총열, 부리)는 총구로부터 약통 앞까지의 부위를 일컬으며, 발사물인 환(丸)을 장전하는 부분이다. 취의 중심부는 구멍이 관통되어 있으며, 총구 부위 안지름을 총구 내경, 바깥지름을 총구 외경이라 부른다. 총구 부위에 총신보다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총구 죽절(竹節)이며, 이처럼 총구 외경을 두툼하게 보강한 이유는 화약이 폭발하여 탄환이 발사될 때 총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죽절의 명칭이 「병기도설」에는 대(帶)로 나오나 『용원필비』에는 이해하기 쉽게 죽절로 나오므로 이에 따른다.

약통(약실)은 화약을 총구로부터 내려 장전하는 곳으로, 화약을 점화하기 위한 약선혈(藥線穴) 1개가 총신 외부와 관통되어 있으며, 약선혈에 약선(화약 심지)을 꽂아 여기에 불을 붙여 약통 안의 화약을 점화한다.

모병은 총통의 손잡이로 사용하는 나무막대를 꽂는 곳으로, 모병의 내부는 비어 있다. 모병 부위 안지름을 모병 내경, 바깥지름을 모병 외경이라 부른다.



<도1. 소소승자총통의 구조 및 명칭>

『신기비결(神器秘訣)』(1603년)에 의하면, 소승자총통은 매 1문마다 화약 2전(錢) 내지는 2전 2~3푼을 사용하여 작은 납탄알(小鉛子) 1개를 발사하는데, 그 장방법(裝放法)은 다음과 같다.

- ① 약선혈에 약선을 꽂는다.
- ② 총구로부터 화약을 내린다.
- ③ 화약다짐봉(槳杖)을 가볍게 내려 다진다.
- ④ 납탄알 1개를 내린다.
- ⑤ 지환(紙丸, 종이알)을 내린다.
- ⑥ 총자루를 잡아 눈에 대고 가늠쇠(後照星)와 가늠자(前照星)를 수평으로 본 다음, 적을 향하여 발사한다.

2. 총통 1(해유 17099, 만력 무자 4월명)의 현상



<도2. 만력 무자 4월명 소소승자총통>

상태는 <도2>와 같으며, 재질은 청동이다. 표면에 청동녹이 슬어 있으며 상당한 부식이 진행되었으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모병에 ‘萬曆 戊子 四月日 左營造 小 勝字 重三斤九兩 匠尹德水’가 음각되어 있으며, 그 뜻은 ‘만력 무자년(1588) 4월에 좌영에서 제조한 소소승자총통이며 무게는 3근 9냥이고 장인은 윤덕수’이다.

2023년 5월 16일에 본 조사단이 실측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길이 57.8cm, 취의 길이 37.8cm, 약통길이 13.5cm, 모병길이 6.5cm, 총구 내경 1.3cm, 총구 외경 2.7cm, 총구 죽절 너비 1cm, 모병 내경 2cm, 모병 외경 2.8cm이다. 직경 2mm되는 약선혈 1개가 모병 끝단으로부터 8.8cm 지점에 뚫려 있다. 형지공(型持孔, 주조할 때 내부 주형 지지대의 자국) 3개가 남아 있는데, 총구로부터 16.6cm되는 취 표면 약선혈과 일직선 방향으로 2개가 나란히 있고, 모병 끝단으로부터 10cm되는

약통 표면 약선혈과 일직선 방향으로 1개(직경 2mm)가 있다. 취 내부의 약통에 가까운 위치에서 지환(紙丸, 종이알), 흙, 화약이 수습되었다.

3. 총통 2(해유 17100, 만력 무자 5월명)의 현상



<도3. 만력 무자 5월명 소소승자총통>

상태는 <도3>과 같으며, 재질은 청동이다. 표면에 청동녹이 슬어 있고 상당한 부식이 진행되었으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모병에 ‘萬曆 戊子 五月日 左營造 小 勝字 重三斤七兩’이 음각되어 있으며, 그 뜻은 ‘만력 무자년(1588) 5월에 좌영에서 제조한 소소승자총통이며 무게는 3근 7냥이다.(‘匠尹德水’ 누락)

2023년 5월 16일에 본 조사단이 실측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길이 57.5cm, 취의 길이 37.7cm, 약통길이 13.3cm, 모병길이 6.5cm, 총구 내경 1.3cm, 총구 외경 2.8cm, 총구 죽절 너비 0.8cm, 모병 내경 2cm, 모병 외경 3cm이다. 직경 2.5mm되는 약선혈 1개가 모병 끝단으로부터 9.9cm 지점에 뚫려 있다. 형지공(型持孔) 3개가 남아 있는데, 총구로부터 21.4cm되는 취 표면 약선혈과 일직선 방향으로 2개가 나란히 있고, 모병 끝단으로부터 8.3cm되는 약통 표면 약선혈과 일직선 방향으로 1개의 흔적이 있다. 취 내부의 약통에 가까운 위치에서 지환(紙丸), 흙, 화약이 수습되었다.

4. 총통 3(해유 17101, 만력 무자 3월명)의 현상



<도4. 만력 무자 3월명 소소승자총통>

상태는 <도4>와 같고 재질은 청동이다. 표면에 청동녹이 슬어 있으며 상당한 부식이 표면에서 진행되었으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모병에 ‘萬曆 戊子 三月日 左營造 小 勝字 重三斤五兩 匠尹德水’가 음각되어 있으며, 그 뜻은 ‘만력 무자년(1588) 3월에 좌영에서 제조한 소소승자총통이며 무게는 3근 5냥이고 장인은 윤덕수’이다.

2023년 5월 16일에 본 조사단이 실측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길이 57.3cm, 취의 길이 37.8cm, 약통길이 13cm, 모병길이 6.5cm, 총구 내경 1.3cm, 총구 외경

2.8cm, 총구 죽절 너비 1.3cm, 모병 내경 2.1cm, 모병 외경 3cm이다. 직경 2.5mm 되는 약선혈 1개가 모병 끝단으로부터 9.9cm 지점에 뚫려 있다. 형지공(型持孔) 2개가 남아 있는데, 총구로부터 20.8cm되는 취 표면 약선혈과 일직선 방향으로 2개가 나란히 있다. 취 내부의 약통에 가까운 위치에서 지환(紙丸), 흙, 화약이 수습되었다.

○ 내용 및 특징

1. 승자계 총통과 ‘소소승자총통’의 새로운 출현

본 3점의 총통들은 외형으로만 보았을 때 조선시대 승자총통 계열의 총통들과 비슷하다는 점을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다.

본래 승자총통은 선조(1568~1608) 초기에 처음 제작된 이후로 승자 계열의 총통이 꾸준히 개발되었는데, 『신기비결(神器秘訣)』(1603년)에는 대승자총통(大勝字銃筒), 차승자총통(次勝字銃筒), 소승자총통(小勝字銃筒)이 나오고,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1635년)에는 승자총통, 차승자총통, 소승자총통이 나온다. 또 이순신의 『난중일기』(임진년 6월 2일)에 따르면, 당포해전 때 조선 수군이 ‘대승자’와 ‘중승자’ 총통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문헌에 의한 승자 계열의 총통명은 승자총통, 대승자총통, 중승자총통, 차승자총통, 소승자총통의 5개 종류가 있었다.

한편, 현존하는 유물 가운데 출처가 분명한 전세품 혹은 공식적인 발굴 결과로 드러난 승자계 총통류 유물로, 1994년에 해군충무공해전유물발굴단이 여수시 신덕동 백도 근해에서 인양한 ‘萬曆壬辰別樣’(만력 임진 별양)명 즉, 별양자총통이 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이 경기도 용인시 보정리에서 발굴한 ‘萬曆卅年別勝’(만력 20년 별승)명 즉, 별승자총통이 있다. 이 외에 보물 제856호로 지정된 소총통(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599호로 지정된 쌍자총통(동아대학교박물관), ‘萬曆戊子’명 소양자총통(육군박물관) 등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문헌과 발굴 유물에 나타난 승자 계열의 총통 종류는 승자총통, 대승자총통, 중승자총통, 차승자총통, 소승자총통, 소총통, 별양자총통, 별승자총통, 소양자총통, 쌍자총통 등 다양한 명칭의 총통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 명칭 가운데 ‘소소승자총통’은 보이지 않는다.



<도5. 총통 3점의 ‘小小勝字’(소소승자) 명문>

그런데 이번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발굴 인양한 3점의 총통들에서 ‘소소승자’라는 승자계 명칭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그 총통들의 모병에서 <도5>와 같이 음각된 ‘小」勝字’(소소승자)의 명문이 확인된 것이다. 이 명문에 따라 이들 총통의 명칭은 자연스럽게 ‘소소승자총통’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소소승자총통’은 이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발굴 유물에서 처음 나타나는 승자 계열의 특별한 명칭이다.

2. 소소승자총통의 구경

이 소소승자총통의 구경은 3점 모두 1.3cm로, 현존하는 승자계 총통류 중에서 가장 작다. 예컨대, 승자총통(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648호)의 구경은 2.7cm, 차승자총통(서울대학교박물관, 보물 제855호)은 2.1cm, 소승자총통(경희대학교박물관, 萬曆 丁亥 銘)은 2.1cm, 소총통(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856호)은 1.6cm, 별양자총통(해군사관학교박물관)은 1.6~1.7cm, 별승자총통(국립중앙박물관)은 1.8cm, 소양자총통(육군박물관)은 2.0cm, 쌍자총통(동아대학교박물관, 보물 제599호)은 1.5cm 등으로, 모두 이 소소승자총통의 구경보다 크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소소승자총통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구경이 승자계 총통 중에서 가장 작다는 사실이다. 구경이 작으면 살상력의 감소 없이도 탄환의 크기와 화약량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총통의 무게를 줄일 수 있어 체구가 작은 사람도 다루기가 편리하다. 이와 같은 구경의 소형화는 총통 제조의 기술이 진보되지 않으면 이룩할 수 없는 기술이다.

따라서 이 소소승자총통은 조선시대 승자계 총통의 최후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깊은 유물이라 할 수 있다.

3. 소소승자총통의 제조처와 적재 함선

이들 총통 3점에는 모두 ‘萬曆戊子’, ‘左營造’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1588년(萬曆 戊子)에 좌영(左營)에서 제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좌영이란 ‘좌수영’ 혹은 ‘좌병영’의 준말이다. 또 모두 바다에서 인양되었으므로 본래 선박(함선)에 실려 있었던 유물이며, 특히 3점의 총통에서 모두 지환(紙丸)이 추출됨으로써 이들 총통은 탄환을 발사하기 직전에 바다에 빠뜨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좌영’ 소속의 함선에서 발사하기 직전에 바다에 빠뜨려진 총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 하겠다.

1588년 당시 우리나라 ‘좌수영’으로는 전라좌수영(여수)과 경상좌수영(동래)이 있었고, ‘좌병영’으로는 경상좌병영(울산)이 있었다. 여기서 경상좌수영과 경상좌병영은 낙동강 이동 지역을 관할하는 군영이다. 그러므로 이 소소승자총통은 다음 세 가지 경우의 함선 곧 ①전라좌수영 함선, ②경상좌수영 함선, ③경상좌병영 함선 중 어느 하나에 적재되어 있었던 무기로 볼 수 있다.

여기서 ②경상좌수영 함선과 ③경상좌병영 함선은 벽파진 부근 명량수로에 와야 할 역사적 사실이 없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상좌수영이나 경상좌병영 함선은 낙동강 하구를 기준하여 동쪽 해역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상좌수영과 경상좌병영 함선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임진장초』에 의하면, 삼도수군통제사에 예속되지도 않았고, 또한 임진왜란 7년 동안에 한산도에 온 적도 전혀 없었다.

1597년 2월에 통제사 이순신이 파직된 후 원군이 거느리는 조선 수군이 7월에 칠천량해전에서 괴멸되었다. 이때 경상우수사 배설이 거느리는 10여 척의 전선과 일부 전라좌수군 전선이 살아남았다. 이순신은 통제사에 재임명되자 이들 살아남은 경상우수군과 일부 전라좌수군의 전선(판옥선) 13척과 초탐선 32척을 거느리고 9월에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바 있다. 그러므로 명량해전 때 경상좌수군 또는 경상좌병영의 함선은 해전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통제사 이순신이 거느리는 한산도 수군에 처음부터 함께한 적도 전혀 없었다. 즉, 총통의 명문에 나타난 ‘좌영’이 경상좌수영 또는 경상좌병영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미이다.

이 소소승자총통이 명량해전에 참전한 함선으로부터 바다에 빠뜨려졌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소소승자총통에 나타나는 ‘좌영’은 경상좌수영 또는 경상좌병영일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전라좌수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4. 소소승자총통의 특징-가늠자, 가늠쇠, 고정쇠가 없음

본 소소승자총통 3점(1588년 제작)에는 가늠자(눈 쪽에 가까이 있는 조준핀), 가늠쇠(총구 쪽에 가까이 있는 조준핀), 고정쇠(총신을 銃架에 고정하는 핀)가 없다.

현존하는 소승자총통(주로 1587년 제작)들은 대부분 가늠자, 가늠쇠, 고정쇠가

달려 있어, <도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신을 총가에 설치하여 조준하여 발사했다. 이러한 소승자총통은 조선시대 소형 총통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가장 발달된 조총(鳥銃)의 직전 단계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조총을 개발하지 못했다. 일본의 사신으로부터 두 차례(1555년, 1588년)에 걸쳐 조총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으나 군기시의 창고에 보관하였을 뿐이다. 『임진장초(壬辰狀草)』에 의하면, 1593년 8월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노획한 왜조총(倭鳥銃)을 참고하여 ‘정철을 두들겨 만들어’(正鐵打造) 정철조총(正鐵鳥銃)을 개발하였다. 이순신은 그 5자루를 임금에게 올려 보내 각 군영에서 제작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이후 조총은 조선군에 도입되어 왜조총과 함께 널리 사용되었다.



<도6. 만력 정해(1597)명 소승자총통(국립중앙박물관)과 총가 설치 모습>

소승자총통은 가늠자, 가늠쇠, 고정쇠, 총가(개머리판)가 있다는 점에서 그 형태는 왜조총이나 정철조총과 동일하지만, 약선(화약 심지)에 손으로 불을 붙여 발사한다는 점에서 발사 방법이 원시적이다. 따라서 이미 불이 붙어 있는 약선을 격발 장치를 이용하여 순식간에 발사하는 진보된 조총에 비해서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즉 소승자총통은 조총에 비해 원시적인 총통인 것이다.

현존하는 소승자총통은 대부분 1587년(萬曆 丁亥)에 제작되었고, 극히 일부는 1588년(萬曆 戊子)에 제작되었다. 그 무렵 조선의 장인들은 진보된 소형 총통을 개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예컨대, 가늠자, 가늠쇠, 고정쇠가 있는 소승자총통(1587년, 국립중앙박물관, ‘萬曆丁亥小勝’銘), 가늠자, 가늠쇠만 있는 소양자총통(1588년, 육군박물관, ‘萬曆戊子小樣’銘), 가늠쇠와 고정쇠만 있는 소양자총통(1588년, 고려대학교박물관, ‘萬曆戊子小樣’銘) 등이 그것이다. 소소승자총통(1588년)도 바로 그 무렵에 소형 총통의 성능 개량을 위한 다양한 시도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총통이다.

소소승자총통은 승자류 중에서 구경이 가장 작은 총통이며, 가늠자, 가늠쇠, 고정쇠가 없다. 이것은 당시 장인들이 성능 개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화약의 소모량과 총통의 무게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개발한 결과물로 보인다. 그리하여 구경을 최대한 줄여 화약의 사용량과 총의 무게를 줄이고, 특히 소승자총통에서 가늠자, 가늠쇠, 고정쇠와 총가도 없애는 발상을 통하여 전체 무게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병사들이 휴대하기 쉽게 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총과 같은 진보된 격발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못한 당시 상황에서 소승자총통이나 소소승자총통의 점화방식은 모두 발사 직전에 손으로 점화하여 발사하는 원시적 방법이였으므로, 장인들은 새로 개발한 총통(소소승자)에 굳이 소승자총통처럼 가늠자, 가늠쇠, 고정쇠, 충가를 설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가장 작은 구경을 개발하여 가늠자, 가늠쇠, 고정쇠, 충가를 없앤 소소승자총통을 제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유물 소장처의 견해로는 본 소소승자총통에 가늠자와 가늠쇠가 부착되었던 흔적이 확인된다고 한다. 그러나 본 조사단이 유물을 관찰한 바로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5. 내부 장전물 지환(紙丸)

본 소소승자총통의 내부에서 닳나무 재질의 지환(紙丸, 종이알), 곧 소장자측에서 말하는 이른바 ‘압지’를 보존처리 과정에서 추출하였다고 하는데, 압지는 『신기비결』에 따르면, ‘지환(紙丸)’ 곧 종이알이다. 지환은 토격(土隔) 대신에 납탄알을 다져서 화약의 폭발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소승자총통과 주자총통에서만 사용하였다. 지환의 존재는 이 총통이 소승자 계열의 총통임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지환이 추출되었다는 것은 이 총통이 탄환을 장전하여 발사하기 직전에 바다에 빠뜨려진 것임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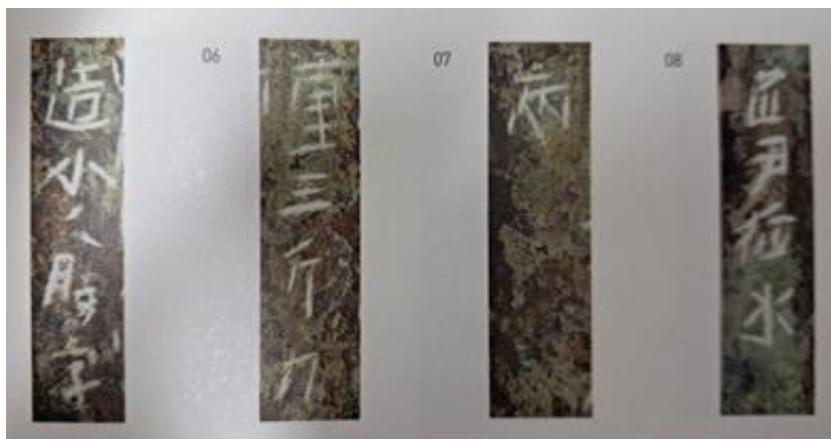
- 『國朝五禮儀序例』.
- 『亂中日記』.
- 『壬辰狀草』.
- 『神器秘訣』.
- 『戎垣必備』.
- 『火砲式諺解』.
- 蔡連錫, 『韓國初期火器研究』, 일지사, 1981.
- 趙仁福, 『韓國古火器圖鑑』, 1988.
- 이강철, 『한국의 화포』, 도서출판 동재, 2004.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5.
- 국립진주박물관, 『소형화약무기』, 2019.
- 허일권, 「조선 청동제 소형 총통의 제작 기술」,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 기 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전라남도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차례에 걸친 수중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소승자총통 3점은 2012년 11월 1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인양되었다.

□

○ 현 상



소소승자총통은 청동합금체로 총신(취), 약실, 병부(모병)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총통의 병부(柄部)에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는데 이들 소소승자총통은 만력 무자년(萬曆 戊子年, 1588) 3·4·5월에 좌영(左營)에서 제조한 화기이며, 무게는 각각 3근 5량, 3근 7량, 3근 9량이고, 윤덕수(尹德水)란 장인이 제작했다는 정보를 알려준다. 약실에는 다 약선혈의 구멍이 있고 명문이 제작월과 무게를 적은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내용은 똑같다. 또 명칭이 표기되어 있는데, 3점 모두 소(小)와 승(勝)자 사이에 두 개의 점 피콜론(“)으로 새겨져 있다. 진도 명량해역에서 발굴된 소소승자총통은 2정이 57.7cm이고, 1정은 57.8cm로 소승자총통과 길이와 무게, 구경이 매우 유사하거나 조금 작다고 하겠다. 소소승자총통의 무게는 3근 5량이라는 무게가 새겨진 총통의 실제 무게는 1,920.1g, 3근 9량으로 새겨진 총통은 2,020.2g, 3근 7량으로 새겨진 총통은 1,940.2g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이들은 소승자총통의 무게와 비슷하며, 이 정도의 무게는 개인 휴대용 화기로 경량이다. 승자계열의 총통 중에서 가장 경량으로 볼 수 있겠다.

일반적인 승자총통의 구조적 측면을 보면 총열에 파열 방지 역할을 하는 죽절(竹節)이 형성되어 있고, 조준 사격을 위한 가늠자·가늠쇠는 없다. 반면 소승자총통은 기존의 승자총통과는 다른 형태로, 가늠자(전조성, 前照星)와 가늠쇠(후조성,

後照星)가 부착되어 있고 후대의 개머리판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총가(銃架: 개머리판)를 부착하기 위한 부속이 총열에 붙어져 있다. 따라서 조총처럼 개머리판이 형성되어 있기에 어깨에 올려 뺨이 개머리판에 붙은 상태에서 조준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총신의 가늀쇠·가늀자와 개머리판은 조준 사격을 위한 장치로 승자총통이 사격이 용이하게끔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당초 조선의 소형 화기들은 총통을 가슴이나 겨드랑이 위치에 모병에 끼운 막대를 앞을 향해 두고 사격한다. 이런 자세에서는 명중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소승자총통에는 가늀쇠와 가늀자가 있고, 개머리판이 형성되어 있어 근대의 총처럼 얼굴 옆에 총을 붙이고 조준 사격을 할 수 있었다. 조총처럼 정밀한 발사 장치는 아니지만 사격이 용이한 방향으로 새로운 장치가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화기발달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즉 지화식 총 중에 가장 발전된 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유물조사를 통해 이 소승자총통에 소승자총통과 같이 가늀자·가늀쇠를 부착한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가늀자·가늀쇠를 별도로 총신에 부착되었던 것 같지 않고 개머리판에 고정하는 고정쇠의 부착되었던 흔적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소승자총통은 소승자총통에서 명칭 상 개량하여 만든 화기로 판단되나 성능의 발전을 기대되기 보다는 소승자의 외형에 대량 제작되어 전투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승지총통처럼 탄환을 발사하는 조선 중기 이후의 총통에게만 나타나는 형지공(型持孔)이 있기 때문이다.⁶¹⁾ 형지공은 조선 중기 총통이 발사체의 전환이라는 급격한 변화에서 화살이 발사체였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총신의 구조상황이 탄환으로 바뀌어 지면서 주형과 공간형성의 균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철제 M자 또는 L자형의 채플릿을 배치하여 구조하였던 흔적이다. 그 흔적은 철의 부식으로 말미암아 구멍이 생겨 약선혈과 혼동할 수 있다.

1) 소승자총통 명칭에 대하여

소승자총통은 문헌 기록도 없고, 유물만이 확인된 최초의 사례이다. 명칭이 표기되어 있는데, 3점 모두 소(小)와 승(勝)자 사이에 두 개의 점 피콜론(“)으로 새겨져 있어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자의 사이즈가 작고 하필 3점 다 피콜론 형식인가 하여 한문을 공부하는 학자⁶²⁾ 여러분에게 문의한 결과 소소총통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른 종류의 화약무기인 완구에도 별대완구, 대완구, 중완구, 소완구, 소소완구가 있으므로 소소승자는 처음 나왔지만 새로운 종의 총통으로 인정할 수 있다.

61) 허일권, 「조선 청동제 소형 총통의 제작 기술」,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62) 민족문화연구회 국역번역 과정을 마친 전 경남대학교 변중현 교수.

2) 총통의 발전

총통은 대형의 공용화기와 소형의 개인화기로 나눌 수 있다. 공용화기는 천자, 지자, 현자, 황자, 별황자총통 같이 무게가 있어 성벽에 포가를 설치하든가 배에 실어 함재포로 장군전을 발사하는,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장거리포이다.

소형총통은 개인화기로 화약을 적게 쓰되 위력은 극대화시키는 목적으로 계속 발전하여 왔다. 고려 말 최무선이 원의 상인 이원을 선대하여 화약 만드는 비법을 알아내었다고 한다. 총통을 만들어 진포해전에서 왜구를 물리치는 대승을 이루고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군기감, 군기시로 개칭하였고 오늘날 국방과학기술원에서 방산무기를 만들 듯이 대소 총통 화기들을 제조하였다.⁶³⁾ 책임자는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이 관장하며 세습이 되었다.

처음 고려 말 최무선의 시기에는 화포의 이름을 일, 이, 삼총통 등의 일련번호식으로 명명하였다. 조선으로 바뀐 후 궁내에서 비밀리에 모양과 기능에 따라 시제품들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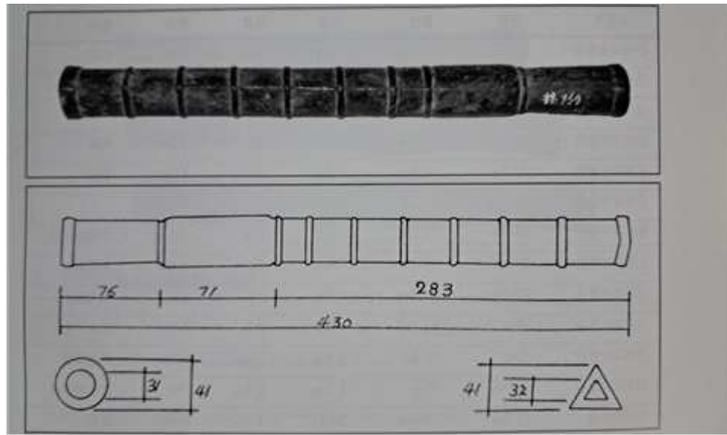
세종 25년 이후에는 획기적으로 개량하여 天, 地, 玄, 黃, 宇, 宙, 弘, 荒, 日, 月, 盈, 昃의 천자문으로 총통의 이름을 명명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총통이 만들어졌는데 총통이 처음에는 화살을 발사체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화살을 네발 한꺼번에 쏜다는 사전총통, 화살 여덟 발을 쏘는 팔전총통, 가는 화살을 쏘는 세총통 등의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오늘날 권총 쏘는 모습과 같이 보여 순수 창작의 경의로움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총통은 궁사에서 화약을 도입한 분사형 무기이다.⁶⁴⁾

이 모든 발달은 당시의 신무기가 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여 승리를 가져다주기 위함이었다. 세종대의 획기적인 총통의 변화는 그 내부구조의 변화이었다. 화약의 양을 줄이고 절약하면서도 발사거리는 길어지는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그것이 약실과 총신 취 사이에 격목이라는 요즘 콜크병 마개 같은 나무토막을 넣어 화약의 분출물을 온전히 발사체인 화살의 뒷부분을 쳐주는 것이다. 그 중간 단계의 총통이 바로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보물로 지정된 이총통으로 총통의 단면이 원형이 아닌 삼각형의 부리이다. 그것은 화살의 세 갈래 날개를 고려한 모양이다.⁶⁵⁾

63) 조선시대에 와서는 군기감으로 전환,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이 대를 이어 운영함.

64) 김성혜, 「활이야기」, 『학예지』 22, 육군박물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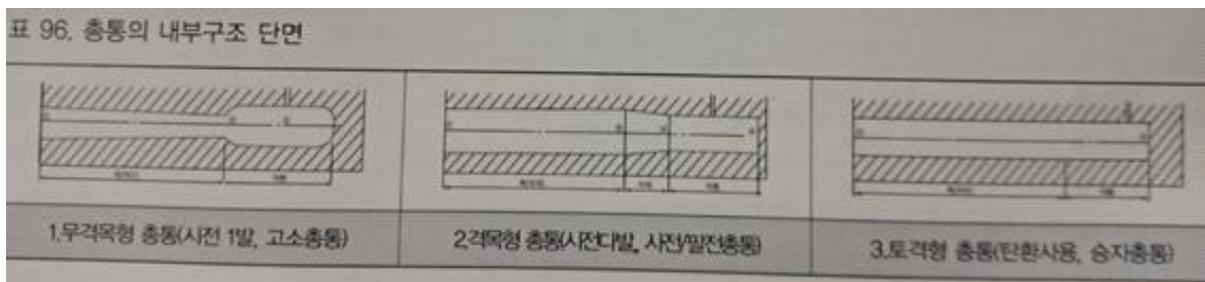
65) 국립경주박물관소장 이총통(이강철, 『한국의 화포』, 도서출판 동계, 2004, p74).



고려 말 최무선 시기의 첫 번째 총통은 무격목형 총통이라 하고, 조선 초기 세종이 적극적으로 개수한 두 번째 총통은 격목형 총통이라 하며, 세 번째의 변화는 발사체의 변화와 함께 격목을 버리고 현지 지물을 이용하는 토격형 총통이다. 실전에서 운용에 있어서 각기 다른 총통에 격목을 끼워 넣기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다.

조선 중기 선조대에 세 번째의 변화가 있었으니 당시 경상좌병사를 지낸 김지(金晷)장군이 개발한 승자총통이 개발되면서 격목을 쓰지 않고 현지에 있는 토격을 사용하여 화약을 절약하되 화살 뿐 아니라 철환을 피사체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개인 화기로 가장 위력이 있는 승자총통은 크기도 기존의 총통들 보다 월등히 크고 그 내부구조가 토격형 총통이다. 지금까지 사용한 총통이 격목이 있어서 화약을 절약하고 위력을 높였으나 격목을 총신에 맞게 골라 쓰는 점이 불편하였다면 승자총통부터는 약실을 총신과 같은 사이즈의 원통으로 만들어 화약량을 줄이고 격목 대신 진흙을 사용하는 편리함 또한 화살과 탄환을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당시로는 획기적인 총통이다. 그 이름도 천자문에 나오지 않는 한자인 이길 '승(勝)'자를 명명하여 북쪽 오랑캐의 침입에 사용하여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근 200여 년 동안 발전한 총통 지화식(指火式) 총통의 발전이었다.



당시 개인용 화기로는 가장 크고 위력적인 승자총통이지만 구경을 적게 하고 총신의 길이를 늘여보기도 하였으며 또 다시 전장에서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길이를 줄이기도 하였다. 승자계 총통은 차승자, 별승자, 쌍승자, 소승자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였는데 이번 조사의 소소승자총통은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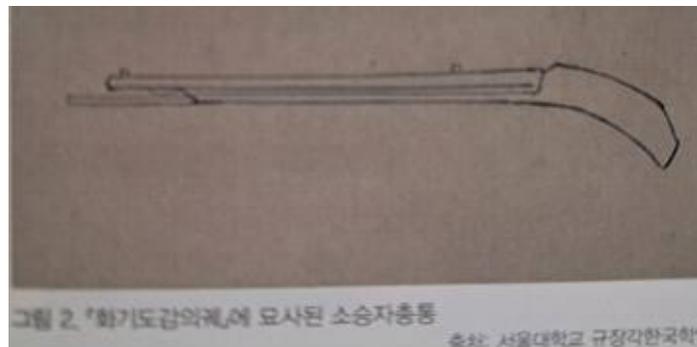
실물이 먼저 나온 사례이다. 최초 승자총통의 원형은 토격형 화기로 화살보다는 철환(3~15개)을 주로 사용하는 최초의 총통이며, 이후 발사 화약의 양이 줄고, 구경이 작아지며, 총신 길이는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형태로 발전한다.

3) 승자계열 총통의 크기 비교⁶⁶⁾

연번	총통명	총구내경(mm)	길이(cm)	죽절수	비고
1	승자총통	18~30	52~59	6	조준 기능 없음
2	차승자총통	20~23	56.8~58	6	조준 기능 없음
3	별승자총통	14~18	73.5~76.5	7	조준 기능 없음
	소총통	16	75.3	7	보물 제856호
	별양자(승자계통)	15~24	75.4~76.3	8~9	가늌자, 가늌쇠 드물게 있음
4	소승자총통	13~17	57~58	0	가늌자, 가늌쇠 있음
	소양자총통	20	53.5~58.3	1~2	가늌자나 고정철이 있는 것도 있음
5	소소승자총통	13~13.3	57.7~57.8	0	전혀 없음

별승자총통과 소총통, 별양자총통이 비슷하여 같은 종류로 보여지고, 소승자 소양자 소소승자는 크기나 구경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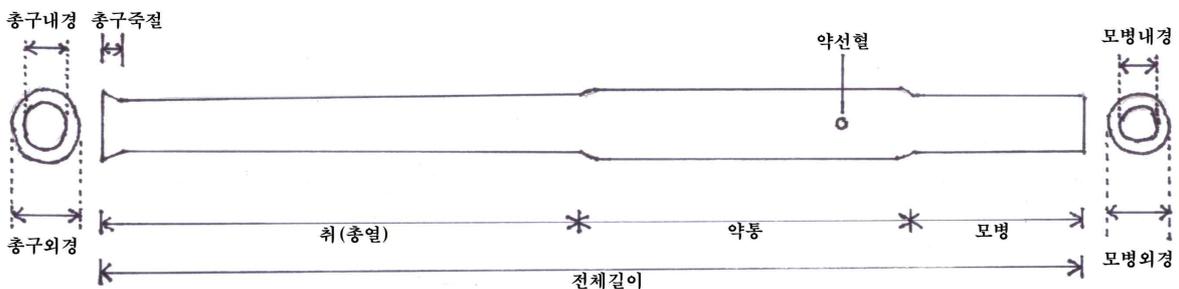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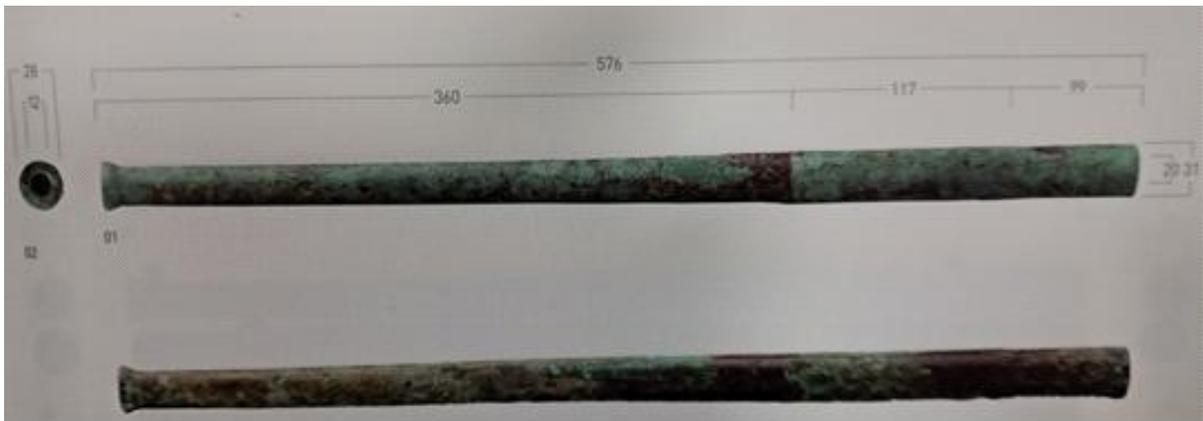
4) 소승자총통의 외형



66) 국립진주박물관, 『소형화약무기』, 2019에 실려 있는 재원 인용.

소승자총통은 임진왜란기 조선군이 사용했던 승자총통 계열의 화기 중 가장 진화된 화기로 전의 총통에서 보여주는 죽절이 없어지고 가늠자·가늠쇠가 총신에 조성되고, 총가가 형성되어 이전의 화기와는 달리 조준사격이 가능한 화기이다. 일설에 의하면 이순신장군이 조총과 승자총통을 믹스하여 조선군이 사용하기 편한 모습이 소승자총통이라 하고 조총보다는 길이가 짧게, 승자총통보다는 개머리판과 가늠자와 가늠쇠를 첨가한 형태를 만들었다고 한다. 즉 길이는 승자를 차용하고 외형은 조총을 차용했으나 화승식 장치는 도입하지 못한 실정이다. 조총은 화승식(火繩式) 총으로 움직이는 물체까지 맞힐 수 있는 총이나 승자계열총은 종전의 재래식 지화식 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불씨를 손으로 당겨 붙여야 하고 화선이 타 들어가 화약까지 불붙이기에는 시간이 걸려서 새는커녕 움직이는 전장에서 적을 공략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당시로는 가장 경량이며 구경이 작아 운용과 정확도를 높인 총통으로 평가하고 있다. 1603년 한효순이 지은 『신기비결』에 의하면 매번 화약 2전~2전 3푼으로 소납탄알 1개를 발사한다고 쓰여 있다.

5) 소소승자총통의 외형 특징



유통식 총열에 약실부분이 조금 도톰하고 총구부리는 텃테가 있다. 기존 소승자총통의 특징은 구조적 외형으로 총열에 파열 방지의 죽절이 없어지고 조준사격을 위한 가늠자와 가늠쇠, 반동을 줄여주는 개머리판에 고정하는 고정쇠가 생겼다. 주지하다시피 지화식 총통에서 다음단계인 화승식(火繩式)⁶⁷⁾ 화포인 조총의 모습에서 나타난 외형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금번 진도 명량해역에서 발굴된 소소승

자총통은 소승자총통보다 특별한 외형이 아니고 기본 소승자총통에 가늠자 가늠쇠 개머리관(총가, 銃架)의 고정쇠가 없다. 그러나 발사 시 반동이나 짧은 길이의 문제로 총통수의 몸에 밀착한 사격술이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피하는 총통수에게는 재래방식의 총통으로 몸에 부착하지 않는 발사방식이며 바다에 빠뜨릴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즉 지화식의 발사방법에는 가늠자 가늠쇠의 방식이 그다지 효과적이라 할 수 없었다. 발사 시 반동의 크기를 생각해보아야한다.

당초 조선의 소형 화기들은 총통의 뒷부분인 병부에 막대기를 꽂고 그 긴 막대기를 겨드랑이 위치에 두고 지향 자세로 사격해야만 했다. 총통 자체는 사격자의 몸에서 먼 곳에서 발사가 된다. 이런 자세에서는 명중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소승자총통에는 가늠쇠와 가늠자가 있고, 개머리관이 형성되어 있어 근대의 총처럼 얼굴 옆에 총을 붙이고 조준 사격을 할 수 있었다. 조총처럼 정밀한 발사 장치는 아니지만 사격이 용이한 방향으로 새로운 장치가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화기발달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금번 유물은 가늠자와 가늠쇠가 없다. 소승자총통이 사격자의 뺨에 부쳐서 조총처럼 발사하였을 때 많은 지장을 주었을 것이다. 화선이 타서 화약까지 불을 붙이기란 몇 초나 걸리므로 조준이라는 것이 그리 필요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늠쇠 가늠자와 개머리관 고정쇠를 아예 없애고 약간의 구경을 줄이고 길이를 좀 더 길게 하여 기존의 승자계 총통의 발사방법을 따랐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소소승자총통은 소승자총통사용의 오류를 잡기 위해 다시 기존방식의 발사방법을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2정이 57.7cm이고, 1정은 57.8cm로 소승자총통과 길이와 무게가 매우 유사하고 구경은 조금 작다. 소소승자총통의 무게는 3근 5량이라는 무게가 새겨진 총통의 실제 무게는 1,920.1g, 3근 9량으로 새겨진 총통은 2,020.2g, 3근 7량으로 새겨진 총통은 1,940.2g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이들은 소승자총통의 무게와 비슷하며, 이 정도의 무게는 개인 휴대용 화기로 충분할 만큼 경량이지만 다시 막대기로 병부에 결합하여 재래식으로 사격하였다는 결론이 든다.

소소승자총통의 외형으로 보면 소승자총통과 구경이나 외형의 크기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가늠자 가늠쇠 고정철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보통의 견해는 뭔가가 더 붙어야하는 것이 발전으로 보는 것이 상식인데 다만 조금이라도 경량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겠으며 소승자의 밀착 조준식 발사가 실전에서 어려웠으므로 차라리 재래식 방식으로 총통을 발사자의 몸에서 멀게 하여 자가위험도를 낮추고 대량생산에서의 어려움을 제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67) 총통의 발전은 손으로 불씨를 당겨서 혈선에 불을 붙이는 지화식 총통에서 방아쇠의 작동으로 화약접시에 화승을 때리는 화승식 총통으로 발달하고 다음은 뇌관에 충격을 가하는 뇌관식 총으로 발전한다.

6) 내부 장전물

화약과 흙, 그리고 닥나무재질의 종이(종이)가 추출되었다 이는 압지로 화약과 탄환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는 것이다. 보고서에 납탄환은 보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무게에 의한 소실인지 바닷물에 의한 연소인지 소승자총통에 비교한다면 납탄환 1발이 발사물이다. 철환에 납을 입힌 연의환인데 죽절이 없는 총신을 지날 때 총열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다.

소승자총통은 조선 중기 지화식 총통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토격형 총통으로도 마지막 단계인 소승자총통의 실전의 개량종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은 화승식 총인 조총의 단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라고 말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神器秘訣』.
- 『火砲式諺解』.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무기발달사』, 1997.
- 蔡連錫, 『韓國初期火器研究』, 일지사, 1981.
- 강성문,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붕명, 2000.
- 이강철, 『한국의 화포』, 도서출판 동재, 2004.
- 김성혜, 「군기시터 유적 출토 화약병기에 대한 소고」, 『서울 군기시터 유적』, 2011.
- 김성혜, 「연안 김씨묘 출토 승자총통」, 경기도박물관, 2005.
- 김성혜, 「활이야기」, 『학예지』 22, 육군박물관, 2015.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5.
- 국립진주박물관, 『소형화약무기』, 2019.
- 허일권, 「조선 청동제 소형 총통의 제작 기술」,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 기 타

7차에 걸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중 2012년 11월 1차 때 인양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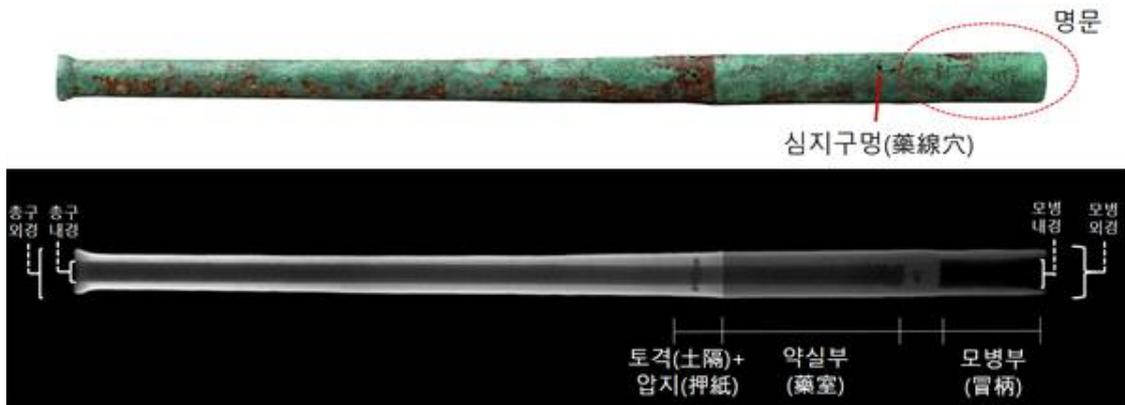
○ 현 상

소소승자총통은 소형총통⁶⁸⁾에 속하며, 유통식(有筒式) 화기의 일종이다.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및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사이 해협 일원에서 3점이 발굴되었고 ‘小」勝字’의 명문이 있어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으로 불리고 있다.

1. 소소승자총통의 구조와 명칭

총통은 13세기 중국 송(宋) 대 화창(火槍, Fire lance)에서 이어진 전통으로 몽골에 의해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⁶⁹⁾. 국내에는 고려 말에 들어와 임진왜란 때 조총이 등장하면서 점차 사라졌다.

유통식화기는 단순한 구조의 초기 화약무기로 심지에 불을 붙여 화살이나 탄환을 발사한다. 소형총통은 일반적으로 총구와 약실부, 모병부로 분리하며, 모병부에 나무 자루를 꽂아 사용한다<도1>. 총통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총신과 총구, 발사체, 조준사격을 위한 가늠자·가늠쇠 등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소소승자총통은 문헌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외형상 소형총통의 마지막 단계인 승자총통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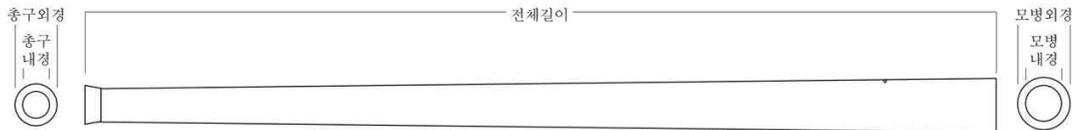
<도1. 소소승자총통의 구조와 세부 명칭>

68) 소형총통은 가장 오래된 유형의 금속제 소형 화약무기이며 중국어로는 ‘手銃’, 영어로는 ‘Hand cannon’이라 부른다. 단순한 파이프(Pipe) 형태의 총신에 화약을 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 발사하는 원리이며, 유통식(有筒式) 또는 관형(管形) 화기로 분류된다.

69) Jo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5 Chemistry and Chemical Technology; The Gunpowder Ep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소장번호	제원	
해유 17099		
해유 17100		
해유 17101		

※ 가늠자·가늠쇠와 총자루 고정 고리 유무 표시(○, ×)



번호	소장번호	전체 길이 (mm)	총구 내경 (mm)	총구 외경 (mm)	모병 내경 (mm)	모병 외경 (mm)	중량 (g)	가늠자·가늠쇠	총자루 고정 고리
1	해유17099	578	12	28	20	30	2,020.2	×	×
2	해유17100	576	12	28	20	31	1,940.2	×	×
3	해유17101	575	12	28	20	31	1,920.1	×	×
평균값		576	12	28	20	31	1,960.17		

<도2. 소소승자총통의 형태 및 제원⁷⁰⁾>

2. 소소승자총통의 현상

소소승자총통 세 점 모두 어두운 녹색(Dark Green)의 부식물로 뒤덮여 있고 그 위로 검붉은색 부식물이 확인된다. 검붉은색의 부식물은 해저 매장 환경에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해유17100에는 비교적 넓게 분포한다. 발굴 후 보존처리⁷¹⁾가 이루어져 부식상태는 양호하며 손상(결실)된 부분도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부식층이 표면 전반에 고르게 분포하여 육안으로는 소지 금속을 확인할 수 없다.

세 점의 명문은 “만력 무자년(1588년) 전라좌수영에서 3월, 4월, 5월에 윤덕수라는 장인에 의해 제작 되었다.”라고 새겨져 있어 제작일과 중량 부분에서 약간의

70) 사진과 제원은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2015”를 기준함.

71) 임성태·남경민,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출수 소소승자총통 내부장전물 성분 분석」,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5.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내용은 일치한다<표1>.

<표1. 소소승자총통의 명문>

해유17099	해유17100	해유17101
萬曆戊子(1588년) 四月日左營 造小〃勝字 重三斤九兩(세근 아홉냥) 匠尹德水	萬曆戊子(1588년) 五月日左營 造小〃勝字 重三斤七兩(세근 일곱냥) 匠尹德水	萬曆戊子(1588년) 三月日左營 造小〃勝字 重三斤五兩(세근 다섯냥) 匠尹德水

<표2. 명문의 중량과 실물 중량의 비율 환산>

(1근=16냥)⁷²⁾

기준	해유17099	해유17100	해유17101
명문 중량	3근9냥=57냥(100.0%)	3근7냥=55냥(96.4%)	3근5냥=53냥(92.9%)
실물 중량	2,020.2g(100.0%)	1,940.2g(96.0%)	1,920.1g(95.0%)

실제 제원은 <도2>에 표기한 바와 같다. 세 점 모두 거의 동일한 외형이며 전체 길이는 해유17099가 578mm, 해유17100이 576mm, 해유17101이 575mm로 세 점 평균길이는 576.33mm이다. 1~2mm 편차가 있지만 부식으로 불규칙하게 부푼 표면을 감안하면 규격의 차이는 크지 않다. 또한 중량은 해유17099가 2,020.2g, 해유17100이 1,940.2g, 해유17101이 1920.1g으로 평균은 1,960g이다. 명문에 기록된 중량을 토대로 실제 중량과의 비율을 환산한 결과 해유17100은 96%로 동일했고 해유17101은 실물 중량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표2>. 해양 출수품으로 부식에 따른 불규칙한 중량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당시 중량 기준이 비교적 명확해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소소승자총통 보존처리 과정에서 내시경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실 후면에서부터 약 5cm 정도의 장전(裝填)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 장전물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흙과 압지, 화약 성분 등이 확인되었다⁷³⁾. 장전물은 바닷속 특수한 매장 환경 때문에 온전하게 남지는 않았지만 약실부에 장전된 채로 발견되어 장전 방식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실물 자료이다.

○ 내용 및 특징

내용 및 특징에서는 소소승자총통의 특징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조선 소형총통의 형태와 구조 변화과정 속에서 소소승자총통의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가장 유사한 승자총통과 비교해 보았다. 두 번째는 소소승자총통의 장전물로 새롭게 밝혀진 장전 재료와 구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학적 조사로 CT(Computed tomography) 촬영 결과를 분석하여 기존의

72) 이종봉, 『한국 도량형사』, 2016, 소명출판.

73) 임성태·남경민, 2015, 앞의 논문.

여러 조선 소형총통과의 유사성을 검증하였고, 향후 소소승자총통 재료의 정밀 조사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1. 조선 소형총통의 구조 변화와 소소승자총통

소형총통은 비교적 짧은 200여 년의 기간 동안 존속하였지만, 구조의 발전, 발사체의 전환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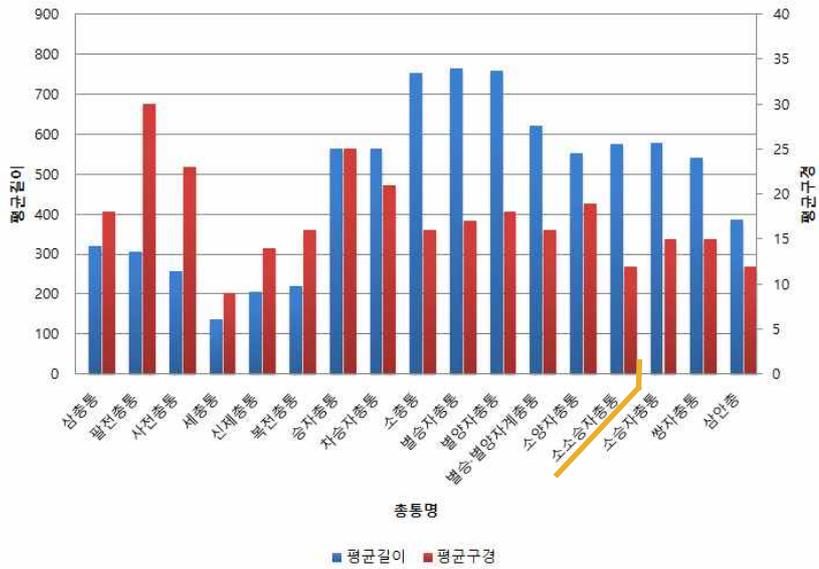
<도3. 시기별 주요 소형총통과 조총의 형태>

조선 전기에 개발된 총통은 삼총통, 팔전총통, 사전총통, 세총통, 신제총통, 복전총통 등 6종이며, 조선 중기 총통은 승자총통, 차승자총통, 소총통, 별승자총통, 별양자총통, 별승·별양자계총통, 소양자총통, 소소승자총통, 소승자총통, 쌍자총통, 삼안총 등 11종이다.

총통의 제원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사거리와 연관된 총신의 길이, 발사체의 변환을 가능할 수 있는 총구의 내경 등을 들 수 있다. <도4>는 국내 총통 17종 221점의 전체 길이와 총구 내경의 제원을 바탕으로 종류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⁷⁴⁾. 발사체는 승자총통을 기점으로 화살에서 탄환으로 변화한다. 화살을 사용한 총통의 막대 대비를 보면 평균 구경이 평균 길이보다 우위에 있지만, 탄환을 사용한 총통은 평균 길이가 평균 구경보다 높은 반전이 일어난다. 화살보다 부피가 작은 탄환을 쓰면서 굵은 구경이 필요 없게 되었고 탄환의 수 또한 점차 줄어들면서

74) 허일권, 『조선 청동제 소형총통의 제작 기술』,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구경은 더욱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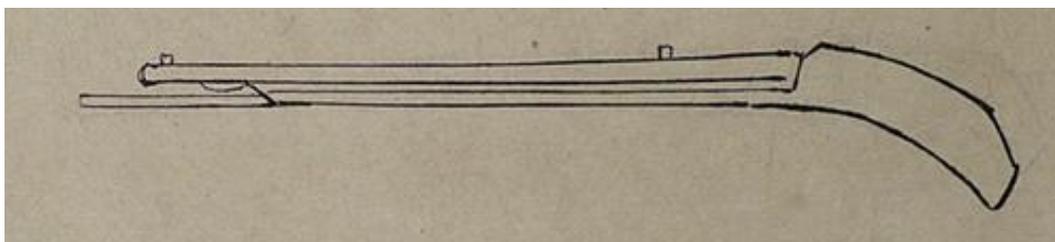


<도4. 소형총통의 종류별 평균 길이와 평균 구경 구분>

발사체가 탄환으로 변하고 조준을 위한 가늀자·가늀쇠와 총자루 고정 장치가 등장한다. 가늀자는 총신의 후미에 위치하여 눈을 가까이 대고 총구 쪽 가늀쇠와 일치시켜 정확히 조준하는 장치이다. 탄환의 수가 줄어들면서 지향 사격이 아닌 조준 사격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늀자와 가늀쇠가 등장한 것이다<도5>. 또한 기존의 모병에 나무 자루를 끼우는 형태에서, 총신 아래에 총자루(木架)를 고정하기 위한 고리도 함께 나타난다<도6>.



<도5. 소승자총통의 가늀자·가늀쇠와 총자루 고정고리>



<도6. 『화기도감의궤』에 묘사된 소승자총통(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앞에서 소개한 총통 형태의 변화 과정 속에서 소소승자총통을 살펴보면 총통의 맨 마지막 단계인 소승자총통과 가장 유사하다. 두 총통 모두 죽절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고 총통 전체 길이와 총구 외경도 유사하다<도4,5>.

반면 다른 점은 조준사격을 위한 가늀자와 가늀쇠, 총자루 고정고리가 없으며 총구 내경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두 총통의 전체 길이 평균값은 576mm와 577mm로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단 0.1% 차이에 불과하며, 총구 외경은 28mm로 동일하다<도2와 표3,4>. 반면 총구 내경은 15mm와 12mm로 3mm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총구를 원으로 가정하면 소승자총통의 넓이는 176.625이고 소소승자총통은 113.04이다⁷⁵⁾. 이를 다시 비율로 환산하면 무려 36% 가량 줄어든 셈이다<표3>.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총통의 길이와 총구 내경 비교 그래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발사체의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12mm의 총구 내경은 조선의 17가지 총통 중 세총통⁷⁶⁾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수치이다. 『화포식언해』 기록에 따르면 총통은 총구 내경에 따라 발사체 수도 감소한다<표5>. 소소승자총통 또한 탄환을 사용하는 시기로 그 수를 줄여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⁷⁷⁾. 총구를 작게 제작했다는 것은 탄환의 사거리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함이며 소형총통 구조에서는 가장 발전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다만 가늀자와 가늀쇠, 총자루 고정장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고정 방식도 추정해 볼 필요가 있고 향후 추가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3. 소형총통의 종류별 평균 길이와 평균 구경 구분표(단위: mm)>

연번	명칭	전체 길이 평균값	총구 내경 평균값
1	삼총통	321	18
2	팔전총통	307	30
3	사전총통	258	23
4	세총통	138	9
5	신제총통	205	14
6	복전총통	219	16
7	승자총통	565	25
8	차승자총통	564	21
9	소총통	753	16
10	별승자총통	765	17
11	별양자총통	759	18
12	별승·별양자계총통	621	16

75) 총구 원의 넓이: 소소승자총통 $\pi \times 7.5^2 \times = 176.625$, 소승자총통 $\pi \times 6^2 \times = 11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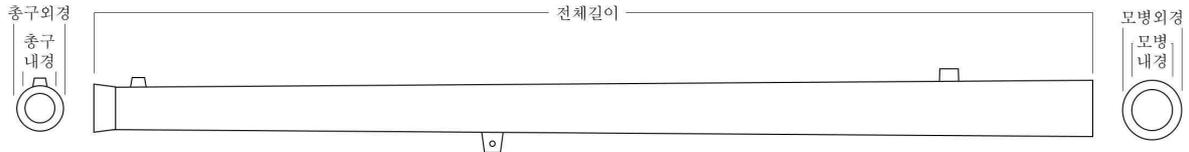
76) 세총통은 전체 길이 138mm의 초소형총통으로 칠흠자라는 보조기구를 사용해 발사한다.

77) 『화포식언해』에 따르면 총통은 총구 내경에 따라 발사체 수가 변한다.

연번	명칭	전체 길이 평균값	총구 내경 평균값
13	소양자총통	552	19
14	소소승자총통	576	12
15	소승자총통	577	15
16	쌍자총통	541	15
17	삼안총	385	12

<표4. 소승자총통의 형태 및 제원>

※ 가늠자·가늠쇠와 총자루 고정 고리 유무 표시(○, ×)



번호	소장번호	전체 길이 (mm)	총구 내경 (mm)	총구 외경 (mm)	모병 내경 (mm)	모병 외경 (mm)	중량 (g)	가늠자 · 가늠쇠	총자루 고정 고리
1	본관14690	578	14	26	18	31	1,927	○	○
2	신수2364(3-1)	576	14	27.5	20	29	1,942	○	○
3	신수2364(3-2)	580	14	30	17	29	1,917	○	○
4	신수2364(3-3)	585	14	28	21	29	2,070	○	○
5	동아대501	575	15	26	20	31	2,121	○	○
6	경희대800011	576	14	28	20	28	1,977	○	○
7	경희대800012	576	15	27	-	-	2,078	○	○
8	경희대800013	575	18	30	-	-	2,252	○	○
9	경희대800014	581	14	28	-	-	2,253	○	○
10	경희대800015	575	14	28	-	-	2,250	○	○
11	경희대800016	576	14	29	-	-	2,151	○	○
12	경희대800017	576	16	28	-	-	2,381	○	○
13	경희대800018	570	17	28	-	-	1,974	○	○
14	경희대800021	578	16	28	-	-	2,243	○	○
15	경희대800022	574	14	28	-	-	2,184	○	○
16	경희대800023	576	16	28	-	-	2,271	○	○
17	육군1-1-19	576	14	26	19	31	1,946	○	○
18	육군1-1-20	580	13	30	20	29	2,034	○	○
19	경남대V-2-0006	579	13	34	20	29	2,051	○	○
평균값		577	15	28	19	30	2,106		

<표5. 승자총통과 소승자총통의 제원 및 발사체 수 변화>

명칭	실물 자료 관찰결과(단위: mm)		『화포식언해』	
	전체 길이(평균)	구경(평균)	화약량	발사체
승자총통	565	25	1냥	철환 15, 피령목전 1
소승자총통	577	15	3전	철환 3

2. 조선 총통의 장전 방식을 입증할 실존 자료

총에 화약을 넣고, 화살이나 탄환 등의 발사체를 끼워 넣는 과정을 장약 또는 장전이라고 한다. 유통식 화기인 소형총통은 공통적으로 화약을 먼저 다져 넣고 발사체와 사이를 구분 짓는 장치를 한 뒤 발사체를 넣는 순서로 장약된다. 조선 전기 소형총통에서는 화약과 발사체를 분리하는 ‘격목(檄木)’이라는 부품을 사용했고⁷⁸⁾, 조선 중기에 들어 복지(覆紙)와 토격(土隔)으로 변경되었다⁷⁹⁾. 복지와 토격은 기존 격목의 역할을 종이와 흙으로 대체한 것인데, 발사체가 화살에서 탄환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를 격리·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문헌 기록을 토대로 소형총통의 장약과정을 분류할 수 있지만 실제 전하는 총통으로 확인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조선 전기 총통은 최근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삼총통에서 발견된 격목의 사례⁸⁰⁾가 유일하고, 조선 중기는 경기도박물관 소장 승자총통⁸¹⁾과 본 조사 대상인 소승자총통 뿐이다.

특히 소승자총통은 장전물이 장전된 채로 발견된 귀한 자료이다. 장전물은 흙→복지→화약 순서로 잔존하였고 조선 중기 총통의 특징인 복지(압지)가 잘 남아 종이의 재질(닥나무 한지)과 목탄, 염초(KNO₃), 유황(SO₃) 등의 화약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도7>.

장약순서와 화약 성분 등의 실물 자료는 문헌 기록인 『신기비결』과 『화포식언해』 등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간 대부분의 소형총통에서는 장전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나마 장전물이 남아 있더라도 긴 시간에 걸친 교란이나 손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소승자총통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78)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 전기 소형총통에서 화약과 발사체를 분리하는 ‘격목(檄木)’이라는 부속품이 등장하며, 크기가 적당해야 기능을 다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조오례의』에는 소형총통의 내부 구조 제원이 기록되어 있다. 약실(약통)과 총구의 구경을 각각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약실과 총열 사이에 격목이 위치하는 부분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다.

79) 조선 중기 『신기비결』과 『화포식언해』에 기록된 소형총통의 경우 격목을 사용한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 『신기비결』에서는 화약→복지→탄환→토격(土隔) 순서로 장약한다고 기록되어있으며, 『화포식언해』에는 토격의 흙 양을 소형총통별로 기록하고 있다.

80) 허일권·김혜술, 「국내 소형총통류의 형태 변화와 제작 기술」, 『조선전기 조사연구 보고서 I: 소형화약무기』, 국립진주박물관, 2015.

81) 전익환·백지혜·이재성, 「연안김씨 묘 출토 승자총통 보존처리」,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2005.



<도7. 소소승자총통의 압지⁸²⁾>

3. 소소승자총통의 과학적 조사 결과

1) CT 조사로 확인한 소소승자총통 주조 기법의 특징

청동 주조품인 총통은 쇳물을 주형(鑄型, 거꾸집)에 부어 넣고 굳혀서 형태를 만든다. 소형총통은 주형을 반으로 나누어 제작(Piece mold)⁸³⁾하였고 총구 내부를 만들기 위해 코어(내형)를 사용했다. 주형과 코어 사이에 용탕이 주입되면 총신의 기벽이 되는데 코어가 중앙에 위치해야만 고른 기벽이 형성된다. 고른 기벽으로 일정한 총신을 형성시키는 것이 소형총통 제작의 핵심 기술이다. 만약 코어가 중심에 위치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편차가 생겨 화약 폭발 시 취약부위가 된다⁸⁴⁾.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코어 고정 채플릿을 설치하는데 용탕을 주입하면 총통의 기벽 속에 채플릿이 위치하여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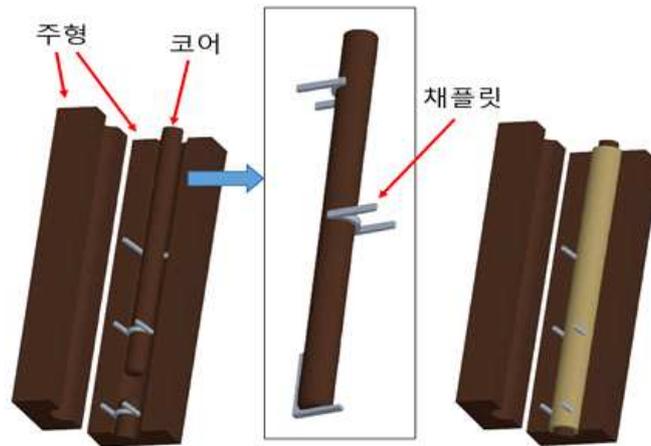
최근 조선 소형총통 13종 29점을 대상으로 CT 조사가 진행되어 내부 구조와 채플릿의 형태가 명확히 밝혀진바 있다⁸⁵⁾. 총신이 비교적 짧고 굵은 조선 전기에는 채플릿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총신이 길어지는 조선 중기의 승자총통부터 나타난다. 총통의 채플릿은 M자형과 L자형 등으로 매우 독특한 형태이며, 배치 순서와 구성도 패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도8>.

82) 임성태·남경민, 2015, 앞의 논문.

83) 분할 제작 시 경계면을 분리면이라 하며, 이것을 측면에서 볼 때 분리선 또는 주조분할선이라 한다. 주조분할선은 조립된 주형 사이에 용탕이 들어가 생기는 결함 현상으로 주조된 총통에서는 흔히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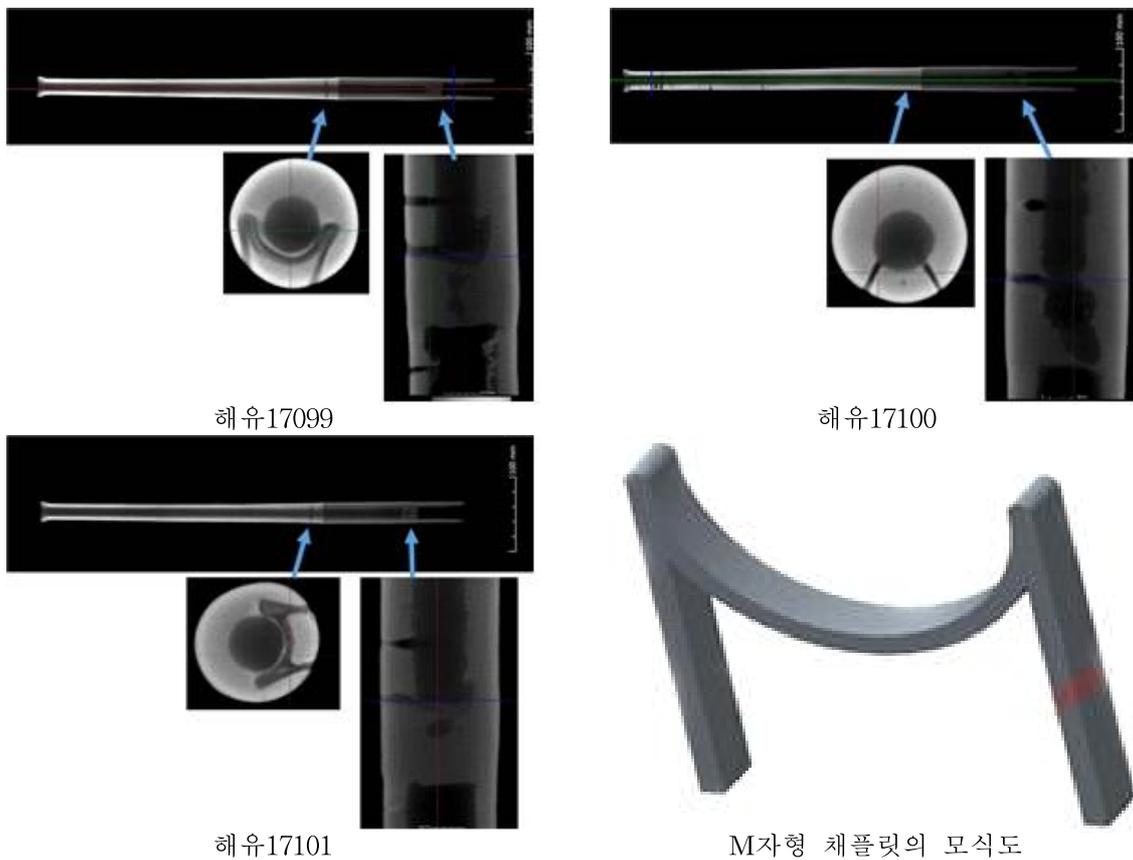
84) 세종실록에서는 “만일에 그 만든 것이 두껍고 얇기가 고르지 못하고, 원물[體]이 바르고 곧지 못하거나, 쇠 성질이 무르고 연해서 뚫어지거나 새는 틈이 있어 완전하지 못하면, 다만 공장들만 엄하게 다스릴 뿐 아니라, 또한 장차 너도 처벌하리니, 너는 이 뜻을 알아서 더욱 근면하여 소홀히 하지 말라.”하였다(세종실록 세종 30년 무진(1448) 2월 10일(병인)).

85) 허일권·김해술, 「국내 소형총통류의 형태 변화와 제작 기술」, 『조선무기 조사연구 보고서 I: 소형화약무기』, 국립진주박물관, 2015.



<도8. 소형총통의 주형과 채플릿 설치 모식도(용탕 주입 전 左, 주입 후 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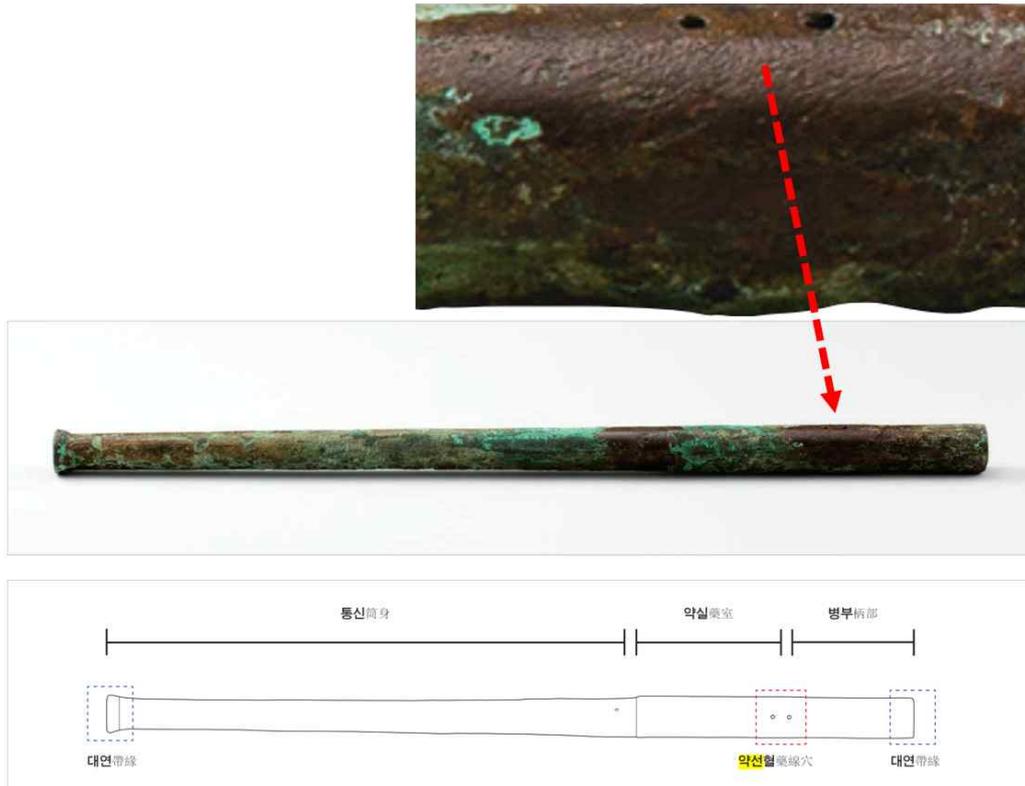
본 조사에서는 소소승자총통 CT 촬영 결과를 토대로 기존 조선 총통의 채플릿과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소소승자총통 세 점은 모두 유사한 위치에서 채플릿이 확인되었다. 각각 총열부에 M자형 1개⁸⁶⁾, 약실 끝부분에 L자형 1개가 확인되었고, 모병부에는 채플릿이 없다<도9>.



<도9. 소소승자총통 CT 촬영 결과와 M자형 채플릿의 모식도>

86) CT 상에서 해유17100은 M자형 채플릿은 중심부가 확인되지 않아 八字 형태로 관찰된다. 현 CT 상만으로 세부 의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코어를 받치는 역할과 배치 방향(위치)으로 보아 나머지 소소승자총통의 M자형 채플릿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채플릿은 기존 총통과 동일하게 직사각 형태를 띠며 단면의 긴 변은 2mm 정도이다. 한편 약실 끝에 위치한 L자형 채플릿은 심지 구멍과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해유17099의 경우 심지 구멍이 두 개인 것으로 오인되기도 했었다.⁸⁷⁾<도10>



<도10. 해유17099 소소승자총통의 세부 구조와 심지구멍⁸⁸⁾>

채플릿의 형태와 배치를 바탕으로 소승자총통과 비교해 본 결과 소소승자총통은 채플릿의 수량이 2개인 반면 소승자총통은 3~4개가 사용되었다<표6,7>.

87) 채플릿은 철제로 만들어져 청동 속에서 우선적으로 부식된다. 따라서 부식 손상이 일어난 채플릿은 외형 표면에 사각 구멍으로 확인된다.

88)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5.

<표6. 조선 총통의 채플릿 배치 순서 및 모병부 구멍 유무>

명칭	소장번호	채플릿 배치 순서(총신→모병부)				비고
		총열	약실끝	모병부	모병부구멍	
승자총통	서위역박3775	MIW	-	IMM	○	
	신수6326	MIW	-	MIW	○	
	본관13816(6-1)	M	L	M	×	
	본관13816(6-4)	MMMM	-	IMM	○	
	경희대8000003	MIW	-	MIW	○	
별승자총통	경희대8000001	MIWM	-		×	
	신수1941	MMIW	-	IMM	×	
별양자총통	광주2456	MIWI	-	IMM	×	
별승·별양자계총통	경주1587(2-1)	M	L	-	×	
	경주1587(2-2)	M	L	-	×	
소승자총통	신수2364(3-1)	ML	-	M	×	
	신수2364(3-2)	ML	-	M	×	
	경희대800011	LM	L	M	×	
쌍자총통	신수480	MMIWI	-	MIW	○	2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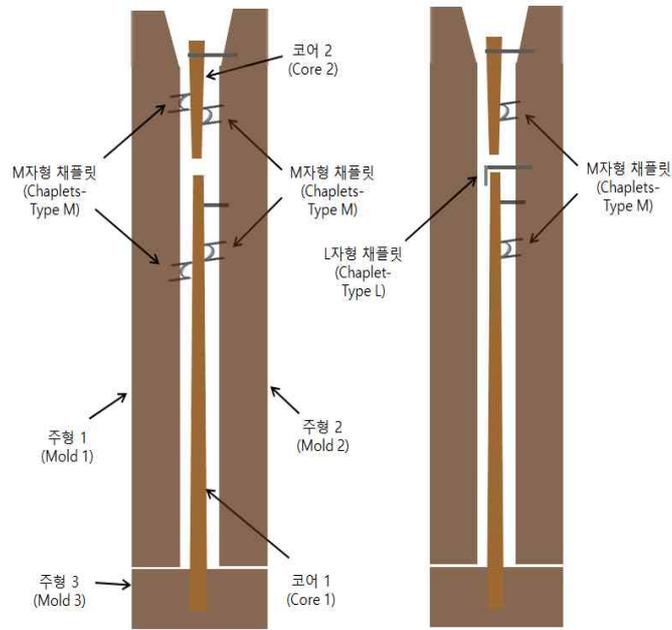
소소승자총통은 7종의 조선 중기 총통 중 가장 적은 수의 채플릿을 사용하였다 <표7>. 또한 약실 끝에 L자형을 채플릿을 배치함으로써 두 개로 나뉜 주형 중에서 한쪽에만 채플릿을 고정시키는 좀 더 간편한 방식을 택했다⁸⁹⁾<도11의 右 참조>. 채플릿은 코어를 고정하는 보조 기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용탕 주입 시 기공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⁹⁰⁾. 따라서 결함을 낮추기 위해 채플릿의 개수를 줄인 것으로 보이며, 한쪽 주형에만 채플릿을 배치해 좀 더 간소한 주형 조립도 가능했으리라 예상한다.

<표7. 소소승자총통의 채플릿 배치 순서 및 모병부 구멍 유무>

명칭	소장번호	채플릿 배치 순서(총신→모병부)				비고
		총열	약실끝	모병부	모병부구멍	
소소승자총통	해유17099	M	L	-	×	
	해유17100	M (∧)	L	-	×	
	해유17101	M	L	-	×	

89) 승자총통의 경우 채플릿이 양쪽 주형에 고정된 경우와 한쪽 주형에만 고정된 경우로 나뉜다<도11의 右측 도판 참조>.

90) 채플릿은 용탕이 주입되면 습기와 산화물, 이물질 등에 따라 내부에 기공이 생기고 이러한 결함은 총통을 사용함에 있어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Rowley, M.T., 『International Atlas of Casting Defects』, American Foundry Society, 2007.



<도11. 승자총통의 주형 모식 설계도-채플릿의 좌·우 대칭 주형 배치(左)와 한쪽 주형 배치(右)>

고대 무기 생산의 핵심은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본 소소승자총통의 주조 기법은 조선 소형총통 중 가장 발전된 방식으로 추정한다. 조충을 도입하기 전 조선의 소형화약 무기 기술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2) 소소승자총통 재료의 정밀 분석 필요성

국내 소형총통의 재질은 청동제와 철제로 분류할 수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총통은 대부분 청동제이며 주조로 만들어졌다. 청동은 구리(Cu)와 주석(Sn)의 합금이며, 화학 조성 비율에 따라 재료의 기계적 특성이 변화한다. 특히 총통은 화약의 폭발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구리와 주석의 함량비가 매우 중요하다.

명 말 송응성(宋應星)이 저술한 『천공개물(天工開物)』(宋應星, 최주 역자, 1997)에 서양포는 숙동(熟銅)으로 주성(鑄成)한다는 내용이 있고 조선 말의 『훈국신조군기도설(訓局新造軍器圖說)』⁹¹⁾에는 천·지·현·황자총통, 완구 등 화약무기는 숙동⁹²⁾으로 주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15~16세기 유럽의 기록에서는 구리와 주석이 9:1의 비율일 때 청동 화포 재료(Gun material)로 견고하고 단단한 합금이 된다는 실험 결과를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³⁾ 유럽에서는 중세 시대부터 청동제 화포(Bronze

91) 李圭景, 강신엽 역자, 『조선의 무기 I 훈국신조군기도설·훈국신조기계도설』 봉명, 2004.

92) 李圭景, 최주 역자,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辨)』, 2008에는 구리를 만드는 법에서 숙동이 언급되는데 역자인 최주는 단조(鍛造, Forging)가 가능한 구리 또는 구리합금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숙동은 숙동 자체만으로 주조했거나 합금의 주성분으로 쓰였기 때문에 주석 함량이 매우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93) Gilmore, G.R., Gordon, R., and Ot-away, B.S., 『Micro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Trace Elements in Copper-based Metal Artifact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7, 1980.

cannon)에 사용되는 금속 재료를 ‘건메탈(Gun-Metal)⁹⁴⁾⁹⁵⁾로 분류하고 있고, 조선 총통 또한 최근 대대적인 성분분석으로 특정 화학 조성(주석 함량 5~10wt%)이 사용된 의도적인 제작 경향성이 밝혀진바 있다. 유럽 16~17세기 화포의 재료 성분을 종합하면 구리와 주석이 주성분이며 대부분 10wt% 이하의 주석 함량이 나타나는데, 조선의 청동제 총통 성분과도 유사한 경향을 띤다.

초기의 청동제 화약무기 주성분이 특정 지역이나 개발 시기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화약무기에 필요한 재료적 기능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총통의 주석 함량은 분명한 제작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동 문화재는 동일 종류라고 해도 합금 비율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총통은 매우 일관된 합금 비율을 보인다.

따라서 소소승자총통의 성분 함량도 기존 총통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소소승자총통의 성분 분석은 표면의 부식물을 측정된 결과로 구리-주석-납의 삼원계 합금이라는 정성 분석 결과만 확인한 상태이다. 앞으로 좀 더 명확하고 정밀한 합금 비율 분석과 비교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과학적 검증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94) 유럽의 경우 고대 청동제 화포에 대한 화학 조성 분석 사례가 한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유럽의 화포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일반적으로 구리 90~81wt%, 주석 9~10wt% 정도의 합금비를 의미한다.

95) Gnesin, G.G., 『Metals and Alloys of the Bronze Age: from Middle to Modern Times. I. Copper and its Alloys』, 『Powder Metallurgy and Metal Ceramics』 53, Springer, 2014 / Meide, C., 『The Development and Design of Bronze Ordnance, Sixteenth through Nineteenth Centuries』,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2002.

11. 백자 향아리

(白磁壺)

가. 검토사항

‘백자 향아리’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로부터 ‘백자 향아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4.1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1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2018.12.13. 지정)
- 명 칭 : 백자 향아리(白磁壺)
- 소유자(관리자) : 정용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24, 서울옥션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60.0cm, 구경 20.0cm, 저경 22.0cm
- 재 질 : 도자(백자)
- 형 식 : 구연부가 원통형으로 직립하는 조선 후기 백자 입호(立壺)
- 조성연대 : 조선시대(18세기)



<백자 항아리>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는 조선 18세기 전반 경에 관요에서 제작된 대형의 입호이다. 대형 입호는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왕실의 각종 의례 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기물이다.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는 높이 60cm의 대형 항아리로 현재 남아 있는 예가 많지 않은 유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의 조형성, 품질, 시대성, 수리 범위 등이 다른 지정품들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는 조형적인 면에서 크기가 대형이라는 점 외에 순백자 항아리의 중요 요소인 유면과 유색의 상태가 다른 지정품들에 비해 미흡하다. 정선되지 않은 태토에 섞인 사립질의 알갱이로 인해 기면이 전체적으로 거칠고, 기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파인 흠이나 굵힌 흔적, 핀홀 현상의 범위도 넓은 편이다. 최근에 보물로 지정된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백자대호>와 비교하여도 크기가 크다는 점 외에 형태, 유색, 유면 상태 등 전체적인 조형성이 떨어진다.

둘째,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는 구연, 저부, 몸체, 굽바닥 등에 수리 흔적이 있고, 특히 몸체의 수리 흔적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는 점에서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미흡한 부분이다.

셋째, 조선 17세기에서 18세기에 제작된 대형 백자 항아리가 도자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조선 18세기는 조선시대 백자 문화의 전성기로 인정되는 시대이다. 이 시기에 제작된 <백자 항아리>의 사례를 보았을 때,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의 조형성과 품질 등에서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시대성을 보인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백자 항아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다소 미흡하여 보류하고자 한다.

○ (지정 가치 미흡)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는 대형의 백자 입호이다. 유물의 원래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릇 외면에 나타나는 유약의 전반적인 용융 상태도 고르지 못한 부분이 몇 곳에 나타난다. 특히 그릇 표면에 유약의 뭉침과 핀홀 등이 나타나는 구간에는 백색과 백회색의 반점들도 확인할 수 있다. 유물의 태토 속에 포함되어 있던 철분이 발현된 철반점들도 항아리의 내외면 일부에 자리한다.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의 구연부의 일부에는 수리 흔적이 남아있고, 굽 외측면 일부 약 7cm 길이 구간에도 수리되어 기면이 울퉁불퉁한 곳이 있다. 또한 동체 중간 부분에 길이 약 20cm 정도 구간에 그릇의 표면이 다소 마모된 흔적과 함께 가는 사격자형의 직조물 형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 그 옆으로는 세 방향으로 갈라진 수리 흔적도 남아있다.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는 대형이다 보니 동체의 기축선이 약간 틀어진 곳도 있고, 그 때문에 전반적인 비례감이 다소 어색한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그릇의 기울어짐을 완화하기 위해 굽 한쪽을 수리하여 높이를 맞추었고, 추가로 두 곳에 돌기를 부착하는 등 후대 보완 조치도 이루어졌다.

현재 조선 후기 백자 입호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항아리>(보물 제2064호)가 있다.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는 보물로 지정된 항아리에 비해 크기는 크지만, 전반적인 조형이나 그릇 표면에 드러나는 유태(釉胎)의 완성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종합해 볼 때,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미흡)

조사 대상인 무문 백자 입호는 17세기 말~18세기 전반에 제작된 백자 입호이다. 현존 입호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나, 50cm를 넘는 무문 백자 입호의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희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몸체 전면에 손상, 균열, 수리가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 아니다. 보물로 지정된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입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가지정문화재로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순백자 원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활발한 데 비해 순백자 입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으로, 지정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백자 입호의 제작이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만큼, 남아있는 작품의 수량도 많고 시기별 양식적 특징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백자 입호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앞서서 충분한 논의와 현황조사를 거쳐 대략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검토된 기준안을 토대로 뛰어난 유물을 선별하고 지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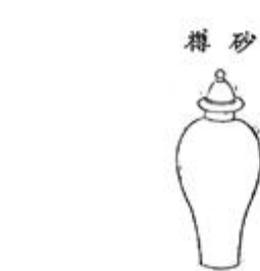
가. 학술적 가치

조사 대상인 백자 항아리는 17세기 말~18세기 전반에 유행했던 백자 입호의 형태를 하고 있다. 조선시대 의궤에서 立壺의 명칭은 ‘樽’으로 표기되었다(표1). ‘樽’은 용무늬의 유무에 따라 龍樽과 砂樽으로 나뉜다. 도설에서 용준은 뚜껑을 갖추고 몸통의 어깨 부분이 불룩한 형태로 용과 구름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백자 입호의 용도는 왕실 행사를 비롯한 사신접대, 관료들의 연향에서 꽃을 꽂는 ‘화준花樽’과 술을 돌려 마시던 의전 절차에서 술을 담은 ‘주준酒樽’으로 사용됐고, 관청의 저장 용기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표2). 조사 대상인 무문 백자 대호 역시 이러한 용도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표1. 의궤에 나타나는 입호의 명칭>



<화성원행의궤도(1795)>



<자경전진작정례의궤(1827)>

<표2. 조선 회화 속의 백자 입호>



<궁중숭불도, 16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경수연도, 1688년, 경기도박물관>



<이원기회도, 1730년, 국립중앙박물관>



<회혼례,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나. 희소성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높이 40cm를 넘는 대형 백자 입호는 국보 5점, 보물 3점, 시도유형문화재 4건 6점(표3)이 지정되었고, 순백자 입호만 헤아리면 4건 6점이 지정되었다(표4). 지금까지 백자 입호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현황은 대체로 청화안료나 철화안료로 무늬를 장식한 백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무늬 없는 순백자 입호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백자 입호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제작된 기형인 만큼, 상당히 많은 수량의 뛰어난 전세품들이 있고, 순백자 대형 입호의 제작 사례도 상당수 확인된다.(표5) 조사 대상 유물은 50cm를 넘는 대형 입호이지만, 전례 없는 희귀한 사례라고 할 수는 없다.

<표3. 지정문화재 중 백자입호 지정 현황(높이 40cm 이상)>



<1. 국보 제176호, 백자청화홍치명호, 높이 48.7cm, 1489년, 동국대학교박물관>



<2. 국보 제219호, 청화백자매죽문호, 높이 41cm, 16세기, 리움미술관>



<3. 국보 제166호, 백자철화매조문호, 높이 40cm, 16~17세기, 국립중앙박물관>



<4. 국보 제107호, 백자철화포도문호, 높이 53.3cm, 18세기 초,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5. 국보 제263호, 백자청화산수문대호, 54.8cm, 18세기, 용인대학교박물관>



<6. 보물 제644호, 백자청화송죽인물문호, 47.0cm, 16세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7. 보물 제645호, 백자철화운룡문호, 54.8cm, 17세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8. 서울시유형문화재, 백자청화산수문호, 19세기, 서울역사박물관>



<9.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55호, 백자청화운룡문호, 19세기, 경기도박물관>

<표4. 순백자 입호 지정 현황>



<보물 제1905호,
높이 36.5cm, 15~16세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서울 청진동 출토(일괄3)>



<보물,
높이 52.6cm, 18세기 전반,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75호,
19세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32호,
높이 58.5cm, 18세기 전반
개인 소장>

<표5. 백자 입호 기관별 주요 작품>



높이 53cm
일본 민예관 소장



높이 54.1cm
일본 민예관 소장



높이 31.4cm
경기도박물관 소장



높이 39cm
국립민속박물관



높이 36.8cm
국립중앙박물관(신수2587)



높이 35.8cm
국립중앙박물관(동원475)



높이 57.5cm
국립중앙박물관(동원460)



높이 43.9cm
국립중앙박물관(동원4144)



높이 42cm
국립중앙박물관(남산513)



높이 30.9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4109)



높이 34.5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6584)



높이 48.2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4015)



높이 41.5cm
국립중앙박물관(신수7744)



높이 52.4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4147)



높이 54.2cm
국립중앙박물관(건희1546)



높이 56.5cm
국립중앙박물관(건희1545)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사 대상은 구연이 낮게 직립하고 몸체 상부가 둥글고 풍만하며 하부로 가면서 점차 좁아지다가 굽에서 살짝 외반하는 형태의 순백자 입호(立壺)이다. 몸체의 크기는 60cm로 상당히 큰 편이며, 번조과정에서 항아리의 몸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나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도1).



<도1. 백자 항아리(조사 대상)의 모습(세 측면)>

항아리는 상부와 하부를 물레에서 따로 만든 후에 붙이는 접합 성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조선시대 백자항아리를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곧게 선 구연부는 내외면을 칼로 깎아 정리하였다. 그러나 구연부의 안쪽을 보면 칼로 깎아 각이 지게 정리된 부분 이외에 제작 시에 성형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15cm 정도 덧대어서 손을 댄 부분이 있다(도2).



<도2. 백자 항아리의 구연부 안쪽 모습(좌: 덧댄 부분, 우: 칼로 정리된 부분)>

유약은 항아리의 내외부에 전면 시유되었지만 구연부 주변에 미시유되거나 박락된 부분도 있다. 유색도 고르지 않아서 황백색과 회백색으로 나뉘지며 핀홀 주변의 유색은 백색으로 밝아 얼룩처럼 보인다. 태토에 포함된 사립(砂粒) 등의 잡물이 유면 위로 돌출되어 유면이 전체적으로 거칠고 철반 흔적과 곳곳에 핀홀이 있다(도3).



<도3. 백자 항아리의 유면과 유색 상태, 핀홀 주변의 백색 부위>

굽은 접지면을 제외한 안쪽부분을 깎아낸 안굽으로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지 않다. 굽바닥면 전체를 시유한 다음에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굽바닥은 현재 2/3 정도 균열이 간 상태이며, 갈라진 부분에 알 수 없는 재료를 덧대어 메워 둔 상태이다. 항아리 바닥의 균열은 내부에서도 확인되는 상태이다. 항아리는 몸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똑바로 서지 못하는 상태에서 굽의 접지면을 갈고 작은 괴임돌을 두 군데 부착하여 수평을 맞추었다(도4,5).



<도4. 백자 항아리의 굽바닥과 괴임돌을 받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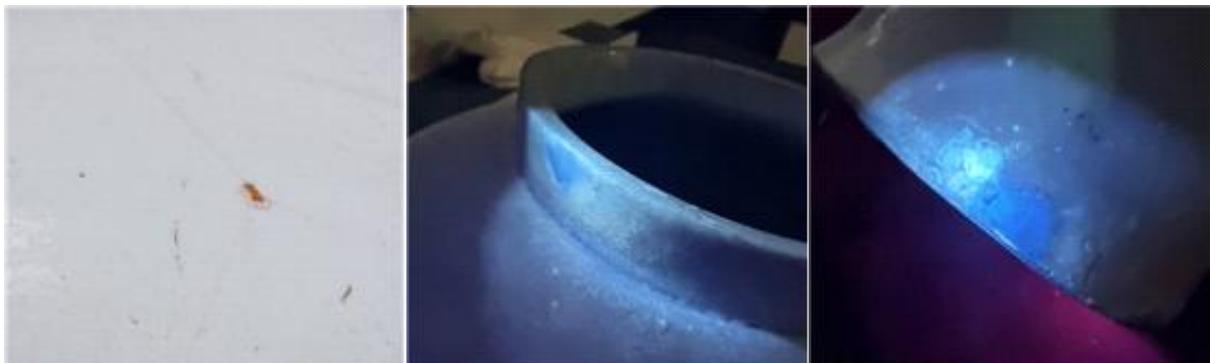


<도5. 백자 항아리의 내부 바닥의 균열>

항아리의 몸체, 구연부, 저부, 굽바닥에 수리 흔적이 확인되며,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실에서 조사 결과 복원재료로 석고와 인회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몸체의 중간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수리 흔적은 성인의 손바닥 정도의 면적이며, 사진상에 삼각형으로 보이는 수리 부분에서 위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수리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없다(도6). 몸체 안쪽 면에서도 균열된 선이 확인되며, 저부와 구연의 수리 흔적은 일부분으로 넓지 않다(도7).



<도6. 백자 항아리의 수리 부분(몸체)>



<도7. 백자 항아리의 수리 부분(몸체 안쪽, 구연, 저부)>

가. 제작지와 편년추정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는 높이 60cm의 대형이면서 문양 장식이 없는 순백자 입호이다. <백자 항아리>는 크기와 형태 등 전체적인 조형성과 품질로 볼 때 광주 관요에서 제작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관요는 1752년에 광주 분원리에 요지가 고정될 때까지 이동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백자 항아리>의 제작 시기를 추정해야 구체적인 제작지를 유추할 수 있다.

조선 17세기에서 18세기에 제작되는 순백자 입호는 전체적인 몸체의 비율과 구연부의 형태를 편년 추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구연의 외면 형태가 소위 주판알처럼 중간 부분을 각이 지게 깎는 형태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로 추정된다. 경기도 광주 궁평리 요지에서 이러한 형태의 백자 항아리 구연부 편이 출토되었다.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의 구연부는 높지 않게 직립한 형태이며, 이러한 구연부를 가진 백자 항아리는 주로 18세기 전반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백자 항아리는 18세기 2/4분기 이후에 운영되는 경기도 광주 금사리 요지, 분원리 요지 등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세기로 가면서 직립된 구연부의 높이가 점차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나. 용도와 유사사례

대형의 백자항아리는 조선시대 왕실의 연향이나 의례에서 가화(假花)를 꽂거나 술을 담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대형 항아리가 문헌 기록에 화준(花樽)이나 주준(酒樽)으로 불리는 것은 용도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순백자보다 용이나 산수문 등의 문양이 있는 철화나 청화백자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와 형태 및 크기가 유사한 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철화운룡문호>, 우학문화재단 소장 <백자청화산수화조문호>를 들 수 있다(도8,9).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연이 높지 않게 직립하며 풍만하고 둥근 어깨에서 하부로 가면서 전체 좁아지는 형태이다. 운룡문과 산수문이 있는 두 점의 호가 대체로 18세기 전반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도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1. 백자 항아리,
조선 18세기 전반, 높이 60cm,
조사 대상(서울시유형문화재)>



<도8. 백자철화운룡문호,
조선 18세기 전반, 높이 57.5cm,
국립중앙박물관(동원460)>



<도9. 백자청화산수화조문호,
조선 18세기 전반, 높이 54.8cm,
우학문화재단>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처럼 문양이 없는 순백자의 경우는 일본 민예관 소장품과 호림박물관 소장품으로 모두 50~60cm 이상의 대형 항아리이다. 일본 민예관 소장 <백자 항아리>는 구연부가 주판알처럼 깎여있는 형태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로 초로 추정되는 작품이다(도10). 조사 대상품과 시기적으로 유사한 예는 호림박물관 소장의 두 점의 대형 <백자 항아리>이다(도11,12). 호림박물관 소장품을 보면 직립된 구연이 높이가 확연히 차이가 있어서 조사 대상과 유사한 작품은 도11의 작품이다.



<도10. 백자 항아리,
조선 17세기 후반~8세기 전반,
높이 53cm, 일본 민예관>



<도11. 백자 항아리,
조선 18세기,
높이 51.5cm, 호림박물관>



<도12. 백자 항아리,
조선 18세기,
높이 61cm, 호림박물관>

다. 지정사례

조선시대 순백자 입호의 지정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 15~16세기로 추

정되는 청진동 출토 백자 항아리 3점,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로 추정되는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백자대호>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 외에 이번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백자 항아리>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도13).



<도13. 백자대호,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 높이 52.6cm, 부산시립박물관(2020년 보물 지정)>

○ 참고문헌

- 구혜인, 「조선시대 주준용 백자용준의 문양과 왕실 의례와의 관계」, 『미술사학보』 48, 미술사학연구회, 2017.
- 김규림, 「朝鮮 17-18世紀 백자대호(白瓷大壺)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장기훈, 「조선시대 백자용준의 양식변천고」, 『미술사연구』 12, 미술사연구회, 1998.
- 장남원, 「순백의 항아리_기술과 조형으로 왕조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다」, 『백자호』 I, 호림박물관, 2014.
- 최 건, 「청화백자에서 龍樽이 갖는 의미 - 특히 17, 18세기를 중심으로-」, 『동양미술사학』 3, 동양미술사학회, 2015.
- 『일본민예관 소장 한국문화재Ⅱ: 도자·회화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7.
-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사적 제314호) 6차 발굴조사보고서』, 2020.

○ 기 타

- 조사 대상 유물은 2016년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된 이력이 있으며, 당시에 지정 가치 미흡으로 판단되었다.
- 현재 국내에 소장 중인 순백자 입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 현 상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白磁壺)>(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32호)는 높이가 60cm인 대형의 입호(立壺)이다. <백자 향아리>는 구연부가 낮은 원통형을 이루고 있다. 구연부에서 이어진 동체의 기측선은 곡선으로 벌어져 내려 동체 상단부 약 1/3 정도에서 최대지름을 이룬다. 그 아래로 이어진 기측선은 사선에 가깝게 좁아들다가 저부에서 꺾여 내린다(도1,2). <백자 향아리>의 최대복경 부근에는 위 아래 동체를 이어붙인 흔적이 있다. 이 유물은 그릇이 구워지는 과정에 동체가 한 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으나 전반적인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도1.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1>



<도2.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2>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의 굽은 접지면을 테두리 일부만 남기고 안쪽을 파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도3). 접지면은 폭이 일정하지 않으며, 저부 전체를 시유한 다음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있다. 현재 유물의 접지면에는 번조 과정에 받친 모래를 갈아낸 자국이 남아있고, 굽 안쪽이 터져 갈라진 것을 메워 둔 흔적이 남아있다. 또한 한쪽으로 다소 치우친 동체의 기울기를 조정하기 위해 굽을 일부 보강한 흔적이 있고 작은 돌기형의 받침대 2개도 부착되어 있다(도4).



<도3.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 굽 모습>



<도4.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 굽 보수 상태>

<백자 항아리>의 유색은 전반적으로 옅은 백회색이며, 동체 전체에 광택이 감돌고 있다. 동체에 핀홀이 있고 그 주변은 백색 반점들이 드러나기도 한다(도5). 그릇의 표면에 작은 철반점(鐵斑點)이 몇 개 있다. <백자 항아리>는 구연부 안쪽 약 15cm 구간에 걸쳐 내면이 약간 뭉개진 흔적이 남아있다(도6). 이는 그릇을 성형하는 과정에 생긴 흔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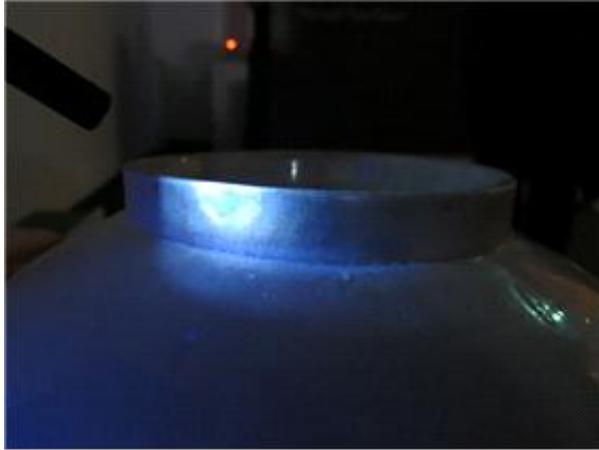


<도5.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 핀홀 상태>



<도6. 조사 대상 백자 항아리 구연부 내부>

조사 대상 백자는 구연부 일부에 수리흔이 있고, 동체 일부에도 보수한 흔적이 남아있다(도7,8). 굽 외면 테두리에도 수리 흔적이 남아있다(도9). 구순부와 최대복경에는 사용 흔적으로 간주되는 미세한 흠집이 다수 남아있다(도10). 이러한 흠집들은 이 그릇이 실제 사용되는 과정에 생긴 흔적들이다.



<도7.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 구연부 수리 상태> <도8.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 동체 수리 상태>



<도9.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 저부 수리 상태> <도10.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 기면 상태>

○ 내용 및 특징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는 조선 18세기에 경기도 광주 관요(官窯)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운영된 궁평리 관요 가마터에서는 조사 대

상 <백자 향아리>와 같은 원통형의 향아리 구연부가 아닌 외반하는 형태의 향아리 구연부가 주로 보고되었다.⁹⁶⁾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처럼 구연부가 원통형인 백자 향아리는 주로 18세기 2/4분기 이후에 백자를 제작한 경기도 광주시 금사리, 분원리 등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 후기 백자 향아리는 대체로 위아래 동체를 따로 만든 다음 접합하는 방식으로 제작했다. 대체로 높이 30cm 이상의 중대형 그릇들은 이러한 제작 특징이 더욱 뚜렷하여 대체로 그릇의 외면에 동체를 이어붙인 흔적이 남아있다. 동체를 이어붙이는 기술은 조선 전기부터 백자 향아리를 제작하는 과정에 활용되었으며, 높이 20cm이하의 중소형 호에도 동체를 이어붙이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동체를 하나의 점토로 물레에서 성형하는 것보다 동체를 이어붙여 향아리를 제작하는 것이 편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⁹⁷⁾

조선시대 백자 향아리는 국가의 의례와 연향에서부터 개인의 식생활에까지 두루 쓰였다. 『세종실록』 「오례」나 각종 의궤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향아리는 주해(酒海), 준(樽 혹은 尊), 항(缸) 등으로 불렸다. 조선시대 백자향아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만큼 크기와 모양도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조선시대 백자향아리는 외형에 따라 위아래로 길쭉한 입호(立壺)와 동체가 둥근 원호(圓壺)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조선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는 원호의 제작이 증가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형의 백자원호 가운데 높이 40cm가 넘는 것들은 ‘달향아리’로도 불리며, 왕실과 일부 사대부 집안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해당 시기에 제작된 백자향아리는 원호와 입호 모두 구연부가 대부분 사선으로 외반하며, 구연의 외면은 각지고 내면은 완만한 곡선이나 직선에 가깝게 제작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반면, 18세기 전반 이후에 제작된 백자향아리 가운데는 구연부가 원통형인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의 구연부 역시 낮은 원통형이다.

96)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사적 제314호) 6차 발굴조사보고서』, 2020, pp.431~432.

97) 김규림, 「조선 17~18세기 백자원호(白磁圓壺)의 조형과 성격」, 『한국문화연구』 3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9, pp.153~180.

<표1.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와 조선 후기 주요 유물 비교>

유물명	<백자 향아리>	<백자 철화포도문 향아리> (국보 제107호)	<백자 청화산수화조문 향아리> (국보 제263호)	<백자향아리> (보물 제2064호)
도판				
크기	높이 60cm, 구경 22cm, 저경 20cm	높이 53.3cm, 최대복경 43.3cm	높이 54.8cm, 구경 19.2cm, 저경 18cm	높이 52.6cm, 최대복경 45.3cm
제작시기	18세기	18세기	18세기	17세기 말~18세기 초
소장처	조사 대상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우학문화재단	부산박물관

현재 확인되는 조선 후기 백자 입호는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처럼 대체로 구연부가 원통형으로 직립하며, 사선으로 외반하는 구연부를 지닌 백자입호는 남아있는 사례가 적은 편이다. 같은 원통형의 구연부라도 18세기에 제작된 백자 향아리의 구연부는 대체로 낮은 편인데 비하여,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에 만든 백자 향아리의 원통형 구연부는 앞선 시기에 비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는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백자 철화포도문 향아리>(국보 제107호) 및 <백자 청화산수화조문 향아리>(국보 제263호) 등과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조사 대상 <백자 향아리>는 아무런 문양이 없는 순백자이지만, 높이가 60cm 정도로 <표1>에 제시된 유물들에 비해서도 큰 것이 특징이다. 이 정도 크기의 백자 향아리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남아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며, 조선 후기 백자 향아리의 제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어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사적 제314호) 6차 발굴조사보고서』, 2020.
- 김규림, 「조선 17~18세기 백자원호(白磁圓壺)의 조형과 성격」, 『한국문화연구』 3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9.
- 장남원, 「순백의 향아리_기술과 조형으로 왕조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다」, 『백자호』 I, 호림박물관, 2014.

□

○ 현 상

<백자대호>는 2004년 9월 정용호씨가 미국 뉴욕크리스티 경매에서 구입한 것으로 현재 서울옥션에 보관 중이다. 번조 과정에서의 형태 왜곡, 균열과 파손이 있다. 화학물질 세척으로 인해 유면의 얼룩 발생 등으로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다.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3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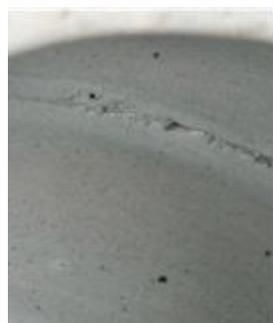
높이가 50cm을 넘는 대형 立壺이다(참고1). 구연부는 짧게 직립하고, 동체는 어깨가 둥글게 부풀다가 저부로 서서히 좁아들면서 굽에 이르러 살짝 벌어졌다. 동체는 상하를 따로 만들어 접합한 방식으로 제작했으며, 동체 상단의 내측에 접합 흔적이 있다(참고2). 이와 같은 상하 접합 기술은 대체로 17세기 중반부터 선동리, 송정리, 유사리, 신대리 등 광주 관요를 비롯해 관요 인근 지방요인 용인 대대리, 가평 하판리 가마에서도 확인된다.

항아리는 번조 과정에서 뒤틀어져 한쪽으로 기울었고, 굽 밑바닥에 큰 균열이 있다(참고3,4). 또한 몸체 전면에 크고 작은 파손과 균열이 있으며, 수리 흔적이 확인된다(참고5-7). 구연부와 동체 하단의 결손부는 합성수지로 복원 수리를 하였다(참고8-10). 기울어진 항아리의 균형을 잡기 위해 굽 접지면과 안바닥 일부를 갈아내 작은 괴임돌 2개 부착하였다.(참고11,12) 전면에 옅은 회색조의 백색 유약을 입혔으나, 철분과 잡물이 섞여서 유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며, 유색도 고르지 않다. 또한 화학물질을 사용한 전면 세척으로 항아리 곳곳에 형광 얼룩이 생성되었다(참고13-15). 높이가 58.5cm인 대형 항아리지만 기형의 왜곡과 유색의 변색 등 전면에 결함과 손상이 있어, 보물로 지정된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표1. 조사 대상 백자대호의 특징>



<참고1. 백자입호>



<참고2. 상하 접합 흔적>



<참고3. 굽안바닥 균열>



<참고4. 굽안바닥 균열>



<참고5. 결손과 균열>



<참고6. 수리 흔적>



<참고7. 수리 흔적>



<참고8. 동체저부 복원수리>



<참고9. 구연 복원수리>



<참고10. 구연 복원수리>



<참고11. 고임돌 부착>



<참고12. 고임돌 부착>



<참고13. 유태>



<참고14. 유태>



<참고15. 유태>

○ 참고문헌

- 김규림, 「조선 17-18세기 백자대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남아름, 「조선후기형화백자운봉문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윤효중, 「조선전기 관요맥자의 기명체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장기훈, 「조선전기 백자용존의 양식변천고」, 『미술사연구』 12, 1998.
- 최건, 「청화백자 용존의 성격과 전개」, 『동원학술논문집』 14, 2013.

12.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 (靑磁 陰刻鸚鵡文 淨瓶)

가. 검토사항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로부터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4.1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1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2020.2.13. 지정)
- 명 칭 :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靑磁 陰刻鸚鵡文 淨瓶)
- 소유자(관리자) : 이종훈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길 14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39.0cm, 주구 지름 3.2cm, 저경 9.5cm
- 재 질 : 도자(청자)
- 형 식 : 주구(注口), 환대(環帶), 첨대(尖臺)로 구성된 고려시대 청자 정병
- 조성연대 : 고려시대(12세기)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고려 12세기 전반 경에 강진 일대 요지에서 제작된 품질과 조형성이 우수한 작품이다. 크기, 품질, 조형성, 희소성, 학술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한다.

<근거지준>

가. 학술적 가치

『고려사』 의종 11년(1157)이나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의 기록에 의하면 12세기 고려 왕실에서 앵무새는 말을 잘하는 새로 진상품이었으며, 궁중에서 기르는 서조(瑞鳥)로 인식되었다.⁹⁸⁾ 고려청자에서 앵무문이 문양 소재로 사용되는 시기도 12세기 이후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고려의 왕실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과 같은 높은 품질의 정병에 앵무문이 음각되는 예는 왕실용 청자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98) 『고려사』 卷 18 世家 卷第 18 毅宗 11年 7월 “秋七月 戊子 宋商, 獻鸚鵡·孔雀·異花.”;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卷 3 古律詩 奇尙書宅 賦美人鸚鵡 “粲彼能言鳥, 誇於解語花, 與君來貴宅, 受嬖孰爲多.”

나. 희소성

앵무문이 시문된 고려 청자의 기종은 주로 발, 접시류이며, 이외에 합, 주자류, 매병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병에 앵무문이 음각된 사례는 현재 두 점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어서,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이 매우 희소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12세기에 청자의 문양으로 앵무문이 유행했지만 정병에 시문된 사례는 매우 희소하다는 점에서도 지정 가치가 있다.

다. 조형성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수리되거나 보수된 부분이 없이 보존 상태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유색, 유면 등의 상태가 좋아서 조형적으로 수준이 높다. 현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두 점의 정병보다 39cm로 높이가 크고, 12세기 전반에 제작되는 정병의 형태와 유색, 빙렬이 없는 유면, 앵무문 등에서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동체에 별다른 수리 흔적 없이 원래의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굽 외부와 동체 일부에 황갈색 태질이 약간 드러나는 곳이 있으나 전반적인 유약의 용융 상태는 준수한 편이다. 유물의 표면에 빙렬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특별하게 유약이 뭉쳐 흐른 곳도 드러나지 않는다.

고려청자 앵무문은 고려 12세기 이후 발이나 접시에 주로 장식되는 문양이며, 조사 대상 청자처럼 정병의 문양으로 활용된 사례는 매우 희소하다. 조사 대상 청자를 통해 고려 중기 주로 발과 접시의 문양으로 활용되었던 앵무문이 정병에 장식된 실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제작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해저 출수 앵무문 청자들과 세부 문양 비교를 통해 조사 대상 정병이 주로 12세기에 제작된 앵무문 청자와 유사하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태(釉胎)의 수준이 준수하고, 청자의 유색 또한 맑은 녹청색을 갖추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처럼 앵무문이 음각된 고려청자 정병이 매우 희소하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청자음각앵무문정병>은 제작 당시의 원형을 간직한 고급 청자로, 특히 희소성이 월등히 높아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근거기준>

1.

청자 정병에 앵무문이 장식된 사례는 미국 클리블랜드박물관 소장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정병은 아니지만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리움미술관 소장 보물 제1036호 <청자 상감 앵무문 표형주자>(참고1)이 상감기법으로 앵무문이 표현되었다.

현재까지의 조사로는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 부안 유천리 12호 요지 등에서 음각 기법으로 초화문과 연판문을 장식한 청자 정병의 제작 사례가 확인되었지만, 앵무문은 아직까지 발견된 바 없다. 고려 청자의 앵무문은 주로 발, 접시, 합, 매병 등에 장식되었으며, 이처럼 정병에 음각 기법으로 장식된 경우는 매우 드물어 희소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1. 보물 제1036호, 청자상감앵무문주자, 리움미술관 소장>

2.

1124년에 편찬된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1에는 ‘긴 목에 볼록한 배 모양인데, 곁에는 (물을) 따를 수 있는 주둥이가 하나 있다. 가운데에 두 마디가 있는데, 줄을 맬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한다. 뚜껑의 목 중간에는 턱이 있고, 턱 위에는 다시 작은 목이 있어 잠필의 형상을 띤다. 귀인과 국관, 관사와 민가에서 모두 사용하는데, 물만을 담을 수 있을 뿐이라’라고 고려 정병의 특징과 생활 속 용도를 언급한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12세기 전반 경 고려 정병은 볼록한 배 모양 몸체

에 두 마디로 된 주구가 붙어 있고, 긴 목과 작은 첩대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이런 형태의 물병을 정병(淨瓶)이라고 불렀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 <청자 음각앵무문정병>의 특징이 이 문헌 기록의 내용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어, 그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3.

비교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보물 제344호 <청자 양각 위노문 정병>과 국보 제66호 <청자 상감 연지원앙문 정병>가 있다. 두 점의 문화재는 고려 청자의 최고 전성기인 12~13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목과 첩대가 가늘고 길쭉하여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이다. 특히 국보 제92호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과의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다. 반면에 조사 대상인 청자앵무문정병은 몸과 첩대가 짧아 둔한 느낌은 있지만 양감이 풍만하다는 조형적 차이점이 크게 주목된다. 향후 고려 청자 정병의 변천을 연구하는 데 중요 학술적 자료라 할 수 있다.



<보물 제344호,
청자 양각 위노문 정병,
높이 34.3cm,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제66호,
청자 상감 연지원앙문 정병,
높이 37cm, 간송미술관>



<국보 제92호,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
높이 37.5cm, 국립중앙박물관>

4.

따라서 조사 대상 유물은 앵무문의 양식적 특징, 기형의 비례, 백색 내화토 받침의 제작 수법 등을 종합했을 때 12세기 전반 경 전남 강진, 전북 부안 등에서 왕실과 귀족으로 대상으로 제작한 고급 청자로 판단된다. 12세기 전반 경 청자 매병을 대표하는 유물로 그 학술적 가치가 월등히 높아, 향후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주구(注口)와 뚜껑, 환대(環帶), 첨대(尖臺)로 구성된 정병이다. 몸체는 풍만한 어깨에서 저부로 가면서 점차 좁아지고 굽다리에서 다시 외반하는 안정적인 형태이다. 몸체의 어깨에는 따로 만들어 부착한 주구부가 위치하고, 주구를 덮는 뚜껑이 남아 있다. 물레로 만든 몸체와 경부(頸部) 위쪽에 환대와 첨대를 따로 만들어서 차례로 접합하였다. 환대는 지름 8.5cm로 윗면을 이단으로 깎았으며, 첨대는 6.8cm의 길이로 팔각으로 모깎기를 하였다(도1).



<도1.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전면, 측면, 후면)>

조사 대상 정병의 문양은 가는 음각 선을 사용하여 장식된 운초문(雲草文), 앵무문(鸚鵡文)이다. 운초문은 어깨 윗면에 가는 선을 두르고 초문을 같은 간격으로 다섯 군데에 배치하였다. 앵무문은 정병의 주문양으로 몸체 세 곳에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양으로 음각되어 있다. 앵무를 음각한 선이 거칠게 보이는 것은 성형 후에 태토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각을 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도2).



<도2. 정병의 문양(초문, 앵무문, 앵무문 세부)>

조사 대상 정병은 유면과 유색이 고르며, 투명한 담청록색의 유약이 전면에서 유되어 있다. 유면에 광택이 풍부하고 빙렬은 거의 없어서 유색이 풍부하고 느껴지고 문양이 선명하게 보인다. 유약이 일부 뭉치거나 두껍게 시유된 부분에는 기포가 육안으로 확인된다. 유약은 침대, 몸체, 저부, 주구부 등에 벗겨진 부분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균일하게 시유되었다(도3).



<도3. 정병의 유약이 벗겨진 부분(침대, 몸체, 저부, 주구부)>

정병의 굽은 바닥의 테두리의 제외한 안쪽을 얇게 깎아낸 안굽이며, 접지면의 유약을 훑어내고 회백색의 내화토 빗음을 11군데 받쳐 번조하였다. 몸체 어깨 부분에 부착된 주구에는 뚜껑과 연결되는 원형의 작은 고리가 달려있다. 주구의 뚜껑은 지름 3.2cm의 원형으로 주구와 같은 크기이다. 뚜껑에도 주구와 연결하기 위해 끈을 넣는 원형 고리가 있다. 원래는 금속기처럼 주구의 고리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맞닿는 두 개의 원형 고리였지만 제작단계에서 한쪽을 제거하고 거칠게 다듬은 흔적이 남아 있다. 청자 정병에서 원형의 주구 뚜껑이 남아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문 귀한 사례이다. 뚜껑 안쪽 면에도 백색 내화토 빗음을 5군데에 받치고 번조한 흔적을 볼 수 있다(도4).



<도4. 정병의 굽바닥, 주구부와 뚜껑 바닥>

정병은 파손되거나 수리된 곳이 거의 없는 완벽한 보존 상태를 가지고 있다. 다만 굽바닥의 유면에 미세하게 금이 간 상태이며, 환대의 일부가 파손된 상태이지만 극히 적은 부분이어서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도5).



<도5. 정병의 굽바닥과 주구 뚜껑의 바닥>

○ 내용 및 특징

가. 제작지와 편년추정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정병이라는 특수한 기종으로 제작된 점,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몸체 음각된 앵무새 무늬 등으로 제작지와 편년을 추정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정병과 같이 우수한 품질의 특수 기종 청자가 제작된 요지는 강진 일대로 좁혀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 강진 용운리 10호와 사당리 요지에서 앵무문이 시문된 청자들이 확인되었다. 다만 요지에서 출토된 앵무문 청자는 대부분 발(鉢), 접시의 종류이고 정병, 주자, 매병 등의 기종이 확인된 예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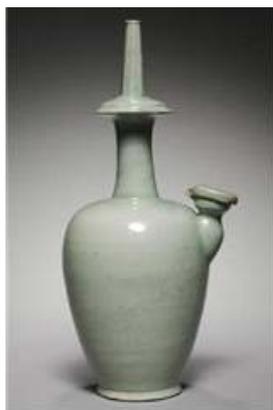
조사 대상 정병의 제작 시기는 앵무문이 청자의 문양으로 사용된 시기에 비정하여 추정할 수 있다. 앵무문은 12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문양 소재로, 12세기 청자의 편년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정병에 음각된 앵무문과 유사한 양식의 앵무문이 강진 용운리요지의 10-II층에서 출토되는 점과 태안 대섬 출수품에서 다량 확인된 점을 근거로 12세기 전반 경으로 비정할 수 있다.⁹⁹⁾

또한 정병의 번조 받침으로 사용된 백색 또는 회백색의 내화토빛음이 사용된 하한도 12세기 중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용도와 유사사례

정병은 범어로 कुण्डिका(Kundika)라고 하며, 음역하여 군지(君持, 軍遲), 군치가(君稚迦)라고 하여 깨끗한 물을 담는 수병(水瓶)으로 불교에서 사용된 기물이다. 고려시대는 금속기, 백자, 청자, 도기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었고, 청자로 제작되는 것은 12세기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1123년에 고려에 왔던 서공은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정병의 형태를 자세히 묘사하고, 고려에서는 귀족과 관원, 도관(道觀), 사원(寺院), 민간에서 모두 사용하고 오직 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정병은 왕실, 귀족부터 민간인까지 여러 계층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도교 사원, 불교 사원, 관청 등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재질과 품질이 다양하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 정병은 청자의 조형성과 품질로 볼 때, 왕실용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제작 수준이 높다.

고려청자에서 앵무문이 많이 시문된 기종은 발, 접시이며, 전세품 중에 합, 호, 주자 등이 있다. 조사 대상 정병과 같은 사례는 매우 희귀하며, 가장 유사한 사례는 미국 클리브랜드미술관에 소장된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이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도6). 조사 대상 정병은 클리브랜드미술관 소장품보다 크기도 크고 앵무문의 조각적인 표현도 더 섬세하고 수준이 높다. 이외에 12세기 고려 청자에 앵무문이 음각된 예는 경기도박물관 소장 <청자 음각 앵무문 표형주자>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음각 앵무모란당초문 매병> 등이 있다(도7,8).



<도6. 청자음각앵무문정병, 고려 12세기, 높이 35.3cm, 클리브랜드미술관>



<도7. 청자음각앵무문표형주자, 고려 12세기, 경기도박물관>



<도8. 청자음각앵무모란당초문 매병, 고려 12세기, 높이 30.3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2926)>

99) 태안 대섬 출수 청자와 함께 출수된 목간에 표기된 간지를 ‘辛亥’ 또는 ‘辛未’로 판독하는데, ‘辛亥’의 경우 1131년과 1191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辛未’는 1151년으로 파악하고 있다. 목간의 간지 외에 출수된 청자의 양식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을 때 대섬 출수 청자는 12세기 전반 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지정사례

현재 조사 대상과 동일 조건으로 정병에 앵무문이 시문된 청자가 지정된 사례는 없다. 문양 소재는 다르지만 간송미술관 소장 <청자 양각 유로문 정병>이 국보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양각 유로문 정병>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도 9,10). 정병은 아니지만 앵무문이 상감된 표형주자가 보물로 지정된 사례가 한 건이 있다(도11). 조사 대상 정병은 보물로 지정된 <청자 양각 유로문 정병>보다 높이가 39cm로 크고, 문양의 공예의장적인 측면에서 미흡하지만 12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앵무문이 시문된 예로 희소성이 있다.



<도9. 청자양각유로문정병, 고려 12세기, 높이 37cm, 간송미술관(국보 제66호)>



<도10. 청자양각유로문정병, 고려 12세기, 높이 34.4cm, 국립중앙박물관(보물 제344호)>



<도11. 청자상감앵무문표형주자, 12세기 후반~13세기 초, 높이 26cm, 삼성미술관 리움(보물 제1036호)>

○ 참고문헌

- 『高麗史』.
-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 이희관, 「泰安 대섬 出水 高麗靑瓷의 製作時期 專論」, 『한국학연구』 6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 임진아, 「태안 대섬 출토 음각앵무문·양각연관문 대접·접시의 특징과 제작시기 고찰」, 『해양문화재』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 최명지, 「泰安 대섬 海底 出水 高麗靑磁의 양상과 제작시기 연구」, 『美術史學研究』 279·280, 한국미술사학회, 2013.
- 국립중앙박물관, 『康津 龍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1997.
-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5.
-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高麗靑磁寶物船-태안 대섬 수중발굴 보고서-』, 2009.

□

○ 현 상

조사 대상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59호)는 높이가 39cm인 정병(淨瓶)이다. 조사 대상 정병은 이단을 이룬 지름 8.5cm의 얇은 환대(環臺) 위에 6.8cm 높이로 솟아오른 첨대(尖臺) 부분과 그 아래 잘록하고 긴 목으로 연결된 동체부(胴體部)로 구성되어 있다. 첨대는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동체의 최대 지름이 자리하는 곳의 한쪽에 주구(注口)가 부착되어 있다. 동체 아래로 이어진 기축선은 완만하게 좁아들어 낮은 단을 이루는 저부로 연결된다(도 1,2).



<도1. 조사 대상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1>



<도2. 조사 대상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2>



<도3. 조사 대상
굽 모습>

조사 대상 정병은 저부가 사선으로 벌어지는 낮은 단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조형 특징은 고려시대 금속제 정병에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청자의 굽은 저면의 테두리를 제외한 안쪽을 얇게 깎아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굽 접지면의 폭은 0.8~1cm 정도이다. 조사 대상 청자는 동체 전체를 시유한 다음 접지면의 유약을 걷어내고 번조되었다. 접지면 여러 곳에 백회색의 내화토빛음을 받쳤던 흔적이 남아있다(도3).

조사 대상 정병의 표면에는 별다른 잡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유색은 담녹색으로 일부 유약이 두껍게 시유된 곳은 녹색이 짙고, 얇게 시유된 곳은 옅은 회색이 감돈다. 유약이 상대적으로 두껍게 시유된 부분에는 미세한 기포가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조사 대상 청자는 시유 상태가 비교적 고른 편이며, 첨대 위쪽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기면에 병렬이 거의 없으므로 문양의 가시성이 높다.



<도4. 조사 대상 앵무문 모습1> <도5. 조사 대상 앵무문 모습2> <도6. 조사 대상 앵무문 모습3>

조사 대상 정병의 동체 중상부 세 곳에 앵무문(鸚鵡文)이 비슷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도4,5,6). 음각으로 장식된 각 앵무문은 대체로 유사한 형태이다. 앵무새는 좌측 하향으로 꼬리 날개를 길게 드리우고 있으며, 양쪽 날개를 활짝 펼친 모양이다. 양쪽 날개의 끝부분에는 깃털이 길게 묘사되어 있다. 앵무문은 동체와 날개 및 꼬리 날개까지 모두 가는 음각선으로 묘사되었다.

조사 대상 정병의 목과 연결되는 어깨 상면에는 한 줄의 음각선으로 문양대를 구획한 다음 그 안쪽 다섯 곳에 초문(草文)을 배치했다. 초문은 중앙에 잎사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단의 잎사귀가 대칭으로 벌어지는 모습이다(도7).

조사 대상 정병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외면이 팔각인 첨대 부분이 유사한 종류의 유물들에 비해 약간 낮은 감이 있고 한쪽으로 약간 기운 모습이다. 환대의 일부에 미세한 결실 흔적을 제외하면, 동체에 특별한 파손 흔적은 없다(도8).



<도7. 조사 대상 보조문양> <도8. 조사 대상 환대 상세> <도9. 조사 대상 뚜껑 내부>

조사 대상 정병의 주구에는 동체 방향으로 원형이 작은 고리가 달려있다. 주구의 지름은 3.2cm이고, 주구 뚜껑의 지름 역시 3.2cm로 주구와 같은 크기이다. 주구 뚜껑은 정병의 동체보다 회색이 다소 짙은 편이며, 별다른 문양이 없다. 뚜껑은 동체 한쪽을 ‘U’자형으로 잘라내고 중앙에 작은 구멍이 있는 두 개의 고리를 달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작 단계에서 고리 한쪽이 사라져서 현재는 고리가 한

개만 달려있다. 뚜껑에는 동체 전체를 유약으로 시유한 다음 뚜껑 안쪽에 백색 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된 흔적이 남아있다(도9).

○ 내용 및 특징

정병은 물을 담는 그릇으로 원래 승려의 지물(持物) 가운데 하나였으나 이후 불전에 맑은 물[清水]를 바치는 용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2세기 고려에서는 정병이 사찰 이외의 장소에서도 사용되었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1123년(인종 1)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사신 서궁(徐兢)이 작성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정병은) 귀인(貴人)과 나라의 관리, 도관과 사찰 및 민가에서 모두 오직 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대목이 있다. 정병은 고려시대 종교적인 목적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된 만큼 금속기, 도자기 등 다양한 재질로 다수 제작되었다(도10,11). 현재 금속으로 제작된 고려시대 정병도 여러 점 남아있으며, 청자 정병 가운데는 금속제 정병의 외형을 충실하게 모방한 사례가 많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정병은 몸체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 대상처럼 일반적인 형태의 정병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상감연당초유문 정병(靑磁 象嵌蓮唐草柳文 淨瓶)>처럼 동체에 주구 없이 작은 구멍을 마련하고 그 아래 어깨 부분에 띠를 두른 형식의 정병도 간혹 확인할 수 있다(도12).



<도10. 청동 은입사포류수금문 정병(국보), 높이 37.5cm, 국립중앙박물관(본관2426)>



<도11. 도기 정병, 높이 35.6cm, 국립중앙박물관(증749)>



<도12. 청자 상감연당초유문 정병, 높이 26.7cm, 국립중앙박물관(동원1220)>

고려시대 청자 정병의 문양을 장식한 기법은 음각, 철화, 상감 등이 대표적이며, 철백화 기법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문양 소재는 포류수금문(蒲柳水禽紋)과 유로

수금문(柳蘆水禽文)을 비롯하여 국화, 연화, 모란 등 여러 화훼(花卉) 소재를 이용한 문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조사 대상처럼 앵무문이 장식된 정병의 사례는 매우 희소하며, 현재 미국 클리브랜드 미술관 소장의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도13). 앵무문은 주로 발과 접시 등에 음각기법으로 장식되지만 상감기법으로 문양이 장식된 <청자 상감앵무문 표형주자> 같은 유물도 남아있으나 사례가 드문 편이다(도14).



<도13.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 높이 35.3cm, 미국 클리브랜드 미술관>



<도14. 청자 상감앵무문 표형주자(보물 제1036호), 높이 26cm, 삼성미술관 리움>

조사 대상 청자의 제작 시기는 앵무문의 세부 묘사 방식과 번조 반침 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사 대상 청자의 앵무문은 동체와 날개 및 꼬리까지 모두 각기 다른 가는 선으로 묘사되었다.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태안 대섬 출수 <청자 음각앵무문 발> 등의 앵무문 청자들은 조사 대상 정병과 마찬가지로 앵무새의 윤곽선과 깃털을 모두 별도로 한 줄씩 음각했다. 또한 조사 대상 정병 어깨에 배치된 초문과 동일한 문양이 대섬 출수 <청자 음각앵무문 발>에도 자리한다(도15). 대섬 출수 청자들은 대체로 조사 대상 정병과 유사한 백색에 가까운 내화토 빛음을 받쳐 번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섬 출수 청자들은 함께 보고된 목간에 묵서된 '辛亥'명을 통해 대체로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⁰⁰⁾

100) 연구자들에 따라 대섬 출수 청자의 제작 시기는 12세기 전반, 중반, 후반 등으로 차이가 있다. 최명지는 '辛亥'명을 1131년으로 파악하였고(「泰安 대섬 海底 出水 高麗靑磁의 양상과 제작시기 연구」, 『美術史學研究』 279·280, 한국미



<도15. 청자 음각앵무문 발, 태안 대섬 출수, <도16. 청자 음각앵무문 발, 태안 마도 1호 출수, 높이 7.9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도16. 청자 음각앵무문 발, 태안 마도 1호 출수, 높이 7.4c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반면 출수된 목간의 간지를 통해 1207년에서 1208년을 하한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되는 마도 1호선 출수의 앵무문 청자들은 대체로 앵무새의 날개 깃털과 꼬리 날개가 포크처럼 생긴 다치구(多齒具)로 조각되어 있다(도16). 해당 앵무문 청자들은 대부분 점토와 모래가 섞인 암갈색의 내화토 빚음을 받쳐 번조한 특징이 나타난다. 마도 1호선 출수 유물들에서는 조사 대상 정병이나 대섬 출수 청자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한다면, 조사 대상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의 제작 시기는 12세기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희관, 「泰安 대섬 出水 高麗靑瓷의 製作時期 專論」, 『한국학연구』 6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 임진아, 「태안 대섬 출토 음각앵무문·양각연관문 대접·접시의 특징과 제작시기 고찰」, 『해양문화재』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 정지훈, 「태안 대섬 출토 고려청자의 특징과 제작시기」,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최명지, 「泰安 대섬 海底 出水 高麗靑磁의 양상과 제작시기 연구」, 『美術史學 硏究』 279·280, 한국미술사학회, 2013.

술사학회, 2013, pp.35~65), 정지훈은 '辛亥'명을 1191년으로 이해하고 대섬 출수 청자의 제작 하한으로 설정하였다 ('태안 대섬 출토 고려청자의 특징과 제작시기',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pp.95~102). 동일한 명문을 '辛未'로 파악한 선행연구는 대섬 출수 청자의 제작시기를 1151년 또는 그 이전으로 이해하고 있다(이희관, 「泰安 대섬 出水 高麗靑瓷의 製作時期 專論」, 『한국학연구』 6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pp.165~201). 그 외 대섬 출수 앵무문 청자에 대한 연구는 대섬 출수 청자가 12세기 전기 혹은 중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구분했다(임진아, 「태안 대섬 출토 음각앵무문·양각연관문 대접·접시의 특징과 제작시기 고찰」, 『해양문화재』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pp.123~178).

□

○ 현 상

<청자음각앵무문정병>은 이종훈이 개인 소장가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흠결과 손상이 없는 12세기 전반 경 고급 청자로 제작 당시의 원형이 현재까지 안전하게 보존되었다. 2020년 2월 13일 서울시유형문화재 제459호로 지정되었다.

○ 내용 및 특징



높이 39cm의 청자 정병이다. 몸체는 어깨가 풍만한 참외형이며 원통형의 긴 목 위로 환대(環臺)와 팔각으로 모깎기 한 첨대(尖臺)가 있다. 몸체의 어깨 부분에 주구(注口)와 뚜껑이 있으며, 굽이 살짝 외반되었다. 가늘고 섬세한 음각선으로 몸체의 어깨 부분에 횡선문대를 따라 5개의 초문(草文)을 새겨 넣었고, 몸체의 가운데에는 앵무새 3마리를 표현했다. 반투명 담청록색 유약이 일부 벗겨졌으나, 전반적으로 유색이 고르고 빙열이 없으며 광택이 풍부하다. 뚜껑의 안쪽에는 내화토빛음을 받쳐 구웠던 자국이 있다. 굽 접지면에는 번조 수법 흔적이 명확치 않으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빛음을 받쳐 구운 것으로 추정된다. 굽 안바닥 유면의 기다란 균열을 제외하면 손상, 수리, 파손된 곳이 없다. 이 정병은 제작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조사 대상의 특징>



<1. 굽 접지면과 유면의 균열>



<2. 뚜껑의 내화토 받침>



<3. 앵무문>



<4. 앵무문>



<5. 앵무문>



<6. 초화문>



<7. 외반된 굽다리>



<8. 침대의 모깍기>



<9. 침대>

13.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 (慶州 金鈴塚 出土 金製 鎡帶)

가. 검토사항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13.8.9.)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5.4.)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7.7.11.)를 실시하고 2019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19.12.12.)에서 검토하였으나,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와 비교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었음
- 비교조사 대상인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23.6.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 재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慶州 金鈴塚 出土 金製 鎡帶)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길이 74.1cm, 너비 43.8cm
- 재 질 : 금
- 조성연대 : 신라시대(5세기 말~6세기 초)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

라. 1차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금관총이나 황남대총, 천마총 출토 금제 허리띠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요패는 규범대로 13줄로 구성되었으며 대소 타원형 수식(垂飾)과 곡옥, 연필형 수식만 달아서 간략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곡옥과 연필형 수식에 장식된 금모나 그 위에 입혀진 보석 같은 난집칠보기법은 매우 화려하고 정교한 편이다.

국보로 지정된 다른 허리띠에서는 볼 수 없는 연필형 수식이 특징인 이 금제 허리띠는 출토지가 명확하고, 과대의 기원과 구성을 고찰할 수 있으며, 신라 고분 금속공예품으로의 조형적, 기법적 우수성, 자료적 가치는 물론 고분의 규모로 볼 때 금관과 더불어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이미 국보로 지정된 금관에 걸맞게 허리띠 역시 국보로 지정,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백제 무령왕릉 출토품들 중 왕과 왕비의 관식,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이 모두 각각의 국보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 (지정 가치 있음)

금령총 금허리띠는 신라의 최상층이 사용한 허리띠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면서도 다른 유물과 비교되는 고유한 특징도 지니고 있다. 먼저, 허리띠 전체 길이와 드리개의 크기는 고분의 주인공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드리개의 종류와 장식에서도 주목할 점이 많았다. 수정과 백옥, 유리 등으로 구성된 곡옥의 수량이 네 점에 이르며, 유리제 곡옥은 쌍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곡옥의 모자 부분은 난집을 두르고 유리를 채워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러한 장식은 두 점의 연필형 장식에서도 발견되었다. 연필형 장식은 다른 허리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드리개로, 특별한 상징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쌍으로 구성된 유리제 모자곡옥, 두 줄의 연필형 장식, 두 점의 금방울 등 구성과 세부 장식에서 공통되는 특징이 관찰된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향후 금령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허리띠 가운데, 금관총 유물은 국보 제88호, 천마총은 국보 제190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황남대총 북분과 남분의 금제 허리띠는 국보 제192호와 보물 제629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과 금관총 금허리띠의 위상을 고려하면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지정된 허리띠의 경우, 모두 ‘금제 허리띠’로 명명되었기 때문에 전례를 따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반면, 현재 박물관에서는 대부분 ‘금허리띠’로 부르고, 재료에 ‘製’를 붙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 (보류)

1.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출토지가 분명한 문화재로 지금까지 발견된 5점의 신라 금제 허리띠와 비교하면 나이 어린 피장자의 시체에 맞게 크기가 축소 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간략화 된 요패장식과 과판의 양식변화를 통해 신라 금제 허리띠의 전개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이다.
2.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희소성이 높은 금제 장신구로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특히 원뿔형 드리개는 신라 금제 허리띠에는 초유의 사례이며, 과판에 달렸던 곡옥의 금모장식은 신라 장식기법 가운데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평가되어 예술적 가치 또한 우수한 문화재이다.
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문화재적 가치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점의 과판이 유물과 분리된 채 따로 보관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원형이 완전하지 않으며, 특히 요패와 원뿔형 드리개, 곡옥의 위치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4.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 금제 허리띠의 문화재 지정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국

보 3점, 보물 1점이고 서봉총과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비지정 상태이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금령총과 서봉총 금제 허리띠와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예술적 가치와 완전성이 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금령총 금제 허리띠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서봉총 금제 허리띠 문화재 지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있다.

연번	문화재명	지정유무	지정일자
1	금관총 금제 허리띠	국보 제88호	1962.12.20.
2	천마총 금제 허리띠	국보 제190호	1978.12.07.
3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국보 제192호	1978.12.07.
4	황남대총 남분 금제 허리띠	보물 제629호	1978.12.07.
5	서봉총 금제 허리띠	비지정	
6	금령총 금제 허리띠	비지정	

5. 결론적으로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학술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형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한편, 금령총 금제 허리띠에 비해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서봉총 금제 허리띠가 비지정 상태이므로 지정을 보류하고, 서봉총 금제 허리띠와 함께 재논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2차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경주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보류의 사유로 지적이 됐던 경주 서봉총 금제 허리띠를 조사한 결과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금령총 금제 허리띠에 비해 보존 상태나 장식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나이가 어린 피장자의 신체에 맞게 크기가 축소 제작되었다는 특징과 더불어 간략화 된 요패장식과 과판문양은 신라 금제 허리띠의 양식변화를 반영하여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평가된다. 또한 금실이 감긴 원뿔형 드리개장식은 신라 금제 허리띠 중에는 초유의 사례이며, 과판에 달렸던 곡옥의 금모장식은 신라 장식기법 가운데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평가되어 예술적 가치 또한 우수한 문화재이다. 따라서 경주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의 예술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탁월한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264번지에 있는 금령총(金鈴塚)은 1924년에 일본인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에 의해 식리총(飾履塚)과 함께 발굴된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이다. 금제 허리띠는 길이 74.1cm, 너비 4.3cm의 작은 규모로 길이 1.5m×폭 0.6m의 목관 내에서 피장자가 착용한 상태로 출토되었다.(도1,3) 동반출토 유물로는 보물 제338호인 금관, 경식(頸飾), 금방울, 금귀걸이, 금반지, 금제수식, 금제팔찌, 수정목걸이, 삼환형 환두대도(三環形環頭大刀), 유리잔, 국보 제91호인 기마인물형토기 등 신라 고분공예품을 대표할 만한 유물들이 있다. 그중 곡옥이 달리지 않은 중첩4산형 금관은 높이 27cm, 지름 15cm로 천마총 출토 금관과 비교하면 크기가 작고 곡옥의 유무만 다를 뿐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어 피장자가 나이 어린 왕족으로 추정되고 있다.(도2) 또한 금제 장신구들에는 다른 고분 금속공예품에 비해 월등하게 청색유리가 감장(嵌裝)되어 있어 삼국시대 칠보기법(七寶技法)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도1. 금제 허리띠, 길이 74.1cm, 너비 4.3cm, 금령총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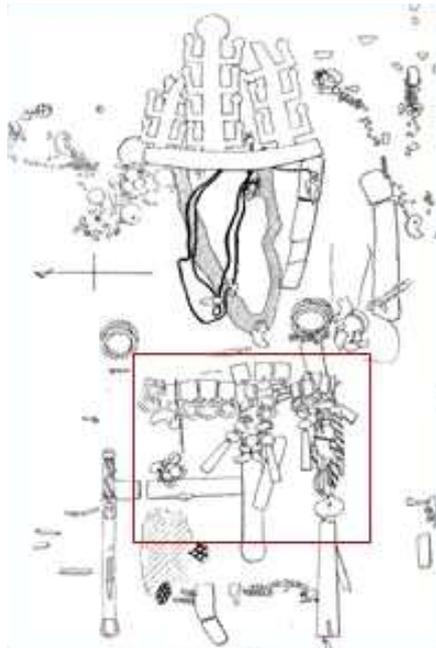
금관, 높이 27cm, 지름 15cm
보물 제338호(1963.1.21.지정)



금방울(좌), 지름 1.4cm, 본관9689
금드리개(우), 지름 2.8cm, 본관9687



금반지, 지름 1.5cm, 본관9686
<도2. 동반 출토 유물>



<도3. 금제과대 출토 상황(『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도23)>

이 금령총은 최근 90년 만에 재발굴을 시작하여 2019년에 높이 56cm인 말 모양 토기가 출토되어 고분의 규모 및 성격이 재평가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허리띠(鎊帶)는 과판(鎊板)과 교구(鉸具), 요패(腰佩)로 구성되며, 수식(垂飾)으로는 곡옥, 소도(粧刀), 부싯돌, 송곳, 숫돌, 물고기, 침통 등이 달린다. 그 근원은 『예

기(禮記)』에 자식이 부모를 봉양할 때 칼, 부식돌, 송곳, 바늘 등 일상용품을 차고 다녀야 한다는 내용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예기(禮記)』, 「內則 第十二」, “子事父母, 雞初鳴, 咸盥, 漱, 櫛, 緝, 笄總, 拂髦, 冠, 綏, 纓, 端, 鞞, 紳, 撝笏, 左右佩用. 左佩紛帨, 刀, 礪, 小觿, 金燧. 右佩玦, 捍, 管, 遘, 大觿, 木燧, 偁, 屨著綦.”). 요패에 관해서는 당대에 ‘어대금점첩칠사(魚袋及鞞鞞七事)’를 문무관의 패물로 정하였는데 칠사는 긴칼, 단검, 숫돌, 환약, 송곳, 침통, 부식돌 등이다(『唐書』, 「輿服志」, “七事謂 佩刀, 刀子, 礪石, 契苾真, 噦厥, 針筒, 火石袋等也.”). 이렇게 허리띠에 요패를 다는 것은 본래 기마 유목민들의 풍속이었던 것이 중국으로 유입, 과대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분에서도 금제, 은제로 출토되고 있다.

금령총 허리띠는 4.3cm 크기의 과관 23장과 인동문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6개의 큰 타원형 수식으로 연결된 큰 요패 1개, 이보다 작은 3개의 타원형으로 연결된 요패 6개, 연필형 수식 2개, 곡옥 4개인 총 13줄로 구성된 것이다.(도 4, 5)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금관총, 천마총, 황남대총에서 출토한 금제 허리띠와 비교해 보면 황남대총 허리띠에 비해 간략하고 천마총 허리띠에 비해서는 50cm 정도 작다. 이는 작은 목관(木棺: 내면에 투조금동관 장식)과 금관이 말해주듯이 피장자가 어리기 때문이다. 금관총 허리띠의 요패만 17개이고 금령총, 천마총, 황남대총의 허리띠 요패는 모두 13개인 점은 신분상의 규정일 것이다.[표1 참조] 후대의 기록이지만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 「사물기원(事物紀原)」조에 요패의 기원 및 내용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 당 고조 상원원년(674)에 3품부터 서민의 등급에 따라 금, 은, 옥, 물소뿔 등 재료와 13과(줄)부터 6과까지 수식 수의 제한을 두었다. 또한 몽계필담(夢溪筆談)에 북제 때부터 호북의 첩섭(鞞鞞)을 수용, 낭도(주머니 칼)나 숫돌 등을 달았고 천자는 반드시 13환을 쓴다고 했다.¹⁰¹⁾



<도4. 연필형 수식>



<도5. 곡옥, 길이 3cm>

101) 『欽定四庫全書』, 「事物紀原」卷3, 〈腰帶〉, “實錄曰. 自古皆有革帶及挿垂頭至秦二世始名腰帶. 唐高祖令向下挿垂頭取順下之義名金宅尾. 上元元年自三品官至庶人各有等制以金玉犀銀鍍石銅鐵爲飾. 自十三銖至六銖. 筆談曰. 自北齊全用胡服鞞革變所垂蓋欲以佩帶弓劍巾分帨笄囊刀礪之類. 後去鞞革變猶存其環所銜以鞞革變如馬鞞根即今帶銖也. 天子必以十三環爲節. 唐開元之後帶鉤尙穿帶本爲孔. 本朝加順折也.”

<표1. 금제 허리띠의 구성 비교>

문화재명	크기	구성	문화재 지정
금관총 금제 허리띠	길이 109cm 요패 54.4cm	-과관 39장, 요패 17개 -곡옥, 장도, 숫돌, 부싯돌, 침통	국보 제88호 (1962.12.20.)
천마총 금제 허리띠	길이 125cm 요패 73.5cm	-과관 44장, 요패 13개 -곡옥, 부싯돌, 물고기	국보 제190호 (1978.12.07.)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길이 120cm 요패 77.5cm	-과관 28장, 요패 13개 -곡옥, 장도, 물고기	국보 제192호 (1978.12.07.)
금령총 금제 허리띠	길이 74.1cm 요패 43.8cm	-과관 23장, 요패 13개 -곡옥, 연필형	비지정

금령총 허리띠는 금관을 사각형으로 절금(切金)하여 네 모서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작은 못으로 직물에 고정시켰고, 내면의 투조한 부분에 끈사로 영락을 달았다. 그 아래에 경첩으로 인동문을 연결했는데, 인동문은 윤곽은 살짝 접어서 사면(斜面)지게 만들었고 교구는 유자형(ㄷ꼴)과 장사각형 판으로 구성되었다.(도6,7) 이 허리띠는 비록 규모가 작아도 연필형 수식과 곡옥에 장식된 관모가 화려하고 섬세한 점이 특징이다. 연필형 수식은 목재를 긴 원추 형태로 다듬어서 위에는 금제관모를 씌웠고 중간에는 2줄의 새김눈(刻目) 금선을 나선형으로 돌렸으며 아래에는 금관으로 감쌌다. 이렇게 금선을 감은 수법은 동반출토한 3점의 소도(小刀)에서도 확인된다. 이 수식은 아마도 『예기』에서 말한 뿔송곳(小觶, 大觶), 당대 문무관의 7사 중 해궐 즉 추(錐)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연필형 수식과 곡옥에 씌워진 관모에는 굵은 금선에 조각정을 써서 [|||||]꼴로 일정한 홈을 낸 각목선(刻目線)이 윤곽이나 청색 유리의 난집으로 장식되었는데, 선을 세워서 원형 난집을 만든거나 선을 눕혀서 물방울형 난집을 만든 것이다.(도8,9) 이런 수법은 누금세공 기법의 효과를 낸 것으로 경주 노서동 금제귀걸이나 양산 금조총 금제귀갑문태환 이식에도 보이는 세공기법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청색유리를 보석처럼 감장한 고대 칠보기법의 전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도6. 과대 앞면>



<도7. 과대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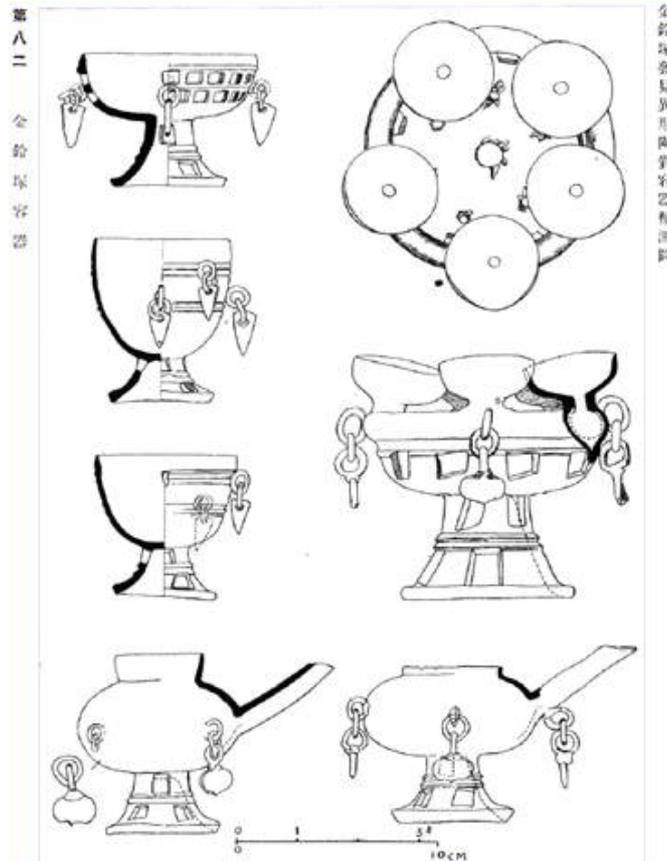
<도8. 曲玉金帽 난집(세운 선)>



<도9. 曲玉金帽 난집(높힌 선)>

이 허리띠는 금판을 사각, 작은 원형, 대소 타원으로 절금 후 경첩으로 성형하고 끈사로 영락 달기, 각목선 장식, 칠보기법 같은 전형적인 고분금속공예품의 정수를 보여준다. 제작년대는 금관, 환두대도, 경식, 금제 장신구, 토기, 칠기 등 동반출토 유물의 규모 및 유형, 제작기법, 자료적 가치의 우수함을 볼 때 천마총 출토품들과 매우 흡사해서 5세기 말~6세기 초로 생각된다. 또한 등잔이나 완, 고배, 토기들도 영락이 달린 것들이 있어서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 김원룡 선생의 신라 토기 양식적 분류에 의하면 3기의 특징과 부합된다.¹⁰²⁾ [참고자료]

102) 김원룡선생은 신라토기를 양식적으로 1기(250년~350년), 2기(350년~450년), 3기(450년~550년), 4기(550년~650년)로 분류하였고, 3기의 특징을 영락이 달린 것으로 보았다.



<참고자료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도82>

○ 참고문헌

- 朝鮮總督府,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1932.
- 文永熙, 「三國時代 銙帶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盧仁姬, 「三國時代 帶金具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 현 상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금허리띠로, 길이 74.1cm, 너비 4.3cm이다. 버클에 해당하는 띠고리[鉸具], 띠꾸미개[銙板], 띠끝꾸미개[帶端金具], 드리개[腰佩]로 구성된다(도1). 얇은 금판을 도려내 만든 띠꾸미개는 모두 23매이고 추가로 2매가 확인되어 복원중이다. 드리개는 13줄로, 여러 개의 금판을 이어서 만든 7줄과 곡옥 4줄, 연필 모양 장식 2줄로 구분된다.



<도1. 금령총 금허리띠>



<도2. 금령총 금허리띠 일괄>

띠고리는 단순한 방형이고 연결할 때 사용하는 핀은 결실되었다. 띠꾸미개도 간략한 인동문이 장식되었고 아래에 연결된 심엽형 장식도 하트 모양과 그 안의 두 개의 원문이 있는 단순한 모양이다. 띠꾸미개에는 달개가 장식되어 있다. 하나의 금판에 2개, 3개 혹은 4개씩 달려, 일정한 규칙성은 보이지 않는다. 드리개 중에서 가장 크고 긴 것에도 금판을 연결하고 달개를 매달아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상단의 연결 부위도 세심하게 마무리했다. 6줄의 드리개는 비슷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었다. 타원형과 방형 금판을 번갈아 연결하였으며, 아래에는 좁고 긴 사다리꼴 모양의 금판을 달아 마무리했다.

곡옥은 모두 4점이며, 백옥과 수정, 그리고 유리로 추정된다(도2). 모두 모자곡옥의 형태로 만들었다. 수정곡옥만 모자부분에 부식된 고리와 같은 흔적이 있는데, 은으로 추정된다. 백옥 모자에는 원형 난집을 만들고 유리를 감입하였다. 장식이 뚜렷하고 현존 상태도 양호하다. 유리로 만든 곡옥은 2점이 묶인 채로 있다. 모자 부분에 물방울 모양의 난집을 만들고 유리를 감입하였다. 세부는 백옥에 비해, 정교하지 않다. 연결 고리처럼 보이는 끝부분에도 유리가 채워져 있어, 어느 부분에 고리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연필형 장식 2줄은 가운데 부분이 복원된 모습이고 윗부분 끝에 고리가 있다. 고리 바로 아래는 원형 난집에 유리를 채웠고 그 아래에는 물방울 모양의 난집을 만들었다. 이러한 드리개의 형태는 독특하고 다른 허리띠에도 보이지 않는 장식물이다. 허리띠의 각 부분을 연결하는 고리나 못의 일부는 결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허리띠의 전형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체로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금령총 금허리띠는 띠고리, 띠꾸미개, 띠끝꾸미개, 드리개로 구성되어, 전형적인 신라 허리띠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현재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허리띠는 황남대총 북분과 남분,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 등이며, 금령총을 포함하여, 6점이 알려

져 있다. 모두 허리에 착용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황남대총 북분과 서봉총, 천마총 등의 금허리띠 길이가 120cm 전후이고 황남대총 남분과 금관총도 100cm 전후로 확인된다. 금령총 허리띠는 74.1cm로 길이가 비교적 짧아, 기존에 15세를 전후하는 왕실 인물의 무덤으로 추정되어 왔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인이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재질의 허리띠를 사용한다고 전하며, 재료는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다고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고분 출토품은 유기물이 부식되고 표면에 부착된 금속 재질만 남아 있다. 금제 허리띠는 최상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다. 금제 허리띠가 발견되는 고분에서는 금관이 동반 출토 되어,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허리띠의 드리개는 곡옥, 물고기, 향낭, 약통, 족집게, 손칼, 숫돌 등으로 추정되는 장식이 확인된다. 모두 권능과 권위, 생명 등에 관련된 장식으로, 착용자의 위상을 가늠하게 한다.

금령총 금허리띠는 다른 출토품에 비해 길이가 작는데, 드리개의 길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금허리띠의 드리개 중에는 가장 길고 화려한 한 줄의 드리개가 매달려 있다. 황남대총 남분 출토 금허리띠의 긴 드리개는 79.5cm이고 다른 유물도 70cm가 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금령총의 드리개는 43.8cm로 짧게 확인된다. 허리띠를 착용했을 때의 모습을 고려하면, 착용자의 키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분의 주인공에 대한 단서가 된다.

금령총 금허리띠는 장식에서도 다른 유물과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먼저 세부 장식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띠꾸미개 아래에 연결된 심엽형 장식은 하트 모양 안에 두 개의 원을 만든 구성이다(도3). 다른 금허리띠는 꽃잎 모양처럼 곡선으로 장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도4). 금령총 허리띠는 오히려 간결하고 깔끔한 인상을 준다. 또한 띠고리도 꾸밈없이 방형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특징이 황남대총 남분의 금허리띠에도 보이지만 대부분 곡선으로 장식이 있는 모양이다.



<도3. 금령총 금허리띠 세부>



<도4. 금관총 금허리띠 세부>

반면 드리개의 곡옥 장식은 특별하다. 금허리띠에 4점의 곡옥이 있는 드리개는 유일하다. 서봉총 금허리띠는 1점만 발견되었고, 많은 경우에도 황남대총 남분 허리띠처럼 3점이 달려 있다. 뿐만 아니라, 곡옥의 모자 부분에 난집을 두르고 유리를 채워 넣어 장식한 점도 관심을 끈다(도5). 난집을 이루는 테두리 선도 단순하지 않고 일정하게 늘려서 가다듬었다. 좀 더 정성을 기울인 표현이고 마치 누금세공의 알갱이를 연결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다른 금허리띠의 모자곡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색이다. 금령총 금관에는 다른 금관에 모두 장식된 곡옥이 보이지 않아,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고분의 주인이 자손을 얻지 못한 어린 나이일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허리띠에 많이 보이는 곡옥과 화려한 장식을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금령총 금허리띠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독특한 드리개 장식이다. 두 줄의 연필형 장식 드리개는 비교할 만한 다른 유물을 찾기 어렵다(도5,6). 끝이 뾰족하고 가운데 몸체에는 금은선이 나선으로 감겨 있다. 몸체는 복원된 모습이고 내부는 유기물로 추정되는 재질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윗부분은 유리제 모자곡옥의 모양이나 세부 장식과 비슷하다. 금으로 만든 모자를 싹뿔고 표면에는 원형과 물방울 모양의 난집을 만들어 유리를 채워 넣었다. 흔히 연필형 장식으로 부르는 바와 같이, 끝이 뾰족해서 도필(刀筆)이 연상된다. 도필은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대나무에 문자를 새기는 데에 사용하던 칼이다. 그렇지만 몸체가 단단하지 않아, 그러한 추정에도 한계는 있다. 주술적인 내용인 담긴 유물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유리제 모자곡옥과 연필형 장식을 연계하여, 상징 의미를 해석할 필요도 있다. 유리로 만든 모자곡옥과 세부 장식이 유사한 점, 그리고 모두 한 쌍으로 구성된 점에서 유사하다. 이는 함께 출토된 금방울[金鈴]의 구성과 세부 장식과도 연결되어(도7),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5. 금령총 금허리띠 세부>



<도6. 금령총 연필형 장식>



<도7. 금령총 금방울>

○ 출토 및 소장 경위

금령총은 경주시 노동동 고분군에 위치한 적석목곽분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20여 일 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다. 당시 금관(보물 제338호)과 기마인물형도기(국보 제91호), 금령 등과 함께 금허리띠가 발견되었다. 금허리띠는 허리에 착용된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다른 허리띠는 머리쪽 부장물이 있는 부분, 석단, 목곽 상부, 목곽 하부 등에서도 확인되었다. 소유자의 위세가 높을수록 여러 점의 허리띠가 부장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금허리띠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금령총 발굴은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고 부장품이 많은 중심부 일부만을 조사하여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출토 유물을 선별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지난 2018년부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보고서를 통해 금령총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현 상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는 원래 가죽이나 천과 결합된 허리띠였으나 오랜 시간을 거치며 유기물은 삭아 없어지고 현재 금제 장식만 남아있다. 금제 허리띠는 가죽에 부착됐던 과판과 과판에 달리는 장식인 요패, 곡옥, 원뿔형 드리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삼엽문이 투각된 사각형 금판에 심엽형 투각장식이 달린 과판은 현재 23매로 복원되었지만 2매의 과판이 박물관에 따로 보관되어 있어 원래 25매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판의 네 모서리에는 가죽에 연결하기 위한 못구멍이 뚫려있다. 일부는 금제 못이 남아있으나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다. 각각의 과판에는 금실을 꼬아서 연결한 영락을 2~4개씩 불규칙하게 장식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한 결과 과판의 배열순서가 서로 달라 출토이후 과판의 순서는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과판의 양끝에 허리띠를 고정하는 금제 교구와 띠끝장식(帶端金具)을 배치하였다. 띠끝장식의 형태는 양쪽 가장자리를 둥글게 처리한 판형으로 뒷면에 짧은 금판을 덧대고 허리띠에 연결했던 3개의 못이 남아있다. 교구는 고리만 남아있고 걸쇠 부속은 분리되어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요패는 대형요패 1점과 소형요패 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형요패는 오목한 형태의 타원형 장식과 작은 타원형 금판을 교대로 연결하고, 끝장식은 밑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넓어지는 길쭉한 사다리꼴의 금판으로 마감하였다. 대형요패에는 영락장식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를 비롯하여 이후에 제작되는 신라 금제 허리띠와 공통점을 보인다. 소형요패는 타원형 금판과 소형 방형금판을 번갈아가며 연결하고, 끝장식은 길쭉한 사다리꼴의 금판으로 마감하였다. 표면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고, 6점 모두 크기와 형태가 동일하다.

요패와 더불어 허리띠를 장식했던 유물로는 수정, 유리, 옥 등으로 제작된 4점의 곡옥과 한 쌍의 원뿔형 드리개가 있다. 곡옥은 모두 금모를 씌워 장식되었으며, 그 가운데 청색유리로 제작된 곡옥 2점은 한 쌍을 이루도록 금실로 묶여있다. 4점의 곡옥에는 모두 매달 수 있도록 고리가 마련되어 있다. 각목을 새긴 2줄의 금실이 감긴 원뿔형 드리개는 현재 합성수지로 복원된 상태이다. 상부에는 금모를 씌워 장식했으며, 하단 끝에는 원뿔형 금제장식으로 마감했다. 출토당시 2줄의 금실 내에는 부식된 목재가 남아 있었다.

○ 내용 및 특징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구성과 형태는 지금까지 발견된 5점의 신라 적석목곽분 출

토 금제 허리띠와 대체로 유사하다. 나머지 5점의 신라 금제 허리띠와 비교했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독 길이가 짧다는 것이다. 5점의 금제 허리띠의 길이가 110~125cm인 것에 비해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길이는 74.1cm이고, 과판의 수도 25매로 가장 적다. 이러한 원인은 함께 출토된 금관의 크기 분석을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금령총의 피장자는 15세 미만의 어린이로 피장자의 신체 크기에 맞춘 결과로 판단된다.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또 다른 특징은 요패장식이 단순하고 간략하게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황남대총 남분 금제 허리띠를 비롯한 5점의 신라 금제 허리띠의 요패 끝에 곡옥, 향낭, 손칼, 숫돌, 족집게 등의 기물을 본뜬 장식이 부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요패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고, 별도로 허리띠에 부착했던 기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과 더불어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신라 금제 허리띠의 전개과정을 보여준다. 신라 금제 허리띠는 가장 이른 사례로 알려진 황남대총 남분 금제 허리띠 이후 과판의 중심문양은 투각 삼엽문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금령총 금제 허리띠 과판의 삼엽문은 중심엽이 직선으로 변화했으며, 좌우엽은 원공을 뚫는 방식으로 형식화 되었다. 그리고 이전 시기 금제 허리띠의 과판에는 가죽에 연결하는 못구멍이 공통적으로 9개인 것에 비해 금령총 금제 허리띠의 경우 5개만 구멍을 뚫어 못으로 고정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위치에는 못머리 형태로 금판을 타출시켜 시각적으로 못이 박힌 것처럼 보이도록 변화하였다.

요패와 별도로 허리띠에 부착됐던 한 쌍의 원뿔형 드리개는 신라 금제 허리띠 중에는 유일한 사례이다. 그리고 3점의 곡옥에 썩은 금모의 누금된 금태에 유리를 감입하는 방식은 신라 장식기법 가운데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평가된다.

○ 소장 경위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일제강점기인 1924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실시한 금령총 발굴 당시 목관 안에서 피장자가 패용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소장되었다가 1945년 현 소장처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14.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 (慶州 瑞鳳塚 出土 金製 鈔帶)

가. 검토사항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9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19.12.12.)에서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에 대한 비교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 조사('23.6.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慶州 瑞鳳塚 出土 金製 鈔帶)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길이 120.0cm
- 재 질 : 금
- 조성연대 : 신라시대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가치>

보물로의 지정 가치가 있음.

<근거 기준>

이 문화재는 금관과 더불어 ‘황금의 나라’ 신라를 상징하는 대표적 유물이다. 그간 5~6세기 신라 고분에서 5점의 금관과 6점의 금제 허리띠가 출토된 바 있다. 금관과 금제 허리띠의 소유자는 신라 왕과 그의 직계 가족으로 보이며, 이 유물들은 당대 최고의 장인이 시대 미감을 반영하여 만든 수준 높은 걸작이다.

금제 허리띠의 경우 신라 황금문화의 전성기에 제작된 것이며 주변국 금속 허리띠와 구별되는 신라적인 특징을 갖추었는데, 특히 요패에는 상징성이 강한 다양한 장식물이 매달려 있다.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의 경우 신라의 금제 허리띠 가운데 전형적 사례이며 장식성이 강한 원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심미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문화재청에서는 신라 금제 허리띠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이미 6점의 금제 허리띠 가운데 금관총, 천마총, 황남대총 북분 출토품은 국보로,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은 보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보다 화려한 편이고 국보인 금관총 출토품에도 견줄 수 있는 바,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금제 허리띠 현황표>

유구명	문양	각부 수량				착장 여부	착장유물 동반관계		
		교구	과관	요패	대단금구		금관	금동관	대도
황남대총 남분	삼엽문	2	34	7	1	착장	×	○	○
황남대총 북분	삼엽문	1	28	13	1	착장	○	×	×
금관총	삼엽문	1	40	17	1	착장	○	×	○
서봉총	삼엽문	1	34	8	1	착장	○	×	×
금령총	삼엽문	1	23	12	1	착장	○	×	○
천마총	삼엽문	1	44	13	1	착장	○	×	○

○ (지정 가치 있음)

1926년에 발굴 조사를 통해 출토된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그동안 금관총이나 황남대총 북분과 남분, 천마총 및 금령총에서 출토된 5점의 금제 허리띠와 마찬가지로 발굴 조사에 의해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에 해당되는 신라의 적석목곽분에서 금관 등 최상층 지배계층이 사용하는 다종다양한 유물과 함께 공반 출토된 유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금관총, 천마총 및 금령총과 마찬가지로 신라 최상층의 계층에서 사용한 금제 허리띠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나머지 고분에서 출토된 금허리띠와 비슷하게 104.5cm 정도의 길이에 요패의 길이도 85.3cm이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과관은 34개로 천마총의 44개보다 작고 황남대총 북분의 28개보다 많아 다른 고분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다르다. 드리개의 숫자는 금관총이 17개, 나머지의 것들이 13개인데 비해 10개로 적은 편이다. 드리개의 종류에 있어 금관총을 비롯한 나머지 무덤에서 발견되는 곡옥, 장도, 숫돌, 부싯돌, 침통 등이 발견되어 전형적인 신라의 금제 허리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처럼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발굴조사에 의해 출토지가 명확하고 적석목곽분에 의해 5세기 말 6세기 초에 최상위층의 여성이 착용한 것이 분명하며, 기왕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황남대총 북분이나 금관총 및 천마총의 금제 허리띠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가치나 학술적 가치 및 신라 고분금속 공예품으로 조형적 예술

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1. 경주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출토지가 분명한 문화재로 지금까지 발견된 5점의 신라 금제 허리띠와 비교하면 황남대총 북분의 금제 허리띠와 더불어 여성 피장자가 착용했던 허리띠라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장식성이 강한 투각 요패장식과 과판의 양식변화를 통해 신라 금제 허리띠의 전개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이다.
2.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희소성이 강한 금제 장신구로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특히 제작시기를 달리하는 유리나 옥 등의 재질을 혼용하는 여타 신라의 금제 허리띠와 달리 대부분 금제장식으로 구성하여 제작 당시 허리띠 고유의 의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예술적 가치 또한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된다.
3. 결론적으로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신라 최상위 계층이 사용했던 허리띠의 전형을 보여주는 문화재로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탁월한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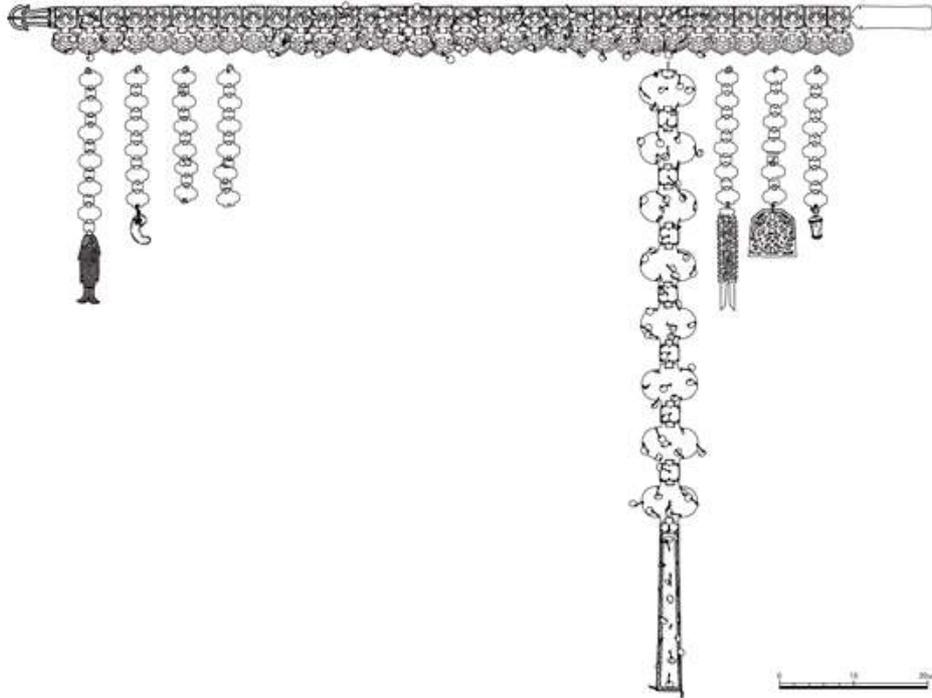
순도 높은 순금제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현재 국립청주박물관 상설전시실 내 4면 유리장에 세로로 펼쳐진 모습으로 전시 중에 있다.

○ 내용 및 특징

서봉총(북분) 주인공의 허리 부위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이다. 교구(띠고리) 1개, 과판(띠꾸미개) 34개, 대단금구(띠끝장식) 1개, 요패 7개(줄)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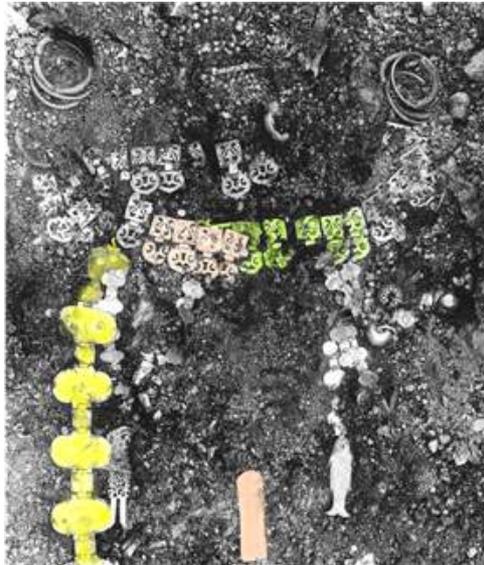
교구는 황남대총 북분 이래 신라 금제 허리띠의 전형적 형식을 따른 것으로, 왼쪽이 횡치한 삼엽형이며 전체적으로는 좌원우제형(左圓右梯形)에 가깝다.

과판은 띠에 부착하는 방형판과 그 아래에 걸리는 삼엽형 장식으로 구성된다.



<도1.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 실측 도면>

신라의 전형적 삼엽문 투조 과판이다. 문양의 형태는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천마총 출토품과 다소 다르다. 과판에는 둥근 영락이 많이 달려 있다. 대단금구는 횡으로 길쭉하며 띠연결부에 3개의 고정용 못이 박혀 있다. 발굴 당시 대단금구는 여타 금제 허리띠의 경우처럼 무덤 주인공 가랑이 아래쪽으로 현수된 모습으로 출토되었다.



<도2. 서봉총 금제 허리띠 출토 모습 세부>

요패 가운데 큰 것은 옆으로 길쭉한 타원형판과 방형판이 교대로 연결되었는데 끝에 길쭉한 홀[圭] 모양 장식이 달려 있다. 작은 것도 형태는 비슷하다. 끝에는 금으로 만든 곡옥과 물고기 모양 장식, 대칭구조의 용문 투조 장식, 속빈 추 모양 장식 등이 매달려 있다.

○ 지정사례

그간 신라 고분 출토 금제 허리띠 6식 가운데 3식이 국보, 1식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비지정 금제 허리띠로는 서봉총과 금령총 출토품이 있다.

지정구분	지정일	문화재명 및 수량
국보	1962.12.20.	금관총 금제 허리띠 1식
국보	1978.12.7.	천마총 금제 허리띠 1식
국보	1978.12.7.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1식
보물	1978.12.7.	황남대총 남분 금제 허리띠 1식

○ 참고문헌

- 穴澤和光·馬目順一, 「慶州瑞鳳塚の調査」, 『석심 정영화교수 정년퇴임기념 천마고고학논총』, 논총간행회, 2007.
- 국립중앙박물관, 『경주 서봉총 I (유물편)』, 2014.
- 국립중앙박물관, 『경주 서봉총 II (재발굴 보고)』, 2020.

○ 기 타

- 1926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발굴하였으며 광복 후 국립박물관(후에 국립중앙 박물관으로 개칭)이 관리해 오고 있다.
- 유물번호는 본관14321(허리띠 본체), 본관14322(요패)이다.
- 2022년 국립청주박물관으로 임시 이관되어 현재 상설전시 중에 있다.

□

○ 출토 현황

서봉총(瑞鳳塚)은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05-1번지에 위치한 고분 중 하나이다. 이곳에 위치한 고분군(128-141호분)에는 14기의 무덤이 지표에 드러나 있었고, 금관총(128호분), 호우총과 은령총(140호분) 등이 있다. 1921년 금관총 발굴 이후 후지타 료사쿠가 사이트 총독을 움직여 서봉총을 발굴하려고 노력하였고,¹⁰³⁾ 1926년 7월 24일부터 11월까지 북분인 서봉총, 그리고 1929년에 다시 남분(데이비드총)을 발굴하였으나,¹⁰⁴⁾ 보고서를 간행하지 않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4년에, 2016~2017년 재발굴한 성과를 담아 2020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¹⁰⁵⁾



<서봉총의 발굴, 1926(건관 007785)>



<서봉총의 발굴, 1926(건관 007786)>

103) 김대환,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업에서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의 역할」, 『韓國上古史學報』 91, 2016, pp.133~134 ; 차순철, 「일제강점기의 신라고분조사연구에 대한 검토」, 『문화재』 39, 2006, pp.118~119.

104) 『경주 대릉원 일원 고분 자료집성 및 분포조사 종합보고서』 제2권, 2018, p.359.

105) 박진일·심수연, 『慶州 瑞鳳塚 I (遺物編)』, 국립중앙박물관, 2014 ; 윤온식·김대환, 『慶州 瑞鳳塚 II (재발굴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2020, p.10.



<서봉총 재발굴, 2016>



<서봉총과 주변 모습>

1926년 당시 서봉총은 봉분의 규모는 직경 약 36m, 높이는 약 9.6m이다. 적석부는 동서 3.75m, 남북 10.2m, 높이 4.7m로 지상화 된 형태이다. 무덤 내부의 목곽은 동서 3.75m, 남북 1.95m로 적석의 둘레 공간에 잔 자갈을 채우고 천석을 쌓았는데 그 주변의 천석에 주춧돌이 남아 있다.¹⁰⁶⁾ 유물의 출토 상태는 목곽의 상부에서 철기류와 토기류가 출토되었고, 목곽 내부에서 칠기, 청동기, 금은용기, 유리용기, 마구류가, 착장유물은 금관, 태환수하식, 목걸이, 금제허리띠, 금은유리제 팔찌, 금제 지환, 금제 이식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¹⁰⁷⁾ 서봉총 금관과 수하식(보물 제339호)을 비롯하여 금공품과 쇠솔과 토기 위로 칠기, 청동초두, 금은제품, 유리배, 마구, 옥류 등을 포개듯이 두었다고 기술하였다. 피장자의 착장품으로는 머리 부분에 경옥제 및 유리제 곡옥이 달린 금관이 있었고 그 좌우에는 금제 수식과 이식을 두었다. 또 금관의 동북쪽에서도 한 쌍의 이식이 출토되었다. 금관과 과대 사이에는 금, 은, 유리제 소옥을 연결한 5조와 수정, 마노, 곡옥 등을 연결한 경식 등이 위치한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피장자의 허리 부분에서 금제 과대와 수하용 패식이 확인되었다. 패식의 끝에서는 금제 곡옥, 물고기 장식, 투조판 등 여러 장식이 붙은 것이다.¹⁰⁸⁾ 발굴된 서봉총 금허리띠는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소장되었다가 1945년 현 소장처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한편, 서봉총은 일제강점기에 발굴한 이후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체계적인 연구나 전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봉총은 2018년부터 재발굴하여 2020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¹⁰⁹⁾

106) 박광열, 「新羅 瑞鳳塚과 壺杆塚의 絶對年代考」, 『韓國考古學報』 41, 1999, pp.75~76.

107) 박진일·심수연, 『慶州 瑞鳳塚 I (遺物編)』, 국립중앙박물관, 2014, p.6.

108) 『경주 대릉원 일원 고분 자료집성 및 분포조사 종합보고서』 4-2, 2018, p.100.

109) 윤은식, 「瑞鳳塚 再發掘 調査 概要」, 『연구논문』,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금관총과 서봉총 및 금령총의 위치(2016.4.)>

○ 금제 허리띠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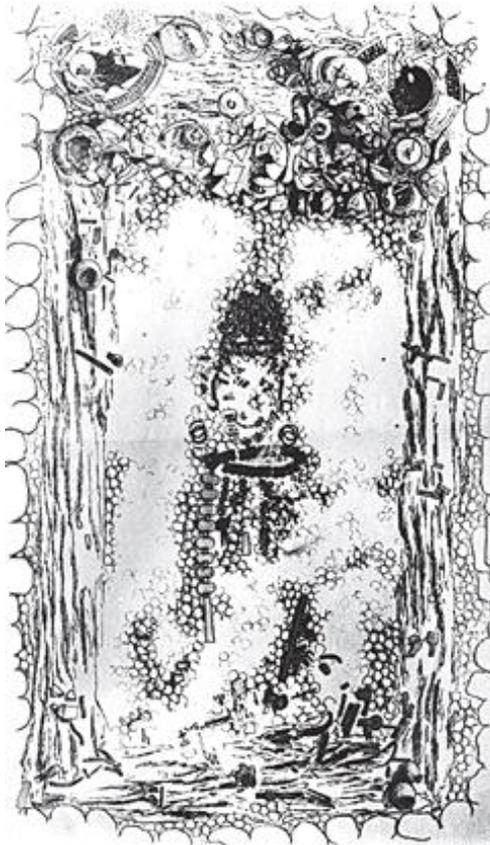
경주 서봉총에서 피장자는 금관, 금제드리개, 태환식 귀걸이, 팔찌, 반지, 허리띠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 중 금제 허리띠는 교구, 34매의 과판, 대단금구, 대형드리개, 8점의 소형드리개로 구성된다. 수하식의 종류는 귀얄, 물고기, 가위, 끌, 곡옥, 향냥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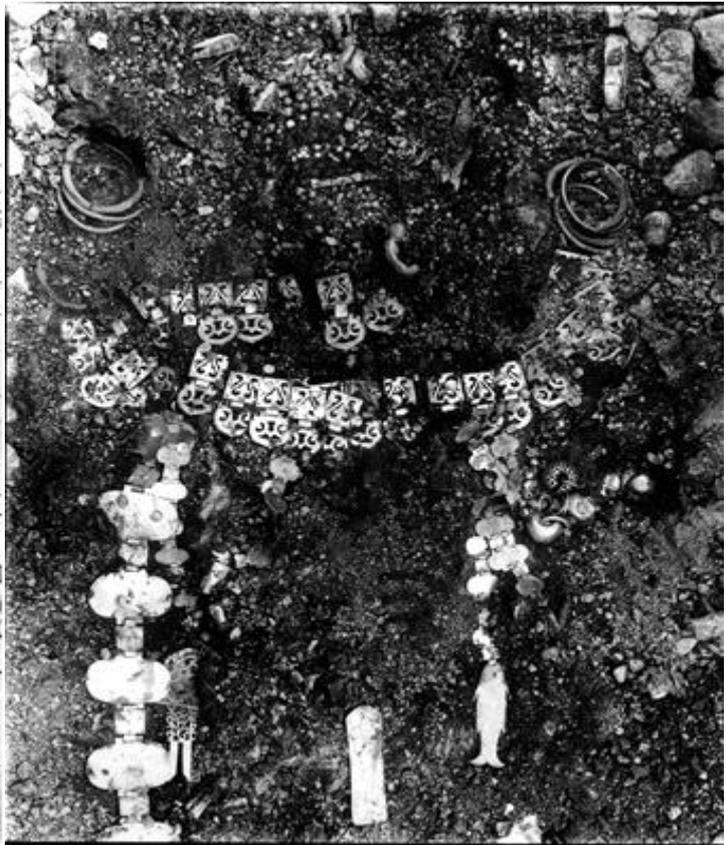
<서봉총 발굴 시 착장 현황(건판 016126)>



<서봉총 금제 허리띠(건판 007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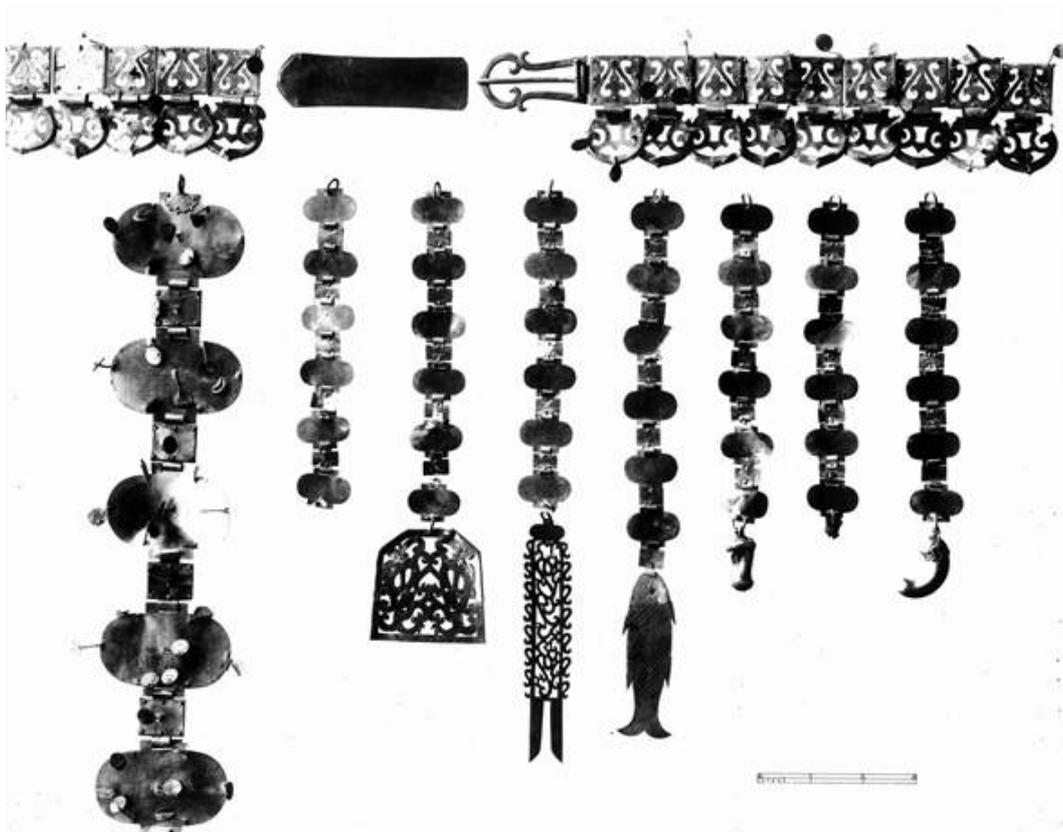
<서봉총 유물배치도면(건관 27555)>



<서봉총 금제 허리띠 출토 상태(건관 16121)>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금관총과 유사하게 버클에 해당하는 띠고리[鉸具], 띠꾸미개[鑄板], 띠끝꾸미개[帶端金具], 드리개[腰佩]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신라의 허리띠이다. 특히 발굴할 때부터 드리개의 수식으로 곡옥, 소도(粧刀), 부싯돌, 송곳, 숫돌, 물고기, 침통 등이 매달려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형식의 금제 허리띠는 5세기 말 6세기 초로 편년되었는데, 최근 동반 출토된 ‘십자뉴은합’에 의해 6세기 1/4분기로 편년하기도 했다.¹¹⁰⁾

110) 박광열, 앞 논문, p.83. 서봉총에서 출토된 <延壽元年> ‘십자뉴은합’에 의해 지증왕 12년(511)에 신라에서 제작되어 동왕 15년(514) 사망 후 매납되었을 것으로 여겨 515년 전후, 6세기 1/4분기로 추정하였다.
신정훈, 「新羅 瑞鳳塚의 銀盒年代와 그 築造時期에 대한 신검토」, 『국학연구논총』 13, 2014. 391년으로 여성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서봉총의 발굴 당시 금제 허리띠, 건관016133>

○ 내용 및 특징

신라시대 금제 허리띠(鍔帶)는 띠고리[鉸具], 띠꾸미개[鍔板], 띠끝꾸미개[帶端金具], 드리개[腰佩]로 구성되는데, 특히 금제로 13개 이상의 드리개가 장식된 허리띠는 최상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다. 이러한 금제 허리띠가 발견되는 고분에서는 금관이 동반 출토되는 것에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허리띠의 드리개는 곡옥, 물고기, 향낭, 약통, 족집게, 손칼, 숫돌 등으로 추정되는 장식이 확인된다. 이것들은 지배층의 권위와 권력, 생명체 등에 관련된 장식으로, 착장자의 위상을 가늠하게 한다. 현존하는 대형고분에서 금관과 함께 출토된 신라 금제 허리띠는 총 6점이다.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 황남대총남분과 북분, 금령총이다. 이러한 삼국시대 금제 허리띠 중 금관총은 1962년에, 천마총은 1978년에, 황남대총도 1978년에 출토된 금제 허리띠 유품 3점은 이미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¹¹¹⁾

111) 김소라, 「신라 허리띠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공예논총』, 2008, pp.13~14.

<표1. 신라고분 출토 금제 허리띠의 구성>

고분명	크기	드리개[요패]의 구성	지정 여부
금관총 금제 허리띠	길이 109cm 요패 54.4cm	- 과판 39장, 요패 17개 - 곡옥, 장도, 숫돌, 부싯돌, 침통	국보 제88호 (1962.12.20.)
천마총 금제 허리띠	길이 125cm 요패 73.5cm	- 과판 44장, 요패 13개 - 곡옥, 부싯돌, 물고기	국보 제190호 (1978.12.07.)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길이 120cm 요패 77.5cm	- 과판 28장, 요패 13개 - 곡옥, 장도, 물고기	국보 제192호 (1978.12.07.)
금령총 금제 허리띠	길이 74.1cm 요패 51.9cm	- 과판 23장, 요패 13개 - 곡옥, 연필형	비지정
서봉총 금제 허리띠	길이 104.9cm 요패 85.3cm	- 과판 34장, 요패 10매 - 곡옥, 도자, 향낭, 물고기	비지정



<금관총 금제 허리띠, 국보 제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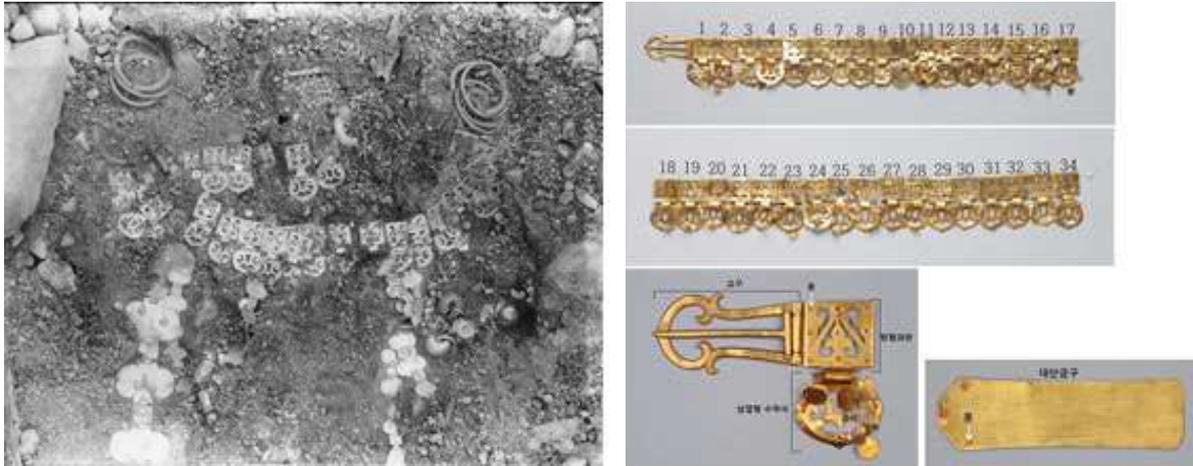
<천마총 금제 허리띠, 국보 제190호>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국보 제192호>



<금령총 금제 허리띠>



<출토 당시 서봉총의 금제 허리띠, 유리원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처럼 신라의 대형 적석목관분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 중 길이는 천마총의 것이 가장 길어 길이 125cm이고, 황남대총의 것은 120cm, 금관총의 것은 109cm, 서봉총은 104.9cm인데 비해 금령총의 허리띠는 길이 74.1cm로 이전의 것들에 비해 50cm 정도 짧다. 또한 드리개[요패]의 길이에 있어 서봉총은 85.3cm로 가장 길고 황남대총의 것은 77.5cm, 천마총의 것은 73.5cm, 금관총의 것은 69.7cm이며 금령총은 51.3cm로 가장 짧은 편이다.

과판과 드리개의 개수를 보면 금관총은 과판 40매에 드리개가 17개이고 천마총은 과판 44매에 드리개는 13개이다. 황남대총은 과판 28매에 드리개가 13장이다. 이에 비해 금령총은 과판은 23매로 가장 숫자가 작는데 비해 드리개는 천마총이나 황남대총과 마찬가지로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서봉총의 경우 과판은 34매에 요패는 10매이며, 드리개는 곡옥, 도자, 향낭, 물고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판의 숫자와 드리개의 숫자로 미루어볼 때 서봉총의 피장자는 금관총이나 천마총 및 황남대총 등과 신분상 착장자의 위상이 같다고 여겨진다. 서봉총의 금제 허리띠는 부분적으로 영락과 금제 못이 결실되었지만 형태는 완형이다. 교구 1개, 과판 34매, 대단금구(帶端金具)로 구성된다.

1) 띠고리[교구]

서봉총의 교구는 금관총이나 천마총, 서봉총 및 황남대총 북분의 것에서 교침이 모두 ‘T’자형이다. 교구의 형태는 ‘D’자형과 심엽형으로 구분되어 착장자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¹¹²⁾ D자형은 황남대총 남분과 금령총에 속하며, 심엽형은 황남대총 북분과 금관총, 서봉총 및 천마총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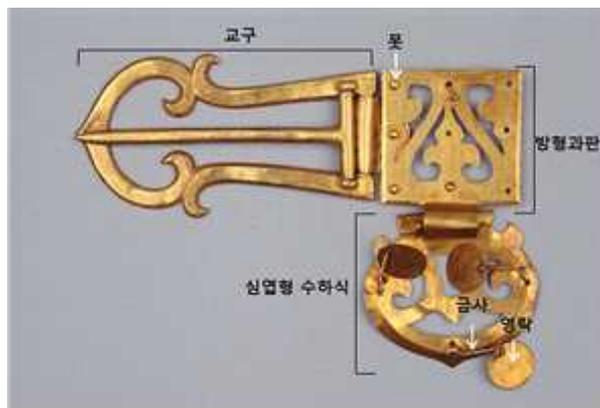
서봉총은 완형의 금제 교구이며 너비는 6.4cm이다. 외륜의 왼쪽은 심엽형으로 대칭의 엽문(葉文) 장식이 있고, 오른쪽은 과판과 고정되는 부분이다. 바닥부분에

112) 손민혁, 앞 논문, p.101.

해당하는 뒷면은 편평하고 앞면은 굴곡져서 단면형태는 반원형이다. ‘ㄱ’자 모양의 교침은 끝이 뾰족하고 단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반원형이다. 전체적으로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천마총 출토품과 유사하다. 횡축은 단면형태가 원형으로, 외륜에 굽은 금제 못을 양쪽에 끼워서 고정시키고, 못의 안쪽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횡축의 양단을 끼워서 고정하였다. 뒷면에는 튀어나온 못을 뺀 흔적이 있다. ‘ㅊ’자 모양의 금판을 외륜 오른쪽에 걸고 반으로 접어서 방형판과 겹쳐 못으로 고정하였다.



<심엽형 교구 비교-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



<서봉총의 교구와 과판 및 수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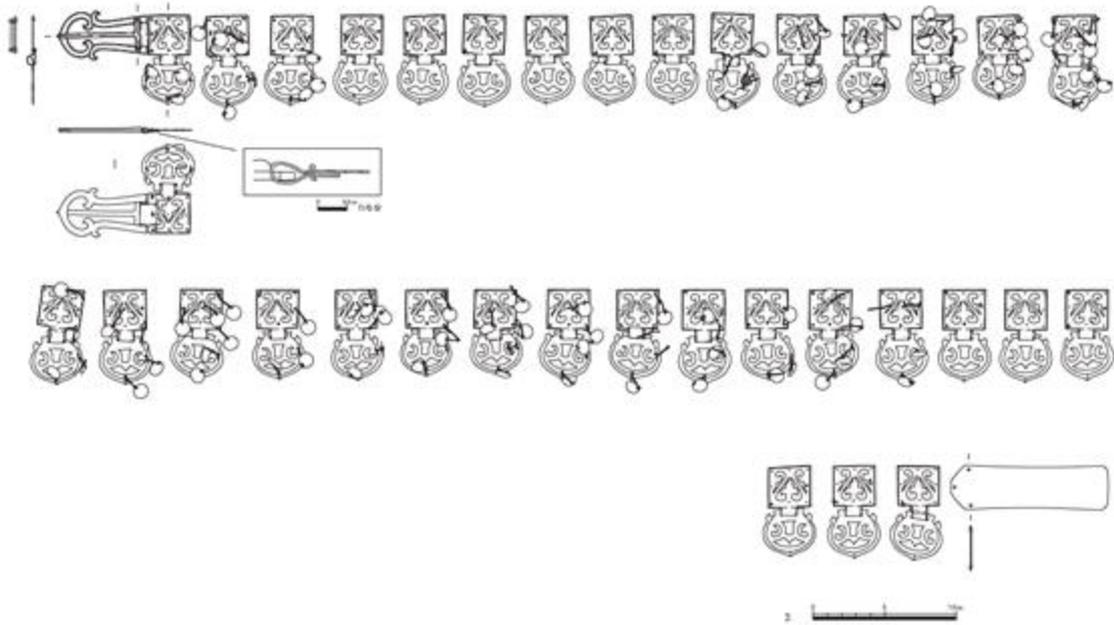
<서봉총 교구 측면>

2) 띠꾸미개[과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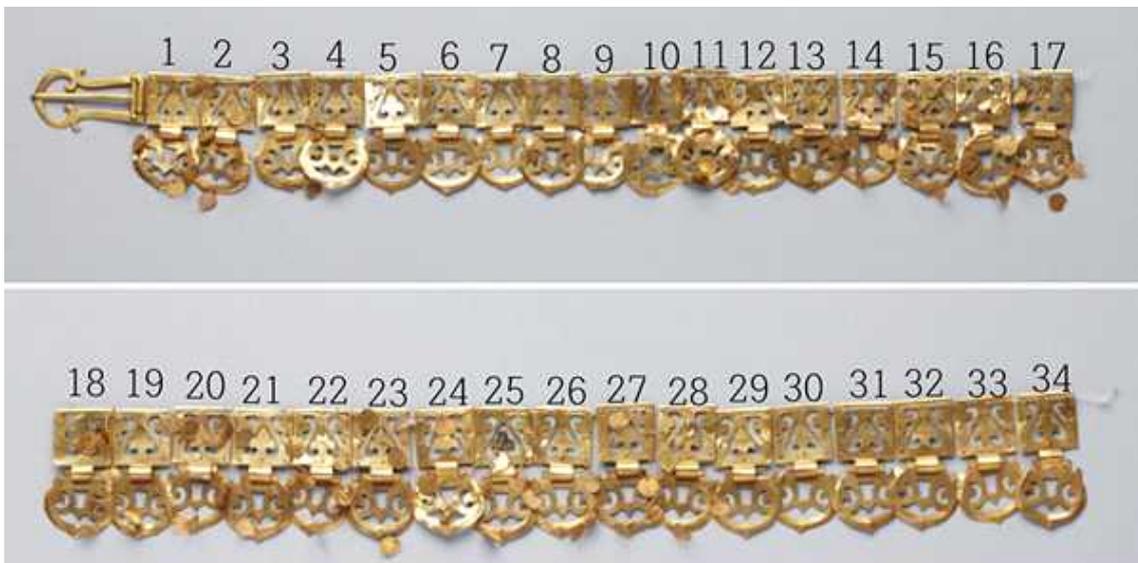
과판은 방형의 과판과 심엽형의 수하식으로 구성된다.

서봉총의 과판의 숫자는 총 34매이다. 과판은 가로 2.8~3.0cm, 세로 2.8~2.9cm이다. 과판은 방형판과 수하식으로 이뤄져 있다. 방형판의 네 면은 끝단을 안쪽으로 살짝 접었으며, 아래쪽은 구부러져 수하식에 걸어 못으로 고정하였다.

이러한 과판의 개수는 천마총이 가장 많아 44매, 금관총의 과판 39매, 황남대총은 과판이 28매, 서봉총은 34매인데 비해 금령총은 과판은 23매이다. 과판의 숫자와 드리개의 숫자로 미루어볼 때 서봉총의 피장자는 금관총이나 천마총 및 황남대총보다 신분상 착장자의 위상이 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 띠고리[교구]와 띠꾸미개[과판] 및 띠드리개 도면>



<서봉총 교구와 방형 과판과 삼엽형 수하식>

서봉총 과판은 연결부의 뒷면은 양옆을 잘라내어 삼각형으로 만들었다. 방형판 중앙에는 삼엽문을 투조하여 장식하였는데, 투조된 부분은 좌우 대칭이다. 삼엽문의 가운데 앞에는 직경 0.05cm의 투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투공이 있는 일부에는 금판 영락이 달렸다. 방형판의 네 면 가장자리에 있는 8개 투공은 직경 0.1cm로 못이 잔존하는 것, 영락을 매단 것,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있다. 각각의 위치나 개수는 일정하지 않다. 또한 잔존하는 못이 헐겁기 때문에 본래 존재했으나 결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못들은 과판 뒤에 직물[布]이나 가죽과 부착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식부의 평면 형태는 심엽형이고, 윗부분에 옆문을 대칭으로 장식하였다. 방형판과 마찬가지로 끝단은 안쪽으로 살짝 접었다. 일부는 투공을 하고 영락을 달았는데, 투공은 주로 아래쪽과 오른쪽에 하였다. 방형판과 다르게 1쌍을 나란히 중방향으로 뚫었다. 영락을 매다는 방법은 방형판과 수식부가 상이하다. 즉 방형판은 영락을 걸고 끈 금사의 두 갈래 중 한 갈래만 하나의 구멍에 넣어서 마무리한 반면, 수식부는 두 갈래를 각각의 구멍에 넣어서 달았다.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및 천마총의 대형드리개 상단 고리의 화문장식>

삼엽문의 과판은 황남대총 남분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황남대총 북분, 그리고 이후 금관총과 서봉총, 금령총으로 이어져 지속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서봉총의 띠꾸미개는 신라의 고유한 양식인 투조식 삼엽문 계열이며, 띠판과 드림 엽문이 몸체에 붙은 투공식(透孔式)이다.

과판 수하식의 경우 황남대총 북분과 금관총의 것은 보요장식이 있으나 서봉총이나 천마총 및 금령총은 보요장식이 없다. 대개 수하식은 심엽형인데, 서봉총은 황남대총이나 천마총의 것과 유사하나 금령총의 수하식은 단순해진다.



<황남대총 과판>

<천마총 과판>

<서봉총 과판>

<금령총 과판>

3) 드리개

신라의 금제 허리띠 6점의 대형 드리개는 고리+연결금판+횡타원형이다. 연결금판의 형태는 방형에서 원형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적인 흐름보다 지역색이 강하다는

주장이 있다.¹¹³⁾ 서봉총의 드리개는 10매에 곡옥, 장도, 숫돌, 부싯돌, 침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⁴⁾ 드리개의 개수는 6개 대형 고분마다 달라 금관총은 17매, 천마총은 13매,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은 13매, 금령총은 13매이다.

드리개는 앞선 시기에 제작된 황남대총 남북분이나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의 것은 과관 내부의 문양이 사실적으로 투각되어 있으나,¹¹⁵⁾ 금령총의 것은 중앙의 삼엽형 좌우가 도식적이다.

금제 허리띠의 드리개에 대한 근원은 『예기(禮記)』에서 찾는다. 여기에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할 때 칼, 부싯돌, 송곳, 바늘 등 일상용품을 차고 다녀야 한다는 내용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¹¹⁶⁾

드리개와 관련해서는 당서(唐書) 여복지에 의하면 어대(魚袋)와 긴 칼, 단검, 숫돌, 환약, 송곳, 침통, 부싯돌과 같은 일곱 가지 사물[鞬鞞七事]은 문무관의 패물로 정하였다.¹¹⁷⁾ 중국에서 이러한 요패의 기원과 관련해서 몽계필담(夢溪筆談)에 의해 북제 때부터 흉노들의 호복(胡服)에 착장하는 칩섭(鞬鞞)의 풍속을 수용하여 주머니 칼(囊刀)이나 숫부싯돌 등을 다는 것이 유행하여 천자도 13환을 썼다고 한다. 이에 당나라 고조 때인 674년에 3품부터 서민까지 등급을 나눠 금, 은, 옥, 물소뿔 등 재료와 13과부터 6과까지 수식 수의 제한을 두었다고 한다.¹¹⁸⁾ 이렇게 허리띠에 드리개를 다는 기마민족의 풍속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인의 허리띠 재료는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다고 기록하였다. 그 위에 금은제 재질이 장식되지만 대부분의 고분 출토품은 유기물이 부식되고 표면에 부착된 금속 재질만 남아 있다.

서봉총의 경우 소형 7條와 대형 1條가 출토되었다. 소형 요패는 기본적으로 소형 타원형관 6매, ‘+’모양의 금관 5매를 번갈아가며 연결하고 ‘+’자형 금관에 2개의 못으로 고정하였다. 타원형관과 ‘+’자형 금관 아래에는 물고기(魚形) 장식, 곡옥(曲玉) 장식, 용문투조(龍文透彫)된 작은 칼[刀子] 장식, 용문투조(龍文透彫)된 금관 장식, 원통형(圓筒形) 장식 등이 달려있다. 장식이 없는 것은 본래 있던 것이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의 일부는 금사를 감거나 은지 금동판을 뒤에 덧대서 보수하였는데 후대에 이루어진 작업으로 추정된다.

요패의 위치와 순서는 발굴 당시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건판16121)의 유물 출토

113) 박보현, 「요패 연결금구의 제작기법과 지역차이」, 『과기고고연구』 2, 1997, pp.57~59.

114) 박진일·심수연, 일제강점기 자료조사보고 13집 『慶州 瑞鳳塚 I (遺物編)』, 국립중앙박물관, 2014, p.23/p.203.

115) 손민혁, 앞 논문, p.101/p.117 도76 <삼엽형 교구비교>/p.118 도80 <A형 과관 비교>/p.119 도83 <대형드리개 끝장식 연결방식>.

116) 『禮記』, 「內則 第十二」, “子事父母, 雞初鳴, 咸盥漱, 櫛, 緝, 笄總, 拂髦, 冠, 紕, 纓, 端, 鞞, 紳, 搢笏, 左右佩用. 左佩紛帨, 刀, 礪, 小觿, 金燧. 右佩玦, 捍, 管, 遯, 大觿, 木燧, 偁, 履著綦.”

117) 『唐書』, 「輿服志」, “七事謂 佩刀, 刀子, 礪石, 契苾眞, 噦厥, 針筒, 火石袋等也.”

118) 『欽定四庫全書』, 「事物紀原」 卷3, 〈腰帶〉, “實錄曰. 自古皆有革帶及插垂頭至秦二世始名腰帶. 唐高祖令向下插垂頭取順下之義名金宅尾. 上元元年自三品官至庶人各有等制以金玉犀銀鍍石銅鐵爲飾. 自十三銖至六銖. 筆談曰. 自北齊全用胡服鞬鞞變所垂蓋欲以佩帶弓劍巾分帨箠囊刀礪之類. 後去鞬鞞變猶存其環環所銜以鞬鞞變如馬鞞根即今帶銖也. 天子必以十三環爲節. 唐開元之後帶鉤尚穿帶本爲孔. 本朝加順折也.”

상태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피장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4條씩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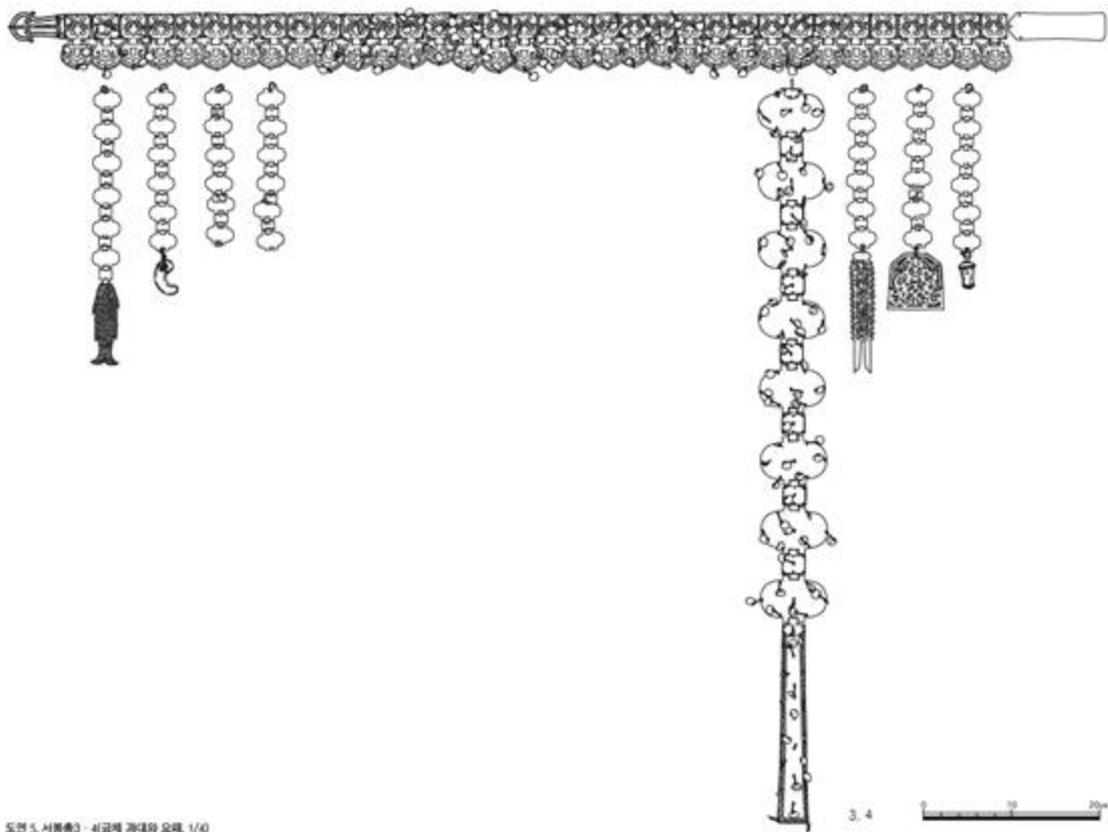
각각 요패는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1) 4-1은 타원형판 6매, ‘十’자형 금판 6매, 물고기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에서 다섯 번째 ‘十’자형 금판의 연결부는 일부가 결실되었다. 위에서 첫 번째 ‘十’자형 금판의 위쪽 연결부는 2개의 금제 못을 나란하게 고정하였는데, 다른 6점의 소형 요패와는 다른 점이다. 가장 아래쪽의 ‘十’자형 판은 위의 5매와는 달리 앞뒤 방향이 반대이다. 물고기 장식은 금판을 오려서 형태를 만들고 문양을 시문하였다. 머리와 꼬리 부분에 축조점렬문(蹴彫點列文)을 우→좌로 시문하고 몸통부분에 상→하로 시문하여 구획하였다. 그런 다음 머리와 꼬리를 비롯한 지느러미에는 상→하로 점렬문을 시문하고, 몸통에는 어린문을 시문하였다. 물고기의 입부분에 장방형 구멍을 뚫어 ‘十’자형 금판과 연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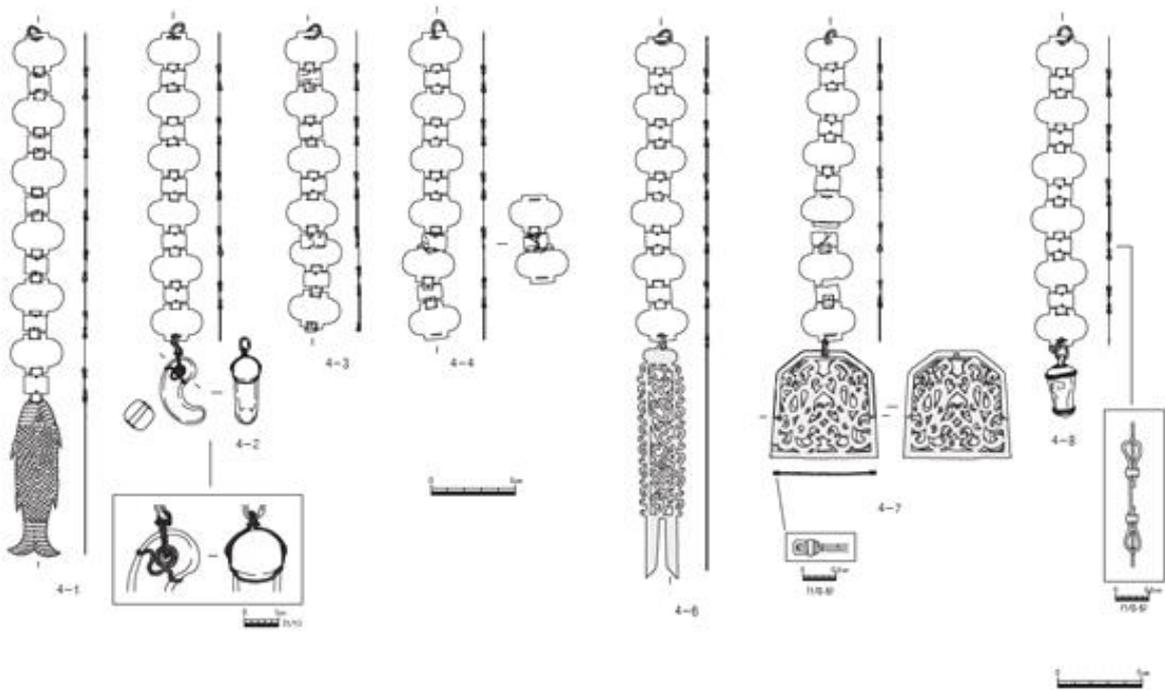
(2) 4-2는 타원형판 6매, ‘十’자형 금판 5매, 곡옥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에서 두 번째 ‘十’자형 판은 못 1개가 결실되었다. 곡옥 장식은 구멍이 뚫린 금제 곡옥의 양쪽 구멍과 머리 부분에 각목을 새긴 금띠를 들렀다. 각목을 새긴 금사에 곡옥을 걸어서 환 2개로 타원형판과 연결하였다.

(3) 4-3은 타원형판 6매, ‘十’자형 금판 5매가 잔존하고, 장식은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아래 부분에 ‘十’자형 금판의 연결부가 일부 잔존하는데 본래의 위치 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위에서 네 번째 ‘十’자형 금판은 못 1개와 연결부 한 쪽이 결실되었다. 아래의 타원형판 연결구멍에 걸지 않고 단순하게 겹쳐서 고정시켜 놓은 상태이다.

(4) 4-4는 타원형판 6매, ‘十’자형 금판 5매가 잔존하고 장식은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네 번째 ‘十’자형 금판은 표면이 찌그러지고 못 1개와 연결부 한 쪽이 결실되었다. 금사를 감아서 아래의 타원형판과 고정시켜놓은 상태이다. 가장 아래쪽의 ‘十’자형 판은 위의 4매와는 달리 앞뒤 방향이 반대이다.



도판 5. 서봉총 4-4(금제)과대의 요래, 1/40



도판 7. 서봉총 4-1-4-4(금제) 요래, 1/20

도판 8. 서봉총 4-6-4-4(금제) 요래, 1/20

<서봉총 금제 허리띠 드리개 4-1,2,3,4>

<서봉총 금제 허리띠 드리개 4-6,7,8>



<서봉총 드리개 1>



<서봉총 드리개 2>



<서봉총 드리개 3>



<서봉총 드리개 4>

(5) 4-5는 대형 요패로 대형의 타원형판 8매, ‘凸’자형 금판 7쌍을 번갈아가며 연결하고 ‘凸’자형 금판에 6개의 못으로 고정하였다. 가장 아래에는 긴 세장방향 금판을 달았다. 가장 위쪽의 타원형판은 연결구멍이 있는 소형 요패와는 달리, 환을 접합한 가지모양의 금판장식을 타원형판의 앞뒤로 덧댄 후 3개의 못으로 고정하였다. 타원형판의 상·하·좌·우·중앙에는 총 7쌍의 투공이 있는데, 영락을 매단 금사의 두 갈래를 각각의 구멍에 넣어서 달았다. 금사의 양 갈래는 살짝 접어서 구멍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마무리하였다. ‘凸’자형 금판은 2매를 겹친 것으로, 정 가운데에 1쌍의 구멍을 뚫고 영락을 달았다. 타원형판과의 연결방법은 소형 요패와 다르다. 그 방법은 우선, ‘凸’자형 금판 1매를 타원형판 연결구멍에 건다. 다른 1매는 그 다음의 타원형판을 걸고 뒤집어서 뒤쪽에 겹친다. 그리고 6개의 못으로 고정시킨다. 즉 ‘凸’자형 금판을 상하 교차로 내려가면서 연결하는 방식이다. 구멍이 뒷판까지 뚫려 있고 영락 달린 금사가 빠져나온 것으로 보아 투공과 영락을 매다는 것이 가장 마지막 공정이었던 듯하다. 가장 아래의 세장방향판 장식은 가장자리를 따라서 2條의 축조점렬문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시문하였다. 그 안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축조과상문을, 과상문 안쪽에는 점문을 두었다. 또한 세장방향 금판에는 7쌍씩 3줄로 거의 등 간격으로 영락을 달았는데, 영락과 금사가 결실된 것이 일부 있다. 세장방향 금판 장식과 타원형 금판의 연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결부가 있는 가지모양 금판을 세장방형판과 겹쳐서 타원형판의 연결구멍에 걸고, 뒷면에 연결구가 없는 가지모양 판을 겹쳐서 4개의 못으로 고정하였다. 따라서 앞쪽의 세장방형 금판을 가지모양 금판 사이에 끼운 형상이다.

(6) 4-6은 타원형판 6매, ‘十’자형 금판 5매, 용문투조 도자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아래쪽의 ‘十’자형 금판은 한쪽 연결부의 못이 없다. 투공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아래에는 투조된 용문과 도자의 형태를 띠는 금판을 장식하였다. 용문은 형식화된 모습이고, 도자형 금판은 좌우 대칭으로 위치한다. 용문투조판의 위쪽 타원형에 원형 구멍을 투공하여 환으로 타원형 금판과 연결하였다.

(7) 4-7은 타원형판 6매, ‘十’자형 금판 5매, 용문투조 금판을 2매 겹친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에서 다섯 번째 타원형판은 한쪽 연결구멍이 결실되었다.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十’자형 금판은 모두 한쪽 연결부와 못이 결실되었는데 뒷면에 은지금동판을 덧대서 고정하여 보수하였다. 또한 네 번째 타원형판의 아래쪽 연결구멍에 금사를 묶어서 네 번째 ‘十’자형 판에 감아서 고정하였다. 네 번째 ‘十’자형 금판의 연결부는 앞뒷면이 형태가 똑같아 본래의 위치인지 확실하지 않다. 가장 아래쪽의 ‘十’자형 판은 앞뒤 방향이 반대이다. 용문투조 장식의 평면형태는 방형 투조판 양쪽 위 모서리를 잘라낸 형태이다. 뾰족한 부분 일부는 결실되었고 아래쪽 일부는 구겨졌다. 용문을 투조한 금판 2매를 겹친 것으로 2매의 문양이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약 절반 지점까지 금판을 접어서 끼우고 양쪽에 못으로 고정하였다. 투조된 2매의 금판과 바깥에 썩은 금판에 투공하여 환을 걸고 금사를 묶어서 소형 타원형판과 연결하였다. 환에 묶인 금사는 후대의 보수흔일 가능성이 있다.

(8) 4-8은 타원형판 6매, ‘十’자형 금판 5매, 원통형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통형 장식은 표면 일부가 닳았고, 각목문(刻目文)을 새긴 금띠 3개를 위쪽과 아래쪽에 둘러서 붙였다. 아래쪽에는 은(銀)이 부식되어 수착되었다. 꼭대기에 단면 장방형의 금제 연결구를 고정시키고 환 2개로 소형 타원형판과 연결하였다.



<서봉총 드리개 5>



<서봉총 드리개 6>



<서봉총 드리개 7>



<서봉총 드리개 8>

서봉총의 경우 드리개는 소형 7條와 대형 1條가 출토되었다. 소형 요패는 기본적으로 소형 타원형판 6매, ‘十’모양의 금판 5매를 번갈아가며 연결하고 ‘十’자형 금판에 2개의 못으로 고정하였다. 고리와 연결판을 고정시키는 못의 개수는 황남대총 북분→금관총→서봉총→금령총의 순서로 줄어들고 있다.

서봉총의 경우 타원형판과 ‘十’자형 금판 아래에는 물고기(魚形) 장식, 곡옥(曲玉) 장식, 용문투조(龍文透彫)된 작은 칼[刀子] 장식, 용문투조(龍文透彫)된 금판 장식, 원통형(圓筒形) 장식 등이 달려있다.

수하식에 곡옥이나 연필형 장식 등은 금관이 출토된 대형 6개 고분에서 공통되며, 여기에는 금모장식이 동반된다. 그중 감옥금모로 장식된 것은 서봉총과 천마총 및 금령총이다. 가위나 도자형 수하식은 금령총을 제외한 5개 고분에서 공통된다. 서봉총의 경우 내부에 기하학문이 아닌 용 두 마리가 상단을 향해 올라가는 형상이 투조되어 천마총의 것과 유사하다. 물고기 수하식은 금령총을 제외한 5개 고분에서 공통된다. 다만 문양의 표현을 달라 서봉총의 것은 꼬리 부분이 두 갈래로 나뉘며 이것은 천마총과 공통된다.

끌장식을 연결하는 방식은 제작방식을 통해 공정과정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못의 개수 또한 줄어들어 이 또한 황남대총 남분→황남대총 북분→금관총→서봉
 총→천마총→금령총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처럼 금제 허리띠의 구성요소를 종합해보면 교구의 구성이나 과판의 내부 문
 양이나 제작공정의 단순화나 대형 드리개나 소형 드리개 및 수하식에서 곡옥장식
 이 소멸이나 문양의 단순화 그리고 제작기법 등에 의해 대체적으로 황남대총 남
 분→황남대총 북분→[금관총, 서봉총, 천마총]→금령총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경주 대릉원 일원 고분 자료집성 및 분포조사 종합보고서』 제2권, 2018.
- 『慶州 瑞鳳塚 I (遺物編)』, 국립중앙박물관, 2014.
- 『慶州 瑞鳳塚 II (재발굴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2020.
- 김대환,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업에서 후지다 료사쿠(藤田亮策)의 역할」, 『韓
 國上古史學報』 91, 2016.
- 김소라, 「신라 허리띠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공예논총』,
 2008.
- 盧仁姬, 「三國時代 帶金具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文永熙, 「三國時代 鈎帶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박광열, 「新羅 瑞鳳塚과 壺冢의 絶對年代考」, 『韓國考古學報』 41, 1999.
- 박보현, 「요패 연결금구의 제작기법과 지역차이」, 『과기고고연구』 2, 1997.
- 박진일·심수연, 일제강점기 자료조사보고 13집 『慶州 瑞鳳塚 I (遺物編)』, 국립
 중앙박물관, 2014.
- 신광철, 「재발굴을 통해 본 금령총의 구조와 성격」, 『한국학연구』 77, 2021.
- 윤온식, 「瑞鳳塚 再發掘 調査 概要」, 『연구논문』, 국립중앙박물관.
- 윤온식·김대환, 『慶州 瑞鳳塚 II (재발굴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2020.
- 차순철, 「일제강점기의 신라고분조사연구에 대한 검토」, 『문화재』 39, 2006.
- 김재열, 「신라 금령총의 장신구 그리고 사람들」, 『중앙고고연구』 40, 2023.
- 손민혁, 「신라 금제 허리띠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 현 상

서봉총은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05-1번지에 위치한다. 1926년 조선총독부박물
 관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으며,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재조사가 있었다. 보고

서에 따르면 서봉총의 피장자는 금관, 금제드리개, 굽은고리 귀걸이, 팔지, 허리띠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대도가 없고 굽은고리 귀걸이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성별은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는 허리띠를 결속하는 교구(띠고리), 가죽에 부착됐던 34매의 과판(띠꾸미개), 교구와 결속하여 허리띠 끝을 장식하는 대단금구(띠끝장식), 대형드리개, 7점의 소형드리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소형드리개의 끝장식은 일부 결실되었으나 현재 물고기, 곡옥, 끝 또는 가위 형태의 투각장식이 달려있다.

삼엽문이 투각된 사각형 금관에 심엽형 투각장식이 달린 과판은 총 34매가 출토되었다. 과판의 4면 가장자리에는 8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있다. 이 구멍에는 가죽에 연결했던 못 또는 장식에 사용됐던 영락이 일부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출토 당시 촬영된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한 결과 과판의 배열순서가 서로 달라 출토 이후 과판의 순서는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락이 달린 과판은 좌우 측면과 전면에만 배치되어 피장자의 허리 뒷면에 해당하는 위치의 과판에는 영락장식을 생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복원전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과판의 양끝에는 허리띠를 고정하는 금제 교구와 띠끝장식(帶端金具)을 배치하였다. 띠끝장식의 형태는 끝 가장자리를 둥글게 처리한 판형으로 가죽에 연결하는 앞쪽은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허리띠에 연결했던 3개의 못이 남아있다. 심엽형 교구의 형태는 황남대총, 금관총, 천마총 출토 금제 허리띠 교구의 형태와 유사하다. 다만 교구의 단면은 판형인 것에 비해 결쇠의 단면은 원형에 가깝게 처리하여 차이를 보인다.

드리개(요패)는 대형드리개 1점과 소형드리개 7점으로 구성되어있다. 대형요패는 판형의 타원형 장식과 소형 방형의 금판을 교대로 연결하고, 끝장식은 밑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넓어지는 길쭉한 사다리꼴의 금판으로 마감하였다. 대형요패에는 영락장식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를 비롯하여 이후에 제작되는 신라 금제 허리띠와 공통점을 보인다. 소형요패는 대형요패를 축소한 형태로 드리개 끝에는 물고기, 곡옥, 투각장식 등이 달려있으나 일부는 결실되었다.

○ 내용 및 특징

경주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구성과 형태는 지금까지 발견된 5점의 신라 적석목곽분 출토 금제 허리띠와 대체로 유사하다. 나머지 5점의 신라 금제 허리띠와 비교했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특징은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와 더불어 여성 피장자가 착용한 허리띠라는 특징이 있다. 여성과 남성 피장자가 착용한 금제 허리띠의 장식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출토 당시의 현상은 남성 피장자의 허리띠가 대체로 U자형으로 앞뒤가

겹쳐서 출토되는 것에 비해 여성 피장자의 허리띠는 타원형으로 앞뒤가 겹치지 않은 상태로 출토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피장자의 복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장식적인 특징은 여타 신라의 금제 허리띠의 요패장식이 유리나 옥 등의 재질이 혼용되는 것과 달리 대부분 금제로 구성되어 허리띠 제작 당시의 의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끝장식 일부가 결실된 부분은 있지만 재료의 특성상 결실된 부분은 유리나 옥류 보다는 유기물 재료일 가능성이 크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또 다른 특징은 과판에 부착된 영락장식이다. 34개의 과판 중에는 4면 가장자리에 8개의 투공이 있는 것(도1)과 중앙에 배치된 삼엽문의 중앙에도 투공을 뚫어 총 9개의 투공이 있는 것(도2)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피장자의 배면에 배치되는 과판과 전면에 배치되는 과판의 차이로, 매장 당시 바닥에 닿는 배면의 과판에는 영락장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 금제 허리띠 과판 배열의 원형을 복원하는 단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분 출토 금제 허리띠가 장송용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도1. 서봉총 금제 허리띠 과판 1>



<도2. 서봉총 금제 허리띠 과판 2>

이상의 내용과 더불어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신라 금제 허리띠의 전개과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신라 금제 허리띠는 가장 이른 사례로 알려진 황남대총 남분

금제 허리띠 이후 과판의 중심문양은 투각 삼엽문이 유지되었다. 투각 삼엽문의 형태는 중심엽의 형태에 따라 직선형과 침엽형으로 구분되는데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과판은 침엽형으로 금관총 금제 허리띠의 과판과 더불어 가장 화려한 장식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전 시기 금제 허리띠의 과판에는 가죽에 연결하는 투공이 공통적으로 9개인 것에 비해 서봉총 금제 허리띠의 경우 8개와 9개를 혼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후 천마총과 금령총 단계에서는 6개 또는 5개만 구멍을 뚫어 못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4개의 위치에는 못 머리 형태로 금판을 타출시켜 시각적으로 못이 박힌 것처럼 보이도록 변화한다.

그밖에 일부 자료에는 금제 태환투조이식과 금제 태환영락부이식, 금제 태환감옥이식 등이 금제 허리띠의 부속유물로 소개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출토 당시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도3)에는 이들 유물이 소형 요패장식 주변에서 수습된 것은 맞지만 태환이식 주위에 여러 점의 반지와 곡옥, 구슬 등이 함께 노출되어 있어서 금제 허리띠의 부속유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자료가 추가되지 않는 한 태환이식들은 금제 허리띠와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3. 서봉총 발굴 당시 유물 노출상태>

○ 지정사례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 금제 허리띠의 문화재 지정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국보 3점, 보물 1점이고 서봉총과 금령총 금제 허리띠는 비지정 상태이다.

명 칭	지정유무	지정일시
금관총 금제 허리띠	국보 제88호	1962. 12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국보 제192호	1978. 12
천마총 금제 허리띠	국보 제190호	1978. 12
황남대총 남분 금제 허리띠	보물 제629호	1978. 12
서봉총 금제 허리띠	비지정	
금령총 금제 허리띠	비지정	

○ 참고문헌

- 『경주 서봉총 1-일제강점기자료조사보고서 13집』, 국립중앙박물관, 2014.
- 『경주의 황금문화재』, 국립경주박물관, 2015.
-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국립경주박물관, 2015.
- 손민혁, 「신라 금제허리띠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기 타

경주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일제강점기인 1926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실시한 서봉총 발굴 당시 목관 안에서 피장자가 패용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소장되었다가 1945년 현 소장처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현재는 국립청주박물관에 대여 전시하고 있다.

15. 홍무31년노비문서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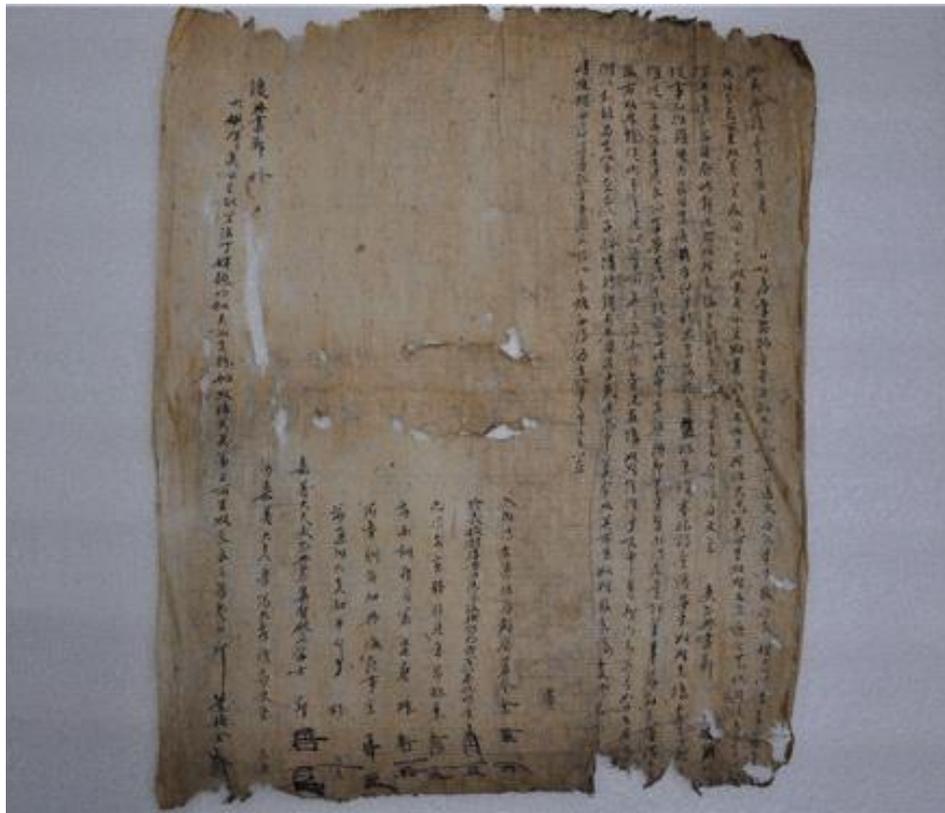
‘홍무31년노비문서’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홍무31년노비문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10.2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2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홍무31년노비문서(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
- 소유자(관리자) : ***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
- 수 량 : 1매
- 규 격 : 세로 55.0cm, 가로 44.0cm
- 재 질 : 한지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낱장 문서
- 조성연대 : 1398년(조선 태조 7) 추정
- 제작자 : 김권(金倦)



<홍무31년노비문서>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指定 價値>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財主(奴婢主)인 고령감무 金颺의 자손들이 추착한 도망노비를 공로에 따라 분집한 문서로 盧[湜]·金革·金倦·朱愼·柳軒·金習·朴[思齊]·鄭[某]·金[某]의 9명이 각기 1매씩 가졌던 것 가운데 吏曹典書 鄭[某]가 가졌던 文記이다.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1) 현존하는 노비문서 가운데 비교적 오래된 독특한 문서이며, (2) 도망노비의 推刷·捕捉의 과정과 포착공로에 따라 노비를 분집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며, (3) 당시 노비문서에 사용된 吏讀의 使用法이나 용어 및 문서의 양식적인 면에서 역사성과 희귀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14세기 말의 노비도망과 推捉問題, 도망노비의 分執 등 노비의 문제와 社會史·官制史 및 手決 등의 연구에 자료적인 가치가 결단코 낮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나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1) 磨滅과 穿孔 및 汚染 등으로 인하여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정확한 원문 내용의 판독이 쉽지 않은 점, (2) 草書에 吏讀가 섞여서 작성된 문서라 이두의 해독과 더불어 탈초작업이 필요한 점, (3) 관아의 신고에 사용된 立案 등과 관련된 문서가 전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가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吏讀·古文書 등과 관련된 학회의 학술대회를 통한 공정한 평가가 도출되고 그 결과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가치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권고될 때 再論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根據 基準>

현재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와 동일 또는 관련된 고문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지정 가치 미흡)

조사본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財主(奴婢主)인 고령감무 金龜의 자손들이 추착한 도망노비를 공로에 따라 분집한 문서로 盧[湜]·金革·金倦·朱愼·柳軒·金習·朴[思齊]·鄭[某]·金[某]의 9명이 각기 1매씩 가졌던 것 가운데 吏曹典書 鄭[某]가 가졌던 文記이다.

조사본은 도망노비의 推刷·捕捉의 과정과 포착공로에 따라 노비를 분집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유사 자료와 비교할 때 시기가 앞서는 유물이다. 또한 노비문서에 사용된 吏讀의 사용을 통하여 초기 한글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의미가 있다.

다만, 조사본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직계 조상의 노비를 내·외의 자손들이 분집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所志와 立案 등 연결된 서류가 있어야 하나 현재 다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자료의 전승과 소장자에 대한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고, 현 상태는 磨滅과 穿孔 및 汚染 등으로 인하여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정확한 원문 내용의 판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조사본은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 가치 미흡)

지정신청된 「홍무삼십일년노비문서(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1398년(조선 태조 7) 5월에 작성된 문서로, 전(前) 고령 감무(高靈監務) 김민(金龜)의 친가 및 외가 자손들이 이전에 도망했던 노비들을 찾아내어 잡은 후에 이 노비들을 추쇄의 공로에 따라 차등 있게 분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노비를 분배받은 9명이 각기

한 장씩 가졌던 문서 중 이조전서 정[모]가 소장했던 문서로 판단된다.

지정신청된 「홍무삼십일년노비문서」는 현전하는 노비 관련 문서로는 매우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노망한 노비를 추쇄하여 다시 분배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라는 점, 여말선초 문서 양식이나 이두 사용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사(社會史), 신분사(身分史) 및 국어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문서는 전체적으로 마멸과 손상, 변색 등이 심하여 보존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이 때문에 문서 원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또 노비를 분배받은 9명 중 정[모]가 분배받은 노비의 수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8명이 분배받은 노비 내역은 빠져 있어서, 일반적인 화회문기와는 기록 방식과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부분은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정신청된 「홍무삼십일년노비문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고문서 및 국어학 연구자와 관련 학회의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본 문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할 만한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도출되면, 그때 다시 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지정신청 고문서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 記述>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 / [金暉 子孫 等發給] ; [盧[湜]·金革·金倦·朱愼·柳軒·金習·朴[思齊]·鄭[某]·金[某] 等受給] ; 金倦 執筆. -- 筆寫物. -- [高靈] : [金倦], [朝鮮太祖 7(1398) 推定].

單張物(1枚) : 全葉 19行 1~47字數不定 ; 55.0×44.0cm. 韓紙. 草書.

[標目]: ‘洪武參拾壹年伍月日…’로 文記되고 있으나, 書誌記述法에 따라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으로 標目함.

受給者: 鄭[某].

執筆者: 金倦.

文 字: 草書, 吏讀.

原 文: 洪武參拾壹(1398)年伍月日前高靈監務金黽子孫者亦一會爲文而□□□服□前祖邊以傳來告□□□, 奴同三者所生奴莫金及同□三奴者長所生奴其每三者所生婢仇火只者所生奴婢者亦逃亡累代避役而□□□, 丁丑(1397)年分□□□柳軒亦右奴婢居接處者接□□□□五□□乙晉陽府史金□□吏曹典書鄭□□奴婢, 推捉乙□□用力□□官司發告前平州事朴思齊前龍宮監務朱愼奉禮郎金倦等亦奴婢去接處□□□□, 推捉上來等者方用良功勞等差以分執爲齊此府中前興海郡事金習內侍左掌務金革前散員盧湜者等, 服右奴婢推捉次于□用心□□所無去者亦無□官接奴婢推捉事良中身親□□而□爲君□□未用□□, 例以分推□爲□□□□以子孫傳係鎮長□用爲中□美此□中莫金奴□所生奴婢□居接處□□分日□□, 時推捉示乃爲君□□□□用良□□分推永乃去心等事□□□□, 盧, 入內侍前通仕郎都□署令金革[手決], 修義校尉□□□奉禮館金倦[手決], 內侍前宣務郎龍宮監務朱愼[手決], 前承訓郎司憲監察柳軒[手決], 前奉訓郎知興海郡事金習[手決], 前通訓大夫知平州事朴[思齊] 在喪, 嘉善大夫吏曹典書集賢殿直學士 鄭[衿], 前嘉善大夫晉陽大都護府史使金[某](在喪), 後典書鄭衿, 大伊婢美所生奴□法丁 婢仇□加美所生粉加 奴□大美第二所生奴良衣三 等參口印, 筆執金倦[手決]. (□는 未判讀 및 毀損部分)

現 狀: 草書로 작성되어 있으며, 보존상태는 磨滅과 穿孔 및 汚染 등으로 인하여 매우 불량한 상태이다. 이로 말미암아 원문 내용의 판독이 쉽지 않다. 차후에 지류문화재 보존 처리가 요망되는 상태이다.

既指定: 동일 또는 관련 古文書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現狀>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草書와 吏讀로 작성되어 있으며, 磨滅과 穿孔 및 汚染 등으로 인하여 보존상태는 매우 불량한 상태이다. 이로 말미암아 원문 내용의 판독이 쉽지 않다. 차후에 지류문화재 보존 처리가 요망되는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洪武 31년(1398, 태조 7) 5월에 작성된 노비문서로 捕捉한 逃亡奴婢를 高靈監務 金黽의 친가·외가의 자손들이 한자리에 모

여서 捕捉의 功勞에 따라서 차등있게 分執한 和會文記의 일종이다.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의 내용은 크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문단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원인과 도망간 노비를 분집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둘째 문단에는 盧[湜]·金革·金倦·朱愼·柳軒·金習·朴[思齊]·鄭[某]·金[某] 등 분집자 9명의 품계와 관직명 그리고 성명과 手決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셋째 문단에는 문서의 주인공인 吏曹典書 鄭[某]의 分執 몫인 노비 3口의 이름이 적혀 있다.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의 집필자는 분집자 9명 중의 한 사람인 金倦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財主(奴婢主)인 고령감무 金暉의 자손들이 추착한 도망노비를 공로에 따라 분집한 문서로 盧[湜]·金革·金倦·朱愼·柳軒·金習·朴[思齊]·鄭[某]·金[某]의 9명이 각기 1매씩 가졌던 것 가운데 吏曹典書 鄭[某]가 가졌던 文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직계 조상의 노비를 내·외의 자손들이 분집한 것이므로 所志와 立案이 첨부되지 않은 私文書이며, 분집한 노비를 국가로부터 확인받기 위하여서는 관에 신고하여 立案을 받아야 하나 이와 관련된 문서는 전하지 않고 있다.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의 대체적인 내용은 太祖 7년(1398) 5월 前 고령감무 김민 자손 등이 모여 前代의 [金]祖邊으로부터 傳襲된 도망노비를 金化(철원)의 官에서 추쇄한 內譯과 이에 참여하여 공로가 있는 盧[湜]·金革·金倦·朱愼·柳軒·金習·朴[思齊]·鄭[某]·金[某]의 9명에게 그 몫을 분배한 사실이 적기되어 있다. 도망노비는 前代 [金]祖邊으로부터 傳襲된 奴 同三의 소생 奴 莫金 및 同三의 長所生 奴 其每의 3소생 婢 仇火只의 소생노비들이 도망가 累代도록 피역을 하였다. 그런데 1397년 前監務 柳軒이 도망노비의 居接處를 탐문해 招尋하고 있을 때 진양부사 金[某]와 이조전서 鄭[某]가 상기 노비를 포착하기 위하여 노력 끝에 官司에 고발하였다. 이어 前平州事 朴思齊와 前 용궁감무 朱愼 및 奉禮郎 金倦 등이 몸소 추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잡아 온 공로의 多少에 따라 분집한 가운데 前 興海郡事 金習, 內侍左掌務 金革, 前 散員 盧湜 등은 추쇄할 때 직접 현장에 갔으므로 例에 따라 분집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 그러므로 자손에 傳繼시켜 오래도록 사용할 것이며, 이 중에 奴 莫金의 소생노비는 거접처를 몰라 執捉하지 못하였으므로 분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에 기록된 관련 인물은 비교적 고관인 吏曹典書 鄭[某]와 晉陽大都護府使인 金[某]는 姓字로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7명도 姓名은 기록되어 있으나 미관 한직인 까닭에 인물과 관련된 가계를 추적하기가 어렵다.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구입된 것으로 여겨져 그 출처를 상세히 알 수도 없다. 다만 문서의 내용이나 吏讀의 사용법과 관련 인물들의 관직명으로 보아 太祖 7년(1398)에 작성된 도망노비 推捉의 分執文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1) 현존하는 노비문서 가운데 비교적 독특한 문서로 14세기 말에 작성된 것으로 공민왕 3년(1354)에 작성된 尹光暉의 노비문서(보물)를 제외하면 조선 초기의 노비문서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2) 도망노비의 推刷·捕捉의 과정과 포착공로에 따라 노비를 분집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3) 또한 당시 노비문서에 사용된 吏讀의 使用法이나 용어 및 문서의 양식적인 면에서 역사성과 희귀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14세기 말의 노비도망과 推捉問題, 도망노비의 分執 등 노비의 문제와 社會史·官制史 및 手決 등의 연구에 자료적인 가치가 결단코 낮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나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1) 磨滅과 穿孔 및 汚染 등으로 인하여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이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는 하나 정확한 원문 내용의 판독이 쉽지 않다는 점, (2) 草書에 吏讀가 섞여 작성된 문서라 이두의 해독과 더불어 탈초작업이 필요한 점, (3) 分執文書라 所志와 立案이 첨부되지 않은 私文書라는 점은 수긍되나, 관아의 신고에 사용된 立案 등과 관련된 문서가 전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문서의 가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吏讀·古文書 등과 관련된 학회의 학술대회를 통한 공정한 평가가 도출되고 그 결과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가치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권고될 때 再論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현재 지정신청의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와 동일한 고문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金暉 子孫 等發給], [盧[湜]·金革·金倦·朱愼·柳軒·金習·朴[思齊]·鄭[某]·金[某] 等受給], 金倦 執筆,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 筆寫物. [高靈], [金倦], [朝鮮 太祖 7(1398) 推定].
- 경상북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상북도 안동, 2021.

- 경상북도지사, 「검토의견서」, 경상북도 안동, 2021.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조사보고서(장인진·이수환·정우락)」, 경상북도 안동, (보고서 작성일자 불명).
- 尹炳泰 編, 『韓國古書整理法研究』, 서울, 利久出版社, 1983.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현 상

<書誌 記述>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 / [金暉 子孫 等發給] ; [盧[湜]·金革·金倦·朱愼·柳軒·金習·朴[思齊]·鄭[某]·金[某] 等受給] ; 金倦 執筆. -- 筆寫物. -- [高靈] : [金倦], [朝鮮太祖 7(1398) 推定].

單張物(1枚) : 全葉 19行 1~47字數不定 ; 55.0×44.0cm. 韓紙. 草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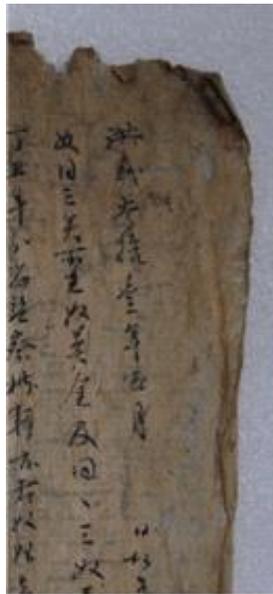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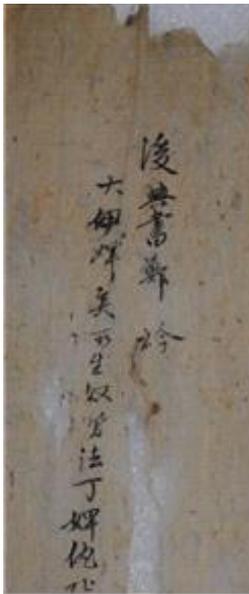
[標目] : ‘洪武參拾壹年伍月日…’로 文記되고 있으나, 書誌記述法에 따라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으로 標目함.

受給者 : 鄭[某].

執筆者 : 金倦.

<現狀>

조사본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2003년 대구화랑(김항희)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구입 당시의 명칭은 「奴婢文書」라고 하였다. 문서의 현상은 磨滅과 穿孔 및 汚染 등으로 인하여 매우 불량한 상태이다. 차후에 지류문화재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홍무삼십일년노비문서(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1398년(洪武 31年, 태조 7) 5월에 작성된 노비문서로 포착(捕捉)한 도망노비(逃亡奴婢)를 고령감무(高靈監務) 김민(金暉)의 친가·외가의 자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포착의 공로에 따라서 차등 있게 분집(分執)한 문기(文記)이다.

조선시대 노비의 도망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급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奴婢主들의 인격적 차별대우와奴婢에게 부과된 가중한 貢의 부담은 직접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분질서의 문란과奴婢들의 의식의 성장도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문서의 본문은 전체 8행으로 ‘洪武三十一年’이라는 작성 시기를 기필(起筆)로 하여 결사(結辭)를 ‘下執永乃去心等事□□□在’이라 끝맺고 있다.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洪武參拾壹年伍月日前高靈監務金暉子孫等亦一會爲文爲證□□服□前祖邊以傳來告□□□」 奴同三者所生奴莫金及同□三奴者長所生奴其每三者所生婢仇火只者所生奴婢者亦逃亡累代避役爲□立□□」 丁丑年兮前監察柳軒亦右奴婢居接處者接□□□□爲□□乙晉陽府史金 吏曹典書鄭 □□奴婢」 捉事乙證須用力官司發告前平州事朴思齊前龍宮監務朱愼奉禮郎金倦等亦奴婢去接處□□□□」 推捉上來爲乎等用良功勞等差以分執爲齊此亦中前興海郡事金習內侍左掌務金革前散員盧湜等□」 服右奴婢推捉次于□用心爲乎所無去者而亦金□官接奴婢推捉事良中身親下去爲良內乙等用良」 例以分執爲去乎在等以子孫傳係鎮長□用爲乎矣此□中莫金奴□所生奴婢服接處內乙良兮□□」 時推提示乃爲良證乎等用良并下執永乃去心等事□□□在

문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太祖 7년(1398) 5월 前 고령감무 김민 자손 등이 모여 前代의 [金]祖邊으로부터 傳襲된 도망노비를 金化(철원)의 官에서 추쇄한 內譯과 이에 참여하여 공로가 있는 盧[湜]·金革·金倦·朱愼·柳軒·金習·朴[思齊]·鄭[某]·金[某]의 9명에게 그 몫을 분배한 사실이다. 도망노비는 前代 [金]祖邊으로부터 傳襲된 奴 同三의 소생 奴 莫金 및 同三의 長所生 奴 其每의 3소생 婢 仇火只의 소생 노비들이 도망가 累代도록 피역을 하였다. 그런데 1397년 前監務 柳軒이 도망노비의 居接處를 탐문해 招尋하고 있을 때 진양부사 金[某]와 이조전서 鄭[某]가 상기 노비를 포착하기 위하여 노력 끝에 官司에 고발하였다. 이어 前平州事 朴思齊와 前 용궁감무 朱愼 및 奉禮郎 金倦 등이 몸소 추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잡아 온 공로의 多少에 따라 분집한 가운데 前 興海郡事 金習, 內侍左掌務 金革, 前 散員 盧湜 등은 추쇄할 때 직접 현장에 갔으므로 예에 따라 분집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 그러므로 자손에 傳繼시켜 오래도록 사용할 것이며, 이 중에 奴 莫金의 소생 노비는 거접처를 몰라 執捉하지 못하였으므로 분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서의 본문 이후에는 분집자인 金倦·朱愼·柳軒·金習·朴[思齊]·鄭[某]·金[某] 등 9명의 품계와 관직명 그리고 성명과 手決 등이 첨부되어 있다. 기록된 관련 인물은 비교적 고관인 吏曹典書 鄭[某]와 晉陽大都護府使인 金[某]는 姓字로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7명도 姓名은 기록되어 있으나 상세한 가계와 행적은 확인하기 어렵다.

문서의 끝부분에는 행을 달리 하여 吏曹典書 鄭[某]의 分執 몫인 노비 3口의 이름이 적혀 있고, 집필자인 金倦의 서명과 수결로 마무리되었다.

이를 통하여 조사본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財主(奴婢主)인 고령감무 金颯의 자손들이 추쇄한 도망노비를 공로에 따라 분집한 문서로 盧[湜]·金革·金倦·朱愼·柳軒·金習·朴[思齊]·鄭[某]·金[某]의 9명이 각기 1매씩 가졌던 것 가운데 吏曹典書 鄭[某]가 가졌던 文記였음을 알 수 있다.

○ 지정사례

- 조사본 「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와 유사한 고문서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참고문헌

- 경상북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상북도 안동, 2021.
- 경상북도지사, 「검토의견서」, 경상북도 안동, 2021.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조사보고서(장인진·이수환·정우락)」, 경상북도 안동, (보고서 작성일자 불명).



○ 현 상

<서지사항>

- 서명: 홍무삼십일년노비문서(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
- 집필자: 김권(金倦).
- 판본: 필사본.
- 필사 시기: 1398년(조선 태조 7) 5월 추정(“洪武參拾壹年伍月日”).
- 1매, 19행 1~47자(자수부동(字數不同)), 55.0×44.0cm, 한지.

<현상>

지정신청의 「홍무삼십일년노비문서」는 초서(草書)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일반적인 고문서들과 마찬가지로 이두(吏讀)가 혼용되어 있다. 문서의 변색이 심하고 여러 부분이 마멸되거나 손상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며, 이에 따라 판독이 어려운 글자들도 많이 있다.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 및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지정신청된 「홍무삼십일년노비문서(洪武三十一年奴婢文書)」는 1398년(조선 태조 7) 5월에 작성된 문서로, 전(前) 고령 감무(高靈監務) 김민(金暉)의 친가 및 외가 자손들이 이전에 도망했던 노비들을 찾아내어 잡은 후에 노비 추쇄의 공로에 따라 차등 있게 분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자손들 간의 재산 분배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화회문기(和會文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화회문기는 채주(財主)가 생전에 자손들에 대한 재산 분배를 확정하지 않아서 채주 사후에 자손들이 화회(和會, 합의)에 의해 유산을 나눈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화회문기는 관서(官署: 관청의 확인)이 필요 없고 그 자체로 완전한 분재문서(分財文書)가 된다. 화회문기에는 상속에 참여한 각 사람들이 분배받은 재산의 내역을 상속인 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록하였으며, 상속인들의 착명(着名)을 필요로 하였다. 또 상속인의 수효대로 문기를 작성해서 한 부씩 보관하도록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마다 그 문서를 소지할 상속인의 이름을 써넣기도 하였다.

지정신청된 「홍무삼십일년노비문서」의 내용을 보면, 먼저 첫 부분에는 1398년 5월에 김민의 자손들이 전대(前代) 조부 측으로부터 전수된 노비 중 도망한 이들을 김화(金化)에서 추쇄한 과정과 노비 추쇄에 참여한 자손들이 공에 따라 노비들을 나누어 갖기로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노비 추쇄와 분배에 참여한

후손 9명의 품계와 관직명, 성명, 수결(手決) 등이 수록되어 있다. 9명의 후손은 노[식](盧[湜])·김혁(金革)·김권(金倦)·주신(朱愼)·유현(柳軒)·김습(金習)·박[사제](朴[思齊])·정[모](鄭[某])·김[모](金[某]) 등이며, 이 중에서 김권이 본 문서를 집필하였다. 그 다음에는 노비를 분배받은 9명 중 한 사람인 이조전서(吏曹典書) 정[모]가 분배받은 노비 3구(口)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를 볼 때 본 문서는 노비 분배받은 9명이 각기 한 장씩 가졌던 문서 중에서 정[모]가 소장했던 문서로 판단된다. 마지막에는 본 문서를 집필한 김권의 이름과 수결이 수록되어 있다.

본 문서에 기록된 노비 추쇄 및 분배 과정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대(前代) 조부 측으로부터 전수받은 노(奴) 동삼(同三)의 소생 노(奴) 막금(莫金)과 동삼(同三)의 장소생(長所生) 노 기매(其每)의 3소생인 비(婢) 구화지(仇火只)의 소생 노비들이 도망하여 여러 대 동안 역(役)을 회피하였다. 그런데 1397년에 전(前) 감무 유현(柳軒)이 도망 노비의 거주지를 탐문하였고, 진양 부사(晉陽府使) 김[모]와 이조전서 정[모]도 도망 노비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 끝에 김화(金化, 철원)의 관아에 이들을 고발하였다. 이어 전(前) 평주사(平州事) 박사제와 전(前) 용궁 감무(龍宮監務) 주신, 봉례랑(奉禮郎) 김권 등이 직접 추쇄를 벌여 도망 노비들을 체포하였다. 이어 노비들을 추쇄에 기여한 공의 다소(多少)에 따라 나누었으며, 추쇄 현장에 참여했던 전(前) 흥해군사(興海郡事) 김습, 내시좌장무(內侍左掌務) 김혁, 전(前) 산원(散員) 노식(盧湜) 등도 분배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 한편 노 막금의 소생 노비는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추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정신청된 「홍무삼십일년노비문서」는 현전하는 노비 관련 문서로는 매우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도망한 노비를 추쇄하여 다시 분배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라는 점, 여말선초 문서 양식이나 이두 사용법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사(社會史), 신분사(身分史) 및 국어학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문서는 전체적으로 마멸과 손상, 변색 등이 심하여 보존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이 때문에 문서 원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또 문서의 기재 내용도 일반적인 화회문기와 차이가 있다. 즉 조선시대 고문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화회문기는 재산 분배에 참여한 상속자들이 받은 재산의 내역을 상속인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록하고, 그다음에 상속자들의 이름과 수결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본 문서는 노비 추쇄 경위를 기록한 다음 추쇄에 참여하여 노비를 분배받은 9명의 이름과 수결을 먼저 수록했고 그 뒤에 9명 중 한 사람인 정[모]가 분배받은 노비의 수를 기재하였다. 또 정[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이 분배받은 노비 내역은 빠져 있다. 이처럼 본 문서는 일반적인 화회문기와는 기록 방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정신청된 「홍무삼십일년노비문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고문서 및 국어학 연구자와 관련 학회의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본 문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할 만한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도출되면 그때 다시 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경상북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상북도 안동, 2021.
- 경상북도지사, 「검토의견서」, 경상북도 안동, 2021.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조사보고서(장인진·이수환·정우락)」, 경상북도 안동, (보고서 작성일자 불명).
- 尹炳泰 編, 『韓國古書整理法研究』, 서울, 利久出版社, 1983.
- 崔承禧 著, 『(증보판)韓國古文書研究』,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16. 천순3년총마계 (天順三年驄馬契)

가. 검토사항

‘천순3년총마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천순3년총마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10.2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2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천순3년총마계(天順三年驄馬契)
- 소유자(관리자) : ***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 수 량 : 1축(軸)
- 규 격 : 세로 74.0cm, 가로 43.0cm
- 재 질 : 종이(紙), 명주(絹)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459년(조선 세조 5) 추정



<친순3년총마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指定 價値>

지정신청의 「天順三年驄馬契」는 世祖 5年(1459) 2월에 사헌부 감찰 丁克仁·孫億·吳尙文·柳承祖·尹欽·尹沂·許薰·朴繼姓·朴季叟·兪希益·趙怡·閔處寧·金石通·金養中·鄭垠·尹起礪·柳浚·權仲麟·李克基·權徵·宋克昌·朴楣·朴輪·魚有沼·安溫泉 등 25명의 계획과 관련 문서로, 비록 ‘圖繪’의 부분은 없으나 ‘誓詞’와 ‘座目’을 통하여 사헌부 감찰의 기능과 책무, 契員의 우의와 친목을 다짐하는 우의, 계원의 품계와 관직 및 품계에 따른 行守法 등이 적용되고 본관과 父의 품계, 관직명 등이 상세히 기록된 점에서 세조 5년(1459) 2월을 전후한 당시의 제도사·사회사 연구 등에 귀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후대의 보수과정에서 원본의 상태를 지나치게 훼손시킨 점이 없지 않으며, 현재의 상태에서도 원본의 명주가 박락 또는 탈락된 곳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은 문서의 가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듯하다.

따라서 지정신청의 「天順三年驄馬契」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古文書와 관련된 학회의 학술대회를 통한 공정한 평가가 도출되고 그 결과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가치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권고될 때 再論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根據 基準>

현재 지정신청의 「天順三年驄馬契」와 동일 또는 관련된 고문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지정 가치 미흡)

조사본 「천순삼년총마계(天順三年驄馬契)」는 世祖 5年(1459) 2월에 사헌부 감찰 정극인(丁克仁)·손억(孫億)·오상문(吳尙文)·류승조(柳承祖)·윤흙(尹欽)·윤기(尹沂)·허훈(許薰)·박계성(朴繼姓)·박계율(朴季鬲)·유희익(兪希益)·조이(趙怡)·민처영(閔處寧)·김석통(金石通)·김양중(金養中)·정은(鄭垠)·윤기번(尹起蕃)·류준(柳浚)·권중린(權仲麟)·이극기(李克基)·권징(權徵)·송극창(宋克昌)·박미(朴楣)·박윤(朴輪)·어유소(魚有沼)·안온천(安溫泉) 등 25명의 계회와 관련 문서이다.

현재 ‘圖繪’의 부분은 없으며 ‘誓詞’와 ‘座目’이 남아있다. 사헌부 감찰을 역임한 계원의 우의와 친목을 다짐하는 모임을 상징하는 문서로 품계와 관직에 행수법(行守法) 등이 적용되고, 관계 인물들의 본관과 父의 품계, 관직명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다만 유물의 원상은 현존하는 다른 자료와 비교할 때 회도(繪圖)를 비롯하여 원래의 장정 등이 모두 손상 결실된 상태로 마멸과 훼손 및 오염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따라서 조사본 「天順三年驄馬契」는 비록 연대가 앞서는 자료임에는 분명하나 소장 및 전승경위를 알 수 없고,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자료라는 한계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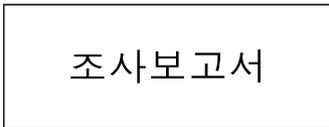
지정신청된 「천순3년총마계(天順三年驄馬契)」는 일반적인 계회도의 형식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내용의 누락이 의심된다. 먼저 상단부에 ‘驄馬契’라는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묵서로 기록된 것을 볼 때 원래 제목이 아니라 나중에 추서(追書)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계회도의 원래 제목 부분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추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제목 아래에는 계회에 참석한 계원(契員)들의 서사(誓詞)와 계회 참석자들의 명단인 좌목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계회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은 빠져 있다. 통상적인 계획도의 제작 방식을 고려할 때 그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림이 실려 있었지만 후대에 자료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신청된 「천순3년총마계」는 완전한 원형을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서사 및 좌목의 내용은 조선 초기 계획 조직이나 사헌부 감찰 운영 등의 실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의 원형이 크게 훼손되어 있으며, 남아 있는 원본 부분도 마멸과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여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논의하기 어려우며, 향후 고문서 연구자 및 관련 학회의 충분한 연구를 통해 본 자료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증명된다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현 상

지정신청의 「天順三年驄馬契」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 記述>

天順三年驄馬契 / [編者 不明] ; [筆寫者 不明]. -- 筆寫物. -- [漢城] : [司憲府], [世祖 5年(1459) 2月日 推定].

單張物(1枚) : 朱絲欄, 上誓詞 14行8~9字數不定, 下座目 25行字數不定 ; 74.0×43.0cm. 絹·紙. 卷軸裝. 行書.

表 題: 驄馬契. (後代 墨書)

誓 詞: 人倫有五朋左[友]居一, 右也者友其德定吾, 儕幸生明時補□□, 拔獲吾霜臺參判百, 司出入連鑣可否相議, 其燠堯遞奏肝膳相, 照非他□朋比專□, 作文以要神明凡我同, 盟各敬爾儀補□□, 仁符之以誠慶而加□□, 四救終始

不渝永以□」好如或有違神□□」之」天順三年二月日。(□부분은 判讀不可)

座 目: 宣敎郎守司憲監察丁克仁 本靈光 父進勇校尉忠武侍衛司忠毅副司直 坤」承議郎司憲監察孫億 本密陽 父通善郎宜寧監務 若水」宣敎郎守司憲監察吳尙文 本咸陽 父進勇副尉虎賁衛後領司正 善良」奉訓郎行司憲監察柳承祖 本文化 -」承義校尉義興衛中部郎攝副司直兼司憲監察尹欽 本永川 父承訓郎樂安敎導 憲」宣敎郎守司憲監察尹沂 本坡東[平] 父奉訓郎富居縣監 漢」宣務郎守司憲監察許薰 本楊州 父中直大夫襄陽都護府使 扉」顯信校尉忠武衛左部攝副司直兼司憲監察朴繼姓 本咸陽 父啓功郎司宰直長 昌孫」承議郎司憲監察朴季曳 本咸陽 父奉直郎歙谷縣令 錦」宣敎郎守司憲監察俞希益 本務安 父進勇副尉 定」顯信校尉行忠武衛右部攝副司直兼司憲監察趙怡 本淳昌 父折衝將軍 頊」奉直郎□司憲監察閔處寧 本驪興 父通政大夫判奉常寺事 犀角」承議郎司憲監察金石通 本慶州 父奉列大夫禮賓少尹 器之」承訓郎司憲監察金養中 本宜仁 父奉直郎文川敎授官 汝弼」奉直郎行司憲監察鄭垠 本晉州 父通善郎守成均司藝知製敎 廣元」承訓郎司憲監察尹起礪 本海平 父修義副尉中軍副司正 登良」□□校尉義□□中部□司直□司憲監察柳浚 本文化 父嘉善大夫中樞院副使 守剛」宣務郎守司憲監察權仲麟 本安東 父奉直郎礪山縣監 孝勁」奉訓郎□司憲監察李克基 本廣州 父通政大夫刑曹參議 禮孫」承訓郎司憲監察權徵 本安東 父增通仕郎守宗簿直長 可礪」承義校尉義□衛右部副司直兼司憲監察宋克昌 本礪山 父啓功郎廣興倉丞 倫」承議郎司憲監察朴楣 本密陽 父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參贊密山君 仲孫」通善郎行司憲監察朴綸 本羅州 父推忠佐翼功臣資憲大夫中樞院使錦川君 薑」奉直郎行司憲監察魚有沼 本翼安 父嘉善大夫中樞院副使得海」宣敎郎守司憲監察安溫泉 本竹山 父綏祿大夫延昌尉 益[孟]聃。(□부분은 判讀不可)

筆寫記: 天順三年二月日.

現 狀: 원문은 絹紙에 墨書한 상태이나 마멸과 훼손 및 오염이 매우 심하며, 후대에 한지로 배접하고 수리하면서 상당량의 帶紙가 잘려 나간 듯하다. 아울러 원래의 원본에는 '圖繪'의 부분이 있었을 것이나, 현재 '圖繪'부분이 없는 것도 후대에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절단되어 나간 듯하다. 차후에 지류문화재 보존을 위한 수리 및 처리가 절실히 요망되는 상태이다.

既指定: 동일 또는 관련 古文書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現狀>

지정신청의 「驄馬契」의 원문은 絹紙에 墨書한 상태이나, 마멸과 훼손 및 오염이

매우 심하며, 후대에 한지로 배접하고 수리하면서 상당량의 帶紙가 잘려 나간 듯하다. 아울러 원래의 원본에는 ‘圖繪’의 부분이 있었을 것이나, 현재 ‘圖繪’부분이 없는 것도 후대에 수리의 과정에서 절단되어 나간 듯하다. 차후에 지류문화재 보존을 위한 수리 및 처리가 절실히 요망되는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驄馬’는 司憲府 監察의 別稱하는 용어로 ‘霜臺’라고도 한다. 驄馬는 後漢朝에 桓典이라는 인물이 侍御史가 되어 항상 푸른 빛에 흰색이 섞인 驄馬를 타고 다녔던 데서 유래된 것이며, ‘霜臺’는 ‘서릿발 같은 紀綱을 중시한다.’라는 의미에서 司憲府 監察을 別稱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사헌부 監察의 품계는 正6品으로 정원은 24명이며 그 책무는 ‘百官을 糾察하고 正風俗·伸冤抑·禁濫僞’ 등을 수행하는 데에 있었다.

‘契會’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모임으로, 고려조와 조선조에는 耆老會를 비롯하여 官衙의 동료들로 이루어진 契會 등이 있었으며, 향약이나 洞契 등도 광의의 契會에 해당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契會’에는 圖繪를 그려 넣는 것이 상례로 여겨져 ‘契會圖’라는 명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司憲府 監察들의 契會圖는 ‘驄馬契會圖’ 또는 ‘霜臺契會圖’라 하는 것이 완전한 명칭일 듯하나, 지정신청의 「天順三年驄馬契」는 최상단부에 ‘驄馬契’라는 후대에 追書된 題名이 墨書되어 있고 상단부에 契員의 誓詞가 기록되어 있으며 하단부에 契員 25명의 座目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圖繪’부분은 후대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절단되어 나간 듯하다.

지정신청의 「天順三年驄馬契」에는 현재 “人倫有五朋左[友]居一 右也者友其德定吾 儕幸生明時補□□ 拔獲吾霜臺參判百 司出入連鑣可否相議 其堽堽遞奏肝膳相 照非他□朋比專□ 作文以要神明凡我同 盟各敬爾儀補□□ 仁符之以誠慶而加□□ 四救終始不渝永以□ 好如或有違神□□ 之 天順三年二月日”의 誓詞와 “宣敎郎守司憲監察丁克仁 本靈光 父進勇校尉忠武侍衛司忠毅副司直 坤 承議郎司憲監察孫億 本密陽 父通善郎宜寧監務 若水 宣敎郎守司憲監察吳尙文 本咸陽 父進勇副尉虎賁衛後領司正 善良 奉訓郎行司憲監察柳承祖 本文化 承義校尉義興衛中部郎攝副司直兼司憲監察尹欽 本永川 父承訓郎樂安教導 憲 宣敎郎守司憲監察尹沂 本坡東[平] 父奉訓郎富居縣監 漢 宣務郎守司憲監察許薰 本楊州 父中直大夫襄陽都護府使 扉 顯信校尉忠武衛左部攝副司直兼司憲監察朴繼姓 本咸陽 父啓功郎司宰直長 昌孫 承議郎司憲監察朴季曳 本咸陽 父奉直郎歙谷縣令 錦 宣敎郎守司憲監察俞希益 本務安 父進勇副尉 定 顯信校尉行忠武衛右部攝副司直兼司憲監察趙怡 本淳昌 父折衝將軍 頊 奉直郎□司憲監察閔處寧 本驪興 父通政大夫判奉常寺事 犀角 承議郎司憲監察金石通 本慶州 父奉列大夫禮賓少尹 器之 承訓郎司憲監察金養

中 本宜仁 父奉直郎文川教授官 汝弼」奉直郎行司憲監察鄭垠 本晉州 父通善郎守成均司藝知製教 廣元」承訓郎司憲監察尹起礪 本海平 父修義副尉中軍副司正 登良」
 □□校尉義□□中部□司直□司憲監察柳浚 本文化 父嘉善大夫中樞院副使 守剛」宣務郎守司憲監察權仲麟 本安東 父奉直郎礪山縣監 孝勁」奉訓郎□司憲監察李克基本廣州 父通政大夫刑曹參議 禮孫」承訓郎司憲監察權徵 本安東 父增通仕郎守宗簿直長 可礪」承義校尉義□衛右部副司直兼司憲監察宋克昌 本礪山 父啓功郎廣興倉丞倫」承議郎司憲監察朴楣 本密陽 父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參贊密山君 仲孫」通善郎行司憲監察朴綸 本羅州 父推忠佐翼功臣資憲大夫中樞院使錦川君薑」奉直郎行司憲監察魚有沼 本翼安 父嘉善大夫中樞院副使 得海」宣教郎守司憲監察安溫泉 本竹山 父綏祿大夫延昌尉 益[孟]聃”의 座目만 남아있을 뿐이다.

지정신청의 「天順三年驄馬契」의 座目에는 世祖 5年(1459) 2月 당시의 사헌부 감찰 25명의 品階와 官職·姓名·本貫·父의 품계·관명·[姓]名이 관등의 고하와는 관계 없이 丁克仁·孫億·吳尙文·柳承祖·尹欽·尹沂·許薰·朴繼姓·朴季叟·兪希益·趙怡·閔處寧·金石通·金養中·鄭垠·尹起礪·柳浚·權仲麟·李克基·權徵·宋克昌·朴楣·朴綸·魚有沼·安溫泉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지정신청의 「天順三年驄馬契」의 契員 25명 가운데 대부분은 世祖·睿宗·成宗의 歷朝에서 중견의 관료로 성장하였으며 丁克仁·李克基·魚有沼·朴楣 등은 名臣 또는 고관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본관의 기재도 宜仁(禮安)·翼安(忠州) 등과 같은 이미 廢縣된 본관을 쓰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지정신청의 「天順三年驄馬契」는 원래 絹(명주)에 誓詞와 座目を 縱橫의 朱絲欄 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기재한 것을 후대에 명주를 韓紙로 배접하여 上·下端에 橫木의 軸을 넣은 簇子型이다. 上端의 원형은 탈락되어 후대에 보수된 듯하며, ‘驄馬契’ 3자의 追書를 비롯한 본문의 여러 곳에 보필된 흔적도 이 당시의 것일 듯하다. 원본의 명주는 군데군데 남아 박락 또는 탈락한 곳이 많다.

지정신청의 「天順三年驄馬契」은 비록 ‘圖繪’의 부분은 없으나 ‘誓詞’와 ‘座目’을 통하여 사헌부 감찰의 기능과 책무, 契員의 우의와 친목을 다짐하는 우의, 계원의 품계와 관직 및 품계에 따른 行守法 등이 적용되고 본관과 父의 품계, 관직명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조 5년(1459) 2월을 전후한 당시의 제도사·사회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지정신청의 「天順三年驄馬契」는 후대의 보수과정에서 원본의 상태를 지나치게 훼손시킨 점이 없지 않은 듯하며, 현재의 상태에서도 원본의 명주가 박락 또는 탈락된 곳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은 문서의 가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듯하다.

따라서 지정신청의 「天順三年驄馬契」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古文書와 관련된 학회의 학술대회를 통한 공정한 평가가 도출되고 그 결과

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가치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권고될 때 再論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현재 지정신청의 「天順三年驄馬契」와 동일한 고문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編者 不明], [筆寫者 不明], 「天順三年驄馬契」. 筆寫物. [漢城], [司憲府], [世祖 5年(1459) 2月日 推定].
- 경상북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상북도 안동, 2021.
- 경상북도지사, 「검토의견서」, 경상북도 안동, 2021.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조사보고서(장인진·이수환·정우락)」, 경상북도 안동, (보고서 작성일자 불명).
- 尹炳泰 編, 『韓國古書整理法研究』, 서울, 利久出版社, 1983.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 현 상

<書誌 記述>

天順三年驄馬契 / [編者 不明] ; [筆寫者 不明]. -- 簇子. -- [漢城] : [司憲府], [世祖 5年(1459) 2月日 推定].

1軸 : 朱絲欄, 上誓詞 14行8~9字數不定, 下座目 25行字數不定 ; 74.0×43.0cm. 絹·紙. 卷軸裝. 行書.

表 題: 驄馬契. (後代 墨書)

<現狀>

조사본 「천순삼년총마계(天順三年驄馬契)」는 2003년 대구화랑(김항회)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총마계축(驄馬契軸)」으로 전해진다.

유물의 원상은 현존하는 다른 자료와 비교할 때 회도(繪圖)를 비롯하여 원래의 장정 등이 모두 손상 결실된 상태로 판단된다. 상세한 사정은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의 상태도 마멸과 훼손 및 오염이 매우 심하며, 후대에 한지로 배접하고 수리하면서 상당 부분 잘려 나간 상태이다. 차후에 유물 원상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보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사헌부는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관청으로 ‘상대(霜臺)’·‘오대(烏臺)’·‘백부(柏府)’라고도 불리웠다. 한편 ‘총마(驄馬)’는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에 대한 별칭으로 중국 후한(後漢) 때에 환전(桓典)이라는 인물이 시어사(侍御史)가 되어 항상 푸른 빛에 흰색이 섞인 총마(驄馬)를 타고 다녔던 데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계회(契會)’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모임으로, 고려조와 조선조에는 기로회(耆老會)를 비롯하여 관아의 동료들로 이루어진 계회 등이 많았다. ‘계회도(契會圖)’는 모임 장면을 그려 넣고, 모임에 참석한 이들의 좌목을 기록하여 기념으로 남긴 것이다.

조사본 「천순삼년총마계」는 최상단부에 ‘驄馬契’라는 墨書가 쓰여 있으나, 장황과의 현상으로 볼 때 후대에 추서(追書)된 것이다.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상단과 하단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상단에는 계원(契員)의 서사(誓詞)를 기록하였고, 하단에는 주사란(朱絲欄)으로 변란과 계선을 그려 넣고 2단의 구성으로 윗부분에는 계원 25명의 品階와 官職·姓名·本貫 그리고 하단에는 父의 品階·관명·[姓]名 등을 기록하였다.

모임에 참여한 계원 25인은 관등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기록되었다. 가장 우측에 있는 정극인(丁克仁)으로부터 손억(孫億)·오상문(吳尙文)·류승조(柳承祖)·윤흠(尹欽)·윤기(尹沂)·허훈(許薰)·박계성(朴繼姓)·박계율(朴季鬻)·유희익(兪希益)·조이(趙怡)·민처영(閔處寧)·김석통(金石通)·김양중(金養中)·정은(鄭垠)·윤기변(尹起礪)·류준(柳浚)·권중린(權仲麟)·이극기(李克基)·권징(權徵)·송극창(宋克昌)·박미(朴楣)·박윤(朴綸)·어유소(魚有沼)·안온천(安溫泉)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세조·예종·성종대에 중견의 관료로 성장하였으며 정극인·이극기·어유소·박미 등은 고관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서사(誓詞)와 좌목(座目)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人倫有五朋[友]居一」 有也者友其德定吾」 儕幸生明時補□□」 拔獲吾霜臺參判百」 司出入連鑣可否相議」 其堦堦遞奏肝膳相」 照非他□朋比專□」 作文以要神明凡我同」 盟各敬爾儀補□□」 仁符之以誠慶而加□□」 四救終始不渝永以□」 好如或有違神□□」 之」 天順三年二月日

宣敎郎守司憲監察丁克仁 本靈光 父進勇校尉忠武侍衛司忠毅副司直 坤
承議郎司憲監察孫億 本密陽 父通善郎宜寧監務 若水
宣敎郎守司憲監察吳尙文 本咸陽 父進勇副尉虎賁衛後領司正 善良
奉訓郎行司憲監察柳承祖 本文化

承義校尉義興衛中部郎攝副司直兼司憲監察尹欽 本永川 父承訓郎樂安教導 憲
 宣敎郎守司憲監察尹沂 本坡東[平] 父奉訓郎富居縣監 漢
 宣務郎守司憲監察許薰 本楊州 父中直大夫襄陽都護府使 扉
 顯信校尉忠武衛左部攝副司直兼司憲監察朴繼姓 本咸陽 父啓功郎司宰直長 昌孫
 承議郎司憲監察朴季曳 本咸陽 父奉直郎歙谷縣令 錦
 宣敎郎守司憲監察俞希益 本務安 父進勇副尉 定
 顯信校尉行忠武衛右部攝副司直兼司憲監察趙怡 本淳昌 父折衝將軍 頊
 奉直郎□司憲監察閔處寧 本驪興 父通政大夫判奉常寺事 犀角
 承議郎司憲監察金石通 本慶州 父奉列大夫禮賓少尹 器之
 承訓郎司憲監察金養中 本宜仁 父奉直郎文川教授官 汝弼
 奉直郎行司憲監察鄭垠 本晉州 父通善郎守成均司藝知製敎 廣元
 承訓郎司憲監察尹起礪 本海平 父修義副尉中軍副司正 登良
 □□校尉義□□中部□司直□司憲監察柳浚 本文化 父嘉善大夫中樞院副使 守剛
 宣務郎守司憲監察權仲麟 本安東 父奉直郎礪山縣監 孝勁
 奉訓郎□司憲監察李克基 本廣州 父通政大夫刑曹參議 禮孫
 承訓郎司憲監察權徵 本安東 父增通仕郎守宗簿直長 可磁
 承義校尉義□衛右部副司直兼司憲監察宋克昌 本礪山 父啓功郎廣興倉丞 倫
 承議郎司憲監察朴楣本密陽 父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參贊密山君仲孫
 通善郎行司憲監察朴綸 本羅州 父推忠佐翼功臣資憲大夫中樞院使錦川君 薑
 奉直郎行司憲監察魚有沼 本翼安 父嘉善大夫中樞院副使 得海
 宣敎郎守司憲監察安溫泉 本竹山 父綏祿大夫延昌尉 益[孟]聃

조사본 「천순삼년총마계」는 비록 ‘圖繪’의 부분은 없으나 ‘誓詞’와 ‘座目’을 통하여 사헌부 감찰의 기능과 책무, 계원의 우의와 친목을 다짐하는 우의, 계원의 품계와 관직 및 품계에 따른 행수법(行守法) 등이 적용되고 본관과 父의 품계, 관직명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조 5년(1459) 2월을 전후한 당시의 제도사·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다만 유물의 원상은 현존하는 다른 자료와 비교할 때 회도(繪圖)를 비롯하여 원래의 장정 등이 모두 손상 결실된 상태로 마멸과 훼손 및 오염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따라서 조사본 「天順三年驄馬契」는 비록 연대가 앞서는 자료임에는 분명하나 소장 및 전승경위를 알 수 없고,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자료라는 한계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 보물 총마계회도(밀양박씨지산경수공파종중/국립나주박물관, 2011.09.05.지정).

○ 참고문헌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조사보고서(장인진·이수환·정우락)」, 경상북도 안동, (보고서 작성일자 불명).



○ 현 상

<서지사항>

- 서명: 천순삼년총마계(天順三年驄馬契).
- 편저자·필사자: 미상.
- 판본: 필사본.
- 필사 시기: 1459년(세조 5) 2월 추정(“天順三年二月日”).
- 1매, 주사란(朱絲欄), 상단 서사(誓詞) 14행 8~9자(자수부동(字數不同)), 하단 좌목(座目) 25행 자수부동; 74.0×43.0cm, 비단[絹]·종이, 권축장(卷軸裝).
- 표제: 驄馬契(후대에 묵서(墨書)).

<현상>

자료의 마멸과 손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수리 및 보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자료의 원본에서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 묵서로 기록된 제목은 원래 제목 부분이 잘려져 없어졌기 때문에 후대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 통상적인 계회(契會)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계회도(契會圖)가 없는 것 역시 원본의 부분 유실로 볼 수 있으며, 후대에 배접하는 과정에서 여백 부분의 상당량이 잘려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자료의 원형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 내용 및 특징

‘총마(驄馬)’는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관직인 감찰(監察)의 별칭이다. 사헌부는 언론 활동과 풍속 교정, 백관(百官)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감찰 기관이었다. 신라시대에는 사정부(司正府)·내사정전(內司正典) 등의 감찰 기

관이 있었으며, 고려에서는 사헌대(司憲臺)·금오대(金吾臺)·어사대(御史臺)·감찰사(監察司) 등으로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다가 공민왕 때 사헌부로 개칭되었고, 이것이 조선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조선시대 사헌부에는 대사헌(大司憲, 종2품 1명), 집의(執義, 종3품 1명), 장령(掌令, 정4품 2명), 지평(持平, 정5품 2명), 감찰 등의 직책이 설치되었는데, 이 중 감찰은 중앙 관서나 지방에 파견되어 관리들의 업무 처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감찰관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정원은 24명이었다.

‘계회(契會)’는 풍류를 즐기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된 모임으로, 만 70세 이상의 원로 사대부로 구성된 기로회(耆老會)·기영회(耆英會), 나이가 동갑인 사람들이나 같은 관서에서 근무한 동료 관원들로 이루어진 계회 등이 있었다. 계회를 갖는 경우 이를 기념하고 기록할 목적으로 계회도(契會圖)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계회도는 계회 참가자의 수만큼 그려서 참가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각자의 가문에 보관하였다. 계회도에는 통상적으로 ‘○○계회도’라는 형식으로 계회 명칭을 적은 표제(標題), 계회의 모습을 그린 그림, 계회의 취지를 기록한 글, 계회 참가자들의 이름과 자(字)·호(號)·본관 및 계회 당시 품계와 관직명 등을 기록한 좌목(座目) 등이 수록되었다.

이상과 같은 계회도의 일반적인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지정신청된 「천순3년총마계(天順三年驄馬契)」는 상당한 내용의 누락이 의심된다. 먼저 상단부에 ‘驄馬契’라는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서로 기록된 것을 볼 때 원래 제목이 아니라 나중에 추서(追書)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계획도의 원래 제목 부분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추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제목 아래에는 계회에 참석한 계원(契員)들의 서사(誓詞)와 계회 참석자들의 명단인 좌목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계획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은 빠져 있다. 통상적인 계획도의 제작 방식을 고려할 때 그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림이 실려 있었지만 후대에 자료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신청된 「천순3년총마계」의 좌목에는 1459년(세조 5) 2월 계회에 참석한 사헌부 감찰 25명의 품계·관직·성명·본관과 아버지의 품계·관직·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계회 참석자 25인은 정극인(丁克仁), 손억(孫億), 오상문(吳尙文), 유승조(柳承祖), 윤흠(尹欽), 윤기(尹沂), 허훈(許薰), 박계성(朴繼姓), 박계율(朴季鬲), 유희익(兪希益), 조이(趙怡), 민처령(閔處寧), 김석통(金石通), 김양중(金養中), 정은(鄭垠), 윤기번(尹起蕃), 유준(柳浚), 권중린(權仲麟), 이극기(李克基), 권징(權徵), 송극창(宋克昌), 박미(朴楣), 박륜(朴輪), 어유소(魚有沼), 안온천(安溫泉) 등이다.

지정신청된 「천순3년총마계」는 완전한 원형을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서사 및 좌목의 내용은 조선 초기 계회 조직이나 사헌부 감찰 운영 등의 실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의 원형이 크게 훼손되어 있으며, 남아 있는 원본 부분도 마멸과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여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논의하기 어려우며, 향후 고문서 연구자 및 관련 학회의 충분한 연구를 통해 본 자료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증명된다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경상북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상북도 안동, 2021.
- 경상북도지사, 「검토의견서」, 경상북도 안동, 2021.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조사보고서(장인진·이수환·정우락)」, 경상북도 안동, (보고서 작성일자 불명).
- 尹炳泰 編, 『韓國古書整理法研究』, 서울, 利久出版社, 1983.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법령자료집: <https://db.history.go.kr/law>

17. 복재선생집 (復齋先生集)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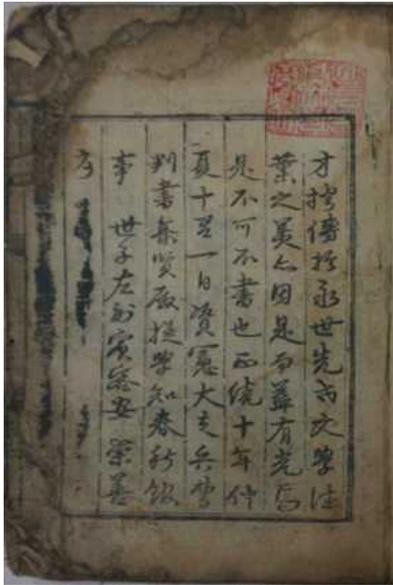
‘복재선생집’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복재선생집’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 1.2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6.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복재선생집(復齋先生集)
- 소유자(관리자) : 국유(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 수 량 : 2권 1책
- 규 격 : 세로 30.5cm, 가로 19.5cm
- 재 질 : 한지
- 판 종 : 목판본(初刊本)
- 형 식 : 선장(線裝, 改裝)
- 조성연대 : 1446년(조선 세종 28) 판각 및 인출
- 제작자 : 정충(鄭攄)



<복재선생집>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조사 대상의 경상국립대학교 소장 『복재선생시고』 2권 1책은 서문 제1장의 앞면이 탈락된 영본이며, 본문의 일부도 훼손·마모되어 있는 등 완전성에서 제한적인 상태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인출·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더구나 초판본이며, 현재까지 동일 판본은 확인되지 않는 유일본으로 자료적인 희소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판본과 동일 시기 및 그 이후 간행된 문인지식인의 시문집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사례가 보이며, 역사·문화적인 보편적 가치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정 가치·근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해당 판본에 편입된 내용은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태조실록』 등의 관찬 사서를 보완할 수 있는 동시에, 여말선초의 정치적인 변동과정에서 역사현실도 이해하고, 복재 정충의 문학 성격과 함께 인적 연계망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세종 때 양양도호부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조성조직체계 등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조사 대상의 경상국립대학교 소장 『복재선생시고』 2권 1책은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정 명칭에서 『복재선생집(復齋先生集)』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指定 價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저자의 仲子인 鄭孝忠이 蒐集·編次하고 손자인 鄭沃卿이 편집하여, 강원도 관찰사 李先齊와 都事 鄭浩然 및 襄陽府使 皇甫良의 도움으로 세종 28년(1446)에 강원도 양양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상·하 2卷 1冊의 초간본이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의 저자인 復齋 鄭摠(1358~1397)이 여말선초의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麗末鮮初의 역사적·정치적 사실을 비롯하여 문학과 서지학 등의 연구에는 물론 조선조 초기의 印刷出版文化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이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의 文化偏重의 현상을 벗어나 국민에게 普遍的 文化享有權을 보장하고 나아가 學術的·文化財的 價値와 국가지정문화재 種類의 均衡을 고려할 때,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根據 基準>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지정신청본의 저자인 復齋 鄭摠(1358~1397)이 麗末鮮初의 인물임을 고려할 때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당시의 역사적·정치적 사실을 비롯하여 문학과 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기록유산이며, 나아가 국민의 普遍的 文化享有權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고려할 때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귀중본으로 소장되어 있는 목활자본 『복재집』은 저자의 동생인 鄭擢의 『春谷集』과 아들인 鄭孝文의 『判牧公集』, 曾孫인 鄭永通의 『寺正公集』과 附集하여 후손 鄭岷壽가 1585년 原州에서 木板으로 간행한 중간본이다. 경상대 도서관 소장의 본서는 중간본보다 100년 이상 앞서 간행된 고문집으로 유일본으로 그 가치가 높다. 그러나 본문의 훼손이 일부 심하고 일부 개장 및 수리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기록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적절한 보존처리 및 수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조사 대상의 『복재선생집』 2권 1책은 복재(復齋) 정충(鄭攄)이 지은 시문을 그의 둘째 아들 정효충(鄭孝忠)이 수집·편찬한 다음, 그의 손자 성균관 생원 정옥경(鄭沃卿)이 편집하여 1446년(세종 28)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 지금의 강원도 양양군)에서 조성된 목판으로 후대 찍은 인출본이다. 2007년 12월 경상남도 하동군 거주의 최**씨가 경상국립대학교에 기증한 고서 848점 가운데 한 종류로,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사 대상의 판본은 서문 제1장의 앞면이 탈락되어 있으며, 서문의 나머지 부분과 연보 및 권상의 제1~2장 가운데 본문의 일부 내용도 마모·훼손되어 있다. 표지·표제는 후대 수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습기 흔적도 보인다. 그리고 권상 제21장 및 권하 제5장 등 일부의 장차에서는 본문의 글자가 마모된 상태에서 인출되어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인출·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서지사항>

목판본(木板本 : 1446년 강원도 襄陽都護府 판각, 후대 인출본)

2권 1책 :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 21.3(세로)×14.6(가로)cm/ 유계(有界)/ 반곽 10행16자/ 주소자단행(註小字單行)/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중흑구(中黑口)/ 30.5(세로)×19.5(가로)cm/ 전체 88.5장(서문 2.5장+연보 4장+권상 37장+권하 39장+복재기 3장+교서 2장+발문·간행정보 1장 : 서문 제1장 앞면 탈락)

표지제목 : 復齋先生詩藁 單(후대 목서).

권 수 제 : 復齋先生詩藁(권상)/ 復齋先生遺藁(권하).

편집정보 : 孫成均生員鄭沃卿編輯謹書(권하 제39장).

관 심 제 : 序/ 年譜·譜年(연보)/ 詩(권상)/ 文(권하)/ 記(복재기)/ 教(교서)/ 尾(발문·간행정보).

권 미 제 : 復齋先生詩藁(권상)/ 復齋先生遺藁(권하).

구성체계 : 서문([復齋先生遺藁序])-연보(復齋先生年譜)-권수제-본문내용-권미제-
편집정보-복재기(復齋記：李陶隱作)-교서(鄭摠開國功臣教書)-발문(皇甫
良謹跋)-간행정보.

서 문 : [復齋先生遺藁序]

.....

是不可不書也正統十年(1445년 : 세종 27)仲
夏十有一日資憲大夫兵曹
判書集賢殿提學知春秋館
事 世子左副賓客安 崇善
序

발 문 :

傳曰君子之思必成文觀其復齋集
誠君子所蘊之思所著之文而醞郁
咀華閑中肆外可謂儒林之師範也
歲在丙寅春其子上將孝忠欲以是
集刊行于世將送奉道監司李公先
齊都事鄭浩然以遂厥志不賴民力
鳩梓募工俾予監督予以不才方其
農隙勸課鋟手不闕月而告訖嘻孝
忠爲親敬慕之志既切而李鄭兩公
右文之意亦至垂萬世而不朽也必
矣正統十一年丙寅(1446년 : 세종 28)秋八月日[奉正]
大夫守襄陽都護府使兼勸農兵馬
團鍊使皇甫良 謹跋

간행정보 :

僧 惠環

記官 自平

刻手記官 李根

校正成均進士金 從知(尾 제1장)

○ 내용 및 특징

『복재집』 등으로도 부르는 『복재선생집(復齋先生集)』은 공민왕 때 과거시험에 합격하였다가 우왕 때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낸 청주(淸州) 정씨 원재(圓齋) 정공권(鄭公權·鄭樞)의 아들로, 고려 우왕 2년(1376) 음력 5월 지공거 홍중선(洪仲宣)

및 동지공거 한수(韓脩)가 주도한 과거시험에 합격한 다음 조선 태조 때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 책봉되고 정당문학을 역임한 문신관료 복재(復齋) 정충(鄭攄)이 지은 시문집이다. 복재의 둘째 아들 정효충(鄭孝忠)이 유고를 수집·편차하였다가 그의 손자 성균관 생원 정옥경(鄭沃卿)이 2권으로 편집하여 1446년(세종 28)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 지금의 강원도 양양군)에서 목판으로 조성된 초판본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간행 미상의 중간본·필사본 등이 확인된다.

조사 대상의 『복재선생집』 2권 1책은 복재의 손자 성균관 생원 정옥경이 편집하여 1446년 양양도호부에서 조성된 목판을 후대 찍은 인출본으로, 서문 제1장의 앞면이 탈락된 영본(零本)이다. 조사 대상의 판본은 광곽이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본문과 본문 사이에는 계선(界線)이 있는 유계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10행16자이며, 주소자단행(註小字單行)의 형태이다. 판심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중흑구(中黑口)의 형태이며, 상하의 어미 사이에는 판심제·장차가 표기되어 있다. 두 종류의 표지 안에 권상·하 2권의 전체 88.5장이 오침안정법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서문(〔復齋先生遺藁序〕)-연보(復齋先生年譜)-권수제-본문내용-권미제-편집정보-복재기(李陶隱作)-교서(鄭攄開國功臣教書)-발문(皇甫良謹跋)-간행정보의 순서로 구성·배열되어 있다. 밖의 앞표지에는 표지제목이 후대에 復齋先生詩藁 單이라는 내용으로 묵서되어 있으며, 안의 앞 앞표지에는 오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권수제는 권상이 復齋先生詩藁이며, 권하가 復齋先生遺藁이다. 권수제의 아래에는 卷之上·卷之下와 같이 권차의 상·하가 표기되어 있다. 권하 제39장의 권미제 다음에는 편집정보가 孫成均生員鄭沃卿編輯謹書처럼 복재 정충의 손자 성균관 생원 정옥경이 편집하였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판심제는 1445년(세종 27) 음력 5월 안승선(安崇善)이 지은 「복재선생유고서(復齋先生遺藁序)」가 序이며, 「복재선생연보(復齋先生年譜)」가 年譜·譜年이다. 권상의 판심제는 詩이며, 권하는 文이다.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이 지은 「복재기(復齋記)」의 판심제가 記이고, 정충이 받은 개국공신교서는 敎이며, 1446년 음력 8월 황보량(皇甫良)이 지은 발문과 간행정보의 판심제가 尾이다. 서문·연보·권상·권하·복재기·교지·발문의 아래에는 一 등의 장차가 표기되어 있으며, 각각 개별 장차가 분리되어 있다. 권미제는 권상이 復齋先生詩藁이며, 권하가 復齋先生遺藁이다. 권미제의 아래에는 卷之上·卷之下 終과 같이 권차가 연이어 표시되어 있으며, 권하에는 끝(終)도 표기되어 있다.

1446년 음력 8월 수양양도호부사(守襄陽都護府使)·권농병마단련사(勸農兵馬團鍊使) 황보량이 지은 발문에는 『복재선생집』 2권의 간행 경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복재의 아들 상장군 정효충(鄭孝忠)이 1446년 봄 강원도의 감사(監司) 이선제(李先齊) 및 도사(都事) 정호연(鄭浩然)에게 『복재선생집』 2권의 간행을 부탁하였다가 수양양도호부사 황보량의 감독으로 목판의 완성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

고 황보량의 발문 다음에는 간행사업의 실무를 맡은 교·속의 분담 업무와 범명·성명 등이 표기되어 있다. 승려 혜환(惠環)과 함께 기관(記官) 자평(自平), 각수를 맡은 기관 이근(李根), 교정을 전담한 성균진사(成均進士) 출신의 김종지(金從知) 등이 새겨져 있다.

『복재선생집』 권상에는 150제(題) 172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하권에는 「서(序)」 4편, 「기(記)」 2편, 「교서(敎書)」 8편, 「비답(批答)」 2편, 「책문(冊文)」 3편, 「비명(碑銘)」 1편, 「표전(表箋)」 14편, 「제문(祭文)」 4편, 「악장(樂章)」 2편, 「소(疏)」 5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는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태조실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있으므로, 이들 관찬 사서를 보완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내용은 여말선초 정치적인 변동과정에서 역사현실도 이해할 수 있는 원천자료이며, 복재 정충의 문학 성격과 함께 인적 연계망 등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정보이기도 하다.



복재선생집 제1장 앞면 권수제(권상 제1장 앞면) 권미제(권하 제93장 뒷면) 발문(황보량)·간행정보(발문 제1장 뒷면)

<경상국립대학교 소장 「복재선생집」>

○ 지정사례

조사 대상의 경상국립대학교 소장 『복재선생시고』 2권 1책은 1446년(세종 28) 음력 8월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목판을 찍어 만든 인출본으로, 서문 제1장의 앞면이 탈락된 영본(零本)이다. 해당 초간 목판을 찍은 판본은 현재까지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고려 후기~조선 전기 문인지식인으로 활동한 인물들의 개인 시문집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제한적이다.

<표1. 우리나라 詩文集의 문화재 지정 사례>

번호	저·편자	서명	판본	간행시기	지정현황	비고
01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목판본	1251	경북유형	

번호	저·편자	서명	판본	간행시기	지정현황	비고
02	崔 瀧	東人之文四六	목판본	1355	보물	
03	李承休	帝王韻紀	목판본	1360 1413	보물 보물	
04	閔思平	及菴先生詩集	목판본	1370	보물	
05	呂祖謙	近思錄	목판본 금속활자본	1370 1436	보물 보물	
06	鄭 誦	雪谷詩藁	목판본	1376	보물	후쇄본
07	金九容	惕若齋先生學吟集	목판본	1400	보물	후쇄본
08	李崇仁	陶隱先生集	목판본	1406	보물 광주유형	
09	李崇仁	陶隱先生詩集	금속활자본	1407	보물	
10	李 集	遁村雜詠	목판본	1410	보물	
11	權 近	書淺見錄	목판본	1430 이후	보물	
12	權 近	詩淺見錄	목판본	1430 이후	보물	
13	李齊賢	櫟翁稗說	목판본	1432	보물	
14	李奎報	益齋亂藁	목판본	1432	보물	
15	鄭夢周	圃隱詩藁	목판본	1439	보물	초간본
16	權 近	應製詩註	목판본	1446	보물	
17	鄭 摠	復齋先生集	목판본	1446	비지정	초간본 경상대학교 간송미술관
18	權 遇	梅軒先生文集	목판본	1452	비지정	초간본 간송미술관
19	[不明]	夾注名賢十抄詩	목판본	1452	보물	
20	成石璘	獨谷集	목판본	1456	서울유형	
21	鄭道傳	三峯先生集	목판본	1465	보물	후쇄본(1487)
22	成 侃	眞逸遺稿	목판본	1467	보물	
23	徐居正	筆苑雜記	목판본	1469~1494	보물	
24	姜希孟	晉山世稿	목판본	1476	보물	
25	鄭道傳	三峯先生集	목판본	1487	보물	
26	鄭夢周	圃隱詩藁	목판본	1575	비지정	開城本 국학진흥원
27	鄭夢周	圃隱先生集	활자본	1575~1584	비지정	校書館本
28	金時習	梅月堂集	활자본	1583	보물	
29	金時習	梅月堂詩集	활자본	1583	보물	
30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목판본	1585	비지정	西厓校正本
31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목판본	1607	비지정	永川本

번호	저·편자	서명	판본	간행시기	지정현황	비고
32	鄭夢周	圃隱詩藁	목판본	1608	비지정	黃州兵營本 국학진흥원
33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목판본	1662	비지정	奉化本
34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목판본	1677	비지정	丁巳重刊本
35	鄭夢周	圃隱先生集	목판본	1769	비지정	崧陽本
36	鄭夢周	圃隱先生續集	목판본	1769	비지정	續集本
37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목판본	1866	비지정	丁巳重刊本

고려 후기~조선 전기 활동한 문인지식인의 시문집 가운데 현재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25건 정도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역사·문화적인 보편적인 가치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1446년이나 그 이후 간행된 개인의 시문집 가운데 9건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1446년 음력 8월 양양도호부에서 간행된 『복재선생시고』 2권 1책도 학술적·역사적·문화적인 가치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조사 대상의 『복재선생시고』 2권 1책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유일본으로, 자료적인 희소가치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고려사절요』 권30, 우왕 2년 5월.
-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기사 및 권7, 태조 4년 정월 경신.
- 이색(李穡), 「한문경공묘지명병서(韓文敬公墓誌銘并序)」, 『목은문고』 권15, 비명(碑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

○ 현 상

慶尙大學校 소장의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 記述>

復齋先生集 / 鄭摠(1358~1397, 高麗朝~朝鮮朝) 著, 鄭沃卿(?~?, 朝鮮朝) 編輯.
-- 木版本(初刊). -- [江原道 襄陽]: [皇甫良], [世宗 28(1446) 跋].

2卷1冊(88張)：四周雙邊，半郭 21.3×14.6cm，有界，半葉 10行16字 註單行，大黑口，上下內向黑魚尾；30.5×19.5cm. 韓紙. 線裝(五針眼訂法，改裝).

[標目]：卷上の 卷首題는 ‘復齋先生詩藁’로 기록되고 卷下の 卷首題는 ‘復齋先生遺藁’로 기록되어 있으나，書誌記述法에 따라 統一書名 ‘復齋先生集’으로 標目함.

表 題：復齋詩藁. (墨書)

卷首題：復齋先生詩藁(卷上)，復齋先生遺藁(卷下).

版心題：序，年譜，詩，文，記，教，跋.

卷尾題：復齋先生詩藁(卷上)，復齋先生遺藁(卷下).

編 輯：‘孫成均生員沃卿編輯’. (卷下 末尾)

印 文：‘崔增」秀印’. (朱印)

內 容：-序(3張，第1張前面 缺落，上端一部 毀損)，復齋先生年譜(4張，上端一部 毀損)，復齋先生詩藁卷之上(36張，上端一部 毀損)，復齋先生遺藁卷之下(39張，上端一部 毀損)，復齋記(李陶隱，3張)，純忠佐命開國功臣教書(2張)，跋(皇甫良) 및 刊行記錄(1張).

序 文：復齋先生遺藁序：文辭所以吟咏性情以達所」蘊故和順積中而後英華發」外其雄深雅健之辭實根於」元氣則文辭之不可偽爲也」審矣吾舅氏西原君復齋鄭」公生於麗季天資精敏學文」該博早捷魁科遍揚清選贊」我」太祖爲國元勳功在」社稷凡」國家辭命制教事」大之文皆出其手文章道德師」範一時歲在乙亥奉使不還」使經綸之器雄偉之才終不」得大施嗚呼惜哉公仲男上」將孝忠來諗於予曰欲刊先」君遺藁請兄序之仍授一帙」予雖文拙義不敢辭焚香靜」坐披覽數日其辭和而不浮」質而不俚清新出於要妙浩」澗發於深邃愛」君憂國之意藹然溢於俊逸雅」談之間有非詞人韻士所可」髣髴其萬一而誠罕世特達」之奇才也先祖雪谷圓齋父」子之集盛行于世而吾舅氏」夙承庭訓謹守家法著詩若」文又如是我東方文學之士」世不乏人而父子及孫相繼」有集則未之聞也上將拳拳」以圖不朽非唯先君之德之」才控傳於永世先世文學德」業之美亦因是而益有光焉」是不可不書也正統十年仲」夏十有一日資憲大夫兵曹」判書集賢殿提學知春秋館」事 世子左副賓客安崇善(1392~1452)」序。(卷頭)

跋 文：傳曰君子之思必成文觀其復齋集」誠君子所蘊之思所著之文而醞郁」咀華閑中肆外可謂儒林之師範也」歲在丙寅春其子上將孝忠欲以是」集刊行于世將送本道監司李公先」齊都事鄭浩然以遂厥志不賴民力」鳩材募工俾予監督予以不才方其」農隙勸課鋟手不闕月而告訖嘻孝」忠爲親敬慕之志既切而李鄭兩公」右文之意亦至垂萬世而不朽也必」矣正統十一年丙寅秋八月日奉正」大夫守襄陽都護府使兼勸農兵馬」團鍊使皇甫良 謹跋。(卷尾)

刊行記: 僧 惠環」記官 自平」刻手記官 李根」校正 成均進士 金從知. (卷尾)

現 狀: 表紙는 後代에 改裝되었으며, 本文의 內紙는 第1張 前面이 缺落되고 여타의 내지도 일부의 張次에는 上端의 一部에 毀損이 있다. 印出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차후 지류문화재 보존 처리가 요망된다.

既指定: 동일한 版本이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된 사례는 없다.

<現狀>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의 표지는 後代에 改裝되었으며, 본문의 내지는 第1張 前面이 缺落되고 여타의 내지에도 일부의 장차에는 上端一部에 毀損이 있다. 印出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차후에 반드시 地류문화재 보존을 위한 처리와 수리가 요망되는 문화재이다.

○ 내용 및 특징

『復齋先生集』은 復齋 鄭摠(1358~1397)의 遺稿 詩文集이다.

『復齋先生集』의 저자인 復齋 鄭摠의 본관은 淸州이고 자는 ‘曼碩’이며, 호는 ‘復齋’이고 시호는 ‘文愍’이다 부친은 政堂文學 鄭樞(鄭公權, 1333~1382)이며, 아우는 朝鮮의 開國功臣 鄭擢(1363~1423)이다. 復齋는 고려 우왕 2년(1376)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19세로 春秋館檢閱이 된 이래 臺諫·應教·司藝 등을 거쳐 大護軍에 이르렀으며, 공양왕 원년(1389)에 병조판서로 승진되고 공양왕 3년(1391)에 이조판서를 거쳐 정당문학에 올랐다. 당시 중국으로 보낸 表箋文은 대부분은 그의 손에서 지어졌다. 조선이 개국되자 開國功臣 1등에 녹훈되고 簽書中樞院事로서 西原君에 봉하여졌다. 태조 3년(1394)에 政堂文學이 되고 다시 藝文春秋館太學士가 되어 三峯 鄭道傳(1342~1398)과 함께 『高麗史』를 撰進하고 그 序文을 썼다. 태조 4년(1395)에 李成桂(1335~1408)의 誥命과 印信을 요청하러 明朝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나, 明朝에서 내린 옷을 입지 않은 데에 대한 鞫問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大理衛에 유배되던 도중에 卒去하였다. 글씨에 조예가 있었으며 遺稿集을 남겼다.

復齋 鄭摠의 유고집인 『復齋先生集』은 그의 仲子인 鄭孝忠(?~?)이 蒐集·編次하고 손자인 鄭沃卿이 편집하여, 강원도 관찰사 李先齊(1390~1453)와 都事 鄭浩然(?~?) 및 襄陽府使 皇甫良(?~?)의 도움으로 세종 28년(1446)에 강원도 양양에서 목판으로 初刊되었다. 현재 이 초간본은 澗松미술관과 慶尙大學校에 소장되어 있다.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로 저자의 아우인 鄭擢(1363~1423)의 『春谷集』과 아들인 鄭孝文(?~?)의 『判牧公集』, 曾孫인 鄭永通(?~?)의 『寺正公集』을 함께 附集하여 후손 鄭崐壽(1538~1602)가 선조 18년(1585)에 原州에서 木板으로 重刊하였다. 이 중간본은 현재 국내에 전하지 않으며 日本 內閣文庫(10738-78)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선조 40년(1607)에 8대손 鄭述(1543~1620)가 鄭誦(1309~1345)의 『雪谷集』과 鄭樞(1333~1382)의 『圓齋集』과 合集하여 『西原世稿』로 간행하였는데, 권6~7에 본 『復齋先生集』이 각각 上·下의 편차로 수록되어 있다. 이 『西原世稿』에 수록된 『復齋先生集』의 판본은 현재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저자의 仲子인 鄭孝忠이 蒐集·編次하고 손자인 鄭沃卿이 편집하여, 강원도 관찰사 李先齊와 都事 鄭浩然 및 襄陽府使 皇甫良의 도움으로 세종 28년(1446)에 강원도 양양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상·하 2卷 1冊의 초간본이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의 表題는 ‘復齋詩藁’이며, 卷首題와 卷尾題는 상권의 경우 ‘復齋先生詩藁’이고 하권의 경우 ‘復齋先生遺藁’이다. 版心題는 ‘序’, ‘年譜’, ‘詩’, ‘文’, ‘記’, ‘教’, ‘跋’ 등으로 다양하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雙邊이며 半郭의 크기는 세로 21.3cm, 가로 14.6cm 내외이며 계선이 있다. 본문의 자수는 10행 16자이고 註文은 單行이다. 版心의 版口는 上下黑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0.5cm, 가로 19.5cm 내외이다. 지질은 韓紙이며 장정은 五針眼訂法의 線裝이며, 表紙는 改裝되었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2007년 12월 26일에 경상남도 하동 거주의 崔增秀가 기증한 고서 848점 중의 하나라 하며, 권두에 날인된 ‘崔增秀印’의 朱印은 본서를 慶尙大學校에 기증한 舊藏者 ‘崔增秀’의 所藏印이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의 初刊 당시의 雍齋 安崇善(1392~1452)의 「復齋先生遺藁序」는 다음과 같다.

글이란 性情을 읊조려 마음속 쌓인 것을 펴는 것이므로, 和順이 안으로 쌓인 뒤에라야 英華가 밖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그 웅장하고 健雅한 말은 본래 元氣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글이란 거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나의 외숙이신 西原君 復齋 鄭公이 고려 말엽에 태어나서, 타고난 바탕이 정밀·민첩하고 학문이 해박하여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두루 좋은 자리에 뽑혔으며, 조선 태조를 도와 큰 공을 세워 그 공로가 社稷에 미치었으니, 나라의 모든 辭命과 制敎와 事大交隣의 글이 모두 공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문장과 도덕이 당시의 모범이었는데, 을해년(1395)에 사신길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셨다. 세상을 다스릴 기국과 크고 거룩한 재질로 끝내 크게 펴지 못하였으니 아, 애석하도다.

공의 둘째 아들인 上將 [鄭孝忠이 나에게 “아버지의 유고를 간행하고자 하니 형께서 서문을 써 주시지요.”라고 의논하면서 한 질의 책을 주었다. 내 비록 글은 짧으나 의리상 사양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향을 피우고 가만히 앉아서 며칠 동안을 계속 훑어보았는데, 문장의 표현이 부드러우면서도 가볍지 않고 소박하여도 속되지 않으며, 청신한 품은 오묘한 속에서 나오고 드넓은 것은 깊은 곳에서 피어났으며,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뜻이 가득히 辭氣에 넘쳐흘러 다른 작가나 시인들이 그 만분의 일이라도 비슷할 수 없을 수준이었다.

선조이신 雪谷(鄭誦)과 圓齋(鄭樞) 父子의 문집이 널리 세상에 알려졌는데, 나의 외숙께서 일찍이 가정의 훈계를 이어받아 삼가 법도를 지키면서 시와 문을 저술한 것이 또한 이러하니, 우

리나라에 문학을 하는 선비가 대대로 끊이지 않았으나, 부자와 손자의 삼대가 서로 이어 문집이 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上將이 부지런히 선대의 업적을 드날려 영원토록 전하려고 함이 이러하니, 이것이 내가 서문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기도 하다.¹¹⁹⁾

또한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의 初刊 당시의 皇甫良(?~?)의 「跋文」은 다음과 같다.

전하는 말에 “군자의 사고는 반드시 문장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복재집』을 살펴보니 진실로 군자의 온축된 생각이 드러난 문장이고, 아름다움에 젖어서 그 묘미를 머금고 씹으며 내용이 넓고 형식이 자유로워, 유럽의 모범이라 할 수 있겠다. 병인년(1446) 봄에 아들 상장군 [鄭]孝忠이 이 문집을 세상에 간행하고자 본도 감사 李先齊와 도사 鄭浩然을 나에게 보내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면서, 백성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材木과 功力을 모집하여 나에게 감독하게 하였다. 나는 재주가 없으나 바야흐로 농사철의 틈을 빌어 간행하니, 한 달도 안 되어 간행을 마칠 수 있었다. 아! 孝忠은 부친을 공경하고 사모하는 뜻이 간절하고 李先齊와 鄭浩然 두 분은 문장 또한 지극하니 만세토록 썩지 않을 것임은 필연일 것이다.

정통 11년 병인(1446, 세종 28) 가을 8월 일 봉정대부 守襄陽都護府使 겸 권농병사단련사 황보량이 삼가 발문을 쓰다.¹²⁰⁾

또한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의 권말에는 “僧 惠環」記官 自平」刻手記官 李根」校正 成均進士 金從知”의 初刊 당시의 刊行記錄이 있다.

이상의 初刊 당시의 安崇善의 「復齋先生遺藁序」와 皇甫良의 「跋文」 및 권말의 刊行記錄을 통하여 볼 때,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저자의 仲子인 鄭孝忠이 蒐集·編次하고 손자인 鄭沃卿이 편집하여, 강원도 관찰사 李先齊와 都事 鄭浩然 및 襄陽府使 皇甫良의 도움으로 세종 28년(1446)에 강원도 양양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상·하 2卷 1冊의 초간본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간행을 위하여 승려 惠環(?~?)과 記官 自平(?~?)이 참여하였으며, 판각은 刻手記官 李根(?~?)이 담당하고 校正은 成均進士 金從知(?~?)가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上·下 2권 1책으로 編次되어 있으며, 상권에는 詩가 수록되어 있고 하권에는 文이 수록되어 있다.

119) 復齋先生遺藁序: 文辭 所以吟咏性情 以達所蘊 故和順積中而後 英華發外 其雄深雅健之辭 實根於元氣 則文辭之不可爲也審矣 吾舅氏西原君復齋鄭公 生於麗季 天資精敏 學文該博 早捷魁科 遍揚清選 贊我太祖 爲國元勳 功在社稷 凡國家辭命·制教·事大之文 皆出其手 文章道德 師範一時 歲在乙亥 奉使不還 使經綸之器 雄偉之才 終不得大施 嗚呼惜哉 公仲男上將孝忠 來諗於予曰 欲刊先君遺藁 請兄序之 仍授一帙 予雖文拙 義不敢辭 焚香靜坐 披覽數日 其辭和而不浮 質而不俚 清新出於要妙 浩瀚發於深邃 愛君憂國之意 藹然溢於俊逸雅談之間 有非詞人韻士 所可髣髴 其萬一而誠罕世特達之奇才也 先祖雪谷·圓齋父子之集 盛行于世 而吾舅氏夙承庭訓 謹守家法 著詩若文 又如是 吾東方文學之士 世不乏人 而父子及孫 相繼有集 則未之聞也 上將拳拳以圖不朽 非唯先君之德之才 控傳於永世 先世文學德業之美亦因是而益有光焉 是不可不書也 正統十年仲夏十有一日 資憲大夫兵曹判書集賢殿提學知春秋館事世子左副賓客安崇善(1392~1452)序. (卷頭)

120) 跋文: 傳曰 君子之思必成文 觀其復齋集 誠君子所蘊之思 所著之文 而醴郁咀華 閑中肆外 可謂儒林之師範也 歲在丙寅春 其子上將孝忠欲以是集刊行于世 將送本道監司李公先齊·都事鄭浩然 以遂厥志 不賴民力 鳩材募工 俾予監督 予以不才 方其農隙 勸課鋟手 不閱月而告訖 嘻 孝忠爲親敬慕之志既切 而李鄭兩公右文之意亦至 垂萬世而不朽也必矣 正統十一年丙寅秋八月日 奉正大夫守襄陽都護府使兼勸農兵馬團鍊使皇甫良 謹跋. (卷尾)

『復齋先生集』의 초간본과 초간본의 필사본 및 중간본의 편차와 수록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復齋先生集』의 版本別 編次 內容 比較>

番號	卷次	文體	題名	題號	初刊本 (신정본)	筆寫本 (국립본)	重刊本 (국립본)	備考
001	卷頭	序	[復齋先生遺藁序]	001	001	001	無	初3張
002	々	年譜	復齋先生年譜	002	002	002	無	初4張
003	卷上	詩	己巳春正月二十四日臣摠等立待書延	003	003	003	003 [應製]	初36張 重異
004	々	々	集毛句送陰竹勸農閔司藝	004	004	004	004	
005	々	々	次陽村學士自松京之平壤途中所賦詩韻	005	005	005	005	
006	々	々	正月十三日風雨終日至十五日天開景明偶書所見戲贈同年金待制瞻	006	006	006	006	
007	々	々	八口歌示陽村求和	007	007	007	007	重異(音)
008	々	々	早行途中有作	008	008	008	008	
009	々	々	送柔麟還遼東	009	009	009	009	
010	々	々	自鹽之平鶴嶺途中	010	010	010	010	
011	々	々	二十八日到漢陽矮屋甚窄纔可容膝感而有作	011	011	011	011	
012	々	々	月夜獨坐有感呈陽村	012	012	012	012	
013	々	々	送靖安君赴京師	013	013	013	013	
014	々	々	送龍頭道生僧統	014	014	014	014	
015	々	々	冬夜	015	015	015	015	
016	々	々	碩鼠	016	016	016	016	
017	々	々	谿堂李茂芳贈宗伯李誠中詩卷占老字	017	017	017	017	
018	々	々	閣、井底蛙	018	018	018	018	
019	々	々	啞、城上烏	019	019	019	019	
020	々	々	戊辰年元日	020	020	020	020	
021	々	々	重九	021	021	021	021	
022	々	々	聞倭賊侵楊廣道州郡	022	022	022	022	
023	々	々	書懷示李待制(詹)演雅體	023	023	023	023	重異
024	々	々	贈鄭少年欽之(廣明寺僧義敦請予故云)	024	024	024	024	筆異 重異
025	々	々	露宿興義野	025	025	025	025	
026	々	々	李侍中子松挽章	026	026	026	026	
027	々	々	十八日到大同江(二首)	027	027	027	027	
028	々	々	鐵谷村中早春	028	028	028	028	

番號	卷次	文體	題名	題號	初刊本 (신정본)	筆寫本 (국립본)	重刊本 (국립본)	備考
039	々	々	自鐵谷還京江陰縣卽事(是日立春也)	039	039	039	039	
030	々	々	十一月二十七日到峯城遇雨入官舍偶吟	030	030	030	030	
031	々	々	鹽州聚景樓次板上韻(二首)	031	031	031	031	
032	々	々	庚午七夕龍頭會會柳判書亮家鄭圃隱有詩卽次其韻(二首)	032	032	032	032	
033	々	々	訪李畬摠郎寓舍作	033	033	033	033	
034	々	々	閔右尹宅次祭酒詩韻	034	034	034	034	
035	々	々	韓正言寓舍玫瑰盛開與權陽村李待制同賦	035	035	035	035	
036	々	々	次金狀元詩韻(子粹 二首)	036	036	036	036	重異
037	々	々	日本使人以梅竹畫扇進獻卽賜知中事李仲文李待制作詩詠其事次韻寫呈	037	037	037	037	
038	々	々	經筵後歸家偶詠	038	038	038	038	
039	々	々	偶吟	039	039	039	039	
040	々	々	丙寅十二月二十日書事	040	040	040	040	
041	々	々	春雨	041	041	041	041	
042	々	々	晚晴	042	042	042	042	
043	々	々	病後寓居桐房	043	043	043	043	
044	々	々	李陶隱夫人洪氏挽詞	044	044	044	044	
045	々	々	九日索酒術	045	045	045	045	
046	々	々	宿九龍山觀音窟	046	046	046	046	
047	々	々	昌陵寺	047	047	047	047	
048	々	々	禪岩寺	048	048	048	048	
049	々	々	遊天磨山善賢菴	049	049	049	049	
050	々	々	與金待制(瞻)遊金身菴	050	050	050	050	重異
051	々	々	無題(二首)	051	051	051	051	
052	々	々	送平壤教授官閔先生(安仁)	052	052	052	052	重異
053	々	々	贈藏義寺主都大師聰公	053	053	053	053	
054	々	々	訪安和寺天澤上人不遇題壁	054	054	054	054	
055	々	々	以詩邀雙梅李先生(詹)	055	055	055	055	
056	々	々	木州途中	056	056	056	056	
057	々	々	訪崔通甫同年咸	057	057	057	057	
058	々	々	病起	058	058	058	058	

番號	卷次	文體	題名	題號	初刊本 (신청본)	筆寫本 (국립본)	重刊本 (국립본)	備考
059	ㄷ	ㄷ	霖雨思賢佐	059	059	059	059	
060	ㄷ	ㄷ	贈慈恩宗祐世君(宗林)公與先君同庚	060	060	060	060	
061	ㄷ	ㄷ	辛未正旦侍宴殿上	061	061	061	061	
062	ㄷ	ㄷ	壽寧宮受朝賀訖金判官(瞻)有詩次韻寫呈李中事種學	062	062	062	062	筆缺
063	ㄷ	ㄷ	次金判官入直壽寧宮韻	063	063	063	063	筆缺
064	ㄷ	ㄷ	箕子墓	064	064	064	064	筆缺
065	ㄷ	ㄷ	九梯宮	065	065	065	065	筆缺
066	ㄷ	ㄷ	麒麟窟(在永明寺之前)	066	066	066	066	
067	ㄷ	ㄷ	朝天石	067	067	067	067	
068	ㄷ	ㄷ	觀風殿	068	068	068	068	
069	ㄷ	ㄷ	聖容殿	069	069	069	069	
070	ㄷ	ㄷ	華藏山證覺寺	070	070	070	070	
071	ㄷ	ㄷ	題華嚴宗師友雲詩卷	071	071	071	071	
072	ㄷ	ㄷ	江陰途中	072	072	072	072	
073	ㄷ	ㄷ	送鄭三峯赴任南陽	073	073	073	073	重異
074	ㄷ	ㄷ	贈呈獨谷	074	074	074	074	重異
075	ㄷ	ㄷ	次遼東使人桑麟韻贈之	075	075	075	075	
076	ㄷ	ㄷ	次李判事兄韻(贊) [4全]	076	076	076	076	
077	ㄷ	ㄷ	陋巷	077	077	077	077	
078	ㄷ	ㄷ	六月十五日三司席上口占閔右尹呼韻	078	078	078	078	
079	ㄷ	ㄷ	權元靖公挽辭	079	079	079	079	
080	ㄷ	ㄷ	題尹二相樓	080	080	080	080	
081	ㄷ	ㄷ	送行人段公使還	081	081	081	081	
082	ㄷ	ㄷ	贈國子學錄張先生(溥)使還	082	082	082	082	
083	ㄷ	ㄷ	旅舍卽事	083	083	083	083	
084	ㄷ	ㄷ	乙亥年親幸大廟還駕時教坊歌謠	084	084	084	084	
085	ㄷ	ㄷ	樓題(南行所作)	085	085	085	085	
086	ㄷ	ㄷ	遼東途中	086	086	086	086	筆缺
087	ㄷ	ㄷ	送金純仲狀元赴任密城(二首)	087	087	087	087	筆缺
088	ㄷ	ㄷ	次金狀元韻(子粹 二首)	088	088	088	088	重異
089	ㄷ	ㄷ	次權陽村詩韻	089	089	089	089	

番號	卷次	文體	題名	題號	初刊本 (신정본)	筆寫本 (국립본)	重刊本 (국립본)	備考
090	ㄴ	ㄴ	冬至日次鄭三峯韻	090	090	090	090	
091	ㄴ	ㄴ	丙寅八關詰院席上次三峯韻	091	091	091	091	
092	ㄴ	ㄴ	吏曹重九席上次趙令韻	092	092	092	092	
093	ㄴ	ㄴ	辛未八月十五日壽昌宮赴內宴同僚 金判書(稹醉)中吟詠被憲司劾安中 書(魯生)作詩以慰予次其韻	093	093	093	093	
094	ㄴ	ㄴ	安和寺次諸公韻	094	094	094	094	
095	ㄴ	ㄴ	春日獨坐偶吟寄雙梅李吏部	095	095	095	095	
096	ㄴ	ㄴ	書筵偶吟示趙令等諸公	096	096	096	096	
097	ㄴ	ㄴ	吏曹廳事偶吟	097	097	097	097	
098	ㄴ	ㄴ	漢陽旅舍庚申日獨坐有作	098	098	098	098	
099	ㄴ	ㄴ	正月十三日雨中戲贈金待制	099	099	099	099	
100	ㄴ	ㄴ	丙寅十一月二十日書事	100	100	100	100	
101	ㄴ	ㄴ	己巳二月二十五日卽事	101	101	101	101	
102	ㄴ	ㄴ	又以詩邀典理李摠郎(詹)	102	102	102	102	
103	ㄴ	ㄴ	戊辰四月十四日赴西都行在金郊驛 途中作	103	103	103	103	
104	ㄴ	ㄴ	庚午九月十七日大駕移御漢陽僕以 婦翁服在平州村莊未獲扈從	104	104	104	104	
105	ㄴ	ㄴ	到龜山寺寺主戒天集生徒三十餘童 教誨刻燭賦詩宛有九齋之風喜而有 作贈天師	105	105	105	105	
106	ㄴ	ㄴ	永興君夫人李氏挽章	106	106	106	106	
107	ㄴ	ㄴ	僕密直延壽挽詞	107	107	107	107	
108	ㄴ	ㄴ	雨夜聞雞	108	108	108	108	
109	ㄴ	ㄴ	聞蟬	109	109	109	109	
110	ㄴ	ㄴ	聽歌	110	110	110	110	
111	ㄴ	ㄴ	白州登岩寺途中	111	111	111	111	
112	ㄴ	ㄴ	宿鹽州觀音寺見張副令(躋)	112	112	112	112	
113	ㄴ	ㄴ	過壺串樓	113	113	113	113	
114	ㄴ	ㄴ	憶日月寺天澤上人	114	114	114	114	
115	ㄴ	ㄴ	與閔密直(開)金大司成(子粹)金待 制(瞻)遊日月醉後令待制呼韻走筆 謾成	115	115	115	115	月
116	ㄴ	ㄴ	辛未七月七日夜	116	116	116	116	
117	ㄴ	ㄴ	旅舍卽事	117	117	117	117	
118	ㄴ	ㄴ	旅舍有感	118	118	118	118	

番號	卷次	文體	題名	題號	初刊本 (신청본)	筆寫本 (국립본)	重刊本 (국립본)	備考
119	ㄴ	ㄴ	登山有感	119	119	119	119	
120	ㄴ	ㄴ	有感	120	120	120	120	
121	ㄴ	ㄴ	摘杏贈李代言(詹)	121	121	121	121	
122	ㄴ	ㄴ	盆池	122	122	122	122	
123	ㄴ	ㄴ	宮詞集句想奉天殿作	123	123	123	123	
124	ㄴ	ㄴ	送曹士德往日本	124	124	124	124	
125	ㄴ	ㄴ	乙丑十二月望夜入直國子監與崔同年通甫達曉談論	125	125	125	125	
126	ㄴ	ㄴ	次定州樓上韻	126	126	126	126	
127	ㄴ	ㄴ	無題	127	127	127	127	
128	ㄴ	ㄴ	過楊子江	128	128	128	128	
139	ㄴ	ㄴ	金陵卽事	139	139	139	139	
130	ㄴ	ㄴ	春日城南卽事	130	130	130	130	
131	ㄴ	ㄴ	風雨騎牛圖(太祖潛邸時命題以賦之) [2寸]	131	131	131	131	
132	ㄴ	ㄴ	題朴岩通詩卷(名免)	132	132	132	132	
133	ㄴ	ㄴ	與閔諫議李摠郎(詹)看梅摠郎有詩卽次其韻 [2寸]	133	133	133	133	
134	ㄴ	ㄴ	書筵記事	134	134	134	134	
135	ㄴ	ㄴ	秋夕夜坐集句	135	135	135	135	
136	ㄴ	ㄴ	暇日偶作	136	136	136	136	
137	ㄴ	ㄴ	成歡驛途中	137	137	137	137	
138	ㄴ	ㄴ	樂生驛途中	138	138	138	138	
139	ㄴ	ㄴ	扈從出獵長湍	139	139	139	139	
140	ㄴ	ㄴ	次金狀元韻(子粹)	140	140	140	140	重異
141	ㄴ	ㄴ	丙寅年除夜	141	141	141	141	
142	ㄴ	ㄴ	題舍弟(拯)家壁	142	142	142	142	
143	ㄴ	ㄴ	送孔伯共(俯)奉使西都次鄭三峯韻	143	143	143	143	
144	ㄴ	ㄴ	哭金密直(光厚)	144	144	144	144	
145	ㄴ	ㄴ	次書筵權陽村詩韻 [3寸]	145	145	145	145	
146	ㄴ	ㄴ	金陵卽事	146	146	146	146	
147	ㄴ	ㄴ	題定州樓	147	147	147	147	
148	ㄴ	ㄴ	無題[7寸]	148	148	148	148	
149	ㄴ	ㄴ	贈雲峰衲	149	149	149	149	

番號	卷次	文體	題名	題號	初刊本 (신청본)	筆寫本 (국립본)	重刊本 (국립본)	備考
150	ゝ	ゝ	碧瀾渡樓上次柳思菴韻(二首)	150	150	150	150	
151	ゝ	ゝ	送陳奉翊之任京山府(義貴)	151	151	151	151	
152	ゝ	ゝ	感興詩(二首)	152	152	152	152	
153	卷下	序	朝鮮經國典序	153	153	154	153	初39張
154	ゝ	ゝ	高麗國史序	154	154	155	154	
155	ゝ	ゝ	經濟文鑑序	155	155	156	155	
156	ゝ	ゝ	送行人雜公使還序	156	156	157	156	
157	ゝ	記	信城鄉校記	157	157	158	157	
158	ゝ	ゝ	江華立寶記	158	158	159	158	
159	ゝ	教書	教全羅道都觀察三司右使金(士安)書	159	159	160	159	
160	ゝ	ゝ	教前門下評理李元紘書	160	160	161	160	
161	ゝ	ゝ	立儲教書	161	161	162	161	
162	ゝ	ゝ	教卒門下侍中貞烈公慶復興書	162	162	163	162	
163	ゝ	ゝ	追封王順妃三代教書	163	163	164	163	
164	ゝ	ゝ	親幸告廟教功臣書	164	164	164	164	重異
165	ゝ	ゝ	教門下贊成事鄭夢周書	165	165	166	165	
166	ゝ	ゝ	恭讓王三年辛未四月求言教	166	166	167	166	
167	ゝ	ゝ	侍中李某辭職不允批答	167	167	168	167	
168	ゝ	ゝ	同前	168	168	169	168	重異
169	ゝ	冊文	太祖室加上尊諡冊文	169	169	170	169	
170	ゝ	ゝ	惠宗室加上尊諡冊文	170	170	171	170	
171	ゝ	ゝ	忠惠王禧妃竹冊文	171	171	172	171	
172	ゝ	碑銘	有明朝解國桓王定陵碑銘	172	172	173	172	
173	ゝ	表箋	賀聖節表	173	173	174	173	
174	ゝ	ゝ	方物	174	174	175	174	
175	ゝ	ゝ	賀聖節表	175	175	176	175	
176	ゝ	ゝ	方物	176	176	177	176	
177	ゝ	ゝ	東宮節日箋	177	177	178	177	
178	ゝ	ゝ	賀正旦表	178	178	179	178	
179	ゝ	ゝ	方物	179	179	180	179	
180	ゝ	ゝ	賀正表	180	180	181	180	
181	ゝ	ゝ	方物	181	181	182	181	

番號	卷次	文體	題名	題號	初刊本 (신청본)	筆寫本 (국립본)	重刊本 (국립본)	備考
182	ゝ	ゝ	賀正表	182	182	183	182	
183	ゝ	ゝ	方物	183	183	184	183	
184	ゝ	ゝ	賀平定胡人獲寶璽表	184	184	185	184	
185	ゝ	ゝ	謝藥材表	185	185	186	185	
186	ゝ	ゝ	進高麗國史箋	186	186	187	186	
187	ゝ	祭文	北斗醮祭文	187	187	188	187	
188	ゝ	ゝ	本命星醮祭文	188	188	189	188	
189	ゝ	ゝ	祭尹判三司事虎文	189	189	190	189	
190	ゝ	ゝ	北斗星醮禮文	190	190	191	190	
191	ゝ	樂章	王大妃封崇豐安樂章	191	191	192	191	
192	ゝ	ゝ	國大妃封崇豐安樂章	192	192	193	192	
193	ゝ	歌謠	乙亥年親行大廟還駕時教坊歌謠 (并序)	193	193	194	193	重異
194	ゝ	疏	天變地怪消災道場疏	194	194	195	194	
195	ゝ	ゝ	乙亥年王和寺行水陸齋疏	195	195	196	195	
196	ゝ	ゝ	見岩寺行水陸齋	196	196	197	196	
197	ゝ	ゝ	土星入軒轅中消災道場疏	197	197	198	197	
198	ゝ	ゝ	楊廣道鎮江瀑布寺太一祈禳法華法 席疏 [孫成均生員沃卿編輯]	198	198	199	198	
199	ゝ	附錄	復齋記(李陶隱作)	199	199	200	無	初3張
200	ゝ	ゝ	教書[純忠佐命開國功臣教書鄭摠]	200	200	153	無	初2張
201	ゝ	跋	跋[皇甫良]·刊行記錄	201	201	無	無	初1張

『복재선생집』의 상권에는 150題 172首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시는 四言의 應製詩를 시작으로 하여 대체로 詩體別로 편차하고 있다. 詩體別로는 七言絶句가 60餘題로 가장 많으며, 七言律詩와 五言律詩가 각각 30~40首이고 그 외로는 약간의 五言絶句·七言排律·四言詩로 이루어져 있다. 저작의 시기는 주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한 뒤부터 태조 4년(1395)에 印信과 誥命을 청하러 明朝에 가기 직전까지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복재선생집』의 하권에는 「序」 4편, 「記」 2편, 「教書」 8편, 「批答」 2편, 「冊文」 3편, 「碑銘」 1편, 「表箋」 14편, 「祭文」 4편, 「樂章」 2편, 「疏」 5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序」에는 三峯 鄭道傳(1342~1398)이 지은 『朝鮮經國典』과 『經濟文鑑』에 대한 序 및 왕명을 받아 정도전 등과 함께 수찬한 『高麗史』에 대한 序가 실려 있다. 「記文」에는 信州守와 宋居中(?~?)의 부탁으로 지어 준 「信州鄉校記」와 朴子安(?~1408)이 강화도에 부임하여 이룬 치적을 기록한 「江華立寶記」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는 江華에서 營衛와 司倉을 짓고 立寶하여 軍糧과 生徒들의 비용을 삼은 내력을 밝히고 있다. 「教書」 중에는 金方慶(1212~1300)의 공을 기려서 후손 金士安(?~1391)에게 내리는 교서를 비롯하여 圃隱 鄭夢周(1337~1392)가 排佛崇儒하여 王道를 실현하려 했던 공로를 치하하는 「教門下贊成事鄭夢周書」, 공양왕 3년 천재지변으로 인해 의견을 구하는 「求言教」 등이 있다. 「碑銘」은 태조의 父인 桓祖 李子春(1315~1360)의 「定陵碑」이며, 「本命星醮祭文」 등 3편의 제문은 醮祭文으로 고려시대 도교 풍속에 관련된 문장이다. 이 밖에도 고려시대 음악을 보여주는 「王大妃封崇豐安樂章」·「國大妃封崇豐安樂章」과 태조 4년(1395, 乙亥)의 親行太廟 당시의 教坊歌謠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復齋先生集』의 초간본은 그 뒤에 간행되는 중간본 등의 편차에 母本이 되었음도 알 수 있다.

지정신청본 『復齋先生集』은 저자의 仲子인 鄭孝忠이 蒐集·編次하고 손자인 鄭沃卿이 편집하여, 강원도 관찰사 李先齊와 都事 鄭浩然 및 襄陽府使 皇甫良의 도움으로 세종 28년(1446)에 江原道 襄陽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상·하 2卷 1冊의 초간본인 만큼, 麗末鮮初의 역사적·정치적 사실을 비롯하여 문학과 서지학 등의 연구에는 물론 조선조 초기의 印刷出版文化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이다.

한편, 종래에 典籍文化財(貴重書) 指定의 時期的 下限을 壬辰倭亂(1592)과 관련하여 宣祖年間(1567~1607) 以前으로 基準하여 왔으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丙子胡亂(1636)과 관련된 仁祖年間(1623~1649) 이전까지로 基準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¹²¹⁾

현재 우리나라의 儒學書 및 詩文集類 등의 문화재 지정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韓國 儒學書 및 詩文集의 指定文化財 現況 比較(2023년 09월, 刊行時代順)>

番號	著·編者	書名[文化財名]	版本	刊行時代	指定名	備考
001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木版本	1251	慶北有形	
002	崔 瀧	東人之文四六	木版本	1355	寶物	
003	李承休	帝王韻紀	木版本	1360 1413	寶物 寶物	
004	閔思平	及菴先生詩集	木版本	1370	寶物	
005	呂祖謙	近思錄	木版本 金屬活字本	1370 1436	寶物 寶物	
006	朱 子	中庸朱子或問	木版本	1371	寶物	
007	鄭 誦	雪谷詩藁	木版本	1376	寶物	後刷本
008	太祖(明)	大明律	木版本	1389	寶物	
009	陳 澹	禮記集說	木版本	1391	非指定	初刊本

121) 國立中央圖書館 編, 『國內 古文獻 所藏實態 基礎調查 및 蒐集方案에 관한 研究』,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2013.

番號	著・編者	書名[文化財名]	版本	刊行時代	指定名	備考
						個人
010	一 然	三國遺事	木版本	1394 14世紀末 1512	國寶 國寶 國寶	
011	王廣謀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木版本	1400	寶物	
012	金九容	楊若齋先生學吟集	木版本	1400	寶物	後刷本
013	呂祖謙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金屬活字本	1403~1418	國寶	
014	[不明]	宋朝表箋總類	金屬活字本	1403~1418	國寶 寶物	
015	李崇仁	陶隱先生集	木版本	1406	寶物 光州有形	
016	李崇仁	陶隱先生詩集	金屬活字本	1407	寶物	
017	李 集	遁村雜詠	木版本	1410	寶物	
018	胡庭芳	十七史纂古今通要	金屬活字本	1412	寶物	
019	春秋館	朝鮮王朝實錄	筆寫・活字	1392~1863	國寶	
020	陳 攄	通鑑續編	金屬活字本	1422	國寶	
021	權 近	入學圖說	木版本	1425	寶物	
022	權 近	周易淺見錄	木版本	1429~1430	寶物	
023	權 近	書淺見錄	木版本	1430以後	寶物	
024	權 近	詩淺見錄	木版本	1430以後	寶物	
025	林堯叟	春秋經左氏傳句解	木版本	1431	寶物	
026	林堯叟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木版本	1431	寶物	
027	李齊賢	樸翁稗說	木版本	1432	寶物	
028	李奎報	益齋亂藁	木版本	1432	寶物	
029	世 宗	三綱行實孝子圖	木版本	1434	寶物	
030	熊 忠	古今韻會舉要	木版本	1434	寶物	
031	司馬光	資治通鑑	金屬活字本	1436	寶物	
032	朱 子	資治通鑑綱目	金屬活字本	1438 1493	寶物 寶物	
033	鄭夢周	圃隱詩藁	木版本	1439	寶物	初刊本
034	柳宗元	唐柳先生集	金屬活字本	1439	非指定	指定申請本
035	張本鎮	周易參同契	金屬活字本	1441	寶物	
036	劉辰翁	須溪先生批點孟浩然集	木版本	1445	寶物	
037	世 宗	訓民正音	木版本	1446	國寶	
038	權 近	應製詩註	木版本	1446	寶物	
039	鄭 摠	復齋先生集	木版本	1446	非指定	初刊本

番號	著・編者	書名[文化財名]	版本	刊行時代	指定名	備考
						慶尙大學校 澗松美術館
040	世 宗	月印千江之曲	金屬活字本	1447	國寶	
041	世 宗	龍飛御天歌	木版本	1447	寶物	
042	申叔舟	東國正韻	金屬活字本	1448	國寶	
043	權 遇	梅軒先生文集	木版本	1452	非指定	初刊本 澗松美術館
044	[不明]	夾注名賢十抄詩	木版本	1452	寶物	
045	世 宗	洪武正韻譯訓	金屬活字本	1455	寶物	
046	成石璘	獨谷集	木版本	1456	서울有形	
047	鄭道傳	三峯先生集	木版本	1465	寶物	後刷本(1487)
048	成 侃	眞逸遺稿	木版本	1467	寶物	
049	虞 集	虞註杜律	木版本	1470	寶物	
050	徐居正	筆苑雜記	木版本	1469~1494	寶物	
051	[不明]	時用鄉樂譜	木版本	1470~1494	寶物	
052	成 宗	經國大典	金屬活字本	1471 1485	寶物 寶物	
053	太祖(明)	洪武禮制	木版本	1474	寶物	
054	姜希孟	晉山世稿	木版本	1476	寶物	
055	鄭麟趾	高麗史	金屬活字本	1482	寶物	
056	杜 甫	分類杜工部詩(諺解)	金屬活字本	1482	寶物	
057	鄭道傳	三峯先生集	木版本	1487	寶物	
058	鄭希良	虛庵遺藁	木版本	1511	大邱有形	
059	金宗直	佔畢齋集	木版本	1520	寶物	後刷本
060	鄭夢周	圃隱詩藁	木版本	1533	寶物	新溪本
061	金正國	性理大全書節要	木活字本	1538	寶物	
062	李承召	三灘集	木版本	1538	忠北有形	
063	柳希齡	新編類聚大東詩林	金屬活字本	1542	寶物	
064	[不明]	朝鮮方域之圖	筆寫本	1557	國寶	
065	金富軾	三國史記	木版本	1512 1573	國寶 國寶	
066	李彥迪	晦齋先生集	木版本	1574 1575	寶物 慶北有形	
067	鄭夢周	圃隱詩藁	木版本	1575	非指定	開城本 國學振興院
068	鄭夢周	圃隱先生集	活字本	1575~1584	非指定	校書館本
069	金時習	梅月堂集	活字本	1583	寶物	

番號	著・編者	書名[文化財名]	版本	刊行時代	指定名	備考
070	金時習	梅月堂詩集	活字本	1583	寶物	
071	韓 濩	千字文	木版本	1583	寶物	
072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木版本	1585	非指定	西厓校正本
073	李舜臣	亂中日記	筆寫本	1592	國寶	
074	柳成龍	懲愆錄	筆寫本	1592~1598	國寶	
075	李 滉	退溪先生文集	木版本	1600	寶物	
076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木版本	1607	非指定	永川本
077	鄭夢周	圃隱詩藁	木版本	1608	非指定	黃州兵營本 國學振興院
078	許蘭雪軒	蘭雪軒詩集	木版本	1608	江原有形	
079	許 浚	東醫寶鑑	木活字本	1613	國寶	
080	盧守愼	蘇齋文集	木版本	1615	慶北有形	
081	備邊司	備邊司謄錄	筆寫本	1617~1892	國寶	
082	承政院	承政院日記	筆寫本	1623~1910	國寶	
083	李惟泰	草廬李惟泰遺稿	筆寫本	1626~1676	大田有形	
084	柳成龍	芹曝集	木版本	1633	寶物	
085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木版本	1662	非指定	奉化本
086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木版本	1677	非指定	丁巳重刊本
087	肅 宗	二十功臣會盟軸	筆寫本	1680	國寶	
088	李元翼	梧里先生集・續集	木版本	1691	京畿文資	
089	權 遇	梅軒先生集	木版本	1722	非指定	重刊本
090	李衡祥	瓶窩遺稿	筆寫本	1677~1733	寶物	
091	奎章閣	日省錄	筆寫本	1760~1910	國寶	
092	鄭夢周	圃隱先生集	木版本	1769	非指定	崧陽本
093	鄭夢周	圃隱先生續集	木版本	1769	非指定	續集本
094	宋濟民	海狂集	木版本	1783	光州有形	
095	蔡濟恭	樊巖先生集	筆寫本	1799	京畿有形	
096	正 祖	弘齋全書	活字本	1814	서울有形 京畿有形	
097	[不明]	東闕圖	筆寫本	1830	國寶	
098	朴 翊	松隱文集	木版本	1837	慶南有形	
099	金正喜	金正喜筆歲寒圖	筆寫本	1844	國寶	
100	鄭夢周	圃隱先生文集	木版本	1866	非指定	丁巳重刊本
101	鄭 琢	藥圃遺稿	筆寫本	-	寶物	

番號	著·編者	書名[文化財名]	版本	刊行時代	指定名	備考
102	李賢輔	龔巖遺稿草	筆寫本	-	寶物	
103	金漢蓋	梅軒亂稿	筆寫本	-	寶物	
104	安鍾和	約齋集	筆寫本	-	京畿有形	
105	蔡濟恭	樊巖稿	筆寫本	-	京畿有形	
106	任 屹	龍潭遺稿	筆寫本	-	慶南文資	
107	趙泰億	趙泰億遺稿	筆寫本	-	慶南有形	
108	南秉模	家稿	筆寫本	-	慶北文資	
109	金富倫	雪月堂遺稿	筆寫本	-	慶北有形	
110	李萬敷	息山集	筆寫本	-	慶北有形	
111	柳 汀	松壕遺集	筆寫本	-	蔚山有形	
112	李惟泰	草廬手稿	筆寫本	-	忠南文資	
113	權 燮	玉所稿	筆寫本	-	忠北有形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20종, 보물 58종						

이상의 <표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儒學書 및 文人·學者들의 詩·文集 등이 문화재로 지정된 종수는 100餘 種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20종과 보물 58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佛書類의 종수와 수량에 비하면 儒學書類와 詩·文集類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비중은 鳥足之血에 지나지 않은 편이라, 문화적인 편중의 현상이 매우 심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儒學書類 및 詩·文集類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확충하여 文化偏重의 현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국민에게 普遍的 文化享有權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學術的·文化財的 價値와 국가지정문화재 種類의 均衡을 고려한다면, 지정신청의 초간본 『復齋先生集』 1책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유지·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현재 『復齋先生集』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鄭摠(1358~1397) 著, 『復齋先生集』. 木版本(初刊本). [江原道 襄陽] : [皇甫良], [世宗 28(1446) 跋]. 慶尙大學校 所藏本.
- 경상남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상남도 창원,

- 경상남도청, 2021.
- 경상남도, 「『복재선생시고』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자료」, 경상남도 창원, 경상남도청, 2021.
 - 진주시장, 「검토의견서」, 경상남도 진주, (작성시기 불명).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경상남도 창원, 2019.
 - 경상대학교, 「경상대 소장 『복재선생시고』 설명자료」, 경상남도 진주, 경상대학교, 2018.
 - 尹炳泰 編, 『韓國古書整理法研究』, 서울, 利久出版社, 1983.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 현 상

신청본인 『복재선생집』은 정충의 문집 초간본이다. 표지와 본문의 하단부분 중 일부 훼손이 된 것은 새로 개장하고 수리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면에서 훼손이 발견된다. 그러나 신청본인 『복재선생집』은 1446년 간행된 흔하지 않은 고려 말~조선 초기 인물의 문집으로 ‘정충(鄭攄)’이라는 인물에 대한 연구자료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칭도서관에도 전하지만 미간본의 고본의 형태로 확인되며 1585년 강원도 원주에서 간행된 중간본이 있다. 1607년 8대손인 정구가 간행한 『西原世稿』 간행본의 기초가 된 문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내용 및 특징

『復齋先生集』은 강원도 관찰사 이선재(李先齋)·도사(都事) 정호연(鄭浩然)·양양부사 황보량(皇甫良)의 도움을 받아 정효충(鄭孝忠)이 1446년(世宗28) 강원도 양양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정충(鄭攄)의 문집이다.

정충(鄭攄, 1358~1397)은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정치가이자 학자로 자는 만석(曼碩), 호는 복재(復齋), 시호는 문민(文愍),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1376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춘추관 검열·사예·대호군을 지내고, 1389년 병조판서, 1391년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조선 초기 개국공신 1등으로 서원군(西原君)에 봉해졌고,

1395년 춘추관대학사(春秋館大學師)로 정도전(鄭道傳)과 함께 『고려사』를 편찬하고 서문을 썼다.

이 책은 상, 하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권(上下) 1책의 목판본(木板本)이다. 표지에 ‘復齋詩藁’가 묵서(墨書)로 책제를 썼다. 권수제는 ‘復齋先生詩藁’로 확인된다.

제책(製冊)의 형태는 선장본(線裝本)으로 되어 있으며, 오침안(五針眼)으로 제책하였다. 판식(版式)은 사주쌍변(四周雙邊), 광곽(匡郭) 21.3×14.6cm, 계선이 있고 반엽(半葉)은 10행(行)16자(字), 규격(책크기) : 30.5×19.5cm이다.

상권에는 시가, 하권에는 문이 실려 전한다. 1445년 안숭선(安崇善)이 지은 서문이 있고, 1446년 황보량이 지은 발문이 있다.

본문에 먹번짐과 충식(蟲食)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확인되고 된다. 서문과 연보, 본문 일부에 심한 결실이 있다. 권말에 ‘正通十一年丙寅...黃甫良 謹跋’이라는 내용이 있어 1446년에 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경상남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경상남도 창원, 경상남도청, 2021.
- 경상남도, 「「복재선생시고」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자료」, 경상남도 창원, 경상남도청, 2021.
- 진주시장, 「검토의견서」, 경상남도 진주, (작성시기 불명).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경상남도 창원, 2019.
- 경상대학교, 「경상대 소장 『복재선생시고』 설명자료」, 경상남도 진주, 경상대학교, 2018.

18.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安東 仙刹寺 木造釋迦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5.20./’23.8.3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4.10./’23.5.2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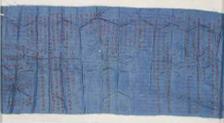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2016.10.6. 지정)
- 명 칭 :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安東 仙刹寺 木造釋迦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① 불 상 : 대한불교조계종 선찰사
② 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선찰사(안동시립박물관)
- 소재지 : ① 불 상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옷장터길 91-17, 선찰사
② 복장유물 : 경상북도 안동시 민속촌길 13, 안동시립박물관
- 수 량 : 불상 1구, 조성발원문 1점, 목서편 1점, 저고리 1점, 후령통 일괄 5점
- 규 격 : 표 참조
- 재 질 : 표 참조
- 형 식 : 독존상(불상)
- 조성연대 : 1622년(조선 광해군 14)
- 제작자 : 현진(玄眞), 옥명(玉明), 수연(守衍), 응원(應元), 법령(法玲), 명은(明崙), 청허(淸虛), 성인(性仁), 보희(寶熙), 인균(印均), 경현(敬玄), 지수(志守), 태감(太鑑), 밀연(密衍), 의인(義仁) 등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지정 대상 현황>

연번	명칭	사진	수량	재질	크기(cm)	비고
1	목조 석가여래좌상		1구	나무에 도금	높이 42.0cm 어깨 너비 23.0cm 무릎 너비 27.0cm 바닥 너비 28.0×22.8cm	
2	조성발원문		1점	靑綃 紅書	33.5×70.0	
3	묵서편		1점	紙 (墨書)	32.8×5.6	
4	저고리		1점	絹	뒷길이 49.0 앞길이 50.0 화장 72.0 뒷폭 51.0	
5	후령통 일괄		1점	혼합 (직물, 금속 등)	미개봉	황초폭자에 싸여 있음
			2점	紙 (朱印)	15.8×13.8 (바깥 원지름 12.8×11.6) (안 원지름 3.0×2.7)	후령통 상부 마감
			2점	紙 (朱印)	가장 긴 면 23.0 (광폭 8.9×17.0)	후령통 외곽 마감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1622년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발원하여 제작한 자수사·인수사 11존의 불상 중 하나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 11존의 구성은 <비로자나불-석가여래-노사나불>로 구성된 삼신불 2세트, <아미타여래-관음보살-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상 1세트, 그리고 석가여래와 아미타여래 독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불상은 각각 자수사와 인수사에 나뉘서 봉안했을 터인데, 독존으로 조성된 석가여래와 아미타여래는 발원자의 특별한 염원을 담아 제작된 원불로 제작되었음을 선찰사 석가여래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불사에는 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새롭게 재편된 도총섭체제의 최고 수장인 선교도총섭을 비롯하여, 벽암각성, 고한희언 같은 왕실과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며 불교 중흥에 이바지 했던 승려가 불사를 이끌었고, 당시 최고의 승장들이 대거 참여하여 11존의 불상을 제작하였다. 왕실과 불교계에서 합심하여 제작한 당시 최고의 기념비적인 불사로 평가된다.

<丙子生王妃柳氏命衣> 목서명 저고리와 <박상궁원불 던의디흐나> 목서편 등을 통해 이 불상은 왕비 유씨와 박상궁의 원불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1존의 불상 중 규모가 큰 불상은 자수사·인수사의 주불전에 봉안하고, 소형의 불상은 자신들의 원당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왕실 원당에 봉안된 원불의 실체를 알 수 있어 중요하다. 더불어 왕비 유씨는 이곳 외 해인사 장경판전 중수 불사 때에도 자신과 남편, 그리고 자신을 모시던 상궁의 옷을 봉납하고 있다. 자신이 아끼던 복식과 귀한 직물 편을 복장에 납입하는 경우는 고려시대 불상에서부터 종종 확인되고 있는데, 이 불상 역시 이러한 불복장 납입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당시 왕실 인물들이 행했던 불사태도를 엿볼 수 있어 주목된다.

불상은 조형적으로 3등신의 포동포동한 아기 같은 미감을 간직하고 있다.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는 불상을 조성하기 전 세자 이질을 위하여 청계사에서 불교계의 합심하여 재회를 개설하고, 이어서 묘법연화경을 개관하였다. 이 불사가 끝나자 곧장 자수사·인수사에 먼저 돌아가신 부모와 공주와 대군, 그리고 생존해 있는 직계 가족의 수명장수를 빌기 위해 이 불상을 조성하고 왕실의 원당에 봉안하였다. 특히 이 불상은 왕비 자신의 저고리가 납입된 원불이라는 점에서, 자신보다 먼저 죽은 왕자와 공주의 명복을 빌며 생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 불상을 조성하였을 것이다. 자신의 죽은 자녀들이 극락왕생하고, 또 다시 자신의 품으로 환생하기를 염원하며 아기 같은 불상을 조각승에게 주문했을 것이다. 이는 인목대비가 발원하고 성인이 만든 남양주 수종사 금동불상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미감이다. 이 불상을 통해서 당시 왕실에서 추구했던 왕실미술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어 중요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양감이 느껴지는 상반신의 당당함과 이와 조화를 이루는 하반신의 신체비례, 차분하면서도 강한 인상이 드러나는 네모진 얼굴, 오른쪽 어깨에 드리운 U자형의 층을 이루는 한 개의 옷주름과 ‘人’형의 하반신 옷 표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석가상은 광해군 집권 말인 1622년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왕실과 그와 관련된 가족들을 위해 발원하여 현진, 수연, 응원 등 17세기 전반에 활약한 여러 유파의 조각승이 참여해 조성한 11구의 불상 중 한 구이다. 현재 확인된 자수·인수사의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이 있으며 이어 이 상이 세 번째이다. 이 존상은 현진의 불상 특징이 잘 드러나 있어 기초사된 상들과는 차별화되며, 이는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의 개인 물품이 납입된 점으로 미루어 이 불사에 수화승인 현진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이 석가상은 현진을 비롯하여 그의 계보를 잇는 조각승 즉 유파 조각승의 양식적 특징에 원형이 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점을 미루어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기에 충분하다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은 1622년에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발원하여 조성한 11구의 불상 중에 하나로, 당시에 활약했던 뛰어난 조각승들이 연합하여 제작한 것이다. 특히 조각승들의 우두머리(수화승)인 현진의 작품 특징들이 간취된다. 즉 다부진 체구, 진중함이 드러나는 이목구비의 표현, 왼쪽 어깨와 하반신의 옷주름 표현 등에서 현진의 불상양식이 드러난다.
- 이 불상과 함께 발원, 조성된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에 비해서 크기가 작지만, 현진 특유의 불상양식이 더욱 잘 드러나고 있어서 현진의 대표작품으로 거론하기에 손색이 없다.
- 불상뿐만 아니라, 복장물로 봉안되었던 묵서발원문, 저고리, 후령통, 다라니 등도 조선 17세기 불교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가치가 있다. 또 불상과 복장물 일괄은 조선왕실의 불상 후원을 말해주는 보기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의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복장, 지정 가치 있음)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木造釋迦如來坐像)은 높이 42cm의 결가부좌한 소형 불상으로, 발원문을 통해 제작연대와 발원자 등이 확인됨에 따라 1622년에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 1576~1623]가 발원하여 조성한 왕실 발원 佛事에 의한 것임이 명확하다. 현진을 비롯한 17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17명이 참여하여 조성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불교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아울러 복장유물에 포함된 저고리에는 章烈王妃라는 목서가 있어 17세기 전기 조선 왕실 복식의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복식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다. 따라서 불상을 비롯하여 복장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寶物)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복장, 지정 가치 있음)

1622년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16건 81점이다. 이중 조성발원문은 당시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왕실과 그와 관련된 가족들을 위해 발원하여 11구의 불상을 제작, 17명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불상의 이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저고리는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의 장수를 기원하는 목서를 기록한 단저고리로, 구성상 회장저고리에 해당한다.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 관련 복식은 <광해군비당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홍색토주겹장저고리>(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가 있으며,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저고리는 장저고리 안에 입는 저고리로 추정된다. 이 복식들은 조선시대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후령통은 미개봉 상태로 정확한 물목 구성과 안립형식은 알 수 없지만 근봉지, 오색사, +형의 매듭, 황초폭자에 방위색을 적용하여 각각에 방위에 해당하는 범자를 기록한 점 등으로 보아 청초홍서의 형식을 지닌 조성발원문과 함께 『조상경』의 범식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장유물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라니는 모두 3종류로 확인되었으며, 조선시대 복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형식이다.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함께 조성된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불교미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왕비와 관련된 <광해군 내외 및 상궁 복식>(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과 <광해군비당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에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함께 복장유물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다만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경우 더 다양한 다라니가 안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원문만이 불상과 함께 지정되었다. 따라서 지정 대상을 조성발원문, 저고리, 후령통(NO.17-5 원지원상다라니, NO.17-6의

방지방형다라니(대불정수능엄신주) 포함)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조사내용

안동 선찰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기 전에는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에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사찰이 피해를 입으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永嘉誌』佛宇에 “선찰사는 臨河縣 남쪽 17리쯤의 藥山 동쪽의 물길이 휘돌아가는 길목에 있다. 왼쪽은 절벽으로 막혀 있고 앞에는 산과 마주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절 주변으로 선유정이 자리하고, 절 앞으로는 반변천이 흐르고 있다. 또한 도연폭포(또는 落淵이라 부름)와 선유정 등이 구곡원림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을 만큼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래서 大山 李象靖의 『大山集』에서 볼 수 있듯 여러 문인들의 遊覽詩文에도 선찰사가 자주 등장하고 만큼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¹²²⁾

불상은 규모가 42cm 정도 되는 작은 불상으로 선찰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의 주불로 봉안하고 있다. 2015년 12월 28일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에서 복장조사가 실시되었다. 복장에서 확인된 복장발원문을 통해 이 불상은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1622년 왕실의 원당인 자수사·인수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한 불상임을 발원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1622년 왕실의 비빈이 출가하던 자수사·인수사 兩寺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불상은 모두 11존이며, 이 불상

122) <答金景潤聖文 光憲 乙酉(1765)>, 『大山集』 제14권 書 병을 앓으며 쓸렁한 서재에서 서글피 앉아 무료로 지내다가 문득 “성 가득한 풍우에 중앙절 다가오네”라는 구절이 생각나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낙연과 선찰에 말에 몸을 맡긴 채 한번 들렀는데 마침 주인이 일이 있을 때를 만나 마음껏 유람하지 못했으니, 또한 제 자신이 산수에 노닐 분수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 (抱病寒齋。悄坐無聊。輒思滿城風雨近重陽之句。不禁慕徒之懷。意外雙韻瓊投。諷玩數回。恍若對面抵掌之爲樂也。然區區糲點。只是養拙就溫之計。來詩。意寄高遠。太不著題。豈故以是相戲邪。令人生愧。象靖偶患寒感。似是勞動致然。落淵仙刹。信馬一過。而適值主人有故。不能a226_292c恣意遊覽。亦是自家無分於山水耳。令胤累顧。意思儘好。愧無以相發。只成閒往來。他日恐見訟於座下也。). 번역과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 참조(<https://db.itkc.or.kr>).

은 그중 1존이다. 현재 11존의 불상 중 서울 지장암(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서울 칠보사에서 2존이 선찰사 불상 발견 이전에 확인된 바 있다.¹²³⁾ 11존의 불상의 종류는 비로자나불상 2존, 석가불상 3존, 노사나불상 2존, 아미타불상 2존, 관음보살상 1존, 대세지보살상 1존이다. 이를 토대로 존상을 구성해 보면, 비로자나삼신불상 2세트, 아미타여래삼존상 1세트, 석가여래 독존, 아미타여래 독존으로 구성되어 각 전각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불상은 그중 독존의 석가여래로 자수사·인수사의 주불전에 봉안된 불상은 아니며, 별도로 마련된 왕실의 願堂에 봉안되었던 불상으로 여겨진다.



<선찰사 대웅전>

<정면>

<측면>

<배면>

선찰사 불상 외 현재까지 발견된 2구의 불상은 1665년 현종의 폐불 정책으로 자수사·인수사가 폐지되고, 여기에 봉안되었던 불상들은 인근 왕실의 원당인 광주 법륜사(영창대군 원당)에 재 봉안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다시 서울 인근 사찰로 이안되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안동 선찰사 불상은 중수기나 사적기에 이안 관련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어떤 경위와 경로로 선찰사까지 이안되었는지 그 내력을 알 수 없다.

발원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대작 불사를 발원한 사람은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이고, 이 불사를 주도한 인물은 당시 왕실과 두터운 친분을 쌓고 있던 孤閑熙彦(1561~1647)과 碧巖覺性(1573~1660)이다. 참여한 조각승은 현진, 수연, 응원, 청허 등 당시 활약하던 최고의 조선 팔도를 대표하는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조상화원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玄眞, 玉明, 守衍, 應元, 法玲, 明晝, 淸虛, 性仁, 宝熙, 印均, 敬玄, 志守, 太鑑, 密衍, 義仁, 勝一 등 모두 15명이다. 이 불사의 증명을 맡은 벽암각성과 고향회언은 부휴선수의 법맥을 잇는 사형사제 지간으로, 왕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이었다. 이들은 자수사·인수사 불사가 일어나기 전, 먼저 世子 李祿

123) 문명대, 「17세기 전반기 조각승 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목비로자나불좌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9,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7과 同著, 「칠보사 대웅전 1622년작 왕실발원 木 석가불좌상과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 43,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598~1623)의 원찰인 청계사에서 그를 위한 齋會를 먼저 개설하고, 바로 이어서 『묘법연화경』을 개관하였다. 청계사 재회와 경관 불사(3월)가 끝나자마자 바로 자수사·인수사 불사(5월)가 진행되었다. 특히 청계사 『묘법연화경』 각관 작업에는 禪敎都摠攝 熙運, 曹溪宗大禪師 覺性, 曹溪直傳 熙彦, 華嚴講士 靈眞, 龍華講士 靈圭, 傳法寺住持 智軒을 비롯하여, 玉明, 玄眞, 修衍, 應元, 宝熙, 希顔, 宗遍와 刻字眞默, 曇成, 勝均, 勝一, 玄坦, 令牛 등이 참여한다.¹²⁴⁾ 경관 각관 작업에 자수사·인수사 불상 제작을 주도했던 각성과 희언은 물론 조각승인 현진, 옥명, 수연, 응원, 승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점이 크게 눈에 띈다. 경관 작업에 조각승들이 명단을 올리고 있는 것은, 자수사·인수사 불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왜란 이후 새롭게 재편된 <도총섭>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당시 왕실에서 주도했던 불사의 진행순서는 우선 왕실의 불사도감이 도총섭에게 명하고, 도총섭은 예하 승장들을 소집하여 왕실불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계사 재회와 묘법연화경 각관, 자수사·인수사 불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된 왕실 불사에서 당시 성립된 도총섭체제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사 시스템의 작동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불사에 참여한 僧匠들은 임진왜란 과정에서 재편된 선교도총섭 체제에서 체계적으로 육성된 승장들로 판단되며, 도총섭의 명에 의해 왕실불사와 국가 공역, 그리고 불교의 재건불사에 조직적으로 움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조각승 현진은 1604년 전주 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시작으로, 1607년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불상, 1614년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 1617년 공주 갑사(시주), 1622년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주도한 자수사·인수사 11존 구성에 수화승으로 참여하였고, 뒤이어 보은 법주사(1626), 창녕 관룡사(1629), 대구 동화사(1629), 부여 무량사(1633), 성주 명적암(1637년) 등 1604부터 1637년까지 수많은 불상을 제작한 17세기 가장 걸출한 승려 조각가이다.

<표.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조각승의 주요 활동>

조각승	주요 활동	비고
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04년, 1위 -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07년, 1위 - 함양 상륜대 목조보살좌상, 1612년, 1위, 上員 -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세지보살좌상, 1614년, 1위 - 자수사·인수사 11존(서울 지장암, 칠보사, 안동 선찰사), 1622, 1위 - 보은 법주사 소조삼신불좌상, 1626년, 1위 - 대구 동화사 금당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29년, 1위 -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29년, 1위 -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33년, 1위 - 적천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3년, 1위 	

124) 1622년 청계사 개관 『묘법연화경』 권7 간기 참조.

	- 성주 명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37년, 1위(현 영남대학교)	
옥명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4위(현진) - 경남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수연	-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1615년, 3위(태전) - 충남 서천 봉서사 소조아미타삼존불, 1618년, 1위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 3위(현진) - 강화 전등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1623년, 1위 - 나주 다보사 영산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 1625년(1위), 원영암 쌍계사) - 익산 승림사 영원전 목조지장시왕상, 1634년, 1위 - 전등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636년, 1위 - 예산 수덕사 대웅전 목삼세불좌상, 1639년, 1위	
응원	- 보은 법주사 팔상전 재건공사, 1605년, 緣化秩 -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14년, 2위(각심) -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1615년, 2위(태전) - 공주 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1617년, 시주(행사)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 2위(현진) -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아미타불, 1624년, 1위 - 순천 송광사 응진당 소조석가삼존 및 16나한상, 1624년, 1위(송광사사적기) -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28년, 1위, 비파명문 -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삼신불상, 1634~36년, 1위/2위 -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 應元	
법령	-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1615년, 4위(태전) -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29년, 1위 - 익산 승림사 성불암 불상, 1640년, 1위(홍양) -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1년, 2위(청헌) - 청양 정혜사 목조삼세불좌상, 1640년대, 법령추정	
명은	-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 1612년, 2위(현진), 次員 - 구례 천은사 목관음세지보살좌상, 1614년, 2위(현진) -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1617년, 시주(행사)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6위(현진), 明唄	
청허	-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605년, 3위(원오) - 익산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입상, 1605년, 3위(원오) -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 1614년, 3위(각민), 소실 -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7위(현진), - 경남 김해 거창포교원 목조아미타불좌상, 1640년, 1위, 덕유산 연수사 봉안 - 경북 경산 경흥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44, 1위 - 경북 상주 남장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45년, 1위(海東畵名)	
성인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8위(현진) - 남양주 수종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1628년, 1위	
보희	- 서천 봉서사 극락전 소조아미타삼존불, 1618년, 5위(수연)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9위(현진), 普熙	
인균	-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14년, 6위(각심) -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1615년, 5위(태전)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10위(현진) -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불상, 1624년, 5위 - 김제 귀신사 영산전 석가삼존 및 16나한상, 1633년, 1위 -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삼신불상, 1634~36년, 3위, 화엄사사적기/발원문 - 광양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43년, 1위, 발원문 - 청도 장연사 목조보살좌상, 1643년, 1위 - 여수 흥국사 무사전 지장시왕상, 1648년, 1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 송광사 부도암 목조보살좌상, 1654년, 1위(印筠) - 여수 흥국사 응진당 목석가삼존 및 16나한상, 1655년, 1위 - 전주 학소암 자음전 약사여래좌상, 1662년, 1위 -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1663년, 비음 總攝 	
경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11위(현진)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12위(현진), 志修 - 보은 법주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655년, 2위(혜희) - 완주 송광사 나한전 석가삼존 및 16나한상, 1656년, 26위(무염) 	
태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13위(현진) -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1629년, 2위(법령), 太甘 - 경남 함양 법인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治匠3위(성옥/현진) 	
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治匠4위(성옥/현진) -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1617년, 시주(행사), 勝日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治匠2위(성옥/현진), 勝一 - 대구 동화사 금당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29년, 2위(현진) - 창령 관룡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상, 1629년, 2위(현진) - 밀양 표충사 삼진패, 1634년, 1위 - 영광 불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5년, 2위(무염) -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1639년, 2위(청현) 勝日 - 성주 명적암 영남대 박물관소장 목아미타불좌상, 1637년, 2위(현진) - 구례 천은사수도암 목아미타불 및 대세지보살상, 1646년, 1위, 勝日. -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조좌상, 1648년, 1위 - 서울 봉은사 대웅전 목삼세불좌상, 1651년, 1위(勝一) - 무주 북고사 목아미타불좌상, 1657년, 1위(勝一) - 문경 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8년, 1위(勝一) - 서울 청룡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일괄, 1660, 1위, 원경복 - 칠곡 송림사 명부전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1665년, 1위 - 김천 직지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68년, 1위(勝一) - 김천 직지사 비로전 목조보살좌상, 1688년, 1위(勝一) - 경북 김천 고방사 목조아미타삼존불, 1670년, 1위(勝日) 	

2015년 복장조사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다음과 같다. <청초홍서 조성발원문> 1점, <박상궁원불 년의디흐나> 목서편 1점, <병자생왕비유시명의> 저고리 1점, 황초폭자에 쌓인 후령통 1점, 다리니 등이 발견되었다. 작은 불상임에도 복장 安立物目は 매우 알찬 편이다. 후령통은 황초폭자에 넉넉하게 싸여 있으며 상단부에 오색사를 감고, 謹封紙帶를 돌려 마무리하였다. 남쪽에만 사방주를 적었다. 특히 주목되는 안립물목은 불상 조성내력을 담은 <청초홍서 발원문>과 발원자가 염원을 담아 직접 납입한 저고리 1점, 그리고 목서편이다. 발원문은 기존에 발견된 지장암 비로자나불상의 조성발원문과 대동소이하며, 저고리와 목서편은 지장암과 칠보사 불상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우선 저고리에는 “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는 명문이 적혀 있다. 즉 이 저고리의 주인공은 왕비 유씨다. 그는 자수사·인수사 불사를 기획하고 발원했던 당사자이다. 현재까지 광해군비 유씨는 해인사 판전을 중수할 때 夫君인 광해군의 옷과 함께 자신의 옷(국가민속자료 제3호, 광해군 내

외 및 상궁옷)을 봉납하였고, 이외에도 석주선기념박물관에 <광해군비 당의(국가민속문화재 제215호)>가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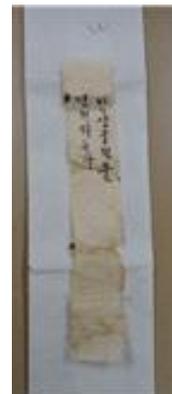
<청초홍서 발원문>



<후령통>



<丙子生王妃柳氏命衣>



<묵서편>

이와 더불어 복장물 중 ‘박상궁원불 던의디하나’는 묵서 종이 조각(32.5×5.5cm)이 발견되었다. 이 墨書紙片을 통해 이 불상이 모두를 위해 조성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불상이라기 보다 개인적인 염원을 담은 원불로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규모가 있는 주 불전에는 비로자나삼신불상과 아미타여래삼존상이 봉안되고, 이와 같은 작은 불상은 규모가 작은 원당에 봉안되었을 것이다.

청초홍서 발원문은 불복장 의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조상경』의 내용대로 푸른 바탕의 명주에 붉은색 글씨로 제작시기, 발원목적, 불사내용, 시주자, 제작자, 소임자 등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고 있다. 특히 내명부의 최고품계에 있는 왕비가 직접 발원한 불상인 만큼 당연히 많은 비용의 내탕금이 시납되었던 탓으로, 시주자 중에서 일반 시주자를 찾을 수 없는 점도 특징이다.

발원문에 축원대상이 되는 인물은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¹²⁵⁾, 광해군 李璵, 세자 李侁, 세자빈 박씨의 수명장수를 발원하고, 이어서 돌아가신 왕비의 부모(유자신, 정씨)와 壬辰生(1592)·丙申生(1596) 두 공주와 庚子生(1600) 왕자, 세자빈 박씨 소생의 甲寅生(1614) 왕손, 柳希鏗, 柳希聃 등 세상을 떠난 친정 형제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즉 왕비와 가까운 일가를 위해 발원한 지극히 개인적인 불사에 가깝다.

<표. 복장유물 목록>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	------	----	----	--------	----

125) 光海君의 정비인 章烈貞聖王妃柳氏(1576. 7. 21~1623. 10. 8)이다. 『大東野乘』 권44에 수록되어 있는 『凝川日錄』 권1 병진년(광해군 8, 1616) 10월조에 “十六日禮曹. 闕前上尊號體天興運浚德弘功. 今上神聖英肅欽文仁武. 中殿殿上章烈. 今上貞聖.”(16일 예조에서 임금께 전에 體天興運浚德弘功이라는 존호를 올렸고, 이제 神聖英肅欽文仁武라는 존호를 다시 올렸다. 중전께는 전에 章烈이라는 존호를 올렸는데, 이제 다시 貞聖이라는 존호를 새로 올렸다.)라는 내용이 있다(석미춘인 편, 『대동야승』 8, 경성, 조선고서간행회, 1910, p.683 ; 정봉화 역, 『국역대동야승』 X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68, p.176).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1	목조석가여래좌상	나무	1	높이 40.3 무릎 폭 28.0	
2	복장공 마감 다라니 (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呪)	紙 (朱書)	1	22.0×17.4	
3	박상궁원불 던의디흐나	紙 (墨書)	1	5.6×32.8	
4-1	覺天比丘信洁比丘	紙 (朱書)	1	5.5×16.1	
4-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15	18.9×24.2 (광곽 8.9×17.0)	
5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3	17.1×23.2 (광곽 8.9×17.0)	
6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2	18.2×22.5 (바깥 원지름 12.8×11.6) (안 원지름 3.0×2.7)	
7-1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1	17.5×22.4 (광곽 8.9×17.0)	
7-2	方紙圓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7	18.6×23.9 (바깥 원지름 12.7×11.5) (안 원지름 3.0×2.7)	
8-1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2	18.2×22.7 (바깥 원지름 12.7×11.7) (안 원지름 3.0×2.7)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8-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1	18.5×24.2 (광곽 8.9×17.0)	
8-3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腹藏眞言)	紙 (墨印)	6	28.8×22.0 (광곽 22.4×12.5)	
9-1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1	17.8×24.2 (광곽 8.9×17.0)	
9-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腹藏眞言)	紙 (墨印)	2	26.3×21.1 (광곽 22.6×12.5)	
10	저고리	絹	1	화장(가로 최대) 143.0 높이(세로 최대) 59.5	
11	造成發願文	靑絹 紅書	1	33.5×70.0	
12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5	18.8×23.4 (바깥 원지름 12.8×11.6) (안 원지름 3.0×2.7)	
13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4	19.0×22.0 (광곽 8.9×17.2)	
14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5	19.0×25.2 (광곽 8.9×17.1)	
15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2	18.2×22.9 (광곽 8.9×17.2)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16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1	19.2×24.6 (광곽 8.9×17.0)	
17-1	喉鈴筒 및 黃絹幅子	혼합 (직물, 금속 등)	1	미개봉	
17-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5	18.8×21.09 (광곽 8.9×17.1)	
17-3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3	19.4×24.5 (광곽 8.8×17.0)	
17-4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6	17.5×21.3 (바깥 원지름 12.1×12.1) (안 원지름 2.9×2.9)	
17-5	圓紙圓形다라니 (후령통 상부 마감)	紙 (朱印)	2	15.8×13.8 (바깥 원지름 12.8×11.6) (안 원지름 3.0×2.7)	
17-6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후령통 외곽 마감	紙 (朱印)	2	가장 긴 면 23.0 (광곽 8.9×17.0)	

불상은 큰 머리에 짧고 두툼한 허리를 갖고 있다. 얼굴에는 포동포동 살이 올라 통통한 아기를 연상시킨다. 반개한 눈은 눈꼬리가 길지 않은 편이며, 코는 도톰하고 인중도 짧다. 턱이 짧고 볼과 양악에 살집이 풍성하게 잡혀 있다. 목은 짧고 열게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대의는 변형 편단우견으로 걸쳤으며, 양 어깨에는 삼각형으로 짧게 접은 주름이 형성되어 있고,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 자락은 새깃처럼 표현되었다. 얼굴과 마찬가지로 복부에도 볼록하게 살집이 올라 있고, 노출된 오른팔도 짧고 통통하다. 무릎 앞으로는 넓은 역y형 주름과 호선의 주름이 부채살을 이루며 드리워져 있다. 발목 아래로 내려진 2개의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호선 주름을 펼치는 칠보사와 지장암 상과는 약간 다른 주름표현이며, 수연의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23년)과 응원의 송광사 응진당 목조석

가여래좌상(1624) 등과도 유사점이 보인다. 이는 자수사·인수사 불상이 여러 조각승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업과 분업을 통하여 11존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른 조각승의 조각양식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귀의 표현은 삼각좌가 짧고 이공이 완두콩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귀 표현은 1614년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대세지보살상과 1615년경 현진 추정 작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귀의 세부표현과 비슷하다. 왼쪽 어깨 측면으로 드리운 주름의 경우 현진은 대개 정면과 측면으로 흘러내린 주름이 쌍Ω형태, 즉 M자형으로 마무리 짓는데 반해, 수연은 단 Ω형으로 표현된다. 무릎 앞쪽으로 사선으로 펼쳐진 짧고 간결한 주름은 1614년 천은사 대세지보살상에서 그 선구적 연원을 찾을 수 있고, 이후로는 1636년에 제작된 적천사 약사불상으로까지 나타난다.

불상은 전반적으로 아기 같은 비례감을 갖고 있다. 머리가 크고 무릎이 좁고, 뺨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양감이 있으며, 무릎은 낮고 좁아 전체적으로 귀여운 인상을 준다. 이러한 불상양식은 1628년 소성정의대왕대비, 즉 인목대비가 발원하고 성인이 주성한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에 봉납한 일군의 금동불상들과 양식은 물론 미감을 공유한다. 수종사 금동불상을 조성한 성인 역시 자수사·인수사 불상 조성에 참여한 바 있다. 즉 이 시기 왕실 비빈들이 자신의 원당이나 자신의 원을 담아 발원한 불상에는 대체로 아기 같은 3~4등신의 비례에 포동포동 살이 올라있는 얼굴을 가진 불상들이 출연하고 있다. 자수사·인수사 11구의 불상 조성이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의 돌아가신 부모와 자신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간 금쪽같은 공주와 대군의 명복을 비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원당에 봉안되었을 이 작은 불상의 경우 자신의 자식의 생전 모습으로 환치시켜 놓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들의 극락왕생과 다시 자신에게로 환생하기를 기원했을 것이다. 특히 선찰사 불상보다 먼저 발견된 지장암과 칠보사 불상의 중후한 미감과 달리 아기 같은 조형성을 가진 선찰사 불상은, 망자가 된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의 어린 왕자와 공주를 연상시킨다. 그 애절한 마음이 이 불상에 담겨 있다.

○ 문헌자료

<조성발원문> 1622년 5월 26일, 靑綃紅書, 33.5×70cm.

恭聞

覺皇功成億劫位著義天三身之德相周圓四智之慧明眞淨分身刹土實萬善之莊嚴一坐蓮宮乃群心之欽慕慈深苦海悲極含生是故一聞號而衆罪悉除一念歸而萬福畢集今我章烈殿下益信 佛乘爰發 聖願特爲

主上殿下陰陽泠釋年月厄消二曜並明休光隻於千古兩儀齊壽盛業
邁於百王天人交慶日月貞光
王世子邸下壽星獻彩如來座福辰呈輝 世尊前順從民心荷天地之休
命傳授
寶明宣
祖宗之重光
世子嬪朴氏邸下壽命千秋敬奉慈圍之德仰致怡愉之禮密符徽音之恩克
勤敬戒之規速誕元孫纘承 聖嗣亦爲
己身章烈殿下德並大術道同宣仁增壽筭於靈椿著徽音於盛世身輕氣順
頓消諸病之根食穩寢安永享萬年之快抑願
先王先后祖宗列位仙駕
文陽府院君柳自新仙駕
蓬源府夫人鄭氏仙駕
壬辰生公主李氏仙駕
丙申生公主李氏仙駕
庚子生大君李氏仙駕
甲寅生郡主李氏仙駕
贈文陵君進士柳希鏗靈駕
贈文源君 柳希聃 靈駕
先亡上世宗祖親姻眷屬之靈脫此三有生彼九蓮以此大願恭捐寶帑虔
募良工敬造
尊像毘盧遮那佛二尊
釋迦如來三尊
盧舍那如來二尊
彌陀如來二尊
觀音菩薩
大勢至菩薩兼圖畫像
三身大靈山會幀二 龍華會幀二 五十三佛幀一 中壇幀一
下壇幀一工手已畢奉安于慈仁壽兩寺仰表卞(丹)慄靡懈初心克成勝
妙以此大功德伏願
諸聖垂慈嘉應時格洪休使成前願必獲後果悔吝頓消吉祥荐至動資
佛力永享不老之春秋尋符 天恩長見太平之風月群臣協睦百神護
祐東溟乏賊倭之舟舟(舂)北地絕兇狄之弓弩天災自滅地變自弭雨暘和而百
穀登場干戈息而四方莫枕
瑤圖地久寶曆天長 佛日與舜日恒明禪風共堯遐扇然後願惠流
澤及含咸脫苦波同遊覺海伏惟
諸聖慧眼遙觀作此功德 時維

大明天啓二年壬戌五月二十六日謹記

	造像畫員	咽導 飯頭 淨桶
證明大德熙彦	玄眞 淸虛 太鑑	雲牛 竺熙 道彦
證明大德覺性	玉明 性仁 密衍	書記 濟一 助役
	守衍 宝熙 義仁	宗遍 戒淳 可英
持任智軒	應元 印均 性玉	寫經 熟頭 宗印
	法玲 敬玄 勝一	熙安 雙衍 性眞
	明晝 志守 看香	別座 應和 雙淳
	坦宗	熙祥 妙安 宗式
		敬禪

○ 참고문헌

- 문명대, 「17세기 전반기 조각승 현진파의 성립과 지장암 木 비로자나불좌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9, 2007.
- 문명대, 「칠보사 대웅전 1622년작 왕실발원 木 석가불좌상과 복장품 연구」, 『강좌미술사』 43,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
- 김미경, 「조선 光海君代의 佛事 연구-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상 造成發願文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6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 송은석, 「1622년 慈壽寺·仁壽寺의 章烈王后 發願 불사와 안동 선찰사 목조 석가불좌상」, 『석당논총』 6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 이은주·박윤미,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직물과 유씨 저고리 고찰」, 『석당논총』 6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 손영문, 「조선 후기 조각승의 활약과 印均」,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총서』 54, 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 2023.

□

○ 현 상

지금의 선찰사는 안동 길안면 천지리 길안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 북쪽으로는 길안천이 흐르고, 주변으로 넓은 사과밭이 펼쳐져 있다. 이 절이 언제 누구에 의해 창건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원래의 선찰사는 『영가지(永嘉誌)』 기록에 의하면 임하면 남쪽 17리쯤 되는 약산(藥山) 동쪽의 물길에 휘돌아 돌고 왼쪽은 절벽으로 막혀 있으며 앞으로는 독산이 마주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전한다. 하

지만 1949년 화재와 6·25전쟁으로 건물 전체가 소실되었고 1989년 임하담 건설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조사 대상인 불상과 복장물은 조선 후기(17세기) 왕실 발원 불사와 관련한 중요 자료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2016.10.6. 제497호)로 지정되었다. 상의 전반적인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전면(前面) 왼쪽 목덜미 선을 따라 균열이 있고 도금의 박리·박락도 확인되며 왼쪽 2번째 손가락은 부러져 접합해 놓았다. 상의 복장에서 후령통, 저고리, 다라니 등 81점의 복장물이 확인되었는데 현재 안동시립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

<표1. 복장유물>

연번	물목	규격(cm)	재질	수량	사진	비고
1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주 (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呪)	17.0×20.5	종이(朱書)	1		
2	박상궁원불묵서지편 (朴尙宮願佛墨書紙片)	32.5×5.5	종이(墨書)	1		
3	각천비구신호비구주서지편 (覺天比丘信浩比丘朱書紙片)	16.0×5.5	종이(朱書)	1		
4	대불정수능엄신주 (大佛頂首楞嚴神呪)	전체 24.2×20.5 광곽 17.0×8.9	종이(墨印)	23		
5	대불정수능엄신주 (大佛頂首楞嚴神呪)	전체 24.2×20.5 광곽 17.0×8.9	종이(朱印)	18		
6	다라니	전체 22.6×18.6 외경 13.7	종이(朱印)	26		
7	복장진언	전체 21.1×26.5 광곽 12.3×22.3	종이(墨印)	8		
8	저고리	화장 143.0 길이 59.5	비단	1		‘丙子生 王妃柳氏 命衣’
9	후령통 및 황초폭자	전체길이 34.5 후령통 8.5×2.8	동(금속) 비단	1		

연번	물목	규격(cm)	재질	수량	사진	비고
10	조성발원문	33.5×70.5	靑緞紅書	1		
계				81		

○ 내용 및 특징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이하 석가상)은 42cm에 아담한 크기의 작은 상이다. 결가부좌하여 앞으로 숙인 자세에 오른손은 손가락 끝이 땅을 향하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왼손은 다리 위에 둔 향마촉지인의 손 모습을 하고 있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조선 후기 불상의 보편적 특징을 따르고 있다. 다부져 보이는 상반신은 목이 짧고 양감이 있으며 적당한 다리 너비는 신체의 안정감을 더한다. 머리에는 뽕죽하고 작은 나발을 촘촘하게 붙였고, 머리와 육계의 경계에는 반원에 큼직한 중간계주, 정상에는 나지막한 정상계주를 각각 두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볼록하고 턱을 수평으로 깎은 네모진 형이다. 두툼한 눈꺼풀과 눈꼬리가 올라간 눈매, 콧날이 선 오뚝한 코, 짧고 선명한 인중선과 가볍게 다문 입술 등의 표현이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준다.



<도1.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웃은 오른쪽 어깨에 대의를 살짝 걸친 변형식 편단우견으로 입었으며, 목덜미의

두꺼운 옷깃과 오른쪽 어깨에 U자형으로 층을 이루는 옷주름, 가슴 아래 수평으로 입은 승각기와 그 가운데 도드라진 수평의 띠 등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 상은 발원문에 적힌 바와 같이 현진이 조성한 것으로 그가 제작한 불상은 공통적으로 오른쪽 어깨에 옷주름 하나가 강조되어 있으며, 또 그의 계보를 따르는 조각승의 불상에서도 이를 계승한 특징들이 표현되기도 한다. 즉 이 석가상은 현진을 비롯하여 그 계보 조각승의 불상 특징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반신의 옷자락은 무릎에서 발목으로 올라가는 2개의 옷주름과 양다리 사이에 ‘人’자 형의 옷주름은 끝단이 삼각형의 물결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현진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함양 상연대 목조관음보살좌상(1612)이나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29) 등에서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석가상의 복장에서는 조성발원문과 후령통 1개, 저고리 1착, 3종의 다라니 등 다수의 납입물이 발견되었다. 그중 조성발원문은 『조상경』(楡岾寺本, 1824)의 내용과 같은 푸른 비단 바탕에 붉은 글씨로 적혀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이 상은 1622년 5월 26일에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임금과 자신의 아들 내외인 세자와 세자빈, 그리고 대군과 공주를 비롯하여 친가 가족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11구의 불보살상(비로자나불 2구, 석가여래 3구, 노사나불 2구, 아미타여래 2구, 관음보살 1구, 대세지보살 1구)과 불화 7점을 조성하여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에 봉안한다고 기록하였다. 존상의 내용으로 보아 석가-비로자나-노사나불의 삼신불의 구성 2벌과 대세지보살-아미타여래-관음보살의 아미타여래삼존상 1벌 그리고 각각 아미타여래와 석가여래 1구씩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현재까지 확인된 존상은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 1621호)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004호)이며 선찰사의 석가상은 세 번째로 확인된 상이다. 규모면에서 기초사된 2구의 상은 각각 전자는 117.5cm, 후자는 117cm로 크기이며, 본 석가상은 42cm 것과는 비교된다. 존상의 크기로 보아 개인의 원불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삼존상 구성 외에 나머지 1구인 아미타여래상도 같은 용도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발원문에는 현진(玄眞)을 비롯해 옥명(玉明), 수연(守衍), 응원(應元), 법령(法玲), 명은(明暎), 청허(靑虛), 성인(性仁), 보희(寶熙), 인균(印均), 경현(敬玄), 지수(志守), 태감(太鑑), 밀연(密衍), 의인(義仁), 성옥(性玉), 승일(勝一)까지 뚜렷한 개성을 보이며 활약한 조각승 17명의 이름은 물론 간향(看香), 인도(咽導), 서기(書記) 등 조성과정에서의 조력자들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선찰사 석가상은 기초사된 다른 2구의 존상에서 여러 조각승들의 특징이 드러난 것과 다르게 얼굴이나 옷자락 등의 표현에서 현진의 양식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존상에서 ‘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 적은 저고리(回粧赤古里)가 발견되었는데 유씨는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로 추정된다. 광해

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의 복식유물은 선찰사 외 해인사 소장 ‘中宮柳氏’ 목서명의 홍색 토주(吐紬) 겹장저고리(국가민속문화재 제3호)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광해군비 당의(국가민속문화재 제215호)가 있다. 선찰사의 저고리는 해인사 소장의 자색 솜 단저고리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오히려 더 좋은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비의 개인 저고리가 석가상에 납입된 것을 보면 개인을 위한 원불로 제작된 것이 분명하며 이 불사의 수화승인 현진이 석가상 조성에 오히려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므로 석가상에서는 현진의 조각적 특징이完연히 드러난다 할 수 있겠다.

○ 문헌자료

<조성발원문> 1622년 5월 26일, 靑綃紅書, 33.5×70cm.

恭聞

覺皇功成億劫位著義天三身之德相周圓四智之慧明眞淨分身刹土實萬善之莊嚴一坐蓮宮乃群心之欽慕慈深苦海悲極含生是故一聞號而衆罪悉除一念歸而萬福畢集今我

章烈殿下益信 佛乘爰發 聖願特爲

主上殿下陰陽泠釋年月厄消二曜並明休光隻於千古兩儀齊壽盛業

邁於百王天人交慶日月貞光

王世子邸下壽星獻彩如來座福辰呈輝 世尊前順從民心荷天地之休

命傳授

寶明宣

祖宗之重光

世子嬪朴氏邸下壽命千秋敬奉慈圍之德致怡愉之禮密符徽音之恩克

勤敬戒之規速誕元孫繼承 聖嗣亦爲

己身章烈殿下德並大術道同宣仁增壽筭於靈椿著徽音於盛世身輕氣順

頓消諸病之根食穩寢安永享萬年之快抑願

先王先后祖宗列位仙駕

文陽府院君柳自新仙駕

蓬源府夫人鄭氏仙駕

壬辰生公主李氏仙駕

丙申生公主李氏仙駕

庚子生大君李氏仙駕

甲寅生郡主李氏仙駕

贈文陵君進士柳希鏗靈駕

贈文源君 柳 希 聃 靈駕

先亡上世宗祖親姻眷屬之靈脫此三有生彼九蓮以此大願恭捐寶帑虔

募良工敬造

尊像毘盧遮那佛二尊

釋迦如來三尊

盧舍那如來二尊

彌陀如來二尊

觀音菩薩

大勢至菩薩兼圖畫像

三身大靈山會幀二 龍華會幀二 五十三佛幀一 中壇幀一

下壇幀一工手已畢奉安于慈仁壽兩寺仰表卞(丹)慄靡懈初心克成勝

妙以此大功德伏願

諸聖垂慈嘉應時格洪休使成前願必獲後果悔吝頓消吉祥荐至動資

佛力永享不老之春秋尋符 天恩長見太平之風月群臣協睦百神護

祐東溟乏賊倭之舟舟(豈)北地絕兇狄之弓弩天災自滅地變自弭雨暘和而百

穀登場干戈息而四方莫枕

瑤圖地久寶曆天長 佛日與舜日恒明禪風共堯遐扇然後願惠流

澤及含咸脫苦波同遊覺海伏惟

諸聖慧眼遙觀作此功德 時維

大明天啓二年壬戌五月二十六日謹記

	造像畫員			咽導	飯頭	淨桶
證明大德熙彦	玄眞	清虛	太鑑	雲牛	竺熙	道彦
證明大德覺性	玉明	性仁	密衍	書記	濟一	助役
	守衍	宝熙	義仁	宗遍	戒淳	可英
持任智軒	應元	印均	性玉	寫經	熟頭	宗印
	法玲	敬玄	勝一	熙安	雙衍	性眞
	明豈	志守	看香	別痊	應和	雙淳
			坦宗	熙祥	妙安	宗式
					敬禪	

○ 참고문헌

- 김미경, 「조선 光海君代の 佛事 연구-안동 仙刹寺 목조석가불좌상 造成發願文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67, 2017.
- 송은석, 「1622년 慈壽寺·仁壽寺의 章烈王后 發願 佛事와 안동 선찰사 목조석

가불좌상」, 『석당논총』 67, 2017.

- 이은주·박윤미,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직물과 왕비 유씨 저고리 고찰」, 『석당논총』 67, 2017.
- 문명대, 「17세기 전반 조각승 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木 비로자나불좌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9, 2007.
- 문명대, 「칠보사 대웅전 1622년작 왕실발원 목(木) 석가불좌상과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 43, 2014.



○ 현 상

1622년에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한 11구의 불상 중에 1구로 현재는 경북 안동시 길안면의 선찰사 법당에 봉안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 『조상경(造像經)』의 불복장 법칙에 따라 청색 바탕의 직물에 홍색으로 글씨를 쓰고 불사에 참여한 인물들의 직책과 이름을 열거하였다.
- 조상기에 따르면, 이 불상은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발원한 것으로 현진(玄眞)을 수조각승으로 응원(應元), 수연(守衍), 법령(法玲), 청허(淸虛), 인균(印均), 승일(勝一) 등 당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하였다고 한다.
- 당시 불사를 통해 모두 11구의 불상, 즉 비로자나불상 2구, 석가불상 3구, 노사나불상 2구, 아미타불상 2구, 관음보살상 1구, 대세지보살상 1구를 제작했는데(석가, 비로자나, 노사나로 구성된 삼신불상(三身佛像) 2세트와 아미타, 관음, 세지로 구성된 아미타삼존불상(阿彌陀三尊佛像) 1세트)로 추정, 이 불상은 3구의 석가불상 중에 1구로 생각된다.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상의 조사결과, 이 불상들도 선찰사 목조석가불상과 함께 발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은 높이 42cm에 불과한 작은 규모지만 어깨를 펴고 당당한 자세로 앉아있다. 두꺼운 상반신에 비해서 하체는 무릎이 낮아서 안정감이 없는데, 이런 체형의 표현은 조선후기 불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도1]. 넓적한 얼굴에 턱은 각져 있고 가느다란 눈은 아래를 응시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서 진중한 인상을 준다. 이런 얼굴의 표현은 진주 청곡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삼존불상(1615년 제작 추정)과 흡사해서 현진과 불상의 특징이 잘 드러난

다고 할 수 있다.



<도1. 선찰사 목조불좌상>

- 내의를 입고 그 위에 편단우견 방식으로 대의를 걸쳤는데, 왼쪽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대의자락이 접혀진 방식과 옷주름 표현이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1622년 제작) 등 현진 내지는 현진파의 불상들과 유사하다.
- 하반신의 왼쪽 대퇴부에는 두 줄의 용기선으로 옷주름을 표현하였고 발목이 교차하는 중앙부에는 대의자락이 부채살처럼 넓게 펼쳐져서 바닥까지 이어져 있다. 이런 대의의 표현도 구례 천은사 목조대세지보살상(1614년 제작)이나 청도 적천사의 목조약사불좌상(1636년 제작) 등 현진파 불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 불상의 바닥면에는 원형의 복장공이 뚫려있는데, 불상의 내부는 옷칠을 한 뒤 묵서발원문, 저고리, 후령통, 다라니 등의 복장물을 넣었다[도2]. 복장공 안에서는 묵서발원문, 저고리, 후령통, 다라니, 필사본 등이 발견되었다. 복장공을 막은 마개 위에는 붉은색으로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다라니(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呪)」를 써 붙였다[도3].



<도2. 복장공>



<도3. 복장공 마개-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다라니>

- 묵서발원문은 왕실에서 발원한 작품답게 치밀하게 직조한 양질의 명주에 썼는

데, 『조상경(造像經)』의 불복장 법칙에 따라 청색 바탕의 직물에 홍색으로 글씨를 쓰고 불사의 내용과 참여한 인물들의 직위와 직책, 이름을 격식에 맞게 열거하였다.

- 저고리는 뛰어난 직조기술을 보일 뿐 아니라, 네 종류(또는 사계절)의 꽃과 함께 봉황이 문양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문양의 표현은 17세기 복식의 특징으로 조상기에 기록된 불상의 제작시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왕실 제작품의 품격을 잘 보여준다[도4].



<도4. 복장-저고리>

- 후령통을 감싼 황초폭자는 개봉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례를 볼 때 붉은 글씨로 방위를 상징하는 오륜종자와 불사의 참여자를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후령통의 후혈에는 붉은색으로 ‘謹封(근봉)’이라는 글씨를 쓴 봉서를 오색실과 함께 감았다. 이런 형식도 17세기에 나타나는 것이다[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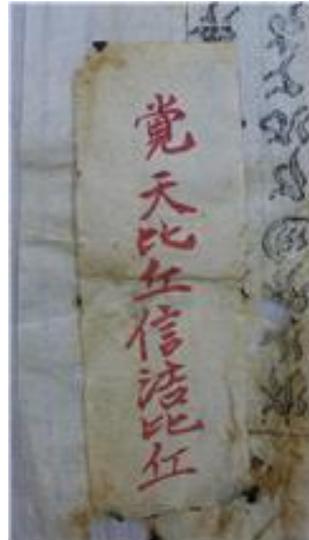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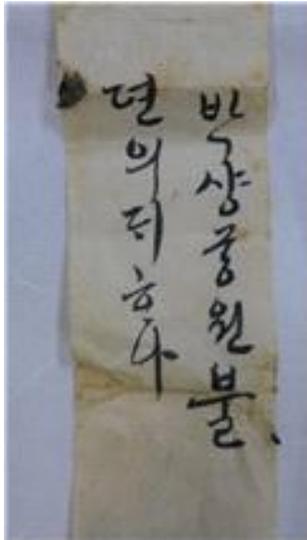


<도5. 후령통>

- 조상경 진언을 비롯하여 대불정수능엄신주,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주 등을 먹

색과 주색으로 총 78매 찍어 복장물과 함께 매납하였다.

- 그 외 “박상궁원불년의디흐나”와 “각천비구신길비구(覺天比丘信洁比丘)”라는 필사가 발견되었다[도6]. 이 필사는 한글의 표기방식을 볼 때 불사가 이루어진 1622년 경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양질의 고급 종이에 필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박상궁과 각천, 신길은 불사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도6. 발원 필사본>

□

○ 현 상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만 오랜 기간 복장 상태로 되어 있어서 구김이 있으며 일부 손상 부위가 있어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태임.

○ 내용 및 특징

경상북도 안동시 仙刹寺 木造釋迦佛坐像의 복장 발원문과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 1576~1623]의 저고리를 실견·조사한 결과, 발원문에 따르면 1622년 5월 26일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장되어 있던 저고리의 안깃 안감 쪽에 ‘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는 9자의 목서가 있었기에 저고리의 주인이 왕비 유씨임을 알 수 있다.



<도1.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의 왕비 유씨 저고리 앞과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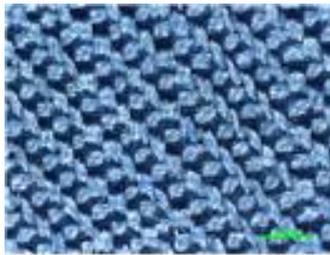
1. 저고리 소재와 색상

선찰사 복장 발원문과 저고리 한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물은 4종류로 분류되었다. 無紋綾(도2), 吐紬, 紬, 그리고 鳳花紋段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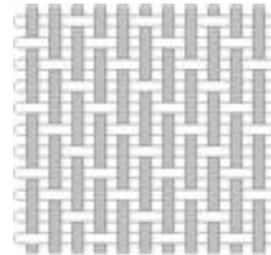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고리의 길에는 청색 무문능(도2), 소매·무·깃·섶·겉고름에는 자색 토주(도3), 안고름에는 청록색 주, 끝동에는 청색 봉화문단(도4)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현재까지 조사·보고된 직물 유물 가운데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주는 몇 점에 불과하므로 저고리의 소매와 무에 사용된 자색 토주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직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상의의 안감과 동정에 素色의 주가 사용되었고 안고름에는 청록색의 주가 사용되었다(도5).



무문능



무문능 확대



3매능직 조직도

<도2. 저고리 길에 사용된 무문능과 조직도>



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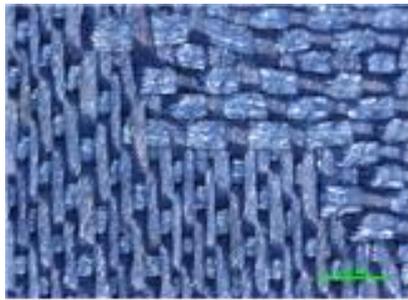


토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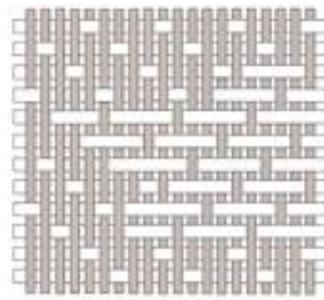
<도3. 소매와 회장에 사용된 토주>



끝동(왼쪽)



청봉화문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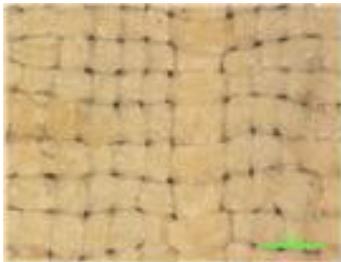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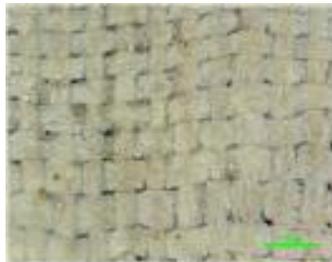


봉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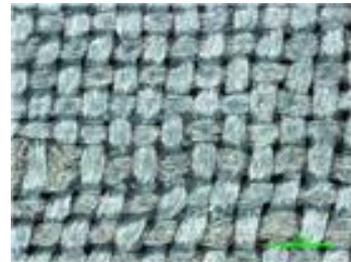
<도4. 끝동에 사용된 청봉화문단>



안감 확대



동정 확대



안고름 확대

<도5. 안감, 동정, 안고름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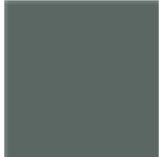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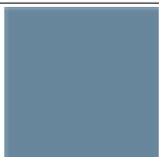
<표1. 선찰사 불복장 직물의 특성>

유물명	부분	직물 종류	직물 조직	실의 특성			밀도 (올/cm ²)	포폭 (cm)	두께
				구분	직경(mm)	꼬임			
발원문	전체	주	평직	경사	0.25-0.43	무연	32	70이상	0.10-0.12
				위사	0.53-0.58	무연	18		
저고리	길	무문능	3매 능직	경사	0.14-0.16	Z	68		0.15-0.16
				위사	0.15-0.17	무연	56		
	소매·무·깃· 셔·겉고름	토주	평직	경사	0.13-0.46	Z	30	37	0.19-0.21
				위사	0.19-0.43	Z	26-36		
	끝동	문단	5매2비 수자직	경사	0.19-0.21	Z	110		0.24-0.28
				위사	0.18-0.19	무연	48		
	안감	주	평직	경사	0.27-0.75	무연	29		0.14-0.17
				위사	0.33-0.54	무연	35		
	동정	주	평직	경사	0.16-0.26	무연	32		0.18-0.19
				위사	0.15-0.35	무연	36		
안고름	주	평직	경사	0.17-0.24	무연	28		0.15-0.16	
			위사	0.21-0.32	무연	28			

상의의 길은 밝은 청옥색으로 저명도, 저채도의 파란색 계열이며 소매, 겉마기, 깃에 사용된 토주는 검은색이 약간 가미된 자주색 계통으로 저명도와 저채도의

자주색 계열이다. 그리고 끝동은 회색을 띤 청색으로, 증명도와 중채도의 청색 계열이었다. 안감은 유백색에서도 탁한高明도, 저채도이며 연한 노란분홍색 계열이었으며 동정은 유백색을 띠었는데 高明도와 저채도의 연한 노란분홍색 계열로, 안감과 유사하였다. 안고름은 어두운 회녹색으로 증명도, 저채도의 청록색 계열이었다.

<표2. 선찰사 불복장 불복장 직물의 색차와 색상명>

유물명	구분	색						인지색	색상명
		L	a ⁺	b ⁺	H	V	C		
저고리	길	38.1	-9.9	-9.7	3.46B	3.7	3.07		청색
	소매 무	22.8	16.5	-0.8	8.91RP	2.22	3.33		자색
	끝동	48.5	-5.9	-14.6	9.55B	4.70	3.85		청색
	안감	78.2	6.3	16.0	6.45YR	7.68	2.95		소색
	안고름	36.7	-6.7	0.6	0.31BG	3.57	1.40		청록색
	동정	76.6	9	17.4	4.8YR	7.51	3.49		소색
발원문		49.1	-5.2	-16.1	0.39PB	4.76	4.18		남색

2. 저고리의 구체적 명칭

왕비 유씨 저고리는 새로 제작하여 복장한 것인데 길이로 보면 ‘短赤古里’라고 할 수 있고 색상 조합으로 보면 ‘回粧赤古里’라고 할 수 있다. 저고리 유물은 1차적으로 뒷길리와 품, 화장과 같은 크기에 의해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깃 형태와 옆트임의 유무, 그리고 그 길이, 겨드랑이 무의 구조, 그리고 소재와 색상 배열 등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

또한 단저고리형 상의는 ‘短赤古里’ 혹은 ‘回粧赤古里’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저고리형 상의는 옆이 막힌 견마기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장저고리형은 옆이 겨드랑이 아래로 길게 트인 저고리인데, 장저고리, 당고의, 또는 당의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고리 유물에 적합한 명칭을 찾는 데에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다.

선찰사 복장 저고리[도1]는 단순히 ‘저고리’라고 명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명칭을 찾아본다면,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cm 전후의 ‘단저고리’에 해당된다. 또한 소재의 색상 조합 차원에서 본다면 청색 능직물 길에 자색 토주 깃과 썩, 무, 고름을 달고 소매 끝에 청색 봉화문단 끝동을 낸 ‘회장저고리’라고도 할 수 있다.

회장저고리는 흔히 길과 구별하여 깃과 썩, 무, 끝동에 길과 다른 색상의 소재를 사용한 것을 말하는데 이 유물은 색상 조합에 있어 일반적인 회장저고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유사한 배합의 저고리 유물은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진주류씨의 부인인 의인(宜人, 6품) 박씨 묘에서 출토된 저고리[도6②]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에서 출토된 이 저고리는 왕실이나 반가 여성 저고리의 조형적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도6. ①선찰사 왕비 유씨 저고리와 ②진주류씨 부인 박씨 묘 출토 저고리 색상 조합 비교>126)

3. 저고리의 조형적 특징

1) 목서

왕비 유씨 저고리의 안썩 쪽 깃 안쪽에는 깃 끝에서 6.8cm 위쪽으로 9자의 목서가 보인다. 전체 길이 9cm 가량의 ‘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고 하는 목서이다[도7].

126) 경기도박물관,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 복식』, 2006, p.24.



<도7. 왕비 유씨 저고리의 목서 위치와 목서 정보>

동시대의 다른 상의류와 마찬가지로, 어깨솔기 없이 만든 저고리이다. 저고리의 뒷길이는 49cm이고, 앞길이는 50cm, 화장 72cm, 뒷폭은 51cm였다. 깃은 겹깃과 안깃 모두 내어 달린 목판깃으로, 깃 너비는 9.5cm이고 길이는 88.8cm이다. 그리고 겹으로 드러난 동정의 너비는 5cm이고 안감 쪽으로 넘어간 동정의 너비는 2cm이며 그 길이는 57.5cm인데 겹깃 끝에서 15cm 올라온 지점부터 동정이 달렸다. 겹섷은 너비 16.5cm, 길이 37.5cm, 안섷은 너비 12cm, 길이 32cm 정도의 크기로 달렸으며 남색 봉화문단 끝동 너비는 8.5cm이다. 좌우 겨드랑이에는 ‘ㄱ자형 무’가 달렸는데 너비는 7.8cm이고 길이는 18cm이다. 겹고름은 28.5cm 길이에 너비 2cm이고 안고름은 28cm 길이에 1.4cm 너비로, 겹고름보다 안고름이 작았다. 저고리의 세부적인 치수는 [표3]과 같고 도식화는 [도8]과 같다.

2) 저고리 제작방법

저고리의 제작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겹감 구성 : 좌우 앞길 겹감의 중심선에 섷을 단다. → 좌우 길 진동선에 끝동을 단 소매를 단다. → 좌우·앞뒤 겨드랑이 부분에 무를 각각 단다. → 뒷중심선을 박는다.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을 향하도록 한다. → 겹감 길에 깃을 단다. → 배래와 옆선을 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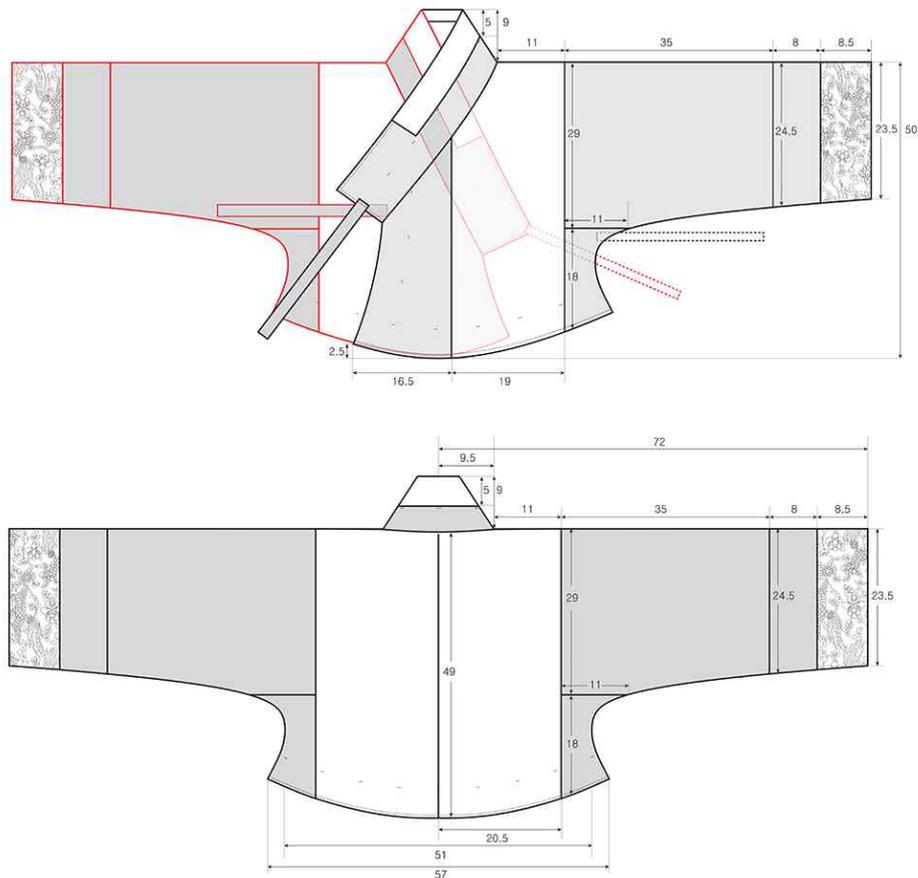
② 안감 구성 : 안감의 앞길 중심선에 섷을 단다. → 길의 섷 반대편에 끝동을 단 소매를 단다. → 좌우 저고리 겨드랑이 부분에 무를 각각 단다. → 뒷중심선을 박는다. 시접은 겹감처럼 입어서 오른쪽으로 둔다. → 안감 길에 깃을 단다. → 배래와 옆선을 박는다.

③ 안팎 끼워 완성하기 : 겹감과 안감이 모두 완성되면 안감의 거죽에 겹감의 거죽이 맞닿도록 안팎의 두 옷을 끼운다. → 좌우 수구를 흠질한다. → 겹깃 안쪽에 풀숨을 얇게 깎는다. → 고대부분을 제외한 겹깃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겹섷선, 앞도련, 뒷도련, 안섷선, 안깃까지 연속적으로 박아서 깃 중앙에 동정 길이보

다 짧은 창구멍을 남겨둔다. → 창구멍으로 뒤집은 후 창구멍을 막고 안감이 밀려 나오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상침을 한다. → 깃 가장자리에 고운 흡질로 솜을 고정 시키면서 장식선을 두른다. → 동정을 단다. → 겹·안고름을 단다.

<표3. 광해군 부인 유씨 저고리 세부 치수>

세부 명칭		치수(cm)
길	뒷길이/앞길이	49/50
	화장	72
	뒤폭	51
	고대	19
소매	진동	28.5
	소매너비(内/中/外)	28.5/25.5/23.5
	수구	23.5
섶	겉섶 너비(上/下)	11.6/16.5
	겉섶 길이(内/外)	37.5/21
	안섶 너비(上/下)	7.5/12
	안섶 길이(内/外)	32/14.5
목판깃	너비	9.5
	길이	88.8
동정	너비(内/外)	2/5
	길이	57.5
무	형태	ㄱ자형
	너비(上/中/下)	11/5/7.8
	길이	18
고름	겉고름(너비/길이)	2/28.5
	안고름(너비/길이)	1.4/28
묵서	너비/길이	1/9



<도8. 선찰사 복장 저고리 실측도(앞·뒤)>

겉감과 안감을 각각 완성하고 거죽이 맞닿도록 끼워 좌우 수구를 박고 겉깃 가장자리부터 겉섶, 도련, 안섶, 안깃 가장자리를 박되, 고대 부분에 창구멍을 남겨 두고 그 곳으로 뒤집어 완성하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저고리 제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깃에는 풀숨을 얇게 두었으며 고운 홉질로 0.5cm 너비로 가장자리 장식 선을 돌렸다. 저고리 가장자리에는 5~7cm 들어온 지점에 세뿔 상침을 하여 안팎이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시켰다. 특히 도련 부분의 시점은 2cm 내외의 너비로 균일하게 잘라낸 것이 특징이다.

3) 부위별 제작법

① 길 : 겉감 길의 뒷 중심선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시점이 되어 있고 저고리가 완성된 상태에서의 안감은 시점이 겉감 시점과 겹치지 않도록 바느질되어 있다. 도련은 1mm의 뿔으로 4~5mm 간격으로 홉질하였고 도련을 따라 시점을 2cm 정도로 모두 잘라 냈다. 겉감과 안감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쪽 도련과 뒤쪽 도련, 깃, 섶, 수구선 등, 가장자리의 5cm 안쪽으로 7cm 간격을 두고 세 뿔 상침[도 9]을 돌렸는데 상침의 크기는 0.5cm 내외이다.



<도9. 도련선 상침(안감쪽)>

② 셔 : 겹셔는 식서가 길에 달렸고 셔 쪽으로 시접 0.7cm를 셔 방향으로 시접을 보냈으며 길과 깃과 셔이 만나는 점에서 길이 37.5cm이고 바깥 셔선의 길이는 21.5cm이다. 셔과 길이 닿는 점에서 너비 11.6cm이고 밑 셔 도련의 너비는 16.5cm이다. 앞도련선 2.5cm 윗점에서 셔코를 따라 밑 곡선을 만들었다. 안셔는 길 쪽 길이 32cm이고 바깥쪽 길이 15.5cm이며 너비는 상 7.5cm, 하 12cm로 식서는 셔 쪽을 향하였으며 중심선에서 상 2.7cm, 하 1.7cm 안쪽으로 들여서 안셔를 달았다.

③ 소매 : 소매는 진동 28.5cm, 수구 23.5cm로,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일자형이다. 자색 주 35cm 한 폭에 같은 옷감 8cm 폭을 덧이어 소매 길이를 맞추었고 그 끝에는 남색 봉화문단 끝동을 연결하였다. 끝동 연결 부위의 시접은 수구 쪽을 향하였으나 그 외의 소매 시접은 모두 길 쪽을 향했다. 소매 배래의 시접은 뒤쪽을 향하였다.

④ 무 : 진동 아래 ‘ㄱ자형 무’로 높이 18cm, 윗 너비 11cm, 아랫너비 7.8cm이며 무의 가장 잘록한 부분은 진동에서 3cm 내려온 부분의 너비는 5cm이다. 무 밑선 도련은 길과 닿은 부분에서 직선으로 3.5cm 올라간 점에서 곡선을 이루었다.

⑤ 깃 : 깃의 형태는 안팎 모두 내어 달은 목판깃으로, 깃 너비는 9.5cm이고 총길이는 88.8cm이다. 겹셔 끝에서 좌측 고대점까지는 33cm, 고대 19cm, 우측 고대점에서 안셔 끝에 36.8cm이다. 깃에 얇은 풀솜[도10]을 얇게 두었고 깃 가장자리 0.5cm 되는 곳을 돌아가면서 고운 홈질로 솜을 고정시키면서 장식선을 두었다[도 11]. 깃너비 중간에도 7cm 간격을 두고 세 땀 상침을 하였다[도12].



<도10. 깃 폴숨(안감쪽)>



<도11. 깃 가장자리 장식선과
겉고름 바느질(안감쪽)>



<도12. 깃 중간
세뿔 상침(안감쪽)>

⑥ 동정 : 겉깃에서 보이는 동정 너비는 5cm이다. 겉깃 끝에서 15cm 위 지점에서 시작하여 고대점까지 20cm, 고대길이 19cm, 고대점에서 안깃으로 18.5cm로 총 57.5cm이다. 안감 깃에 시접 1cm를 두고 2cm 너비로 접어 달았으며 안감 쪽에서 깃 선을 따라 0.5cm 안쪽에 0.5cm 간격으로 2mm 뿔으로 솜뜨기 하였다.

⑦ 고름 : 겉고름은 소매와 섶과 같은 자색 토주로 만들었다. 겉깃의 끝부분의 너비중심에 시접 0.5cm로 이중 박음질로 부착되어 있으며 왼쪽 고름은 왼쪽 길과 겉깃의 닿는 부분에서 1cm 정도 떨어진 곳에 부착되어 있다. 너비 2cm, 길이 28.5cm로, 양쪽이 같은 크기이다. 안고름은 청록색 주로 만들었다[도13]. 오른쪽 안감 겨드랑이 부분에 일자형으로 달려 있으며 왼쪽 안깃에는 바깥 쪽 모서리 부분에 대각선으로 달려 있다[도14]. 너비 1.4cm, 길이 28cm로, 좌우 고름의 크기는 같으며 길에 0.5cm로 접어서 이중 온박음질로 부착하였다. 겉고름과 안고름의 봉재선은 모두 아래쪽을 향하였다.



<도13. 안고름바느질(좌측)>



<도14. 안고름 바느질(우측)>

4. 왕비 유씨와 관련된 상의류 유물들(참고)

선찰사 왕비 유씨 저고리와 관련 있는 유물로는 해인사 소장 ‘中宮柳氏’ 목서의 홍색 토주 겹장저고리(국가민속문화재)와 ‘권시을유싱’ 목서의 자색 솜 단저고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광해군비 당의(국가민속문화재)> 세 점이 있다.

선찰사 왕비 유씨 저고리는 해인사 소장의 홍색 장저고리와 단국대학교 소장의

당의 안에 입는 상의이다. 선찰사 왕비 유씨의 저고리는 상궁의 저고리에 비해 좋은 소재를 사용하였다는 차이는 있으나 형태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당의형 저고리 두 점은 모두 당코목판것이었으나 왕비와 상궁의 단저고리는 모두 목판것이 달렸다. 따라서 곁에 입는 장저고리 또는 당의가 안에 입는 저고리에 비해 새로운 유행을 더 빨리 받아들여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은주·박윤미,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직물과 왕비 유씨 저고리 고찰」, 『석당논총』 67, 2017.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名選 下』, 2005.
- 문화재청,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 복식·자수편』, 2006.
- 朴聖實, 「回粧赤古리와 肩尔只 再考」, 『美術資料』 54, 國立中央博物館, 1994.
- 정보문화재연구원,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1999.
- 심연옥,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2006.



○ 현 상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1622년 조성한 상 11구 중 1구에 해당한다. 2015년 12월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 과정 중 복장이 발견되었으며, 조선 후기 왕실 관련 불사를 알려주는 자료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 2016년 10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97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안동 선찰사에, 복장유물 일괄은 안동시립민속박물관에 보관중이다.

조사 대상 복장유물은 조성발원문, 후령통 관련 일괄, 저고리, 다라니류, 박상궁 원불 던의디흐나 묵서지편(墨書紙片), 각천비구신호비구주서지편(覺天比丘信浩比丘朱書紙片),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주(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呪) 등 총 83점으로 보고되었으나 전수 조사 결과 16건 81점으로 확인되었다.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목록은 다음 <표1>과 같다.¹²⁷⁾ <표1>에서 복장유물의 일련번호는 복장공 마개를 제외하고 복장 내에서 꺼낸 순서로 작성되었다.¹²⁸⁾

127) <표 1> 문화재청 실사 조사 결과 및 안동시 자체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불교조계종 선찰사 협의 후 최종 수량을 확인한 결과이다.

128) 박은경·한정호, 「安東 仙刹寺 木造釋迦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一括」, 『도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제2차 회의』, 경상북도, 2016.9.22. pp.32~33 ; 송은석, 「1622년 慈壽寺·仁壽寺의 章烈王后 發願 佛事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石堂論叢』 6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pp.19~21.

<표1.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목록>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1	목조석가여래좌상	나무	1	높이 40.3 무릎 폭 28.0	
2	복장공 마감 다라니 (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呪)	紙 (朱書)	1	22.0×17.4	
3	박상궁원불 던의더흐나	紙 (墨書)	1	5.6×32.8	
4-1	覺天比丘信洁比丘	紙 (朱書)	1	5.5×16.1	
4-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15	18.9×24.2 (광곽 8.9×17.0)	
5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3	17.1×23.2 (광곽 8.9×17.0)	
6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2	18.2×22.5 (바깥 원지름 12.8×11.6) (안 원지름 3.0×2.7)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7-1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1	17.5×22.4 (광곽 8.9×17.0)	
7-2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7	18.6×23.9 (바깥 원지름 12.7×11.5) (안 원지름 3.0×2.7)	
8-1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2	18.2×22.7 (바깥 원지름 12.7×11.7) (안 원지름 3.0×2.7)	
8-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1	18.5×24.2 (광곽 8.9×17.0)	
8-3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腹藏眞言)	紙 (墨印)	6	28.8×22.0 (광곽 22.4×12.5)	
9-1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1	17.8×24.2 (광곽 8.9×17.0)	
9-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腹藏眞言)	紙 (墨印)	2	26.3×21.1 (광곽 22.6×12.5)	
10	저고리	絹	1	화장(가로 최대) 143.0 높이(세로 최대) 59.5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11	造成發願文	靑絹 紅書	1	33.5×70.0	
12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5	18.8×23.4 (바깥 원지름 12.8×11.6) (안 원지름 3.0×2.7)	
13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4	19.0×22.0 (광곽 8.9×17.2)	
14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5	19.0×25.2 (광곽 8.9×17.1)	
15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2	18.2×22.9 (광곽 8.9×17.2)	
16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1	19.2×24.6 (광곽 8.9×17.0)	
17-1	喉鈴筒 및 黃絹幅子	혼합 (직물, 금속 등)	1	미개봉	
17-2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朱印)	5	18.8×21.09 (광곽 8.9×17.1)	

연번	지정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17-3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紙 (墨印)	3	19.4×24.5 (광곽 8.8×17.0)	
17-4	方紙圓形다라니	紙 (朱印)	6	17.5×21.3 (바깥 원지름 12.1×12.1) (안 원지름 2.9×2.9)	
17-5	圓紙圓形다라니 (후령통 상부 마감)	紙 (朱印)	2	15.8×13.8 (바깥 원지름 12.8×11.6) (안 원지름 3.0×2.7)	
17-6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후령통 외곽 마감	紙 (朱印)	2	가장 긴 면 23.0 (광곽 8.9×17.0)	

○ 내용 및 특징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복장공(腹藏孔)은 불상의 저면(底面)에 마련하였다. 복장공은 직경 약 10.5cm 정도의 원형 마개로 마감되었으며, 복장공 겉면에는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주를 주서하여 부착하였다. 복장공 내부는 옷칠하여 복장유물을 안립하였다. 복장유물은 조성발원문, 후령통, 저고리, 박상궁원불 던의디흐나 묵서편, 각천비구신평비구주서지편이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다라니로 구성되었다<표 1>.

조성발원문은 청색주(靑色紬)에 주서(朱書)하였다. 이러한 형식을 『조상경(造像經)』에서 ‘靑綃紅書’라 하여 청색 비단에 홍색으로 글을 쓰는 법식과 동일하다.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1622년 5월 26일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가 광해군과 세자, 본인, 대군과 공주, 친가 가족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하여 비로자나불 2구, 석가여래 3구, 노사나여래 3구, 아미타여래 2구, 관음보살 1구, 대세지보살 1구 총 11구의 불상과 불화 7점을 조성하여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에 봉안하였고 조상이력을 밝히고 있다. 목조석가여래좌상의 조성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조각승인 현진(玄眞)을 비롯하여 옥명(玉明), 수연(守衍), 응원

(應元), 법령(法玲), 명은(明崙), 청허(靑虛), 성인(性仁), 보희(寶熙), 인균(印均), 경현(敬玄), 지수(志守), 태감(太鑑), 밀연(密衍), 의인(義仁), 성옥(性玉), 승일(勝一)까지 총 17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그 외에 증명(證明), 화원(畫員), 서기(書記), 사경(寫經), 별좌(別座), 정통(淨桶), 조역(助役) 등 불상 조성에 참여한 소임자를 기록하였다.

저고리는 앞길 50cm(뒷길 49cm)의 단저고리(短赤古里)로 길, 끝동, 그리고 소매와 섶 등이 다른 색의 직물로 제작하여 색의 조합상 회장저고리(回粧赤古里)에 해당한다<표2>.129) 안쪽에 ‘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데, 병자생 왕비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복장으로 안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왕비 유씨는 조성발원문에 기록된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로 추정된다.

<표2. 저고리 목서 및 세부 구성 직물>



저고리 부분	직물 종류	직물 조직
길	무문능	3매 경능직
소매, 무, 깃, 섶, 겹고름	자색토주	평직
끝동	청색화봉문단(靑色花鳳紋緞)	5매 주자직
안감	소색주(素色紬)	평직
동정	소색주(素色紬)	평직
안고름	녹색주(綠色紬)	평직

현재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와 관련된 복식 유물로는 장경관전(藏經板殿) 중수 시 남각 중앙 중도리 받침 아래쪽에서 상량문과 함께 발견된 <광해군 내외 및 상궁 복식>(해인사 정보박물관 소장) 중 <홍색토주겹장저고리>가 있으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광해군비당의>가 있다. <홍색토주겹장저고리>의 안깃 안감에는 ‘丙子生中宮柳氏命衣無病萬歲身如金剛千靈雪消萬福永昌所願如意心神安寧聖神孫繼繼承承’, <광해군비당의>는 동정 안쪽에 ‘丙子生王妃柳氏願命衣’라 목서되었다.130) 3점의 복식 모두 공통적으로 광해군의

129) <표2>의 저고리 부분별 직물의 종류와 조직은 이은주·박운미,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직물과 왕비 유씨 저고리 고찰」, 『石堂論叢』 6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p.52의 [표1]에서 발췌하였다.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박상궁원불 던의디흐나 묵서편은 ‘박상궁의 원불 전(前)에 의대(衣帶, 옷) 하나’를 시주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박상궁의 원불(願佛)이 선찰사 목조석가여래 좌상을, 의대가 ‘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 묵서한 저고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각천비구신호비구주서지편은 NO.4-2 方紙方形다라니(大佛頂首楞嚴神呪)를 감싸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¹³¹⁾ 박상궁, 각천비구(覺天比丘), 신호비구(信浩比丘)는 모두 조성발원문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

복장에 안립된 다라니는 총 3종으로 구분된다<표3>. 방지방형다라니는 주인(朱印), 묵인(墨印)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이다. 대불정수능엄신주는 조선시대 복장에서 단독, 보협진언(寶篋眞言, 寶齒眞言)과 함께 인쇄되기도 하며, 다른 진언들과 함께 확인되기도 하는 등 널리 사용되었던 진언 중 하나이다.

두 번째 방지방형다라니는 대불정수능엄경신주와 함께 『조상경』에 포함된 진언들로 원점을 두어 서로 구분하였다. 『조상경』 관련 진언은 「제불보살복장단의식(諸佛菩薩腹藏壇儀式)」 중 오륜종자(五輪種子, 암·밤·람·함·감), 진심종자(眞心種子, 흙·드락·허릭·악·밤), 사방주(四方呪, 아·마·라·하), 문수사리법인능소정업다라니(옴·바·계·타·나·마·스바·하), 그리고 「묘길상대교왕경(妙吉祥大教王經)」의 서두에 있는 오보병 진언인 동방 마노보병의 금강바라밀보살진언(金剛波羅密菩薩眞言, 옴·사·드바·바·으리·흙), 남방 마니보병의 보생바라밀보살진언(寶生波羅密菩薩眞言, 옴·라·드나·바·으리·드랑), 서방 산호보병의 연화바라밀보살진언(蓮花波羅密菩薩眞言, 옴·달·마·바·으리·허릭), 북방 유리보병의 갈마바라밀보살진언(羯磨波羅密菩薩眞言, 옴·갈·마·바·으리·악), 중방 수정보병의 근본바라밀보살진언(根本波羅密菩薩眞言, 옴·상·가·리·션·디·가·리·우·타·니·카·타·야·살·발·달·사·다·야·스·바·하)의 진언들을 경전의 순서대로 수록하였다.¹³²⁾ 형식에 차이는 있지만 『조상경』의 진언을 수록한 다라니는 조선시대 복장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된다. 세 번째 방지원형다라니는 진언을 원상(圓相)형으로 배치하였다. 전체 진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42수 진언 중 보협수진언(寶篋手眞言)을 포함하고 있다.

130) 이은주·박윤미, 앞의 논문, pp.66~70.

131) 송은석, 앞의 논문, p.22.

132) 이 진언들의 순서는 1824년 유점사 『조상경』을 제외한 모든 판본들이 동일하다. 또한 유점사판에는 중방 수정보병의 근본바라밀보살진언을 ‘옴·상·가·리·션·디·가·리·우·타·니·가·타·야·살·발·달·다·사·다·야·스·바·하’로 표기하고 있어 다른 판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3. 다라니 종류>



조성발원문에서 언급한 11구의 불상 가운데 하나로 확인된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621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보물 제2004호)의 복장에서 다라니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기존 연구 자료에서 언급은 생략되었다. 다만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경우 3종류의 다라니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다라니가 확인되어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복장 다라니가 간략하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4>.133) 조성발원문에 의거, 함께 조성된 불상이라는 점에서 복장도 유사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표4.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 복장 다라니>



133) <표4>에서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 복장 사진은 문명대, 「칠보사 대웅전 1622년작 왕실발원 목 석가불좌상과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 43, 한국미술사연구소, 2014, p.354.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보물 제2004호)의 복장



후령통은 <표1>의 목록 중 NO.17-5 원지원상다라니로 상부를 덮고 NO.17-6의 방지방형다라니(대불정수능엄신주) 2장을 이어 붙여 감싼 형태로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원지원상다라니는 방지원형다라니를 원형으로 잘라 만든 것으로 2매를 사용하였다. 17세기 복장 중 후령통은 황초폭자만으로 포장되거나 다라니, 또는 경전에 감싸인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에서 2종의 다라니 4매를 사용하여 후령통을 감싸고 있는 것도 유사 형식으로 추정된다.

근봉지(謹封紙)는 한지를 사용하였으며, 증명스님의 법명은 생략한 채 ‘謹封’으로만 주서하였다. 근봉지 안쪽에서 말아감은 오색사(청색·홍색·백색·아청색·황색)가 황초폭자를 길게 감고 있으며, 황초폭자의 끝부분은 +자형으로 교차하여 묶었다<표5>. 이러한 형식은 1824년 유점사 『조상경』 「황초폭자내안립차제(黃綃幅子內安立次第)」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¹³⁴⁾ 비록 복장의 안립 시기인 1622년과 1824년 유점사 『조상경』의 간행 시기가 서로 부합되지 않으나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후령통의 형식이 17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일반적인 후령통 안립 형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34) 『造像經』, 「黃綃幅子內安立次第」條, 1824년 楡岾寺.

‘黃綃幅子內先安願文 次安寶篋呪 次安天圓地方所裏喉鈴筒 以黃綃幅子包裹 並以幅子頭及五色線合 而回之曲着於背後 因以五色線 半回豎裏半回橫裏 線盡然後 以准提呪豎封 以法印呪橫封 於南面書證明 稱臣謹封 後 奉安於壇上 誦呪法師 念不動尊眞言 加持一百八遍…既加持已 闕伽供養後 入於佛腹中 正當臍輪而正立 以眞言梵書充滿上下左右 使無欹斜偃仰之境 初入藏之時 徐徐當察南北面背也 奉安於香囊如之也.’

<표5. 1622년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후령통>



황초폭자는 황색주(黃色紬)를 사용하였으며, 식서가 없는 푸서 2면은 접어 바느질하였다. 황초폭자에는 청색·백색·주색 등으로 기록된 범자가 확인된다. 범자의 종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방위색을 적용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조선 후기 황초폭자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당시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령통은 현재 해체하지 않아 정확한 물목 구성과 안립 형식을 알 수 없다.